



明史 外國傳 譯註 · 5

—土司傳·上—

譯註 中國 正史 外國傳 15





# 간행사

동북아역사재단은 전통시대 중국의 정사(正史)에서 외국이나 인근 종족과 관련된 열전(列傳)을 추려 ‘외국전(外國傳)’으로 정의하고, 2007년부터 장기적으로 외국전 전체를 번역, 주석하여 역주서를 발간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기(史記)』부터 『신오대사(新五代史)』까지 각 정사의 외국전을 역주하여 18권으로 출판하였고, 그 뒤를 이어 『송사(宋史)』부터 『명사(明史)』까지의 외국전을 역주하여 순차적으로 출판합니다.

전한(前漢)의 『사기』 이래 중국 왕조에서는 기전체(紀傳體) 형식으로 이전 왕조의 역사를 편찬하여 이를 정사라 하고, 중화민국(中華民國) 시기에 편찬한 『신원사(新元史)』까지 포함하여 ‘25사(史)’라고 통칭하였습니다. 이들 정사에는 이웃 국가나 종족에 관한 기록이 열전으로 별도 편제되어 있습니다. 열전의 명칭은 종족의 이름을 따서 붙이기도 하고, 지역적 구분에 따라 붙이기도 하고, 사방을 중국 중심의 관념체제로 이념화한 ‘사이(四夷)’ 의식에 따라 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외국전’이라는 명칭은 『송사(宋史)』 이후 분명히 나타나지만, 이후에도 ‘외국’과 더불어 ‘사이’, ‘만이(蠻夷)’, ‘외이(外夷)’라는 명칭이 쓰였습니다.

중국 정사를 편찬한 목적은 기본적으로 국가권력으로 통일적 역사인식을 확립하는데 있었기 때문에 그 체제와 내용에 중국 왕조의 입장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이나 다른 종족과 관련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중국 왕조의 시각에서 정리하고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은 외국전에 나타난 외국에 대한 인식이 단순히 당시의 실제 상황

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중심의 당위적 이념을 크게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 정사 외국전은 중국 중심 역사인식, 변경인식, 세계인식의 실체를 담고 있는 자료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동아시아에서 역사 귀속을 둘러싼 갈등이나 분쟁을 해소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공동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역사를 존중하면서 객관적 시각에서 역사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 중국 왕조들이 정사에 ‘외국전’을 두어 상대적으로 풍부한 기록을 남긴 데 비해, 인접 국가나 종족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정리한 역사 기록을 충분히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중국 정사 외국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연구는 전근대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와 문화는 물론, 한중관계를 포함하여 다양한 층위의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역주 중국 정사 외국전은 바로 외국전에 실려 있는 외국의 실체에 대한 이해와 함께, 외국 인식의 이념적 원리와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목적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아울러 다른 국가나 종족에 대한 서술을 통하여 중국 사서에 기록된 한중관계에 관한 내용이 어떠한 이념적 원리에 의해 서술되었는지 파악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사 특히 한국 고대사와 한중관계 연구에 매우 중요한 사료인 중국 정사 ‘조선전(朝鮮傳)’은 이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역주하여 출간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전만으로는 한중관계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중국 정사 외국전 전체의 맥락 속에서 조선전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할 때 전근대 한국의 대외관계 및 한중관계의 실상을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중국 정사 외국전에 대한 전체적인 역주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일입니다. 중국 정사 외국전 기사의 방대한 분량과 원문의 난해함, 걸쳐 있는 시간적 길이와 공간적 폭을 생각할 때, 외국전 전체를 역주하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처음인 만큼 번역상의 오류나 체제상의 미비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역주 중국 정사 외국전은 한문 원사료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고 전근대 동아시아 여러

국가와 종족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여, 전문 연구자에게는 연구 분야의 확대와 연구 수준의 심화를 가능하게 하고, 일반 시민에게는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와 문화 및 교류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중국 정사 외국전은 외국전 상호간에 내용적, 시대적, 지역적 연계성이 두드러져 그 역주에는 개별 작업과 더불어 공동 작업이 병행되어야 하며 그런 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외국전 역주에 참여해주신 학계 연구자들과 재단의 김정희 연구위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역주 중국 정사 외국전이 중국의 역사인식과 세계인식 연구, 민족문제와 변경문제 연구,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관계 연구 등 관련 분야의 연구기반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학문적으로 수준 높은 역주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역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 역주서들이 학문 발전에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2013년 11월 30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학균

## 역자 서문

이 역주서는 전통시대 중국의 정사(正史)에서 외국이나 인근 종족과 관련된 열전을 추려 ‘외국전(外國傳)’으로 정의하고 번역 주해한 것이다. 『송사(宋史)』 이후 열전의 편명으로 나타난 「외국전」만이 아니라 지역, 종족 명칭이 붙여진 모든 열전이 여기에 포함된다. 역대 중국 왕조에서는 기전체(紀傳體) 형식의 정사를 만들어 왔는데, 이것은 『사기(史記)』 이래 ‘25사(史)’ 혹은 『청사고(淸史稿)』도 포함하면 ‘26사’로 근대까지 계속 이어진다. 이들 정사에는 대부분 인근의 종족이나 국가권력과의 관계에 대한 기록이 열전 가운데 편제되어 있다. 그리고 중국의 인접 국가나 종족들은 자신들에 의해 정리된 고대사 기록이 충분하지 못하여 중국 정사의 내용에 의존하여 역사를 복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사기(三國史記)』나 『삼국유사(三國遺事)』의 찬술 때 이들 중국 정사를 이용하기도 하였고, 현재까지도 삼국시대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는 중국 정사의 기록이 매우 중요한 자료로 간주되고 있다.

중국 정사들의 편찬 동기나 과정은 시대별 편차가 없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정사로 흠정되었다. 이에 따라 『후한서(後漢書)』나 『진서(晉書)』가 최종적인 정사로 뒤늦게 확정된 뒤 기왕에 편찬되었던 많은 사서들이 모두 인멸되어 버린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정사의 편찬은 원칙적으로 국가권력에 의한 통일적 역사인식의 확립이라는 의미가 강하였다. 물론 위진남북조시대 각 개별 왕조사와 함께 『남사(南史)』와 『북사(北史)』가 편찬되었고, 신·구의 『당서(唐書)』와 『오대사(五代史)』가

병존하기도 하지만, 이는 왕조적 관점에서 두 가지 정사가 모두 유용하다는 판단에 기인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사의 체제나 내용도 중국 왕조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외국이나 다른 종족과 관련된 부분은 대상 종족의 선택, 그 호칭, 풍습이나 사회구조, 대외관계와 교류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중국 왕조의 시각에서 정리되고 표현되었다. 더욱이 정사라는 역사 서술 체제 자체가 시간과 공간적으로 ‘천하일가(天下一家)’의 왕조적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한 이념적 역사 인식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중국의 다른 기록에 비해서도 중화주의(中華主義)적 관념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중국 정사 외국전은 초기에 ‘흉노(匈奴)’, ‘남월(南越)’, ‘오환(烏桓)’ 등과 같이 종족단위, 혹은 ‘서역(西域)’, ‘서남이(西南夷)’, ‘동이(東夷)’ 등 지역 관념에 입각하여 독립된 열전으로 편제되었다. 그러나 7세기 당왕조(唐王朝)에서 편찬된 정사에서는, 『진서』 「사이전(四夷傳)」, 『양서(梁書)』 「제이전(諸夷傳)」, 『남사』 「이맥전(夷貊傳)」, 『주서(周書)』 「이역전(異域傳)」처럼 외국과 인근 종족을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개념으로 편제되었다. 또 『수서(隋書)』에서는 「동이전(東夷傳)」, 「남만전(南蠻傳)」, 「서역전(西域傳)」, 「북적전(北狄傳)」으로 나누어 사방을 중국 중심의 관념체제로 이념화한 편제를 채택하였다. 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대외관계의 실상보다는 천하질서를 당왕조 중심으로 이념화하여 파악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오대(五代)와 송초(宋初)에 편찬된 『구당서(舊唐書)』와 『신당서(新唐書)』에서는 중국 중심의 사이(四夷) 구분 외에 ‘돌궐(突厥)’, ‘토번(吐蕃)’, ‘회궤(回鶻)’, ‘사타(沙陀)’ 등이 별도의 열전으로 편제되었다. 이는 관념적인 사이의식(四夷意識)과 왕조의 현실적인 대외관계가 혼합된 의식을 반영한다. 특히 당왕조가 자기중심의 천하질서를 강조한 것과는 달리, 오대와 송대에서는 국제질서의 현실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관점에서 당대(唐代)를 서술하면서 나타난 절충적인 인식이었다.

민족국가적 의식이 강한 송대(宋代)에 들어서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입각한 국제관계를 중시하였는데, 이를 반영한 것이 원대에 편찬된 『송사』였다. 여기에 처음으로 ‘외국

전'이란 명칭으로 대외관계를 모두 포괄하는 체제가 나타나, 청초에 편찬한 『명사(明史)』에 이르기까지 정사의 일반적인 편제방식으로 지속되었다. '외국(外國)'이라는 표현은 『사기』에서부터 보이는데, 대체로 '이적(夷狄)', '만이(蠻夷)'와는 구분되는 국가 혹은 종족집단으로, 중국 왕조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범위에 국한하여 사용되는 개념이었다. 적대적인 관계 혹은 전쟁 상황에서는 곧바로 '이적'으로 그 호칭이 변화되었다.

'외국'이라는 개념에는 예적(禮的) 관념도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외국도 만이와 동일하게 직공(職貢)의 주체로 파악되었다. 이는 국제관계의 현실 상황과 이념적인 천하질서의 개념을 이중적으로 설정하는 중화주의 관념의 독특한 수사(修辭)였다. 청대에 편찬된 『명사』에서는 유럽의 국가들도 대거 '외국전'에 포함되는데, 청말에 전통적인 천하질서의 관념과 현실적인 국제관계가 충돌하는 의례분쟁이 나타났던 것은 바로 '외국'에 대한 이러한 이중적 관념이 그 요인이었다.

물론, 이 와중에도 비교적 가치관념이 배제된 외국이라는 개념을 부정하는 기류도 나타났다. 화이(華夷) 관념을 특별히 강조한 구양수(歐陽脩)에 의해 다시 편찬된 『신오대사(新五代史)』에서는 「사이부록(四夷附錄)」이라는 명칭으로 바뀌기도 한다. 또 명초에 편찬된 『원사(元史)』에서는 '외이전(外夷傳)'이라는 명칭을, 민국초에 편찬된 『청사고(淸史稿)』에서는 '속국(屬國)'과 '번부(藩部)'의 개념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이들의 공통점은 한족의 민족적 위기가 커지거나 혹은 중화주의적 관념이 강조되는 시기에 편찬되었다는 점이다. 즉 한족의 위기가 확대되고 중화주의적 관념이 강조될 경우에 외국과 주변 종족에 대한 표현을 감정적으로 비하하는 경향이 확대되었다.

한편, 『송사』에서는 「외국전」 외에 「만이전(蠻夷傳)」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과거 '남만(南蠻)'의 후예인 운남(雲南)·귀주(貴州)·광서(廣西)의 여러 종족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독자적인 정치체제를 확보하지 못하고 생활공동체 단위로 분산 거주하였고, 송왕조의 입장에서는 중앙조정에서 관장하는 국제교류가 아니라 지방조직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외국과 차이가 있었다. 이는 송대에 들어

독립된 정치체제가 확고해진 북방 지역의 종족 상황과는 달리, 남방의 제종족은 종족적 통합이 확대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역대로 남월, 서남이, 남만의 후예로 크게 만이의 범주에 들어 있었지만, 송대에 독립적인 국가권력을 형성하였던 교지(交趾), 대리(大理) 등은 『송사』에서는 「외국전」에 포함되게 되었다.

『명사』에서는 이전에 「외국전」에 편제되어 있던 서역 지역을 분리하여 별도로 「서역전」으로 편제하였다. 명대 들어 서역과의 관계에서 공식적인 교류와 관계가 축소되면서 나타난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송사』에서 「만이전」에 포함되었던 남방의 종족에 대한 기록을 위해 『명사』에서는 새로이 「토사전(土司傳)」을 설정하였다. 토사(土司)는 일정 지역 종족집단의 수령을 명조가 지방관으로 임명한 자로서, 결국 종족집단을 하급 지방으로 포섭하여 더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통치방식은 이미 남조 송(宋), 제(齊) 시기에 시행된 ‘좌군(左郡)’, ‘좌현(左縣)’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명대 들어 토사제도(土司制度)로 남방의 여러 민족에게 통일적으로 시행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가 반영된 정사의 편제는 『청사고』에서도 계승되었다.

이처럼 외국전의 편제가 해당 왕조의 다른 종족이나 국가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 입각하기도 하였지만, 때로는 훗날 편찬 당시의 관념이 반영된 경우도 있었다. 이것은 외국전에 나타난 외국에 대한 인식이 단순히 당시의 실제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중심의 당위적 이념을 위해 편제되고 기술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이를 역주하고자 하였던 것은 정사에 나타나 있는 외국의 실체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 이념의 원리와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이유 때문이다. 즉 이 역주작업은 일차적으로 해당 종족에 대한 연구와 이해를 추구하는 것을 지향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국가와 종족에 대한 서술을 통하여 한중관계(韓中關係)에 대해 중국 사서에 기록된 내용이 어떠한 이념적 원리하에 서술되었는가를 파악하려는 목적도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중국과 여타 국가나 종족의 관계에 주목하고 이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한중관계의 본질과 특징을 규명할 수 있는 근거를 찾고자 한다.

중국 정사 외국전 모두에 대한 전체적인 역주는 기왕에 출간된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 ‘25사’ 중 『신원사(新元史)』를 제외한 ‘24사’가 『이십사사전역(二十四史全譯)』(北京漢語大詞典出版社, 2004)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자세한 주석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단 『사기』, 『한서』, 『후한서』가 별도로 역주본이 출간되어 있고, 고대를 중심으로 하여 「서역전」과 「흉노전」 등 부분적으로 중국, 일본 및 영어의 역주본이 나와 있다. 우리의 역주작업에서는 이들 역주본은 물론 기타 관련연구들은 가능하면 최대한 참고하여 최상의 역주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국내에서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부분만을 모아서 『중국정사조선전역주(中國正史朝鮮傳譯註)』 전5책(국사편찬위원회, 1986~1990)이 출간되어 있다. 이는 매우 상세하게 주석하면서 번역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부분은 이번 역주작업에서는 제외하였다.

이 역주작업은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정확성을 확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공동의 작업으로 진행되었다. 전체 사업의 1차 단계로는 김정희, 김유철, 하원수의 책임하에 『사기』에서 『신오대사』까지를 그 범주로 하여 진행하였고, 이를 이어 2차 단계는 김정희, 박지훈, 송정수의 책임하에 『송사』에서 『명사』까지를 그 범주로 하여 역주원칙을 정하고, 편장별로 역주 담당자를 선정 의뢰하였다. 그리고 일부분의 가역주(假譯註)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 역주원칙을 수정, 확정하였다. 역주작업은 편장별 담당자에 의해 초벌 역주가 진행된 다음 관련 지역별로 나누어 윤독을 통하여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려고 노력하였고, 최종적으로 『송사』에서 『원사』까지는 박지훈과 이근명이, 『명사』는 송정수와 송미령이 각각 교열하였다. 그렇지만 역주에 대한 최종적인 공과는 역주 담당자의 몫이다.

전체적인 역주는 다음의 원칙하에 진행하였다.

첫째, 역주작업은 외국전 전체를 철저히 자료에 근거하여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관념을 한글의 현대적 관념과 용어로 번역한다. 다만, 사서별로 심하게 중복된 부분은 이를 설명하고 차이를 정리한 다음 중복된 부분에 한하여 생략할 수 있다.

둘째, 역주의 텍스트는 원칙적으로 중화서국(中華書局)의 표점교감본(標點校勘本)

을 저본으로 사용한다. 문장의 교감과 표점에 대해 견해를 달리할 경우, 주석을 통하여 이를 설명하도록 한다.

셋째, 역주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두 본문에 한정한다. 중화서국본에 나와 있는 주를 비롯하여 본문에 대한 이전의 주석은 역자의 주석에 포함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주석의 원문을 제시하고 번역한다. 다만, 사실관계의 내용이 많이 포함된 『삼국지(三國志)』 배송지(裴松之)의 주는 원문과 동일하게 역주한다.

넷째, 한자로 표시된 인명과 지명에 대해 번역문에서는 원문을 살리되 주석에서는 당시 현지 언어와 문자에 의한 표현과 발음을 복원하는 데 노력하여 한글 발음으로 적고 괄호 안에 로마자 알파벳으로 표시한다. 특히 지명은 현재의 지명으로 정확하게 고증하도록 한다.

다섯째, 가능한 현대의 개념으로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시대나 지역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특수 용어나 개념 그리고 표현법은 원래의 용어를 번역문에서 살리되 주석을 통하여 현대적 관점에서도 이해가 가능하도록 한다. 인명, 역사적 사건, 종족의 관직이나 사회조직, 풍속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주석에서 전체적인 이해를 돕도록 설명한다.

여섯째, 중국의 문화나 국가권력의 입장에서 설정된 가치 관념이 반영된 표현들에 대해 번역에서는 원문에 충실하되, 주석을 통하여 그 실체를 설명하도록 한다. 특히 이들 종족들의 신화나 전설, 역사에서 중국 정사 외국전의 기술뿐만 아니라 그 종족 식자층까지도 중국의 고전에 입각하여 서술하는 경향이 자주 나타난다는 점에 주의하여, 이에 대한 역사적 실체를 가능한 한 확인하여 주석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일곱째, 외국전 이외에 다른 사서나 정사 내 다른 열전기록 등을 주석에서 보충하고 그 차이를 설명한다. 특히 해당 국가나 종족의 역사기록이나 고고유물을 최대한 검토하여 중국 정사 외국전이 갖는 한계를 넘어서는 이해를 추구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 다른 문헌의 원문을 전재하고 번역하도록 한다. 다만, 내용상 큰 차이가 없을 경우 번역을 생략할 수 있다.

여덟째, 역주는 철저하게 원문의 이해를 돕는 데 한정하고, 세밀한 사항에 대한 주관적 의견은 가능하면 배제한다. 다만, 학계에서 논란이 되는 문제는 대표적인 참고문헌과 함께 이를 소개한다.

아홉째, 각 편별로 해당 종족의 실상에 대한 간단한 소개, 편장 전체의 줄거리와 구성 그리고 저술과정의 특징, 이전 정사와 중복된 부분이나 차이, 사료적 가치 등을 설명하는 〈해제〉를 포함한다. 아울러 말미에 참고문헌을 덧붙이고, 〈연표〉, 〈세계표〉와 〈지도〉를 작성하여 본문의 이해를 돕도록 한다.

2013년 11월 30일

김유철·하원수·박지훈·송정수·김정희

# 일러두기

1. 역주문의 순서는 저본의 문단 단위로 한문 원문을 앞에 두고 이어서 본문 역주를 배치한다.
2. 원문의 구두점은 중화서국 표점본의 체제를 따르되, 전각기호는 모두 반각기호와 띄어쓰기로, ‘.’은 ‘.’로, ‘,’는 ‘.’로 바꾼다. 서명과 인명에 대한 기호는 없앤다.
3. 번역은 직역을 원칙으로 하되, 문투를 어색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가급적 현대적 표현으로 바꾼다. 번역문에서 내용의 이해와 문맥의 순조로운 연결을 위해 말을 보충할 경우에는 [ ]에 넣어 처리하고, 부연설명일 경우에는 ( )에 넣는다.
4. 번역문의 문단은 기본적으로 저본에 따르지만, 한 문단이 너무 길어 읽기에 불편한 곳은 단락 전체의 내용 이해에 곤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문단을 나눈다.
5. 번역문도 원본의 표점과 구두에 맞추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전체적인 문장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에 따라 문장을 끊어 번역할 수 있다.
6. 모든 번역문은 한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명, 지명, 국명, 서명, 개념어, 역사적 용어 등의 경우, 그 의미가 명확해질 수 있도록 ( )에 한자를 병기한다. 주석문의 경우 전문가를 대상으로 내용 이해에 중점을 두기 위해 국한문을 혼용한다.
7. 번역문과 주석문에서는 일반적으로 한글의 구두점을 사용한다. 서명은 『 』로, 편명은 「 」로 표기한다.  
예1) 『史記』「西南夷傳」, 편명 안에서 내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史記』「西南夷傳」〈노래명〉  
‘노래구절’  
예2) 주석문의 사례: 원문은 ‘必’인데 안사고는 그 뜻이 ‘極’이라고 했다. 그에 따라 해석하였다  
([顔]師古曰, “必, 極也. 極保之也”).
8. 번역문이나 주석문에서 황제나 인물 그리고 연호에 대해 그 생졸년이나 재위 기간 등을 ( )에 병기하여 이해를 돕는다.  
예) 광무제(光武帝: 劉秀, 전6~후57; 재위 25~57), 유흠(劉歆, ?~25), 영제(靈帝: 劉宏, 재위 168~189)
9. 왕조명(王朝名)은 번역문에서는 원문의 표현법을 따르고, 주석문에서는 前漢, 後漢, 曹魏, 孫吳, 蜀漢, 西晉, 東晉, 劉宋, 南齊, 梁, 陳, 北魏, 北周, 北齊로 통일한다.

10. 번역문의 숫자 표기방법은 일, 십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을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지만, 관용적이거나 포괄적인 범위를 나타내는 경우 원칙상 한글로 표기한다(예: ‘천만 인’, ‘팔십만 병사’, ‘천승지국’).
11. 번역문에서의 연도 표시는 ‘본문의 연도표기법(서력기원)’으로 표기한다. 연월일(年月日)이 모두 나타날 경우 사료에 표시된 대로 음력을 그대로 표기하되, 정월, 이월, 시월 등의 표현으로 음력임을 나타낸다.  
예) “건초(建初) 원년(76)”, “원봉(元封) 6년(전15) 시월 5일”, “영수(永壽) 3년(157, 후한 환제)”
12. 주석의 항목이 인명, 지명, 관명, 역사적 사건, 개념어 등 구체적인 용어에 해당될 경우, 이를 먼저 표기하고 쌍점을 찍은 뒤 설명하여 이해의 편의를 돕는다.  
예) 吳起: 전국시대 군사전략가.
13. 주석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과거 주석가들의 주석내용이나 다른 문헌을 소개하는데, 그 내용의 요점을 정리하여 설명한다. 자세한 소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문과 함께 제시하고 번역문을 병기한다. 이때 보기 편하도록 괄호 안에 원문을 제시하거나 해설을 첨가할 수도 있다.  
예1) 賁布: 李賢注에서는 『說文解字』를 인용하여 南蠻의 賦라고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晉代 戶調之式이다. 戶調之式에서는 “丁男之戶, 歲輸絹三匹, 絲三斤, 女及次丁男爲戶者半輸. 其諸邊郡或三分之二, 遠者三分之一. 夷人輸賁布, 戶一匹, 遠者或一丈.” (『晉書』 卷26 「食貨志」: 790)로 규정하고 있는데, 夷人賁布가 戶當 1匹이라고 하여, 賁布는 전국시대 이래 1匹로 고정된 것으로 보인다.  
예2) 武谿: 李賢은 『後漢書』 다른 곳의 주석에서 武谿는 강이름으로, 辰州 盧谿縣에 있다고 하였다 (『後漢書』 卷18 「吳蓋陳臧列傳」: 695). 史書에선 ‘武溪’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 武陵의 五溪 중의 하나이다. 五溪는 沅水유역의 雄溪, 櫛溪, 辰溪, 酉溪, 武溪를 가리키는데, 蠻夷의 거주지로 이를 五溪蠻으로 불렀다(『南史』 卷79 「夷貊」 下 〈荊雍州蠻〉: 1980).
14. 주석과정에서 다른 문헌을 인용하거나 참고문헌이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단순히 병기하고 반드시 말미의 〈참고문헌〉에 그 책의 자세한 서지사항을 밝힌다. 이때 쌍점(:) 뒤의 아라비아 숫자는 쪽수를 의미한다. 제자서나 유교 경전일 경우 권수와 쪽수를 생략한다. 다만, 사전이나 일반적인 공구서에 나와 있는 연대나 단순한 사실에 관한 설명은 특수한 내용이 아닌 경우 구체적 근거를 생략하되, 〈참고문헌〉에는 그 책을 포함시킨다.  
예) (方國瑜, 1927: 34~39), (內藤湖南, 1944: 55), (다니카와, 1988: 37~40), (디코스모, 2005: 123), (Hartwell, 1977: 12), (『南史』 卷79 「夷貊」 下 〈荊雍州蠻〉: 1980), (『鹽鐵論』 卷14 「論功篇」, “刻骨卷木, 百官有以相記.”), (『孟子』 「梁惠王」)

# 차 례

- 
- 명사 토사전 해제 .....21
  - 호광토사 시주·영순군민선위사사·보정주군민선위사사전  
해제 / 29  
토사(土司) / 35  
호광토사(湖廣土司) / 47  
시주(施州) / 59  
영순군민선위사사(永順軍民宣慰使司) / 88  
보정주군민선위사사(保靖州軍民宣慰使司) / 103  
참고문헌 / 115

- 
- 사천토사 1 오몽오살동천진웅사군민부 · 마호 · 건창위 · 영번위 · 월수위 ·  
염정위 · 회천위 · 무주위 · 송반위 · 천전육번초토사 · 여주안무사전  
해제 / 121  
사천토사(四川土司) / 124  
오몽오살동천진웅사군민부(烏蒙烏撒東川鎮雄四軍民府) / 128  
마호(馬湖) / 182  
건창위(建昌衛) / 187  
영번위(寧番衛) / 197  
월수위(越雋衛) / 198  
염정위(鹽井衛) / 200  
회천위(會川衛) / 203  
무주위(茂州衛) / 204  
송반위(松潘衛) / 214  
천전육번초토사(天全六番招討司) / 240

---

여주안무사(黎州安撫司) / 248

참고문헌 / 256

- 사천토사 2 파주선위사·영녕선무사·유양선무사·석주선무사전

해제 / 261

파주선위사(播州宣慰司) / 265

영녕선무사(永寧宣撫司) / 309

유양선무사(酉陽宣撫司) / 337

석주선무사(石砮宣撫司) / 343

참고문헌 / 349

## [중권 차례]

- 운남토사 1 운남 · 대리 · 임안 · 초  
웅 · 징강 · 경동 · 광남 · 광서 · 진  
원 · 영녕 · 순녕 · 몽화 · 맹간 · 맹  
정 · 곡정전

해제  
참고문헌

- 운남토사 2 요안 · 학경 · 무정 · 심  
전 · 여강 · 원강 · 영창 · 신화 · 위  
원 · 북승 · 만전 · 진강 · 대후 · 난창  
위 · 녹천전

해제  
참고문헌

- 운남토사 3 면전 · 간애 · 노강 · 남  
전 · 망시 · 자락전 · 차산 · 맹련 · 리  
마 · 뉴올 · 동당 · 와전 · 축와 · 산  
금 · 목방 · 맹양 · 차리 · 노과 · 팔백  
전

해제  
참고문헌

- 귀주토사 귀양 · 사남 · 진원 · 동인 ·  
여평 · 안순 · 도균 · 평월 · 석천 · 신  
첨

해제  
참고문헌

## [하권 차례]

- 광서토사 1 계림·유주·경원·평양·오주·심주·남녕전

해제  
참고문헌

- 광서토사 2 태평·사명·사은·진안·전주·은성·상룡·도강전

해제  
참고문헌

- 광서토사 3 사성·이주·용주·귀순·향무·봉의·강주·사릉·광동

경주부부전

해제  
참고문헌

연표

지도

색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명사(明史)』 토사전 해제

중국의 서남 변경지대에는 오래전부터 묘족(苗族)·요족(瑤族)을 비롯해서 수많은 소수민족이 거주해왔다. 역대 이래로 이들은 스스로를 서로 군장(君長)이라 칭해왔는데, 주나라 무왕(武王) 때 맹진대회(孟津大會)를 계기로 중원 왕조와 관계를 가진 이후 초(楚)나라 장교(莊驕)가 전(滇)의 왕이 되고, 진(秦)나라가 오척도(五尺道)를 개척하여 관리를 두었으며 한(漢)나라 무제(武帝)가 도위(都尉)와 현(縣)의 속료를 두었지만 여전히 그들 스스로를 지키도록 했다. 주변 민족에 대한 이와 같은 통치방법은 당대(唐代)에 들어와 기미정책(羁縻政策)으로 발전하였는데, 혹자는 이를 토관(土官), 토리(土吏)의 시작이라고도 일컫는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토사제(土司制)의 시작은 선위사(宣慰司)·선무사(宣撫司)·안무사(安撫司) 등의 관서를 설치하여 순복(順服)하는 각 민족의 지배자를 토사의 관원에 임명하여 자율적으로 통치를 허락한 원(元)나라 때로 보고 있다.

토사제는 일반적으로 이전의 기미제도 정신을 이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토사제나 기미제 모두 중국이 직접 통치하기 어려운 변경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국 정부가 각 민족의 지배자들에게 관직을 수여하고 직위를 세습케 하여 그들의 습속에 따라 자치를 허용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로 할 것이다. 그렇지만 기미제 하에서는 소수민족과 새외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중국이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크게 달랐고, 중앙정부의 예측이 강한 기미주(羁縻州)마저도 공납(貢納)을 하는 게 보통이었다. 이에 반해 토사는 일정한 부역(賦役)의 액수를 정하여 납부하게 하였거니와 필요에 따라 군대의 징발도 행하는 등 기미주보

다도 중앙정부에 대한 예측도가 훨씬 강하였다. 또한 원대부터 시작된 토사제는 이후 명대(明代)에 들어와 보다 넓게 확장되어 시행되었거니와 세부적인 내용이 갖추어지면서 더욱 제도적으로 완비되어갔다.

원대 이전만 하더라도 각 토사의 직은 토관(土官)과 유관(流官)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임명하였다. 그렇지만 명대에 이르러서는 선위사(宣慰使)·선무사(宣撫使)·안무사(安撫使) 등 토관에 오로지 소수민족의 수령만을 임명하였으며, 반드시 세습하도록 하였다. 또한 토사의 관직에 이들 무관직(武官職)만이 아니라 중원 내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 한화(漢化)의 정도가 빨랐던 지역의 경우에 군민부(軍民府) 하에 토지부(土知府)·토지주(土知州)·토지현(土知縣) 등 문관직(文官職)의 토관을 임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종래 무관직은 병부(兵部)의 무선청리사(武選淸吏司)의 관리 하에 각 성(省)의 도지휘(都指揮)에 예속시켰는가 하면 문관직은 이부(吏部)의 험봉청리사(驗封淸吏司)의 관할 하에 각 성의 포정사(布政司)에 예속시켜 운용하였다. 그리고 이들 토관의 세습과 교체는 반드시 명 왕조의 명을 받들어 행하도록 했으며, 비록 만리(萬里) 밖 먼 곳에 있다 하더라도 모두 궐에 직접 이르러서 직위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중국의 통치가 직접 미치지 않는 지역과 민족은 「외국열전」에, 중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족은 「만이(蠻夷)열전」에 편목유차(篇目類次)하는 방식이 『송사(宋史)』에 채택된 이래 여러 정사는 대체로 이러한 방식을 따랐고 『명사(明史)』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렇지만 명대에 들어와 서역과의 관계가 변화되면서 투르키스탄, 티베트, 이란 및 서남아시아 지역을 외국전에서 분리해 「서역전(西域傳)」이라는 별도의 전을 세웠거니와 종래 「만이전」에 포함시킨 남방 소수민족에 대한 내용을 새롭게 「토사전(土司傳)」이라는 편목을 세워 서술했다. 이는 위에서와 같이 명대에 들어와 소수민족 집단의 수령을 지방관으로 임명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토사제도가 확립되어 통일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명조는 홍무(洪武) 초 귀부해온 서남 지역 소수민족 수령에게 원래의 관직을 제수하면서 토사제를 확립하여 이들을 지배해나갔는데 11개의 선위사, 9개의 선무사, 20개의 안무사, 1개의 초토사, 173개의 장관사를 설치하고 이 밖에 군민부 하에 토지주, 토지현 등 많은 문관직 토관을 두었다. 바로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사』 「토사전」에 망라되어 있거니와 지역에 따라 호광(湖廣)·사천(四川)·운남(雲南)·귀주(貴州)·광서(廣西)의 순으로 나누어 기술되어 있다.

이들 각 토사전에는 각 소수민족의 역사적 연원과 복속(服屬), 세습이나 지위의 승강(昇降),

진공(進貢) 및 군대의 징발 등 일반적인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지만 아래에서는 각기 특징적인 점만을 열거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맨 앞의 호광토사전은 악서(鄂西) 지역의 시주위 군민지휘사사(施州衛軍民指揮使司)와 상서(湘西) 지역의 영순군민선위사사(永順軍民宣慰使司), 보정주군민선위사사(保靖州軍民宣慰使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특징적인 점을 들자면, 호광 지역은 소수민족의 구성이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토사전에 비해 매우 단출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호광 지역에 대한 명조의 군사적 정벌은 귀주나 사천, 운남 등지에 비해 빨랐거니와 한화(漢化)도 비교적 빨랐으며, 이와 관련해서 명 왕조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이었다는 점이다. 호광 지역 여러 토사들의 명조에 대한 조공 횟수가 다른 지역 토사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는 것은 이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명조에 정복된 이후 호광의 토사들은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른 지역 토사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명조가 이들을 토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호광 지역 토사들의 군대를 징발했던 사례가 많이 보이는 것 역시 이를 보여준다. 이 밖에 왜구들을 격퇴하는 데에도 호광 지역 토사들이 많은 군대를 파견하였거니와 토사 일족이 한꺼번에 전사한 사례도 보인다.

다음으로 사천토사전은 사천성 변두리에 설치된 여러 토사들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천토사전<sup>1</sup>에는 사천의 남부이자 운남, 귀주와 접경하고 있는 지역에 설치된 오몽(烏蒙)·오살(烏撒)·동천(東川)·진웅(鎭雄)의 네 군민부와 마호(馬湖)·건창위(建昌衛) 등 서남부에 설치된 토사, 서북부에 설치된 무주위(茂州衛)와 송반위(松潘衛), 그리고 서부에 설치된 천전육번초토사(天全六番招討司)·여주안무사(黎州安撫司)에 대해 기술되어 있고, 사천토사전<sup>2</sup>에는 사천 동남지역에 설치된 파주(播州)선위사를 비롯해서 영녕(永寧)·유양(酉陽)·석주(石砮) 등 세 선무사를 기술하고 있다. 사천토사전의 특징은 명조 지배에 대한 무력 투쟁을 끊임없이 전개하였다는 점이다. 토관직의 계승이나 주도권 장악에 명조의 개입이 많았는데, 이에 대해 자주권을 지키려는 토사들의 저항이 내용의 주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개토귀류 정책의 추진과 맞물려 명조와 토사 양자의 충돌은 절정에 달하였는데, 홍치(弘治) 8년(1495) 토지부 안오(安鰲)의 처형사건, 성화(成化) 원년(1465)부터 일어난 도장만(都掌蠻)의 반란 등은 그 현저한 예이지만 만력삼대정(萬曆三大征)의 하나로 일컫는 만력 19년(1591)에 일어난 파주의 선위사 양응룡(楊應龍)의 난은 그 대표적인 사건이라 할 것이다. 이 같은 명조에 대한 저항은 명말 천계(天啓), 숭정(崇禎) 연간까지 이어져 사송명(奢崇明)의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운남토사전은 전성(滇省)의 대부분 지역에 소수민족이 잡거(雜居)하였던 것으로 성 전체에 분포되어 설치된 토사의 내용을 담고 있다. 때문에 운남토사전은 편의상 전체 49개의 행정구획과 연계하여 그 관할하는 곳을 묶어 서술하고 있거니와 그 수효가 대단히 많아 운남토사1·2·3 세 부분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운남토사1에는 진지(滇池)와 이해(洱海)를 중심으로 한 운남성 중심 지역으로 중원 내지의 영향을 비교적 일찍부터 받아 한화의 정도가 빨랐던 운남부, 대리부(大理府) 등 15개 부에 속한 토사에 대해 기술하고 있고, 운남토사2에는 운남 중심 지역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요안(姚安)·학경(鶴慶)을 비롯한 15개 부(府)와 주(州)에 속한 토사에 대해서, 그리고 운남토사3에는 주변 국가와 접경하고 있는 먼전(緬甸)·간애(干崖)·노강(潞江) 등 19개 행정구역에 속한 토사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운남토사의 특징적인 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다양성이라는 점이다. 먼저 한화의 정도가 비교적 빨랐던 중심 지역에는 크기에 따라 토부·토주·토현 등 다양한 토사를 설치하였거니와 유관을 두고 토관으로 하여금 이를 보좌토록 했는가 하면 어느 지역은 유관과 토관을 공동으로 참여시켜 다스리도록 했다. 그런가 하면 주로 소수민족만이 거주하는 변방지역은 그 크기에 따라 선위사·선무사·안무사·장관사 등을 설치하였거니와 무관직의 토관을 임명하여 다스리도록 했다. 이 밖에도 명초 운남 지역을 평정하면서부터 서평후(西平侯) 목영(沐英)이 이곳에 진수(鎮守)하여 위세를 크게 떨쳤거니와 이후 그의 후손들이 서평후의 작위를 세습하여 명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 내용, 녹천(麓川)의 선위사 사임발(思任發)의 난이 주변에 영향을 미친 내용이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토관의 계승은 아들이 없으면 동생이, 아들과 동생이 없으면 처와 며느리가 계승하였는데, 여성 토관이 업무를 담당한 사례가 많이 보이는 것도 운남토사전의 특징이라 하겠다.

귀주는 운남·신강(新疆) 지역 다음으로 소수민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성 전역에 걸쳐 소수민족이 잡거했거니와 귀주토사전은 귀양(貴陽)·사남(思南)·사주(思州)·진원(鎮遠)·동인(銅仁)·여평(黎平)·안순(安順)·도균(都勻)·평월(平越)·석천(石阡) 등 여러 부(府)에 속해 있는 토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귀주토사전의 특징으로는 각 토사에 관한 내용 맨 앞에 공통적으로 소속에 관한 연원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귀주와 도균은 원래 사천에 속해 있다가 귀주성으로, 안순은 운남에 소속되었다가 사천에 예속된 후 다시 귀주성으로, 사남·사주·진원·동인·여평·석천은 원래 호광에 속했다가 귀주성으로 예속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귀주포정사사가 다른 지역보다 늦은 영락(永樂) 11년(1413)에서

야 설치되었고, 검지(黔地)라 부르는 이 지역은 원대에 호광·사천·운남 행성(行省)에 속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역의 양대 토사인 사남과 사주 두 전(田)씨의 원한과 다툼이 귀주성 건립의 원인이 되었기에 이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또한 이 지역의 소수민족들은 명 홍무 연간(1368~1398)부터 명말에 이르기까지 간헐적이지만 끊임없이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귀양에서 나라(羅羅)족이 일으킨 안방언(安邦彦)의 난, 진원과 동인, 여평에서 일으킨 묘족(苗族)의 저항, 도균에서 일으킨 흑묘(黑苗)의 저항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이들에 대한 진압과 회유에 관한 기술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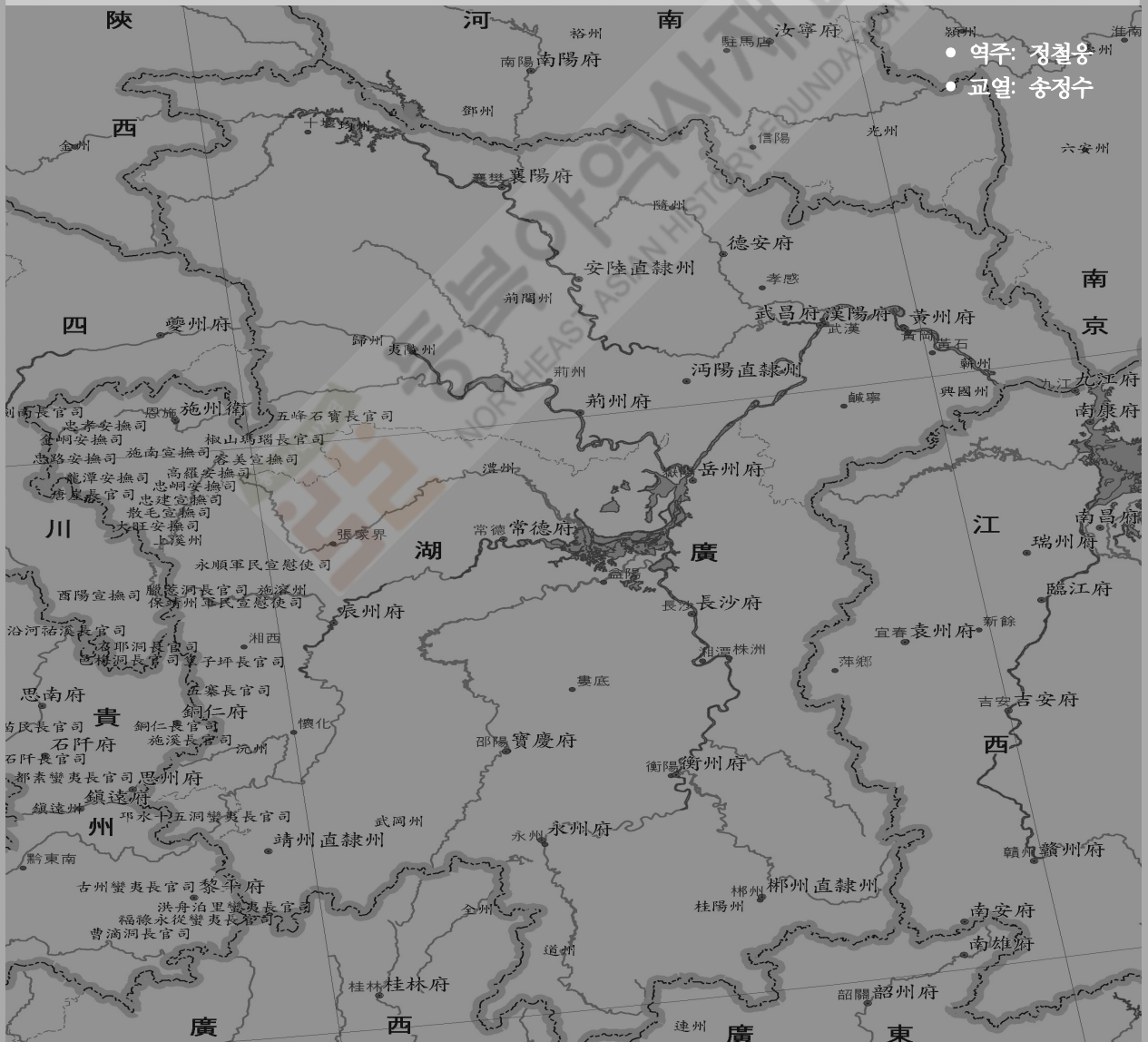
광서토사전은 요족(瑤族)과 동족(僮族) 등 광서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소수민족 가운데 세력이 강한 민족들을 3개의 권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즉, 광서토사1에서는 계림(桂林)·유주(柳州)·경원(慶遠) 등 7개 지역, 광서토사2에서는 태평(太平)·사명(思明)·사은(思恩)·진안(鎮安)·전주(田州) 등 8개 지역, 광서토사3에서는 사성(泗城)·이주(利州)·용주(龍州) 등 8개 지역에 속해 있는 토사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들 지역 토사는 그 세력이 운남의 토사들과 비슷하다고 할 정도이고, 역시고 사남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명 조정이 이 지역을 장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으리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사실 광서토사전에는 수많은 반란과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의 지면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 지역의 특성이나 풍속에 관한 내용은 거의 보이지 않는데, 이는 당시 이들 소수민족에 대한 명조의 이해가 깊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리고 광서토사전의 내용 가운데 태평과 사은, 이주와 용주 지역은 한나라 때 교지(交趾)에 속한 지역이었고, 전주는 한 무제(武帝)가 남비엣(Nam Viet)을 정복한 후 설치한 교지군에 속했던 지역이라는 사실은 흥미롭다. 특히 사명은 명초에 안남과의 갈등이 고조될 때마다 언급되는 지역으로 『명사』 「안남전(安南傳)」과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이 지역에서 개토 귀류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지 못했던 원인이 안남과 접해 있다는 지역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점 역시 앞으로 검토해볼 만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명사』 「토사전」은 명대 중원에 복속된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거니와 명대 변방 소수민족에 대한 제반 정책과 여러 가지 생활 방식 및 습속 등을 이해하는 데 많은 사례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자료라 할 것이다. 그렇지만 「토사전」은 주로 중화주의(中華主義)적 입장에서 소수민족의 자율성을 배제한 채 명조와의 관계만

을 일방적으로 서술해놓고 있다. 예컨대 미얀마 떠웅우(Taungoo) 왕조를 개창했던 타빈슈웨티(Tabinshwehti)를 단순히 면전(緬甸)의 선위사 망서체(莽瑞體)로 표기하고 있거니와 그마저도 망응룡(莽應龍, Bayinnaung), 망응리(莽應裏, Nanda Bayin) 등과 혼동해서 기술해놓고 있으며, 만(蠻)과 위(僞)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여 소수민족과 명 왕조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들 지역에 대한 명조의 기본 시각은 안정과 복속이었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관심과 언급은 거의 없거니와 오히려 이들 지역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어떻게 질서를 회복하고 개토귀류를 단행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때문에 토사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명조 입장에서 서술된 본 토사전에 대한 내용을 역으로 소수민족의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토사전」의 내용은 명실록을 비롯해 각 지역의 지방지에 수록된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쓰였지만 생략된 부분이 많거니와 심지어는 역사적 사실은 물론이고 인명이나 지명, 연대 등 잘못 기재된 부분도 매우 많다. 따라서 본전의 내용을 자료로 이용할 경우 반드시 실록이나 지방지 및 여타 관련 자료를 견주어 정확한 내용을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주·영순군민선위사사·  
보정주군민선위사사전  
(施州·永順軍民宣慰使司·  
保靖州軍民宣慰使司傳)

명사(明史) 권310 호광토사(湖廣土司)





# 「시주·영순군민선위사사·보정주군민선위 사사전(施州·永順軍民宣慰使司·保靖州軍 民宣慰使司傳)」 해제

중국 역사상 한족(漢族)은 새외민족과의 무력 투쟁이나 갈등 혹은 정치적 타협을 통해 자신의 영역을 확대해왔지만, 반대로 새외민족도 중국 왕조와 한족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널리 알려진 이러한 역사적 현실은 한족의 고유 영역이 매우 가변적이었다는 당연한 사실을 말해준다. 한편 새외민족과 관련된 역사시대 중국 국경의 이런 변화와는 별도로, 중국 본토 내에서도 한족의 정치적 영향력이 사실상 미치지 않거나 제한적인 곳이 많이 존재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현재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족의 통치가 역사적으로 볼 때 매우 유동적이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데, 바로 『명사(明史)』의 토사(土司) 관련 내용은 역사시대 내내 한족이 우위를 지켰다는 일반론을 재고하게 하는 중요한 단서이다. 이런 점에서 『명사』 토사전은 현재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변방 지역 동요에 대한 역사적 원인을 알 수 있는 간접 자료이기도 하다.

『명사』의 호광토사(湖廣土司) 관련 부분은 운남성(雲南省)과 귀주성(貴州省), 혹은 사천성(四川省)에 비해 서술 분량이 많지 않은 편이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오랜 시기 동안 많은 소수민족이 위의 세 성에서 살아온 탓에, 그곳의 소수민족 수효가 호남성(湖南省)과 호북성(湖北省)보다 많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 해도 『명사』에 등장하는 호광 지역 소수민족의 존재 양태와 실상은 명대 토사 제도의 전반적인 특징과 함께 귀주나 운남 지역 토사와는 다른 독특한 양상을 동시에 보여준다.

당(唐)·송(宋)시대 주변 민족에 대한 정책이 기미제도(羈縻制度)라면, 원(元)·명(明)시대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이 바로 토사제도(土司制度)이다. 기미제도는 어느 정도 주변 민족의 자율성을 보장해준 한편, 주변 민족끼리의 상호 경쟁을 방임하는 분할통치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토사제도는 소수민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세습이나 지위의 승강, 진공(進貢), 군사 징발 등에 관한 자세한 규정이 존재한다. 『명사』 토사전은 바로 명 왕조가 소수민족에 대해 시행한 이러한 통제 정책의 일단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토사제도가 이처럼 강제적인 규정 속에 소수민족을 가두고 그것을 관찰하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명대 토사제도는 군사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사실을 『명사』 호광토사전을 통해 우선 알 수 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선위사, 선무사, 안무사 등은 무직(武職)이며 모두 병부(兵部) 관할이었다는 점이 토사제도가 지닌 군사적 성격의 일단을 잘 말해준다.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예는 명 왕조가 토사제도를 기본적인 지방 군사제도인 위소제도(衛所制度)와 연결시켜 운용했다는 점인데, 당시 호광토사의 구성을 통해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명대 위소제도는 각 지역의 국방을 담당하는 일선 군사기구였다. 『명사』 권90 「兵」 2에 등장하는 “그 중요한 지역을 헤아려 한 군(郡)에 설치한 것을 소(所)라 하고, 여러 군에 있는 소를 합쳐 위(衛)를 만들었다”라는 기술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한 위에는 약 5,600여 명 정도가 있었으며, 위의 장관을 지휘사(指揮使)라 불렀다. 이러한 장관을 통할하는 지방의 최고군사기구를 도지휘사(都指揮司, 보통 都司로 약칭한다)라 했는데, 홍무 26년(1393) 중국 전역에는 모두 17개의 도사가 있었으며, 영락 연간(1403~1424) 이후 그 수효는 21개로 증가했다. 바로 호광 지역의 여러 토사들은 이러한 도사 가운데 하나인 호광도지휘사(湖廣都指揮使司) 관할에 있었다.

그러나 호광 지역은 호광도사 외에도, 형(荊)·양(襄) 유민 반란이 발생한 이후 성화(成化) 12년(1476)에 운양부(鄖陽府)를 설치했으며, 아울러 운양위(鄖陽衛)와 함께 호광행도사(湖廣行都司)를 다시 두었다. 이어 가정(嘉靖) 21년(1542)에 설치된 흥도유수사(興都留守司)를 합친 세 도사가 명대 호광성의 중요한 군사기구였다. 물론 본문에 등장하는 호광토사에 대한 서술은 호광도사 휘하의 영순군민선위사사(永順軍民宣慰使司), 보정주군민선위사사(保靖州軍民宣慰使司), 시주위군민지휘사사(施州衛軍民指揮使司), 구계위군민지휘사사(九谿衛軍民指揮使司)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 가운데 영순군민선위사는 남위(南渭)·시용(施溶)·상계(上溪)의 3개 주(州)와 남야동(蠟惹洞)·맥저황동(麥著黃洞)·여달동(驢達洞)·시용계(施溶溪)·백애동(白崖洞)·전가동(田家洞)의 여섯 장관사를, 보정선위사는 대강(大江)과 소강(小江) 등의 18개 촌寨(村寨)만을 거느리다가 이후 간자평(竿子坪)·오寨(五寨)라는 두 장관사

를, 구계위지휘사는 안복(安福)·첨평(添平)·마료(麻寮)의 천호소(千戶所) 셋과 상식안무사(桑植按撫司) 하나를 각각 거느렸다.

한편 그 규모가 가장 큰 시주위지휘사에는 일단 대전군민천호소(大田軍民千戶所), 시남선무사(施南宣撫司), 산모선무사(散毛宣撫司), 충건선무사(忠建宣撫司), 용미선무사(容美宣撫司), 진남장관사(鎭南長官司), 당애장관사(唐崖長官司)가 있었다. 다시 시남선무사는 동향오(東鄉五路)·충로(忠路)·충효(忠孝)·금동(金洞)·중동(中洞)의 다섯 안무사, 산모선무사는 용담(龍潭)·대왕(大旺)의 두 안무사, 충건선무사도 충동(忠洞)·고라(高羅)의 두 안무사, 용미선무사는 초산마노(椒山瑪瑙)·오봉석보(五峰石寶)·석량하동(石梁下峒)·수진원통탑평(水盡源通塔平)의 네 장관사를 두었다. 이러한 일련의 구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명 왕조는 토사를 통제하기 위해 명대 고유의 군사제도를 원용했다. 특기할 만한 점은 토사들을 이용해 이 지역 일대의 치안을 담당시켰던 정황이다. 본문에 등장하는 마료천호소나 대전군민천호소의 역할은 이처럼 토사지역 자체를 방어하는 데 있었다. 이는 토병(土兵)이 이른바 ‘이진만이(以鎭蠻夷)’의 역할도 수행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방 치안을 담당했던 순검사(巡檢司)의 궁병(弓兵) 중에도 토인(土人)들이 있었다는 점도 매우 시사적이다.

군사적인 통제 외에도 소수민족에 대한 명 왕조의 통제가 잘 드러나는 사안은 두말할 나위 없이 소수민족의 세습에 대한 개입과 조공이다. 소수민족은 해당 장관의 유고시 조카나 형제가 일차적으로 그 지위를 계승했으며, 그런 조카나 형제도 없을 경우 처첩(妻妾)이 세습했던 정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때마다 명 왕조는 예외 없이 그 적절성을 따져 세습을 허락했다. 또한 삼년일공(三年一貢)이 대원칙이었던 조공제도 역시 전형적으로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조공을 사이에 둔 부정행위나 지나친 가렴주구의 현상도 등장한다. 이어 학교를 설립해 토사 지역의 문화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려 했던 명 왕조의 노력도 서술되어 있는데, 이 두 제도야말로 토사를 통제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었다. 굳이 말하자면 조공의 목적이 형식적이고 물질적인 의무와 관련이 있다면, 학교 제도의 강제는 토사들의 정신세계를 개조하려는 데 있었다.

『명사』 호광토사 서술에는 다른 지역 토사와는 다른 호광토사의 고유의 특성도 드러나 있다. 일례로 사천토사와 비교한다면 호광토사는 그 구성이 매우 단출했다. 전체 조직뿐 아니라 사천성에는 존재하는 토부(土府), 토주(土州), 토현(土縣) 등도 호광토사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여러 지역 토사들의 다양한 존재양태를 조명한 연구가 아직은 나와 있지 않은 탓에,

그러한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를 정확히 지적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호광 지역의 소수민족 구성이 복잡하지 않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일찍부터 명 왕조의 정치적 통제를 받았던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예는 호광토사에 등장하는 주요 토사들의 성씨이다. 즉 영순과 보정선위사의 팽씨(彭氏), 시남과 산무선무사 등의 담씨(覃氏), 용미·충동·충건·목책·용봉 등의 전씨(田氏), 요과동·상하애차동·납벽동 등의 상씨(尙氏)가 호광토사의 주요 성씨였다. 이러한 상황은 사천 지역에만 적어도 9개 성씨, 운남에 12개, 귀주에 17개의 유력 성씨가 존재했던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이는 호광 지역의 한화(漢化)가 상대적으로 빨랐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본문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유학에 조예가 깊은 학자들을 많이 배출한 용미토사(容美土司)의 전씨일가(田氏一家)가 그 좋은 예이다.

둘째, 호광 지역 토사는 명 왕조와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황은 호광토사에 대한 군사적 정복 시기를 통해 알 수 있다. 주원장이 호광토사를 군사적으로 통합할 수 있게 된 계기는 홍무(洪武) 4년(1371) 사천의 명하(明夏)정권을 멸망시킨 이후이다. 본문에 등장하는 주덕흥(周德興)과 더불어 남웅후(南雄侯) 조용(趙庸) 등을 파견해 상식(桑植), 용미 일대와 담후(覃垕) 등을 차례로 진압한 시기가 이 무렵이다. 그 후 홍무 5년(1372)에 등유(鄧愈) 등이 산모 등 36동을 평정해 악서(鄂西) 일대 토사가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홍무 연간 내내 전개된 이런 군사적 정벌로, 대략 영락(永樂) 연간(1403~1424)에 이르면 명 왕조는 호광 지역의 토사를 정치적·군사적으로 장악하게 된다.

물론 사천이나 귀주 지역에 대한 군사작전도 홍무 초년에 전개되었지만, 귀주와 호광 지역의 상황은 꽤 달랐다. 그 이유는 귀주 지역을 실질적인 내지로 인식하게 된 계기는 영락 11년(1413)의 대대적인 군사정복 작전 이후부터였기 때문이다. 즉 귀주 지역 토사에 대한 군사적 승리는 호광토사보다 늦었으며, 군사 작전의 규모도 귀주 지역이 훨씬 컸다. 더구나 사천의 파주선위사(播州宣慰使) 양응룡(楊應龍)의 경우나 명 홍무 연간(1368~1398)에 반란을 일으킨 운남의 사윤발(思倫發) 이후 적어도 정통 연간(1436~1449)까지 사임발(思任發)과 사기발(思機發)의 반란이 지속적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하면, 명초 호광토사 지역에 대한 성공적인 통제는 호광토사의 성격을 알게 해주는 중요한 단서라 하겠다.

따라서 호광 지역의 토사는 일찍부터 명 왕조에 우호적이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적극적으로 군사를 징발한 상황이 빈번히 확인된다. 이런 면에서 명 왕조는 다른 토사보다 호광토사를

좀 더 각별하게 대했으며 둘 사이의 갈등도 비교적 크지 않았다. 흔히 토사들은 공물로 특산물  
을 바쳤지만, 영순토사가 바친 삼목(杉木)처럼 동일 품목을 빈번하게 조공한 예는 흔하지  
않았다. 또한 도장만(都掌蠻)의 토벌과 같은 다른 소수민족 정벌이나 하남성(河南省) 수평(遂  
平) 일대에서 일어난 유삼(劉三)의 반란 등에 군사를 동원했던 예도 운남이나 사천 등의  
토사에서는 쉽게 찾을 수 없다. 더구나 왜구 격퇴에 많은 병사를 파견했을 뿐 아니라, 토사  
일족이 한꺼번에 전사한 일이야말로 호광토사와 명 왕조의 우호적인 관계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적어도 명대 호광토사가 명 왕조에 실질적으로 복속되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호광토사가 이처럼 명 왕조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사실을 알려주는 또 다른 정황은  
용미토사의 조공 횟수이다. 본문에는 용미토사의 조공 횟수나 정황이 모두 드러나 있지 않  
지만, 명대 용미토사는 총 40번에 걸쳐 조공했으며 영순선위사가 37번, 시남선무사가 34번을  
각각 조공했다. 그러나 『명사』 토사전에 등장하지 않는 토사의 수효도 20여 개가 넘을 정도로  
많은 토사가 존재했던 사천의 경우 석주선위사(石砮宣慰司)가 48차례 조공했을 뿐, 나머지  
토사들의 조공 횟수는 그리 많지 않다. 이런 호광토사의 정황은 토사 수효가 가장 많았던  
운남 지역과도 매우 대비된다. 특히 운남 지역은 29번의 조공을 했던 차리군민선위사(車里軍  
民宣慰使)를 제외하면 거의 대다수 토사들의 조공 횟수는 5번 미만이며, 1~2번에 그친 경우가  
빈번하다.

셋째, 각 토사별 고유한 정치 상황과 그 변화를 알게 해주는 단서들이 호광 지역 토사전에  
등장하는 점이다. 물론 이런 점이 『명사』 토사전에 자세히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호광토사에  
등장하는 각 토사별 서술 내용을 거칠게 요약하자면 영순과 보정 관련 서술은 그들이 명  
왕조를 도와 다른 지역을 정벌했던 내용이 대부분이다. 반면 시주위 관련 서술은 적어도  
토사 문제를 거론할 때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등장한다. 즉 시주위 관할  
토사들의 형성과정은 물론이고 토사들에 대한 토벌, 토사와 관련된 지역 방어, 토사들의 승강,  
토사들 사이의 갈등, 조공 문제 등이 주된 서술 내용이다. 이런 서술상의 차이는 분명 각  
토사들에 대한 명 왕조의 차별적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이런 사실은 앞으로 토사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명 왕조는 호광 지역 토사들에 대해 이른바 기미지도(羈縻之道)를 충실  
하게 연장한 정책을 펼쳤으며, 나름의 성공을 거둔 지역이라고 하겠다. 또한 다른 지역과는

달리 특히 영락과 선덕 연간(1426~1435)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이런 안정적인 관계 덕분에 본문에 등장하는 운남과 사천 토사들에 대한 내용이 주로 이들 지역에서 일어난 반란 진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호광토사의 서술은 오히려 당시 토사제도의 특징을 짐작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들이 중심이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정사류(正史類)에서 종종 등장하는 것처럼, 호광토사 관련 자료에는 지명이 잘못되었거나 인명의 생존 연대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된다. 역사적 사실이 잘못 서술된 예도 찾아볼 수 있다. 그 이유는 토사 문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시도하고 있는 첫머리에서 드러나듯이 토사와 관련된 여러 사실을 압축해서 서술한 탓이 크다고 하겠다. 다른 한편으로 이런 현실적인 문제 외에도 『명사』 토사전이 지닌 사료의 성격과도 분명 연관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 자료의 성격과 관련해 『명사』가 청대에 편찬되었다는 사실은 소수민족에 대한 고민이 어느 정도 해소된 시점에서 서술되었음을 뜻한다. 그리고 이런 시각 탓에 청 왕조는 소수민족과 관련된 자질구레한 사안에 굳이 신경 쓰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물론 청 왕조도 강압적인 정책의 여파로 청 중엽에 소수민족 지역에서 잦은 반란이 발생했지만, 명 왕조와 비교한다면 고민의 내용과 성격은 분명 달랐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소수민족 고유의 생활방식이나 인종 자체에 대한 관심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점도 『명사』 토사전의 주요한 약점이다.

이런 사료상의 한계가 있지만, 『명사』 호광토사전은 명대 토사가 지닌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호광토사전의 내용은 넓게는 중국 왕조와 토사라는 이질적인 정치체제 사이에서 빚어진 갈등뿐 아니라, 중국 제국 내의 또 다른 중국으로 존재해 온 소수민족 지역의 역사적 특징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 「시주·영순군민선위사사·보정주군민선위 사사전(施州·永順軍民宣慰使司·保靖州軍 民宣慰使司傳)」역주

土司

토사

西南諸蠻，有虞氏之苗，商之鬼方，西漢之夜郎·靡莫·邛·笮·僂·獯之屬皆是也。自巴·夔以東及湖·湘·嶺嶠，盤踞數千里，種類殊別。歷代以來，自相君長。原其爲王朝役使，自周武王時孟津大會，而庸·蜀·羌·髳·微·盧·彭·濮諸蠻皆與焉。及楚莊躋王滇，而秦開五尺道，置吏，沿及漢武，置都尉縣屬，仍令自保，此卽土官·土吏之所始歟。

서남 [지역의] 여러 만족(蠻族)은 유우씨(有虞氏)<sup>1)</sup> 시대의 묘족(苗族),<sup>2)</sup> 상(商)<sup>3)</sup> 나라 때

- 1) 有虞氏: 중국 五帝 중 한 사람인 舜帝를 말한다. 그 거주지역의 위치는 山西省 남쪽과 河南省 서북지역 일대였으며, 당시 都城은 蒲坂(현재 山西省 運城市와 永濟市 일대)이었다. 『史記』卷1 「五帝本紀」 1에 따르면, 舜帝가 즉위한 후에 농업과 어업이 시작되었으며, 특히 도자기를 사용했다고 한다.
- 2) 苗族: 중국 소수민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족의 하나인 묘족의 자취는 이미 甲骨文에도 등장하지만 『史記』卷1 「五帝本紀」 1에 따르면, 堯帝 당시 江淮와 荊州 일대의 三苗가 여러 차례 난을 일으켰다는 기록으로 보아 적어도 殷·周 시대 이전에 長江 유역 일대에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묘족들 가운데 吳, 龍, 石, 麻, 寥 五姓이 이른바 眞苗라 알려져 있으며, 相, 施, 彭, 張, 洪氏는 외족이 그들과 편입되어 오랜 세월이 지난 후, 그들과 동화된 존재였다(鄂西土家族苗族自治州民族事務委員會 編, 1986: 60). 현재 그들은 湖北, 湖南, 四川, 雲南, 貴州, 廣西 壯族自治區에 대부분 분포하며, 廣東省에도 일부 묘족이 살고 있지만, 貴州省 한 성에만 전체 묘족 인구의 약 48.8%에 해당하는 약 400만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의 귀방(鬼方),<sup>4)</sup> 서한(西漢)<sup>5)</sup> 시대의 야랑(夜郎)<sup>6)</sup> · 미막(靡莫)<sup>7)</sup> · 공(邛)<sup>8)</sup> · 작(荝)<sup>9)</sup> · 북(𡇗)<sup>10)</sup> ·

한편 호남성에도 약 180만(21.9%)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호북성에는 약 26만(3.17%)명이 살고 있어 묘족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吳榮臻 主編, 2007(권1): 41). 이처럼 그 거주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동일한 묘족 내에서도 언어가 달라 대략 5개의 방언을 지니고 있다(다바타 히사오 등, 2006: 232~233).

- 3) 商: 중국의 夏 왕조를 뒤이은 왕조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정확한 존속 연대에 대한 견해는 학자들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저명한 중국 고대사가인 데이비드 케이틀리(David N. Keightley, 1999: 232)는 商나라의 존속 기간을 전1570~전1045년으로 잡고 있는 반면, 중국 학계는 전1600~전1046년으로 상정하고 있다. 한편 대만 학계에서는 董作賓 교수의 견해를 받아들여 商의 존속기간을 전1766~전1111년으로 잡고 있다. 중국 학계와 데이비드 케이틀리가 모두 殷 멸망 시기를 전1045년 혹은 전1046년으로 잡고 있는 반면, 董作賓 교수가 전1111년을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지배계층보다는 卜辭를 내리는 계층의 변화를 더 중시했기 때문이다. 이런 차이에도 商나라는 紂王이 周 武王 11년(전1046) 牧野戰鬪의 패배로 멸망했다는 사실에는 큰 이견이 없다. 고고학적으로는 河南 龍山文化나 후기 신석기시대에 속했던 商은 종교를 근간으로 나라를 통치했으며, 비교적 완비된 정치조직과 함께 농경활동이 시작되었다. 무엇보다 중국 역대 왕조 가운데 본격적인 문자 기록을 남긴 최초의 왕조였다.
- 4) 鬼方: 商·周 시기 陝西省 서북부, 山西省 북부와 內蒙古 서부지역에 살았던 소수민족을 말한다. 商代 武丁 시기에 鬼方을 정벌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일찍부터 中原과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昆戎, 昆夷 등의 명칭과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 5) 西漢: 전206~후9년까지 존속한 왕조로서 劉邦이 창건했으며 수도는 長安이었다. 9년 王莽이 황위를 찬탈해서 新(9~23년)을 세운 후, 다시 들어선 東漢과 구분하기 위해 보통 西漢으로 지칭한다(단 여기서는 西漢을 前漢으로 東漢을 後漢으로 통일해서 기술한다). 儒學의 정립, 비단길 개척, 상업의 확대, 북방 墾地 농업의 정착 등을 통해 중국 여느 역대 왕조보다 번영과 강성함을 누렸지만, 말기에 환관과 외척의 전횡으로 멸망했다.
- 6) 夜郎: 戰國 시기에 시작해서 前漢 成帝 河平 연간(전28~전25)까지 대략 300년간 존속했던 옛 나라 명칭이다. 위치는 현재 貴州省 서부와 북부, 그리고 雲南省 동북부 및 四川省 남부 일대에 있었다. 夷族, 濮族, 羌族 등을 모두 夜郎이라 통칭했으며, 현재 彝族, 布依族, 仡佬族 등은 이 夜郎國에서 연원했다. 司馬遷의 『史記』 卷116 「西南夷列傳」에 등장하는 “西南夷君長以什數, 夜郎最大”라는 문장으로 보아 중국 서남지역 일대에서 꽤 강력한 세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劉邦이 項羽와 내전을 치를 당시, 야랑 지역의 왕인 竹王 多同이 涿水(北盤江)에서 반란을 일으켰으며, 이 반란으로 秦나라가 이 일대에 설치한 행정조직이 와해되었다(Yves Hervouet, 1964: 79). 이 지역이 다시 중국의 행정조직에 편입된 시기는 武帝 建元 6년(전135) 武帝가 唐蒙을 파견해서 多同을 招撫하고 郡縣을 설치한 이후였다.
- 7) 靡莫: 고대 서남지역에 살았던 소수민족 중 하나이다. 서남지역에 살았던 다른 소수민족과 마찬가지로 靡莫에 대한 여러 설이 존재하는데, 일부 연구자들은 미막이란 명칭이 매우 광범위한 여러 민족들을 지칭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에버하르트(W. Eberhard)는 滇 지역에 존재했던 부족과 마찬가지로 白蠻 그룹에 속한다고 주장했다(Yves Hervouet, 1964: 111 참조).
- 8) 邛: 司馬遷의 『史記』 卷116 「西南夷列傳」에 따르면 “自滇以北君長以什數, 邛都最大. 此皆魍結, 耕田,

찬(蠻)<sup>11)</sup>의 종족이 모두 그들 [서남 만족]이다. 파(巴)<sup>12)</sup>와 기(夔)<sup>13)</sup> 이동(以東) [지역]에서 호(湖)<sup>14)</sup>·상(湘)<sup>15)</sup>·영교(嶺嶠)<sup>16)</sup>에 이르기까지 수천 리에 (걸쳐) 반거(盤距)<sup>17)</sup>했으며, [부

有邑聚”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 부족은 雲南省 북쪽에 위치해 있었으며, 농경을 실시하고 도시를 형성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邛都 지역은 이전 시기 臨邛이라 불렸던 邛崃縣 일대로서 현재 四川省 成都에서 남서쪽으로 약 60km 떨어진 지점이다(Yves Hervouet, 1964: 36, 113 참조).

- 9) 笮: 이 지역에 대해서 司馬遷은 “自嶓以東北, 君長以什數, 徙笮都最大”라고 언급했다. 그 정확한 위치를 사마천이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嶓 동북지역이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대체로 四川과 西藏의 경계 지역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다만 ‘徙’라는 명칭으로 미루어 고대 漢語에서 그 발음이 같았던 ‘斯榆’ 일대를 가리킨다는 주장이 존재하며, 일부 학자들은 ‘徙’라는 단어가 ‘嶓’의 다른 글자라고도 주장한다(Yves Hervouet, 1964: 119). 한편 ‘笮’ 지역의 위치는 ‘徙’ 지역보다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전285~전275년 사이에 張若이란 인물이 笮 지역을 점령했는데, 이곳은 李冰이 四川省에 수리시설을 건설한 成都 일대 지역에 해당한다. 한편 『後漢書』 卷86 「南蠻西南夷列傳」에 따르면, 前漢 武帝 당시 笮都郡을 설치했는데 다시 元鼎 6년(전111)에 沈黎郡으로 되었으며, 天漢 4년(전97) 四川省 서부 일대를 합병해서 都尉를 두었다는 설명이 나온다.
- 10) 僰: 현재 四川省 남쪽과 雲南省 동부지역 일대에 살았던 소수민족으로서, 서남지역 소수민족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집단이었지만, 司馬遷은 僰人을 언급하지 않았다. 史書의 기록에 따르면 春秋와 戰國시대 초기부터 周 왕조는 그들과 대치했으며, 前漢 초기에 이르러 이 지역에 僰道를 설치했는데, 그 중심지는 宜賓縣이었다. 漢代부터 이 지역은 物産이 매우 풍부한 곳으로 알려져, 많은 漢族들이 거주했다.
- 11) 爨: 현재 雲南 滇池 일대에 존재했던 소수민족으로, 爨氏는 彝族 가운데 유력가층이었다. 諸葛亮이 南征을 단행할 당시, 以夷制夷 정책을 실시하면서 그 세력이 확대되었다. 東晉 시기 혼란의 와중에서 이 지역의 爨氏들이 일어나 唐 貞元 10년(794)까지 약 400여 년 동안 雲南 일대를 다스린 일화는 유명하다.
- 12) 巴: 『華陽國志』 「巴志」의 설명에 따르면, ‘巴’의 지리적 범위는 동쪽으로는 현재의 重慶 일대, 서쪽은 宜賓, 북으로는 陝西省 漢中, 남으로는 湖北·湖南·貴州가 인접하고 있는 지역을 의미했다. 이 지역에는 巴子國이 존재했는데, 전477년 楚나라 惠王에게 대패한 후 그 세력이 축소되었다.
- 13) 夔: 四川省 夔州府 일대를 말한다.
- 14) 湖: 여기서는 현재 湖北省 일대를 의미한다.
- 15) 湘: 湖南省을 의미한다. 호남성을 남북으로 흐르는 湘江의 존재 때문에 호남성을 ‘湘’이라고 별칭한다. 이 湘江은 광서성 동북부 興安과 靈川 일대의 海洋山에서 발원하는 탓에 상류는 海洋河라고 부르며, 호남성 永州에서 瀟水와 합쳐지면서 湘江이라 칭한다. 이어 衡陽, 湘潭, 長沙를 거쳐 湘陰縣에서 洞庭湖로 들어가며 총 길이는 817km이다.
- 16) 嶺嶠: 五嶺을 의미하는데, 五嶺은 江西省 大庾縣 남쪽의 大庾嶺, 湖南省 藍山縣과 廣東省 南雄縣에 걸쳐 있는 都廢嶺, 湖南省 郴州市의 驕田嶺, 역시 湖南省 永州 관할 江華 瑤族 자치구와 廣西省 賀州에 걸쳐 있는 萌渚嶺, 광서성 興安縣 북쪽에 있는 越城嶺을 말한다. 이상의 위치에서 알 수 있듯이, 영교는 대체로 서남지역 일대 소수민족이 살았던 산악지역 일대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 17) 盤距: 넓은 땅을 차지한 채, 굳게 뿌리내리고 거주하는 양상을 말한다.

죽의] 종류가 서로 매우 다르다. [그런 이유 때문에] 역대 이래, 스스로 각지의 군장(君長)이 되어 왔다. 그들이 [중원] 왕조에게 사역(使役)하게 된 근원을 살펴보면 주(周)<sup>18)</sup>나라 무왕(武王)<sup>19)</sup> 당시 [거행된] 맹진(孟津)의 대회맹(大會盟)<sup>20)</sup> 이후부터였는데, 용(庸)<sup>21)</sup>·촉(蜀)<sup>22)</sup>·강(羌)<sup>23)</sup>·몽(蒙)<sup>24)</sup>·미(微)<sup>25)</sup>·노(盧)<sup>26)</sup>·팽(彭)<sup>27)</sup>·복(濮)<sup>28)</sup> 등의 여러 만족이 모

- 18) 周: 殷나라를 멸망시키고 등장한 중국 고대 왕조를 말한다. 전1046~전256년까지 30대에 걸쳐 37명의 왕이 존속했다. 周나라는 전771년에 犬戎이 幽王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西周(수도는 현재 陝西省 西安 부근인 鎬京)가 멸망하고, 이듬해 유왕의 태자인 宣王(平王)가 수도를 현재 河南省 洛陽인 洛邑으로 이전한 왕조를 東周라 부른다. 동주는 다시 春秋시대와 戰國시대로 나뉘는데, 춘추시대의 시작과 종말을 전770~전476년과 전770~전401년으로 각각 달리 설정하고 있다. 전자는 司馬遷의 「六國年表」가 시작되는 시기를 戰國시대의 개시로, 후자는 趙, 魏, 韓의 세 姓이 周 왕조로부터 정식으로 제후로 인정되는 시기를 각각 전국시대의 개시로 간주한다. 東周 시기에 해당하는 春秋戰國시대는 각 나라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부국강병책을 시행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많은 사상가들이 출현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중국 역사상 가장 역동적인 시대 가운데 하나였다.
- 19) 武王(전1087~전1043): 西周의 창건자로서 이름은 姬發이며, 周 文王의 둘째 아들이다. 殷의 紂王을 牧野의 전투에서 패배시키고 전11세기 중엽에 周 왕조를 건립했다.
- 20) 孟津大會: 文王 사후, 왕위를 계승한 武王은 姜太公을 軍師로 임명하고, 周公旦에게 政事를 맡기는 한편, 수도를 豐京에서 鎬京으로 옮기는 등 文王의 사업을 계승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가운데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고 주변 제후들의 충성도를 시험하기 위해 孟津(현재 河南省 孟津)에서 闕伯 의식을 거행했는데, 이를 일러 孟津觀兵이라 한다. 당시 약 800여 명의 제후가 참여했다고 전해진다.
- 21) 庸: 周나라 武王이 商을 멸망시킬 당시, 현재 湖北省 竹山縣과 房縣 일대에 존재했던 庸國을 가리킨다. 그들은 武王의 紂王 정벌에 참여했으며, 西周 銅器에도 ‘庸人’이라는 글자가 등장하는 것으로 미루어, 상당히 오래전부터 호북성 서북지역에 존속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史記』 卷40 「楚世家」에는 『括地志』를 인용해서 “房州竹山縣, 本漢上庸縣, 古之庸國. 昔周武王伐紂, 庸蠻在焉”이라 기록하고 있다. 周나라 당시 호북성 서부와 서북부 일대에 존재했던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는 張正明 外, 1999: 264~272 참조.
- 22) 蜀: 四川省을 의미하는 별칭이기도 하고, 三國時代 蜀漢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周代 四川省 成都 일대에 존재했던 제후국을 말한다. 전316년에 秦나라 惠王이 蜀을 멸망시킨 후, 蜀은 秦의 중요한 식량 보급지가 되었다. 蜀 멸망 후 蜀人の 일파인 安陽王이 현재 越南 북부에 새로운 왕조를 세워 약 100년간 지속되었다.
- 23) 羌: 좁은 의미로는 중국 고대 서부지역에 살았던 소수민족을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고대 서부지역의 유목민을 통칭하기도 한다. 이 羌族은 여러 부류가 존재하며, 고대 시기 戎族의 일부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西周의 幽王을 멸망시킨 戎族도 羌族의 한 부류라 할 수 있다. 그들이 살았던 陝西, 甘肅, 寧夏, 新疆 일대를 秦 昭王이 점령한 후, 隴西와 北地 등 5郡을 설치했다.
- 24) 蒙: 중국 고대 서남지역, 특히 四川 남부와 雲南 북부 일대에 존재했던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이다.
- 25) 微: 商末~西周 시대에 지금의 陝西省 眉縣 일대에 존재했던 제후국을 말한다. 武王이 紂王을 정벌할

두 참여했다. 초(楚)나라<sup>29)</sup> 장교(莊蹻)<sup>30)</sup>가 진(滇)<sup>31)</sup>의 왕에 오르고, 진(秦)<sup>32)</sup>나라가 오척도

당시 참여했던 8개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다만 ‘微’와 ‘眉’자의 발음이 동일하다는 의미에서 四川省 眉山 일대를 지칭한다는 설도 있다.

- 26) 盧: 商~春秋 시기까지 湖北省 襄陽 일대에 존재했던 제후국의 하나로 통치자들의 姓은 嬌氏였지만, 일반민들 대다수는 戎人이었기 때문에 盧戎 혹은 盧戎으로 불렸다. 周 武王의 紂王 정벌에 참여한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한때 지리적으로 인접한 羅國(호북성 宜城縣)과 연합해서 楚나라 군대를 공격하기도 했지만, 전611년에 楚나라에게 멸망당했다. 일찍이 清代 지리학자인 顧祖禹는 盧國의 위치를 湖北省 南漳縣 일대로 추정했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에는 襄陽縣(지금의 湖北省 襄樊) 서쪽의 泥嘴鎮 부근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27) 彭: 商代에 존재했던 方國의 하나로 지금의 江蘇省 徐州에 있었다. 大彭 혹은 彭祖氏라고도 부르며, 기록에 따르면 堯舜시대의 大臣인 錢鏗의 공을 높이 사 堯帝가 西周 일대를 하사한 이후 그가 大彭國의 선조가 되었다고 한다. 武丁 시기에 商나라가 이 지역을 토벌했다.
- 28) 濮: 商나라 당시 지금의 江漢 평원 일대에 존재했던 중국 고대 민족을 의미하며, 武王의 紂王 정벌에도 참여한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이들이 세웠다는 濮國에 대해서는 다음 두 설이 있다. 첫째, 周 왕조 당시 濮인들이 세웠던 百濮國으로서 현재 湖北省 石水縣 일대에 있던 나라를 의미한다. 石水縣의 百濮國은 春秋末~戰國初에 楚나라의 雄氏가 세운 나라로서 이후 이 나라 사람들을 濮人이라 했으며, 百濮이라는 나라 명칭이 姓氏가 되었다고 한다. 한편 또 다른 百濮國은 雲南省 남부 思茅 지역 일대에 있었던 것으로, 商·周 시대에 이곳 토착민들을 濮人이라 불렀으며, 周나라 武王이 商을 정벌하고 이 지역을 封國으로 삼아 그 명칭을 百濮國이라 했다는 주장이다.
- 29) 楚: 지리적으로는 湖北省과 湖南省을 지칭하는 말이며, 周 왕조 당시 戰國七雄의 하나였던 제후국을 가리킨다. 공식적으로 楚나라가 건립된 시기는 熊通이란 인물이 자신의 조카를 죽이고 권력을 잡은 후 熊通 37년(전704) 왕으로 등극한 이후이다. 이 熊通이란 인물이 楚나라 초기 토대를 마련한 武王(?~전690; 재위 전740~전690)이다. 武王 사후, 그의 아들인 熊賁가 文王으로 등극해 지금의 江漢 평원 일대를 비롯한 주변 나라를 정복했다. 『史記』卷32 「齊太公世家」에 “是時周室微，唯齊楚秦晉爲彊。晉初與會，獻公死，國內亂。秦穆公僻遠，不與中國會盟。楚成王初收荊蠻有之，夷狄自置。唯獨齊爲中國會盟。”이라는 기록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楚나라 成王 당시인 전7세기 중엽 무렵 이미 상당히 강성한 나라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楚 莊王 시기인 전606년에 華北 지역 일대에 대한 정벌에 나서는데, 세력이 강력해져 春秋五霸의 하나가 되었다. 이어 戰國시대에 이르러서는 悼王 당시인 전390년 무렵 衛나라 출신인 吳起를 令尹으로 채용해서 부국강병책을 실시한 결과 다시 강성해졌다. 그러나 『史記』卷69 「蘇秦列傳」에 등장하는 “楚強則秦弱，秦強則楚弱，其勢不兩立.”이라는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中原의 秦과 끊임없이 대치했으며, 전278년에 秦의 대대적인 침입을 받았다. 당시 三閭大夫로 있던 屈原이 汨羅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화가 남아 있다. 공식적으로는 전223년에 秦에게 멸망당했다.
- 30) 莊蹻王: 서남지역 일대 소수민족 연구에서 많은 논란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다. 司馬遷 『史記』卷116 「西南夷列傳」에는 “始楚威王時，使將軍莊蹻將兵循江上，略巴黔中以西。莊蹻者，故楚莊王苗裔也。蹻至滇池，方三百里，旁平地，肥饒數千里，以兵威定屬楚。欲歸報，會秦擊奪楚巴黔中郡，道塞不通，因還，以其衆王滇，變服，從其俗，以長之。”라 적혀 있다. 따라서 莊蹻王이 滇池를 정복한 정학

(五尺道)<sup>33)</sup>를 개척해서 관리를 두었으며, 이를 이어 한(漢)<sup>34)</sup> 무제(武帝, 전156~87; 재위

한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여기서 등장하는 楚 威王은 전340~전329년 사이에 재임했으므로 莊蹻는 대략 전4세기 중엽의 인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滇池 일대의 공략에 성공한 후 귀환 도중에 楚를 침입한 秦나라를 피해 다시 滇池 지역으로 돌아갔다는 기록으로 본다면, 莊蹻가 滇池 일대를 원정한 시기는 전277년이다. 이런 점에서 동일한 내용에 약 100여 년의 시차가 나는 사건이 같이 들어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 문제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전4세기 중엽의 사건은 秦나라 惠王(전354~전311; 재위 전337~전311)이 당시 재상인 張儀를 시켜 서남지역 일대(巴蜀 지역)를 정벌한 사건을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Yves Hervouet, 1964: 72~75). 따라서 『史記』의 기록은 이후 楚나라 頃襄王 당시인 전298~전290년에 莊蹻가 반란을 일으켜 郢都에 들어갔다가 실패해서 滇池로 가 滇王이 된 사건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장교의 구체적인 정복 지역에 관련된 문제이다. 위 인용문에는 ‘江上’ 혹은 ‘黔中’이라는 말이 등장하므로 長江 일대와 貴州省 등을 점령했다고 볼 수 있으며, ‘王滇’이라는 단어를 통해 최후에 그는 雲南省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대시기에 ‘江’이란 단어가 단독으로 사용될 경우 반드시 長江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華陽國志』와 같은 자료에는 그가 沅江까지 거슬러 올라갔다는 기록이 등장하므로 그의 원정 지역이 의외로 넓었다는 사실로도 해석할 수 있다.

- 31) 滇: 중국 雲南省의 별칭이다. 雲南省은 중국 서남지역에 위치한 省으로서, 면적은 약 39만km<sup>2</sup>이며, 2010년 현재 인구는 약 4,600만 명이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秦始皇이 6國을 통일한 후, 雲南 동북부에 五尺道를 개척했으며, 전109년에 漢 武帝가 郭昌을 파견해서 益州郡과 24개 縣을 개설했다. 三國시대에는 南中이라 불렸으며, 唐·宋 시기에는 南詔國과 그를 뒤이어 大理國이 존재했던 곳이었다. 1253년에 쿠빌라이가 雲南을 정벌한 후, 1276년에 雲南行省을 설치해 비로소 雲南이란 명칭이 등장했다. 明 太祖 朱元璋도 洪武 14년(1381)에 傅友德 등을 파견해서 이 지역을 점령해야 할 정도로 중국 내지와는 전혀 이질적인 곳이었으며, 많은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 32) 秦: 春秋戰國시대 周나라의 제후국이었으며, 이후 전221년 천하를 통일하고 중국 최초의 황제국가를 건설했다. 華夏族이 서쪽으로 이동해서 세운 나라이며 姓은 嬴氏였다. 초기에는 陝西省 서부지역에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전국시대에도 비교적 후진국이었지만, 商鞅의 變法 실시로 강성해져 전325년 惠王 때에 왕을 칭하게 되었다. 전316년에 蜀을 멸망시킨 후, 大國으로 성장해서 전221년에 齊나라를 합병하고 중국 천하를 통일했다. 통일 후 郡縣制 실시, 도량형과 문자의 통일 등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를 마련했으며, 역사상 최초로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했다. 지나치게 급진적인 정치와 가혹한 정책으로 전209년에 陳勝과 吳廣의 난이 일어나 국운이 크게 쇠퇴했으며, 전207년에 巨鹿(지금의 河北省 邢臺市)에서 項羽軍에게 대패한 후 전206년에 멸망했다.
- 33) 五尺道: 중국의 가장 오래된 官道를 말한다. 秦이 六國을 멸하고 천하를 통일한 뒤, 서남지역과 중원의 연락을 좀 더 원활히 하기 위해 만든 도로로서 尙類이란 인물을 파견해서 만들었다. 지금의 四川省 宜賓 지역인 僰道에서 시작하여 滇池에 이르는 길로 四川盆地에서 雲·貴 지역으로 통하는 중요한 도로이다. 다만 도로 폭이 겨우 5척에 불과해서 五尺道라 했으며, 이후 秦始皇은 각 지역에 폭이 50步에 달하는 馳道의 건설을 명령했다.
- 34) 漢: 각주 5) 참조.

전141~87)<sup>35)</sup> 때에 이르러 도위(都尉)<sup>36)</sup>와 현(縣)의 속료(屬僚)를 설치했지만, 여전히 그들 스스로 독자적으로 자립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곧 토관(土官)<sup>37)</sup>과 토리(土吏)[제도]의 근원

- 35) 武帝: 前漢 제7대 황제인 劉徹의 諡號이다. 7세 때 태자로 봉해져 16살에 등극했다. 재임 시에 제후 세력을 약화시키고 董仲舒의 건의를 받아들여 儒學을 國敎로 삼았다. 또한 桑弘羊의 건의에 따라 소금과 철을 전매했으며, 무엇보다 衛靑과 郭去病 등의 장군을 파견해 흉노를 무찌른 황제로 이름 높다. 그의 흉노 정책 덕분에 오늘날 널리 알려진 비단길이 개척되었다. 前漢을 명실상부한 강국으로 만들었지만 흉노와의 전쟁 등으로 국가 재정이 많이 소모되어, 말년에는 토지 검병과 같은 여러 사회 모순이 나타났다.
- 36) 都尉: 武官의 명칭이다. 춘추전국시대 趙나라에는 장군 휘하에 차례로 國尉와 都尉가 있었으며, 秦과 漢나라 초에 각 郡에 郡尉를 두어 太守의 군사 업무를 돕도록 했다. 景帝 연간(전156~전139)에 都尉로 명칭을 바꿨다. 前漢 시기에는 수도 지역의 인원을 관리하는 關都尉, 변방 지역과 농지를 관장하는 農都尉, 귀속한 각 소수민족을 담당하는 屬國都尉 등이 존재했다. 魏·晉 시대에는 그 중요성이 떨어져 유명무실해졌지만 明·淸代 이후 民國 시기까지 官職으로 존속했다.
- 37) 土官: 중앙정부에서 정식으로 파견하는 流官에 대비되는 말로서, 국가가 특정 지역의 유력자를 인정해서 그들의 세습통치를 허용했던 관리들을 지칭한다. 한편 대체로 토사와 토관을 혼용해서 쓰고 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土官은 보통 文官職을, 土司는 武官職을 의미한다. 소수민족을 다스리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었던 토관제도는 적어도 漢代까지 거슬러 올라가며(Claudine Lombard-Salmon, 1972: 47), 宋代 이후 소수민족을 다스리는 그 지역 출신의 관원을 土官이라 불렀다.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명대에 이르러 서북과 서남 지방의 소수민족 지역에 본격적으로 토사제도를 설치했으며, 宣慰使, 宣撫使, 按撫使 등의 武官職과 土知府, 土知縣 등의 文官職을 두고 그 자손들이 세습하도록 허용했다. 淸雍正 연간(1723~1735)에 단행된 改土歸流 정책으로 이러한 토관들이 대부분 폐지되었다. 본문에는 토사와 관련된 다양한 직관명이 나오기 때문에 『明史』 卷76 「職官」 5에 나오는 토관들의 명칭과 품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 土官名  | 관직  | 수효 | 품계  |
|------|-----|----|-----|
| 宣慰使司 | 宣慰使 | 1  | 從三品 |
|      | 同知  | 1  | 正四品 |
|      | 副使  | 1  | 從四品 |
|      | 僉事  | 1  | 正五品 |
| 宣撫使司 | 宣撫使 | 1  | 從四品 |
|      | 同知  | 1  | 正五品 |
|      | 副使  | 1  | 從五品 |
|      | 僉事  | 1  | 正六品 |
| 經歷使司 | 經歷  | 1  | 從八品 |
|      | 知事  | 1  | 正九品 |
|      | 照磨  | 1  | 從九品 |
| 按撫使司 | 按撫使 | 1  | 從五品 |
|      | 同知  | 1  | 正六品 |
|      | 僉事  | 1  | 正七品 |

이 되었을 것이다.

迨有明踵元故事，大爲恢拓，分別司郡州縣，額以賦役，聽我驅調，而法始備矣。然其道在於羈縻。彼大姓相擅，世積威約，而必假我爵祿，寵之名號，乃易爲統攝，故奔走惟命。然調遣日繁，急而生變，恃功怙過，侵擾益深，故歷朝徵發，利害各半。其要在於撫綏得人，恩威兼濟，得其死力而不足爲患。『實錄』載成化十八年馬平主簿孔性善言：「谿峒蠻僚，雖常梗化，亂豈無因。昔陳景文爲令，瑤·僮皆應差徭，厥後撫字乖方，始仍反側。誠使守令得人，示以恩信，諭以禍福，亦當革心。」帝嘉納之，惜未能實究其用，此可爲治蠻之實鑑矣。

명(明)나라에 이르러 원(元)나라의 옛 제도를 따라, [토사제도를] 크게 넓혀 확대했는데,<sup>38)</sup> 사(司)·군(郡)·주(州)·현(縣)으로 나누어 구별하고, 부역(賦役)<sup>39)</sup>의 액수를 정하여 명 왕조가 하라는 대로 따르도록 하여, 비로소 법이 갖춰졌다. 그러나 [소수민족을 다스리는 기본적인] 방법은 기미(羈縻)정책<sup>40)</sup>이었다. 그들 중 대성(大姓)들이 서로 제멋대로 전횡하고, 누대

| 土官名    | 관직  | 수효 | 품계  |
|--------|-----|----|-----|
|        | 吏目  | 1  | 從九品 |
| 招討使司   | 招討使 | 1  | 從五品 |
|        | 副招討 | 1  | 正六品 |
|        | 吏目  | 1  | 從九品 |
| 長官使司   | 長官  | 1  | 正六品 |
|        | 副長官 | 1  | 從七品 |
|        | 吏目  | 1  | -   |
| 蠻夷長官使司 | 長官  | 1  | 正六品 |
|        | 副長官 | 1  | 從七品 |

38) 대체로 元代 소수민족 정책은 羈縻정책이 주조였기 때문에 土官과 流官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책이 明代에 이르러 소수민족 지역의 유력자들을 土司로 임명하는 제도로 정착되었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明代 土司제도의 특징은 소수민족 지역을 담당하는 고유의 관직을 설치하고, 품계를 엄격하게 정했다는 점이다(馬菁林, 2004: 11~17).

39) 賦役: 賦稅와 徭役을 말한다. 부세란 중국 전통 왕조들이 일반민들의 생산물에 대해 現物이나 銀錢을 일정액으로 징수했던 것을 의미한다. 한편 요역은 일반민들에게 부과한 노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軍役, 力役, 雜役 등이 존재했다.

40) 羈縻: ‘羈’란 재갈이나 고삐라는 의미로 군사적 수단이나 정치적 압력을 뜻하며, ‘縻’란 의미도 재갈을

에 걸쳐 [쌓아온] 위세(威勢)로 서로를 제압하려 했지만, 반드시 명 왕조가 내린 작위와 봉록, 그리고 총애를 나타내는 명호(名號)에 의지해야, [부족들을] 통솔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다투어 [명 왕조의] 교령을 얻으려 애썼다. 그러나 [조정으로부터] 파견 요구와 징발이 갈수록 번잡해지자 갑자기 변고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자신이 세운] 공(功)에 기대거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용하기도 하여, 침해와 소요가 더욱 심해진 탓에, 역대 조정의 징발(徵發)은 이로움과 해로움이 각각 반반씩이었다. [소수민족 통치의] 요체는 [그들을] 무수(撫綏)<sup>41)</sup>해 그들의 [마음을] 얻는 데 있으며, 은전(恩典)과 위엄을 동시에 사용해야, 그들의 최대한의 노력을 얻을 수 있으며, 근심거리가 되지 않는다. 『실록(實錄)』에 기재되어 있는, 성화(成化)<sup>42)</sup> 18년(1482)에 마평(馬平)<sup>43)</sup>의 주부(主簿)<sup>44)</sup> 공성선(孔性善)<sup>45)</sup>이 아뢰기를, “계동(谿洞)<sup>46)</sup>의 만족(蠻族) 요(僚)<sup>47)</sup>는 비록 항상 교화(教化)되지 않은 상태로 있지만, [그들이]

의미하지만, ‘羈’와는 달리 경제적 수혜를 통한 유화정책을 말한다. 기미정책은 적어도 秦 왕조 이래 宋·元 시기까지 중국 중앙정부가 소수민족 지역을 다스리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정치적으로는 중앙정부에 예측되어 있지만, 소수민족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통치는 그 지역의 유력자를 통치자로 임명해서 다스리도록 했다. 하지만 이러한 羈縻정책은 각 왕조마다 그 성격이 달랐는데, 예를 들어 기미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했던 왕조 가운데 하나인 唐 왕조만 해도 소수민족 지역과 새외민족에게 실시한 기미정책이 각각 달랐다. 즉 羈縻州라는 명칭을 가진 지역은 거의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예측 하에 있었으며, 거란 등의 지역은 중앙정부가 冊封을 하는 형태였다. 또한 일본이나 吐蕃 등은 실질적으로 당 왕조에 예측되지 않은 상태였다. 宋·元 시대에는 羈縻州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가 강력해져 중앙정부의 관리를 파견하는 한편, 朝貢체제를 한층 더 강화시켰다.

41) 撫綏: 위로해 편안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42) 成化: 明 왕조 제8대 황제인 憲宗 朱見深的 年號이다.

43) 馬平: 隋 開皇 11년(591)에 廣西省 桂林縣의 일부를 떼어 처음으로 馬平縣을 설치했으며, 縣治는 지금의 柳州市에 설치했다. 唐代 이후 내내 柳州府 관할이었으며, 民國 20년(1931)에 馬平縣을 柳州縣으로 개칭했다.

44) 主簿: 관직명으로 각 관청의 책임자 밑에서 문서를 관장하는 임무를 맡았던 일종의 비서직이었으며, 漢代에 처음 설치했다. 隋·唐 이전에는 각 관청의 首長들과 매우 근접해 있었던 탓에 그 권한이 막중했으며 중요한 일을 담당했지만, 隋·唐 이후에는 그 권한이 약해졌다. 明·清 시대에 太僕寺와 鴻臚寺 등에 主簿를 설치했지만 모두 품계가 낮은 사무관이었으며, 正八品이었던 縣丞에 뒤이은 正九品이었다.

45) 孔性善: 생몰 연대를 알 수 없지만 光緒 『馬平縣志』 卷6 「秩官」에 따르면, 明 洪武 연간(1368~1398)에 馬平縣 主簿를 역임한 인물이다. 아울러 이 『馬平縣志』에는 그의 업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太祖實錄』 卷172 洪武 18년 4월 丙辰條에도 孔性善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는 것으로 미루어 孔性善은 洪武 연간의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46) 谿洞: 소수민족들이 사는 지역은 보통 깊고 험준한 산악지역에 존재했기 때문에 그들의 거주 지역을

난을 일으킨 데는 어찌 까닭이 없겠습니까? 옛날 진경문(陳景文)<sup>48)</sup>이 수령으로 있을 [당시], 요족(瑤族)<sup>49)</sup>과 동족(僮族)<sup>50)</sup>은 모두 차역(差役)<sup>51)</sup>에 응했으나, 이후 안무(按撫)가 [정도에서] 어긋나자, 이에 비로소 [조정에] 반대하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진실로 수령으로 하여금

통칭해서 부른 명칭이다.

- 47) 僚: 원래는 陝西省 남부와 四川省 남부지역에 거주한 소수민족이었지만, 魏·晉南北朝 시대 이래 貴州, 雲南, 廣西, 湖南, 廣東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해서 살았다. 실제로 서남지역의 소수민족을 가리키는 용어는 매우 다양하며, 그 가운데서도 호광 지역에는 苗, 蠻, 徭, 僚 등의 명칭이 자주 등장한다. 소수민족의 이러한 分化 현상은 秦·漢 시기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僚族 역시 三國 시기 초기에 湖南省 武陵 五谿 지역에 처음 등장한다. 『三國志』 卷32 「蜀書」에 蠻族과 僚族이 처음 서로 분리되어 등장하며, 南北朝 시기가 되면 蠻族과 僚族의 구분이 명확해진다(『南齊書』 卷22 「列傳」 3 「豫章文獻王傳」 참조). 이 蠻族의 始原에 대해서는 侗族의 조상으로서 兩漢 시기에 五谿蠻의 일부였다가 魏·晉朝 이후 분화했으며, 宋·淸 시기에는 仡伶, 洞蠻, 峒人 등으로 불렸다고 주장하는 일군의 학자가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僚族이 五谿 지역의 濮人에서 나와 蠻族과 같은 지역에 거주했지만, 이후 서쪽으로 大移住를 시작해 서남지역의 仡佬族이 되었으며, 일부는 묘족과 융화되어 仡佬苗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상의 내용은 湖南省民族研究所組 編, 2006, 권1: 97~99에 나와 있지만, 그가 인용한 『三國志』 卷32 「蜀書」에는 「蠻僚」가 아닌 「蠻夷」로 표기되어 있어 좀 더 상세한 고증이 필요하다. 다만 光緒 『馬平縣志』 卷2 「地輿」에 따르면 瑤族은 오히려 일반 漢族들보다 순박한 반면, 僮族들은 瑤族들보다 다루기 어려우며, 元 順帝 至元 연간(1335~1340)에 湖北省에서 내려왔다는 언급으로 미루어, 본문에 등장하는 僚는 僮族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이 지방 지역에는 狠, 狠 등의 소수민족이 언급된 반면 僚族을 따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도 그렇다.
- 48) 陳景文: 생물 연대는 알 수 없으며, 元代 仁宗 皇慶 연간(1312~1313)에 馬平縣 知縣으로 부임한 인물이 다(光緒 『馬平縣志』 卷6 「秩官」 참조).
- 49) 瑤族: 중국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로서, 勉, 金門, 布努 등으로 자칭하기도 한다. 대체로 고대 시기 호남 지역의 長沙와 武陵 일대에 있던 蠻族의 일부가 분화되어 발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五谿蠻과 山越에서 비롯되었다는 설도 있다. 南朝를 거쳐 唐代까지는 莫徭라 불렸다가 宋代에 비로소 瑤族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元·明 시기에 이르러 兩廣 지역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 거주했으며, 明·淸 시기에 이르러 雲南, 貴州 일대까지 그 거주 지역이 확대되었지만, 현재 廣西省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요족 지역 일대에는 적어도 宋代 이래 특별히 瑤官을 설치해 요족들을 다스리게 했지만, 여러 규정에 대한 준수를 엄격하게 강요했던 土司制度와는 달리 瑤官들에 대한 통제는 비교적 느슨한 편이었다(胡仁亮, 1996: 80~81 참조).
- 50) 僮族: 壯族을 의미하며 중국 소수민족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다. 宋代 史書에 撞, 僮, 仲의 명칭으로 처음 등장하며, 明·淸 시대에 이르러 僮人, 혹은 土人 등으로 불렸다. 주로 廣西, 雲南, 廣東과 貴州에 많이 분포해 있지만, 광서 지역에 압도적으로 많이 존재한다. 1965년 이후 壯族이라 불리기 시작했다.
- 51) 差役: 중국의 전통 왕조시대 백성들에게 부과한 노역을 말한다.

적합한 사람을 얻도록 하고, 은전과 믿음으로 보여주며, 화(禍)와 복으로 효유(曉諭)한다면 [그들] 역시 마땅히 마음을 바꿀 것입니다”라고 하니,<sup>52)</sup> 황제는 기뻐하며 그의 말을 받아들였는데, 아쉽게도 그러한 [대책의] 시행이 실제로 궁구되지 않았지만, 이것은 가히 만족을 다스리는 귀한 교훈이 되었다.

嘗考洪武初，西南夷來歸者，即用原官授之。其土官銜號曰宣慰司，曰宣撫司，曰招討司，曰安撫司，曰長官司。以勞績之多寡，分尊卑之等差，而府州縣之名亦往往有之。襲替必奉朝命，雖在萬里外，皆赴闕受職。天順末，許土官繳呈勘奏，則威柄漸弛。成化中，令納粟備振，則規取日陋。孝宗雖發憤釐革，而因循未改。嘉靖九年始復舊制，以府州縣等官隸驗封，宣慰·招討等官隸武選。隸驗封者，布政司領之，隸武選者，都指揮領之。於是文武相維，比於中土矣。其間叛服不常，誅賞互見。茲據其事績尤著者，列於篇。

일찍이 홍무(洪武)<sup>53)</sup> 초년의 [상황을] 살펴보면, 서남지역의 소수민족이 와서 귀부(歸附)하면, 즉시 본래 관직을 그에게 제수했다. 그러한 토관(土官)의 직함을 선위사(宣慰司), 선무사(宣撫司), 초토사(招討司), 안무사(安撫司), 장관사(長官司)라고 했다.<sup>54)</sup> 노고와 공적의 많고 적음에 따라, 존비(尊卑)를 분별해 차등을 두었으며, [차별을 두어 내린 직함에는] 부(府)·주(州)·현(縣)의 명칭 또한 종종 있었다.<sup>55)</sup> [그러한 지위의] 세습과 교체는 반드시

52) 이 기록은 앞서 각주 45)에서 언급한 것처럼, 孔性善이란 인물이 洪武 연간(1368~1398)에 馬平縣 主簿로 근무했기 때문에 成化 연간(1465~1487)의 일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실제 『憲宗實錄』에도 관련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53) 洪武: 明을 개국한 太祖 朱元璋의 年號이다.

54) 이들 土官들은 從三品부터 從七品 사이의 品階를 받았으며, 녹봉은 따로 받지 않았다. 또한 그 세습 범위는 자제, 친족, 부인과 딸, 사위와 생질까지도 포함되었다. 『明史』 卷72 「職官」 1에는 “凡土司之官九級，自從三品至從七品，皆無歲祿。其子弟族屬妻女若壻及甥之襲”으로 기록하고 있다.

55) 『明史』 卷76 「職官志」 5에 따르면, “軍民府土州土縣，設官如府州縣。洪武七年，西南諸蠻夷朝貢，多因元官授之，稍與約束，定征徭差發之法。漸爲宣慰司者十一，爲招討司者一，爲宣撫司者十，爲按撫司者十九，爲長官司者百七十有三。其府州縣正貳屬官，或土或流，皆因其俗，使之附輯諸蠻，勤守疆土，守職貢，供征調，無相携貳。”라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은 軍民府와 土州, 土縣에 해당하는 곳은 府·州·縣과 동일하게

[명] 왕조의 명을 받들어 [행했으며], 비록 만리(萬里) 밖에 있다 하더라도, 모두 궁궐에 와서 [해당] 관직을 [직접] 받았다. 천순(天順)<sup>56)</sup> 말, [여러 사안을] 조사해 올리고 상주(上奏)하도록 토관에게 허락하자, [조정의] 권위와 권세가 점차 이완되었다. 성화(成化) 연간(1465~1487)에, [그들에게] 곡물을 납부시켜 구휼에 대비하도록 하자, 수취(收取)의 누규(陋規)가 날로 심해졌다. 효종<sup>57)</sup>(孝宗, 1470~1505; 재위 1487~1505)이 비록 분발해서 [이를] 개혁하려 했지만, [이전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는 바람에 고쳐지지 않았다.<sup>58)</sup> 가정(嘉靖)<sup>59)</sup> 9년(1530)에, 비로소 옛날 제도를 회복시켜, 부·주·현 등의 관원을 험봉(驗封)<sup>60)</sup>에 예속시

관리를 두었다는 의미이다. 대체로 그러한 지역은 元代 이래 관직을 받아온 지역이었으며, 점차 이들 가운데 宣慰使 등의 지위를 明 왕조로부터 받는 자들이 늘어나자 土州나 土縣은 土官과 流官을 구분하지 않고 관직을 내렸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본문에 등장하는 “府州縣에도 그러한 관직명이 등장한다”라는 언급은 일반적인 府·州·縣이 아니라 土州나 土縣을 의미한다. 洪武 초기 일반 土司는 兵部가 관할했던 반면 土州나 土縣은 吏部가 관할했지만, 洪武 30년(1397)에는 모두 兵部 관할로 통일했다(Claudine Lombard-Salmon, 1972: 48).

- 56) 天順: 명 왕조 제6대 황제인 英宗이 자신의 동생인 朱祁鈺(景泰帝)을 황위에서 몰아내고 다시 황위에 오른 후 天順이란 年號를 사용했다.
- 57) 孝宗: 명 왕조 제9대 황제인 朱祐樞의 廟號이며, 年號는 弘治이다. 孝宗은 등극 후 당시 명 왕조가 직면한 여러 폐정을 개혁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太監 梁芳 등을 몰아내고, 외척을 멀리하는 한편 비유절감과 수리사업 전개 등을 통한 국가재정 부흥에도 많은 힘을 썼다. 따라서 당시 국가가 평온했으며 외침도 없어 후일 역사가들은 이 시대를 弘治中興이라 평가했다. 皇后 張氏 외에 다른 妃嬪을 두지 않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 58)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 외에도 土司들은 자신의 지위를 승계할 때 원칙적으로 곡물을 납부해야 했다. 다만 宣慰使, 同知와 通判은 北京으로 직접 곡물을 가져와야 했던 반면, 按撫使 및 州의 同知와 判官은 북경에 직접 와서 납부하는 예를 면제해주었다. 이후 弘治 연간(1488~1505)에 이르러 모든 토사들은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지위 계승시 곡물 납부를 면제해주었다(『孝宗實錄』 卷196 弘治 16년 2월 辛酉條 참조). 한편 天順 연간(1457~1464) 말엽에 土官의 上奏를 허락하고 곡식을 납부토록 해서 賑濟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본문의 내용은 明末·淸初의 인물로서 청 왕조의 明史 찬수에 참여한 毛西河, 즉 毛奇齡(1623~1716)의 언급이다. 그리고 『蠻司合志』에 다시 등장하는 모기령의 언급에 따르면 天順 연간 이후 단지 上奏만으로 토사의 교체와 襲職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조정의 권세가 약화되었다고 기술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모기령의 언급에 대해서는 余貽澤, 1968: 50~51 참조.
- 59) 嘉靖: 명 왕조 제11대 황제인 世宗 朱厚熜의 年號이다.
- 60) 驗封: 明·淸 시대 官廳의 하나인 驗封淸吏司의 준말이다. 『明史』 卷72 「職官」 1에는 “吏部. 尙書一人, 左右侍郎各一人. 其屬, 司務廳, 司務二人. 文選, 驗封, 稽勳, 考功四淸吏司, 各郎中一人, 員外郎一人, 主事一人.”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네 곳의 청리사 가운데 驗封淸吏司는 일반 관원의 封爵, 褒賞, 蔭敍의 세습 등을 관할했으며, 아울러 토관 세습의 적법성 여부를 조사했다. 驗封淸吏司 관할 하에 있던 지역은

키고, 선위·초토 등의 관원은 무선(武選)<sup>61)</sup>에 예속시켰다. 험봉 관할 하에 있는 자들은 포정사(布政司)<sup>62)</sup>가 이들을 관령했으며, 무선 관할 하에 있는 자들은 도지휘사(都指揮司)<sup>63)</sup>가 이들을 관령했다. 이에 문무 [관원]의 서로 간의 연계가 중국의 내지(內地)와 비슷해졌다. 그 [소수민족들] 사이의 반란과 복종이 항상적이지 않아, 징벌과 포상(褒賞)이 뒤섞여 보인다. 이에 그들의 사적(事迹) 가운데 현저한 일에 근거하여 [다음]에 기록한다.

## 湖廣土司

### 호광토사

湖南，古巫郡，黔中地也。其施州衛與永·保諸土司境，介於岳·辰·常德之西，與川

土州나 土縣이며, 宣慰使, 宣撫使, 長官使 등의 土兵들은 兵部 관할이었다.

- 61) 武選: 明·清 시대 관청의 하나인 武選清吏司의 준말이다. 『明史』 卷72 「職官」 1에는 “兵部. 尙書一人, 左右侍郎各一人. 其屬, 司務廳, 司務二人. 武選職方車駕武庫四清吏司, 各郎中一人, 員外郎一人, 主事二人 …… 武選掌衛所土官選授陞調襲替功賞之事”라고 적혀 있다. 따라서 武選清吏司는 지방의 군사제도였던 衛와 所의 관리와 함께 土官들의 관직세습, 포상 등을 총괄하는 관청이었다.
- 62) 布政司: 承宣布政使司의 간칭이다. 『明史』 卷75 「職官」 4의 기록에 따르면 “承宣布政使司. 左右布政使各一人, 左右參政, 左右參議, 無定員 …… 布政使掌一省之政, 朝廷有德澤禁令, 承流宣播, 以下於有司.”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포정사는 한 省의 戶口, 경작지 등의 조사와 등재를 포함한 모든 행정을 담당했다. 明初에는 元의 行中書省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洪武 9년(1376)에 浙江, 江西, 福建, 北平, 廣西, 四川, 山東, 廣東, 河南, 陝西, 湖廣, 山西에 포정사를 두었으며, 永樂 5년(1407)에 交趾布政司를 두었다가 宣德 3년(1428)에 폐지했다. 永樂 11년(1413)에 貴州布政司를 설치해서 전국에 13포정사를 두었다.
- 63) 都指揮司: 『明史』 卷76 「職官」 5에는 “都指揮使司. 都指揮使一人, 都指揮同知二人, 都指揮僉事四人 …… 都司掌一方之軍政, 各率其衛所以隸於五府, 而聽於兵部”라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도지휘사는明代 지방의 軍政을 담당하는 관청으로서 五軍都督府에 속해 있었으며, 兵部의 휘하에 있었다. 簡稱하여 都司라고 하는데, 洪武 8년(1375)에 北平, 陝西, 山西, 浙江, 江西, 山東, 四川, 福建, 湖廣 廣東, 廣西, 遼東, 河南에 都司를 두었으며, 洪武 15년(1382)에 貴州와 雲南에, 그리고 宣德 연간(1426~1435)에 萬全都司가 설치되어 전국에 모두 16개의 都司가 있었다. 다만 湖廣省의 경우 成化 12년(1476)에 鄖陽府를 새로 개설하면서 鄖陽衛와 湖廣行都司를 증설하여, 본래 湖廣都指揮使司에 예속되어 있던 荊州衛, 荊州左衛, 荊州右衛, 瞿塘衛, 襄陽衛, 安陸衛 및 鄖陽衛 관할 德安, 房縣, 均州, 長寧, 夷陵 枝江, 遠安, 竹山の 8개 千戶所를 湖廣行都司에 통할시켰다. 따라서 본문에 등장하는 九谿衛는 湖廣都司 관할이었지만, 荊州衛는 湖廣行都司 관할이었다(張建民, 1999: 39).

東巴·夔相接壤，南通黔陽。谿峒深阻，易於寇盜，元末滋甚。陳友諒據湖·湘間，噉以利，資其兵爲用。諸苗亦爲盡力，有乞兵旁寨爲之驅使者，友諒以此益肆。及太祖殲友諒於鄱陽，進克武昌，湖南諸郡望風歸附，元時所置宣慰·安撫·長官司之屬，皆先後迎降。太祖以原官授之，已而梗化。

호남(湖南)<sup>64</sup>은 옛날 무군(巫郡)<sup>65</sup>이며 검중(黔中)<sup>66</sup> 지역이다. 이곳에 [위치한] 시주위(施州衛)<sup>67</sup>는 영순(永順)<sup>68</sup>, 보정(保靖)<sup>69</sup>의 여러 토사(土司)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약

64) 湖南: 長江 중류 지역에 위치한 省이다. 대부분 지역이 洞庭湖 남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湖南省이라 불렀으며, 경내에는 湘江이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는 탓에, ‘湘’으로 간칭한다. 면적은 약 21만km<sup>2</sup>이며, 인구는 2010년 현재 약 6,500만 명이다. 春秋戰國 시대에는 楚나라 영역이었으며, 秦代에 이르러 長沙郡이 설치되었다. 漢 高祖 劉邦이 桂陽郡과 武陵郡을 두어 長沙國이라 칭했다. 唐 肅宗 至德 2년(757)에 荊州防禦使를 설치해서 衡州, 涪州(현재 貴州省), 岳州, 潭州, 郴州, 邵州, 永州, 道州를 관할하도록 했지만 上元 3년(676)에 폐지했다. 唐代 代宗 廣德 2년(764)에 湖南觀察使를 두어 衡州, 潭州, 邵州, 永州, 道州를 관할하게 하고 治所는 衡州에 두었다(嘉慶『湖南通志』卷6「建置沿革攷」3). 이 시기 이후 행정구역상 湖南이란 명칭이 등장했다. 北宋 시기에 荊湖南路和 荊湖北路로 나뉘었으며, 元代에는 湖廣等處行中書省으로 되었다가 明代에 湖廣布政使司를 설치했다. 康熙 3년(1664)에 湖廣을 湖廣左右布政使司로 분리했으며, 雍正 원년(1723)에 湖廣右布政使司를 湖南布政使司로 바꾸어 湖南이 정식 省 행정단위가 되었다.

65) 巫郡: 楚 懷王(전329~전296) 시기에 설치한 지방행정 구역이다. 巫山이란 산이 있는 곳에 郡을 설치했기 때문에 巫郡이라 했으며, 지금의 湖北省 清江 중상류 지역과 四川 북부 일대에 해당한다.

66) 黔中: 戰國 시대 楚에서 세운 지방행정 단위이다. 秦代에 이르러 巫郡과 黔中郡을 합해 다시 黔中郡을 설치했으며, 현재 湖南省 서부 및 이에 맞닿아 있는 四川, 貴州 일부 지역에 해당한다.

67) 施州衛: 明 洪武 14년(1381)에 설치된 衛로서, 治所는 지금의 湖北省 恩施에 있었으며 기록에 따르면 당시 명 왕조는 施州衛에 4,600가구, 大田千戶所에 3,127가구를 파견했다(于玲, 1996: 65 참조). ‘衛’란 明代 軍制의 편제로 중요 지역에 설치했으며 五軍都督府에 속해 있었다. 宋代 이 일대 지역은 사천 夔州路에 속해 있었으며, 洪武 초년에는 施州로 되어 夔州府에 예속되었다가 洪武 14년(1381)에 施州衛를 설치했다. 이어 洪武 23년(1390)에 施州衛軍民指揮使司(編戶3里)로 바꾸고 湖廣都指揮使司 관할 하에 두었다. 이 施州衛는 軍民千戶所 하나, 宣撫司 셋, 按撫司 여덟, 長官司 여덟, 蠻夷長官司 다섯을 관할했다(同治『恩施縣志』卷1「地理志」). 그러나 이 지방지의 언급은 洪武~永樂 연간 사이의 내용만을 기록한 것으로 판단된다. 적어도 鄂西 지역의 경우 宣德 연간(1426~1435)에 長官司와 蠻夷司를 다수 설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嘉靖 연간(1522~1566) 초 中峒按撫司를 설치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시주위는 所 하나, 宣撫司 넷, 按撫司 아홉, 長官司 열, 蠻夷官司 다섯을 통할했다(吳永章, 1986: 74 참조). 이어 이 지역 일대는 雍正 6년(1728)에 恩施縣으로 바뀌었다. 『明史』卷310「土司傳」에 등장하는

(岳)<sup>70)</sup> · 진(辰)<sup>71)</sup> · 상덕(常德)<sup>72)</sup>의 서쪽에 끼여 있고, 천둥(川東)<sup>73)</sup>의 파(巴)<sup>74)</sup> · 기(夔)<sup>75)</sup>

湖廣土司 관련 내용 가운데 호북성에 해당하는 鄂西 지역의 토사는 모두 施州衛 휘하의 토사에 관련된 이야기이다.

- 68) 永順: 湖南省 湘西土家族苗族自治州 북부에 위치한 縣名이다. 1995년 현재 총 인구 약 46만 명 가운데 토가족의 점유율이 약 6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소수민족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자연경관이 아름다워 중요한 관광지이며, 이 지역에 있는 옛 土司의 古都老司城은 토가족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다. 戰國시대 楚나라의 黔中 지역에 해당하는 곳으로, 秦代에는 黔中郡 소속이었다. 前漢 高祖 원년(전206)에 이 지역 일대에 酉陽縣을 설치했다. 五代 시기 後梁 開平 4년(910) 楚王 馬殷이라는 인물이 彭士愁를 溪州刺史로 임명한 후, 中溪州, 下溪州, 溶州, 渭州, 永順州 등을 관할했는데, 永順이란 이름은 이때 비롯되었다. 宋代에는 荊湖北路 관할이었으며, 元代에 이르러 永順宣撫司를 설치하고 四川行省이 관할했다. 明 洪武 2년(1369)에 永順軍民按撫司를 설치했다가, 洪武 6년(1373) 본문에 등장하는 永順軍民宣慰使司로 승격했다. 洪武 6년(1373)에 軍民宣慰使司를 설치할 당시, 永順 지역 일대에는 南渭, 施溶의 두 州와, 臘惹洞, 麥著黃洞, 驢遲洞, 田家洞, 施溶洞의 다섯 長官司가 있었다. 淸 雍正 5년(1727)에 永順土司 彭肇槐가 귀부해, 雍正 7년(1729)에 永順縣이 설치되었다.
- 69) 保靖: 湖南省 湘西土家族苗族自治州 중부에 위치한 縣名이다. 秦代 黔中郡 관할이었으며 前漢 高祖 5년(전202)에 武陵郡으로 바꿨다. 唐末 이후 비로소 保靜州라는 명칭이 등장했으며, 元代 保靜州를 保靖州로 개칭했다. 明 太祖 당시 按撫使 彭士雄이 귀부해 保靖州軍民按撫司로 승격되었으며, 洪武 6년(1373)에 按撫使 彭萬里的 조공을 계기로 保靖州軍民宣慰使司로 승격되었다. 淸 雍正 4년(1726)에 經歷을 없애고 同知를 두었으며, 그해 湖廣總督 傅敏의 上奏를 계기로 改土歸流를 단행했다. 이후 雍正 7년(1729) 永順府를 개설하는 한편 同知를 없애고 保靖縣을 설치했다(同治『保靖縣志』卷2「輿地志」).
- 70) 岳: 岳州를 말한다. 중국 고대 행정 구역의 하나로 현재 湖南省 동북부에 위치한 지역명이다. 隋 開皇 11년(591)에 巴州를 고쳐 岳州라 불렀다. 元代에는 岳州路에 속했으며, 明代에 岳州府로 개칭했다. 民國 2년(1913)에 岳陽으로 다시 개칭했다. 현재는 인구가 약 600만 명에 이르는 湖南省의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이며, 옛날부터 수많은 文人과 지식인이 그 경치를 찬양한 岳陽樓가 존재한다.
- 71) 辰: 湖南省 湘西 지역에 있는 辰州를 말하며, 현재 湖南省 懷化市 沅陵縣 일대에 해당한다. 春秋시대 楚나라 당시 巫郡에 속했으며, 秦始皇 24년(전223)에 秦이 楚를 멸망시키고 이곳에 黔中郡을 설치했다. 이어 前漢 高祖 5년(전202)에 설치된 武陵郡 지역에 편입되었다가, 隋 開皇 9년(589) 처음으로 辰州가 설치되었다. 元 至正 24년(1364) 朱元璋은 徐達을 보내 辰州를 공략한 후, 비로소 元代의 辰州路를 辰州府로 고치고 沅陵, 盧溪, 辰溪, 溆浦의 네 縣을 관할하도록 했다. 이어 元 원년(1367) 辰州衛를 설치했으며, 洪武 9년(1376)에 行中書省을 혁파하고 湖廣布政使司를 설치해서 辰州를 그 관할 하에 두었다. 淸 康熙 3년(1664) 湖南省에 예속시켰다.
- 72) 常德: 현재 湖南省 서북부 지역에 위치한 常德을 말한다. 沅江 하류와 澧水 중하류에 자리잡고 있다. 총면적은 18만km<sup>2</sup> 정도이며 인구는 약 630만이다. 秦始皇이 설치한 黔中郡 지역이었으며, 前漢시대 武陵郡으로 되어 13개 縣을 관할했다. 상덕이란 명칭은 宋代에 처음 등장하는데, 元 至正 12년(1352)에 常德按撫司를 개설했으며, 至正 14년(1354) 常德路는 武陵縣 한 縣과 桃源, 龍陽 두 州를 관할했다.

와 서로 접해 있으며, 남쪽으로는 검양(黔陽)<sup>76)</sup>과 통한다. 계동(谿洞)은 깊은 험지에 있으며, 도적이 생기기 쉬운 곳인데, 원말(元末)에 [그런 현상이] 매우 심했다. 진우량(陳友諒)<sup>77)</sup>이

73) 川東: 사천성 동쪽을 말한다. 사천성은 중국 서남부 지역에 위치한 省이다. 줄여서 ‘川’ 혹은 ‘蜀’이라 하며 48만km<sup>2</sup>의 면적에 2010년 현재 인구가 약 8,000만에 이르는 거대 지방 행정 구역 가운데 하나이다. 2만 5천 년 전부터 三星堆 문명 등의 출현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일찍부터 고대문명이 발달한 지역이며, 秦이 蜀 지역을 점령하고 난 후 蜀郡과 漢郡의 두 행정구역을 이곳에 설치했다. 三國時代 劉備가 蜀漢(221~263)을 건설한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唐나라 당시 安史의 난을 피해 玄宗(685~762; 재위 712~756)이 피신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明末 농민반란군 지도자인 張獻忠이 이곳에 大西 정권(1644~1646)을 세운 이후 明末·淸初 교체기에는 전란이 많이 발생했다(이준갑, 2002: 27~48). 이후 淸初에는 湖廣(湖北과 湖南) 사람들이 四川으로 대거 이동했다는 의미의 ‘湖廣填四川’이라는 속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이주민들이 몰려들어 적극적인 개발의 무대가 된 곳이기도 하다. 漢代 내내 益州로 불렸으며, 宋 咸平 4년(1001) 四川路가 되면서 四川이란 명칭이 처음 등장한다(乾隆『四川通志』卷2「建置沿革」).

74) 巴: 현대에는 四川省의 별칭으로도 사용되기도 하며, 중국 사천성 동부와 현재 重慶 일대에 존재했던 巴國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후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夏·商 당시부터 존재했던 과국은 西周 건립 후 巴氏가 이 지역 일대를 분봉받았으며, 그 통치자인 巴子의 이름을 따 巴子國으로 불렸다. 춘추 시대에는 동쪽으로 漢水 유역까지 세력을 넓혀 한수 유역에 있던 鄧國과 경쟁했으며, 楚나라와의 동맹을 통해 江漢 지역 일대 소국을 병합하기도 했다. 과국 고유의 문자를 만들고 우수한 청동기 등을 제작했던 나라로도 유명하지만, 전316년에 秦나라에 멸망당했다.

75) 夔: 四川省 동부에 위치한 夔州를 말한다. 夔州는 옛날 지명이며, 현재는 奉節로 불린다. 戰國시대에는 楚나라가 관할했으며, 秦·漢 시기에는 魚復縣으로 개칭해서 巴郡에 예속했다. 隋 大業 연간(605~616) 초기에 巴東郡으로 개칭했으며, 唐 武德 2년(619)에 夔州로 명칭을 바꿨다. 唐 貞觀 23년(649) 奉節縣으로 개칭했다. 瞿塘峽에 위치한 지역으로 많은 전쟁의 무대가 되었으며, 예부터 名酒 생산지로 이름 높아 杜甫를 비롯한 많은 시인들이 이 지역의 술을 소재로 시를 읊은 바 있다.

76) 黔陽: 湖南省 중서부 지역에 위치한 沅州府 관할이었던 지명이다. 秦代에는 黔中郡 지역이었다. 宋 元豐 3년(1080)에 黔陽縣이 처음 설치되었다. 明 洪武 원년(1368)에 沅州府 관할로 두었다가 洪武 9년(1376) 沅州府가 州로 개편되면서 辰州府로 귀속되었다. 乾隆 원년(1736)에 沅州를 沅州府로 승격시켜 黔陽縣을 귀속시켰다. 1997년 黔陽縣과 洪江을 합쳐 현재에는 洪江市로 불린다. 雲南省 麗江古鎮이나 湖南省 鳳凰古城보다 오래된 黔陽古城 유적이 남아 있으며, 洞庭湖 일대 長江 중류 지역과 嶺南 문화의 교류 흔적을 볼 수 있는 古廟 유적이 존재한다.

77) 陳友諒(1320~1363): 元末 농민반란군의 지도자로 湖北省 沔陽縣 사람이다. 원래 縣吏였던 그는 원말 紅巾軍의 반란이 일어나자 元 至正 15년(1355) 당시 유력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徐壽輝 휘하로 들어가 홍건군이 되었다. 至正 17년(1357)에 倪文俊이란 인물이 서수회를 살해하려고 했는데, 바로 倪文俊을 죽인 일을 계기로 서수회의 신임을 얻었지만 결국 至正 20년(1360)에 그는 서수회를 살해했다. 元代 兵部尙書를 지낸 黃昭나 解觀 등의 지식인을 포섭하는 한편, 서수회의 주요 휘하들을 죽이고

호(湖)와 상(湘) 사이를 점거하고서,<sup>78)</sup> 이(利)로써 [그들을] 유혹하여, 그들(계동)의 병사를 동원해 이용했다. 여러 묘족 또한 [진우량을 위해] 온 힘을 다했고, 이웃 촌채에게 병사의 [충원을] 간청해서 [진우량을] 위해 그 병사들을 내몰도록 하니, 진우량은 이로 인해 더욱 방자해졌다. 태조<sup>79)</sup>(太祖, 1328~1398; 재위 1368~1398)가 파양호(鄱陽湖)<sup>80)</sup>에서 진우량을 섬멸하고, [이어] 무창(武昌)<sup>81)</sup>으로 진격해 [그곳을] 함락하자,<sup>82)</sup> 호남의 여러 곳이 [그런] 상황을 지켜보다 귀부(歸附)했으며, 원나라 때에 설치된 선위, 안무, 장관사의 속류(屬類)가 모두 차례로 [명 태조를] 영접하고 투항했다. 태조는 이들에게 원래 관직을 [그대로] 수여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교화에 따르지 않았다.

至正 19년(1359) 漢王이라 자칭했다. 한때 주원장과 맞설 정도로 세력이 막강했지만, 至正 23년(1363) 鄱陽湖 전투에서 朱元璋에게 참패를 당했다.

78) 陳友諒은 元 至正 20년(1360)에 자신이 섬기던 徐壽輝를 살해하고 漢을 세웠으며, 江西와 湖廣 일대를 점령하고 있었다.

79) 太祖: 여기서는 明을 건국한 太祖 朱元璋을 말한다. 安徽省 鳳陽縣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至正 12년(1352)에 郭子興 군대에 들어가 능력을 인정받게 되어 자신의 세력을 키우게 되었다. 元末 등장했던 陳友諒, 張士誠, 方國珍 등 여러 반란군 지도자들을 차례로 물리치고 至正 24년(1364)에 스스로 吳王에 올랐던 그는 1368년 드디어 元 왕조를 멸망시키고 明을 개국했다. 개국 후 里甲制의 실시, 元代의 中書省 폐지, 황권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펴 국가의 기초를 다지는 데 주력했다.

80) 鄱陽湖: 江西省 북부에 위치한 호수이다. 남북으로 173km, 동서로 74km이며, 면적은 3,283km<sup>2</sup>로 현재 중국의 가장 큰 담수호이다. 역사시대에는 彭蠡澤이라 불렸으며, 前漢 이전에는 長江 북안과 安徽省 서부까지 포괄하는 넓은 지역이었다. 鄱陽湖는 漢代 豫章郡 관할의 鄡陽縣이 설치된 이후, 南朝 劉宋 永初 2년(425) 鄡陽縣을 철폐할 때까지 광대한 평원으로 존재했다. 이후 隋·唐 시기부터 진행된 파양호 일대 지역의 침하로 이 지역 일대가 늪지로 변했으며, 隋代부터 파양호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으로 미루어, 대체로 隋·唐 시대 이후 현재 호수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판단된다(魏嵩山 外, 1995: 6~12).

81) 武昌: 湖北省의 도시명이다. 현재는 武漢市에 편입되어 있으며 湖北省의 省都이다. 과거 漢陽, 漢口와 더불어 武漢三鎮으로 널리 알려진 곳 가운데 하나이다. 秦代에는 南郡에 속해 있었으며, 漢代에 鄂縣이 설치되어 荊州江夏郡에 예속되었다. 三國時代 吳나라가 武昌郡을 설치한 이후 비로소 武昌이란 이름이 등장했다(光緒『武昌縣志』卷1「沿革」). 元 至正 24년(1364)에 武昌路를 武昌府로 개칭했으며, 武昌縣이 무창부에 예속되었다. 民國 2년(1913) 무창부를 폐지하고 江夏縣을 무창현이란 이름으로 바꿨다.

82) 明 太祖 朱元璋이 武昌을 함락한 시기는 그가 吳王에 즉위한 至正 24년(1364) 2월 무렵이다. 『明史』卷1「本紀」1에는 “(至正)二十四年 …… 二月乙未, 復自將征武昌, 陳理降, 漢沔荊岳皆下”라고 기술되어 있다.

洪武三年，慈利安撫使覃垕連構諸蠻入寇，征南將軍周德興平之。五年，覆命鄧愈爲征南將軍，率師平散毛等三十六洞，而副將軍吳良復平五開·古州諸蠻凡二百二十三洞，籍其民一萬五千，收集潰散士卒四千五百餘人，平其地。未幾，五開·五谿諸蠻亂，討平之。十八年，五開蠻吳面兒反，勢熾甚。命楚王楨將征虜將軍湯和，擊斬九谿諸處蠻僚，俘獲四萬餘人，諸苗始懼。而靖·沅·道·澧之間，十年內亦尋起尋滅。雖開國之初，師武臣力，實太祖控制之道恩威備焉。

홍무 3년(1370)에, 자리(慈利)<sup>83)</sup> 안무사 담후(覃垕)<sup>84)</sup>가 여러 만족과 연대해서 노략질하자, 정남장군(征南將軍)<sup>85)</sup> 주덕흥(周德興)<sup>86)</sup>이 그들을 평정했다.<sup>87)</sup> [홍무] 5년(1372)에, 다

83) 慈利: 지금의 湖南省 북부 澧水 중류에 위치한 지명이다. 張家界市에 속해 있으며, 인구는 약 70만 정도이다. 본래 秦始皇 26년(전221)에 36郡을 설치할 당시 黔中郡에 속한 慈姑縣이었는데, 隋 文帝 開皇 18년(598)에 慈利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한다. 洪武 4년(1371)에 安福과 麻寮의 두 所를 설치했는데, 慈利縣은 당시 安福에 있었으며, 洪武 29년(1396)에는 岳州府에 예속했다. 淸 雍正 8년(1730) 改土歸流를 단행한 후, 澧州直隸州에 속했다(嘉慶『重修慈利縣志』卷1「建置沿革考」).

84) 覃垕(?~1371): 明初 土家族의 土司이다. 元末 湖廣 澧州 大庸衛의 茅岡宣慰都元帥 吳統志와 吳毓父子의 학정에 반대해 거병했으며, 이후 세력이 증대했다. 朱元璋이 湖廣 지역을 점령한 후, 주원장에게 항복했지만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洪武 3년(1370)에 明朝에 저항해 거병했다.

85) 征南將軍: 정벌을 의미하는 ‘征’字를 붙인 장군, 즉 四征將軍(征東, 征西, 征南, 征北)의 명칭이 처음 출현한 시기는 漢代이지만 後漢末 전쟁이 잦은 탓에 曹操(155~220)는 이런 명칭을 붙인 장군을 일상적으로 두었다. 따라서 曹魏 文帝 시기(220~226)에는 四征將軍의 품계가 二品에 달해 三公 다음의 지위를 차지했지만(『晉書』卷24「職官志」14), 唐 왕조 이후에는 사실상 폐지되었다. 『明史』에는 이 명칭이 정식으로 등장하지는 않는데, 이로 미루어 明代에는 군사상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하사했던 직함이었다고 생각된다.

86) 周德興(?~1392): 安徽省 濠州 사람으로, 朱元璋이 어린 시절부터 같이 지낼 정도로 친숙한 사이였지만 아들 周驥가 지은 죄에 연좌되어 처형당했다. 洪武 3년(1370)에 江夏侯에 봉해졌으며, 당시 覃垕가 반란을 일으키자 太祖는 周德興을 征南將軍에 임명해 소수민족을 토벌하도록 했다. 洪武 20년(1392)에는 福建으로 내려가 왜구의 침공에 대비해 民兵을 훈련시키고 16개의 城을 쌓았기 때문에, 史書에는 이 지역의 海防을 처음으로 준비한 인물로 기록하고 있다(『明史』卷132「列傳」20).

87) 지방지에 따르면 이 반란에 대한 설명이 다르다. 일단 洪武 원년(1368)에 辰州와 澧州 일대에 반란이 일어나자, 鄧愈가 征南將軍에 임명되어 周德興과 吳良을 副將으로 대동하고 이 반란을 진압했다. 이어 본문에 등장하는 洪武 3년(1370)에 발생한 추장 覃垕의 반란 진압은 처음에는 당시 湖廣平章사로 있던 楊璟이란 인물이 주도했다. 그러나 완전히 제압되지 않은 覃垕가 洪武 4년(1371)에 다시 반란을 일으키

시 등유(鄧愈)<sup>88)</sup>를 정남장군으로 삼아 군사를 이끌고 산모(散毛)<sup>89)</sup> 등 36동(洞)<sup>90)</sup>을 평정하도록 했으며, 부장군(副將軍) 오량(吳良)<sup>91)</sup>이 다시 오개(五開)<sup>92)</sup>·고주(古州)<sup>93)</sup>의 여러 만

자 周德興이 재차 정벌을 단행했는데, 이 당시 周德興의 지위가 征南將軍이었다(嘉慶『重修慈利縣志』卷6「祥異」).

88) 鄧愈(1338~1378): 元 至元 15년(1355)에 부하 1만여 명을 이끌고 朱元璋에게 투항했으며, 이에 자신의 본명인 鄧友德 대신에 주원장이 하사한 鄧愈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洪武 3년(1370) 征虜左副將軍에 임명되어 徐達와 함께 甘肅 지역의 정벌에 나섰으며, 洪武 10년(1378)에 다시 征西將軍에 임명되어 吐蕃에 대한 정벌에 나섰다. 그의 사망 소식을 들은 太祖가 크게 슬퍼할 정도로 그는 많은 무공을 세웠는데, 사후 寧河王에 追贈되고, 武順이라는 諡號를 받았다.

89) 散毛: 覃氏 土司가 대대로 거주했던 지역으로, 현재 湖北省 來鳳縣의 翔鳳鎮과 三胡鄉 및 綠水鄉의 茅壩, 上寨, 龍咀 일대에 해당한다. 이 지역에 散毛宣撫使司가 처음 설치된 시기는 宋 仁宗 皇佑 5년(1053)이었다. 元 至元 16년(1270)에 元나라 장군 蔡邦光이 이 지역을 공격하다가 散毛司의 저항으로 사망했으며, 至元 28년(1291)에 이르러 元 조정은 이 지역을 안무하기 위해 師壁峒按撫司, 師壁鎮撫所, 師羅千戶所 등에게 인장을 하사하고 按撫使에게는 三品の 관위를, 나머지 둘은 五品の 관위를 내렸다(高恨非 外 主編, 2001: 18).

90) 洞: 대체로 소수민족이 사는 마을을 지칭하는 단어는 ‘洞’(峒)과 ‘寨’라는 명칭이 가장 보편적이다. 그러나 사료의 설명으로 미루어 ‘洞’이란 단어는 漢族이 자신의 전통적인 행정단위를 기준으로 붙였던 명칭이며, ‘寨’는 소수민족 지역의 전형적인 가옥형태와 그 구성이 지닌 특성을 살려 부른 명칭으로 판단된다. 즉, 同治『來鳳縣志』卷27「土司志」에 등장하는, “宋參唐制析其種落, 大者爲州, 小者爲縣, 又小者爲峒, 其酋皆世襲”이란 말은 전자의 경우이고, 嚴如煜이 生苗의 풍습을 설명하면서 “寨中有父子兄弟數人數十人, 強梁健闘或能見官府講客話者, 則寨中畏之, 共推爲寨長 …… 又各自爲黨, 故一寨一長, 或一寨數長, 皆以盛衰強弱, 遞變更易, 不能如他部之有酋長, 世受統轄也”라는 언급은 후자의 경우라 할 수 있다(嚴如煜, 『苗防備覽』卷8「風俗」上).

91) 吳良(1324~1381): 安徽省 定遠 사람으로 본명이 興國이었지만, 朱元璋의 字인 國瑞의 ‘國’자를 피하기 위해 朱元璋이 하사한 ‘良’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했다. 朱元璋의 南京 공략에 참여해서 세운 전공으로 洪武 3년(1370)에 江陰侯에 봉해졌다. 평소에 그는 성품이 인자하였으며, 절약하는 생활을 했다고 한다. 사후 江國公에 봉해졌다(『明史』卷130「吳良傳」).

92) 五開: 貴州省 黎平 일대에 있었던 五開衛를 말한다. 휘하에 黎平, 中潮, 新化亮寨, 隆里, 新化屯의 5개소가 있었다. 明 洪武 18년(1385)년에 衛가 설치되었는데, 당시 湖廣都司에 속했다. 지금의 貴州省 黎平縣에 해당되는 지역이며, 淸 雍正 3년(1725)에 開泰縣을 설치했다(顧祖禹, 『讀史方輿紀要』卷120「貴州」1).

93) 古州: 지금의 貴州省 黎平에 있는 苗族侗族自治州榕江縣 일대의 지역을 말한다. 元 至元 20년(1283)에 9谿 18洞을 평정하고 古州를 설치했으며 順元路宣慰司 관할에 두었다. 이어 洪武 5년(1372)에 古州蠻夷長官司를 설치하고 土酋 楊秀茂를 長官使로 임명했으며, 思州宣慰司에 예속시켰다. 永樂 원년(1403)에 다시 貴州衛 소속으로 되었다.

죽 무릇 223동을 평정해서, 그들 백성 15,000명을 [호적에] 등록시키고, 사방으로 도주하고 흩어진 사병(士兵) 4,500여 명을 한데 모아, [마침내] 그 지역을 평정했다.<sup>94)</sup> 오래 지나지 않아, 오개와 오계(五谿)<sup>95)</sup>의 여러 만족들이 난을 일으키자, 그들을 토벌해서 평정했다. [홍무] 18년(1385)에, 오개의 만족인 오면아(吳面兒)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날뛰는 기세가 심했다. 초왕(楚王) 정(楨)<sup>96)</sup>(1364~1424; 재위 1370~1424)에게 명하여 정로장군(征虜將軍) 탕화(湯和)<sup>97)</sup>와 함께 [그들을 정복하도록 해], 구계(九谿)<sup>98)</sup> 여러 곳의 만족 요(僚)를 공격하여 참살하고, 4만여 명을 포로로 생포하자, 여러 묘족들이 비로소 두려워했다.<sup>99)</sup> 그리고 정주(靖州)<sup>100)</sup>, 원주(沅州)<sup>101)</sup>, 도주(道州)<sup>102)</sup>, 예주(澧州)<sup>103)</sup> 등지에서 10년 사이에 또한 반란이

94) 洪武 5년(1372)에 鄧愈와 吳良의 반란 진압은 각각 지금의 湖北省 서남부 일대와 貴州省 黎平 일대의 반란진압 사실을 동시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혼란의 여지가 있다. 우선 湖北省 散毛 등 36洞에 대한 진압은 당시 두 번에 걸쳐 행해졌다. 洪武 5년 5월에 衛國公 鄧愈가 征南將軍으로, 그리고 江夏侯 周德興과 江陰侯 吳良이 副將이 되어 산모를 평정했으며, 같은 해 鄧愈가 다시 散毛, 柿溪, 赤溪, 安福 등의 39洞을 평정했다. 따라서 본문의 산모 등 일대에 대한 평정은 등유가 단독으로 행한 평정을 말한다(同治『來鳳縣志』卷18「武備志」). 한편 黎平 일대에 대한 진압은 洪武 5년에 吳良이 주도했다(光緒『黎平府志』卷6下「秩官志」).

95) 五谿: 지금의 湖南省 懷化市 일대에 해당하며, 이 지역으로 酉水, 辰水, 瀘水, 舞水, 渠水가 지나가기 때문에 오계라 불렸다. 다만 酉水是 四川省 동남쪽 끝에서 발원해 湖北省 施南府와 湖南省 永順府의 경계를 흐르는 하천인 반면, 나머지 하천들은 당시 湘西 지역에 있는 保靖宣慰司 일대를 흐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五谿 일대의 반란은 대체로 保靖宣慰司 관할 소수민족들이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96) 楨(1364~1424): 明 太祖 여섯 번째 아들인 朱楨을 말한다. 朱元璋이 武昌을 공략할 당시, 무창에서 태어났으며, 洪武 3년(1370)에 楚王으로 봉해졌다. 그가 湯和와 함께 銅鼓와 思州(貴州省)의 소수민족 반란을 진압했다는 본문의 이야기는 洪武 18년(1385)의 일이다. 諡號가 昭이기 때문에 楚昭王으로도 불린다.

97) 湯和(1326~1395): 安徽省 濠州 사람으로 字는 鼎信이다. 元 至正 12년(1352)에 郭子興軍에 가담했으며, 이듬해 朱元璋에게 귀속했다.

98) 九谿: 明 洪武 23년(1390)에 설치된 九谿衛를 말하며, 지금의 湖南省 慈利縣 서북쪽에 위치한 지역이다. 湖廣都司 관할이었는데, 淸 雍正 7년(1729)에 폐지되었다.

99) 洪武 18년(1385) 貴州 지역 일대에서 일어난 吳面兒의 반란 규모는 상당히 컸던 것으로 짐작된다. 지방지의 기사에 따르면 본문에 등장하는 楚王 楨과 湯和 외에도 江夏侯 周德興과 同知 湯禮 등이 주요 지휘관으로 참가했기 때문이다. 20여만 명이 반란에 가담했다는 언급에서도 반란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당시 동원된 군사는 약 30만 명이었으며, 본문의 설명과는 달리 지방지에는 약 4,000여 명을 섬멸했다고 기록되어 있다(光緒『古州廳志』卷7「武備志」). 한편 이 서술 역시 貴州省 일대의 반란과 湖南省 서북부 지역의 반란을 동시에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각주 98)에서 언급했듯이, 九谿 지역은 湖南省 관할이며 그 거리도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일어나고, [그들에 대한] 평정이 반복되었다.<sup>104)</sup> 개국 초이기 때문에 군사의 무력과 대신들의 능력이 있었지만, 실제 [소수민족에 대한] 태조의 통제 방법은 은혜와 위엄을 [동시에] 갖추고 있었다.

永樂初，苗告繼絕，襲冠帶，益就銜勒。垂百年，而五開·銅鼓間又紛紛多警。時英宗北狩，中原所在侵擾，苗勢殊熾。景泰初，總兵官宮聚奏：「蠻賊西至貴州龍里，東至湖廣沅州，北至武岡，南至播州之境，不下二十萬，圍困焚掠諸郡邑。臣所領官軍不及二萬，前後奔赴不能解平越之圍。乞急調京邊軍及征麓川卒十萬前來，以資調遣。」久而

- 100) 靖州: 湖南省 서남단에 있는 지역으로 지금의 靖州苗族侗族自治縣이다. 貴州省과 접해 있으며, 아열대 기후에 속한 지역으로 임산물과 광산물이 풍부하다. 宋 元豐 4년(1081)에 정식으로 誠州라는 州가 설치되었으며, 崇寧 2년(1103)에 誠州를 靖州로 고쳐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洪武 3년(1370)에 府로 승격되었지만, 洪武 9년(1376)에 다시 州로 고쳤다.
- 101) 沅州: 湖南省 湘西 지구 일대를 가리키며, 자연풍광이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하다. 沅州라는 명칭은 陳 太康 7년(575)에 처음 등장하며, 隋 開皇 9년(589)에 다시 郎州로 개칭했다가 宋 熙寧 7년(1074)에 沅州를 설치했다. 元 至元 14년(1277)에 沅州路로 승격했지만, 明 洪武 9년(1376)에 다시 州로 고쳤다. 淸 乾隆 원년(1736)에 沅州府로 승격되었다.
- 102) 道州: 湖南省 남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근래 공업이 크게 발달하고 있는 지역이다. 唐 貞觀 8년(633)에 道州라는 명칭이 정식으로 등장했으며, 元 至元 13년(1276) 道州에 按撫司를 설치했다. 民國 2년(1913)에 道州를 道縣으로 개칭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103) 澧州: 湖南省 서북부 澧水 중하류에 위치한 지역이다. 梁 敬帝 紹泰 원년(555)에 처음으로 澧州를 설치했다. 元 至元 12년(1275)에 澧州按撫司를 설치했으며, 洪武 9년(1376) 澧州府를 澧州로 강등시켜 常德府 관할 하에 두었다. 淸 雍正 7년(1729)에 예주를 直隸州로 승격시켜 常德府와 동일한 위치에 두었으며, 岳常澧道 관할 하에 두었다.
- 104) 靖州, 沅州, 道州, 澧州 등지에서 지속적인 반란 발생과 그 진압이 이루어졌다는 본문의 언급이 다소 모호한 탓에, 洪武 연간(1368~1398) 이 지역에서 발생한 소수민족 반란을 일별할 필요가 있다. 우선 靖州에서는 본문에 등장하는 洪武 5년(1372) 반란 외에도, 洪武 11년(1378), 洪武 12년(1379), 洪武 18년(1385, 吳面兒 반란), 洪武 24년(1391)에 각각 반란이 발생했다(光緒『靖州鄉土志』卷1「兵事」). 道州에서도 洪武 초년에 寧遠과 江華 등지의 獠賊이 창궐해 通判 張原湜이 그들을 진압한 바 있으며, 洪武 10년(1377)에도 반란이 일어나자 同知 蕭輿가 奏請하여 千戶所를 寧遠衛로 바꾸었다(嘉慶『道州志』卷6「兵防志」). 또한 澧州에서도 洪武 원년(1368), 洪武 3년(1370, 담후의 반란), 洪武 4년(1371), 洪武 22년(1389)에 각각 반란이 발생했다(乾隆『直隸澧州志林』卷19「祥異志」).

師徵不至，更易他帥，浸淫六七載。至天順元年，總督石璞調總兵官方瑛，始剋期征剿。破天堂·小坪·墨溪二百二十七寨，擒僞王侯伯等百餘人，斬賊首千四百餘級，奪回軍人男婦千三百餘口，於是苗患漸平。蓋萌發於貴州，而蔓延於湖南，皆生苗爲梗。諸土司初無動搖，而永·保諸宣慰，世席富強，每遇征伐，輒願荷戈前驅，國家亦賴以撻伐，故永·保兵號爲虓雄。嘉·隆以還，徵符四出，而湖南土司均備臂指矣。

영락(永樂)<sup>105)</sup> 초년에, 묘족이 [직함을] 계승하거나 바꾸면서 지위를 세습하자, [그들에 대한] 견제와 억압을 더욱 강화했다.<sup>106)</sup> 백 년에 걸쳐 오개와 동고(銅鼓)<sup>107)</sup> 사이에 또한 많은 위급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영종(英宗)<sup>108)</sup>(1427~1464; 재위 1435~1449, 1457~1464)이 북쪽의 몽골족을 정벌하러 나섰고,<sup>109)</sup> 중원 도처가 [오랑캐들의] 침입으로 어지러워지자, 묘족의 기세가 특히 거세졌다. 경태(景泰)<sup>110)</sup> 초에, 총병관(總兵官)<sup>111)</sup> 궁취(宮聚)<sup>112)</sup>가 상

105) 永樂: 명 왕조 제3대 황제인 成祖 朱棣의 年號이다.

106) 永樂 연간(1403~1423) 초에 普安安撫司를 설치해 四川布政司에 예속시키고, 古州와 龍里 일대에 14蠻夷長官司를 설치해 貴州布政司에 귀속시켰으며(『太宗實錄』卷16 永樂 元年 正月 甲辰條), 치안상 문제가 있는 지역에는 堡를 쌓고 屯兵을 주둔시켜 그 지역을 지키도록 했다(『太宗實錄』卷38 永樂 3年 正月 乙酉條).

107) 銅鼓: 洪武 30년(1397)에 銅鼓千戶所를 고쳐 衛를 설치하고 湖廣都司에 예속시켰으며, 治所는 지금의 貴州省 錦屏縣 일대였다. 淸 雍正 5년(1727)에 錦屏縣으로 고쳤다.

108) 英宗: 9살의 어린 나이로 1435년 즉위했으며, 당시 太皇太后 張氏와 三楊(楊士奇, 楊榮, 楊溥) 등이 그를 보좌했지만, 張氏의 사망과 三楊이 퇴임 이후 宦官 王振이 전권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正統 14년(1449)에 몽골 오이라트부가 침입하자, 王振의 권유에 따라 친정에 나섰지만 대패하고 포로가 되었다. 이를 이른바 土木堡의 變이라 한다. 따라서 英宗의 아우인 朱祁鈺이 代宗으로 즉위했지만 景泰 8년(1457)에 영종이 황위 찬탈에 성공해(奪門之變), 다시 연호를 天順으로 하고 재등극했다.

109) 몽골 부족의 하나인 오이라트의 침입을 막기 위해 正統 14년(1449)에 英宗이 親征을 한 사건을 말한다.

110) 景泰: 명 왕조 제7대 황제인 代宗 朱祁鈺의 年號이다.

111) 總兵官: 명·淸 시대 武官名이다. 명 왕조는 수도와 지방에 衛所를 설치하고, 그 군사들을 통할하는 總兵과 副總兵을 두었다. 그러나 유사시 이들 지휘관을 總兵官으로 임명해 衛所軍의 동원과 지휘를 담당하도록 했다. 전쟁이 끝나면 위소의 군대는 본래 지역으로 돌아갔으므로 明初 總兵官은 임시직이었으며, 품계나 정원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正統 연간(1436~1449) 이후 잦은 전란 때문에 고정 武官職으로 되었는데, 雲南은 征南將軍, 湖廣은 平蠻將軍 등으로 호칭했다. 淸代에는 軍權이 巡撫나 提督에게 귀속되었지만, 그들 휘하의 總兵官 품계는 正二品에 달해 결코 낮은 지위는 아니었다. 다만 실제 휘하의 병력이 많게는 1만 5천 명에서 적게는 수백 명까지 다양했다.

주(上奏)해서 아뢰기를, “만적(蠻賊)이 서쪽으로 귀주(貴州)<sup>113</sup>의 용리(龍里)<sup>114</sup>에 이르렀으며, 동으로는 호광(湖廣)<sup>115</sup>의 원주(沅州)에, 북으로는 무강(武岡)<sup>116</sup>, 남으로는 파주(播州)<sup>117</sup>의 경계에 이르렀는데, [그 수효가] 20만이 넘으며, 사방을 포위해 여러 군읍(郡邑)을 불지르며 약탈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느리고 있는 관군(官軍)은 2만이 채 되지 못해, 앞뒤로 분주하게 움직여도 평월(平越)<sup>118</sup>의 포위망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청하읍건대, 경사(京師)<sup>119</sup> 주변을 방위하는 군대와 녹천(麓川)<sup>120</sup>을 정벌[하기 위해 보낸]<sup>121</sup> 군졸 10만여 명

112) 宮聚: 生卒年 未詳. 그는 景泰 원년(1450) 당시 貴州總兵官으로 있었다. 다만 본문의 설명과는 달리 平越의 포위망을 뚫어야 한다고 上奏한 인물은 당시 貴州監察御史였던 沈義라는 사람이었다(『英宗實錄』 卷187 景泰 元年 正月 丁酉條 참조).

113) 貴州: 중국 서남지역에 위치한 省이다. 貴州 지역은 옛 牂牁國이 있었던 곳이며, 秦 통일 이후 巴郡, 蜀郡, 黔中郡, 象郡 관할로 각각 분할되었다. 적어도 3세기 이후부터 慕俄格, 播勒, 烏蒙, 烏撒, 車里와 같은 다양한 소수민족 정권이 들어섰다는 설명으로 미루어(John E. Herman, 2007: 24~28) 귀주 지역 일대는 옛날부터 소수민족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존재했던 곳이기도 하다. 귀주라는 명칭이 등장한 시기는 宋代부터였으며, 明 永樂 11년(1413)에 貴州承宣布政使司가 설치된 이후 정식으로 貴州省이라 불렸다. 전체 인구 구성 중 소수민족이 약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苗族, 布依族, 土家族, 侗族, 彝族이 약 82%를 차지하고 있다.

114) 龍里: 현재 행정구역상으로는 貴州省黔南布依族苗族自治州 북부에 속해 있는 지역이지만, 明代에는 貴州宣慰司, 清代에는 貴陽府 관할에 있었다. 龍里라는 명칭은 元 至元 20년(1283)에 처음 등장했다. 洪武 23년(1390)에 龍里衛를 설치해서 貴州都指揮使 관할 하에 두었으며, 淸 康熙 21년(1682)에 貴陽府에 예속됐다.

115) 湖廣: 明代 湖廣省을 말한다. 康熙 3년(1664)에 湖南省과 湖北省으로 분리되었다.

116) 武岡: 지금의 湖南省 서남부에 위치한 邵陽市 관할 지명이다. 산림과 광물이 풍부하며, 廣西로 통하는 길목이기도 하다. 武岡이란 명칭은 前漢 文帝~景帝 시기에 처음 등장했으며, 明 洪武 9년(1376)에 武岡府를 武岡州로 바꾸었다. 永樂 21년(1423)에 朱元璋의 18번째 아들인 岷王 朱鞭이 이곳에 王府를 건설하고, 약 270여 년간 세습했다. 淸 順治 4년(1647)에 南明정권 지도자 중 하나인 桂王 朱由榔이 岷王府를 황궁으로 삼고 武岡을 奉天府로 개칭한 바 있다.

117) 播州: 지금의 貴州省 遵義 일대 지역이다. 이 지역에는 唐 僖宗 乾符 3년(876)에 토시정권이 수립된 이래 明 萬曆 28년(1600)까지 약 700여 년 동안 楊氏 토시들이 할거한 지역이었다. 元 至元 28년(1291)에 播州宣撫司로 승격되었으며, 明 太祖 5년(1372)에 明에 항복해 播州宣慰司로 승격되었다. 이 지역이 貴州로 편입된 시기는 淸 雍正 5년(1727)이다.

118) 平越: 지금의 貴州省 福泉市 지역이다. 漢代에는 牂牁郡 관할이었지만 唐代에는 播州郡에 속해 있던 지역이었다. 明 洪武 8년(1375)에 平越按撫司가 설치되었고, 萬曆 28년(1600)에 平越府로 승격했다.

119) 京師: 수도를 말하며, 여기서는 北京을 뜻한다.

120) 麓川: 지금의 雲南省 중부 남단에 위치한 瑞麗縣 일대로 미얀마와 접경해 있다.

을 급히 징발하여 오게 하여 [각지로] 파견해서 [그들을] 돕도록 하십시오”라고 했다. 오랜 시간이 지났으나 군대의 징집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다시 다른 장수로 바뀌었지만, [이러한 상황]이 서서히 확대된 지가 [이미] 6~7년이 지나갔다. 천순(天順) 원년(1457)에 이르러, 총독(總督)<sup>122)</sup> 석박(石璞)<sup>123)</sup>이 총병관(總兵官) 방영(方瑛)<sup>124)</sup>을 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시기를 정하여 [이들을] 정벌하여 토벌했다.<sup>125)</sup> 천당(天堂), 소평(小坪), 묵계(墨溪)의 227채(寨)를 부수고, 거짓으로 왕(王)·후(侯)·백(伯)이라 [칭한] 100여 명을 생포했으며, 적(賊) 1,400여 명의 머리를 베고, 군인들과 남녀 1,300여 명을 빼앗아 돌아오자, 이에 묘족의 환란이 점차 가라앉았다. 대체로 [이 반란은] 귀주(貴州)에서 시작되어, 호남으로 확산되었는데, 모두 생묘(生苗)<sup>126)</sup>가 화근이 되었다. 여러 토사들은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았지만(진

121) 이른바 麓川之役을 말한다. 明 英宗 正統 2년(1437) 겨울에 雲南省 麓川宣慰司 思任發이 반란을 일으키자, 正統 4년(1439)에 雲南黔國公 沐晟, 左都督 方政, 右都督 沐昂 등에게 토벌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思任發의 아들 思機發이 다시 반란을 일으켜 실제 이 반란이 진압된 시기는 正統 13년(1448)이었다. 이때 동원된 南京, 雲南, 貴州의 토사 지역 군사들과 漢軍이 약 13만 명에 달했기 때문에, 宮聚가 요구한 병사들은 이 당시 동원된 군사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谷應泰『明史紀事本末』卷30「麓川之役」).

122) 總督: 正統末~景泰初에 처음 등장한 지위로 처음에는 南京과 北京의 軍務를 담당했으며, 사안이 중식 되면 폐지하는 일종의 임시직이었다. 그러나 成化 5년(1469) 兩廣 지역에 總督을 설치한 후, 정식 지위로 자리잡게 되었다. 明代의 總督이 주로 軍事 업무를 관장하는 직위였던 데 비해, 清代가 되면 한 省 혹은 2~3개 省을 총괄하는 正二品의 지방 최고의 장관이었다. 통상 巡撫와 함께 督撫로도 불렸지만, 巡撫보다 권한이 많았다. 清代에는 直隸, 兩江, 四川, 閩浙, 雲貴, 湖廣, 兩廣, 東三省, 陝甘 總督이 있었으며, 河道總督이나 漕運總督처럼 특정 사안을 총괄하는 경우에도 總督이란 지위를 사용했다.

123) 石璞: 生卒年 未詳. 正統 초년에 江西按察使를 시작으로, 正統 7년(1442) 山西布政使에 올랐다. 이어 景泰 6년(1455) 兵部尙書에 올라 天順 원년(1457)까지 역임했다.

124) 方瑛(1414~1459): 都督을 역임한 方政의 아들로 舍人의 자격으로 麓川 정벌에 아버지를 따라 종군했다가 부친이 사망하자, 소수민족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다. 正統 6년(1441)에 다시 麓川 정벌에 참여했으며, 景泰 원년(1450)에 그의 지략이 인정되어 都督同知를 제수받고 北京에 도착했지만, 귀주 지역 소수민족 반란으로 다시 내려갔다. 본문에 등장하는 天順 원년(1457)의 일은 전년인 景泰 7년(1456)에 蒙能이 반란을 일으키자 都指揮 鄭泰 등과 함께 그들을 격파했고, 다시 石璞이 이끄는 병사들과 함께 天堂 일대 반란을 진압한 이야기이다. 이 진압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英宗이 復位에 성공했다(『明史』卷166「方瑛傳」).

125) 天堂과 小坪 일대 진압 상황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英宗實錄』卷275 天順 元年 2월 戊午條 참조.

126) 生苗: 漢族 문화에 동화된 熟苗과 대립되는 말로써, 漢族 문화의 영향을 받아 생활방식이 漢族과 동일한

압에 동조하지 않았지만), 영순(永順)과 보정(保靖)의 여러 선위(宣慰)들은 대대로 부강(富強)했기 때문에, 정벌을 단행할 때마다, 매년 무기를 들고 먼저 나아가기를 원했으며, 국가 역시 그들의 힘을 빌려 [반란을] 징벌했으므로, 영순과 보정의 병사들을 효웅(虢雄)<sup>127)</sup>이라 불렀다. 가정(嘉靖)과 융경(隆慶)<sup>128)</sup> 이래, [반란 진압을 위한 군사] 징발의 문서가 사방으로 나갔는데, 호남 지역 토사들이 모두 [명 조정의 명령에 쉽게] 응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추었다.<sup>129)</sup>

## 施州

### 시주

施州，隋爲清江郡，改施州。明初仍之。洪武十四年改置施州衛軍民指揮使司，屬湖廣都司。領軍民千戶所一：曰大田。領宣撫司三：曰施南，曰散毛，曰忠建。領安撫司八：曰東鄉五路，曰忠路，曰忠孝，曰金峒，曰龍潭，曰大旺，曰忠峒，曰高羅。領長官司七：曰搖把峒，曰上愛茶峒，曰下愛茶峒，曰劍南，曰木冊，曰鎮南，曰唐崖。領蠻夷長官司五：曰鎮遠，曰隆奉，曰西坪，曰東流，曰臘壁峒。又有容美宣撫司者，亦在境內，領長官司四：曰椒山瑪瑙，曰五峰石寶，曰石樑下峒，曰水盡源通塔平。

시주(施州)<sup>130)</sup>는 수(隋)나라 때에 청강군(淸江郡)<sup>131)</sup>이었는데, 시주로 바꿨다. 명나라 초

지의 여부가 生苗와 熟苗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다. 그러나 일찍이 嚴如煜이 “邊牆內，間有與民相錯居住，或佃耕民地，供賦當差，與內地人民無異，則熟苗也”라고 기술한 바와 같이(嚴如煜, 『苗防備覽』 卷8 「風俗考」), 명 萬曆 43년(1615) 鳳凰溪 남부부터 乾州까지 약 360여 리의 邊牆을 설치하고 그 밖에 있는 묘족들을 生苗라 칭한 것으로 보아, 생묘와 숙묘의 구분에는 행정당국의 자의적인 기준도 많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朱聖鍾, 2002: 16).

127) 虢雄: 용맹스런 병사들이란 의미이다.

128) 隆慶: 明 왕조 제12대 황제인 穆宗 朱載堉의 年號이다.

129) 일례로 貴州 芒部에서 묘족이 반란을 일으키자, 永順과 保靖의 土兵을 동원해 진압했다(『世宗實錄』 卷40 嘉靖 3년 6월 甲辰條).

130) 施州: 지금의 湖北省 서남부에 위치한 恩施 일대이다. 역사상 施州라는 명칭이 등장한 시기는 北周 武帝 保定 연간(561~565) 초기에 施王 桓氏의 반란을 진압하고 建德 3년(574) 이 지역에 施州를 설치한 이후부터이다. 당시 이 지역은 淸江郡 소속이었으며, 沙渠縣을 烏飛縣과 鹽水縣으로 나뉘었는

에 그 명칭을 그대로 따랐다. 홍무 14년(1381)에, [이를] 고쳐 시주위군민지휘사사(施州衛軍民指揮使司)<sup>132)</sup>를 설치하고,<sup>133)</sup> 호광도사(湖廣都司)에 예속시켰다. 군민천호소(軍民千戶所)<sup>134)</sup> 한 곳을 관할했는데, 대전(大田)<sup>135)</sup>이라 한다. 선무사(宣撫司) 세 곳을 관할했는데, 시남(施南), 산모(散毛), 충건(忠建)이라 한다.<sup>136)</sup> 안무사(安撫司) 여덟 곳을 관할했는데, 동

데, 烏飛縣 일대가 바로 施州였다. 본문에 등장하는 淸江郡을 施州로 바꿨다는 언급은 大業 3년(607)에 淸江郡을 다시 설치하고 淸江, 鹽水, 開夷 세 곳을 관할하도록 했다가 隋나라 恭帝 義寧 2년(618)에 施州로 개칭한 일을 말한다. 唐代에 이르러 지금의 建始縣과 五峰 등 縣以西 지역을 관할했지만 洪武 초년에 폐지했다. 洪武 14년(1381)에 다시 설치되어 夔州府에 속해 있었으며, 建始縣을 관할했다(民國『施州考古錄』卷上, 「恩施縣沿革大綱」). 1983년에 鄂西土家族苗族自治州로 되었다.

131) 淸江郡: 隋나라 大業 연간(605~616)에 설치되었으며, 치소는 지금의 湖北省 長陽土家族自治縣 서쪽에 위치한 鹽水縣에 두었다. 관할 지역은 지금의 湖北省 巴東縣 남부, 長陽土家族自治縣, 五峰土家族自治縣 서부 일대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다.

132) 施州衛軍民使司: 明代 施州(지금의 湖北省 恩施) 土家族 지역을 통할한 군사기구이다. 元代 이 지역은 四川行省 夔州路에 속해 있었으며, 洪武 14년(1381) 施州를 처음 설치할 당시에도 기주부에 속해 있었지만, 그해 6월 施州衛軍民指揮使司를 설치해 湖廣都司에 예속시키는 한편 州라는 행정단위 대신에 衛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133) 이에 관한 내용은 『太祖實錄』卷137 洪武 14년 6월 戊辰條 참조.

134) 軍民千戶所: 明代 地方兵制 가운데 하나이다. 明 왕조는 전국 주요 군사요충지와 소수민족 지역에 軍衛를 설치했다. 특히 土司 지역의 경우 ‘旗’가 衛所의 기본단위였는데, 10명이 小旗, 10개의 소기를 總旗라 했으며, 총기 둘을 百戶所라 했다. 10개의 백호소를 묶어 千戶所라 했으며, 천호소 10개를 衛라 했다. 따라서 각 단위마다 각각 千戶, 百戶, 總旗와 小旗 등의 부대 단위가 있었으며, 이들 병사들은 모두 세습직이었다. 본문 후반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들 군인은 유사시 출병했다가 다시 원대로 복귀했다.

135) 大田: 散毛宣撫司 안에 위치한 大水田 지역을 일컫는데, 지금의 湖北省 咸豐縣 부근이다.

136) 본문에 따르면 施南, 散毛, 忠建의 세 宣撫司가 자칫 洪武 14년(1381)에 일괄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혼동할 수 있는데, 그 설치 시기는 각각 다르다. 우선 施南宣撫司는 元代에 鎮邊萬戶總管府가 설치되었던 지역으로, 元 至元 23년(1286)에 忠義軍民按撫司가 있었다. 洪武 4년(1371)에 이 지역(현재 瞿塘峽 일대)을 평정하자 覃大富가 入朝했는데, 洪武 7년(1374)에 그를 宣撫使로 임명했다. 한편 忠建宣撫司는 元代 軍民都元帥府가 설치되었던 곳으로서, 洪武 4년(1371)에 歸附하여 洪武 6년(1373)에 宣撫司가 설치되었지만, 두 번에 걸친 반란으로 按撫司로 되었다가 洪武 23년(1390)에 다시 宣撫司가 설치되었다(同治『宣恩縣志』卷1「疆域」). 또한 散毛宣撫司는 元 至元 30년(1293)에 散毛峒蠻夷長官司를 설치했다가 至元 31년(1294)에 府로 승격시켜 四川行省에 속하도록 했다. 이어 至正 6년(1346)에 散毛砦等處軍民宣慰司로 고치고, 이어 明玉珍이 散毛宣慰使司都元帥로 있다가 洪武 7년(1374)에 散毛沿邊宣慰司로 고쳤으며, 당시에는 四川 重慶衛에 소속되었지만 洪武 23(1390)년에 폐지되었다. 이후 永樂 2년(1404)에 散毛長官司를 설치해 大田軍民千戶所 관할로 두었다가 永樂 4년(1406)에 宣撫司

향오로(東鄉五路), 충로(忠路), 충효(忠孝), 금동(金洞), 용담(龍潭), 대왕(大旺), 충동(忠洞), 고라(高羅)라 한다.<sup>137)</sup> 장관사 일곱을 관할했는데, 요파동(搖把洞), 상애차동(上愛茶洞), 하애차동(下愛茶洞), 검남(劍南), 목책(木冊), 진남(鎭南), 당애(唐崖)라 불렀다.<sup>138)</sup> 만이장관사(蠻夷長官司) 다섯 곳을 관할했는데, 진원(鎭遠),<sup>139)</sup> 융봉(隆奉), 서평(西坪), 동류(東流), 납벽동(臘壁洞)이라 했다.<sup>140)</sup> 또 용미선무사(容美宣撫司)<sup>141)</sup>가 있는데, 그 또한 [시주위] 경내에 있으며, 장관사(長官司) 넷을 관할했는데, 초산(椒山)의 마노(瑪瑙), 오봉(五峰)의 석보(石寶), 석량(石梁)의 하동(下洞), 수진원(水盡源)의 통탑평(通塔平)이라 한다.<sup>142)</sup>

初，太祖卽吳王位，甲辰六月，湖廣安定宣撫使向思明遣長官硬徹律等，以元所授宣撫敕印來上，請改授。乃命仍置安定等處宣撫司二，以思明及其弟思勝爲之。又置懷德軍民宣撫司一，以向大旺爲之，統軍元帥二，以南木·潘仲玉爲之。抽攔·不用·黃石三洞，各置長官一，以沒葉·大蟲·硬徹律爲之。彝坪洞設元帥府一，以向顯祖爲之。梅

로 승격시켜 施州衛에 예속시켰다(道光 『施南府志』 卷2 「沿革」).

137) 이 여덟 곳의 按撫司가 위치한 곳은 지금의 湖北省 恩施市 宣恩縣과 鶴峰土家族自治縣 일대이다. 다만 본문의 기술에 따르면, 위의 按撫司가 같은 시기에 설립되어 내내 동일한 지위로 존속했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明會要』 卷74 「方域」 4와 道光 『施南府志』 卷2 「沿革」을 토대로 이들 按撫司의 설치와 폐지 시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明會要』와 道光 『施南府志』의 기재 내용이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탓에, 설치나 폐지에 관한 정확한 시기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明會要』가 正史類라는 점을 고려해 『明會要』의 설명에 따랐다.

| 宣撫司 | 按撫司  | 縣 위치 | 최초 설치 시기               | 廢止·改置 시기        | 復置 시기       |
|-----|------|------|------------------------|-----------------|-------------|
| 施南  | 東鄉五路 | 宣恩縣  | 洪武 4년(1371) 長官司        | 洪武 23년(1390) 폐지 | 永樂 5년(1407) |
|     | 忠路   | 利川縣  | 洪武 4년(1371) 長官司        | 洪武 23년(1390) 폐지 | 永樂 5년(1407) |
|     | 忠孝   | 利川縣  | 洪武 4년(1371) 長官司        | 洪武 23년(1390) 폐지 | 永樂 5년(1407) |
|     | 金洞   | 咸豐縣  | 元代                     | 洪武 4년(1371) 長官司 | 永樂 5년(1407) |
| 散毛  | 龍潭   | 咸豐縣  | 洪武 4년(1371)            | 洪武 23년(1390) 폐지 | 永樂 5년(1407) |
|     | 大旺   | 來鳳縣  | 洪武 6년(1373) 宣撫司        | —               | 永樂 5년(1407) |
| 忠建  | 忠洞   | 宣恩縣  | 洪武 5년(1372)<br>沿邊溪洞長官司 | 폐지(시기 불명)       | 永樂 4년(1406) |
|     | 高羅   | 宣恩縣  | 洪武 6년(1373)            | 洪武 7년(1374)     | 永樂 4년(1406) |

138) 이 일곱 개의 長官司 위치를 현재 恩施 地區의 縣으로 환원하면 搖把洞과 上下愛茶洞이 恩施縣 경내에, 黔南이 利川縣에, 木冊과 鎭南이 宣恩縣에, 唐崖가 咸豐縣 경내에 각각 존재했다. 그리고 이들 長官司 역시 그 설치와 폐지 시기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했다.

梓·麻察二洞，各置長官一，以向思明·唐漢明爲之。皆新降者。丙午二月，容美洞宣撫使田光寶遣弟光受等，以元所授宣撫敕印來上。命光寶爲四川行省參政，行容美洞等處軍民宣撫司事，仍置安撫元帥治之。並立太平·臺宜·麻察等十寨長官司。

| 長官司        | 元代                                  | 廢止 시기                             | 改置 시기                           | 復置 시기              | 施州衛 隸屬 시기       |
|------------|-------------------------------------|-----------------------------------|---------------------------------|--------------------|-----------------|
| 搖把峒        | 元 又把峒按撫司                            | 이후 폐지                             | 宣德 3년(1428)                     | —                  | —               |
| 上·下<br>愛茶峒 | 元 至順 2년(1331)<br>宣撫司<br>至正 연간 軍民宣慰司 | 至正 4년<br>(1364)<br>軍民宣慰司<br>이후 폐지 | 至正 24년(1364)<br>軍民宣慰司, 이후<br>폐지 | 宣德<br>3년(1428)     | —               |
| 劍南         | —                                   | —                                 | —                               | 宣德 3년<br>(1428) 설치 | —               |
| 木册         | 元 木册按撫司                             | 洪武 4년<br>(1371)                   | —                               | 永樂 4년<br>(1406)    | 宣德 9년<br>(1434) |
| 鎮南         | 元 宣化鎮南五路軍民府                         | 至正 26년<br>(1366)                  | —                               | —                  | 洪武 8년<br>(1375) |
| 唐崖         | 元 唐崖軍民千戶所                           | —                                 | 洪武 7년(1374)<br>長官司, 후 폐지        | 永樂 4년<br>(1406)    | 예속 시기<br>不明     |

- 139) 鎮遠: 이 지역 일대에서 鎮遠이란 지명은 두 곳이 있다. 하나는 鎮遠衛가 있던 貴州省 鎮遠府인데, 당시 鎮遠府에는 2개 縣과 2개의 長官司가 있었고 이 두 개의 장관사 중 하나가 鎮遠衛에 예속되었으며, 湖廣都司 관할이었다. 다른 하나는 湖北省 恩施縣에 위치한 鎮遠蠻夷長官司가 있던 곳을 말한다.
- 140) 蠻夷長官司도 그 설치와 폐지 시기가 각각 다르다. 鎮遠蠻夷長官司와 西泮蠻夷長官司는 宣德 3년(1428)에 설치되었다. 隆奉蠻夷長官司는 元代의 隆奉宣撫司를 洪武 4년(1371)에 長官司로 改置했다가 바로 폐지했으며, 다시 宣德 3년(1428)에 蠻夷長官司를 설치했다. 한편 東流蠻夷長官은 洪武 8년(1375)에 東流按撫司를 설치해 四川에 예속시켰으며, 이후 폐지했다가 宣德 3년(1428)에 蠻夷長官司로 바꾸어 설치했다.
- 141) 容美宣撫司: 元代 軍民按撫司가 설치된 지역이었는데, 施州衛가 처음 설치되기 이전인 洪武 5년(1372)에 長官司로 낮췄다. 이어 洪武 14년(1381)에 폐지했다가, 永樂 5년(1407)에 다시 설치하고 선무사로 승격시켜 4개의 장관사를 관할했다. 따라서 본문의 容美宣撫司 관련 내용은 洪武 연간(1368~1398)의 일이 아니라, 永樂 연간(1403~1424)의 일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 142) 이 네 개의 長官司의 위치 역시 五峰縣과 鶴峰土家族自治縣 일대이며, 모두 洪武 6년(1373)에 설치했다가 洪武 14년(1381)에 폐지했다. 이들 장관사는 椒山이 鶴峰의 下坪과 鄖陽일대, 五峰이 현재 五峰縣 白鹿莊과 長樂坪 일대, 石梁이 五峰縣 灣潭 동부 일대, 水盡源이 灣潭鎮 서부와 傅家堰의 白湓 일대를 각각 관할했다(顧彩, 1999: 304 참조).

당초, 태조(太祖)가 오왕(吳王)<sup>143)</sup>에 올랐던 갑진년(甲辰年)<sup>144)</sup> 6월에, 호광안정선무사(湖廣安定宣撫使)<sup>145)</sup> 상사명(向思明)이 장관(長官) 경철율(硬徹律) 등을 보내, 원(元) 왕조로부터 제수(除授)받은 선무(宣撫) [직위]의 칙서(勅書)와 인장을 가지고와 바치고, 다시 제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예전처럼 안정등처선무사(安定等處宣撫司) 두 곳을 설치하고, 상사명과 그의 아우 상사승(向思勝)<sup>146)</sup>을 선무사로 임명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회덕군민선무사(懷德軍民宣撫司)<sup>147)</sup> 한 곳을 설치해, 상대왕(向大旺)을 선무사로 삼았으며, 통군원수(統軍元帥) 둘을 설치해, 남목(南木)과 반중옥(潘仲玉)을 통군원수에 임명했다. 추란(抽欄), 불용(不用), 황석(黃石)의 삼동(三洞)<sup>148)</sup>에는 각각 장관 한 명을 두고, 몰엽(沒葉), 대충(大蟲), 경철율(硬徹律)을 그 자리에 임명했다. 간평동(簾坪洞)에는 원수부(元帥府) 한 곳을 설치해, 상현조(向顯祖)를 그 자리에 임명했다. 매재(梅梓)<sup>149)</sup>·마료(麻寮)<sup>150)</sup>의 두 동(洞)에는 각각 장관(長官) 한 명을 설치해,<sup>151)</sup> 상사명과 당한명(唐漢明)을 그 자리에 임명했다. [이들] 모두는

143) 吳王: 朱元璋이 황위에 오르기 전인 龍鳳 10년(1364)에 吳王이라 칭했다.

144) 龍鳳 10년(1364)이다.

145) 湖廣安定宣撫使: 명칭으로 미루어 元末 湘西 지역의 安定州 일대에 있었던 宣撫司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본문의 설명처럼 이 일대에는 安定宣撫司 외에도 軍民宣撫司, 元帥, 長官 등의 명칭을 지닌 다양한 관청이 있었지만, 모두 일시적인 기구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 여러 차례 반란이 일어나자 衛所를 설치해서 이 지역을 통제했으며, 자연스럽게 宣撫, 元帥, 長官 등의 명칭을 지닌 관청은 이 지역 일대에서 다시 등장하지 않게 되었다.

146) 向思勝: 向思明에 대한 기록이나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상사명의 아들로 등장하는 向思勝은宋代 인물이 분명하다. 즉 한 연구에 따르면 상사승은 南宋 景炎 3년(1278) 巴蜀 盤龍洞 洞主인 向嗅發의 아들로 桑植縣 일대 苗族 토벌에 공을 세워 ‘湖廣桑植等處地方軍民宣慰使’라는 직함을 받은 인물이다(成臻銘, 2009: 10 참조).

147) 懷德軍民宣撫司: 元代 容美峒이 있었던 곳으로 元 至大 2년(1309) 懷德府를 설치해 四川南道宣慰司에 속하도록 했다. 이어 至順 2년(1331)에 宣撫司로 승격시켰으며, 至正 연간(1341~1369)에 軍民宣慰司로 승격되었다가 명 太祖 朱元璋이 吳王을 칭한 1364년에 군민선무사로 고쳤다. 뒤에서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 회덕군민선무사는 宣德 2년(1427), 上下愛茶峒長官司로 바뀌었다(潘新藻, 1987: 790 참조).

148) 三洞: 여기 등장하는 抽欄, 不用, 黃石은 元代 容美土司 17개 洞에 속해 있었던 곳을 말한다.

149) 梅梓: 麻寮千戶所 관할로, 구계위에 속해 있었다. 『讀史方輿紀要』에 따르면, 마료천호소의 험악한 지역 10곳 가운데 하나로 꼽힐 정도로 험난한 곳이었다(田敏, 2000: 69).

150) 麻寮: 洪武 4년(1371)에 麻寮守禦千戶所가 설치된 지역으로 九谿衛에 속해 있었으며, 지금의 湖南省 慈利縣 일대이다.

151) 梅梓와 麻寮 등은 慈利縣 일대에 설치된 九谿衛 관할이었다. 이 구계위는 본문에 등장하는 覃厓의

새롭게 [명 왕조]에 투항한 자들이다. 병오년(丙午年)<sup>152</sup> 2월에, 용미동(容美洞) 선무사 전광보(田光寶)가 그의 동생 전광수(田光受) 등을 보내 원 왕조로부터 받은 선무사 칙서와 인장을 가지고와 헌상했다. 전광보를 사천행성(四川行省)<sup>153</sup> 참정(參政)<sup>154</sup>으로 임명하도록 명해, 용미동 등의 군민선무사(軍民宣撫司)의 일을 담당하도록 했으며, 그에 따라 안무원수(安撫元帥)를 설치해 그곳을 다스리도록 했다. 아울러 태평(太平)·대의(臺宜)<sup>155</sup>·마료(麻寮) 등 10처에 장관사(長官司)를 설치했다.<sup>156</sup>

반란이 발생한 후 洪武 23년(1390)에 설치되었으며, 九淵, 野牛, 三江口, 開口의 네 關이 있었다. 한편 이 구계위에는 守禦添平千戶所, 安福千戶所, 守禦麻寮千戶所, 桑植按撫司 등이 속해 있었으며, 매제는 마료천호소가 통할했던 열 곳의 隘 가운데 하나였으므로 적어도 명초까지는 그 행정 서열이 동일하지 않았다(戴楚洲·吳遠干, 1998: 84 참조). 이 구계위의 예는 元代 토사제도와는 달리 명대가 토사제도를 衛所制度和 결합시켜 운용한 예를 보여주는 좋은 예 가운데 하나이다(張雄·彭英明, 1982: 54 참조).

152) 1366년이다.

153) 四川行省: 四川等處行中書省을 말하며, 元代 설치된 10개 行中書省의 하나이다. 원대 당시에는 四川省 전부와 甘肅省 남부, 陝西省 남부를 관할했다. 元 초기에는 사천 지역이 陝西等處行中書省에 속해 있었지만, 世祖(忽必烈, 1215~1294; 재위 1260~1294)는 中統 3년(1263)에 陝西四川行中書省을 설치했다. 이후 세조가 南宋을 정벌한 후 섬서와 사천을 분리해 따로 사천행성을 설치하고 省都를 成都에 두었다.

154) 參政: 명대에 각 省의 布政使 아래에 左右 參政을 두고 각 道를 나누어 다스렸다.

155) 太平·臺宜: 洪武 2년(1369)에 添平守禦千戶所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지금의 湖南省 慈利縣 북쪽 150리 일대의 지역이었다. 다만 본문에 나오는 太平이란 단어는 同治『續修石門縣志』卷3「輿地志」에 “添平 元曰天平, 明洪武時, 改天爲添, 覃氏世居之 …… 覃添順以洪武三年歸明, 受封”이라고 나와 있으며, 『讀史方輿紀要』에도 “守禦添平千戶所, 在慈利縣北百五十里, 本宋臺宜寨地”라는 내용으로 미루어, ‘太平’의 정확한 지명은 ‘天平’이며, 아울러 天平과 臺宜는 동일한 장소라는 사실도 알 수 있다(田敏, 2000: 69). 한편 同治『石門縣志』卷3「輿地志」에도 添平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56) 이에 관한 내용은 『太祖實錄』卷22 吳 元年(1367) 正月 壬午條 참조. 본문에 등장하는 安定宣撫司의 설치부터 太平과 麻寮 일대에 長官司를 설치했다는 내용도 여러 사실을 한꺼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명확하게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일단 본문 내용에 해당되는 시기는 朱元璋이 아직 明 왕조를 창건하기 이전 혹은 창건 직후의 일이다. 安定宣撫司의 설치는 至正 24년(1364) 6월의 일이며, 지방지의 기록에 따르면 田乾宗의 아들 田光寶가 洪武 초년에 宣慰使 직위를 제수받았다. 또한 容美洞宣撫使 田光寶가 아우 田光受를 보내 元 왕조로부터 받은 誥飭과 印章을 바친 시기는 정확하게 洪武 3년(1370) 3월이었다. 또한 太平과 臺宜 등에 長官司를 설치한 시기는 洪武 2년(1369)의 일이다(道光『鶴峰州志』卷1「沿革」). 지역적으로는 澧水의 지류인 澧水 상류 지역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지금의 湖北省 서남부와 湖南省의 경계인 慈利, 大庸, 鶴峰 일대의 소규모 土司에 관련된 일을 기록한 글이다.

洪武四年，宣寧侯曹良臣帥兵取桑植，容美洞元施南道宣慰使覃大勝弟大旺·副宣慰覃大興·光寶子答谷等皆來朝，納元所授金虎符。命以施州宣慰司爲從三品，東鄉諸長官司爲正六品，以流官參用。五年，忠建元帥墨池遣其子驢吾，率所部溪洞元帥阿巨等來歸附，納元所授金虎符並銀印·銅章·誥敕。置忠建長官司及沿邊溪洞長官司，以墨池等爲長官。二月，容美宣撫田光寶復遣子答谷來朝。征南將軍鄧愈平散毛·柿谿·赤谿·安福等三十九峒，散毛宣慰司都元帥覃野旺上僞夏所授印。

홍무 4년(1371)에, 선녕후(宣寧侯) 조량신(曹良臣)<sup>157)</sup>이 병사를 이끌고와 상식(桑植)<sup>158)</sup>을 공격하여 차지했으며, 원나라 당시 용미동(容美洞)의 시남도(施南道) 선위사(宣慰使)였던 담대승(覃大勝)의 아우 담대왕(覃大旺), 부선위(副宣慰) 담대흥(覃大興), 전광보의 아들 전답곡(田答谷) 등이 모두 입조해, 원 왕조로부터 받은 금호부(金虎符)<sup>159)</sup>를 헌납했다. [이에] 시주선위사를 종삼품(從三品)으로, 동향(東鄉)의 여러 장관사는 정육품(正六品)으로 했으며, 유관(流官)<sup>160)</sup>을 참용(參用)<sup>161)</sup>하도록 했다. [홍무] 5년(1372)에, 충건 원수 묵지(墨池)가 그의 아들 묵려오(墨驢吾)를 보내,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계동원수(溪洞元帥) 아거(阿巨) 등을 이끌고 와 귀부(歸附)시키고, 원(元) 왕조로부터 받은 금호부와 은인(銀印)·동장(銅章)·고칙(誥敕)을 헌납했다. [이에] 충건장관사 및 연변(沿邊), 계동(溪洞)장관사를 설치하

157) 曹良臣(?~1371): 元末에 병사를 모집하여 鄉村을 방위하다가 朱元璋에게 투항해, 江淮行省參政을 맡았다. 徐達 등과 함께 北伐에 참여했으며, 洪武 3년(1370) 宣寧侯에 봉해졌다. 元나라 장수 哈剌章과의 전투에서 사망했다(『明史』 卷133 「列傳」 21).

158) 桑植: 湖南省 북서부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전체 인구 가운데 소수민족이 약 88%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소수민족 지역이다. 唐代 이래 慈利縣에 속해 있었으며, 宋 仁宗 연간(1023~1063)에 土司제도를 시행해 桑植宣撫司를 설치했다. 元代에 이르러 慈利 서쪽 지역 일대를 新添葛蠻按撫司에 예속시키고 土司 向仲山이 통치했다. 明 洪武 4년(1371)에 安福守禦千戶所를 두었으며, 洪武 21년(1388) 千戶 夏昌珪 등이 반란을 일으키자 그들을 평정하고, 비로소 城을 쌓았다(光緒 『桑植縣志』 卷3 「疆域志」).

159) 金虎符: 고대 시기 병사를 징발하거나 신분 표시하는 일종의 징표이다.

160) 流官: 明·清 시기 四川, 雲南, 貴州 등에 중앙정부가 임명한 행정관원을 통칭하는 말이다. 그들은 중앙정부에서 파견하며 임기가 있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세습하는 土官과는 다르기 때문에 流官이라고 칭했다.

161) 參用: 혼용해서 관원을 임용한다는 의미로, 여기서는 流官과 土官을 번갈아 임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고 목지 등을 장관에 임명했다. [그해] 2월에, 용미의 선무사 전광보 등이 다시 그의 아들 전답곡(田答谷) 등을 보내 입조시켰다. 정남장군(征南將軍) 등유(鄧愈)가 산모·시계(柿谿)·적계(赤谿)·안복(安福) 등 39동을 평정했으며, 산모 선위사 도원수(都元帥)<sup>162)</sup> 담야왕(覃野旺)이 위하(僞夏)<sup>163)</sup>에서 받은 인장을 바쳤다.

十四年，江夏侯周德興移師討水盡源·通塔平·散毛諸峒，置施州衛軍民指揮使司。十五年，置施南宣撫司，隸施州衛。十七年，散毛·沿邊安撫司安撫覃野旺之子起刺來朝，命爲本司僉事。景川侯曹震言：「散毛等洞蠻時寇掠爲民患，已令施州衛及施南宣撫覃大勝招之，如負固，請發兵討。」

[홍무] 14년(1381)에, 강하후(江夏侯) 주덕흥(周德興)이 군대를 이동시켜 수진원(水盡源)·통탑평(通塔平)·산모 등 여러 동(峒)을 토벌하고, 시주위군민지휘사사(施州衛軍民指揮使司)를 설치했다. [홍무] 15년(1382)에, 시남선무사를 설치하고 시주위에 예속시켰다. [홍무] 17년(1384)에, 산모·연변 안무사의 안무 담야왕의 아들 담기자(覃起刺)가 입조했으며, [그를] 안무사 첨사(僉事)로 삼도록 명했다. 경천후(景川侯) 조진(曹震)<sup>164)</sup>이 아뢰기를, “산모 등 동채(洞寨)의 만족들이 때때로 노략질을 일삼아 백성들의 근심이 되고 있어, 이미 시주위 및 시남선무 담대승에게 그들을 초무(招撫)하라고 명령했으며, 만약 그들이 [자신의 힘을 믿고] 완강히 버틴다면, 군사를 보내 토벌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했다.

162) 都元帥: 金代 都元帥府의 최고장관을 말하며 품계는 從二品이었다. 그런데 元 世祖 이후 宣慰使司兼都元帥府를 설치해 宣慰使가 都元帥를 겸임하도록 했는데, 품계는 從二品이었다.

163) 夏: 여기서는 元나라 말기에 明玉珍이 四川 지역에 건립한 왕조인 明夏를 말한다. 元末 농민반란군 지도자 가운데 하나인 明玉珍은 西征을 단행해 巫峽을 지나 重慶을 점령했다. 이어 1363년에 황제라 칭하고 도읍을 重慶에 정했으며, 國號를 大夏라 했다. 1371년에 朱元璋의 정벌로 멸망하자, 明玉珍의 아들인 明升이 朝鮮으로 건너왔는데, 李成桂로부터 華蜀君에 봉해져 지금의 開城 興國寺에 정착했다. 현재 4만여 명에 달하는 한국의 明氏는 그의 후예이며, 중국 四川 일대에 있던 明氏들은 甘氏로 姓을 바꾸었다.

164) 曹震(?~1393): 安徽省 鳳陽 사람으로, 朱元璋의 起兵 당시부터 종군했으며, 초기에는 指揮使에 제수되었다. 洪武 12년(1379)에 西征의 공을 인정받아 景川侯에 봉해졌고, 藍玉 등과 함께 雲南 토벌 등의 전공을 세웠지만 이후 藍玉의 案에 연루되어 아들 曹炳과 함께 처형당했다(『明史』卷132「列傳」20).

二十二年命忠建宣撫田思進之子忠孝代父職。時思進年八十餘，乞致仕，故有是命。明年，涼國公藍玉克散毛洞，擒刺惹長官覃大旺等萬餘人。置大田軍民千戶所，隸施州衛。以藍玉奏散毛·鎮南·大旺·施南等洞蠻叛服不常，黔江·施州衛兵相去遠，難應援。今散毛地與大水田連，宜置千戶所守禦，乃改散毛爲大田，命千戶石山等領土兵一千五百人，置所鎮之。時忠建·施南叛蠻結寨於龍孔，玉遣指揮徐玉將兵攻之，擒宣撫覃大勝，餘蠻退走。玉復分兵搜之，殺獲男女一千八百餘人，械大勝及其黨八百二十人送京師。磔大勝於市，餘戍開元，給衣糧遣之。

[홍무] 22년(1389)에, 충건 선무인 전사진(田思進)의 아들 전충효(田忠孝)에게 아버지의 직위를 대신하도록 명했다. 당시 전사진은 나이가 80여 세여서, 퇴임을 청했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을 내렸다. 이듬해(1390) 양국공(涼國公) 남옥(藍玉)<sup>165</sup>이 산모동을 공략해, 자야 장관(刺惹長官) 담대왕(覃大旺) 등 만여 명을 생포했다. [이어] 대전군민천호소를 설치하여 시주위에 예속시켰다. [이로] 인해 남옥이 산모·진남·대왕·시남 등 동(洞)의 만족이 반란과 복종을 거듭하고 있는데, 검강(黔江)·시주위의 병사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원조에 응하기가 어렵다고 상주했다. [또 남옥이] 지금 산모 지역과 대수전(大水田) 지역은 서로 맞닿아 있으므로, 마땅히 천호소를 설치해 [그 지역을] 방어해야 한다고 하니, 이에 산모를 대전으로 바꾸고, 천호(千戶) 석산(石山) 등에게 토병(土兵) 1,500명을 거느리도록 해, 천호소를 설치해서 [그 곳을] 진수(鎮守)하도록 했다. 당시 충건과 시남의 반기를 든 만족들이 용공(龍孔)<sup>166</sup>에 [만족의] 영채(營寨)를 결집시키자, 남옥이 지휘 서옥(徐玉)을 보내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공략하도록 하여, 선무사 담대승(覃大勝)을 체포했으며, 나머지 만족들은 도주했다. 남옥은 다시

165) 藍玉(?~1393): 安徽省 定遠縣 출신으로, 明 開國 功臣 가운데 한 사람이다. 지략이 뛰어나고 용맹해 많은 전공을 세운 인물로 유명하다. 洪武 4년(1371) 四川 정벌, 洪武 5년(1372) 몽골군 격퇴, 洪武 7년(1374) 河北 일대 점령 등의 공을 세웠으며, 洪武 11년(1378)에는 沐英과 함께 西蕃의 반란을 진압하고 洪武 14년(1381) 永昌侯에 봉해졌다. 특히 洪武 21년(1388)에는 15,000여 명의 병사를 이끌고 북벌을 단행하여 捕魚兒海(지금의 내몽골과 외몽골의 경계에 있는 貝爾湖)에 있던 토구스테무르[脫古思帖木兒]를 격퇴하여 元 왕조에 결정적 타격을 입혔으며, 이 공로로 涼國公에 봉해졌다. 그러나 이후 권세를 남용한 탓에 洪武 26년(1393)에 모반죄로 처형되었다. 이를 ‘藍玉의 案’이라 하는데, 이 사건에 연루되어 처형된 사람이 약 15,000여 명에 달한다.

166) 龍孔: 四川省 岳池縣 서쪽에 위치한 지명이다.

병사를 나누어 그들을 수색하여, 남녀 1,800여 명을 죽이거나 포로로 잡았으며, 담대승과 그 일당 820명을 형구(刑具)에 채워 경사(京師)<sup>167)</sup>로 호송했다. 담대승을 저자거리에서 책형(磔刑)<sup>168)</sup>에 처했으며, 나머지는 개원(開元)<sup>169)</sup>에 수(戍)로 보냈는데, [그들에게] 의복과 식량을 지급해서 보냈다.

永樂二年復設散毛·施南二長官司。先是，洪武初，諸土司長官來降者，皆予原官。蠻苗吳面兒之難，諸土司地多荒廢，長官亦罷承襲。至是，故土官之子覃友諒等以招復蠻民，請仍設治所。以其戶少，降爲長官司，隸大田軍民千戶所。以友諒爲散毛長官，覃添富爲施南長官。四年，改施南·散毛仍爲宣撫司，以友諒·添富來朝故也。以田應虎爲龍潭安撫。時應虎來朝，言其祖父自宋·元來，俱爲安撫，自蠻亂併其地入散毛，隔遠難治，乞仍舊，從之。時高羅安撫田大民言，招復蠻民四百餘戶，乞還原職治所。木冊長官田谷佐·唐崖長官覃忠孝，並言父祖世爲安撫，洪武時大軍平蜀，民驚潰，治所廢，今谷佐等招集三百餘戶，請襲，許之。五年，鎮南長官覃興等來朝，稱系世職，洪武中廢，今招徠蠻民三百戶，乞仍舊，旣五峰石寶長官張再武亦以襲職請，從之。同時，設東鄉五路安撫，以覃忠爲之，隸施南。設石樑下峒·椒山瑪瑙·水盡源通塔平三長官司，以向潮文·劉再貴·唐思文爲之，隸容美。旣復設忠路·忠孝·金峒三安撫司，隸施州衛，以覃英·田大英·覃添貴爲之。皆因洪武間蠻亂民散，廢其治，今忠等以故官子侄來朝，奏請復設，並從之，各賜印章冠帶。

영락 2년(1404)에, 다시 산모와 시남 두 장관사를 설치했다. 이에 앞서, 홍무 초에 여러 토사 장관이 와서 항복한 자들에게는, 모두 [그들의] 원래 관직을 부여했다. 만묘(蠻苗) 오면아(吳面兒)의 화난(禍難)으로, 여러 토사들의 지역 대부분이 황폐해졌으며, 장관의 [지위] 역시 그 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때에 이르러 옛 토관의 아들 담우량(覃友諒)

167) 永樂 19년(1421)에 공식적으로 수도를 북경으로 옮겼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京師는 南京을 의미한다.

168) 磔刑: 이미 虞舜 시대에도 존재했다고 기록된 刑罰로서, 屍身을 찢는 형벌을 말한다.

169) 開元: 開元이라는 地名이 다수 존재하지만, 본문의 개원은 현재 河北省 定州市 서부에 있는 開元鎮으로 보인다.

등이 만민(蠻民)을 다시 초치(招致)해, 예전처럼 치소(治所)를 설치하기를 청했다. 그 호수(戶數)가 적었기 때문에, 장관사로 강등해 대전군민천호소에 예속시켰다. 담우량을 산모 장관에 임명했으며, 담첨부(覃添富)를 시남장관(施南長官)에 임명했다.<sup>170)</sup> [영락] 4년(1406)에는 오히려 시남·산모를 선무사로 바꿨는데, 담우량·담첨부가 내조한 때문이었다. [또한] 전응호(田應虎)를 용담 안무로 삼았다.<sup>171)</sup> 당시 전응호가 내조해, 자신의 조부(祖父)는 송·원(宋·元) 시대 이래로 모두 안무사가 되었는데, 만족의 반란으로 그의 땅이 산모에 병합되어, 거리가 멀어 다스리기 어려우니 이전대로 해주길 청한다고 아뢰자, [황제가] 이를 허락했다. 당시 고라(高羅) 안무 전대민(田大民)이 아뢰기를, 만민(蠻民) 400여 호(戶)를 다시 초치했으니, 자신의 직위와 치소(治所)를 본래대로 환원시켜달라고 청했다.<sup>172)</sup> 목책(木冊) 장관 전곡좌(田谷佐)·당애(唐崖) 장관 담충효(覃忠孝)가 함께 아뢰기를, [자신들의] 조부가 대대로 안무사로 있었는데, 홍무 연간(1368~1398)에 대군(大軍)이 촉(蜀)을 평정하자 백성들이 놀라 [사방으로] 흩어져 치소가 폐지되었으나, 지금 전곡좌 등이 300여 호를 불러 모아 [직위를] 잇겠다고 청하자, 이를 허락했다.<sup>173)</sup> [영락] 5년(1407)에, 진남장관(鎮南長官) 담흥(覃興) 등이 내조하여, 대대로 직을 세습해왔다고 자칭하면서, 홍무 연간(1368~1398)에 폐지되었지만, 이제 만민 300호를 초치했으니 이전대로 해달라고 청했으며,<sup>174)</sup> 얼마 후 오봉(五峰)의 석보(石寶) 장관 장재무(張再武)<sup>175)</sup>도 관직의 세습을 청했는데,<sup>176)</sup> [황제가] 이를 허락했다.

170) 이에 관련된 내용은 『太宗實錄』 卷31 永樂 2년 5월 乙巳條 참조.

171) 施南과 散毛長官司를 宣撫司로 승격시킨 내용과 田應虎를 龍潭按撫로 삼은 내용은 각각 『太宗實錄』 卷41 永樂 3년 4월 癸巳條와 『太宗實錄』 卷52 永樂 4년 3월 辛亥條 참조.

172) 田大民의 祖父 田中敬 등이 元代 高羅宣撫使로 있었지만, 사람 수가 적다는 이유로 洪武 초년에 선무사를 혁파하자, 田思晟 등과 더불어 사람들을 초치해 治所 설치를 청한 일을 말한다(『太宗實錄』 卷52 永樂 4년 3월 戊午條 참조).

173) 洪武 4년(1371)에 폐지된 治所를 복원시켜달라는 요청이다(『太宗實錄』 卷52 永樂 4년 3월 戊午條 참조).

174) 당시 施州衛 指揮였던 孫演이 覃興 등을 招諭한 후, 向添福 등의 저항으로 폐지된 治所를 다시 설치해달라는 요청이다. 『太宗實錄』 卷63 永樂 5년 正月 丙子條 참조. 아울러 이 당시 覃興이란 인물이 鎮南長官으로 있던 鎮南長官司는 元 至正 15년(1355)에 설치된 宣化鎮南五路軍民府를 말하는데, 이후 이 軍民府는 湖南鎮邊毛嶺峒宣慰司로 고쳤다가, 明玉珍이 鎮南宣撫司로 바꿨다. 永樂 5년(1407) 鎮南長官司를 다시 설치해 施州衛에 예속시켰다.

175) 張再武: 이 지역 지방지에 보면, 五峰按撫司의 시조는 張友富이며, 『湖北通志』를 인용해 張友富의 아들이 張再武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뒤에 張氏 집안의 족보에 따르면, 장우부의 아들은

이와 동시에 동향오로안무(東鄉五路按撫)<sup>177</sup>를 설치해, 담충(覃忠)을 안무사로 임명하고, 시남에 예속시켰다. 석량(石梁)의 하동(下峒)·초산(椒山)의 마노(瑪瑙)·수진원통탑평(水盡源通塔平)<sup>178</sup>에 세 장관사(長官司)를 설치하고,<sup>179</sup> 상조문(向潮文)<sup>180</sup>·유재귀(劉再貴)·당사문(唐思文)<sup>181</sup>을 각각 장관으로 삼아, 용미에 예속시켰다.<sup>182</sup> 이후 또 충로(忠路)·충효(忠孝)·금동(金洞)의 세 안무사를 설치하여, 시주위에 예속시켰으며, 담영(覃英)·전대영(田大英)·담첨귀(覃添貴)를 안무사로 삼았다.<sup>183</sup> 이 모든 일은 홍무 연간(1368~1398) 만족의 반란으로 백성들이 흩어지고, 치소를 폐기했기 때문이었는데, 지금 담충 등이 [자신들이] 옛날 관리들의 아들과 조카[라는 신분으로] 입조해, [관서를] 다시 설치해주기를 주청하자, [황제가] 아울러 이를 허락했으며, 각자에게 인장과 관대를 하사했다.

장재무가 아닌 張仲山이란 인물이며, 이처럼 家系가 불확실한 이유는 明玉珍이 이 지역을 점령하고 정권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同治『長樂縣志』卷4「沿革志」).

176) 張再武를 長官에, 아들 張斌을 副長官에 임명했으며, 印章과 冠帶를 하사했다(『太宗實錄』卷64 永樂 5년 2월 丙午條 참조).

177) 東鄉五路按撫: 施州衛에서 북으로 280리 떨어진 곳에 위치했으며, 清代 행정구역상으로는 宣恩縣에 속한 지역이었다. 宋代 細沙寨라 불렸던 蠻族 지역을 明玉珍이 東鄉五路宣撫司로 改置했으며, 洪武 6년(1373)에 按撫司를 설치했다. 이어 洪武 24년(1391) 폐지했다가 永樂 5년(1407)에 復置했다. 宣德 3년(1428)에 關峽 지역을 搖把洞 이하 長官司 셋과 鎮遠과 隆奉蠻夷長官司 둘로 분할하여 施南宣撫司에 예속시켰다.

178) 水盡源通塔平: 이 지역 土司는 唐氏였는데, 唐氏의 맨 처음 조상은 唐進寶라는 인물로 四川에서 이 지역으로 이주해 토사가 되었다. 한편 지방지에는 '水盡源'이 아닌 '水盡園'으로 기록되어 있다(同治『長樂縣志』卷4「沿革志」).

179) 五峰石寶長官司를 포함한 네 개의 장관사는 清代 행정구역상 鶴峰縣과 五峰縣에 위치해 있었으며, 모두 容美宣撫司 관할이었다.

180) 石梁 일대는 向氏가 아닌 唐氏가 토사였으며, 向潮文은 唐朝文의 오류라고 기록되어 있다(同治『長樂縣志』卷4「沿革志」).

181) 唐思文: 永樂 4년(1406)에 水盡源按撫使에 오른 인물이다(同治『長樂縣志』卷4「沿革志」).

182) 지방지의 기록에 따르면 이 지역은 특정 土司가 완전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채, 여러 토사들이 경쟁적으로 이 지역을 사들여 자신의 관할로 만들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元末까지도 여러 토사가 존재했으며, 明初에 이 지역의 일부를 容美土司에 귀속시키고 四川 관할로 두었다가 이후 湖廣都司 관할로 만들었다. 이 지역이 용미토사로 편입된 시기는 永樂 연간(1403~1424)이다(同治『長樂縣志』卷4「沿革志」).

183) 向天福이 일으킨 兵亂으로 蠻民들이 흩어져서 安撫司가 폐지되었는데, 이를 復置시킨 일을 말한다(『太宗實錄』卷66 永樂 5년 4월 戊申條 참조).

宣德二年設劍南長官司，隸忠路安撫；搖把峒·上愛下愛二茶峒三長官司及鎮邊·隆奉二蠻夷官司，皆隸東鄉五路安撫；東流·臘壁峒二蠻夷官司，隸散毛宣撫；石關峒長官司·西泮蠻夷官司，隸金峒安撫。皆以其酋長爲之。先是，忠路安撫司等各奏，前元故土官子孫牟酋蠻等，各擁蠻民，久據谿洞，今就招撫，請設官司，授以職事。兵部以聞，帝以馭蠻當順其情，所授諸司，宜有等殺。兵部議以四百戶以上者設長官司，四百戶以下者設蠻夷官司。元土官子孫量授以職，從所招官司管屬。皆從之。令三年一朝貢如故事。九年，木冊長官田谷佐奏：「高羅安撫常倚勢凌轢，侵奪其土地人民，已蒙朝廷分理，然彼宿怨未平，恐復加害。乞徑隸施州衛。」從之。

선덕(宣德)<sup>184)</sup> 2년(1427)에 검남(劍南) 장관사를 설치하고, 충로 안무에 예속시켰으며,<sup>185)</sup> 요파동(搖把峒)·상애차동(上愛茶峒)·하애차동(下愛茶峒)의 세 장관사 및 진변(鎮邊)·용봉(隆奉)의 두 만이관사(蠻夷官司)는 모두 동향으로 안무에 예속시키고, 동류(東流)·납벽동(臘壁峒)의 두 만이관사는 산모 선무에 예속시켰으며, 석관동(石關峒) 장관사·서평(西泮) 만이관사는 금동 안무에 예속시켰다. 모두 그들 추장을 장관으로 삼았다. 이에 앞서 충로 안무사 등이 각각 상주하기를, 이전 원 왕조의 옛 토관의 자손인 모추만(牟酋蠻) 등이 각각 만민들을 옹유(擁)하여, 오랫동안 계동(谿洞)을 점거했는데, 이제 [그들을] 초무했으니, 관사(官司)를 설치하고, 직책을 제수해주기를 청한다고 했다.<sup>186)</sup> 병부(兵部)가 [이 사실을] 보고하자, 황제는 마땅히 그들의 정서에 따라 만족을 통어해야 하며, 여러 관청을 내리는 데에는 마땅히 등급과 차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병부에서 건의하기를, 400호(戶) 이상인 곳은 장관사를 설치하고, 400호 이하인 곳은 만이관사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원나라 토관의 자손(子孫)에게는 [그 적절한 지위를] 헤아려 지위를 제수하되, 초무한 관리들의 관할에 따르도록 했다. [황제가] 모두 이를 허락하고, 이전의 예에 따라 3년에 한 번 조공하도록 했다. [선덕] 9년(1434)에, 목책 장관 전곡좌(田谷佐)가 상주하기를, “고라의 안무는 항상

184) 宣德: 明 왕조의 제5대 황제인 宣宗 朱瞻基의 年號이다.

185) 당시 牟酋蠻이 劍南長官司의 長官이었다(『宣宗實錄』 卷43 宣德 3년 5월 戊寅條 참조).

186) 『宣宗實錄』 卷43 宣德 3년 5월 戊寅條에 따르면, 搖把峒長官司는 向墨古送, 上愛茶峒은 向惡送, 下愛茶峒은 譚成威送, 鎮邊蠻夷長官司는 譚惹添旺, 隆奉蠻夷長官司는 田友晟, 東流蠻夷長官司는 田銘, 臘壁峒蠻夷長官司는 田興, 西泮蠻夷長官司는 秦萬山이 각각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자신의] 세력에 의지하여 [다른 사람을] 능멸하고 업신여기며, 토지와 백성들을 침탈하였는데, [이 사안에 대한] 조정의 조치를 이미 받은 바 있지만, 그들 [사이]의 해묵은 원한이 아직 가라앉지 않아, 다시 해를 끼칠지도 모릅니다. 하루빨리 그들을 시주위에 예속시키기를 청합니다”라고 하니,<sup>187)</sup> [황제가] 이를 허락했다.

正統三年命散毛宣撫覃友諒子瑄試職。初，友諒以罪械赴京，中路逃匿，後爲官軍所獲，斃獄。至是，本司以其子爲蠻民信服，乞襲職。帝以友諒罪重宜革，第以蠻故誡法信恩，命瑄試職圖後效。景泰二年，禮部奏：「散毛宣撫司副使黃縉瑄謀殺親兄，律應斬。其妻譚氏遣子忠等貢馬贖罪，然縉瑄罪重，法不可宥。宜給鈔以酬馬直。」從之。天順元年，容美宣撫田潮美老疾，請子保富代職，從之。五年，禮部奏：「施州木冊長官司土舍譚文壽兇暴，并造不法誹謗之言，當刑。今其母向氏進馬以贖，恐不可從。」帝命給鈔百錠以慰其母，其子仍禁錮之。

정통(正統)<sup>188)</sup> 3년(1438)에 산모 선무 담우량의 아들 담선(覃瑄)에게 시직(試職)하도록 명하였다. 당초에 담우량이 죄를 지어 형구에 채워져 북경으로 압송되었지만, 도중에 도주해서 숨었다가, 이후 관군에게 체포되어 옥사(獄死)했다. 이에 이르러 [산모] 선무사(宣撫司)는 만민(蠻民)들이 그의 아들을 믿고 따름으로 습직(襲職)을 청했다. 황제는 담우량의 죄가 중해 그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들이] 만족인 까닭에 법 [적용]을 완화시키고 은덕을 보여, 담선에게 시직하고 이후에 [정식으로 그 직(職)을] 수여하도록 하였다.<sup>189)</sup> 경태(景泰)<sup>190)</sup> 2년(1451)에 예부(禮部)에서 상주하기를, “산모 선무사 부사(副使)인 황진선(黃縉瑄)이 친형을 살해하려 했으므로, 마땅히 참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의 처 담씨(譚氏)가 아들

187) 이에 관한 내용은 『宣宗實錄』 卷111 宣德 9년 6월 己酉條 참조.

188) 正統: 明 왕조의 제6대 황제인 朱祁鎮 英宗의 年號이다. 英宗은 중국 황제 가운데 유일하게 두 차례 즉위했는데, 그 첫 번째 시기의 연호가 正統(1435~1449)이며, 두 번째 시기의 연호는 天順(1457~1464)이다.

189) 『英宗實錄』 卷43 正統 3년 6월 己未條에 따르면, 覃瑄에게 試職하도록 하되, 이전과 같은 악행을 저지른다면 반드시 죄를 물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190) 景泰: 明 왕조의 제7대 황제인 代宗 朱祁鈺의 年號이다.

황충(黃忠) 등을 보내 말을 바치면서 속죄(贖罪)했지만, 황진선의 죄가 중하므로, 법을 관대하게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말 값에 해당하는 초(鈔)<sup>191)</sup>를 지급해야 합니다”라고 하자, [황제는] 이를 허락했다. 천순(天順)<sup>192)</sup> 원년(1457)에, 용미 선무 전조미(田潮美)가 늙고 병이 들어, 아들 전보부(田保富)가 직(職)을 대신하기를 청하자, [황제가] 이를 허락했다.<sup>193)</sup> [천순] 5년(1462)에 예부에서 상주하기를, “시주 목책장관사의 토사(土舍)<sup>194)</sup> 담문수(譚文壽)가 흉포하고, 아울러 불법으로 비방하는 말을 지어내니, 그 죄를 마땅히 형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지금 그의 모친인 상씨(向氏)가 말을 바쳐 속죄했지만, 아마도 [상씨의 의도를] 좇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니, 황제는 초(鈔) 100정(錠)을 주어 그의 모친을 위로하고, 그녀의 아들을 그대로 감옥에 가두라고 명했다.<sup>195)</sup>

成化二年，搖把洞長官向麥答踵奏：「鄰近洗羅峒長，窺知本洞土兵調征兩廣，村寨空虛，煽誘土蠻攻劫，乞調官軍剿治。」五年，禮部奏：「容美宣撫司田保富等，遣人進貢方物不及數，恐使者侵盜，宜停其賞，仍移知所司。」施州等衛八安撫司各奏，成化五年

191) 鈔: 明代 유통되었던 지폐를 말한다. 金과 元代에는 그것을 交鈔라 했으며, 명대에는 寶鈔라 불렀다. 元나라에는 世祖 中統 원년(1260)에 발행된 中統元寶交鈔와 至元 24년(1287)에 발행된 至元通行寶鈔가 있었다. 명은 洪武 8년(1375년) 大明寶鈔를 발행했으며, 寶鈔提舉司를 戶部 관할에 두어 그 발행과 보관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다만 寶鈔를 발행할 때만 이 기구를 설치하여 운용하였다. 清代에는 清初에 한 번 발행한 적이 있으나 바로 발행을 중지했으며, 咸豐 3년(1853년)에 大清寶鈔를 발행했지만 역시 바로 발행이 중지되었다.

192) 天順: 明 英宗 朱祁鎮의 두 번째 재위 당시의 年號이며, 기간은 1457~1464년이다.

193) 이에 관한 내용은 『英宗實錄』 卷276 天順 元年 3월 甲戌條 참조.

194) 土舍: 다음 네 가지 의미로 사용된 관직 명칭이다. 우선, 明·清 시대 土官의 子弟와 族人을 지칭하는데 사용되었다. 둘째, 명·청 시대 土司의 屬官으로서 정해진 직함은 없으며 토관의 일가가 주로 담당했지만 종종 異姓들도 土舍職을 맡았다. 토사의 일상 잡무를 담당했으며 세습되었다. 또한 토관이 집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토관을 대신해서 政事를 담당했다. 셋째, 清代 土司 등급 가운데 하나로 서, 토사의 庶屬 등을 관리한 土目 등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넷째, 청대 소수민족 지구의 村寨를 관리하는 수령을 지칭하는 말로서, 內地의 鄉長이나 保長과 성격이 비슷했다. 여기서는 두 번째 의미로 사용되었다.

195) 明 왕조는 이러한 사례가 일종의 관행으로 정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英宗實錄』 卷329 天順 5년 6월 壬申條 참조).

朝覲進馬，已付邊衛騎操，而諸衛收馬文移不至，恐有虛詐，宜勘實給賞，皆從之。弘治二年，木冊長官田賢及容美致在田保富各進馬，爲土人譚敬保等贖罪。刑部言：「蠻民納馬贖罪，輕者可原，重者難宥，宜下按臣察核。」八年，容美宣撫貢馬及香，禮部以香不及數，馬多道斃，又無文驗，命予半賞。九年，金峒安撫覃彥龍奏：「境內產杉木，嘗鬻金三千貯庫。今彥龍年老，子惟一人，恐身後土人爭奪，乞解部。」工部議非貢典，却之。

성화(成化) 2년(1466)에, 요파동 장관 상맥답중(向麥答踵)이 상주하기를, “부근의 세라동(洗羅峒)의 동장(峒長)은 본동(요파동)의 토병(土兵)이 양광(兩廣)<sup>196)</sup> 지역 토벌에 징발되어, 촌寨(村寨)가 비어 있음을 몰래 탐지해 알아차리고서, 토착의 만족을 선동해 끌어들이 공격해 위협하니, 관군을 파견해 [그들을] 토벌해주기를 청합니다”라고 했다.<sup>197)</sup> [성화] 5년(1469)에 예부에서 상주하기를, “용미 선무사 전보부 등이 사람을 보내 지방 특산물을 공물로 바쳤지만 규정량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는] 아마도 사자(使者)들이 몰래 훔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마땅히 상(賞)의 하사를 중지해야 하며, 오히려 문서를 [용미] 선무사에게 보내 알려야 합니다”라고 했다.<sup>198)</sup> 시주위 등의 여덟 안무사가 각각 상주하기를, 성화 5년에 조근(朝覲)하면서 말을 바쳤는데, 이미 변방의 위(衛)에 조련된 말을 바쳤지만, 여러 위(衛)에는 말을 받았다는 문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니, 거짓 속임수가 있을 것으로 염려되므로, 마땅히 사실을 조사한 [후에] 상을 내려야 한다고 말하자, [황제는] 모두 이를 허락했다.<sup>199)</sup> 홍치(弘治)<sup>200)</sup> 2년(1489)에, 목척 장관 전현(田賢) 및 용미의 퇴임 선무 전보부가 각각 말을 바쳤는데, 토인(土人) 담경보(譚敬保) 등을 속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형부(刑部)에서 아뢰

196) 兩廣: 廣東省과 廣西省을 말한다.

197) 洗羅峒의 首長 麥答洗格 등의 행위였으며, 이에 조정에서는 湖廣總兵官 李震과 巡撫都御史 羅篴 등에게 사실 여부를 조사하라고 명령했다(『憲宗實錄』 卷31 成化 2년 6월 癸酉條 참조).

198) 본문에서는 容美宣撫司에게 이 사안과 관련된 문서를 보내라고 기술되어 있지만, 實錄에는 布政使司에게 문서를 보내 조사하라고 기술되어 있다(『憲宗實錄』 卷62 成化 5년 정월 辛未條 참조).

199) 여덟 按撫使는 각각 散毛, 金峒, 施南, 忠孝, 龍潭, 忠路, 東鄉五路, 桑植이며, 이에 관한 내용은 『憲宗實錄』 卷62 成化 5년 正月 丁未條 참조.

200) 弘治: 明 왕조 제9대 황제인 孝宗 朱祐樞의 年號이다.

기를, “만민(蠻民)이 말을 바쳐 속죄하는 것은 [그 죄가] 가벼울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무거운 경우에는 관대히 처리할 수 없으니, 마땅히 안신(按臣)<sup>201)</sup>에게 [이 사안을] 내려보내 사실을 조사하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했다.<sup>202)</sup> [홍치] 8년(1495)에, 용미 선무가 말과 향(香)을 공물로 바쳤는데, 예부는 향의 수량이 규정량에 미치지 못하고, 많은 말이 도중에 죽었으며, 또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 없으므로, 상을 반감해 내리도록 명하였다. [홍치] 9년(1496)에 금동 안무 담언룡(覃彦龍)이 상주하기를, “경내(境內)에 삼목(杉木)이 생산되는데, 일찍이 [그 삼목을] 팔아 3,000금(金)을 창고에 저장해두었습니다. 현재 제가 연로하고, 아들은 오직 한 명뿐으로, 제가 죽은 뒤 토인(土人)들이 [그것을] 차지하려고 다투지 염려되니, 공부(工部)에 바치기를 청합니다”라고 했다. 공부가 의논하기를 조공의 전례(典禮)가 아네[라는 이유로] 이를 물리쳤다.<sup>203)</sup>

正德四年，容美宣撫并椒山瑪瑙長官司所遣通事劉思朝等赴京進貢，沿途驛傳多需索，爲偵事所發，自魯橋以北計千餘金。部臣以聞，帝以遠蠻宥之。散毛宣撫並五峰石寶·水盡源通塔平長官司入貢後期，部議半賞，從之。九年命大田千戶所冉霏子舜卿爲指揮僉事，以自陳討川寇功也。十一年，容美宣撫田秀愛其幼子，將逐其兄白俚俾，而以幼子襲。白俚俾恨之，賊殺其父及其弟。事聞，下鎮巡官驗治，磔死。土官唐勝富·張世英等爲白俚俾奏辨，罪亦當坐。詔以蠻僚異類，難盡繩以法，免其並坐，戒飭之。十五年，容美宣撫司同知田世瑛，奏獲鎮南軍民府古印，爲始祖田始進開熙二年頒給，乞改升宣撫司爲軍民府。禮部議，以開設宣撫，頒印已久，不當更，古印宜繳，從之。

정덕(正德)<sup>204)</sup> 4년(1509)에, 용미 선무와 초산 마노 장관사가 파견한 통사(通事)<sup>205)</sup> 유사

201) 按臣: 按察使를 말함.

202) 당시 田賢의 직책은 舍人이었으며, 譚敬保와 秦墨古送을 贖罪시키기 위해 말을 바쳤다(『孝宗實錄』 卷26 弘治 2年 5月 戊午條 참조).

203) 이에 관한 내용은 『孝宗實錄』 卷110 弘治 9년 3월 丙戌條 참조.

204) 正德: 明 왕조 제10대 황제인 武宗 朱厚照의 年號이다.

205) 通事: 원래 외국과의 외교를 담당하는 관리였으나, 五代 당시 거란이 통역 관리를 양성할 목적으로 통사를 설치한 이후, 주로 譯官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元代에는 怯里馬赤으로 불렸으며, 明初에는

조(劉思朝) 등이 북경에 와 진공했는데, [북경으로] 오는 도중 역참에서 많은 물건을 강제로 거둬들인 사실이 정탐을 통해 발각되었는데, 노교(魯橋) 이북에서 [거둬들인 액수가] 천여 금에 달했다. [해당] 부(部)의 신하가 [이 사실을 황제에게] 보고하자, 황제는 먼 곳에서 온 만족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용서했다.<sup>206)</sup> 산모 선무와 오봉 석보·수진원 통탐평 장관사들이 기한을 넘겨 입공하자 [해당] 부에서 논의하여 상을 반감(半減)하기로 하니, [황제는] 이를 허락하였다. [정덕] 9년(1514)에, 대전 천호소 천호 염빈(冉霽)의 아들 염순경(冉舜卿)을 지휘첨사(指揮僉事)로 임명하도록 명했는데, [이는] 자신이 사천 지역의 적을 토벌한 공이 있음을 [스스로] 진술했기 때문이었다.<sup>207)</sup> [정덕] 11년(1516)에 용미 선무 전수(田秀)가 그의 어린 아들을 총애하여, 그의 형 백리비(白俚俚)<sup>208)</sup>를 몰아내고, 어린 아들에게 [자신의 지위를] 물려주려고 했다. 백리비가 그 일에 한을 품어, 그의 아버지와 동생을 살해했다. 이 사실이 보고되자, [황제는] 진순관(鎭巡官)<sup>209)</sup>에게 [이 사안을] 내려 [보내] 조사해서 처리하라고 했는데, [백리비를] 책형(磔刑)에 처했다. 토관 당승부(唐勝富)·장세영(張世英) 등이 백리비를 위해 상주하여 변호했는데, 그 죄가 [그들에게도] 연좌(連坐)되었다. 조서를 내려 만족 요(僚)는 [여타 소수민족과] 달라, [그들을] 단지 법으로 다스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들을 연좌시키는 것을 면해주고 그들에게 [행동을] 삼가서 하라는 훈계를 내렸다.<sup>210)</sup> [정덕] 15년(1520)에, 용미 선무사 동지(同知) 전세영(田世瑛)이 진남군민부(鎭南軍民府)의 옛날 인장을 획득했다고 상주했는데, [그 인장은] 시조(始祖) 전시진(田始進)에게 개희(開熙)<sup>211)</sup> 2년

通政使司에 설치했다가 이후 太常寺四夷館에 속하도록 했다. 다만 여기서는 土官 휘하의 文官 직위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206) 실제 기록에는 銀 千餘兩이 넘었으며, 魯橋 以南에서는 그 두 배의 양을 거둬들였다(『武宗實錄』 卷56 正德 4년 10월 乙未條 참조).

207) 四川 정벌에 실제 功을 세운 인물은 冉舜卿의 아버지이다(『武宗實錄』 卷111 正德 9년 4월 己酉條 참조).

208) 白俚俚: 본문의 설명과는 달리 白俚俚는 田秀의 庶長子이다. 아울러 본문의 백리비와 같은 명칭은 모두 土家族 언어로 구성된 것이다. 즉 白俚俚라는 인명에서 ‘白’자는 漢語지만, ‘俚’는 호랑이를, ‘俚’는 작다는 의미의 土家族 언어로써, 합하면 작은 호랑이란 뜻이다. 본문에 등장하는 소수민족 인명의 이러한 용례에 대해서는 葉德書, 2007 참조.

209) 鎭巡官: 鎭守와 巡撫의 합칭이다. 明代 중앙정부가 각 지역에 관원을 파견해 변방 지역의 민정을 살피도록 했는데, 文官을 巡撫, 武官을 鎭守라 했다.

210) 당시 田秀의 아들은 田世宗이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은 『武宗實錄』 卷144 正德 11년 12월 庚申條 참조.

(1368)에 [명하(明夏) 정권]이 반포해준 [것으로서], [그 인장을 구실로] 선무사를 군민부로 승격시켜줄 것을 청했다. 예부가 의논하기를, 선무사는 [이미] 개설되었고 인장의 반포는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관청 지위를] 바꾸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옛날 인장은 마땅히 반납해야 한다고 말하자, [황제는] 이를 허락했다.<sup>212)</sup>

嘉靖七年，容美宣撫司·龍潭安撫司每朝貢率領千人，所過擾害，鳳陽巡撫唐龍以聞。禮部按舊制，進貢不過百人，赴京不過二十人，命所司申飭。忠孝安撫司把事田春者數十人稱入貢，偽造關文，騷擾驛傳，應天巡撫以聞。兵部議，土司違例入貢，且所過橫索，恐有他虞，宜嚴禁諭。二十六年，臘壁峒等長官司入貢，禮部驗印文詐偽，詔革其賞，并下按臣勘問。

가정(嘉靖) 7년(1528)에, 용미 선무사와 용담 안무사가 조공할 때마다 1,000명을 이끌고 왔는데, [그들이] 통과하는 곳에 해를 끼치고 있음을 봉양(鳳陽)<sup>213)</sup> 순무(巡撫)<sup>214)</sup> 당룡(唐龍)<sup>215)</sup>이 [황제에게] 보고했다. 예부가 옛 제도를 살펴, 진공 인원은 100명을 넘을 수 없고,

211) 開熙: 明夏 정권의 2대 황제인 明升의 年號이며, 그 시기는 1367~1371년이다.

212) 『武宗實錄』 卷187 正德 15년 6월 甲戌條에 따르면, 田始進의 이름이 田思政으로 나온다.

213) 鳳陽: 현재 安徽省 滁州市 소속의 縣名으로, 안휘성 동북부에 자리잡고 있다. 춘추전국시대에 鍾離子國이 있던 곳이며, 前漢 高祖 4년(전203)에 鍾離縣이 처음 설치되었다. 明 洪武 7년(1374)에 鳳陽府를 설치했는데, 鳳陽山의 陽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鳳陽이란 지명을 붙였다. 明 太祖는 즉위 직후인 洪武 2년(1369)에 明 왕조의 수도를 이곳으로 옮기기 위해 中都를 건설하려고도 했다.

214) 巡撫: 본래는 지방을 巡視하면서 그 지역의 按撫를 담당했던 임시관원이었다. 唐 高宗 때에 河南과 河北 일대에 발생한 재해 구제를 위해 처음 설치되었으며, 이후 安撫, 存撫, 宣撫 등의 명칭으로 불리면서 모두 구휼을 담당하는 특별 관원이었다. 宋代에 이르러 정식 관원으로 등장했으며, 관직의 고저에 따라 巡撫大使, 副大使, 安撫使 등의 명칭으로 불렸지만, 관직이 낮은 자에게는 ‘使’자를 뺀 巡撫라 칭했다. 明初에 이르러서도 정식 지방관은 아니었으며, 事案이 해결되면 職務가 정지되었다. 그러나 宣德 5년(1430)에 각 省에 정식으로 설치되었으며, 清代에는 각 省에 고루 설치되어 軍政과 관리들의 평가, 구휼 등을 폭넓게 담당했다.

215) 唐龍(1477~1546): 浙江省 金華府 蘭溪縣(지금의 蘭溪市) 사람으로, 正德 3년(1508) 進士가 되어 郟城縣 知縣에 제수되었다. 이후 山西按察使, 南京刑部尙書, 兵部尙書, 吏部尙書 등의 고위직을 역임했다. 세금을 줄여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의 善政을 베풀었으며, 특히 嘉靖 11년(1532)에 陝西 지방에 재해로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兵部尙書로 임명되어 많은 이재민을 구제했다. 문학에도 조예

경사에 오는 인원은 20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니, [이를] 해당 관청에 알려 훈계하도록 명했다.<sup>216)</sup> 충효 안무사의 파사(把事)<sup>217)</sup> 전춘(田春) 등 수십 명이 입공을 구실로, 관문(關文)<sup>218)</sup>을 위조하고, 역참에서 말썽을 일으켰는데, [이 사실을] 응천(應天)<sup>219)</sup> 순무가 [황제에게] 보고했다. 병부에서 의논하기를, 토사가 규칙을 어기면서 입공하고, 게다가 통과하는 길에 함부로 재물을 빼앗았으므로, 아마도 또 다른 우려가 생길지 모르니, 마땅히 엄히 금하는 유지(諭旨)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sup>220)</sup> [가정] 26년(1547)에, 납벽동 등 장관사가 입공했는데, 예부가 인장과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확인하자, 조서를 내려 그들에게 내린 상을 거둬들이고, 아울러 안신(按臣)에게 [이 사안을] 내려보내 사실을 조사하도록 했다.

三十三年詔湖廣川貴總督并節制容美十四司。初，容美土官田世爵與土官向元樞累世相仇。元樞幼，世爵佯爲講好，以女嫁之，謀奪其產，因誣元樞以奸。有司恐激變，令自捕元樞，下獄論死。世爵遂發兵，盡俘向氏，并籍其土，皆沒入之。久之，撫按知其謀，責與元樞對狀，世爵不出，陰與羅峒土舍黃中等謀叛。於是湖廣巡按御史周如斗請移荊

가 있어 『群忠錄』, 『黔南集』, 『漁石集』 등의 저서를 남겼다.

216) 이에 관한 내용은 『世宗實錄』 卷91 嘉靖 7년 8월 丁巳條 참조.

217) 把事: 土司의 고위 文官職을 말한다. 대체로 土官의 고위 문관직은 總理, 家政, 護印舍人, 應襲舍人, 干辦舍人, 冠帶舍人, 舍把 등이 있었으며, 이러한 관직은 永順, 保靖, 桑植 宣慰司에서 제일 먼저 등장했다. 반면 이러한 호광 土司와는 달리 서남지역 토사들은 위와 같은 직위를 把事, 通事, 通把, 土火頭 등으로 불렀다. 한 연구에 따르면 명대 雲南土司에는 把事의 지위가 일곱 차례, 通事가 한 차례, 通把가 두 차례, 土舍와 土火頭가 각각 한 차례 발견된다고 언급했다(成臻銘, 2002: 91 참조).

218) 關文: 동급 혹은 관할이 다른 관청 간에 주고받은 官府의 文書를 말한다. 淸 왕조는 관문의 사용 범위를 대폭 확대해 府, 州, 縣의 長官이 佐貳官(知縣을 보조하는 縣丞이나 主簿)들에게 문서를 보낼 때에도 관문을 사용했으며, 文武衙門 사이에도 사용했다.

219) 應天: 현재 南京의 옛 명칭이다. 唐末·五代 시기 後晉의 高祖(石敬瑭, 892~942; 재위 936~942)가 天福 2년(937)에 南唐을 건립하고 당시 金陵이라 불린 이곳에 수도를 정했으며, 이어 金陵府를 江寧府로 개칭했다. 元 文宗 天曆 2년(1329)에 지명을 集慶으로 고쳐 元末까지 내려왔지만, 1356년에 朱元璋이 이 지역을 점령한 후, 다시 應天府로 개칭해 수도로 정했다. 淸 順治 2년(1645)에 南京으로 이름을 바꾸고, 應天府는 江寧府로 환원시켰다.

220) 당시 田春의 지위는 土司의 屬官인 把事였으며, 문제를 제기한 應天巡撫는 陳祥이라는 인물이었다(『世宗實錄』 卷96 嘉靖 7년 12월 甲戌條 참조).

南道分巡施州衛，以便控制，調廣西清浪等戍軍，以實行伍。疏下督臣馮岳等議，岳等言：「施州地勢孤懸，不可久居，戍軍亦非一時可集。當移荊瞿守備於施州，九永守備於九谿，上荊南道備巡歷。至世爵驕橫，有司不能攝治，獨久系元楫何爲。宜假督臣以節制容美之權，問世爵抗違之罪，如不悛，卽繩以法。」從之。

[가정] 33년(1554)에, 호광·사천·귀주 총독에게 조서를 내려 함께 용미 14개 사(司)를 절제(節制)하도록 했다. 본래, 용미 토관 전세작(田世爵)<sup>221)</sup>과 토관 상원즙(向元楫)은 여러 세대에 걸쳐 서로 원수지간이었다. 상원즙이 어렸을 때, 전세작이 거짓으로 강화(講和)하여 자신의 딸을 그(상원즙)에게 시집보내고, 그의 재산을 탈취하려 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간계(奸計)를 [꾸몄다는 구실을 들어] 상원즙을 무고(誣告)했다. 담당 관원은 크게 변고가 날 것을 우려해, 상원즙에게 자박(自縛)하도록 하고서, 하옥시켜 사형으로 논죄하였다. 전세작이 마침내 병사를 일으켜, 상씨 [일족] 모두를 포로로 잡았으며, 아울러 [상씨 일족의] 토지를 [자신의] 장부에 올리고, 이를 모두 몰수했다. 오래 지나서, 무안사(撫按使)가 그(전세작)의 음모를 알게 되어, [전세작을] 상원즙과 대질시켜 [사실을] 밝히려 했지만, 전세작은 출두하지 않고 몰래 나동(羅峒) 토사(土舍) 황중(黃中) 등과 반란을 도모했다. 이에 호광 순안어사(巡按御史)<sup>222)</sup> 주여두(周如斗)<sup>223)</sup>가 형남도(荊南道)<sup>224)</sup>를 옮겨 시주위의 순찰을 분담하도

221) 田世爵: 田秀의 7번째 아들이다. 본문에 등장하는 白倮俾란 인물은 그의 이복형이며, 總督 胡宗憲을 따라 왜구 격퇴에 나섰다가 83세에 蕪湖에서 사망했다. 그는 漢族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인물로도 유명하다(段超·李振, 1990 참조).

222) 巡按御史: 明·淸 시대 감찰을 담당한 都察院에는 전국을 관할하는 監察御史가 존재했다. 보통은 수도에서 업무를 진행하지만(內差 혹은 常差라 불렀다), 황제의 명에 따라 특정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시를 할 경우(外差 혹은 特差라 불렀다), 巡按御史라 불렀다. 경우에 따라서는 각 지역의 소금이나 漕運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중앙에서 파견한 巡鹽御史나 巡漕御史도 있었다. 보통 監察御史는 正七品이었지만, “代天子巡狩”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明史』卷73「職官」2), 황제의 명을 받고 지방을 순시하는 巡按御史의 권한은 상당히 컸으며, 관할 사안도 폭넓었다.

223) 周如斗: 生卒年 未詳. 浙江省 餘姚縣 사람으로, 嘉靖 26년(1547)에 進士가 되어 副都御史, 應天巡撫, 湖廣巡按御史 등을 역임했다(乾隆『餘姚志』卷17「選舉表」1).

224) 荊南道: ‘道’라는 행정단위는 漢代에 처음 등장했으며, 縣과 거의 동급의 단위로서 주로 소수민족 지역과 같은 외진 곳에 설치했다. 한편 唐代에는 州·縣보다 약간 상위에 있는 일종의 監察區를 ‘道’라 지칭했지만, 明代에 이르러 그 성격이 변했다. 布政使, 按察使, 都指揮使가 담당하는 업무량이 많아지

록 하여, 통제를 용이하게 하고, 광서(廣西)<sup>225)</sup> 청랑(淸浪)<sup>226)</sup> 등의 변방 수비군을 징발하여 행오(行伍)<sup>227)</sup>를 튼튼히 해야 한다고 청했다. 그 상소를 독신(督臣)<sup>228)</sup> 풍악(馮岳)<sup>229)</sup> 등에게 내려보내 의논하도록 하자, 풍악 등이 아뢰기를, “시주의 지세(地勢)는 외진 곳으로, 오래 살 수 있는 지역이 아니며, 수군(水軍) 또한 일시에 모집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형·구(荊·瞿)<sup>230)</sup>[의 병사]는 시주에 이동시켜 지키도록 해야 하며, 구·영(九·永)<sup>231)</sup>[의 군사]는 구계

고 그 지역도 넓어짐에 따라 포정사와 안찰사 관원들이 한 府 혹은 여러 府를 각각 나눠서 民政과 감찰, 그리고 군사 업무를 담당했는데, 그 분할 단위를 ‘道’라 불렀다. 따라서 明·淸 시대 정식 지방 행정단위인 府·州·縣과는 별도의 자의적인 행정단위라 할 수 있다. 통할 계통으로 나눌 경우 포정사가 주로 관할하는 지역을 布政分司道, 안찰사가 관할하는 곳을 按察分司道라 하며, 그런 道가 관할하는 일정 지역을 分守道, 分巡道, 兵備道 등으로 불렀다. 布政分司道는 布政司參政이나 參議가, 按察分司道는 按察司副使나 僉事가 각각 담당했다(『明史』 卷75 「職官」 4). 明 洪武 25년(1392) 전국에는 48道가, 湖廣省에는 蕲黃道, 江陵道, 漢江道, 湖南道, 湖北道の 5道가 있었다. 4년 뒤인 1396년 4道로 고쳐 武昌道, 荊南道, 湖南道, 湖北道를 설치했다가, 이후 형남도를 上·下荊南道, 호남도를 上·下湖南道로 각각 분리했으며, 荊西道를 증설했다(張建民, 1999: 10). 상형남도가 荊州와 岳州 2府를 관할했으므로, 여기서는 상형남도를 가리킨다.

- 225) 廣西: 중국 남부 해안에 위치한 省으로, 현재는 소수민족 자치구로 되어 있으며 2010년 현재 인구는 약 4천 600만 명이다. 漢代 南海郡尉 趙佗(전240~전137)가 이 지역의 桂林郡, 象郡 등을 점령해 南越國을 세웠지만, 漢 武帝 元鼎 6년(전111) 한 나라에 점령당했다. 明 洪武 9년(1376)에 이 지역에 廣西承宣布政使司를 설치하면서 廣西라는 명칭이 나타났다. 新中國 성립 이후 1957년 이곳에 廣西僮族自治區의 설치를 인준했으며, 1965년에 國務院은 그 명칭을 廣西壯族自治區로 바꾸었다.
- 226) 淸浪: 淸浪衛를 말하며, 洪武 23년(1390)에 설치되었다. 지금의 貴州省 鎮遠縣 동북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湖廣都司에 예속했다. 淸 雍正 5년(1727)에 淸溪縣으로 바뀌었다.
- 227) 行伍: 고대 시기 군대 編制를 의미하는 것으로, 25명을 ‘行’, 5명을 ‘伍’라 했다. 이후 行伍라는 말은 군대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 228) 督臣: 總督을 의미한다.
- 229) 馮岳(1495~1581): 浙江省 慈溪縣 사람으로, 嘉靖 5년(1526) 進士가 되어 工部主事, 員外郎, 江西按察使, 湖廣巡撫, 南京刑部尙書를 역임했다.
- 230) 荊·瞿: 荊州衛와 瞿塘衛를 말한다. 荊州衛는 明初 吳 元年(1364)에 처음 설치되었고, 瞿塘衛는 洪武 4년(1371)에 瞿塘守禦千戶所를 처음 설치했다가 洪武 12년(1379)에 瞿塘衛로 승격시켰으며, 이후 夔州衛로 개칭했다.
- 231) 九·永: 九谿衛와 永定衛를 말한다. 아홉 개의 하천이 모여 흐르고 있어 九谿衛라 부르는데, 이 지역은 湖南省 慈利縣 북쪽 90리에 위치해 있었으며, 洪武 초년에 築城을 했다. 홍무 23년(1390)에 설치된 구계위는 湖廣都司에 예속되어 있으면서 所 3곳과 按撫司 하나를 관할했다. 한편 永定衛는 湖南省 慈利縣 서북쪽 180리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洪武 3년(1370)에 築城을 하고, 沔陽, 安陸, 黃州, 襄陽의 군사들이 이곳을 수비했는데, 당시에는 羊山衛라 불렀다. 이후 庸水 연변에 위치했기 때문에 大庸이라

(九谿)에 이동시켜 지키도록 하고, 상형남도(上荊南道)<sup>232)</sup>[의 군사]는 각지의 순시에 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sup>233)</sup> 전세작이 교만하게 횡포를 부렸지만, 해당 관청이 [그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채, 오랜 동안 단지 상원증만을 구금하는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독신(督臣)의 권한을 빌려, 용미 [토사]의 권한을 통제하고, 전세작이 [법을] 어기고 항거한 죄를 물어야 하며, 만일 [그가] 참회하지 않는다면, 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라고 하니, [황제는] 이를 허락했다.<sup>234)</sup>

時龍潭安撫黃俊素貪暴，據支羅洞寨，以睚眦殺人，繫獄。會白草番反，俊子中請立功爲父贖罪，己又自求爲副指揮，賄當事者許之。俊出益驕，乃與中及群盜李仲實等，恣行於四川之雲陽·奉節間，副使熊達等計擒俊與仲實。俊死於獄，中自縛出降，執餘黨譚景雷等自贖。帝命追戮俊，梟示，仲實等論斬，中謫戍，而賞有功者。三十五年，命容美宣撫田九霄襲職，賜紅絲寧衣一襲，以浙江黃宗山擊倭之功也。

당시 용담(龍潭) 안무 황준(黃俊)은 본래 [성격이] 탐욕스럽고 횡포했으며, 지라동(支羅洞)의 산채를 점거하고 있었는데, 대단치 않은 원한으로 사람을 죽여, 옥에 갇혔다. 마침 백초번(白草番)<sup>235)</sup>이 반란을 일으키자,<sup>236)</sup> 황준의 아들 황중(黃中)이 공을 세워 아버지를 속죄시키

불렸으며, 明 建文帝 초에 永定으로 개명했다. 그 정확한 설치 시기는 알 수 없지만, 洪武 연간(1368~1398) 말엽으로 추정된다.

232) 上荊南道: 각주 224)에서 언급한 것처럼 형남도를 상하로 나눈 것 중 하나로서, 치소는 澧州에 있었으며, 荊州와 岳州 2府를 관할했다(伍新福 主編, 2008: 639 참조). 한편 清代 康熙 9년(1679)에 설치된 上荊南道는 荊州, 安陸, 德安 3府를 관할했다(牛平漢 主編, 1990: 233 참조). 참고로 鄖陽府에 치소를 둔 下荊南道는 襄陽과 鄖陽 2府를 관할했으며 淸 雍正 6년(1728)에 폐지되었다.

233) 이 지역에 대한 경비를 위해 明初에 매년 按察使 都官 1명을 巡廻하도록 했으며, 그 실태를 御史가 감독하도록 했다. 永樂 초년에는 荊州, 瞿塘, 九谿, 永定, 施州에서 각각 守備 한 명을 선발해 순찰하도록 했으며, 이후 荊瞿守備를 별도로 설치했다. 이어 嘉靖 45년(1566)에 兵備道를 설치해 彝陵州에 주재하도록 했는데, 이는 黃中の 난 이후 사후 대책으로 마련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대체로 嘉靖 연간(1522~1566) 이전까지는 이처럼 순회하면서 이 지역을 경비했던 것으로 보인다(同治 『咸豐縣志』 卷11 「武備志」).

234) 이에 관한 내용은 『世宗實錄』 卷416 嘉靖 33년 11월 壬子條 참조.

235) 白草番: 白草壩 혹은 白草寨라고도 하며, 지금의 四川省 北川羌族自治縣 서북쪽의 白草河 일대이다.

겠다고 청했으며, 이윽고 스스로가 부지휘(副指揮)가 되고자, [해당] 일을 담당하는 자에게 뇌물을 주고서 그 지위를 허락받았다. 황준이 [옥에서] 나와 더욱 교만해졌으며, 곧 황준 및 군도(群盜) 이중실(李仲實) 등과 함께, 사천의 운양(雲陽)<sup>237)</sup> · 봉절(奉節)<sup>238)</sup> 일대에서 함부로 행동하자, 부사(副使) 옹규(熊逵) 등이 황준과 이중실을 체포할 계획을 세웠다. 황준은 옥사(獄死)하고, 황중은 자박(自縛)하고 나와 항복했으며, 붙잡힌 담경뢰(譚景雷) 등의 잔당들은 스스로 속죄했다. 황제는 황준을 다시 도륙해 저자거리에 효시하도록 하고, 이중실 등은 참수하도록 했으며, 황중은 변방의 수(戍)로 보내고, 공을 세운 자들에게는 상을 내리도록 명했다.<sup>239)</sup> [가정] 35년(1556)에, 용미 선무 진구소(田九霄)에게 그 직위를 세습하도록 했으며, 붉은 모시옷 한 벌을 내렸는데, [이는] 절강(浙江)<sup>240)</sup> 황종산(黃宗山)<sup>241)</sup>에서 왜구를 격퇴한 공 때문이었다.

隆慶元年，吏科給事朱繪等言，湖廣施州衛忠路安撫覃大寧一日奏五上，語多不實，請

- 明 洪武 12년(1379)에 이곳에 松潘衛를 설치해 四川都司에 예속시켰으며, 이어 番人 17族을 長官使로 임명했다.
- 236)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은 何卿이란 인물을 總兵官으로 임명해 嘉靖 26년(1547) 白草潘의 番人들을 진압한 일을 말한다. 당시 何卿은 970여 명의 首級을 베었으며 4,800여 개의 가옥을 점령했다(任樹民, 2001 참조).
- 237) 雲陽: 지금의 重慶市 동북부에 위치한 지역이다. 秦나라 孝公 12년(전350)에 처음 雲陽縣이 설치되었으며, 縣治는 陝西省 淳化縣에 있었다. 明 洪武 4년(1371)에 夔州府에 예속시켰다가 洪武 9년(1376)에 重慶府에 예속시켰지만, 洪武 14년(1381)에 다시 거주부에 예속시켰다.
- 238) 奉節: 지금의 重慶市 동부에 위치했고, 三峽 일대 중심 도시 가운데 하나이다. 秦나라가 전314년에 이 지역에 처음으로 魚腹縣을 설치했는데, 諸葛亮이 劉備에게 “托孤寄命，臨大節而不可奪”이라고 表를 올린 故事를 헤아려 奉節로 개명했다.
- 239) 이들을 포획하는 데 공을 세운 인물은 奉節과 雲陽, 萬縣 일대의 官軍들로서, 副使 熊逵, 參議 萬文朝, 僉事 陳其樂 등이었다(『世宗實錄』 卷417 嘉靖 33년 12월 乙亥條 참조).
- 240) 浙江: 중국 동남 연해에 있는 省이다. 중국에서 제일 면적이 작은 省이지만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절강이란 명칭은 이곳을 통과하는 錢塘江의 강물이 구불구불 흐른다는 의미이다. 秦나라 때에 이곳에 會稽郡이 설치되었으며, 唐代에는 동남지역 최대 중심 도시였던 越州都督府가 자리잡고 있었다. 明代 浙江承宣布政使司가 설치되면서 省級 행정단위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광물 자원이 풍부하며, 아열대성 기후에 속해 수량이 풍부하고, 녹차나 비단, 미곡 등이 많이 생산된다.
- 241) 黃宗山: 『明實錄』에는 黃家山으로 기록되어 있다(『世宗實錄』 卷431 嘉靖 35년 正月 癸亥條 참조).

究治。都察院議，金峒安撫土舍覃壁爭印相殺，及磁峒不當轄四川。俱下撫按官勘報。四年，覃壁作亂，傷官軍，撫按請治失事諸臣罪。兵部言：「本衛孤懸境外，事起倉猝，宜從寬賞，以責後功。」帝然之，命所司相機剿撫。五年，巡撫劉懋以覃壁平，條議五事：「一，請以川東所轄巫山·建始·黔江·萬縣改屬上荊道。一，以荊州去施州衛遠，不便巡歷。夷陵西有傅友德所辟取蜀故道，名百里荒者，抵衛僅五百餘里。請以巴東之石碓司巡檢·施州衛之州門驛·三會驛並移近地，俾閭井聯絡。而於百里荒及東卜壘仍創建哨堡，令千戶一員，督班軍百人戍守。一，施州衛延袤頗廣，物產最饒，衛官腹削，致民逃夷地爲亂。宜裁通判設同知，撫治民蠻，均平徭賦，勿額外橫索。一，金峒世官不宜遽絕，貸覃勝罪，降按撫爲峒長，聽支羅所百戶提調。一，施州所轄十四司應襲官舍，必先白道院，始許理事。其擅立名號者，請嚴治，并令兵巡道每歲經歷施州，豫行調集各官舍獎諭，令赴學觀化。」俱從之。

용경 원년(1567)에 이과급사(吏科給事)<sup>242)</sup> 주희(朱繪) 등이 아뢰기를, 호광 시주위 충로(忠路) 안무 담대녕(覃大寧)이 하루에 다섯 번 상주를 올렸는데, 그 말속에 거짓이 많으니, 법으로 다스릴 것을 청한다고 했다. 도찰원(都察院)<sup>243)</sup>에서 의논하기를, 금동(金峒) 안무사(按撫司)의 토사(土舍)인 담벽(覃璧)이 인장을 쟁탈하기 위해 서로 살상하고, 자동(磁峒)이 사천을 관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황제가] 모두 무안관(撫按官)에게 [이 사안을] 내려 보내 [사실을] 조사해 보고하도록 했다.<sup>244)</sup> [용경] 4년(1570)에, 담벽이 난을 일으켜 관군(官軍)을 해치자, 무안관이 일을 그르친 [토사의] 여러 신하들을 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청했다.

242) 吏科給事: 六科의 하나인 '吏科'는 明 洪武 6년(1373)에 처음 설치된 관청이며, 給事는 吏科의 수장인 正七品의 給事中을 말한다. 通政司에 예속되어 있는데, 洪武 24년(1391)에 都給事中 1명, 左·右給事中 1명, 給事中 4명을 두었다. 주로 奏疏나 文書를 관장했다.

243) 都察院: 明·清 시대 관서명으로 이전의 御史臺에서 유래했으며 감찰이나 탄핵 등을 관장했다. 明 洪武 15년(1382)에 창설했다. 都御史가 수장이었으며 6부와 함께 七卿이라 불렸다. 明代에는 左·右都御史, 左·右副都御史, 左·右僉都御史 및 110명에 달하는 13道 감찰어사가 존재했지만(『明史』 卷73 「職官」 2), 清代에는 左都御史가 실질적인 수장이었으며, 右都御史는 총독을 겸직할 수 있었다. 또한 清代 都察院은 감찰 등의 업무 외에 皇室의 일을 관장했던 宗人府와 內務府의 일도 담당했다.

244) 이에 관한 내용은 『穆宗實錄』 卷8 隆慶 元年 5월 甲子條 참조.

병부에서 아뢰기를, “본위(本衛 즉, 施州衛)는 고립된 변방에 위치해 있으며, 사건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으니, 마땅히 관대하게 처리하고서, 이후에 공(功)을 따져야 합니다”라고 하니, 황제는 그렇다고 여기고, 해당 관청에 기회를 살펴 초무(剿撫)하라고 명했다. [용경] 5년(1571)에, 순무 유각(劉懃)이 담벽[의 난]을 평정하고, 다섯 개 사안(事案)을 조목으로 나누어 건의했는데, “하나, 천둥(川東)<sup>245)</sup>이 관할하고 있는 무산(巫山)<sup>246)</sup>·건시(建始)<sup>247)</sup>·검강(黔江)<sup>248)</sup>·만현(萬縣)<sup>249)</sup>을 상형도(上荊道)로 다시 귀속시키기를 청합니다. 하나, 형주는 시주위와 멀리 떨어져 있어 순찰이 불편합니다. 이릉(夷陵)<sup>250)</sup> 서쪽에는 부우덕(傅友德)<sup>251)</sup>이

245) 川東: 四川省의 동부지역 일대를 말한다. 重慶府 일대에 해당하는 巴縣·璧山·銅梁·永川·江津 지역을 上川東이라 하며, 順慶府 남쪽의 鄰水, 綏定府의 大竹·達縣, 夔州府의 萬縣·開縣 일대를 下川東이라 부른다(王笛, 1993: 17~18 참조).

246) 巫山: 重慶市 동북부에 위치한 지명이다. 大寧河와 長江의 교차 지점에 있지만, 산지가 전체 면적의 96%를 차지할 정도로 산악지대로 이루어졌다. 戰國시대에는 楚나라의 巫郡에 속했던 지역이었으며, 秦나라 昭襄王 30년(전277)에 巫縣을 설치했고, 隋나라 開皇 3년(583)에 巫山縣으로 개칭했다. 巫山縣 일대는 중국의 대표적 新石器시대 유적인 大溪文化 유적이 분포했던 곳이기도 하다.

247) 建始: 湖北省 서남지역에 위치한 지명이다. 三國時代 吳나라 景帝 永安 3년(260)에 처음 縣이 설치되었으며, 唐 貞觀 8년(634) 施州에 편입되었다. 明 洪武 4년(1371)에 湖廣都司 施州衛에 예속되었으며, 乾隆 원년(1736)에는 施州府에 속했다. 1993년 恩施土家族苗族自治州가 선포되고 난 후, 建始縣은 이 자치주 관할 8개 縣 가운데 하나로 편입되었다. 철, 유황, 석회석 등의 광물 자원이 풍부하며, 특히 많은 석탄이 생산된다.

248) 黔江: 현재는 重慶市 관할 19개 구역 가운데 하나로, 重慶市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중경시 유일의 소수민족 自治縣을 區로 개칭한 곳이다. 漢代에는 巴郡 涪陵縣 지역이었으며, 唐 天寶 원년(742)에 처음으로 黔江縣이 설치되어 黔中郡에 속했다. 明 洪武 5년(1372)에 彭水縣에 편입되었다가 洪武 12년(1379)에 黔江守禦千戶所를 설치했으며, 洪武 14년(1381)에 다시 黔江縣을 설치해 重慶府에 예속시켰다(咸豐『黔江縣志』卷1「建置沿革志」참조).

249) 萬縣: 四川 盆地 동부에 위치한 지명으로, 長江 三峽에 연해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川東의 門戶라 알려졌다. 後漢 建安 21년(216)에 劉備가 이곳에 처음으로 羊渠縣을 설치했는데, 北周 시기에는 萬川縣이라 했다. 明 洪武 6년(1373)에 萬縣으로 개칭했고, 1992년에 萬縣을 地方市로 승격시키고 城口縣 3개와 縣 8개를 관할하도록 했다. 수륙 교통이 편리해서 川東과 湘·鄂의 서쪽지역, 陝西省 남부지역의 물산이 이곳에 모인다.

250) 夷陵: 지금의 湖北省 宜昌市 동남지역에 위치한 지명이다. 前漢 시기에 처음으로 夷陵縣을 설치했으며, 南郡에 속했다. 明 洪武 9년(1376)에 이곳을 점령한 朱元璋은 後周부터 내려오던 명칭인 夔州를 夷陵州로 개칭했다. 淸 順治 5년(1648)에 다시 ‘夷陵’을 ‘夔陵’으로 개칭했으며, 雍正 13년(1735)에 夔陵州를 宜昌府로 승격시켰다.

251) 傅友德(?~1394): 宿州(지금의 安徽省 宿縣) 사람으로, 후에 碭山(지금의 安徽 碭山縣)으로 이주했다.

촉(蜀)으로 가는 옛길을 [다시] 개설한 곳이 있으며, [그곳을] 백리황(百里荒)<sup>252)</sup>이라 하는데 시주위에서 겨우 500여 리에 불과합니다. 파동의 석주(石砮)<sup>253)</sup> 사순검(司巡檢)·시주위의 주문역(州門驛)·삼회역(三會驛)을 모두 근처로 옮겨,<sup>254)</sup> 인근의 부락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청합니다. 그리고 백리황 및 동복릉(東卜壘)에는 오히려 초보(哨堡)<sup>255)</sup>를 세워, 천호 한 명이 반군(班軍)<sup>256)</sup> 100명을 독솔(督率)하여 수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 시주위는 지역 경계가 매우 넓으며, 물산이 매우 풍부해, 위(衛)의 관원들이 침탈을 일삼으니, 백성들이 이지(夷地)로 도망가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땅히 통판(通判)<sup>257)</sup>을 없애고 동지(同知)<sup>258)</sup>를

元나라 말에 擧兵한 諸將을 따르다가 至正 21년(1361)에 朱元璋이 江州를 공격할 때, 무리를 이끌고 투항했다. 이후 주원장이 이끈 鄱陽湖 전투, 武昌 점령, 河南과 河北 일대를 공략하는 데 참여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다. 洪武 3년(1370)에 徐達와 함께 북벌에 참여하였고, 다시 蜀과 漢中 지역을 점령한 공로로 潁川侯에 봉해졌다. 이 외에도 특히 雲南 정벌에 많은 공을 세워 洪武 17년(1384)에 다시 潁國公으로 봉해졌다. 장수로서 훌륭한 인물이었지만, 주원장의 혹독한 정치의 희생물이 되어 ‘백성들의 이익을 침탈했다’는 죄목으로 처형되었다(『明史』卷129「列傳」17 참조).

252) 百里荒: 지금의 湖北省 夷陵區와 遠安縣·當陽市가 만나는 지역인데 해발 1000~1200m의 고지대에 위치해 있다. 지역은 넓지만 사람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명칭이 붙었다. 초원지대와 馬尾松, 華山松이 한데 어우러져 경치가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253) 石砮: 지금의 重慶市 石砮土族自治縣 지역이다. 南宋 高宗 建炎 3년(1129) 南濱縣 일대에 石砮按撫司가 설치되었으며 元代에는 石砮軍民宣撫司로 있었다. 明 洪武 8년(1375)에 石砮宣撫司가 설치되었고, 天啓 원년(1621)에 石砮宣慰司로 승격되었다. 改土歸流가 시행된 후, 淸 乾隆 22년(1757)에 石砮直隸廳을 설치하고 四川省에 예속시켰다.

254) 施州衛의 州門驛과 三會驛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讀史方輿紀要』의 설명에 따르면, 巡撫 劉燾이 일단 石砮巡檢司를 施州衛 동북쪽 400여 리에 위치한 野三關으로, 州門驛을 施州衛 동북쪽 300여 리에 있는 河水舖로, 그리고 三會驛을 역시 施州衛 동북쪽 200리에 있는 古夷舖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이처럼 주장한 것은 당시 施州衛 治所에서 동북으로 약 500여 리 떨어져 있었던 巴東縣(현재 파동현은 湖北省 宜昌 地區에 속해 있지만, 明代에는 荊州府 관할이었다) 남부지역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였다(顧祖禹, 『讀史方輿紀要』卷82, 「湖廣」8). 따라서 이 논의는 明 중엽 이후 특히 容美土司가 다른 지역을 빈번히 침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鄧輝, 1984: 36).

255) 哨堡: 哨兵이 주둔하는 곳을 말한다.

256) 班軍: 明代 軍制의 하나이다. 각 지역의 衛所 군대를 번갈아 京師로 보내어 京軍의 각 부대에 편입시킨 뒤, 훈련을 시켰던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永樂 13년(1415)에 처음 실시되었으며 宣德 연간(1426~1435)에 정착된 제도로 자리 잡았다. 매년 봄에 경사로 보냈는데, 그 수효가 16만 명에 달했지만 이후로 軍制가 이완되면서 班軍의 수효도 감소했다. 또한 경사에 둘러앉아 상업이나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증가해, 崇禎 연간(1628~1643)에 이르면 2만여 명에 불과했다.

설치해서 일반민과 만족들을 안무하여 다스리고, 요역과 부세(賦稅)를 공평하게 해서, 규정 외에 함부로 침탈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 금동(金洞)의 대대로 내려오는 관직을 줄지에 단절시켜서는 안 되며, 담승(覃勝)의 죄를 관대히 처리하고, 안무[의 직위]를 동장(洞長)으로 강등시켜, 지라소(支羅所)의 백호의 통제에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 시주위가 관할하는 14개의 사(司)<sup>259)</sup>가 관사(官舍)<sup>260)</sup>를 계승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도원(道院)<sup>261)</sup>에 고하도록 하고서야, 비로소 일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멋대로 명호(名號)를 세우는 자는 엄히 다스릴 것을 청하며, 아울러 병사들이 [해당] 도(道)를 순찰할 경우에 매년 시주를 돌아보도록 하고, 미리 징발해서 소집한 각 관사(官舍)들에게 [그 취지를] 권장해 깨우치도록 해야 하며, [해당자들을] 학교에 보내 교화의 [정도]를 살피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는데, [황제는] 이 모두를 허락했다.<sup>262)</sup>

257) 通判: 唐宋·五代에 등장한 藩鎮 武將들의 兵權을 축소시키기 위해, 宋代에 이르러 조정의 문신들이 지방의 군사 업무를 담당했는데 그들의 명칭이 權知軍 혹은 州事였다. 이와 동시에 州郡에 通判을 설치해 權知軍이나 主事와 공동으로 정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그러나 南宋代에 이르러 通判은 州郡官이나 縣官의 모든 정황을 황제에게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게 되어 사실상 감찰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아울러 明·清 시대에 이르러서는 각 府에 통관을 설치해 미곡 수송, 水利, 屯田 등의 업무를 분담하도록 했다. 따라서 明·清 시대의 通判은 기본적으로 知府를 보좌하는 역할이었다.

258) 同知: 明·清 시기의 官職名이다. 知府의 副職으로 正五品이었으며, 知府와 함께 지역의 여러 업무를 분담했다. 康熙 연간(1662~1772) 이후 한 업무만을 관장하는 同知가 출현했으며, 특정 지역에서는 실제 그들이 장관이 되었는데, 그러한 지역을 ‘廳’이라 불렀다. 이러한 지역의 同知는 州縣官과 동일하게 취급했기 때문에 副職이 아니었다.

259) 여기서 말하는 14개의 司는 大田軍民千戶所, 施南宣撫司 휘하의 5개 按撫司(東鄉五路, 忠路, 忠孝, 金洞, 中洞), 散毛宣撫司 휘하의 2개 按撫司(龍潭, 大旺), 忠建宣撫司 휘하의 2개 按撫司(忠洞, 高羅), 容美宣撫司, 盤順長官司, 鎮南長官司, 唐崖長官司를 말한다. 다만 永樂 4년(1406)에 宣撫司로 다시 개설된 容美宣撫司 휘하에는 모두 永樂 5년(1407)에 설치된 椒山瑪瑙, 五峰石寶, 石梁下洞, 水盡源通塔平的 네 長官司가 있었다.

260) 官舍: 아직 土司들이 스스로 만든 이른바 自署 官職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없지만, 湖廣省 麻陽縣 등에는 舍, 舍目 등의 직위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토사에 소속된 문관직이라고 판단된다(成臻銘, 2002: 91 참조).

261) 道院: 여기서는 上荊南道 治所의 관청을 말한다.

262) 이에 관한 내용은 『穆宗實錄』 卷53 隆慶 5년 正月 乙酉條 참조. 실록의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官舍들을 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내용이다.

萬曆十一年，湖廣撫按奏：「施州衛施南等宣撫司各官，仍聽鎮筸參將節制，載入敕書，以一事權。」從之。

만력(萬曆)<sup>263</sup> 11년(1583)에 호광 무안관(撫按官)이 상주하기를, “시주위 시남 등의 선무사(宣撫司) 각 관원들은, 이제 진간(鎭筈) 참장(參將)<sup>264</sup>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칙서에 [이를] 기재하여, 일을 처리하는 권한을 통일시켜야 합니다”라고 하니, [황제는] 이를 허락했다.<sup>265</sup>

崇禎十二年，容美宣撫田元疏言：「六月間，穀賊復叛，撫治兩臣調用土兵。臣卽捐行糧戰馬，立遣土兵七千，令副長官陳一聖等將之前行。悍軍鄧維昌等憚於征調，遂與譚正賓結七十二村，鳩銀萬七千兩，賂巴東知縣蔡文陞以逼民從軍之文上報，阻忠義而啟邊釁。」帝命撫按核其事。時中原寇盜充斥，時事日非，卽土司徵調不至，亦不能問矣。

숭정(崇禎)<sup>266</sup> 12년(1639)에 용미 선무 전원(田元)이 상소하여 아뢰기를, “6월 동안에 곡성(穀城)<sup>267</sup> 지역의 적도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키니,<sup>268</sup> 순무와 장관사의 두 대신(大臣)이

263) 萬曆: 明 왕조 제13대 황제인 神宗 朱翊鈞의 年號이다.

264) 參將: 明代 관직명으로써, 변방 지역을 경비하는 統兵官을 말한다. 總兵이나 副總兵의 하위직이었으며, 품계나 정원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 清代에 들어와서 한 營을 책임지는 綠營軍 將領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지위는 副將 밑으로 正三品이었으며, 總督이나 巡撫, 提督, 總兵 등의 관할 하에 있었다.

265) 당시 이 문제를 제기한 湖廣撫按官은 李江이란 인물이었으며, 施州衛 施南 등뿐 아니라, 永順과 保靖 土司 전체가 鎭筈의 통제를 받도록 조치했다(『神宗實錄』 卷137 萬曆 11년 5월 丙午條 참조).

266) 崇禎: 明 왕조의 마지막인 제16대 皇帝 思宗 朱由檢의 年號이다.

267) 穀城: 湖北省 서북부의 漢江 중류 西岸에 위치한 지명이다. 산지와 구릉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악지역이다. 따라서 자연경관이 아름다워 관광지로 유명하다. 神農氏가 이곳에 五穀을 심었다는 전설 때문에 穀城이라 부르게 되었다. 秦代에 처음으로 筑陽縣이 설치된 지역이며, 隋 開皇 18년(598)에 처음으로 穀城縣이라 했다. 明初 곡성현은 衛國公 鄧愈의 食邑地였지만, 縣을 설치하고 襄陽府 관할 하에 두었다(同治 『穀城縣志』 卷1 「沿革」).

268) 여기서 말하는 적도는 張獻忠을 말한다(『崇禎實錄』 卷12 崇禎 12년 5월 乙丑條 참조).

토병을 징발해 [반란 진압에] 이용하였습니다. 신(臣)은 즉시 식량과 전마(戰馬)를 바쳤으며, 곧 토병 7,000명을 파견했는데, 부장관(副長官) 진일성(陳一聖) 등에게 이들을 거느리고 먼저 가도록 했습니다. 등유창(鄧維昌) 등 [휘하의] 사나운 병사들은 징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자, 마침내 담정빈(譚正賓)과 함께 72개의 촌채를 결집하고, 은(銀) 17,000냥을 모금해, 파동(巴東) 지현(知縣)<sup>269)</sup> 채문승(蔡文陞)<sup>270)</sup>에게 뇌물을 바친 [후에], [지현이] 백성들을 꾀박해 [작성한] 종군자 [명단을 기재한] 문서를 보고하도록 하니, [이는] 충의(忠義)를 막고 변방에 사단을 여는 일입니다”라고 했다. 황제는 안무에게 그 사실을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중원(中原)에는 적구(賊寇)와 도적들이 들끓고, 위급한 일이 나날이 발생했으며, 토사에게 징발한 병력이 다르지 않아도, [그 죄] 역시 물을 수 없었다.

## 永順軍民宣慰使司

### 영순군민선위사사

永順，漢武陵·隋辰州·唐溪州地也。宋初爲永順州。嘉祐中，溪州刺史彭仕義叛，臨以大兵，仕義降。熙寧中，築下溪州城，賜名會溪。元時，彭萬潛自改爲永順等處軍民安撫司。

영순(永順)은 한(漢)나라 때의 무릉군(武陵郡)<sup>271)</sup> 수(隋)나라 때의 진주(辰州), 당(唐)나라 때의 계주(溪州)<sup>272)</sup> 지역이었다. 송나라 초에 영순주(永順州)가 되었다. [송] 가우(嘉

269) 知縣: 秦始皇이 郡縣制를 실시한 이후, 縣은 지방의 가장 기본적인 하위 단위가 되었으며, 知縣은 이 縣을 담당하는 長官이었다. 唐代 이전 縣의 장관은 모두 縣令 혹은 縣長이라 불렸지만, 宋代 이후 한 縣의 일을 主持한다는 의미에서 知縣으로 불렸다. 明 초기에는 관할 지역이 내는 稅糧에 따라 品階를 정했기 때문에 품계가 일정하지 않았지만, 이후 正七品으로 고정되었다.

270) 蔡文陞: 生卒年 未詳. 江蘇省 松江府 사람으로, 舉人에 올라 崇禎 연간(1628~1644)에 巴東縣 知縣을 역임했다(光緒『巴東縣志』卷7「職官志」).

271) 武陵郡: 前漢 高祖 5년(전202)에 기존의 黔中郡을 폐지하고 武陵郡을 설치했으며, 郡治는 지금의 湖南省 常德市 일대였다. 관할 지역은 沅江 유역 以西, 貴州省 동부, 湖北省 서남부 일대였다. 史書에 “居武陵者 有雄溪楠溪辰溪西溪武溪, 謂之五溪蠻”이라는 내용처럼 일찍부터 이곳에 이른바 五溪蠻이 살았다(『南史』卷79「列傳」69).

祐)<sup>273)</sup> 연간(1056~1063)에, 계주 자사(刺史)<sup>274)</sup> 팽사희(彭仕義)<sup>275)</sup>가 반란을 일으켰는데,<sup>276)</sup> 많은 병력을 동원하자 [이에] 팽사희가 항복했다. 희녕(熙寧)<sup>277)</sup> 연간(1068~1077)에, 하계주(下溪州)<sup>278)</sup>에 성(城)을 쌓고, 회계(會溪)라는 지명을 하사했다.<sup>279)</sup> 원나라 때에, 팽만잠(彭萬潛)<sup>280)</sup>이 자기 마음대로 영순등처군민안무사(永順等處軍民安撫司)로 바꿨다.<sup>281)</sup>

272) 溪州: 唐代에 지금의 湘西 지역의 永順, 保靖, 龍山, 古丈坪 등에 처음 설치했다. 北宋 咸平 연간(998~1003) 이후 관할 지역을 확대하여, 龍山縣 일대를 上溪州, 永順縣 일대를 下溪州로 명명했다. 明代 그 지역을 분할하여 永順宣慰司와 保靖宣慰司를 설치했다.

273) 嘉祐: 北宋 仁宗이 사용한 9개 年號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사용된 연호로 기간은 1056~1063년이다.

274) 刺史: 감찰업무를 담당했던 官職名이다. 漢 武帝 元封 5년(전106)에 처음 설치되어 전국 13部(州)에 설치되었으며, 관청은 따로 두지 않았다. 이후 三國時代와 魏·晉·南北朝 시대에도 각 왕조마다 刺史職을 설치했지만, 隋·唐과 五代 시기에 이르러 刺史는 한 州의 행정장관으로 변모되어 휘하에 長史, 司馬, 別駕 등의 관원을 거느렸다. 元代 이후에 폐지되었으며, 明·清 시대에 刺史란 명칭은 知州의 별칭이었다.

275) 彭仕義(999~1070): 土名은 福送이며, 지금의 湖南省 永順縣 사람이다. 宋 仁宗 明道 원년(1032)에 그의 형인 下溪州刺史 彭仕端이 사망하자 형의 지위를襲職하였다. 이후 그는 자신을 如意大王이라 칭하며 宋 왕조에 대항했다. 이어 北宋 仁宗 皇祐 2년(1050)에 彭師寶의 부인을 탈취하였는데, 이에 彭師寶가 彭仕義에 대항하여 자칭 왕이라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다.

276) 嘉祐 연간(1056~1063)에 彭仕義가 반란을 일으킨 시기는 北宋 仁宗 嘉祐 2년(1057)이다. 그러나 彭仕義와 彭師寶 두 사람이 반목하여 仁宗 皇祐 2년(1050)에 분쟁이 일어났고, 당시 辰州 知州 宋守信, 通判 賈師熊 등이 토벌에 나섰다. 이를 토벌하는데 초기에 전세가 불리했으나 결국 彭仕義 진압에 성공했다. 그러나 사후 처리에 불만을 품은 彭仕義가 다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시기가 嘉祐 2년이다(同治『永順府志』卷9「土司」).

277) 熙寧: 北宋 神宗(1048~1085; 재위 1067~1085)의 年號로, 기간은 1068~1077년이다.

278) 下溪州: 唐代에 지금의 湖南省 龍山縣 일대에 설치했던 溪州를 설치했다. 北宋 咸平 연간(998~1003)에 溪州의 관할 영역을 대폭 확대시키면서 이전 용산현 지역을 上溪州, 새로 영역에 포함된 永順縣을 下溪州라 했다. 唐代 溪州 관할 지역은 지금의 湘西 지역인 永順, 保靖, 龍山, 古丈坪 등지였는데, 明代에 이들 지역에 각각 永順과 保靖 宣慰司를 두었다.

279) 熙寧 3년(1070)에 아들 彭師綵가 彭仕義를 살해하고 뒤를 이었지만 성격이 포악해 형 彭師晏이 그를 살해하고 조정에 충성을 맹세했다. 다시 熙寧 5년(1072)에 일대 관할 지역을 현상하자 下溪州 일대에 새로 城을 쌓고 治所를 茶灘 南岸에 두도록 명령했는데, 그 城의 명칭이 會稽였다. 이로 미루어 본문의 일은 熙寧 5년의 일로 보인다(同治『永順府志』卷9「土司」).

280) 彭萬潛: 彭祖勝의 長子로, 元 至正 9년(1349)에 아버지의 지위를 계승했다. 사후 그의 동생 彭添保가 지위를 계승했다.

281) 지방지의 기록에 따르면, 元 世祖 至元 연간(1264~1294)에 永順路를 설치했다가 이후 永順保靖南渭按撫司가 되었으며, 至大 3년(1310)에 다시 永順等處軍民按撫司로 고치고, 이어 至正 11년(1351) 宣撫司

洪武五年，永順宣慰使順德汪倫·堂庑安撫使月直遣人上其所受僞夏印，詔賜文綺襲衣。遂置永順等處軍民宣慰使司，隸湖廣都指揮使司。領州三，曰南渭，曰施溶，曰上谿；長官司六，曰臘惹洞，曰麥著黃洞，曰驢遲洞，曰施溶溪，曰白崖洞，曰田家洞。九年，永順宣慰彭添保遣其弟義保等貢馬及方物，賜衣幣有差。自是，每三年一入貢。永樂十六年，宣慰彭源之子仲率土官部長六百六十七人貢馬。

홍무 5년(1372)에, 영순 선위사인 순덕(順德)과 왕륜(汪倫), 당에 안무사 월직(月直)이 사람을 보내 그들이 받은 하나라의 가짜 인장을 상납하자, 조서를 내려 문기(文綺)<sup>282</sup>와 습의(襲衣)<sup>283</sup>를 하사했다. 마침내 영순등처군민선위사사(永順等處軍民宣慰使司)를 설치해, 호광도지휘사사에 예속시켰다. [영순선위사사는] 주(州) 세 곳을 관할했는데, 남위(南渭),<sup>284</sup> 시용(施溶),<sup>285</sup> 상계(上谿)<sup>286</sup>라 하고, 장관사 여섯 곳을 관할했는데, 남야동(蠟惹洞),<sup>287</sup> 맥저황동(麥著黃洞),<sup>288</sup> 여지동(驢遲洞),<sup>289</sup> 시용계(施溶溪),<sup>290</sup> 백애동(白崖洞),<sup>291</sup> 전가

로 승격시켰다. 彭萬潛은 부친인 彭勝祖의 지위를 至正 9년(1349)에 계승했으므로, 아마도 그 이전부터 永順等處軍民安撫司라는 명칭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同治『永順府志』卷9「土司」).

282) 文綺: 무늬가 있는 비단을 말한다.

283) 襲衣: 황제가 신하에게 내리는 服裝을 일컫는다. 고대에 예의를 행할 때, 楊衣 위에 입는 상의이다.

284) 南渭: 永順宣慰使 관할로 宋代에는 中溪州였다가 이후 南渭州가 되었다. 知州 彭思聰이 北宋 哲宗 元祐 3년(1088)에 入貢한 바 있으며, 元 至元 연간(1264~1294)에 南渭州按撫司를 설치했다. 明初에도 元代的 제도를 그대로 따랐으며, 彭萬金부터 彭應麟까지 16대를 세습하다가 順治 4년(1647)에 來附했으며, 雍正 5년(1727) 청조에 토지를 받쳤다.

285) 施溶: 永順宣慰司 동남쪽에 위치해 있었으며, 宋代 下溪州에 속했던 지역이다. 元代 會溪施溶等處長官司가 설치되어 思州按撫司에 속해 있었다. 田健霸부터 田茂年까지 12대를 세습했다.

286) 上谿: 上溪 지역을 말하며 永順宣慰司 서쪽에 위치해 있었다. 宋代 彭文慶이 朝貢을 바친 바 있으며, 明 洪武 2년(1369)에 知州를 설치했다.

287) 蠟惹洞: 元代 思州에 속했던 지역이다.

288) 麥著黃洞: 지방지에는 麥着黃洞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元代에는 麥着土村으로 불렸다. 思州에 속해 있었다.

289) 驢遲洞: 元代 思州에 속했던 지역이다.

290) 施溶溪: 元代 思州 지역에 속했던 곳으로, 明初에 汪良이 長官使로 있었으며, 施溶州와 함께 宋代 下溪州에 속했던 지역이다.

291) 白崖洞: 元代에는 葛蠻按撫司에 속한 지역이었으며, 지금의 龍山縣 서북 일대의 지역이다. 그러나

동(田家洞)이라 한다. [홍무] 9년(1376)에, 영순 선위 팽첨보(彭添保)<sup>292</sup>가 그의 아우 팽의보(彭義保) 등을 보내 말과 방물을 조공하니, 의복과 전폐를 차등을 두어 하사했다. 이로부터 3년마다 한 번씩 입공했다. 영락 16년(1418)에, 선위 팽원(彭源)<sup>293</sup>의 아들 팽중(彭仲)이 토관 부장(部長) 667명을 거느리고 [입조해] 말을 바쳤다.

宣德元年，禮部以永順宣慰彭仲子英朝正後期，請罪之。帝以遠人不無風濤疾病之阻，仍賜予如例。總兵官蕭綬奏：「酉陽宋農里·石提洞軍民被臘惹洞長謀古賞等連年攻劫，又及後溪，招之不從，乞調兵剿之。」謀古賞等懼，願罰人馬贖罪，乃罷兵。正統元年命彭仲子世雄襲職。天順二年諭世雄調士兵會剿貴州東苗。

선덕(宣德) 원년(1426)에, 예부에서 영순 선위 팽중의 아들 팽영(彭英)이 기일보다 늦게 입조했기 때문에, 그에게 죄를 줄 것을 청했다. [이에] 황제는 멀리 있는 사람이 [조정에 올 때] 바람과 파도, 질병 등의 방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자], 오히려 전례(前例)에 따라 하사품을 내렸다. 총병관(總兵官) 소수(蕭綬)<sup>294</sup>가 상주하기를, “유양(酉陽)<sup>295</sup>의 송농리(宋農里)·석제동(石提洞)의 군민(軍民)들이 남야동의 수장(首長) 모고상(謀古賞) 등에게

원대 백애동 지역은 명·청 시대 會溪와 施溶이 있었던 호남성 永順縣 일대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田敏, 2011 참조.

292) 彭添保: 彭祖勝의 둘째 아들로, 洪武 3년(1370)에 형을 이어 宣慰使가 되었다.

293) 彭源: 彭添保의 아들로 永樂 원년(1403)에 宣慰使의 지위를 계승했다.

294) 蕭綬(?~1445): 湖南省 華容縣 출신으로 千戶의 신분으로 永樂帝의 起兵에 從軍했으며, 永樂 16년(1418) 總兵官에 임명되어 湖廣과 貴州 일대 반란을 평정했다. 宣德 연간(1426~1435)에는 鎮遠과 邛水 일대의 만족인 銀總을 비롯해 水西 지역 일대를 평정했으며, 正統 연간(1436~1449)에 이르러서도 貴州 일대와 廣西 일대 소수민족 토벌에 많은 공을 세웠다. 20여 년을 외지의 소수민족 토벌에 전념했으며, 그의 공을 높이 사 左都督에 올랐지만 正統 4년(1439)에 벼슬에서 물러났다. 본문의 내용은 宣德 원년(1426)에 일어난 일이다(『明史』 卷160 「列傳」 54 참조).

295) 酉陽: 지금의 重慶市 관할 酉陽土家族苗族自治縣이다. 前漢 高祖 5년(전202)에 처음으로 酉陽縣이 설치되었으며, 元代 酉陽州를 설치해 四川南道宣慰司懷德府에 예속시켰다. 明 洪武 5년(1372)에 酉陽州와 함께 酉陽宣慰司都元帥府를 설치했지만, 洪武 8년(1375)에 酉陽州를 폐지하고 酉陽宣慰司를 설치해 四川布政司에 예속시켰다. 淸 雍正 13년(1735)에 改土歸流 시행 후, 酉陽宣慰司를 폐지하고 酉陽縣을 설치했다. 水資源이 풍부하며, 三木이라 부르는 杜仲, 厚朴, 黃柏의 생산지로 유명하다.

매년 공격과 약탈을 당하고 있으며, 또한 [그 피해가] 후계(後溪)에 이르고, 초무에도 따르지 않으니, 병사를 보내 그들을 토벌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했다.<sup>296)</sup> 모고상 등이 두려워해, 그 별을 [대신해] 사람과 말로 속죄하기를 원하자, 이에 군대의 파견을 중지했다. 정통 원년(1436)에, 팽중의 아들 팽세웅(彭世雄)에게 [아버지 지위의] 습직을 명했다. 천순 2년(1458)에, 팽세웅에게 유지를 내려 토병을 모집해 귀주의 동묘(東苗)<sup>297)</sup>를 토벌하러 나가도록 했다.

成化三年，兵部尚書程信請調永順兵征都掌蠻。十三年以征苗功，命宣慰彭顯英進散官一階，仍賜敕獎勞。十五年免永順賦。弘治七年，貴州奏平苗功，以宣慰彭世麒等與有勞，世麒乞陞職。兵部言非例，請進世麒階昭勇將軍，仍賜敕褒獎，從之。八年，世麒進馬謝恩。十四年，世麒以北邊有警，請帥土兵一萬赴延綏助討賊。兵部議不可，賜敕獎諭，並賜奏事人路費鈔千貫，免其明年朝覲，以方聽調征賊婦米魯故也。

성화 3년(1467)에, 병부상서(兵部尚書) 정신(程信)<sup>298)</sup>이 영순의 병사를 징발하여 도장만(都掌蠻)을 정벌하기를 청했다. [성화] 13년(1477)에 묘족 정벌의 공으로, 선위 팽현영(彭顯英)<sup>299)</sup>에게 산관(散官)<sup>300)</sup>의 관계(官階)를 한 등급 올려주도록 명했으며, 예전처럼 칙서를

296) 따라서 蕭授는 부근의 施州衛와 西陽 등의 宣慰司에 있는 漢族과 土兵들을 동원해 謀古賞을 토벌해야 한다고 청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은 『宣宗實錄』 卷13 宣德 元年 正月 壬戌條 참조.

297) 東苗: 자칭 乞蒙이라고 하는데, 史書에서는 東苗라는 명칭 외에 養鴨苗, 養鴨乞兜 혹은 鴨子苗 등으로 기재되어 나타난다. 이들은 貴陽, 修文, 龍里, 清鎮, 長順 일대에 살고 있었으며, 오리를 기르는데 익숙했다. 본문의 내용은 天順 2년(1458)에 東苗의 수령 干把諸曾이 왕을 청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都勻(현재 貴州省 關訥)을 공격하고 明軍을 살해했던 사건에 대한 토벌을 말한다.

298) 程信(1416~1473): 正統 7년(1442)에 進士로 吏科給事中에 제수되었으며, 英宗의 북벌 단행을 중지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린 바 있다. 左都御史와 遼東 巡撫 등을 역임했다. 본문의 내용은 四川 戒縣 일대 山都掌의 蠻族이 반란을 일으켜 合江 등 9개 縣의 함락과 그에 대한 정벌을 단행한 사건이다. 이에 대한 정벌 논의가 진행될 당시 程信은 아직 兵部尚書가 아니었으나 이 정벌이 단행될 당시에는 襄城伯 李瑾을 總兵官, 太監 劉恒을 監督으로 삼고 程信을 兵部尚書로 진급시켜 提督軍務로 임명하도록 했다(『明史』 卷172 「列傳」 60 참조).

299) 彭顯英: 字는 朝杰이며, 彭世雄의 손자이다. 天順 6년(1462)에 아버지 彭宣의 지위를 계승해 선위사가 되었다. 그는 본문에 나오는 都掌蠻 토벌 외에도 成化 원년(1465)에 廣西 潯州 일대 大藤峽 토벌과 成化 2년(1466)에 荊襄 일대의 流民반란 진압에도 참여했다.

내려 노고를 표창했다. [성화] 15년(1479)에, 영순의 부세(賦稅)를 면제해주었다. 홍치 7년(1495)에, 귀주(貴州)가 묘족 평정에 공을 세웠다<sup>301)</sup>고 상주했는데, 선위 팽세기(彭世麒)<sup>302)</sup> 등이 참여하여 공로가 있으므로, 팽세기가 관직을 올려주기를 청했다. 병부는 [그것이] 상례(常例)에 어긋난다고 말하면서, 팽세기의 관계(官階)를 소용장군(昭勇將軍)<sup>303)</sup>으로 진급시키고, 예전처럼 칙서를 내려 표창하기를 청하자, [황제는] 이를 허락하였다.<sup>304)</sup> [홍치] 8년(1496)에, 팽세기가 말을 진공해 사은(謝恩)했다. [홍치] 14년(1502)에, 팽세기는 북방에 변경이 발생하자,<sup>305)</sup> 토병 일만 명을 이끌고 연수(延綏)<sup>306)</sup>로 가 적 토벌을 돕겠다고 청했다. 병부가 [이를] 불가하다고 의논했으며, 칙서를 내려 표창함과 아울러 그 일을 상주한 사람들에게 여비로 초(鈔) 1,000관(貫)을 하사하였으며, 이듬해 조근(朝覲)을 면제해주었는데, [그 이유는] 마침 미로(米魯)<sup>307)</sup>라는 부적(婦賊)의 정벌을 위한 군사 파견에 [그가] 응했기 때문이었다.<sup>308)</sup>

300) 散官: 官名은 존재하지만 고정된 업무가 없는 관원을 지칭하는 말로써 職事官에 대칭되는 말이다. 後漢 建安 연간(196~220)에 曹操가 처음 창시했으며, 北魏 天賜 원년(404)에 散官 5等を 두었다. 明 洪武 9년(1376)에 文武 散官의 품계를 정해, 文官의 경우 特進光祿大夫에서 將仕佐郎까지 42階를 두었으며, 武官은 特進光祿大夫에서 忠顯校尉까지 30階를 두었다.

301) 弘治 6년(1493) 貴州 都勻 일대의 징벌에 파병한 일을 말하며 당시 四川 西陽宣撫使 冉舜臣도 참여했다(『孝宗實錄』卷94 弘治 7년 11월 癸卯條 참조).

302) 彭世麒: 彭顯英의 아들이며, 弘治 5년(1492) 아버지를 이어 선위사가 되었다.

303) 昭勇將軍: 明代 正3品の 武官散官이며, 그 위로 昭毅將軍과 昭武將軍이 있다.

304) 이에 관한 내용은 『孝宗實錄』卷94 弘治 7년 11월 癸卯條 참조.

305) 北虜가 延綏의 神木堡 일대로 대거 침입한 사실에 대해서는 『孝宗實錄』卷171 弘治 14년 3월 己酉條 참조. 또한 팽세기가 토벌에 나서겠다는 언급은 『孝宗實錄』卷174 弘治 14년 6월 壬辰條 참조.

306) 延綏: 明代 九邊 가운데 하나이다. 처음에는 綏德州(지금의 陝西省 綏德縣)에 설치되었지만, 成化 7년(1471)에 榆林衛(지금의 陝西省 榆林市)로 옮겼기 때문에 보통은 榆林이라 칭한다. 그 방어 지역은 동쪽의 黃河에서 서쪽의 定邊營까지였다. 明代의 九邊은 遼東, 宣府, 薊州, 大同, 太原, 延綏, 寧夏, 固原, 甘肅에 설치되었다.

307) 米魯: 貴州 普安州 苗族의 土司 判官인 隆暢의 妻로, 절세의 미녀로 알려졌다. 沾益州의 土知州 安民의 딸인 그녀는 결국 隆暢과의 불화로 친정으로 돌아와 현지의 또 다른 土司인 阿保와 私通하였다. 이때 隆暢은 이미 年老하여 米魯와의 사이의 자식이 아닌 그의 아들 隆禮에게 土司 직위를 넘겨주고, 隆禮를 米魯에게 보내어 돌아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도리어 隆禮는 米魯와 通姦하고 阿保와 결탁하였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隆暢은 크게 노하여 阿保를 공격하고 근거지를 불태우는 한편 숨어 있던 아들 隆禮를 죽였다. 이에 米魯는 阿保와 연합해서 반격해 隆暢을 죽이고, 더 나아가 明 조정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正德元年以世麒從征有功，賜紅織金麒麟服，世麒進馬謝恩。二年進馬賀立中宮，命給賞如例。五年，永順與保靖爭地相攻，累年不決，訴於朝，命各罰米三百石。六年，四川賊藍廷瑞·鄺本恕等及其黨二十八人倡亂兩川，烏合十餘萬人，僭王號，置四十八營，攻城殺吏，流毒黔·楚。總制尚書洪鍾等討之，不克。已而爲官軍所遏，乏食，乃佯聽撫，劫掠自如。廷瑞以女結婚於永順土舍彭世麟，冀緩兵。世麟僞許之，因與約期。廷瑞·本恕及王金珠等二十八人皆來會，世麟伏兵擒之，餘賊潰渡河，官兵追圍之，擒斬及溺死者七百餘人。總制·巡撫以捷聞，獎賚有差，論者以是役世麟爲首功云。七年，賊劉三等自遂平趨東臯，宣慰彭明輔及都指揮曹鵬等以土軍追擊之，賊倉卒渡河，溺死者二千人，斬首八十餘級。巡撫李士實以聞。命永順宣慰格外加賞，仍給明輔誥命。

정덕 원년(1506)에, 팽세기가 정벌에 나아가 공을 세워서, 붉은 비단으로 만든 금기린복(金麒麟服)을 하사했으며, 팽세기는 말을 바쳐 사은했다. [정덕] 2년(1507)에, 말을 바쳐 중궁(中宮)<sup>309)</sup>의 책립을 축하하자, 예에 따라 상을 주도록 명하였다. [정덕] 5년(1510)에, 영순과 보정(保靖)이 토지를 사이에 두고 서로 공격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해결이 나지 않자, 조정에 고소했는데, 각각에게 벌미(罰米) 300석을 바치도록 명령했다. [정덕] 6년(1511)에, 사천의 적도(賊徒) 남정서(藍廷瑞)<sup>310)</sup>·인본서(鄺本恕)<sup>311)</sup> 및 그 일당 28명이 양천(兩川)<sup>312)</sup>에서 반란을 일으켰으며, 10여만 명을 규합해, 함부로 왕을 칭하면서, 48영(營)을 설치

308) 彭世麒가 실제 米魯를 정벌하려고 군사를 파견한 시기는 弘治 15년(1502)의 일이다.

309) 中宮: 皇后를 일컫는데, 본래는 황후가 거주하는 궁전을 의미했다.

310) 藍廷瑞: 明 중엽 四川 지방에서 농민반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保寧縣(지금의 四川 閬中) 사람으로, 藍五라고도 부른다. 그는 正德 4년(1509) 겨울에 鄺本恕, 寥惠 등과 함께 약 10여만 명의 농민을 규합해 順天王을 칭칭하고서 반란을 일으켰다. 四川, 湖廣, 陝西 지역에 세력을 떨쳤지만 본문의 내용처럼 兵部尚書兼左都御史 洪鍾에게 正德 6년(1511)에 진압되었다.

311) 鄺本恕(?~1511): 四川 營山 사람으로, 弘治 연간(1488~1505)에 심한 홍수가 발생하자 四川 大寧縣(지금의 巫溪縣)으로 도망가서 소금제조업에 종사했다. 이후 正德 3년(1508)에 湖廣 출신 生員 崔蓬頭, 寥惠 등과 함께 大昌縣을 공격했다. 이후 藍廷瑞와 함께 四川과 湖北 일대를 공격했지만 진압군에게 藍廷瑞와 함께 살해당했다.

312) 兩川: 四川 동쪽을 가리키는 東川과 서쪽을 의미하는 西川을 합해서 부르는 말로써, 지금의 四川省 중부 일대를 가리킨다. 唐 肅宗 至德 2년(757)에 劍南道에 東川과 西川의 두 節度使를 두었으며, 이 때문에 兩川이란 이름이 나타나게 되었다.

하고, 성(城)을 공격하는 한편 관리들을 살해하니, 그 피해가 검(黔)<sup>313)</sup>·초(楚) 지역에까지 확대되었다. 총제상서(總制尙書)<sup>314)</sup> 홍종(洪鍾)<sup>315)</sup> 등이 그들을 토벌했지만, 진압하지 못했다. 오래 지나지 않아 관군에게 저지당해 식량이 모자라자, 거짓으로 초무에 따르는 척하면서, 여전히 약탈을 자행했다. 남정서는 자신의 딸을 영순 토사(土舍) 팽세린(彭世麟)에게 출가시켜, 구원병을 얻을 수 있기를 원했다. 팽세린은 거짓으로 그 결혼을 허락하고서, 그와 기일을 약정했다. 남정서·언본서 및 왕금주(王金珠) 등 28명이 모두 와 모이자, 팽세린이 병사를 매복시켰다가 그들을 생포했으며, 나머지 적도들은 뿔뿔이 흩어져 강을 건너자, 관군이 그들을 추격해 포위하니, 붙잡혀 참살되고 익사한 자가 700여 명이었다. 총제(總制)<sup>316)</sup>와 순무(巡撫)가 이 승리 소식을 보고하니, 차등을 두어 표창하고 상을 내렸으며, [그 전공을] 논한 사람들은 이 전투에서 팽세린의 공이 으뜸이라고 말했다.<sup>317)</sup> [정덕] 7년(1512)에, 적도 유삼(劉三)<sup>318)</sup> 등이 수평(遂平)<sup>319)</sup>에서 동고(東皐)<sup>320)</sup>로 나아가자, 선위 팽명보(彭明輔)<sup>321)</sup>와 도지휘 조봉(曹鵬) 등이 토군을 거느리고 그들을 추격했으며, 적들이 바빠 강을 건너다가,

313)黔: 貴州省을 말한다.

314)總制尙書: 『明史』 卷187 「列傳」 75에 따르면, 洪鍾이 刑部尙書에 오른 해는 正德 2년(1507) 혹은 3년(1508) 무렵이다. 아울러 正德 5년(1510)에 湖廣 일대에 이미 반란이 발생했으며, 이때 洪鍾이 받은 직책이 總制軍務이다. 總制란 總督을 의미하므로 본문에 나오는 總制尙書란 그의 본래 직함에 總制란 명칭을 같이 붙인 말이다.

315)洪鍾(?~1523): 浙江省 錢塘 사람으로, 成化 11년(1475)에 進士에 급제하여 刑部主事, 右副都御史, 貴州巡撫, 刑部尙書 등을 역임했다. 四川 일대에서 藍廷瑞와 鄒本恕 등이 반란을 일으키자, 正德 5년(1510)에 總制軍務가 되어 이들을 진압하였다(『明史』 卷187 「列傳」 75 참조).

316)總制: 總督의 다른 명칭이다. 明 正德 연간(1506~1521)에 武宗이 스스로를 ‘總督軍務威武大將軍總兵官’이라 칭했기 때문에 相避를 위해 總督을 總制라 불렀다.

317)당시 巡撫는 林俊, 승리 소식을 같이 보고한 都御史는 藍章이었다(『武宗實錄』 卷78 正德 6년 8월 己卯條 참조).

318)劉三: 明 正德 7년(1512) 河南省에서 趙風子, 邢老虎 등과 함께 반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이에 관한 正德 7년 최초의 기록은 『武宗實錄』 卷83 正德 7년 春正月 丁巳條 참조. 당시 이 일대는 劉三 등의 반란과 함께 馬戶였던 劉六과 劉七 등의 반란 무대가 되었다.

319)遂平: 河南省 汝寧府 북서쪽에 위치한 縣名이다.

320)東皐: 본문에는 東皐로 표시되어 있지만, 해당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武宗實錄』 卷87 正德 7年 5月 戊申條에는 朱皐로 표시되어 있으며 이곳은 하남성 동남쪽에 위치한 朱皐鎮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21)彭明輔(1489~1582): 字는 德軒이며, 彭世麒의 아들로 正德 5년(1510)에 아버지를 이어 永順宣慰使가 되었다. 嘉靖 6년(1527)에 퇴임한 후, 그의 아들 彭宗漢이 뒤를 이었다.

익사자가 2,000명에 이르렀고, 참수한 자가 80여 명이었다. 순무 이사실(李士實)이 [이 사실을] 보고했다. [이에 황제가] 영순 선위에게 규정 외의 상을 더 주도록 명했으며, 이에 팽명보에게 고명(誥命)<sup>322)</sup>을 내렸다.

十年，致仕宣慰彭世麒獻大木三十，次者二百，親督運至京，子明輔所進如之。賜敕褒諭，賞進奏人鈔千貫。十三年，世麒獻大楠木四百七十，子明輔亦進大木備營建。詔世麒陞都指揮使，賞蟒衣三襲，仍致仕；明輔授正三品散官，賞飛魚服三襲，賜敕獎勵，仍令鎮巡官宴勞之。時政出權幸，恩澤皆由於干請。於是郴州民頌世麒征賊時號令嚴明，其土官彭芳等亦頌世麒功，乞蟒衣玉帶。兵部格不可，乃已。世麒辭賞，請立坊，賜名曰表勞。會有保靖兩宣慰爭兩江口之議，詞連明輔，主者議逮治。明輔乃令蠻民奏其從征功，悉辭香鑪山應得陞賞，以贖逮治之辱。部議悉已之。

[정덕] 10년(1515)에, 퇴임한 선위 팽세기가 대목(大木) 30그루와 그다음 규격(大木보다 작은 규격)인 나무 200그루를 헌납하면서, 친히 운반을 감독해 북경에 이르렀으며, 아들 팽명보도 이와 같이(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진상했다. [이에] 칙서를 내려 표창하고, 상주한 사람에게 초(鈔) 1,000관(貫)을 상으로 하사했다. [정덕] 13년(1518)에, 팽세기가 커다란 남목(楠木) 470그루를 헌상했으며, 그의 아들 팽명보도 대목을 헌상해 건물 축조에 대비하도록 했다. [이에] 조서를 내려 팽세기를 도지휘사로 승진시키고, 망의(蟒衣)<sup>323)</sup> 세 벌을 상으로 내리도록 했는데, 오히려 벼슬을 그만두었다. [한편] 팽명보에게는 정삼품 산관을 제수하고, 비어복(飛魚服)<sup>324)</sup> 세 벌을 상으로 내렸으며, 칙서를 내려 표창하고, 예전처럼 진순관에게 연회를

322) 誥命: 誥와 命을 말한다. ‘誥’란 황제가 밑에 사람들에게 고하는 말이며, ‘命’은 명령을 내리는 말을 뜻한다. ‘誥書’라고도 불리며 보통 황제가 관원에게 벼슬을 내릴 때 사용했던 문서이다. ‘誥’라는 말은 이미 周代부터 왕의 명령서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宋代에 이르러 관직의 이동, 대신이나 그 가족들의 추증에 고명을 이용했다. 明代에는 一品에서 五品の 벼슬을 내릴 때 誥命이란 명칭을 사용했다. 조정에서 작위를 내릴 때 사용했던 辭命을 의미하게 된 것은 明·清 시대에 이르러서이다.

323) 蟒衣: 明代 만들어진 일종의 繡蟒 官服을 말한다. 蟒은 龍과 비슷하나 발톱이 작아 “五龍四蟒”으로 불린다. 일반적으로 옷 위에 金線 자수를 놓는다. 明初에 皇帝 左右의 宦官과 寵臣, 一·二品官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후에는 群臣에 널리 하사되었다. 天順 연간(1457~1464)·弘治 연간(1470~1505)에 이르러 官民 의복에 蟒龍과 飛魚, 鬪牛 등의 도안 사용을 금지하였다.

배풀어 그를 위로하도록 했다. 당시 정령(政令)은 권세 있고 황제의 총애를 받는 사람에게서 나왔고, [황제의] 은택(恩澤)은 모두 간청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당시 침주(郴州)<sup>325)</sup>의 백성들은 팽세기가 적도들을 정벌할 때 그 호령이 엄명(嚴明)했음을 칭송하고, 토관 팽방(彭芳) 등도 팽세기의 공을 칭송하며, 망의와 옥대[의 하사]를 청했다. 병부에서 [이를] 불가하다고 맞서자, 곧 [이에 대한 논의를] 중지했다.<sup>326)</sup> 팽세기가 상사(賞賜)를 고사하고, 방표(坊表)<sup>327)</sup>의 건립을 청하자, 표로(表勞)<sup>328)</sup>라는 명칭을 하사했다. 마침 보정(保靖)의 두 선위사 사이에서 벌어진 양강구(兩江口)<sup>329)</sup> 쟁탈 [문제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팽명보에게서 연유한다는 언급이 있자, 주재자들이 [그를] 체포해 다스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팽명보는 이에 [자신이] 정벌에 종군하여 공을 세웠다는 사실을 만민(蠻民)들에게 상주(上奏)하도록 했으며, 향려산(香鑪山)<sup>330)</sup>으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승급과 상의 하사를 사양함으로써, 체포되어 치죄(治罪)되는 옥을 속죄하려고 했다. 해당 부(部)는 논의를 통해 [이 사안에 대한 논의를] 모두 그만두도록 했다.

324) 飛魚服: 물고기 紋樣을 수놓은 明代 官服을 말한다. 용의 형상을 수놓지 않은 복식은 모두 비어복 계통이라 할 수 있는데, 『明史』 卷67, 「輿服」 3에 따르면 嘉靖 16년(1537) 이후 대신들이 함부로 鱗衣, 飛魚, 斗牛 등이 새긴 복식의 착용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후 6부 대신과 出征하는 將軍 등에게 飛魚服을 하사했다.

325) 郴州: 지금의 湖南省 동남부에 위치한 郴州市이다. 일찍이 韓愈나 柳宗元 같은 많은 문인들이 이 지역의 풍광을 읊을 정도로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으로, 지금도 중국의 유명 관광지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秦나라 때 처음 郴縣이 설치되었으며, 前漢 元鼎 4년(전113)에 桂陽郡이 설치되어 郴縣 등 11개 縣을 관할했다. 明 洪武 원년(1368)에 府로 개칭해 郴州府가 되었으며 7개 縣을 관할했다. 지방지에 ‘有色金屬之鄉’이라고 기재될 만큼 많은 광물이 매장되어 있고, 현재도 중국의 중요한 광물자원 생산지이다.

326) 명실록에 따르면 팽세기가 적도들을 진압할 때와 팽방이 팽세기의 鱗衣를 청한 일은 별도로 기술되어 있다. 즉 전자는 『武宗實錄』 卷166 正德 13년 9월 癸丑條에 등장하며 후자는 『武宗實錄』 卷166 正德 13년 9월 己未條에 등장한다. 더구나 후자의 기록에 따르면 “湖廣永順宣慰司頭目彭芳等, 爲致仕宣慰使彭世麒, 乞鱗衣玉帶, 兵部議不可, 乃已之”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신하들이 상관을 위해 鱗衣 등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된다.

327) 坊表: 표창, 기념, 혹은 방향을 표시하기 위해 세운 건축물을 말한다.

328) 表勞: 노고를 치하해 표창한다는 의미이다.

329) 兩江口: 양강구라는 지명은 현재 廣西壯族自治區 臨桂縣 서남쪽에 있는 兩江鎮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湖南省 龍山縣 남쪽에 위치한 지역을 말한다.

330) 香鑪山: 湖北省 鶴峰縣 縣城 북쪽에 위치한 산이다.

嘉靖六年，論擒岑猛功，免應襲宣慰彭宗漢赴京，而加宗漢父明輔·祖世麒銀幣。二十一年，巡撫陸傑言：「酉陽與永順以採木仇殺，保靖又煽惑其間，大爲地方患。」乃命川·湖撫臣撫戢，勿釀兵端。是年，免永順秋糧。

가정 6년(1527)에, 잠맹(岑猛)을 생포한 공을 논의하고, 선위를 계승한 팽종한(彭宗漢)<sup>331)</sup>이 마땅히 경사에 올라와야 하는 것을 면제해주었으며, 팽종한의 아버지 팽명보와 조부 팽세기에게 은폐(銀幣)를 더하여 하사했다.<sup>332)</sup> [가정] 21년(1542)에, 순무 육걸(陸傑)이 아뢰기를,<sup>333)</sup> “유양과 영순은 채목(採木) 때문에 원수가 되어 서로 죽이고,<sup>334)</sup> 보정 또한 그들 사이에서 선동하니, 이 지역의 커다란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이에 사천과 호광의 무신(撫臣)들에게 [그들을] 초무하고 단속해, 병화(兵禍)의 발단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명했다. 이해(1542)에 영순(永順)의 추량(秋糧)<sup>335)</sup>을 면제해주었다.

三十三年冬，調永順土兵協剿倭賊於蘇·松。明年，永順宣慰彭翼南統兵三千，致仕宣慰彭明輔統兵二千，俱會於松江。時保靖兵敗賊於石塘灣。永順兵邀擊，賊奔王江涇，大潰。保靖兵最，永順次之，帝降敕獎勵，各賜銀幣，翼南賜三品服。

[가정] 33년(1554) 겨울에, 영순 토병을 징발하여, 소주(蘇州)<sup>336)</sup>와 송강(松江)<sup>337)</sup>에서

331) 彭宗漢: 號는 石橋이며, 嘉靖 6년(1527)에 아버지를 이어 宣慰使가 되었다. 그러나 후사가 없이 일찍 사망해 동생인 彭宗舜이 지위를 계승했다.

332) 당시 彭宗漢 외에 彭九霄도 잠맹을 잡는데 공을 세웠으며, 전사한 팽구소의 아들 彭虎臣에게는 指揮僉事를 추증했다(『世宗實錄』卷72 嘉靖 6년 正月 辛酉條 참조).

333) 이에 관한 내용은 『世宗實錄』卷260 嘉靖 21년 4월 壬子條 참조.

334) 당시 酉陽宣慰司의 수장은 冉氏였으며, 영순 토사가 이웃 지역인 유양에서 벌목을 한 이유는 영순 지역에서 大木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었다(成臻銘, 2005: 2 참조).

335) 秋糧: 가을에 징수하는 세금을 일컫는데, 보통 夏稅는 8월까지 秋糧은 이듬해 2월까지 납부하도록 했다.

336) 蘇州: 중국 江蘇省 남동부에 자리 잡고 있는 市이다. 吳王 闔閭가 伍子胥에게 도시 건설을 명해 건설된 곳으로, 秦始皇 25년(전222)에 설치된 會稽郡의 治所였다. 隋 文帝 開皇 9년(589)에 이 지역 서쪽에 위치한 姑蘇山의 명칭에서 ‘蘇’자를 따와 지명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唐 玄宗 開元 연간(713~738)

왜적을 소탕하는 데 돕도록 했다. 이듬해(1555)에, 영순 선위 팽익남(彭翼南)<sup>338)</sup>이 병사 3,000명을, 퇴임한 선위 팽명보가 병사 2,000명을 거느리고 모두 송강에 모였다. 당시 보정의 병사들은 석당만(石塘灣)<sup>339)</sup>에서 왜적을 패퇴시켰다. 영순의 병사들이 공격하자 왜적은 왕강경(王江涇)<sup>340)</sup>으로 도주해 크게 궤멸되었다.<sup>341)</sup> 보정 병사들[의 공]이 최고였고, 영순 [병사의 공]이 그다음이었는데, 황제는 칙서를 내려 표창하고, 각각 은패를 하사했으며, 팽익남에게는 3품의 관복을 하사했다.

先是，永順兵剿新場倭，倭故不出，保靖兵爲所誘遽先入，永順土官田蓄·田豐等亦爭入，爲賊所圍，皆死之。議者皆言督撫經略失宜，致永順兵再戰再北。及王江涇之戰，保靖擒之，永順角之，斬獲一千九百餘級，倭爲奪氣，蓋東南戰功第一云。時邀功者方行賞，翼南遂授昭毅將軍。已，陞右參政管宣慰事，與明輔俱受銀幣之賜。時保·永二宣慰破倭後，兵驕，所過皆劫掠，緣江上下苦之。御史請究治，部議以土兵新有功，遽

이후 蘇州라는 명칭이 보편화되었다. 明 嘉靖 연간에 蘇州府로 개칭해 應天 巡撫가 이곳에 주재했고, 清代에 이르러서는 順治 2~順治 18년(1645~1661)에 江寧 巡撫, 康熙 4년(1665)에 江南 巡撫, 康熙 6년(1667)에 江蘇 巡撫의 치소가 각각 자리 잡았으며, 康熙 6년(1667)부터 1911년까지 江蘇布政使가 집무했던 江南 최대의 도시였다. 명·청 시대 상업과 수공업이 매우 발달한 곳이었고, 지금도 수많은 외국 기업이 있으며 2010년 현재 GDP가 전국 6위를 차지하는 부유한 곳이다.

337) 松江: 지금의 上海市 서남쪽 黃浦江 상류에 위치해 있다. 옛날부터 華亭이라 불렀는데, 前漢 建安 24년(219)에 東吳의 名將인 陸遜이 華亭侯로 봉해진 이후 華亭이란 지명이 처음 등장했으며, 唐 天寶 10년(751)에 이곳에 華亭縣이 설치되었다. 元 至元 14년(1277) 華亭府로 승격되었고, 이듬해 松江府로 개칭했다. 唐·宋 시대 이래 수공업과 상업이 발달했으며, 明代에 이르러서는 방직업 등이 매우 발달했다.

338) 彭翼南: 字는 晋卿이며, 彭宗舜의 아들로 嘉靖 33년(1554) 아버지를 이어 宣慰使가 되었다. 사후 그의 아들 彭永年이 뒤를 이었다.

339) 石塘灣: 지금의 江蘇省 無錫市 惠山區에 위치한 市鎮 명칭이다.

340) 王江涇: 江蘇省과 浙江省 交界에 위치한 地名으로, 북쪽으로는 江蘇省 吳江 盛澤鎮과 바로 접해 있다. 宋代 이전에 이미 시장이 형성되었고, 元代에 王氏와 江氏의 두 巨商이 흥기한 까닭에 王江涇으로 불렸다. 일찍부터 絲織業이 발달했는데, 현재도 방직업이 이 지역 생산물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341) 이에 관한 내용은 『世宗實錄』 卷422 嘉靖 34년 5월 甲午條 참조.

加罰，失遠人心，宜諭責之。并令浙·直隸鄉勇，嗣後不得輕調土兵。

이에 앞서, 영순의 병사들이 신장(新場)<sup>342)</sup>에서 왜적을 소탕했는데, 왜적들은 일부러 나오지 않고, 보정의 병사들이 땀에 빠져 재빠르게 먼저 [신장에] 들어갔으며, 영순의 토관인 전치(田菑)·전풍(田豐) 등도 또한 다투어 들어가, 왜적들에게 포위되어, 모두 죽임을 당했다. [이 사건에 대해] 논의한 자들은 모두 독무(督撫)<sup>343)</sup>의 전략이 사리에 맞지 않아, 영순 병사가 다시 전투를 전개했는데도 또다시 패배했다고 말했다. 왕강경 전투에 이르러, 보정의 병사와 영순의 병사가 앞뒤에서 서로 협력해, 1,900여 수급을 베었고, [이로써] 왜적들은 기세를 잃게 되었는데, 동남지역 전투에서 [거둔] 최고의 전공(戰功)이라 일컫는다. 당시 공을 세운 사람에게 바로 상을 내렸는데, 팽익남은 마침내 소의장군(昭毅將軍)<sup>344)</sup>을 제수받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참정(右參政)으로 승진해 선위사의 일을 관장했으며, 팽명보와 함께 은폐(銀幣)를 하사받았다. 당시 보정과 영순의 두 선위가 왜적을 격퇴한 후, 병사들이 교만해져, [그들이] 통과하는 길에서 모두 약탈을 자행한 [탓에], 강 연변 위아래의 [모든 지역이] 고통을 겪었다. 어사가 [그들의]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청했는데, [해당] 부가 의논하기를, 토병이 새로운 공을 세웠는데, 지금 즉시 벌을 준다면, 먼 변방 [사람들]의 인심을 잃을 수 있으니, 유지를 내려 그들을 꾸짖음이 마땅하다고 했다. 아울러 절강과 직예(直隸)의 향용(鄉勇)<sup>345)</sup>을 훈련 시키도록 하여, 이후 함부로 토병을 모집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sup>346)</sup>

342) 新場: 지금의 上海市 南匯區 서남부에 위치한 鎮名이다. 이 지역은 元代 下沙鹽場이 이곳으로 이전한 후, 新場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鹽業이 발달해 明代 이래 중요한 상업 지역이었다. 淸 宣統 원년(1909)에 新場鄉으로 바뀌었으며, 1994년에 新場鎮으로 되었다.

343) 督撫: 總督과 巡撫를 말한다.

344) 昭毅將軍: 元·明·淸 시기에 설치되었던 武官職名이다. 元代에는 昭武, 昭毅, 昭勇, 安遠, 定遠, 懷遠의 6大將軍 호칭이 있었으나 모두 散官이었기 때문에 실권은 없었다. 明代에는 正三品 武官散官이었다.

345) 鄉勇: 향촌을 자위하기 위해 조직된 의용군을 말하며, 義兵, 民兵, 鄉兵, 義丁, 民義 등으로도 불린다(宋 正洙, 1997: 29). 明初 鄉兵의 성격과 自衛 활동에 대해서는 『明會要』 卷60 「兵」 2 참조.

346) 이에 관한 내용은 『世宗實錄』 卷442 嘉靖 35년 12월 己亥條 참조.

四十二年以獻大木功再論賞，加明輔都指揮使，賜蟒衣，其子掌宣慰司事，右參政彭翼南爲右布政使，賜飛魚服，仍賜敕獎勵。四十四年，永順復獻大木，詔加明輔·翼南二品服。

[가정] 42년(1563)에 대목을 헌상하자 다시 상사(賞賜)를 논의했는데, 팽명보에게 도지휘사라는 직함을 더해주고, 망의를 하사했으며, 선위사의 일을 관장하고 있는 그의 아들인 우참정 팽익남을 우포정사로 삼고,<sup>347)</sup> 비어복(飛魚服)을 하사했으며, 예전처럼 칙서를 내려 표창하였다.<sup>348)</sup> [가정] 44년(1565)에, 영순이 다시 대목을 헌상하자, 조서를 내려 팽명보·팽익남에게 이품의 관복을 더해서 내리도록 했다.

萬曆二十五年，東事棘，調永順兵萬人赴援。宣慰彭元錦請自備衣糧聽調，既而支吾，有要挾之跡，命罷之。三十八年賜元錦都指揮銜，給蟒衣一襲，妻汪氏封夫人。四十七年，永順貢馬後期，減賞。兵部言：「前調宣慰元錦兵三千援遼，已半載，到關者僅七百餘人。」命究主兵者。四十八年進元錦都督僉事。先是，元錦以調兵三千爲不足立功，願以萬兵往。朝廷嘉其忠，加恩優渥。既而檄調八千，僅以三千塞責，又上疏稱病，爲巡撫所劾，得旨切責。元錦不得已行，兵抵通州北，聞三路敗恤，遂大潰。於是巡撫徐兆魁言：「調永順兵八千，費踰十萬，今奔潰，虛糜無益。」罷之。

347) 嘉靖 42년(1563) 大木을 헌상했다는 내용부터 彭翼南을 右布政使에 임명했다는 내용까지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우선 彭明輔가 宣慰使 자리에서 물러난 연도는 嘉靖 6년(1527)이다. 그리고 그가 선위사로 있을 당시인 正德 10년(1515)과 正德 13년(1518)에 각각 大木을 헌상한 바 있다. 이후 팽명보는 자신의 선위사 자리를 嘉靖 6년(1527)에 큰아들인 彭宗漢에게 물려줬지만, 그는 후사가 없이 바로 사망했으며, 嘉靖 6년에 다시 팽명보의 둘째 아들인 彭宗舜이 지위를 계승했다. 이어 팽종순의 아들인 彭翼南이 嘉靖 33년(1554)에 선위사 자리를 물려받았으므로, 본문의 언급과는 달리 실제 팽익남은 팽명보의 아들이 아닌 손자이다. 따라서 嘉靖 42년(1563) 대목을 헌상한 당사자는 팽익남이었으며, 팽익남의 대목 헌상을 계기로 당시 右參政 지위에 있었던 팽익남을 右布政使로 승진시킨다는 내용이다.

348) 이에 관한 내용은 『世宗實錄』 卷528 嘉靖 42년 12월 辛酉條 참조.

만력 25년(1597)에, 동쪽 [지역]의 사태가 다급해지자,<sup>349)</sup> 영순의 병사 만 명을 징발하여 [그곳에] 가 돕도록 했다. 선위 팽원금(彭元錦)<sup>350)</sup>이 의복과 식량을 스스로 갖추 군대 파견에 응하겠다고 청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명령에] 저항하면서 요협(要挾)<sup>351)</sup>의 행태를 보이자, 그를 파직하라고 명했다. [만력] 38년(1610)에 팽원금에게 도지휘의 직함을 내렸으며, 망의 한 벌을 주고, 그의 처 왕씨(汪氏)를 부인(夫人)으로 봉했다.<sup>352)</sup> [만력] 47년(1619)에, 영순이 기일에 늦게 말을 바치자, [내리는] 상을 감하였다. 병부에서 아뢰기를, “앞서 선위 팽원금이 병사 3,000명을 모집해 요동을 돕도록 했는데, 이미 반년이 지났지만, 관(關)에 도착한 병사는 겨우 700여 명에 불과합니다”라고 하니, [황제가] 병사를 주관하는 자를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만력] 48년(1620)에, 팽원금이 도독첨사(都督僉事)로 승진했다. 이에 앞서, 팽원금이 병사 3,000명으로는 공을 세우기가 부족하므로, 만 명을 이끌고 가기를 원했다. 조정은 그의 충성심을 가상히 여겨, 황은(皇恩)을 더 두텁게 내렸다. 오래되지 않아서, 격문을 보내 8,000명의 군사를 징발했지만, 겨우 3,000명으로 변방을 지켰으며, 또한 거짓으로 병이 났다고 상주하여 순무에게 탄핵을 당했으며, 엄중히 질책하라는 유지(諭旨)를 받았다. 팽원금은 어쩔 수 없이 [병사를 이끌고] 갔지만, 병사들이 통주(通州)<sup>353)</sup> 북쪽에 이르렀을 때, 여러 곳에서 군사가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마침내 크게 궤멸되었다.<sup>354)</sup> 이에 순무 서조괴(徐兆魁)가 아뢰기를, “영순의 병사 8,000명을 모집하고, 그 비용이 십만 냥이 넘었는데, 지금 달아나 무너져버렸으니, 헛되이 비용만 소비하고 무익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는데, [황제는] 그를 파직시켰다.

349) 조선에서 丁酉再亂이 발발하자 彭元錦이 永順軍 만여 명을 징발해 보낸 일을 말한다.

350) 彭元錦: 字는 丙懷이며 彭永年의 아들로 萬曆 15년(1587)에 아버지를 이어 宣慰使가 되었다. 그의 사후 손자인 彭泓澍가 崇禎 5년(1647)에 그의 뒤를 이었다.

351) 다른 사람으로부터 강제로 물건을 빼앗거나 꺾박하는 일을 말함.

352) 이에 관한 내용은 『神宗實錄』 卷473 萬曆 38년 7월 丙寅條 참조.

353) 通州: 지금의 北京市 동남부에 있는 北京 관할구 가운데 하나이다. 춘추전국시대에는 燕나라가 위치해 있던 지역이다. 燕나라 昭王(전311~전79) 당시 북쪽 지역을 개척해 上谷, 漁陽, 右北平, 遼西, 遼東의 五郡을 설치했는데, 漁陽郡 일대가 바로 通州가 위치한 곳이다. 明 洪武 원년(1368)에 徐達이 大都(지금의 북경)를 점령하고 北平으로 개명한 뒤, 後漢 이래 이 지역의 명칭으로 자주 등장했던 潞縣을 通州에 편입시켰다. 淸 雍正 6년(1728)에 三河, 武清, 寶坻 3개 縣을 順天府에 예속시키고, 通州는 散州로 남겼기 때문에 縣을 관할하지 않게 되었다. 通州는 대운하의 북쪽 기점이었다.

354) 이에 관한 내용은 『神宗實錄』 卷593 萬曆 48년 4월 丙寅條 참조.

## 保靖州軍民宣慰使司

### 보정주군민선위사사

保靖，唐溪州地，宋置保靜州，元爲保靖州安撫司。明太祖之初起也，安撫使彭世雄率其屬歸附，命仍爲保靖安撫使。洪武元年，保靖安撫使彭萬里遣子德勝奉表貢馬及方物，詔陞安撫司爲保靖宣慰司，以萬里爲之，隸湖廣都指揮使司。自是，朝貢如制。

보정은 당(唐)나라 때 계주(溪州)의 땅이었으며, 송대에 보정주(保靖州)를 설치하였는데, 원대에 보정주안무사(保靖州安撫司)라 했다.<sup>355)</sup> 명 태조가 처음 기병했을 때, 안무사(安撫使) 팽세웅(彭世雄)<sup>356)</sup>이 자신의 휘하를 이끌고 귀부했는데, 그 일을 계기로 [팽세웅을] 보정 안무사로 삼도록 명했다. 홍무 원년(1368)에, 보정 안무사 팽만리(彭萬里)<sup>357)</sup>가 그의 아들 팽덕승(彭德勝)을 보내 표문(表文)을 올리고 말과 방물(方物)을 바치자, 조서를 내려 안무사를 보정선위사로 승격시키고, 팽만리를 선위사로 삼았으며, 호광도지휘사사(湖廣都指揮使司)에 예속시켰다.<sup>358)</sup> 이로부터 규정에 따라 조공했다.

永樂元年以保靖族屬大蟲可宜等互仇殺，遣御史劉從政齎敕撫諭之。三年，辰州衛指揮龔能等招諭箬子坪等三十五寨生苗廖彪等，各遣子入貢，因設箬子坪長官司，以彪爲之，隸保靖。九年，宣慰彭勇烈遣人來貢。十二年，箬子坪賊吳者泥自稱苗玉，與蠻民苗金龍等爲亂，總兵梁福平之。未幾，者泥子吳擔竹復誘苗吳亞麻糾貴州答意諸蠻叛，

355) 保靖土司는 唐代 溪州刺史를 지낸 彭士愁의 두 아들 彭師裕와 彭師杲 가운데 彭師杲로부터 처음 시작되었다. 彭師裕는 永順土司의 始祖이다.

356) 彭世雄: 彭賢圭의 아들로, 字는 廷英이며, 총명하고 박학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朱元璋에게 투항한 후 南昌, 金陵(南京) 등의 전투에 참여해 많은 전공을 세웠으며, 元 至正 23년(1363)에 保靖軍民宣慰使로 봉해졌으며, 土司 지위의 세습이 허락되었다.

357) 彭萬里: 彭世雄의 아들로, 그의 아버지처럼 여러 지역을 전전하면서 약 30여 년 동안 많은 전공을 세웠으며, 建文 원년(1399)에 사망했다.

358) 지방지에 따르면 彭萬里가 아들 彭德勝을 명에 보내 入貢시킨 해는 洪武 6년(1373)으로 기록되어 있다(同治『永順府志』卷9「土司」).

都督蕭授斬平之。二十一年，宣慰彭藥哈倂遣人貢馬。

영락 원년(1403)에, 보정의 일족인<sup>359)</sup> 대충가의(大蟲可宜)<sup>360)</sup> 등이 서로 원수가 되어 살상하자, 어사 유종정(劉從政)을 보내 칙서를 가지고 가 이들을 안무(安撫)하고 효유(曉諭)하도록 했다. [영락] 3년(1405)에, 진주위(辰州衛)의 지휘(指揮) 공능(龔能) 등이 간자평(竿子坪) 등 35처에 있는 생묘(生苗) 요표(廖彪) 등을 초유하자, [이들은] 각기 아들을 보내 입공했으며, 이를 계기로 간자평장관사(竿子坪長官司)<sup>361)</sup>를 설치하고, 요표를 장관(長官)으로 삼았으며, 보정에 예속시켰다.<sup>362)</sup> [영락] 9년(1411)에, 선위 팽용렬(彭勇烈)<sup>363)</sup>이 사람을 보내 내조하여 진공했다. [영락] 12년(1414)에, 간자평의 적도 오자니(吳者泥)가 묘왕(苗王)을 자칭하면서, 만민(蠻民) 묘금룡(苗金龍) 등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자, 총병 양복(梁福)이 이를 평정했다.<sup>364)</sup> 얼마 지나지 않아, 오자니의 아들 오담죽(吳擔竹)이 다시 묘민 오아마(吳亞麻)를 유인하여 귀주의 답의(答意) 등 여러 만족을 규합해 반란을 일으키자, 도독(都督) 소수(蕭授)가 이들을 참살하여 평정했다. [영락] 21년(1423)에, 선위 팽약합비(彭藥哈倂)<sup>365)</sup>가 사람을 보내 말을 공물로 바쳤다.

359) 여기서 말하는 保靖의 일족이란 保靖宣慰使 彭萬里의 아우인 彭莫古踵의 가족을 말한다. 彭莫古踵은 戰功을 세워 兩江口 일대를 다스리는 토사에 제수되어 별도의 兩江口長官司를 후세에 전승했다.

360) 彭大蟲可宜: 彭莫古踵의 아들로, 당시 保靖宣慰 彭藥哈倂가 어렸기 때문에 그와 함께 정무를 담당했지만, 이후 팽약합비를 살해하고 14처를 점거했다. 나중에 일이 발각되어 붙잡혀 獄死했다.

361) 竿子坪長官司: 永樂 3년(1405)에 처음 설치된 竿子坪長官司는 湘西 鳳凰廳 북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일찍이 宋沱洞, 烏引洞, 蘆荻洞, 杜望洞, 白崖洞의 五寨長官司가 설치되었으며, 애초에는 田氏가 世官으로 있었다(彭武一, 1987: 14 참조). 그러나 田氏가 洪武 초년에 발생한 반란에 연루되어, 永樂 연간(1403~1424)에 寥氏로 교체되기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田氏가 司職했다(田敏, 2011: 81 참조).

362) 이에 관한 내용은 『太宗實錄』 卷44 永樂 3년 7월 丁酉條 참조.

363) 彭勇烈: 彭萬里의 맏아들로, 永樂 원년(1403)에 아버지를 이어 宣慰使가 되었다. 사후 그의 아들 彭藥哈倂가 계승했다.

364) 이에 관한 내용은 『太宗實錄』 卷155 永樂 12년 9월 丙戌條 참조.

365) 彭藥哈倂: 彭司葯 혹은 彭司倂라고도 부르며, 永樂 22년(1424) 후사가 없이 사망했기 때문에 그의 아우 彭圖南이 宣慰使를 이었다.

宣德元年，宣慰彭大蟲可宜遣子順來貢。四年，兵部奏：「保靖舊有二宣慰，一爲人所殺，一以殺人當死，其同知以下官皆缺，請改流官治之。」帝以蠻性難馴，流官不諳土俗，令都督蕭授擇衆所推服者以聞。正統十四年，保靖宣慰與族人彭南木答等相訐奏，旣而講和，願輸米贖誣奏罪，從之。

선덕 원년(1426)에, 선위 팽대충가(彭大蟲可宜)가 아들 팽순(彭順)을 보내 내조하여 진공했다.<sup>366)</sup> [선덕] 4년(1429)에, 병부에서 상주하기를, “보정에는 옛날에 선위사가 둘이었는데, 한 명은 다른 사람에게 살해되었고, 한 명은 다른 사람을 죽여 사형에 처해져야 하며, 동지 이하 관원이 모두 결원이니, 유관(流官)으로 바꿔 그곳을 다스리기를 청합니다”라고 했다. 황제는, 만족의 성격을 잘 길들이기 어려우며, 유관은 그 풍속에 어둡기 때문에, 도독 소수(蕭授)에게 여러 사람들이 경복(敬服)하여 추천하는 자를 보고하도록 했다. 정통 14년(1449)에, 보정 선위와 그 일족인 팽남목답(彭南木答) 등이 서로 모함하는 상주를 올렸으나, 오래 지나지 않아 화해하고, 쌀을 바쳐 무고(誣告)의 상주를 올린 죄를 속죄하기를 원하자, [황제가] 이를 허락했다.<sup>367)</sup>

景泰七年命調保靖土兵協剿銅鼓·五開·黎平諸蠻，先頒賞犒之。天順二年敕宣慰彭捨怕俾即選兵進討。三年，保靖奏夏災。成化二年，以保靖宣慰彭顯宗征蠻有功，命給誥命。三年復調保靖兵征都掌蠻。五年免保靖宣慰諸土司成化二年稅糧八百五十三石，以屢調征廣西及荊·襄·貴州有功也。七年，顯宗老不任事，命其子仕瓏代。十三年，以平苗功，顯宗·仕瓏皆進一階。十五年以災免保靖租賦。仕瓏奏，兩江口長官彭勝祖違例進貢，下部臣議，宜逮問，命鎮巡官諭之。

경태 7년(1456)에, 보정 토병을 징발하여, 동고·오개·여평(黎平) 등의 여러 만족을 토벌하는 데에 협조하도록 명령했으며, [토벌에] 앞서 음식을 상으로 내려 그들을 위로했다. 천순

366) 이에 관한 내용은 『宣宗實錄』 卷23 宣德 元年 12월 甲申條 참조.

367) 당시 保靖宣慰使는 彭顯宗이었다. 이에 관한 내용은 『英宗實錄』 卷177 正統 14년 4월 丁巳條 참조.

2년(1458)에, 선위 팽사과비(彭捨怕俾)에게 칙서를 내려 즉시 병사를 선발해 토벌에 나서도록 했다.<sup>368)</sup> [천순] 3년(1459)에 보정은 여름 재해가 발생했다고 상주했다. 성화 2년(1466)에, 보정 선위 팽현종(彭顯宗)<sup>369)</sup>이 만족 정벌에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에게] 고명(誥命)을 주라고 명했다. [성화] 3년(1467)에 보정 병사를 다시 징발하여 도장만을 정벌했다. [성화] 5년(1469)에, 보정 선위 여러 토사에게 성화 2년의 세량(稅糧) 853석을 면제해주었는데, [이는] 여러 차례 징발되어 광서(廣西) 및 형주·양양·귀주의 토벌에 공을 세웠기 때문이었다. [성화] 7년(1471)에, 팽현종이 나이가 들어 정사(政事)를 담당하지 못하자, 그의 아들 팽사룡에게 대리하도록 명했다.<sup>370)</sup> [성화] 13년(1477)에, 묘족 평정의 공을 [들어], 팽현종·팽사룡에게 모두 관계(官階) 1등급을 승진시켰다. [성화] 15년(1479)에, 재해 때문에 보정의 조세를 면제해주었다. 팽사룡이 상주하기를, 양강구 장관 팽승조(彭勝祖)<sup>371)</sup>가 법을 어겨 진공했다고 하자, 해당 부의 신하들에게 (이 사실을) 의논하도록 내려보냈는데, [그들의 죄는] 마땅히 체포해 심문해야 한다고 했지만, [황제는] 진순관에게 명해 그들을 효유하도록 했다.

弘治十二年，永順宣慰司奏，仕瓏擅率兵攻長官彭世英，仇殺多年，構禍不已，乞發兵征剿。部覆以屢行按問不報，宜諭鎮巡官速勘奏聞，從之。十四年，以保靖宣慰等方聽調，免明年朝覲，時有征貴州賊婦米魯之役故也。

홍치 12년(1500)에 영순선위사에서 상주하기를, 팽사룡(彭仕瓏)<sup>372)</sup>이 제멋대로 병사를 움직여 장관 팽세영(彭世英)<sup>373)</sup>을 공격하였고, 원수가 되어 살상한 지 여러 해가 되었는데,

368) 귀주 일대에서 반란을 일으킨 東苗의 진압을 위한 군사 동원을 독려한 것으로 당시 保靖宣慰使뿐 아니라, 永順宣慰使 彭世雄, 貴州宣慰使 安隴富, 四川 播州宣慰使 楊輝, 貴州 金築按撫使舍人 金洳 등 상당수 土兵들이 징발되었다(『英宗實錄』 卷293 天順 2년 7월 己亥條 참조).

369) 彭顯宗: 彭圖南의 맏아들로, 正統 7년(1442)에 아버지를 이어 선위사가 되었으며, 誥命을 받아 懷遠大將軍에 제수되었다.

370) 이에 관한 내용은 『憲宗實錄』 卷89 成化 7년 3월 戊寅條 참조.

371) 彭勝祖: 彭武의 아들로, 成化 6년(1470)에 廣西 斷藤峽 지역에 대한 정벌과 湖廣 襄陽 일대에서 반란을 일으킨 石和尚, 劉千斤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웠다.

372) 彭仕瓏: 彭顯宗의 맏아들로 成化 7년(1471)에 아버지의 지위를 계승했다.

373) 彭世英: 彭勝祖의 아들로, 弘治 14년(1501)에 貴州 지역 일대에 병사를 파견했으며, 弘治 17년(1504)에

그 피해가 그치지 않으니, 병사를 보내 토벌하기를 청했다.<sup>374)</sup> 해당 부(部)<sup>375)</sup>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그 사실을 조사해서 알리라 했지만 보고하지 않으니, 마땅히 진순관에게 유지를 내려 조속히 조사해서 상주하여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자, [황제는] 이를 허락했다. [홍치] 14년(1502)에, 보정 선위 등이 마침 징발에 따름으로, 이듬해의 조근을 면제해주었는데, [이느] 당시 귀주의 부적(婦賊) 미로를 정벌한 전역(戰役)이 있었기 때문이었다.<sup>376)</sup>

初，保靖安撫彭萬里以洪武六年歸附，卽其地設保靖宣慰司，授萬里宣慰使，領白崖·大別·大江·小江等二十八村寨。萬里卒，子勇烈嗣。勇烈卒，子藥哈俾嗣，年幼。萬里弟麥谷踵之子大蟲可宜，諷土人奏己爲副宣慰，同理司事，因殺藥哈俾而據其十四寨。事覺，逮問，死獄中，革副宣慰，而所據寨如故。其後，勇烈之弟勇傑嗣，傳子南木杵，孫顯宗，曾孫仕瓏；與大蟲可宜之子忠，忠子武，武子勝祖及其子世英，代爲仇敵。而武以正統中隨征有功，授兩江口長官，勝祖成化中亦以功授前職，並隨司理事，無印署。弘治初，勝祖以年老，世英無官，恐仕瓏奪其地，援例求世襲，奏行覈實，仕瓏輒沮之。以是仇恨益甚，兩家所轄土人亦各分黨仇殺。永順宣慰使彭世麒取勝祖女，復左右之，以是互相攻擊，奏訴無寧歲。弘治十年，巡撫沈暉奏言，令世英入粟嗣父職，將以平之，而仕瓏奏訴不止。是時，敕調世英從征貴州，而兵部移文有「兩江口長官司」字，仕瓏疑世英得設官署，將不聽約束，復奏言之。於是巡撫閻仲宇·巡按王約等請以前後章奏下兵部·都察院，議：「令世英歸所據小江七寨於仕瓏，止領大江七寨，聽仕瓏約束。其原居兩江口系襟喉要地，請調清水溪堡官兵守之。而徙世英於沱埠，以絕爭端。以後土官應襲子弟，悉令入學，漸染風化，以格頑冥。如不入學者，不准承襲。世麒黨於世英，法當治，但從征湖廣頗效忠勤，已有旨許以功贖。仕瓏·世英並逮問，勝祖照常例發遣。」奏上，從之。弘治十六年六月事也。

河南 지역 토벌에도 병사를 파병한 바 있다.

374) 이에 관한 내용은 『孝宗實錄』 卷157 弘治 12년 12월 庚戌條 참조.

375) 여기서는 兵部를 말한다.

376) 이에 관한 내용은 『孝宗實錄』 卷151 弘治 12년 6월 癸卯條 참조.

당초에, 보정 안무 팽만리(彭萬里)가 홍무 6년(1373)에 귀부하자, 그 지역에 보정선위사를 설치했으며, 팽만리에게 선위사를 제수하고, 백애(白崖)·대별(大別)·대강(大江)·소강(小江) 등 28개 촌채를 관할하도록 했다.<sup>377)</sup> 팽만리가 사망하자, 아들 팽용렬이 뒤를 이었다. 팽용렬이 사망하자, 그의 아들 팽약합비(彭藥哈俾)가 뒤를 이었는데, [그는] 나이가 어렸다. 팽만리의 동생 팽맥곡중(彭麥谷踵)의 아들 팽대충가의(彭大蟲可宜)는 토인들에게 자신이 부선위(副宣慰)가 되어야 한다고 상주하도록 권하고, 선위사(宣慰司) 업무를 [팽약합비와] 공동으로 처리했는데, 이를 계기로 팽약합비를 살해하고 14채를 점거했다. 이 사실이 발각되어 체포되어 문초를 당했으며, 옥중에서 사망하고, 부선위의 지위가 혁직(革職)되었으며, 점령한 촌채를 이전으로 되돌렸다. 그 후 팽용렬의 아우 팽용걸(彭勇傑)이 뒤를 이었고, 아들 팽남목저(彭南木杵), 손자 팽현종(彭顯宗), 증손 팽사룡(彭仕龍)으로 전해졌는데, [그들은] 팽대충가의의 아들 팽충(彭忠), 팽충의 아들 팽무(彭武), 팽무의 아들 팽승조(彭勝祖) 및 그의 아들 팽세영과 대대로 원수지간이었다. 그리고 팽무가 정통 연간(1436~1449)에 정벌에 나서 공을 세워 양강구 장관에 제수되고, 팽승조는 성화 연간(1465~1487)에 역시 공을 세워<sup>378)</sup> 장관직에 제수되어, 선위사를 따라 아울러 일을 처리했는데, 관인(官印) 없이 대리했다. 홍치 초년에, 팽승조는 나이가 많고, 팽세영이 관직이 없어, 팽사룡이 그 지역을 탈취할까 두려워해서, 규칙에 따라 세습을 허락받고자 [사실을] 조사해 달라는 상주를 올렸는데, 팽사룡이 갑자기 그 일을 저지했다. 이 때문에 [상대방을] 증오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졌으며, 두 사람이 관할하는 지역의 토인들 역시 파당으로 나뉘어 원수처럼 살상을 하게 되었다. 영순 선위사 팽세기(彭世麒)가 팽승조의 딸과 혼인하여, 다시 [팽승조를] 조종하자, 그 때문에 서로 공격하고, [상대를] 고소하는 상주(上奏)로 편안한 날이 없었다.<sup>379)</sup> 홍치 10년(1498)에 순무 심휘(沈暉)가 상주해서 말하기를, 팽세영에게 곡물을 납부하도록 해서 아버지의 지위를 계승하게 하여, 장차 그들의 [분쟁을] 잠재우려 했지만, [상대편을] 비방하는 팽사룡의 상주가 그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당시, 칙서를 내려 팽세영을 징발하여 귀주 토벌에 따르도록 했는데,

377) 洪武帝가 彭萬里를 保靖按撫使로 임명한 칙서에 따르면, 彭萬里의 本鄉은 江西 지역이었으며, 明太祖를 도와 여러 차례 전공을 세운 공로를 인정해 保靖按撫司를 설치했다. 당시 銅印 1개, 勸合 1道を 하사하고, 부인 曾氏를 太淑人으로 봉했다(同治『保靖縣志』卷1「詔諭」).

378) 각주 371) 참조.

379) 이에 관한 내용은 『孝宗實錄』卷200 弘治 16년 6월 乙巳條 참조.

병부의 이문(移文)에는 “양강구장관사(兩江口長官司)”<sup>380)</sup>라는 글자가 들어 있었던 탓에, 팽사룡은 팽세영이 관서 설치를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여, 약속을 따르려 하지 않고, 다시 이 일을 상주하여 아뢰었다. 이에 순무 염중우(閻仲宇)·순안(巡按) 왕약(王約) 등이 [이 사안의] 전후(前後)[에 올려진] 장주(章奏)를 병부와 도찰원에 보내기를 청했으며, [이들 부서에서] 의논하기를, “팽세영에게 그가 점거한 소강(小江) 7채를 팽사룡에게 되돌려주고, 대강(大江) 7채만을 관할하도록 하여, 팽사룡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명해야 합니다. 그(팽세영)가 원래 거주한 양강구 일대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청수계보(淸水溪堡)의 관병을 징발하여 그곳을 지키게 하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팽세영을 타부(沱埠)로 이주시켜 분쟁을 차단해야 합니다. 이후 세습하는 토관의 자제(子弟)들은 모두 학교에 입학시켜, 점차 교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그들의] 우매함을 바로잡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학교에 들어가지 않는 자가 있다면, 세습을 승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팽세기가 팽세영과 과당을 형성한 것은 마땅히 법으로 다스려야 하지만, 호광 지역 정벌에 종군하여 크게 충성심을 발휘했으므로 이미 그 공으로 속죄를 허락하라는 유지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팽사룡과 팽세영은 모두 체포해 문초하고, 팽승조는 통상적인 예에 따라 멀리 보내야 합니다”라고 상주하자, [황제는] 이를 허락했다. [홍치] 16년(1504) 6월의 일이다.<sup>381)</sup>

正德十四年，保靖兩江口土舍彭惠既以祖大蟲可宜與彭藥哈俾世仇，至是與宣慰彭九霄復構怨。永順宣慰彭明輔與之連姻，助以兵力，遂與九霄往復仇殺，數年不息，死者五百餘人，前後訐奏累八十餘章。守巡官繫惠於獄，明輔率衆劫之去，尋復捕繫。事聞，詔都御史吳廷舉勘處。廷舉乃令鎮巡議，以爲惠罪當誅，但土蠻難盡以法繩，宜徙惠置辰·常城中，令九霄出價以易兩江口故地。仍用文官左遷者二人爲首領官，以勸相之。俟數年後革心向化，請敕獎諭，仍擢用爲首領。下兵部議，以惠徙內地，恐貽後患，令廷舉再議。於是廷舉等復請以大江之右五寨歸保靖，大江之左二寨屬辰州，設大刺巡檢司，流官一人主之。惠免遷徙，仍居沱埠，以土舍名目協理巡檢事。部覆如廷舉言。

380) 兩江口長官司: 正統 연간(1436~1449)에 설치되었으며, 현재 湖南省 龍山縣 남쪽 일대 지역이다.

381) 이에 관한 내용은 『孝宗實錄』 卷200 弘治 16년 6월 乙巳條 참조.

정덕 14년(1519)에, 보정 양강구 토사(土舍) 팽혜(彭惠)<sup>382</sup>는 [자신의] 조부 팽대충가의의와 팽약합비가 이미 대대로 원수지간이었던 탓에, 이때에 이르러 선위 팽구소(彭九霄)<sup>383</sup>와 다시 원수지간이 되었다. 영순 선위 팽명보가 [팽혜와] 인척지간이 되어, 병사를 보내서 그를 돕자, 마침내 팽구소와 원수가 되어 살육이 반복되었는데, 수년 동안 [그러한 살육이] 그치지 않아, 죽은 자가 500여 명이었으며, 전후로 [상대를] 비방하는 상주문이 80여 장에 달했다. 수순관(守巡官)<sup>384</sup>이 팽혜를 붙잡아 옥에 가두자, 팽명보가 무리를 이끌고와 그를 빼앗아 갔는데, 곧 다시 붙잡아 가뒀다. 이 사정이 보고되자 [황제는] 도어사(都御史) 오정거(吳廷舉)<sup>385</sup>에게 조서를 내려 사실을 조사해 처리하라고 했다. 이에 오정거가 진순관에게 [이 사안을] 논의하도록 했는데, [진순관은] 팽혜의 죄는 주살(誅殺)이 마땅하지만, 토만(土蠻)을 법으로만 다스리기는 어려우므로, 마땅히 팽혜를 진주(辰州)와 상덕(常德)<sup>386</sup> 성중(城中)으로 옮겨 배치시키고, 팽구소에게는 해당 값을 지불하고 양강구 옛 땅을 되돌려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좌천된 문관(文官) 두 사람을 수령관(首領官)<sup>387</sup>으로 삼아, [그들이] 서로 돕도

382) 彭惠: 彭世英의 아들로, 弘治 18년(1505) 廣西에 출병해 戰功을 세웠다. 다만 본문에 ‘彭惠의 祖父 彭大蟲可宜’라는 내용이 등장하지만, 彭大蟲可宜는 彭惠의 祖父가 아니라, 그의 5대조에 해당한다. 이들 家系는 保靖宣慰使를 지낸 彭莫古踵 → 彭大蟲可宜 → 彭忠 → 彭武 → 彭勝祖 → 彭世英 → 彭惠로 이어진다.

383) 彭九霄: 保靖宣慰使 彭翰의 아들로, 正德 5년(1510)에 四川의 藍廷瑞와 鄒本恕 등을 토벌하는 데 나섰으며, 특히 正德 11년(1516)에 貴州省 淸平의 香鑪山 정벌에 참여해 수훈을 세웠다. 또한 嘉靖 5년(1526)에도 四川과 貴州 일대 정벌에 많은 戰功을 세워 湖廣布政使司右參政으로 승진했다(同治『保靖縣志』卷1「詔諭」).

384) 守巡官: 앞의 각주 224)에서 언급한 명대 행정단위인 道는 分守道와 分巡道, 그리고 兵備道로 나누는데, 이에 속한 관원을 말한다.

385) 吳廷舉: 字는 獻臣이며, 湖北省 嘉魚縣 사람이다. 成化 23년(1487)에 進士에 합격해 順德知縣에 제수되었다. 馬文升과 劉大夏의 추천을 받아 廣東僉事로 임용되었으며, 이후로 江西右參政, 應天巡撫 등을 역임했다. 성품이 매우 강직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그가 右副都御史로 있을 당시의 일이다(『明史』卷201「列傳」89).

386) 常德: 지금의 湖南省 서북부 沅江 하류와 澧水 중하류에 위치한 곳이다. 秦나라 통일 당시 黔中郡 지역이었으며, 北宋 政和 7년(1117)에 ‘有常德以立武事’라는 『詩經』의 글을 따 常德軍이 설치되면서 常德이란 지명이 등장했다. 元 至元 14년(1277)에 常德路를 설치했으며, 至正 24년(1364)에 朱元璋이 이곳을 점령하고서 府로 개칭했다. 이후 湖廣布政使司에 예속했는데, 淸 康熙 3년(1664)에 湖南布政使司 관할로 되었다.

387) 首領官: 金·元 시기 이후, 중앙과 지방 관서의 서류 관장과 관리들의 관할, 장관의 업무 처리를 돕는

록 권면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수년을 기다린 후, [그들이] 마음을 고쳐 교화가 되면, 칙서를 내려 표창하기를 청하고, 그것을 계기로 [그들을] 발탁하여 수령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위 사항을] 병부로 내려보내 의논하도록 했는데, 팽해를 내지(內地)로 이주시키면 후환이 남을까 염려되므로, 오정거에게 다시 논의하도록 명했다. 이에 오정거 등이 다시 주청하기를, 대강(大江) 오른쪽 [지역의] 다섯 채를 보정에 귀속시키고, 대강의 왼쪽 지역의 두 채는 진주에 귀속시키며, 대랄(大剌) 순검사(巡檢司)를 설치해,<sup>388)</sup> 유관(流官) 한 명으로 하여금 그곳을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팽해에게 천사(遷徙)를 면제시키고, 예전처럼 타부(沱埠)에 거주하게 하여, 토사(土舍)의 명목으로 순검사의 일을 협조하여 처리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병부는 오정거가 말한대로 조정에 보고했다.<sup>389)</sup>

嘉靖六年，以擒岑猛功進九霄湖廣參政，賜銀幣。長子虎臣戰歿，贈指揮僉事，次子良臣襲職時，免赴京。二十六年免保靖秋糧。三十三年詔調宣慰彭蓋臣帥所部三千人赴蘇·松征倭。明年遇倭於石塘灣，大戰，敗之。賊北走平望，諸軍尾之於王江涇，大破之。錄功，以保靖爲首，敕賜蓋臣銀幣并三品服，令統兵益擊賊。先是，都司李經率保靖兵追倭至新場，倭二千人伏不出，保靖土舍彭翹引軍探之，中伏，與所部皆死，贈翹一官并賜棺殮具。及是，以王江涇捷，進蓋臣爲昭毅將軍。旣又調保靖土兵六千赴總督軍前，從胡宗憲請也。時已敍趙文華·宗憲功，復加蓋臣右參政，管宣慰司事，仍賞銀幣。

가정 6년(1527)에, 잡맹(岑猛)을 생포한 공로로 팽구소를 호광참정으로 진급시키고, 은폐

관원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明·清代에도 이 제도를 본받아, 중앙과 지방에 모두 설치했으며, 經歷, 司務, 典簿 등이 이에 해당한다. 明初 각 部의 主事が 首領官이었으며 主事印을 지니고 있었다. 明洪武 29년(1396)에 司官으로 개칭하였다. 明代 6部の 수령관은 蔭生에서, 都指揮司, 布政司, 按察司 등 三司의 수령관은 監生에서, 外府와 外衛, 鹽運司의 수령관은 吏員이나 承差 등에서 각각 선임했다. 清代 綠營軍中の 中軍官도 수령관에 속했다.

388) 본문에 등장하는 ‘大剌’은 지방지에는 ‘大喇’로 표기되어 있다. 正德 14년(1519)에 大江의 좌우 5寨를 나누어 大喇巡檢司를 설치하고, 辰州府에 예속시켰다(同治『保靖縣志』卷2「疆域」).

389) 이에 관한 내용은 『武宗實錄』卷179 正德 14년 10월 甲申條 참조.

(銀幣)를 하사했다. 그의 큰아들 팽호신(彭虎臣)이 전사하자, 지휘첨사를 추증(追贈)했으며, 둘째 아들 팽량신(彭良臣)이 습직할 당시, 북경에 오는 일을 면제해주었다.<sup>390)</sup> [가정] 26년(1547)에 보정에 추량(秋糧)을 면제해주었다. [가정] 33년(1554)에, 조서를 내려 선위 팽신신(彭愼臣)<sup>391)</sup>이 거느리고 있는 군대 3,000명을 징발하여 소주와 송강으로 가 왜구 정벌에 나서도록 했다. 이듬해(1555) 석당만(石塘灣)에서 왜구를 만나, 크게 싸워 그들을 패퇴시켰다. 왜적이 평망(平望)<sup>392)</sup>으로 패주하자, 여러 군사들이 그들을 왕강경까지 추격하여, 그들을 대파했다. 전공의 기록에, 보정이 으뜸이어서, 칙서를 내려 팽신신에게 은폐와 함께 삼품(三品)의 관복을 하사하라고 했고, 군사를 통솔해 왜적을 더욱 격퇴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도사(都司)<sup>393)</sup> 이경(李經)이 보정의 군사를 이끌고 왜구를 추격해 신장(新場)<sup>394)</sup>에 다다랐는데, 왜구 2,000명이 매복한 채 나오지 않자, 보정 토사(土舍) 팽시(彭翹)가 군사를 인솔해 그들을 염탐하다가 매복에 걸려, 이끌고 간 부대와 함께 모두 죽으니, 팽시에게 관직 하나를 추증하고 염복(殮服)과 장례 도구를 하사했다. 이에 이르러, 왕강경의 승전으로, 팽신신이 소의장군(昭毅將軍)으로 승진했다. 오래지 않아 또 보정 토병 6,000명이 징발되어 총독군(總督軍) 앞으로 나갔는데, [이것은] 호종헌(胡宗憲)<sup>395)</sup>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이미 조문화(趙文華)<sup>396)</sup>·호종헌의 공에 대해 서훈했는데, 또 팽신신에게 우참정을 더하여 하사하

390) 이에 관한 내용은 『世宗實錄』卷72 嘉靖 6년 正月 辛酉條 참조.

391) 彭愼臣: 彭九霄의 셋째 아들이다. 팽구소의 둘째 아들인 彭良臣도 후사가 없이 사망했기 때문에 팽신신이 습직했다.

392) 平望: 지금의 江蘇省 吳江市 중부에 위치한 鎮名이다. 隋·唐 시기에는 한적한 하천 유역에 불과했지만, 北宋 熙寧 연간(1068~1077)에 鎮이 설치되면서 부흥하기 시작했다. 明代에는 巡檢司가 설치되었으며, 元末 張士誠이 水師를 주둔시킨 곳이기도 하다. 淸初에 매우 발달했지만 咸豐 연간(1851~1861) 이후 쇠락했다.

393) 都司: 都指揮使司의 약칭이다.

394) 新場: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각주 342)에서 언급한 新陽의 오기인 듯하다. 다만 비교적 최근에 新陽이란 지명이 新場으로 변경되었지만, 그러한 명칭 변경이 명대에 발생했는지는 불분명하다.

395) 胡宗憲(1512~1565): 字는 汝貞이며 徽州 績溪 사람이다. 嘉靖 17년(1538)에 進士에 합격해 山東省 益都·浙江省 餘姚縣 知縣을 역임했으며, 湖廣都御史와 浙江巡撫 등을 거쳐 嘉靖 35년(1556) 兵部右侍郎兼僉都御史에 임명되어 왜구를 무찔렀다. 그러나 嘉靖 41년(1562)에 위세를 떨치던 환관 嚴嵩이 쫓겨나자 그는 嚴嵩 일당이라는 누명을 쓰고 하옥되었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국 54세에 자살했다. 사후 隆慶 6년(1572)에 복권되어 襄樊이라는 諡號를 받았다(『明史』卷205 「列傳」 93).

396) 趙文華(?~1557): 字는 元質이며 浙江省 慈溪縣 사람이다. 횡포를 일삼은 환관 嚴嵩의 양아들이었으며,

고, 선위사의 일을 관장하도록 했으며, 예전처럼 은폐를 상으로 내렸다.

萬曆四十七年調保靖兵五千，命宣慰彭象乾親統援遼。四十八年加象乾指揮使。象乾至涿州病，中夜兵逃散者三千餘人，部臣以聞。帝嚴旨責統兵者，并敕監軍道沿途招撫。明年，象乾病不能行，遣其子姪率親兵出關，戰於渾河，全軍皆歿。天啓二年進象乾都督僉事，贈彭象周·彭緄·彭天祐各都司僉書，以渾河之役一門殉戰，義烈爲諸土司冠云。

만력 47년(1619)에, 보정의 병사 5,000명을 징발하여, 선위 팽상건(彭象乾)<sup>397</sup>에게 친히 [그들을] 통솔해 요동 지역을 원조하라고 명했다.<sup>398</sup> [만력] 48년(1620)에, 팽상건에게 지휘사의 관직을 더해서 내렸다. 팽상건이 탁주(涿州)<sup>399</sup>에 이르러 병이 나자, 야밤에 흩어져 도망간 병사들이 3,000여 명에 이르렀는데, 병부의 대신이 [이를 조정에] 보고하였다. [이에] 황제는 병사를 통솔하는 자를 문책하라는 엄한 유지를 내리고, 아울러 감군(監軍)<sup>400</sup>에게 도로 연변에서 초무(招撫)하도록 칙서를 내렸다. 이듬해(1621), 팽상건이 병으로 행군이 불가능하자, 그의 아들과 조카를 보내 자신이 이끌고온 병사들을 통솔해서 출관(出關)하도록 했는데, 혼하(渾河)<sup>401</sup>의 전투에서 전군이 몰사했다. 천계 2년(1622)에, 팽상건을 도독첨사로

嘉靖 8년(1529)에 進士에 급제하여 刑部主事に 제수되었다. 嘉靖 연간(1522~1566)의 왜구 침공 당시 자신의 軍功을 거둬서 상부에 보고해 工部尙書職에 올랐으며, 이를 계기로 업승 못지않은 횡포를 부렸다. 嘉靖帝가 어느 날 높은 곳에 올라 사방을 조망하다 호화로운 저택이 눈에 띄어 신하에게 그 주인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趙文華의 저택이라는 신하들의 대답을 듣고 그를 파직시켰다고 한다.

397) 彭象乾: 본문에서 나오는 인물을 기준으로 한다면 彭蠡臣의 증손자이다. 즉 彭蠡臣 → 彭守忠 → 彭養正 → 彭象乾으로 지위가 이어졌으며, 이 襲職은 모두 부자관계로 행해졌다.

398) 이에 관한 내용은 『神宗實錄』 卷590 萬曆 48년 正月 甲辰條 참조.

399) 涿州: 지금의 河北省 중부에 위치한 지명이다. 춘추전국시대 燕나라 涿邑이 있었던 지역으로, 唐 大歷 4년(769)에 처음 涿州가 설치되었다. 洪武 初에 范陽縣에 탁주를 편입시켜 北平府에 예속시켰으며, 永樂 원년(1403)에 順天府에 편입시켰다.

400) 監軍: 군대 업무를 감독하고 장수들을 감찰하는 조정의 관직으로 처음에는 임시로 두었다. 그러나 三國時代에는 출정할 때마다 감군을 두어 장수를 감독했기 때문에 그 권한이 자못 컸다. 明代에는 宦官이나 監察御史가 監軍으로 임명되어 戰功과 그에 따른 賞罰을 규정하도록 했는데, 清代에 폐지되었다.

진급시키고, 팡상주(彭象周)<sup>402</sup>·팽곤(彭綱)·팽천우(彭天祐)<sup>403</sup>를 각각 도사첨사(都司僉事)로 추증했는데, 혼하의 전역(戰役)에서 온 가문이 전사했기 때문이며, 의로움과 충렬이 여러 토사 가운데 으뜸이라 한다.

---

401) 渾河: 遼河의 지류로 옛날에는 遼水 혹은 小遼河라고 불렀다. 遼寧省 撫順市 북단 淸原縣 滾馬嶺에서 발원하여 撫順과 沈陽을 경유해 遼東灣으로 흘러들어간다. 총 길이는 415km이다.

402) 彭象周: 彭象乾의 동생이다.

403) 彭綱·彭天祐: 彭象乾의 아들들이다.

## | 참고문헌 |

국사편찬위원회, 『中國正史朝鮮傳譯注』, 서울: 신서원, 2004

동북아역사재단 편, 『譯註 中國正史 外國傳(1~15)』,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9~2012

咸豐 元年 『黔江縣志』

光緒 14年 『古州廳志』

同治 6年 『穀城縣志』

同治 5年 『來鳳縣志』

嘉慶 25年 『道州志』

光緒 21年 『馬平縣志』

光緒 11年 『武昌縣志』

同治 11年 『保靖縣志』

乾隆 元年 『四川通志』

光緒 19年 『桑植縣志』

同治 13年 『石門縣志』

同治 2年 『宣恩縣志』

同治 10年 『施南府志』

民國 7年 『施州考古錄』

乾隆 46年 『餘姚志』

同治 13年 『永順府志』

同治 3年 『恩施縣志』

同治 8年 『長樂縣志』

光緒 34年 『靖州鄉土志』

嘉慶 22年 『重修慈利縣志』

乾隆 15年 『直隸澧州志林』

乾隆 30年 『辰州府志』

光緒 6年 『巴東縣志』

同治 4年 『咸豐縣志』

光緒 11年 『湖南通志』,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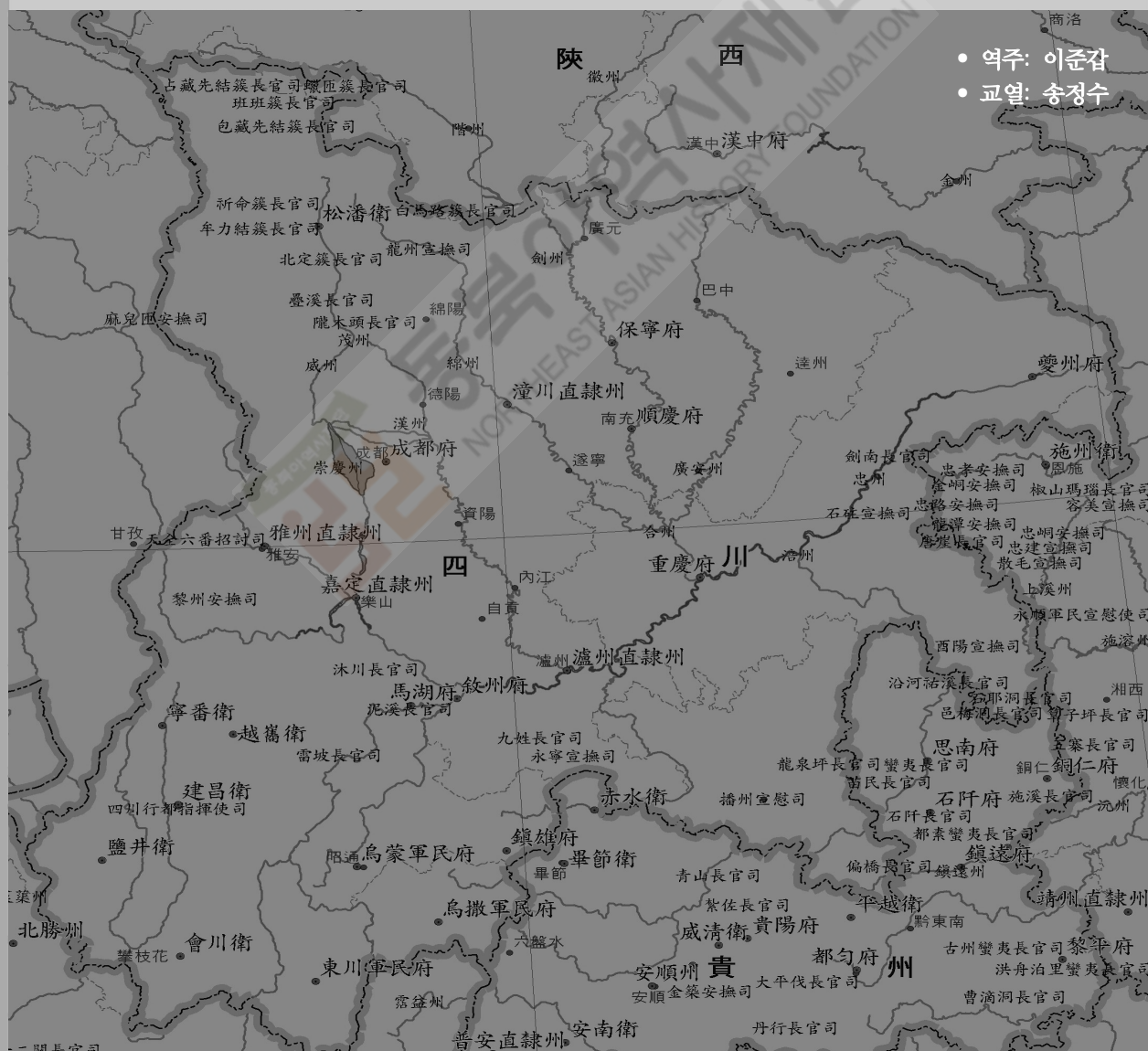
- 民國 23年『湖北通志』,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0
- 『明實錄』,臺北: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 校引本,1965~1966
- 『明會要』,北京:中華書局,1956
- 二十五史,北京:中華書局,1959~1977
- 顧祖禹,『讀史方輿紀要』(國學基本叢書),臺灣:新興書局,1956
- 顧彩 著,吳柏森 校注,『容美紀游校注』,武漢:湖北人民出版社,1999
- 谷應泰,『明史紀事本末』,臺灣:三民書局,1969
- 段汝霖 著,伍新福 交點,『湘西土司輯略』,長沙:嶽麓書社,2008
- 段汝霖 著,伍新福 交點,『楚南苗志』,長沙:嶽麓書社,2008
- 鄂西土家族苗族自治州民族事務委員會 編,『鄂西少數民族史料集錄』(내부발행),1986
- 嚴如煜,『苗防備覽』(中華文史叢書),臺北:華文書局,1969
- 張興文 外 注釋,『卯峒土司志校注』,北京:民族出版社,2001
- 鶴峰縣民族事務委員會 編,『容美土司史料續編』(내부발행),1993
- 송정수,『중국근세향촌사회사연구』,서울:혜안,1997
- 이준갑,『중국 사천사회 연구 1644~1911: 개발과 지역질서』,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2002
- 정철웅,『자연의 저주: 명·청시대 장강 중류 지역의 개발과 환경』,서울:책세상,2012
- 다마다 히사오[田畑久夫] 著,원정식·이연주 譯,『중국소수민족입문』,서울:현학사,2006
- 데라다 다카노부[寺田隆信] 著,서인범·송정수 譯,『대명제국』,서울:혜안,2006
- 마크 엘빈(Mark Elvin) 著,정철웅 譯,『코끼리의 후퇴』,과주:사계절,2011
- 高恨非·姚祖瑞·陳開沛 主編,『宣恩縣民族志』,北京:中國文聯出版社,2001
- 譚必友,『清代湘西苗疆多民族社區的近代重構』,北京:民族出版社,2007
- 馬菁林,『清末川邊藏區改土歸流考』,成都:巴蜀書社,2004
- 潘新藻,『湖北省建制沿革』,武漢:湖北人民出版社,1987
- 成臻銘,『清代土司——一種政治文化的歷史人類學觀察』,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2008
- 鄂西土家族苗族自治州民族事務委員會 編,『鄂西土家族苗族自治州民族志』,成都:四川民族出版社,1993
- 楊國楨 外,『明史新編』,北京:人民出版社,1993
- 余貽澤 編,『明代土司制度』,臺北:學生書局,1968
- 伍新福 主編,『湖南通史』(古代卷),長沙:湖南人民出版社,2008
- 吳永章,『湖北民族史』,武漢:華中理工大學出版社,1990

- 吳榮臻 主編,『苗族通史』(5卷),北京:民族出版社,2007
- 王笛,『跨出封閉的世界—長江中上游區域社會研究,1644~1911』,北京:中華書局,1993
- 龍子建 外,『湖北苗族』,北京:民族出版社,1999
- 牛平漢 主編,『清代政區沿革綜表』,北京:中國地圖出版社,1990
- 魏嵩山 外,『鄱陽湖流域開發探源』,南昌:江西教育出版社,1995
- 游俊 外,『湖南少數民族史』,北京:民族出版社,2001
- 張建民,『湖北通史』(明清卷),武漢:華中師範大學出版社,1999
- 張正明·劉玉堂,『湖北通史』(先秦卷),武漢:華中師範大學出版社,1999
- 田敏,『土家族土司興亡史』,北京:民族出版社,2000
- 陳賢波,『土司政治與族群歷史—明代以後貴州都柳江上游地區研究』,北京:三聯書店,2011
- 何偉軍 主編,『土家族資丘村調查』,北京:中國經濟出版社,2011
- 湖南省民族研究所組 編,『湖南民族關係史』(上·下),北京:民族出版社,2006
- 松丸道雄 等 編,『中國史4』(明清),東京:山川出版社,1999
- Ch'u T'ung-tsu, *Local Government in China under the Ch'ing*,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2
- Claudine Lombard-Salmon, *Un exemple d'acculturation chinoise: La Province du Guizhou au 18e siècle*, Paris: E.F.E.O., 1972
- Mote, Frederick W. and Denis Twitchett,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7,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 Herman, John E., *Amid the Clouds and Mist: China's Colonization of Guizhou, 1200~1700*, Massachusetts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07
- Yves Hervouet, *Un Poète de cour sous les Han: Sseu-Ma Siang-Jou*,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64
- 김홍길, 「명대의 彝族 정권과 토사」, 『동아시아 역사 속의 중국과 한국』, 서울: 서해문집, 2005
- 龔蔭, 「元·明·清兩廣兩湖土司概說」, 『廣西民族研究』, 1992-4
- 段超·李振, 「略論湖廣土司的文化政策」, 『中南民族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0-4
- 譚慶虎·田赤, 「明代土家族地區的皇木採辦研究」, 『湖北民族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1-2
- 戴楚洲·吳遠干, 「明·清時期湖廣九谿衛土家族初探」, 『武陵學刊』(社會科學), 1998-5
- 鄧輝, 「略論土家族地區土司制度的實質」, 『恩施師專學報』, 1984-1
- 莫代山, 「歷史時期土家族地區土司的社會控制」, 『長江師範學院學報』, 2008-4

- 孟凡松,「明洪武年間湖南衛所設置的時空特徵」,『中國歷史地理論叢』,2007-4
- 范植清,「明前期對鄂西民族地區的治理」,『民族研究』,1990-1
- 成臻銘,「明·清時期湖廣土司自署職官初探」,『吉首大學學報』(社會科學版),2002-4
- 成臻銘,「改土歸流與社區危機—主要以1505至1949年湘西土司區危機事件為例」,『懷化學院學報』,2005-1
- 成臻銘,「“以內馭外”: 論清代土司城市建築布局的政治文化傾向—以土家族區域為例證」,『湖北民族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27-6,2009
- 葉德書,「古代土家人名訓釋」,『湖北民族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25-3,2007
- 吳永章,「明代貴州土司制度」,『貴州社會科學』,1983-6
- 吳永章,「明代鄂西土司制度」,『江漢論壇』,1986-1
- 于玲,「古代鄂西土家族和漢族文化交流的特點」,『中南民族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1966-6
- 劉思純,「湘西土家族苗族自治州的民族關係及其發展」,中央民族大學碩士學位論文,2004
- 任樹民,「明代松潘衛“番人”略考」,『西藏研究』,2001-1
- 張雄·彭英明,「明代湖廣土司初探」,『江漢論壇』,1982-6
- 張婷,「明代四川土司述要」,四川大學碩士學位論文,2005
- 田敏,「元·明·清時期湘西土司的設置與變遷」,『中南民族學院學報』(人文社會科學版),2011-1
- 朱聖鍾,「鄂湘渝黔土家族地區歷史經濟地理研究」,陝西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2002
- 彭武一,「明·清年間湘西的土家與苗家—初論土家族苗族歷史上的和睦友好關係」,『吉首大學學報』(社會科學版),1987-1
- 胡仁亮,「初論湖南明·清瑤官制度」,『民族論壇』,1996-3
- Keightley, David N., “The Shang: China’s First Historical Dynasty,” Michael Loewe, Edward L. Shaughnessy(ed.), *The Cambridge History of Ancient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戴逸 主編,『二十六史大辭典』,吉林: 吉林文史出版社,1993
- 史爲樂 主編,『中國歷史地名大辭典』,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2005
- 臧勵酥 等 編,『中國古今地名大辭典』,臺北: 商務印書館,1931
- 中國古今地名大辭典編纂委員會 編,『中國古今地名大辭典』,上海: 上海辭書出版社,2005
- 中國歷史大辭典編纂委員會 編,『中國歷史大辭典』(上·下),上海: 上海辭書出版社,2005
- 京大東洋史辭典編纂會,『新編東洋史辭典』,東京: 創元社,1980
- 下中邦彥 編,『アジア歴史事典』,東京: 平凡社,1962

오몽오살동천진웅사군민부·마호·  
 건창위·영번위·월수위·염정위·  
 회천위·무주위·송반위·  
 천전육번초토사·여주안무사전  
 (烏蒙烏撒東川鎮雄四軍民府·馬湖·  
 建昌衛·寧番衛·越巂衛·鹽井衛·  
 會川衛·茂州衛·松潘衛·  
 天全六番招討司·黎州安撫司傳)

명사(明史) 권311 사천토사(四川土司) 1





「오몽오살동천진웅사군민부·마호·건창위·영번위·월수위·염정위·회천위·무주위·송반위·천전육번초토사·여주안무사전(烏蒙烏撒東川鎮雄四軍民府·馬湖·建昌衛·寧番衛·越嶲衛·鹽井衛·會川衛·茂州衛·松潘衛·天全六番招討司·黎州安撫司傳)」 해제

『명사』 권311 토사전(土司傳)의 사천토사 가운데 첫 번째인 이 부분은 오몽(烏蒙) 오살(烏撒) 동천(東川) 진웅(鎭雄) 사군민부(四軍民府)와 마호(馬湖)·건창위(建昌衛) 영번위(寧番衛)·월수위(越嶲衛)·염정위(鹽井衛)·회천위(會川衛)·무주위(茂州衛)·송반위(松潘衛)·천전육번초토사(天全六番招討司)·여주안무사(黎州安撫司)에 관한 서술을 담고 있다. 이들 토사들은 명대 사천성(四川省)의 변두리에 위치하였다는 지리적 공통점이 있다. 이들의 지리적 위치를 좀 더 세분해보면 오몽·오살·동천·진웅 사군민부는 사천의 남부이자 운남·귀주와의 접경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마호·건창위·영번위·월수위·염정위·회천위는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다. 무주위·송반위는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다. 천전육번초토사·여주안무사는 사천 서부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면 본전의 지리적 배열은 사천의 남부에서 시작하여 서남부, 서북부로 옮겨갔다가 최후로 서부로 다시 내려오는 순서를 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을 종족적 관점에서 분류해보면 남부지역은 묘만(苗蠻)의 잡거지이지만 묘족보다는 만족(蠻族)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다. 서남부 지역은 만족과 복인(僂人), 서번(西番)이 거주하였으며 서북부에는 다양한 번인(番人)들이 거주하였다. 서남부에는 주로 만족들이 거주하였다. 사천 토사의 영역은 지리적으로나 종족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본전의 이러한 배열, 서술 방식에서 사천토사전의 편찬자들도 사천 토사들 각각의 영역이 다르고 종족 구성이 다양하다는 특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측면들 예컨대 각 토사들의 사회 구조와 제도라든가 풍습에 대한 관심과 서술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토사들은 우호적이든 적대적이

든 철저하게 명조와의 관계 속에서만 기록되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토사전의 이러한 입장은 상당한 결함으로 지적될 수 있지만 『명사』의 저술 관점 특히 소수민족[夷狄]을 야만으로 바라보던 일관된 입장을 떠올리면 오히려 이런 관점이야말로 본전이 갖추고 있는 역사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서술 방식에 주목해보면 본전의 각 부분은 명 이전의 왕조들이 해당 지역이나 토사들과 맺었던 관계를 언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가까이는 원대(元代), 멀리는 한대(漢代)에 맺었던 관계까지 거슬러올라가 언급하는데 이런 서술 방식은 명조가 토사 지역에 대해 일종의 연고권을 주장하는 장치로 보인다. 『명사』의 편찬자들은 자신들의 영역 밖이라고 판단했던 곳에 대해서는 「외국전」이라는 별도의 열전을 마련하여 기술했다. 토사의 영역이 곧 명조의 영역 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현실에서 명조의 권력 즉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무력과 직·간접 통치로 뒷받침되는 행정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사천 토사의 각 부분에서 이전 왕조부터 면면히 이어지는 역사적 연고에 대한 서술이 마무리되면 그 다음으로는 명조 권력이 이 지역으로 언제 어떻게 침투했는가를 소상하게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의도를 간파할 수 있다.

그러나 명조가 경계를 긋고 그 속에 토사들을 포함시키려 한 노력들이 명조의 뜻한 바대로 관철되지 못했음을 사천토사전은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종족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한족들과는 이질적이었던 토사들이 명조에 대해 무력 저항을 불사하였기 때문이었다. 본전의 기술은 대부분 오몽·오살·동천·진웅 사군민부와 송반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데 이 지역 토사들의 행동 방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통점은 이들이 명조에 대해 끊임없이 무력 투쟁을 전개하였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명조 권력 자체에 대한 투쟁이기도 하고 토관직의 계승이나 주도권 장악을 둘러싼 분쟁과 같은 토사 내부 문제에 개입하려는 명조의 권력 행사방식에 대한 저항이기도 했다. 본전에서 나타나는 바, 명 일대(一代)에 걸친 사천토사들의 처절한 몸짓에서 읽어낼 수 있는 메시지는 이들이 명조에 대해 끊임없이 자율권을 요구하였다는 점이다. 사천토사들의 자율권 보장 요구는 토사를 자신의 영역 안으로 포함하려는 명조의 경계 긋기와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명조의 경계 긋기는 이른바 개토귀류(改土歸流) 정책의 추진에서 절정에 달하였다. 토사에 대한 명조의 직접 지배의지를 관철시키려는 개토귀류의 사례는 마호부(馬湖府)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난다. 홍무 연간(1368~1398) 이래 토지부(土知府)가 다스리며 토사들이 자율권을 행사

하던 이 지역에는 홍치 8년(1495)에 토지부 안오(安鰲)가 명조에 처형당한 것을 계기로 유관(流官) 지부(知府)가 파견되면서 명조의 직접 지배가 관철되기 시작했다. 본전이나 이것의 저본(底本)인 『명실록』(『孝宗實錄』)에 따르면 토지부 안오는 성정이 잔인하여 백성을 학대하고 탐욕에 차서 과중한 세금을 걷었으며 토민의 부녀자 대부분을 간음한 인물로 묘사된다. 그는 또 요사스런 승려를 부려서 사람을 죽이게 하고 이웃한 지역의 토관들을 침략하는 ‘무법자’였다. 이런 내용이 사실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는 판단할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명조의 대응 방식이었다. 20년 가량 안오를 지켜보던 명조는 무력을 동원하여 그를 체포하고 능지처사(陵遲處死)한 후 그를 보좌하던 마호부의 유력자들도 학정을 도왔다는 죄명을 씌워 처형해버렸다. 그리고 마호부의 내부 역량이 약화된 틈을 타서 명조는 유관 지부를 파견하고 직접 지배에 나섰다. 개토귀류에 대한 토사들의 저항은 거세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명조의 철저한 유혈 진압으로 종족(種族) 자체가 멸절되어 버린 곳도 있었다. 사천 남부 의빈(宜賓), 서주(敘州), 노주(瀘州)의 산간지대에서 거주하던 도장만(都掌蠻)은 명초(明初) 이래 지방관들의 수탈과 개토귀류에 저항하여 끊임없이 무장폭동을 일으켰고, 명조에서는 여러 차례 대규모의 유혈 진압작전을 전개했다. 만력(萬曆) 2년(1574)에 도장만은 대부분 명군(明軍)에 피살되고 잔존한 소수의 산도장만(山都掌蠻)도 명조의 강력한 동화정책 때문에 민족적 정체성을 상실한 채 소멸되어버렸다. 정치적·군사적·경제적 역량의 성쇠(盛衰)와는 무관하게 명조는 개토귀류로 대표되는 직접 지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음을 본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전의 이런 기록을 참조하면 명조는 대내외적으로 양면적인 속성을 갖추고 있었다. 대외적인 면에서 보자면 일반적으로 명대는 홍무, 영락 연간을 지나면 북방의 몽골과 동남연해의 왜구에 시달렸고 말기에는 동북의 여진족의 침입을 막느라 급급하던 수세적인 시대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인식은 부분적으로만 맞다. 북변과 동남 연해에서는 분명히 수세적이었지만 본전에서 명조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모습으로 서술되고 있다. 명조는 토사들의 저항을 무력으로 응징하고 끈질기게 개토귀류를 추진했다. 그리고 이들을 동화시키거나 길들이면서 토사 지역을 내지화하려는 작업을 줄기차게 추진했다. 역사적 시각을 좀 더 연장시켜 보자면 명대에 토사들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와 개토귀류, 내지화 작업을 추진하고 이런 노력이 성과를 거두었으므로 청대에 비로소 개토귀류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명조의 토사에 대한 이런 정지 작업이 없었더라면 청조는 준가르를 비롯한 몽골 제압에 나서 강역을 대폭 확장하는 대신 토사 평정에 혼신의 힘을 쏟아야 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오몽오살동천진웅사군민부·마호·건창위·영번위·월수위·염정위·회천위·무주위·송반위·천전육번초토사·여주안무사전(烏蒙烏撒東川鎮雄四軍民府·馬湖·建昌衛·寧番衛·越嶲衛·鹽井衛·會川衛·茂州衛·松潘衛·天全六番招討司·黎州安撫司傳)」역주

## 四川土司

### 사천 토사

四川土司諸境，多有去蜀遠，去滇·黔近者。如烏蒙·東川近於滇，烏撒·鎮雄·播州近於黔。明太祖略定邊方，首平蜀夏，置四川布政司，使招諭諸蠻，次第歸附。故烏蒙·烏撒·東川·芒部舊屬雲南者，皆隸於四川，不過歲輸貢賦，示以羈縻。然夷性獷悍，嗜利好殺，爭相競尚，焚燒劫掠，習以爲恒。去省遠，莫能控制，附近邊民，咸被其毒。皆由規模草創，未嘗設立文武爲之鈐轄，聽其自相雄長。雖受天朝爵號，實自王其地。以故終明之世，常煩撻伐。唯建昌·松·茂等處設立衛所，播州改遵義·平越二府以後，稍安戢云。

사천 토사의 각 지경(地境)은 대부분 촉(蜀)<sup>1)</sup>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전(滇)<sup>2)</sup>·검(黔)<sup>3)</sup>에

1) 蜀: 四川의 별칭. 중국 서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川’이라고도 하며 48만km<sup>2</sup>의 면적에 2010년 현재 인구가 약 8,000만 명에 이르는 거대 지방 행정구역 가운데 하나이다. 2만 5천 년 전부터 三星堆 문명 등의 출현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일찍부터 고대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며, 秦이 蜀 지역을 점령하고 난 후 蜀郡과 漢郡의 두 행정구역을 이곳에 설치했다. 삼국시대 劉備가 蜀漢(221~263)을 건설한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唐代에 安史의 난을 피해 唐 玄宗이 피신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明末 농민반란군 지도자인 장헌충이 이곳에 大西 정권(1644~1646)을 세운 이후, 明末 청초 교체기에는 많은 전란이 발생했다. 이후 청초에는 湖廣(호북과 호남) 사람들이 사천을 메우고 있다는 의미의 ‘湖廣填四川’이라는 속담에

서 가깝다. 예컨대 오몽(烏蒙)<sup>4)</sup>·동천(東川)<sup>5)</sup>이 전에 가깝고 오샬(烏撒)<sup>6)</sup>·진웅(鎭雄)<sup>7)</sup>·파주(播州)<sup>8)</sup>가 검에 가까운 것이 그러하다. 명 태조(明太祖: 朱元璋, 1328~1398; 재위 1368~

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이주민들이 몰려들어 적극적인 개발의 무대가 된 곳이었다. 漢代 내내 益州 지역으로 불렸으며, 宋 咸平 4년(1001)에 四川路가 되면서 四川이란 명칭이 처음 등장한다.

- 2) 滇: 雲南省의 별칭이며, 『尙書』 「禹貢」의 梁州 塞외의 지역이다. 운남성은 중국 서남지역에 위치한 省으로서, 면적은 약 39만km<sup>2</sup>이며, 2010년 현재 인구는 약 4,600만 명이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秦始皇이 6國을 통일한 후, 운남 동북부에 오척도를 개척했으며, 전109년 漢 武帝가 郭昌을 파견해서 益州郡과 24개 縣을 개설했다. 삼국시대에는 南中이라 불렸으며, 당·송 시기에는 南詔國과 그를 뒤이어 大理國이 존속했던 곳이었다. 1253년에 쿠빌라이가 운남을 정벌해서 1276년에 雲南行省을 설치했는데, 이때부터 비로소 운남이란 명칭이 등장했다. 明 太祖 朱元璋도 洪武 14년(1381)에 傅友德 등을 파견해서 이 지역을 공격하고 洪武 15년(1382)에 평정하여 雲南等處承宣布政使司를 설치하여 府 58·州 75·縣 55·蠻部 6곳을 관할하게 하였고, 후에는 府 19·禦夷府 2·州 40·禦夷州 3·縣 30·宣慰司 8·宣撫司 4·安撫司 5·長官司 33·禦夷長官司 2곳을 관할하게 하였다. 중국 내지와는 전혀 이질적인 곳이었으며, 많은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 3) 黔: 貴州省의 별칭이며, 『尙書』 「禹貢」의 荊·梁 二州의 徼外 지역이다. 元代에는 湖廣·四川·雲南 三行中書省의 지역으로, 洪武 15년(1382)에 貴州都指揮使司를 두고, 貴州宣慰司를 治所로 삼았다. 永樂 11년(1413)에 貴州等處承宣布政使司를 두었고, 府 8·州 1·縣 1·宣慰司 1·長官司 39곳을 관할하였다.
- 4) 烏蒙: 지금의 雲南省 昭通市이다.
- 5) 東川: 현재 雲南省 昆明市가 관할하는 다섯 區所 중 하나이다. 秦代에는 靡莫部族에게 속한 지역이었고, 漢代에는 建元 6년(전135)에 堂狼縣을 설치하였다. 唐代 중반에는 東川郡을 설치하여 현재의 巧家·會澤·東川·祿勸과 四川省의 會東縣·寧南縣 등을 관리하였고, 사천성에 속했으나 清代 雍正 4년(1726)에 改土歸流를 추진한 후 雲南으로 편제되었다.
- 6) 烏撒: 烏撒는 彝族의 한 갈래이다. 前漢 이래 淸初까지 1,200여 년 동안 彝族들은 水西와 烏撒의 두 개의 정권을 수립하고 있었다. 烏撒部 彝族政權의 세력 범위는 지금의 雲南 鎭雄縣, 貴州 威寧縣, 赫章縣 일대에 걸쳐 있었다. 烏撒이라는 명칭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인명과 관계가 있다. 彝族들의 여섯 갈래 分宗 가운데 다섯 번째 支系인 慕克克的 第24世 孫인 默遮俄索이 族人們을 이끌고 이 땅에 정착하자 후손들이 그를 기려서 그의 이름으로 지명과 부족명을 삼았다. ‘默遮俄索’의 漢語 음역이 ‘物叙, 烏撒, 五叔’이다.
- 7) 鎭雄: 지금의 雲南省 鎭雄縣이다.
- 8) 播州: 지금의 貴州省 遵義市이다. 西漢 元光 5년(전130)에 犍爲郡을 설치하였는데, 郡治는 犍縣 즉 지금의 遵義市 中心城區 부근에 두었다. 元鼎 6년(전111) 夜郎에 牂柯郡을 설치했다. 南北朝時代에는 선후로 平夷郡, 平蠻郡에 속했다. 唐 貞觀 9년(635)에 牂柯郡의 牂柯縣에 郎州를 설치하고 恭水, 高山, 貢山, 柯盈, 邪施, 釋燕의 6개 縣을 소속시켰다. 貞觀 11년(637)에 郎州와 그에 소속되었던 6縣을 폐지하였다. 貞觀 13년(639)에 다시 郎州와 그에 소속된 恭水, 高山, 貢山, 柯盈, 邪施, 釋燕의 6개 縣을 설치하고 播州라고 이름을 바꾸었다. 경내에 播川이 흘렀으므로 그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貞觀 14년(640)에 播州 소속 6개 縣의 이름을 모두 바꾸어 恭水를 羅蒙, 高山을 舍月, 貢山을 湖江, 柯盈을 帶水, 邪施를 羅爲,

1398)<sup>9)</sup>가 변방을 공격하여 평정할 때에, 가장 먼저 축의 하(夏)<sup>10)</sup>를 평정하고 사천포정사(四

釋燕을 胡刀라고 고쳤다. 貞觀 16년(642)에 다시 羅蒙을 遵義라고 고쳤다. 顯慶 5년(660)에 舍月, 湖江, 羅爲縣을 폐지하였다. 唐末에는 土豪인 楊端이 이곳을 차지하였다. 宋 大觀 2년(1108)에 首領 楊光榮, 楊文貴가 각각 그 땅을 宋에 바치고 귀순하였으므로 播州와 遵義軍을 나누어 설치했다. 宣和 3년(1121)에 播州를 폐지하고 城으로 삼아 南平軍에 소속시켰으며, 또 遵義를 폐지하여 砦로 삼고 珍州에 소속시켰다. 嘉熙 3년(1239)에 다시 播州安撫司를 설치하였다. 元 至元 12년(1275)에 世祖 쿠빌라이가 조서를 내려 招撫하였다. 至元 14년(1277)에 楊邦憲이 播州, 珍州, 南平軍을 이끌고 元에 투항함으로써 다시 播州安撫司를 설치하여 楊邦憲을 播州安撫使로 삼았다. 그가 죽자 아들 漢英이 직책을 세습하였는데 元에서는 漢英에게 楊賽因不花라는 이름을 내려주었다. 至元 28년(1291)에 播州宣撫司로 바꾸고 四川行省에 소속시켰다. 大都로 갈 때 사천보다 湖廣을 통해 가는 것이 편리했으므로 이듬해에 湖廣行省으로 소속을 바꾸었다. 播州宣撫司에서는 19개 長官司와 여러 峒寨를 통할하였다. 至正 23년(1363)에 사천에서 활거한 明玉珍에게 투항하였고, 洪武 5년(1372)에는 明에 항복했으며, 이듬해에 播州宣慰司로 승격되었다. 萬曆 28년(1600)에 楊應龍의 반란을 평정한 후 明朝에서는 改土歸流를 단행하여 播州를 둘로 나누어 遵義軍民府를 설치하여 四川에 소속시켰으며, 平越府를 설치하여 貴州에 소속시켰다. 唐末 楊端이 播州를 차지한 후 明末 萬曆 연간(1573~1619) 楊應龍에 이르기까지 29世 800여 년이 경과했다. 淸 順治 15년(1658)에 淸兵이 遵義를 점령하고 明制를 답습하여 軍民府라 하고 四川에 소속시켰다.

- 9) 明太祖: 朱元璋을 말한다. 安徽省 鳳陽縣 출신으로 가난한 농부인 아버지 朱世珍(朱五四라고도 불림)과 巫術師 陳氏의 딸인 어머니 사이에서 막내아들로 1328년에 태어났다. 그의 처음 이름은 興宗(重八로도 불림)이었으나 郭子興의 사위가 되면서 元璋으로 개명하였다. 元 至正 4년(1344)에 淮北 일대에 큰 가뭄이 들었을 당시, 부모와 형이 사망하게 되어 호구지책으로 皇覺寺에 들어가 탁발승으로 지냈다. 그 후 至正 12년(1352)에 郭子興 군대에 들어가 능력을 인정받게 되어 자신의 세력을 키우게 되었다. 郭子興이 죽은 뒤 실질적으로 郭子興 군단을 이끌면서 강소·안휘·절강 등지를 경략하여 세력을 확대시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명망이 있는 유학자와 지주들을 대거 흡수하여 이들의 도움을 받아 일대세력을 형성했는데 白蓮教의 색채도 점차 탈각시켜 나갔다. 이윽고, 그는 至正 23년(1363)에 강서 지역에서 漢王을 자칭하며 세력을 떨치던 陳友諒을 鄱陽湖 上에서 타도하여 化중지방을 손에 넣었으며, 이어서 2년의 사투 끝에 至正 27년(1367)에 강소 지역에 세력을 떨치며 吳王을 칭하고 있던 張士誠을 그의 근거지인 平江(지금의 蘇州)에서 멸하였다. 같은 해에 徐達, 常遇春 등이 중원 북벌에 성공하여 元 세력을 만리장성 이북으로 쫓아내는 데 성공했다. 1368년 정월에 應天府에서 황제 즉위식을 갖고 국호를 ‘大明’, 年號를 ‘洪武’라 정하였다. 개국 후 里甲制를 실시하여 농촌을 안정시키는 한편, 元代의 中書省을 폐지하고 布政司, 都指揮司, 按察司를 설립하여 군주 독재권의 강화를 추구했던 군주였다. 31년의 재위 동안 명 왕조의 기틀이 되는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을 행했으며, 1398년 윤5월에 7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字는 國瑞이고, 諡號는 高皇帝이며, 廟號는 太祖이다.
- 10) 夏: 1363년 정월에 明玉珍이 重慶에 도읍을 정하고 황제를 칭하며 天統이라는 연호를 사용하며 건립한 지방정권이다. 天統 4년(1366)에 明玉珍이 병사하자, 그 아들 明昇이 즉위하여 開熙 연호를 사용하다가 洪武 4년(1471)에 명 태조에게 항복하여 大夏 정권은 9년 만에 소멸되었다. 大夏 정권의 중앙기구는

川布政司)를 설치하여 포정사로 하여금 여러 만족(蠻族)들을 초무하고 깨우치게 하니, 차례로 귀순했다. 그래서 오몽·오살·동천·망부(茫部)<sup>11)</sup>는 옛날에는 운남에 소속되었으나 [명대에는] 모두 사천에 예속시켜 해마다 단지 공부(貢賦)만을 바치게 했으니 [이는] 기미(羈縻)<sup>12)</sup>하는 바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만이(蠻夷)들은 천성이 사납고 이익을 탐하여 살인하기를 즐기며 서로 다투고 불태우고 노략질하는 것이 일상의 습속이 되었다. 성성(省城)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제어할 수 없었으므로 변경에 인접한 지역의 백성이 모두 그들의 해독을 입었다. [이런 정황은] 모두 제도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을 때 문무관원들을 두어서 단속하지 않고 그들끼리 스스로 우두머리를 정하도록 내버려둔데서 말미암은 것이다. 비록 [그들이] 천조(天朝)의 작위와 봉호를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스스로 그 땅의 왕 노릇 했다. 그러므로 명 조정은 마지막 때까지 항상 번거롭게 [그들을] 토벌했다. 오직 건창(建昌)·송(松)·무(茂)

처음에는 周의 제도를 모방했으나 후에는 元의 제도를 모방했다. 天統 元年에서 3년까지는 冢宰, 司馬, 司空, 司寇, 司徒, 宗伯의 六卿을 두어 周의 제도를 모방했다. 天統 4년 이후에는 元의 제도를 모방하여 中書省, 樞密院을 설치하고 左右丞相과 平章, 參政 등의 관직을 설치하였다. 지방기구는 元의 제도를 모방하여 路, 府州縣을 설치하고 변경의 소수민족 거주지역에는 宣慰司, 安撫司, 長官司를 두었다. 大夏 정권의 영역은 동으로는 彝陵(지금의 호북성 宜昌), 서로는 운남의 中慶(지금의 昆明), 남으로는 播州(지금의 귀주 遵義), 북으로는 興元(지금의 섬서 漢中)에 이르렀다(陳世松, 1993: 19~25).

11) 茫部: 路·府의 이름으로 ‘茫’은 ‘茫’으로도 표기한다. 元의 至元 연간(1264~1294)에 路를 설치하였고 治所는 지금의 鎮雄의 북쪽에 두었으며, 관할 지역은 鎮雄·彝良威信縣이었다. 明初에 府로 바꾸었고, 嘉靖 연간(1521~1566) 초에 鎮雄府로 변경하였다.

12) 羈縻: 羈는 말의 굴레를, 縻는 쇠고삐를 이용해서 통제한다는 의미로, 四夷를 제어하는 것이 牛馬를 羈縻로 부리는 것과 같다는 뜻에서 하는 말이다. 이렇듯 속박하고 얹어매는 견제·통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민족에 대한 외교정책의 한 방식을 지칭하게 되었다. 漢代에는 주변 민족들이 조공을 바치러 오면 물리치지 않고 받아들이고 변방을 공격하면 군사적으로 물리쳤지만, 그들을 공격하여 지배하고 漢人 관리를 파견하여 직접 통치하는 적극정책이나 일체의 외교관계를 단절하는 방임정책도 아닌 일종의 소극적인 외교정책의 형태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의미의 기미정책의 전형적인 형태는 唐代 전기에서 볼 수 있다. 명목상으로는 郡縣制를 채택하여 府·州·縣을 두고, 다른 민족의 왕·추장을 都督·刺史·縣令 등에 임명하여 자치하도록 하고, 보호령으로서 都護府 등을 두어 감독하게 하였다. 번창했을 때에는 羈縻府·州가 856개나 되었다고 한다. 북서의 돌궐·위구르, 북동의 거란, 중앙아시아의 여러 오아시스로부터 남서의 티베트와 마오족(苗族)의 땅에 이르기까지 이런 식으로 통치하였다. 독립국으로 인정할 수도 없고, 직할령으로 만들 수도 없는 주변 민족들에 대해서 취해진 정책으로, 세계 여러 나라를 지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明代에는 자신의 영역 바깥의 이민족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영역 안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에 대해서도 일종의 기미정책을 펼쳤다고 할 수 있다. 명조의 土司에 대한 정책은 일종의 기미정책이라 할 수 있다.

등지에 위소(衛所)<sup>13)</sup>를 설립하고, 파주를 준의(遵義)<sup>14)</sup>와 평월(平越) 2부(府)로 바꾼 후에야 조금 평안해졌다 일컬어진다.

## 烏蒙烏撒東川鎮雄四軍民府

오몽오살동천진웅사군민부

烏蒙·烏撒·東川·芒部, 古爲竇地·的巴·東川·大雄諸甸, 皆唐烏蒙裔也. 宋有封烏蒙王者. 元初置烏蒙路, 遂以東川·芒部皆隸於烏蒙·烏撒等處宣慰司. 烏撒富盛甲諸部, 元時嘗置軍民總管府, 而於東川置萬戶府. 地勢并在蜀之東南, 與滇·黔壤土相接, 皆據險阻深, 與中土聲教隔離.

오몽·오살·동천·망부는 옛날 두지(竇地)·적파(的巴)·동천(東川)·대웅(大雄) 지역으로 모두 당대(唐代) 오몽(烏蒙)의 후예들이다. 송대(宋代)에는 오몽왕(烏蒙王)을 봉했다. 원초(元初)에는 오몽로(烏蒙路)를 설치하고 드디어 동천(東川)·망부(芒部)를 모두 오몽·오살등 처선위사(烏蒙·烏撒等處宣慰司)에 예속시켰다. 오살의 부요(富饒)와 창성(昌盛)은 여러 부족(部族) 가운데 으뜸이었는데, 원대에는 일찍이 군민총관부(軍民總管府)를 설치하였고 동천에는 만호부(萬戶府)<sup>15)</sup>를 설치하였다. 그 땅은 촉(蜀)의 동남방에 위치하여 전·검과 붙어

13) 衛所: 明太祖가 만든 명대의 군사제도로서 兵農合一의 정신을 지향하였다. 명대의 초기 규정에 따르면 衛에는 5,600명의 군사가 배치되었다. 그 아래로는 千戶所와 百戶所가 설치되었는데 각각 1,120명과 112명의 군사가 배치되었다. 전국적으로 493개의 衛가 설치되었는데, 여기에는 단독으로 설치된 천호소는 포함되지 않았다. 병사들의 호적은 軍籍이라 하였으며 이들은 軍戶 신분이 세습되었다. 군적에 기재된 인원은 모두 270여만 명에 달했는데 일부만 현역으로 복무했고 대부분은 屯田을 경작했다. 하지만 장수들이 둔전을 사유화하면서 생활이 곤란해진 군호들이 도주하기 시작해 衛所制는 사실상 붕괴되었다. 명 중기 이후에는 장수들이 직접 군사들을 모집하고 훈련시켜 북변 방위와 왜구 방어에 나서기도 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는 戚繼光이 浙江省 義烏 등지에서 모병한 戚家軍이었다.

14) 遵義: 遵義府를 일컫는다. 萬曆 29년(1601)에 改土歸流하여 遵義府를 설치하고 四川省에 귀속시켰다. 淸 雍正 5년(1727)에 遵義府를 四川省에서 貴州省으로 바꾸어 귀속시켰다. 府治는 지금의 貴州省 遵義市이다.

15) 萬戶府: 金나라 초에 설치된 관청으로 그 장인 萬戶는 世襲軍職이다. 都統에 예속되어 千戶(猛安)·百戶(謀克)를統領하였다. 元代에도 이를 이어받아 萬戶府를 설치했는데 樞密院에 예속시켰으며, 각 路에

있었으며, 모두 지세의 험요에 의지하는 바가 심하여 중토(中土)의 교화(教化)로부터 격리되어 있었다.

明太祖旣平蜀，規取雲南，大師皆集於辰·沅，欲并剪諸蠻以通蜀道。洪武十四年遣內臣齎敕諭烏蒙·烏撒諸部長曰：「西南諸部，自古及今，莫不朝貢中國。朕受天命爲天下主十有五年，而烏蒙·烏撒·東川·芒部·建昌諸部長猶桀驚不朝。朕已遣征南將軍穎川侯·左副將軍永昌侯·右副將軍西平侯率師往征。猶恐諸部長未喻朕意，故復遣內臣往諭。如悔罪向義，當卽躬親來朝，或遣人入貢，亟摠誠款，朕當罷兵，以安黎庶。爾共省之。」

명 태조가 촉을 평정하고 나서<sup>16)</sup> 운남을 취하려 도모하여 대군을 진주부(辰州府)와 원주부(沅州府)에 모두 모아 여러 만족(蠻族)들을 없애고 촉으로 통하는 길을 내고자 하였다. 홍무(洪武)<sup>17)</sup> 14년(1381)에 내신(內臣)<sup>18)</sup>에게 칙서를 갖고 가게 하여 오몽·오살의 각 부족 추장

駐劄하는 萬戶는 行省에 分屬시켰다. 萬戶府는 千戶所를 統領했는데, 7천 명 이상의 군사를 통솔하는 萬戶를 上萬戶府라 칭하고, 5천 이상을 통솔하는 萬戶를 中萬戶府, 3천 이상을 통솔하는 萬戶를 下萬戶府라 칭하였다. 路의 萬戶府는 각기 達魯花赤 1명, 萬戶(正3品) 1명을 두었다.

16) 『太祖實錄』卷60 洪武 4년 정월 丁亥條에 따르면, 明 太祖 朱元璋이 四川 평정을 최초로 명령한 시점은 洪武 4년(1371) 정월이었다. 이때 주원장은 天地의 神들에게 제사를 지낸 다음, 中山侯 湯和를 征西將軍으로, 江夏侯 周德興을 左副將軍, 德慶侯 廖永忠을 右副將軍으로 삼고, 營陽侯 楊璟과 都督僉事 葉昇에게 首都를 지키는 衛所의 군사를 이끌고 湖廣에서 배를 타고 瞿塘峽을 지나 夏의 首都인 重慶으로 진격하라고 명하였다. 동시에 穎川侯 傅友德을 征虜前將軍으로, 濟寧侯 顧時를 左副將軍으로 삼고, 都督僉事 何文輝 등에게 河南·陝西 지방의 보병과 기병을 이끌고 陝西에서 四川 成都로 진격하도록 명령하였다. 당시 夏에서는 先主 明玉珍이 사망하고 아들 明昇이 뒤를 이어 지배하고 있었다. 군대를 파견하면서 주원장은 宋初에 사천의 後蜀을 정복하려 갔던 武將 王全斌이 투항한 後蜀의 軍人和 민간인을 대량으로 학살하여 宋이 사천을 평정하는 데 상당한 곤란을 겪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군대의 紀律을 잡고 투항하는 자들을 죽이지 말도록 지시하였다. 『太祖實錄』卷66 洪武 4년 6월 癸卯條에 따르면, 中山侯 湯和 등이 이끄는 明軍이 夏의 수도인 重慶을 점령하고 夏의 後主 明昇과 그의 母親 彭氏로부터 투항을 받은 날짜는 洪武 4년(1371) 6월 癸卯日이다.

17) 洪武: 明朝를 창업한 太祖 朱元璋의 年號이다. 한편 明 太祖 이래로 1世 1元, 즉 한 황제가 하나의 연호만을 제정하여 사용하는 제도가 확립되어 관례화하였다. 明·淸 시대 중국의 황제는 하나의 연호만을 제정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던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明朝의 英宗만이 正統

에게 효유하여 이르기를, “서남의 여러 부족들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중국에 조공하지 않음이 없었다. 짐이 천명을 받아 천하의 주인 노릇한 지가 15년이 지났으나 오몽·오살·동천·망부·건창의 여러 부족 추장들은 오히려 사납고 교만하여 조근하지 않고 있다. 짐은 이미 정남장군(征南將軍) 영천후(潁川侯)<sup>19)</sup>·좌부장군(左副將軍) 영창후(永昌侯)<sup>20)</sup>·우부장군(右副將軍)

(1336~1449)과 天順(1457~1464)이라는 두 개의 연호를 사용한 바 있다.

18) 內臣: 文字의으로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 첫째는 國內의 臣僚라는 의미, 둘째는 宮廷의 近臣이라는 의미, 셋째는 宦官을 의미한다. 『太祖實錄』 卷140 洪武 14년 12월 辛未條의 원문에도 內臣을 보냈다고만 기록되어 있어서 內臣의 구체적인 신분이 분명하지 않다. 다만 명초부터 대외 사신으로 환관을 임명한 사례가 많으므로 여기에서도 세 번째 의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주원장은 환관에게 정치나 군사업무 같은 중책을 맡기지 않고 황제가 심부름꾼으로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면 환관의 위협이나 화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심부름꾼으로서 환관을 외국에 사신이나 변방에 사자로 보낸 사례가 많았다. 우선 외국에 사신으로 파견한 경우는 홍무 2년(1369)에 고려 출신 金麗淵을 파견하여 명에 살고 있는 고려 유랑민 160여 명을 고려에 귀환시켰다. 이는 명대 환관이 외국에 출사한 최초의 사례이다. 홍무 10년(1377)에 안남국왕이 사망하자 환관 陳能을 보내 조문하게 하였다. 홍무 16년(1383)에 환관 梁民을 유구로 보내 중산왕에게 鍍金印을 주었다. 변방으로 파견한 사례로는 우선 홍무 원년(1368) 徐達이元の大都를 점령하자 환관을 보내 군사들에게 음식을 내리고 위로한 것이 있다. 홍무 8년(1375)에는 환관 趙晟에게 비단과 차를 가지고 西番 互市에 가서 회유하게 하였다. 홍무 11년(1378)에 귀주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환관 吳誠을 보내 명 군대의 작전 상황을 살피게 하였고 또 환관 呂玉을 파견하여 군사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全淳東, 2012 :122~123).

19) 征南將軍 潁川侯: 傅友德(?~1394)을 일컫음. 明朝의 開國 名將이다. 安徽省 宿州에 거주하다가 후에 안휘성 居碭山으로 이주하였다. 어려서부터 용맹하고 말타기와 활쏘기에 능하였는데 元末에 백련교 반란이 일어나자 劉福通의 군대에 가담하였다. 李喜喜를 따라서 四川으로 들어갔다가 후에 明玉珍에게 투항하였으나 명옥진이 등용하지 않자 武昌으로 가서 陳友諒에게 투항했다. 元 至正 21년(1361)에 朱元璋이 江州(지금의 江西 九江)를 공격하자 부우덕은 무리를 이끌고 투항했다. 주원장이 그의 재주를 기이하게 여겨 군사를 주어 廬州(지금의 安徽 合肥)를 공략하게 했다. 이후 鄱陽湖의 전투에 참전하여 진우량의 군대에 큰 타격을 입혔다. 그 후 호북, 강소 일대의 전장을 누비며 전공을 세우고 江淮行省 參知政事로 승진했다. 洪武 元年(1368) 5월에서 8월 사이에 산둥 臨淸 일대에 주둔했으며, 그해 11월에서 12월에 太原에서 벌어진 擴廓帖木兒(Köke Temür)와의 전투에서 元軍을 물리쳤다. 洪武 3년(1370)에 徐達을 따라 서쪽으로 진공하여 擴廓帖木兒의 군대를 크게 격파하고 사천으로 진격하고 나아가 漢中을 취하였다. 이 전공으로 이해 말에 潁川侯에 봉해졌다. 朱元璋은 「平西蜀文」에서 부우덕의 공이 첫째라고 상찬하였다. 洪武 5년(1372)에 주원장이 두 번째로 北征을 지시하였을 때, 부우덕은 감숙 일대의 원군과 일곱 번 싸워 모두 승리하고 평정하였다. 洪武 13년(1380)에 朱元璋은 徐達, 湯和, 傅友德에게 바다와 육지로 遼東으로 가서 나하추(納哈出)와 高麗가 연합하지 못하게 하였다. 洪武 14년(1381) 9월에 征南將軍의 벼슬을 받고 左副將軍 藍玉, 右副將軍 沐英과 함께 步兵과 騎兵 30만을 이끌고 雲南을 정벌하여 元軍을 격파하고 평정하였다. 洪武 17년(1384)에는 潁國公에 봉해졌다. 洪武 20년(1387)에

서평후(西平侯)<sup>21)</sup>를 보내 군사를 이끌고 가서 정토(征討)하게 하였다. 그런데 여러 부족의

제5차 北征沙漠 및 洪武 23년(1390) 제7차 北征沙漠에도 참전하여 전공을 세우고 太子太師의 벼슬을 더하였다. 太祖는 晩年에 독재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신들을 대거 숙청하였는데, 이때 부우덕도 숙청 당했다. 洪武 27년(1394) 朱元璋이 문무관원을 모아 놓고 연회를 베풀면서 갑자기 부우덕의 둘째 아들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으며 부우덕에게 둘째의 목을 베어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둘째 아들의 목을 베어오자 주원장은 아직도 분을 삭이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부우덕은 “단지 저희 부자의 머리만을 원하실 뿐이다”며 주원장의 면전에서 자결했다. 주원장은 傳家의 모든 남녀들을 요동과 운남으로 유배시켰다. 큰아들 傳雍은禍를 면하고서 주원장의 외손자인 壽春公主의 아들 집에서 살았다. 崇禎 17년(1644)에 가서야 麗江王으로 追尊되고, 武靖이라는 諡號를 받았다(『明史』 卷129 「傳友德傳」).

- 20) 左副將軍 永昌侯: 藍玉(?~1393)을 일컬음. 明初의 명장으로 명조의 개국공신인 常遇春의 처남이며, 安徽 濠州 定遠 사람이다. 상우춘의 막하에 있으면서 여러 차례 전공을 세워 管軍鎮武, 千戶, 指揮使 등을 지냈다. 洪武 4년(1371)에 征西將軍 傅友德을 따라 四川으로 출정하여 成都를 점령하였다. 이듬해에 주원장의 제2차 北征沙漠에 참전하여 徐達의 中路軍에 배속되어 선봉으로 활약하며 擴廓帖木兒(Köke Temür)의 元軍을 무찔렀다. 洪武 11년(1378)에는 沐英과 함께 西蕃의 叛亂을 진압하였으며, 洪武 14년(1381)에 永昌侯에 봉해졌다. 또한 이해에 左副將軍으로서 傅友德을 따라서 운남을 정복하는데 큰 공을 세워 俸祿 500石을 추가로 받고, 그의 딸이 蜀王 朱椿의 妃로 책봉되었다. 洪武 20년(1387), 21년(1388)에 北元 세력을 공격하여 北元의 皇太子와 諸王, 妃, 公主 등을 사로잡으니 朱元璋이 크게 기뻐하여 涼國公에 봉하였다. 이후에도 貴州, 蘭州 등지에서 여러 차례 전공을 세워 太子太傅에 임명되었다. 교만하고 전횡을 하여 주원장에게서 여러 차례 질책을 당하고 벼슬을 강등당하기도 했다. 洪武 26년(1393)에 錦衣衛가 모반 혐의로 고발하여 鞫問을 당하는 중에 景川侯 曹震, 鶴壽侯 張翼, 舳艫侯 朱壽, 定遠侯 王弼, 東筦伯 何榮 및 吏部尙書 詹徽, 戶部侍郎 傅友文 등과 모반했다고 진술하여 친족들과 함께 처형당했다. 독재권력을 강화하려던 주원장은 이 사건으로 公·侯·伯 및 文武官員 15,000여 명을 연루시켜 죽였다. 주원장은 신하들에게 경계하라는 의미로 『逆臣錄』을 반포했는데, 여기에는 반역에 가담했다는 1公, 13侯, 2伯의 이름과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이 사건이 이른바 藍玉案이다(『明史』 卷129 「藍玉傳」).

- 21) 右副將軍 西平侯: 沐英(1344~1392)을 일컬음. 朱元璋의 義子로서 安徽省 鳳陽府 定遠 사람이며 명초의 개국 명장이다. 어려서부터 朱元璋을 따라서 여러 전투에 참가하였으며, 명조가 건립된 후에는 雲南에 주둔하면서 屯田을 크게 일으켰고, 그 후손들은 明末까지 대대로 雲南에서 살았다. 洪武 3년(1370)에 鎮國將軍으로 봉해지고 大都督府 僉事에 임명되었다. 이듬해에 大都督府 同知로 승진하였다. 당시 大都督府는 軍事의 중추로서 兵馬를 관장하였는데 기밀업무가 산적했다. 그는 大都督府에서 7년간 근무하면서 과감하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여 朱元璋의 신임을 받았다. 洪武 10년(1377)에 征西副將軍에 임명되어 鄧愈를 따라서 吐蕃 공격에 참가하였으며, 공을 세워 西平侯로 봉해졌다. 洪武 14년(1381) 9월에는 征南將軍 傅友德, 左副將軍 藍玉과 함께 右副將軍으로서 30만 병사를 이끌고 운남 평정에 참여하였다. 명군은 通海에 屯田을 설치하고 臨安衛에 소속시켰는데, 둔전군 2,228명, 권속 1,325명, 예비역 1,500명 합계 5,053명이 주둔했다. 明의 법령에 따르면 軍戶는 永充하는 것으로 士卒들은 家屬과 함께 둔전을 경작하며 그 지역의 民戶들과 混居할 수 없었다. 그러나 沐英은 屯田을 크게 일으켜 경작하

주장들이 짐의 뜻을 깨우치지 못할까 염려하여 다시 내신을 보내 효유하노라. 만일 죄를 뉘우치고 의로움으로 향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즉시 와서 조근하거나 혹은 사람을 보내 진공(進貢)하여 신속하게 성의를 표시하라. 그러면 짐은 마땅히 군대를 물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은 모두 짐의 뜻을 살피라”고 하였다.<sup>22)</sup>

時征南將軍傅友德已分遣都督胡海洋等帥師五萬，由永寧趨烏撒，復自率師由曲靖循格孤山而南，以通永寧之兵，搗烏撒。時元右丞實卜聞海洋兵至，乃聚兵赤水河以拒之。及聞大軍繼進，皆遁。友德令諸軍築城，版牘方具，蠻寇大集。友德屯兵山岡，持重以待。既知士勇可用，乃縱兵接戰。有芒部土酋率衆來援，實卜兵與合，鋒甚銳。大軍鼓噪而前，其酋長多中槩墜馬死。大軍益奮，蠻衆力不支，大潰，斬首三千，獲馬六百，實卜率衆遁。遂城烏撒，克七星關以通畢節，又克可渡河，於是東川·烏蒙·芒部諸蠻震讙，皆望風降附。

이때 정남장군 부우덕이 이미 도독(都督)<sup>23)</sup> 호해양(胡海洋)<sup>24)</sup> 등이 거느리는 군사 5만을 나누어 파견하고 영녕(永寧)<sup>25)</sup>에서 오살로 급히 가게 했으며 다시 스스로 군대를 이끌고

고 군량을 자급함으로써 서남지방이 안정되었다. 그는 임지인 雲南에서 사망하였는데, 南京으로 옮겨져 장사지냈고 黔寧王으로 追封되었다. 諡號를 昭靖이라 했다(『明史』卷126 「沐英傳」).

22) 明 太祖가 보낸 勅書의 원문은 『太祖實錄』卷140 洪武 14년 12월 辛未條에 수록되어 있다.

23) 都督: 明代 전국의 군대를 통괄하는 五軍都督府의 長을 말한다. 左·右都督이 있으며, 品階는 正一品이고, 그 밑에 從一品인 都督同知와 正二品인 都督僉事가 이를 보좌하였다.

24) 胡海洋(1329~1391): 원래 이름은 胡海이고, 字는 海洋이며, 安徽省 鳳陽府 定遠 사람이다. 일찍이 土豪인 赤塘 王總管의 군영에 의탁하였다가 주원장에게 투항하여 百戶의 벼슬을 받았다. 元의 장수 賈魯의 군대를 무찌르고 泗州, 滁州 등지를 점령하여 萬戶로 승진하였다. 양자강을 도강하여 集慶(지금의 남경), 鎮江을 점령하고 강남 일대의 평정에 큰 공을 세웠다. 이후 湖廣의 荊州, 澧州, 衡州, 潭州 등을 점령하였으며, 洪武 17년(1384)의 논공행상에서 東川侯로 봉해져 2,500石을 祿으로 받았다. 洪武 24년(1391)에 사망했다. 그의 長子 斌은 龍虎衛 指揮使로서 雲南 공격에 참가했다가 전사했고, 둘째 아들 玉은 藍玉의 案에 연루되어 처형당했으며, 셋째 아들 觀은 南康公主에게 장가들어 駙馬都尉가 되었다.

25) 永寧: 永寧府로 보이는데, 元나라 때에는 永寧州로 麗江路에 속했다. 洪武 15년(1382)에 北勝府로 바뀌어 예속시켰다가 洪武 17년(1384)에 鶴慶府에 예속시켰으며, 洪武 29년(1396)에 瀾滄軍民衛에 속하게 했다. 이후 永樂 4년(1406)에 永寧府로 승격시켜 布政司에 속하게 했다. 지금의 雲南省 麗江市 寧蒗彝族自治县

곡정(曲靖)<sup>26)</sup>에서 격고산(格孤山)<sup>27)</sup>을 돌아 남으로 향하여 영녕의 군사들과 연락하여 오살을 공격했다. 그때 원의 우승(右丞) 실복(實卜)이 호해양의 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적수하(赤水河)에 군사를 모아 항거하였다. 대군이 잇달아 온다는 소식을 듣자 모두 도주하였다. 부우덕이 각 군대에 성을 쌓도록 하여 축성 도구들을 막 갖추자 만구(蠻寇)들이 크게 모였다. 부우덕은 군사들을 산등성이에 주둔하게 하고 신중하게 때를 기다리게 했다. 병사들의 용기가 싸울 정도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 군대를 풀어 접전했다. 망부의 토추장(土酋長)들이 무리를 이끌고 도와주러 와서 실복의 군사와 합하니, 그 기세가 무척 드셧다. 대군이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며 앞으로 나아가자 그 추장들 가운데 창을 맞고 말에서 떨어져 죽는 자가 많았다. 대군이 더욱 힘을 내어 싸우니 만족 무리들은 견디지 못하고 크게 무너져, [대군이] 3천을 참수하고 말 6백 필을 노획하였으며 실복은 무리를 이끌고 도주했다. 드디어 오살성을 쌓고 칠성관(七星關)<sup>28)</sup>을 공격하여 함락하고서 필절(畢節)<sup>29)</sup>과 통하였으며, 또 가도하(可渡河)를 공격해 함락시켰다. 이에 동천·오몽·망부 등 여러 만족이 놀라고 두려워하여 모두 소문을 듣고 항복했다.<sup>30)</sup>

十五年置東川·烏撒·烏蒙·芒部諸衛指揮使司，詔諭諸部人民，以雲南已降附，宜益效順中國，以享升平。復諭諸部長曰：「今置郵傳通雲南，宜率土人，隨其疆界遠邇，開

自治縣 지역이다.

26) 曲靖: 曲靖軍民府를 일컫는다. 洪武 14년(1381)에 曲靖路總管府를 고쳐 曲靖府라 했으며, 洪武 27년(1394)에 曲靖府를 승격하여 曲靖軍民府라 했다. 雲南省 동북부에 위치해 있는데, 동으로는 貴州省·廣西壯族自治區와 인접해 있고, 남으로는 文山州·紅河州와 접해 있으며, 서로는 昆明市·東川市와 連接해 있고, 북으로는 昭通地區와 貴州 畢節地區에 기대어 있다. 曲靖은 ‘滇黔鎖鑰’, ‘雲南咽喉’로 칭해지는 지역이다.

27) 格孤山: 지금의 貴州 盤縣의 동북쪽에 위치한 산으로 속칭 故孤山이라고도 한다. 산세가 웅장하며 운남, 사천의 경계에 위치해 있다.

28) 七星關: 貴州 서북부에 위치한 關塞이다. 서쪽으로는 雲南 鎮雄縣과 연결되고, 북쪽으로는 四川의 古蘭, 叙永 두 縣으로 연결되는 요충지이다.

29) 畢節: 秦代에 이곳에 漢陽縣이 설치되었고, 漢代에는 平夷郡, 唐代에는 羈縻州, 宋代에는 羈縻祿州, 元代에는 平遠安得長官司가 각각 설치되었다. 洪武 17년(1384)에 畢節衛, 赤水衛가 설치되었는데, 淸康熙 26년(1687)에는 두 개의 衛를 합병하여 畢節縣을 설치했다.

30) 관련 사항은 『太祖實錄』 卷140 洪武 14년 12월 庚辰條에 수록되어 있다.

築道路，各廣十丈，准古法，以六十里爲一驛。符至奉行。」又敕征南將軍友德等曰：「烏蒙·烏撒·東川·芒部諸酋長雖已降，恐大軍一還，仍復嘯聚。符到日，悉送其酋長入朝。」又諭以「貴州已設都指揮使，然地勢偏東，今宜於實卜所居之地立司，以便控制，卿其審之。」

[홍무] 15년(1382)에 동천·오살·오몽·망부의 여러 위에 지휘사사(指揮使司)를 설치하고<sup>31)</sup> 여러 부족 백성들에게 조서(詔書)<sup>32)</sup>를 내려 효유했다. 운남(雲南)이 이미 투항하였으니 마땅히 더욱 중국에 순종하여 승평(升平)의 때를 누리도록 하라고 했다.<sup>33)</sup> 다시 여러 부족의 주장들에게 효유하여 이르기를, “이제 우전(郵傳)<sup>34)</sup>을 설치하여 운남과 연락이 통하게 하려

- 31) 『太祖實錄』 卷141 洪武 15년 정월 丁亥條에 따르면 이때 雲南 左·右·前·後·普定·黃平·建昌·東川·烏撒·普安·水西·烏蒙·芒部·尾洒의 14衛에 指揮使司를 설치했다.
- 32) 詔: 황제가 관리와 천하의 백성들에게 내리는 문서를 말한다. 周代에는 君臣 모두가 ‘조서’라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秦이 천하를 통일한 후, 진시황이 자신을 이른바 “삼황의 덕을 겸비하고, 공은 五帝보다 드높다(德兼三皇, 功高五帝)”라는 견지에서 자신을 황제로 칭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詔’라 부르게 되었다. 唐·宋 시기에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元代에 다시 사용하게 되었으며, 明代에는 조서를 이용하여 중대한 명령을 반포하거나 신하들을 훈계했다. 명대에 황제가 반포하는 문서에는 詔·誥·鐵券·制·勅·駕貼·冊文·諭·書·令·符·檄·批答·赦書 등이 있었다. 詔는 중대한 政令을 천하의 臣民에게 포고할 때 사용하는 문서이다.
- 33) 이 내용은 『太祖實錄』 卷141 洪武 15년 정월 庚戌條에 근거한 것이다. 원문의 짧고 부드러운 어조와는 달리 실제로 주원장이 보낸 詔諭는 부드러운 내용뿐만 아니라 명의 지배를 따르지 않으면 언제든 지군사를 내어 공격하겠다는 강경한 내용도 담고 있다. 명 초기 서남지역 소수민족에 대한 명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밝힌 문서로 평가할 수 있다. 詔諭를 보내는 대상은 東川·烏撒·烏蒙 등처의 人民들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나라의 정치가 어지러워져 천하에 호걸들이 종횡하였는데 짐이 이들을 구축하고 천하를 안정시키고 홍무 연호를 개원한 지 15년이 되어 華夏와 蠻貊이 모두 복종하고 있다. 둘째, 오직 東川·烏撒·烏蒙·芒部·建昌의 諸夷들만이 저항하고 복종하지 않았다. 셋째, 이에 征南將軍 穎川侯 傅友德·左副將軍 永昌侯 藍玉·右副將軍 西平侯 沐英 등에게 30만 군사를 거느리게 하여 西南 諸夷의 罪를 묻게 하였다. 넷째, 雲南의 部落들이 이미 항복하였으므로 사신을 보내 諸夷들에게 詔諭를 보내 알리노니 이후로 教化를 따르지 않는 자는 곧 군사를 내어 토벌할 것이다. 春秋之義를 가장 크게 거스르는 것이 王命을 거역하는 것이니 너희들은 마음을 씻어 새롭게 하여 중국에 孝順하면 朕이 一視同仁으로 대할 것이다.
- 34) 郵傳: 驛傳, 즉 驛站을 말한다. 명대에는 北京을 중심으로 7大 路程이 있었는데, 이 노정에 따라서 馬驛·水驛·遞運所·急遞所 등 4種의 驛傳이 있었다. 또한 이 驛傳에는 內地의 驛傳과 邊地의 驛傳이

하니, 마땅히 토인(土人)들을 이끌고 각자 강계(疆界)의 멀고 가까움에 따라서 도로를 닦되 각각 그 폭은 10장(丈)으로 하고 고법(古法)에 따라서 60리<sup>35)</sup>마다 역을 하나씩 만들라. 부절(符節)이 이르면 봉행하라”고 하였다.<sup>36)</sup> 또 정남장군 부우덕 등에게 칙서를 내려 이르기를, “오몽·오살·동천·망부의 여러 주장들이 비록 항복했으나 대군이 한번 돌아오면 예전처럼 다시 모여 소란을 피울까 염려된다. 부절이 도착하는 날 주장들을 모두 보내어 입조(入朝)하게 하라”고 하였다. 또 효유하기를, “귀주에는 이미 도지휘사(都指揮使)<sup>37)</sup>를 설치하였으나 지세가 동쪽으로 치우쳐 있으므로, 이제 실복이 거처하던 곳에 도지휘사사(都指揮使司)를 세워 제어하는 것이 마땅하니, 경은 이를 자세히 헤아려보라”고 하였다.<sup>38)</sup>

已，烏撒諸蠻復叛，帝諭友德曰：「烏撒諸蠻伺官軍散處，卽有此變，朕前已慮之，今果

있었다.

35) 里: 明代에 길이를 표시하는 尺度는 裁衣尺·量地尺·營造尺으로 구분하여 사용되었다. 量地尺의 1리는 360步이고, 1步는 『算法統宗』卷3에 따르면 ‘五尺爲一步’로 되어 있다. 따라서 1리는 1,800尺이며,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리는 576m이다.

36) 이 내용은 『太祖實錄』卷142 洪武 15년 2월 癸丑條에 근거한 것이다. 원문에는 水西·東川·烏撒·烏蒙·芒部·霑益의 여러 酋長들에게 토인을 이끌고 도로를 닦고 驛을 건설하라는 명령 이외에 播州宣慰使楊鏗에게 통보하는 내용 즉 明의 致仕武官에게 分守雲南하게 하였는데 每官 한 사람당 甲兵 55명을 호위 병사로 보낼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37) 都指揮使: 五代에 처음으로 군사를 통솔하는 장수를 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資治通鑑』「後梁均王乾化四年」條에 대한 胡三省의 注에 ‘此都指揮使盡統諸將，非一都直指指揮使’라고 기재된 것이 그런 사례이다. 宋代에 殿前司，侍衛親軍步軍司，侍衛親軍馬軍司의 各軍은 모두 都指揮使가 통솔했다. 遼代에는 南面官과 北面官，金代에는 殿前司，京城武衛軍，諸總管府에 모두 都指揮使를 설치하였다. 元代에는 各軍都指揮司와 兵馬指揮使司를 두고 都指揮使，副都指揮使 등의 관직을 설치했다. 明代에는 각지에 衛所를 두고 그 위에 都指揮使司라는 상설 통솔기구를 설치했고 이를 줄여서 都司라고도 하는데, 그 장관을 都指揮使라 했다. 洪武 8년(1375)에는 在京留守都衛를 留守衛指揮使司로 고치고 諸外都衛를 都指揮使司로 고쳐 처음으로 十三都指揮使司를 설치하였다. 洪武 26년(1393)에는 天下의 都司衛所를 정하였는데 都司 17, 留守司 1, 内外衛 329, 守禦千戶所 65개에 달했다. 都指揮使司는 처음에 大都督府에 예속되었는데, 洪武 13년(1380)에 丞相 胡惟庸의 모반사건으로 中書省이 폐지되고 大都督府는 다섯으로 나뉘어 五軍都督府로 바뀌었다. 이후에 都指揮使司는 五軍都督府에 소속되었다. 明初에는 都指揮使와 布政使，按察使를 병칭하여 三司라고 했는데 모두 封疆大吏였다.

38) 관련 사항은 『太祖實錄』卷142 洪武 15년 2월 戊午條에 수록되어 있다.

然。然雲南之地如曲靖·普安·烏撒·建昌，勢在必守，其東川·芒部·烏蒙，未可遽守也。且留屯大軍蕩埽諸蠻，戮其渠長，方可分兵守御耳。」乃命安陸侯吳復爲總兵，平涼侯費聚副之，征烏撒·烏蒙諸叛蠻。并諭勿與蠻戰於關索嶺上，當分兵掩襲，直搗其巢，使彼各奔救其家不暇，必不敢出以抗大師。俟三將軍至，破擒之。是月，副將軍西平侯沐英自大理還軍，會友德擊烏撒，大敗其衆，斬首三萬餘級，獲馬牛羊萬計，餘衆悉遁，復追擊破之。帝諭友德等，師捷後，必戮其渠魁，使之畏懼。搜其餘黨，絕其根株，使彼智窮力屈，誠心款附，方可留兵鎮守。又諭宜乘兵勢修治道途，令土酋諭其民，各輸糧一石以給軍，爲持久計。

오래지 않아서 오살의 여러 만족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키자, 황제가 부우덕에게 유지를 내려 이르기를, “오살의 여러 만족들이 관군들이 곳곳으로 흩어지는 것을 엿보고 곧 변란을 일으켰고, 짐은 이전에 이미 [이들] 염려했는데 지금이 과연 그러하다. 그러나 운남의 곡정·보안·오살·견창과 같은 곳은 형세를 보건대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동천·망부·오몽은 [변고가 생기면 병사를 보내] 재빨리 지킬 수가 없다. 장차 대군을 머물러 주둔시켜 여러 만족들을 쓸어버리고 대두목을 죽이고서야 바야흐로 병사를 나누어 지킬 수 있다”고 하였다.<sup>39)</sup> 이에 안륙후(安陸侯) 오복(吳復)을 총병(總兵)<sup>40)</sup>으로, 평량후(平涼侯) 비취(費聚)를 부총병(副總

39) 관련 사항은 『太祖實錄』 卷144 洪武 15년 4월 己亥條에 기록되어 있다.吉安侯 陸仲亨이 사자를 보내어 烏撒의 諸蠻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켰다고 보고한 것에 대한 주원장의 조치이다.

40) 總兵: 明初에 邊區에 주둔하던 統兵官에는 總兵과 副總兵이 있었고, 통솔하는 병사의 수나 定員, 位階에 정해진 사항은 없었다. 明朝는 唐, 宋, 元의 兵制를 계승 발전시켜 衛所制度를 만들었다. 中央에서 地方에 이르기까지 병제 체계는 五軍都督府, 都司(=都指揮使司), 衛所로 구성되었다. 五軍都督府와 都司가 중앙과 지방의 最高 軍事機構였다. 都司에서 이끄는 衛所는 五軍都督府에 소속되어 兵部의 명령을 따랐다. 五軍都督府의 每府에는 左·右都督(正一品), 都督同知(從一品), 都督簽事(正二品)가 설치되었다. 각 都司에는 최고의 군사장관인 都指揮使가 설치되었으나 전쟁이 발발하면 朝廷에서는 總兵官을 파견하였는데 左·右都督, 都督同知, 都督簽事 및 公, 侯, 伯으로 充任했다. 明代의 總兵은 洪武 2년(1369)에 처음 설치되었는데, 이후 洪武 4년(1371), 7년(1374), 12년(1387)에도 總兵이 임명되었다. 建文 2년(1400)에도 李景隆를 平燕將軍으로 명령하고 總兵官에 충임시켰는데, 洪熙 元年(1425)에 비로소 여러 邊將들에게 將軍印을 내리고 그 가운데 總兵 4명, 參將 4명을 임명했다. 다만 薊鎮에 주둔하는 總兵에게는 將軍印을 주지 않았다. 總兵官을 지방에 주둔하는 최고 軍事長官이 되게 한 이후에 병사를 훈련시키되 作戰을 지휘하지는 않게 했다. 작전을 지휘하는 將領이 병사들의 훈련에는 관여하지 않게

兵)으로 삼아 오살·오몽의 반란을 일으킨 만족들을 정토하도록 명령했다. 아울러 유지를 내려, 만족들과 더불어 관색령(關索嶺) 위에서 싸우지 말고 병사를 나누어 몰래 습격하여 그들의 소굴을 직접 공격하라고 했으며, [그러면] 저들로 하여금 각각 자기 집안을 구원하느라 겨를이 없게 할 것인즉 [그들이] 반드시 감히 나아와 대군에 맞서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sup>41)</sup> 세 장군이 도착하기를 기다려 이들을 깨뜨리고 사로잡았다. 이 달에 부장군(副將軍) 서평후(西平侯) 목영(沐英)이 대리(大理)<sup>42)</sup>에서 군사를 돌이켜 부우덕[의 군대]과 만나, 오살을 공격하여 그 무리를 크게 물리치고 3만여 명의 목을 베고 만여 마리의 말·소·양을 노획했으며, 나머지 무리가 모두 도망하므로 다시 추격하여 격파했다.<sup>43)</sup> 황제가 부우덕 등에게 유지를 내리기를, 군대가 승리를 거둔 후에는 반드시 대두목을 죽여 그들이 두려워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잔당들을 찾아내어 그 뿌리를 끊어서 그들의 지혜가 궁해지고 힘이 다하여 성심으로 귀부하게 하여야 비로소 병사를 주둔시켜 진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유지를 내리기를, 마땅히 군대의 위세를 빌려 도로를 닦고 유지하며, 토추장(土酋長)에게 자신의 백성들을 효유하여 각각 양식 1석씩을 군대에 바치게 해서 오래 주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sup>44)</sup>

되면서부터 軍隊의 전투력은 제고되었다. 그러나 總兵이 한 지방에서 많은 군사를 장악하여 홀로 패권을 행사하는 것은 中央集權을 유지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전쟁이 발발하면 朝廷에서는 별도로 또 관원을 파견하였는데 이를 巡撫라고 칭했다. 巡撫는 군대를 관리하면서 總兵官의 권력을 약화시켰다. 따라서 巡撫는 처음에는 단지 임시로 맡겨진 임무만을 수행하는 직책이었으나 점차 고정된 직책으로 변화하면서 지방에 常駐하였다. 이리하여 원래의 都指揮使司, 布政使司, 按察使司가 巡撫의 절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總兵官 역시도 그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 總兵 아래에는 副總兵, 參將, 游擊將軍이 있었고 游擊 아래에 다시 守備, 把總, 提調官 등이 있었다. 淸朝에서도 지방의 軍權은 모두 各省의 巡撫에게 귀속되었다. 巡撫의 통제를 받는 總兵은 淸朝 전역에 83명이 설치되었는데, 그 가운데 陸路 總兵이 70명, 水路 總兵이 13명이었다. 이들이 18省의 614防營 63만에 달하는 綠營을 지휘했다.

41) 관련 사항은 『太祖實錄』 卷146 洪武 15년 6월 辛卯條에 기록되어 있다.

42) 大理: 大理府로, 지금의 雲南省 大理白族自治州이며, 元나라 至元 7년(1270)에 路를 설치했고, 明 洪武 15년(1382)에 府로 바꾸었는데, 지금의 雲南省 大理·祥雲·賓川·洱源·雲龍 등 여러 縣을 관할했다.

43) 土司傳에는 副將軍 西平侯 沐英이 大理에서 군사를 돌이켜 부우덕의 군대와 만나 오살로 진격한 일과 이들을 공격하여 3만여 명의 목을 베고 만여 마리의 말·소·양을 노획한 사실을 모두 洪무 15년 6월의 일로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太祖實錄』에 따르면 전자는 洪무 15년 6월의 일이고 후자는 洪무 15년 7월의 일이다. 『太祖實錄』 卷146 洪武 15년 6월 丙午條와 『太祖實錄』 卷146 洪武 15년 7월 乙亥條의 기록을 비교 참조하라.

44) 관련 사항은 『太祖實錄』 권149 洪무 15년 10월 丙申條에 기록되어 있다. 土司傳에는 주원장이 明의

十六年以雲南所屬烏撒·烏蒙·芒部三府隸四川布政使司。烏蒙·烏撒·東川·芒部諸部長百二十人來朝，貢方物。詔各授以官，賜朝服·冠帶·錦綺·鈔錠有差。其烏撒女酋實卜，加賜珠翠。芒部知府發紹·烏蒙知府阿普病卒，詔賜綺衣并棺殮之具，遣官致祭，歸其柩於家。十七年割雲南東川府隸四川布政使司，并烏撒·烏蒙·芒部皆改爲軍民府，而定其賦稅。烏撒歲輸二萬石，氈衫一千五百領；烏蒙·東川·芒部皆歲輸八千石，氈衫八百領。又定茶鹽布疋易馬之數，烏撒歲易馬六千五百匹，烏蒙·東川·芒部皆四千匹。凡馬一匹，給布三十疋，或茶一百斤，鹽如之。實卜復貢馬，賜綺鈔。十八年，烏蒙知府亦德言，蠻地刀耕火種，比年霜早疾疫，民饑窘，歲輸之糧無從徵納。詔悉免之。二十年徵烏撒知府阿能赴京。

[홍무] 16년(1383)에, 운남 소속의 오살·오몽·망부 3부를 사천포정사사에 예속시켰다.<sup>45)</sup> 오몽·오살·동천·망부의 여러 부족의 추장 120명이 내조(來朝)하여 방물(方物)<sup>46)</sup>을 바쳤다.<sup>47)</sup> 조서를 내려 각각 관직을 제수하고 조복(朝服)<sup>48)</sup>·관대(冠帶)<sup>49)</sup>·금기(錦綺)<sup>50)</sup>·초정(鈔錠)<sup>51)</sup>을 차등을 두어 하사했다. 오살의 여추장 실복(實卜)<sup>52)</sup>에게는 진주와 비취를 더하여

군사들이 승리한 후에는 蠻人들의 대추장[渠魁]을 만드시 죽여서 그들이 두려워하게 해야 한다는 어조로 기록이 되어 있으나 실록의 원문에는 東川·芒部の 諸蠻 가운데 明에 복종하지 않는 집단인 대추장을 죽여서 두려워하게 하여 다시는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라고 기록되어 있다.

45) 『太祖實錄』 卷151 洪武 16년 정월 辛未條에 기록되어 있다. 원래 雲南에 소속된 烏撒 등 蠻族들의 반란을 평정한 직후에 이처럼 행정상의 개편을 단행한 이유는 烏撒·烏蒙·芒部 三府가 지리적으로 사천에서 가까웠기 때문이었다.

46) 方物: 지방 특산물을 말한다.

47) 『太祖實錄』 卷152 洪武 16년 2월 辛卯條에 기록되어 있다.

48) 朝服: 官員이 朝廷에 나아가 賀禮할 때에 입던 예복을 말한다.

49) 冠帶: 帽子和 腰帶를 일컫는다.

50) 錦綺: 錦은 여러 빛깔을 섞어 짠 무늬가 있는 비단이며, 綺는 絹織을 짜면서 무늬를 같이 수놓은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錦綺는 여러 빛깔로 무늬를 넣어 짠 비단을 일컫는다.

51) 鈔錠: 鈔는 寶鈔를 의미하며 錠은 화폐를 헤아리는 단위로, 鈔 5貫에 해당하는 단위이다. 寶鈔는 元, 明, 清代에 발행한 일종의 지폐이다. 元 世祖 中統 元年(1260)에 처음으로 中統寶鈔를 발행하였다. 액면가는 10文에서 2貫文에 이르기까지 모두 9종류였다. 至元 24년(1287)에는 至元通行寶鈔를 발행하였는데 액면가는 5文에서 2貫文에 이르는 11종류였다. 明代에는 洪武 7년(1374)에 寶鈔提舉司를 설치하고 洪武 8년(1375)에 처음으로 大明通行寶鈔를 발행하였는데 액면가는 100文에서 1貫까지 모두

하사했다. 망부의 지부(知府) 발소(發紹)와 오몽 지부 아보(阿普)가 병으로 죽자, 조서를 내려 상복(喪服)과 관(棺), 염(殮)하는데 필요한 물품들을 하사하고, 관원을 보내 제(祭)를 지내주고 [시신이 담긴] 널[柩]을 집으로 돌려보냈다.<sup>53)</sup> [홍무] 17년(1384)에, 운남의 동천부를 떼어 사천포정사사에 예속시키고 아울러 오살·오몽·망부를 모두 군민부(軍民府)로 바꾸었으며 부세(賦稅)를 정하였다.<sup>54)</sup> 오살은 해마다 [곡식] 2만 석과 전삼(氈衫)<sup>55)</sup> 1,500벌을 바치게 하고, 오몽·동천·망부는 모두 각각 해마다 [곡식] 8,000석과 전삼 800벌을 바치게 했다. 또 차(茶)·염(鹽)·포(布)를 말과 교역하는 수를 결정하였는데, 오살은 매년 말 6,500필을, 오몽·동천·망부는 모두 각각 4,000필을 교역하게 했다. 무릇 말 한 필에 포 30필, 혹은

6종류였다. 동전을 주조할 구리가 부족하고 원대의 전례도 있어서 洪武 7년(1374)에 鈔法을 반포하고 寶鈔提舉司를 설립하였으며 그 하부기관으로 抄紙, 印鈔 2局과 寶鈔, 行用 2庫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에 中書省南京이라는 명의로 발행했다. 中書省이 철폐가 된 뒤에는 戶部에서 만들도록 하였다. 大明通行寶鈔 인쇄부분의 세로는 약 30cm, 가로는 약 20cm이다. 당시의 紙質이 나빠서 大明通行寶鈔의 내구성은 좋지 못했다. 그리고 명조에서는 大明通行寶鈔를 발행만하고 낡은 지폐를 회수하지 않았으므로 시장에서 유통되는 寶鈔의 양은 날이 갈수록 늘어났다. 그리고 明朝에서도 大明通行寶鈔를 남발하면서 통화량이 팽창하여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어 寶鈔는 사용자들로부터 외면당했다(朴元燾 등, 2008: 314~319, 『元史』 「食貨志」 1 및 『明史』 「食貨志」 5 참조).

52) 實卜: 生卒年 未詳. 明初 烏撒의 女土知府이다. 洪武 14년(1381)에 雲南을 정토하기 위해 파병된 傅友德과 沐英의 부대에 저항하였으며, 후에는 사신을 太祖 朱元璋에게 파견하여 傅友德과 沐英이 운남의 소수민족을 괴롭히는 실상을 하소연하였다. 이에 太祖는 沐英 등에 대한 조사를 단행함과 아울러 약탈한 소와 양들을 돌려주도록 지시했다. 이후 實卜은 적극적으로 여타 土官들을 설득하여 明朝와의 전쟁을 멈추도록 설득하였고 沐英과 담판하여 約法十三章을 정하여 明軍이 운남 주민들의 삶을 고통으로 몰아넣지 않도록 했다. 이로 인해 彝族들의 저항은 점차 종식되었다. 이후 實卜은 明朝와 和解하고 귀순하였으며, 洪武 17년(1384)에 남편의 아우 阿哥, 烏蒙知府 阿普, 芒部知府 發紹 등 771명의 사절단을 이끌고(도달했을 때에는 질병으로 많은 인원이 죽고 120여 명만 남아 있었다) 500마리의 烏蒙 말과 각종 특산물들을 가지고 南京에 도착하여 太祖를 朝覲하였다. 그녀는 太祖에게 烏蒙山 일대의 각종 특산물들을 바치고 烏撒, 烏蒙, 東川, 芒部의 風土와 民情을 소상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彝族들의 服飾과 樂器, 生産道具들을 전시하고 歌舞를 공연하면서 太祖와 朝臣들이 彝族의 문화를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태조는 그녀를 칭찬하고는 정식으로 烏撒 土知府에 임명하고, 阿哥를 霑益 土知州에 임명하였다. 동시에 實卜과 함께 남경에 온 120여 명의 彝族들에게 의원을 보내 병을 치료하게 하고 모두에게 裘衣와 漢服을 하사했다. 태조는 實卜, 阿哥 등에게 京城의 각처를 참관하게 하고, 明朝의 文化와 禮教를 접하게 했다.

53) 『太祖實錄』 卷157 洪武 16년 10월 壬申條에 기록되어 있다.

54) 『太祖實錄』 卷162 洪武 17년 5월 辛丑條에 기록되어 있다.

55) 氈衫: 펠트로 만든 의복을 가리킨다.

차 100근을 주었고,<sup>56)</sup> 소금으로 바꿀 때도 100근을 주었다. 실복이 다시 말을 공물로 바치자

56) 茶馬交易: 明代 茶馬交易을 주관한 부서는 中央의 戶部였다. 戶部에서 全國의 茶務를 주관하고 課額을  
 확정하였으며 巡察御史를 설치하여 私茶를 적발하고 처벌하였다. 戶部에서는 또 茶課司와 茶馬司를  
 설치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말을 사들이는 일을 처리하게 하였다. 또 批驗所를 설치하여 茶引의 진위여  
 부를 검사하게 하였다. 명조의 茶法에 따르면 商茶와 官茶를 구분하였다. 權茶徵課하는 것을 商茶라  
 하고, 貯邊易馬하는 것을 官茶라고 하였다. 商茶는 內地에서 행해졌고, 官茶는 茶馬貿易을 행하는 지역  
 에서 행해졌다. 商茶는 商人들이 茶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이고, 官茶는 반드시 말을 구입하는 용도  
 로 판매되었다. 商茶는 모두 引法에 따라 취급되었다. 中央의 戶部에서는 茶引을 茶產地의 州縣에서  
 發賣하였다. 商人은 行茶하는 지역으로 가서 銀을 지불하고 茶引을 사면, 茶戶에게 가서 茶를 사서  
 외지로 가서 판매하는 것을 허락받았다. 每引은 茶 100斤인데 1引의 定量인 100斤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畸零이라 하고 별도로 茶由를 발급하여 60斤을 수매하여 판매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官府에서는  
 行茶 地區의 멀고 가까움에 따라서 程限을 결정하였다. 批驗所를 통과할 때는 예에 따라서 검사를  
 하고, 引이든 由이든 불법적으로 휴대한 茶가 없으면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茶와 引은 반드시  
 동시에 있어야 했다. 茶는 있으나 茶引으로 허가받은 양보다 많은 茶를 소지하면 이것은, 私茶로서  
 체포되고 治罪당했다. 차말을 경영하는 茶戶들이 차잎을 引이나 由를 휴대하지 않은 상인들에게 판매하  
 다가 적발되면 그 대금은 官에서 몰수하였다. 茶商들은 茶를 판매지까지 운반하였는데, 稅課司에서는  
 1/30을 판매세로 징수하였다. 茶 판매가 완료되면 원래 발급받았던 引과 由를 판매지의 관아에다 제출  
 하면 관아에서는 이를 밀봉하여 원래의 批驗所로 보내고, 批驗所에서는 이를 모아서 戶部로 보내어  
 대조하고 결산하게 하였다. 만일 기한을 넘겨서도 판매지에서 引이나 由를 제출하지 않은 상인이 있을  
 경우, 批驗所에서 계절마다 그 상인들의 성명과 籍貫, 住所, 引과 由의 數目을 기록하여 소재지의 巡按監  
 察御史에게 제출하면, 巡按監察御史는 이를 戶部로 보내 정리하게 하였다. 茶馬司에서 교역하는 官茶의  
 來援은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官徵官買官運法이다. 明朝政府는 陝西 漢中에서 생산  
 하는 茶와 四川의 巴茶에 대해 官에서 그 생산량의 1/10을 稅로 징수하였다. 그리고 元末의 동란으로  
 주인이 없어진 茶園은 군사들에게 차를 재배하게 하여 그 생산량의 8/10을 官에서 稅로 징수하였다.  
 그 나머지 茶에 대해서는 官에서 가격을 정해서 收買하였는데, 그 수매량은 漢中에서 매년 1만 6천  
 斤, 四川에서 100만 斤으로 정해 놓았다. 이 제도는 政府에서 인력을 조직하여 各茶馬司로 차를 운반하  
 였으므로 대량의 人力과 物力이 소모되어 백성들이 힘들고 재물도 고갈되었다. 둘째는 運茶支鹽法이다.  
 宣德 연간(1426~1434)에 官運茶葉을 실행하는 동시에 政府에서 鹽引을 발급하여 江淮으로 가서, 鹽을  
 대가로 지불함으로써 商人을 동원하여 四川 茶葉을 西北茶馬司로 운반하는 일을 맡겼다. 많은 상인들은  
 官茶를 운반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私茶를 운반하고 매매하여 官茶의 양이 모자라게 되고 동시에 말을  
 사는 것도 어려워졌던 것이다. 正統 원년(1436)에 이 법은 폐지되었다. 셋째는 召商中茶法이다. 弘治  
 3년(1490)에 陝西 巡撫 및 陝西布政司에서 상인들을 모집하여 104만 斤의 茶葉을 상인들의 자금으로  
 茶產地에서 사들여 西寧, 河州, 洮州茶馬司로 운반하게 하고, 官에서 4/10에 해당하는 茶葉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취하고 나머지 6/10의 茶葉은 상인들이 판매하도록 허락하였다. 이 법은 商人들이 정식  
 으로 茶馬互市와 番人과의 貿易에 참가하도록 허락하였다. 이후 官府에서 수취하는 茶葉의 비율을  
 증가시켜 官府와 商人이 각각 절반씩의 茶葉을 나누어 갖게 하였다. 茶馬司에서 확보한 茶葉은 때때로

비단과 보초를 하사했다. [홍무] 18년(1385)에, 오몽 지부 역덕(亦德)이 만족들의 땅에서는 도경화종(刀耕火種)<sup>57)</sup>하는데 해마다 서리가 내리거나 가물거나 전염병이 돌아 백성들이 굶주리며 곤궁하므로 매년 바치기로 한 세량을 징수해서 낼 수 없다고 아뢰었다. [이에] 조칙을 내려 모두 면제해주었다.<sup>58)</sup> [홍무] 20년(1387)에, 오살 지부 아능(阿能)을 경사(京師)<sup>59)</sup>로 불렀다.<sup>60)</sup>

二十一年命西平侯沐英南征。英言，東川強盛，據烏山路作亂，罪狀已著，必先加兵。但其地重關復嶺，上下三百餘里，人跡阻絕，須以大兵臨之。帝命穎國公傅友德仍爲征南將軍，英與陳桓爲左右副將軍，率諸軍進討。敕友德等曰：「東川·芒部諸夷，種類皆出於羅羅。厥後子姓蕃衍，各立疆場，乃異其名曰東川·烏撒·烏蒙·芒部·祿肇·水西。無事則互起爭端，有事則相爲救援。若唐時閣羅鳳亡居大理，唐兵追捕，道經芒部

召商納糧，納銀한 대가로 지불하거나 변방의 災荒에 대비하여 저장하는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말을 사들이는 용도로 지출하였다. 明朝政府에서는 番人의 각 部族들이 매년 팔 수 있는 말의 수량을 정해놓고 그 한도 내에서 매매하는 방식을 취했다. 明代는 漢藏 간에 행해진 茶馬互市가 가장 발달한 시기였다.

57) 刀耕火種: 신석기시대 이래의 원시적 粗放農業이다. 먼저 돌도끼(나중에는 철제 도끼)를 사용하여 지면의 나무뿌리를 파내고 풀을 베어 경작지를 확보하고 베어낸 草木이 마르면 불을 질러 재로 만든 다음 이것을 비료로 삼아 씨앗을 뿌리고 작물을 키우는 농사 방식이다. 파종할 땅을 매년 바꾸거나 혹은 경지의 일부분을 매년 돌아가며 휴경시켜 地力을 유지하였다. 黃河 중류의 仰韶文化 지역에서는 기원전 5000년에서 기원전 3000년경에 걸쳐 刀耕火種 방식으로 조·기장 따위를 재배했고 雲南에서는 기원전 1200년경부터 도경화종 방식으로 벼를 재배했다. 戰國時代에는 雲南의 土著民族들이 광범위하게 도경화종 경작방식으로 농사를 지었다. 기원전 1세기 이후에는 운남의 중부와 서부지역의 도경화종은 점차 감소하였고 변두리 산간지대에서만 이런 경작방식이 유지되었다. 초기에는 돌칼, 돌도끼, 나무막대기 등을 사용했으나 농기구가 발달하여 철제 칼, 호미 등을 사용하여 벼, 콩, 옥수수, 고구마와 그 밖의 잡곡을 재배하였다.

58) 관련 사항은 『太祖實錄』 卷171 洪武 18年 2월 丁巳條에 기록되어 있다.

59) 여기서 京師란 당시 明의 수도인 南京을 지칭한다. 1421년에 永樂帝가 北京으로 천도하기 전에 明初의 수도는 남경이었다. 明代의 행정구역으로 南直隸 應天府에 소속되어 있으며, 長江의 南岸과 맞닿아 있다.

60) 『太祖實錄』 卷185 洪武 20년 9월 己丑條. 이때 주원장은 오살 지부 阿能뿐만 아니라 普定安順州寧谷寨 六長官司 土官 阿窩 등과 尋甸府 知府 沙琛의 叔父 阿孔, 各府의 把事와 通事를 경사로 불렀다.

諸境，群蠻聚衆據險設伏。唐將不備，遂墮其計，喪師二十萬，皆將帥無謀故也。今須預加防閑，嚴爲之備。」烏撒軍民府葉原常獻馬三百匹·米四百石於征南將軍，以資軍用，且願收集士兵從征。英等以聞，從之。復命景川侯曹震·靖寧侯葉昇等分討東川，平之，捕獲叛蠻五千五百三十八人。

[홍무] 21년(1388)에, 서평후 목영에게 남방을 정벌하도록 명령하였다. 목영이 아뢰기를, 동천은 강성하여 오산로(烏山路)를 점거하고 난을 일으켜 죄상이 이미 드러났으므로 반드시 먼저 공격해야 한다. 다만 그 땅은 관새와 준령이 중첩되어 있어서 아래위로 300여 리에 인적이 끊겨 있으니 반드시 대군으로 그곳에 이르게 해야 한다고 했다. 황제가 영국공 부우덕을 그대로 정남장군으로 삼고, 목영과 진환(陳桓)<sup>61)</sup>을 좌·우부장군으로 삼아 각 군대를 이끌고 진공하여 토벌하라고 명령했다.<sup>62)</sup> 부우덕 등에게 칙서를 내려 이르기를, “동천과 망부의 여러 만이(蠻夷)들은 그 종류(種類)가 모두 나라(羅羅)<sup>63)</sup>에서 나왔다. 그 후에 자손들이 늘어나 각각 영역을 정하고서 동천·오살·오몽·망부·녹조(祿肇)·수서(水西)<sup>64)</sup>라고 그 이름을 달리했다. 아무런 사건이 생기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서로 다툼을 일으키고 사건이 생기면 서로를 구원했다. 당나라 때에 각라봉(閣羅鳳)<sup>65)</sup>이 대리(大理)로 도망가 살았는데, 당나라

61) 陳桓(?~1393): 安徽 濠州(鳳陽) 사람으로, 明 초기의 武將이었다. 주원장이 거병하자 그를 따라 참전하여 濠州와 和州를 점령하였고, 후에 集慶(지금의 南京) 전투에도 참가했다. 寧國, 金華, 龍江, 彭蠡 등지를 점령하는 데 공을 세워 都督僉事가 되었다. 洪武 4년(1371)에 四川으로 進攻하였으며, 洪武 14년(1381)에는 胡海, 郭英 등과 함께 5만의 군대로 雲南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洪武 17년(1384)에 普定侯에 봉해졌으며, 洪武 20년(1387)에 靖寧侯 葉升과 함께 東川을 평정하였다. 雲南에 주둔한 군대를 총지휘하면서 九溪洞蠻을 다시 평정하고 營堡를 세우고 屯田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후 藍玉의 案에 연좌되어 죽임을 당했다(『明史』 卷132 「陳桓傳」).

62) 관련 사항은 『太祖實錄』 卷191 洪武 21년 6월 甲子條에 기록되어 있다.

63) 羅羅: 彝族들의 조상. 元代의 烏蠻 諸部는 대부분 자신의 部族 이름을 따로 갖고 있었는데 羅羅란 이들의 統稱이었다. 南詔 烏蠻의 일곱 部落 가운데 鹿盧蠻이라 불리는 존재가 있었는데 여기서 羅羅란 명칭이 유래하였다. 몽골인들은 이 명칭 뒤에 ‘-들’이라는 복수의 의미를 붙였는데 이것을 漢語로 음역하면 羅羅斯이다. 四川 涼山自治州 및 西昌地區에 羅羅人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데, 원대에는 여기에 羅羅斯宣慰司를 설치하였다. 烏蒙, 烏撒 地區도 역시 羅羅人의 集中居地이다. 당시 농업은 대체로 刀耕火種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64) 水西: 貴州 彝族土官이 管轄한 지역이다.

군대가 추격하여 체포하러 망부의 여러 경내를 통과하자, 못 만이들이 무리를 모아 험준함을 의지하여 매복했다. 당나라 장수는 대비하지 못하고 마침내 그 계책에 빠져 군대 20만을 잃었으니, 모두 장수된 자가 모락이 없는 까닭이었다. 지금 반드시 미리 방비하고 빈틈없이 대비하라”고 하였다.<sup>66)</sup> 오살 군민부 섭원상(葉原常)이 말 300필과 쌀 400석을 정남장군에게 바쳐 군대의 씹씀이에 보탬이 되게 하였고 또 토병을 모아 토벌에 참여하기를 원했다. 목영 등이 상주하여 아뢰니 황제가 허락했다.<sup>67)</sup> [황제가] 다시 경천후(景川侯) 조진(曹震)<sup>68)</sup>과 정녕후(靖寧侯) 섭승(葉昇)<sup>69)</sup> 등에게 [군대를] 나누어 동천을 토벌하도록 명령하자, 이를

65) 閣羅鳳(712~779): 南詔의 제5대 王이다. 도읍은 太和城(지금의 雲南 大理南太和村)에 두었다. 烏蠻 종족이며, 姓은 蒙氏이고 閣羅鳳은 그의 字인데, 覺樂鳳이라고도 칭했다. 재위 기간은 748~779년이다. 그 아버지 皮邏閣이 唐의 지원을 받아 六詔를 통일하고 唐朝로부터 雲南王에 봉해졌다. 748년에 皮邏閣이 죽자 아들 閣羅鳳이 왕위를 세습하였다. 閣羅鳳은 즉위해서 세력을 발전시켜 동쪽의 東爨, 西爨 등을 멸망시키고 雲南 동부지역을 평정하였다. 閣羅鳳은 처음에는 臣下를 칭하며 唐을 도와 吐蕃을 공격했다. 唐의 雲南太守 張虔陀가 무례하게 굴며 재물을 요구하자 閣羅鳳은 750년에 군사를 내어 姚州를 함락시키고 張虔陀를 죽였다. 唐의 劍南節度使 鮮于仲通이 공격하였으나 오히려 패배를 당했다. 이후 閣羅鳳은 吐蕃에 투항하였는데, 吐蕃에서는 그를 贊普鍾으로 봉하고 東帝라 불렀다. 당시 楊國忠이 재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크게 군사를 내어 공격하였으나 이때에도 역시 閣羅鳳에게 패배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安史의 亂이 발생하자 閣羅鳳은 이를 틈타 雲南 全域과 四川 서남부, 貴州 서북부까지 점령하였다.

66) 관련 사항은 『太祖實錄』 권192 洪武 21년 7월 丁酉條에 기록되어 있다.

67) 관련 사항은 『太祖實錄』 권193 洪武 21년 9월 丙戌條에 기록되어 있다. 이때 주원장이 烏撒지역에서 戰馬를 사들이라고 명령했고 명의 장수들이 명령에 따라 전마를 구입하려고 하자 葉原常이 대가를 받지 않고 말과 쌀을 바친 것이다. 또 葉原常이 토벌에 동참하겠다고 하자 주원장은 이를 허락하고 烏撒에서 戰馬 구입하는 일을 중단시켰다.

68) 曹震(?~1393): 安徽 濠州(鳳陽) 사람이다. 元末에 주원장을 따라 舉兵하여 指揮使에 이르렀다. 洪武 12년(1379)에 沐英을 따라서 西番을 공략하는 데 공을 세워 景川侯에 봉해졌다. 이후 또 藍玉을 따라서 雲南 평정에도 참여하였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四川의 軍務를 담당하였다. 그러면서 河道를 정비하고 절벽을 깎아서 棧道를 만들어 漕運을 통하게 했다. 그러나 후에 藍玉의 案에 연좌되어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했다(『明史』 卷132 「曹震傳」 참조).

69) 葉昇(?~1392): 安徽 合肥 사람으로, 명초의 武將으로 활동했다. 양자강 하류지역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워 洪武 3년(1370)의 論功行賞에서 大都督府僉事의 관직을 받았다. 이듬해에 征西將軍 湯和를 따라서 四川을 점령하였다. 洪武 6년(1373)에는 都指揮使가 되어 西安에 주둔하면서 慶陽 일대의 반란군을 제압하였다. 洪武 12년(1379)에는 西番의 반란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우고 延安의 巴顏帖木兒[伯顏帖木兒]를 공격하여 제압하고 洮州의 番酋를 사로잡았다. 이때의 軍功으로 靖寧侯로 봉해졌다. 그러나 洪武 25년(1392)에 胡惟庸의 獄 사건에 연루되어 죽임을 당했다. 후에 藍玉의 案이 발생했을 때, 그는

평정하고 반란에 참가한 만족 5,538명을 포로로 사로잡았다.<sup>70)</sup>

二十三年，烏撒土知府阿能，烏蒙·芒部土官，各遣子弟入監讀書。二十七年，烏撒知府卜穆奏，霑益州屢侵其地，命沐春諭之。二十八年，戶部言：「烏撒·烏蒙·芒部·東川歲賦氈衫不如數，詔已免徵。今有司仍追之，宜申明。」從之。二十九年，烏蒙軍民府知府實哲貢馬及氈衫。自是，諸土知府三年一入貢，以爲常，或有恩賜，則進馬及方物謝恩。

[홍무] 23년(1390)에, 오살의 토지부(土知府) 아능(阿能)과 오몽과 망부의 토관(土官)<sup>71)</sup>들이 각각 그 자제를 보내 국자감<sup>72)</sup>에 입학시켜 독서하게 하였다.<sup>73)</sup> [홍무] 27년(1394)에, 오살

藍玉과 姻戚관계였으므로 죽은 후 藍玉의 案에도 연루되었다(『明史』卷131「葉昇傳」).

70) 관련 사항은 『太祖實錄』卷193 洪武 21년 9월 甲午條 및 『太祖實錄』卷194 洪武 21년 10월 丁未條에 기록되어 있다.

71) 土官: 중앙정부에서 정식으로 파견하는 流官에 대비되는 말로서, 국가가 특정 지역의 유력자를 인정해서 그들의 세습통치를 허용했던 관리들을 지칭한다. 한편 대체로 토사와 토관을 혼용해서 쓰고 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土官은 보통 文官職을, 土司는 武官職을 의미한다. 소수민족을 다스리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었던 토관제도는 적어도 漢代까지 거슬러올라가며, 宋代 이후 소수민족을 다스리는 그 지역 출신의 관원을 土官이라 불렀다.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명대에 이르러 서북과 서남 지방의 소수민족 지역에 본격적으로 토사제도를 설치했으며, 宣慰使, 宣撫使, 按撫使 등의 武官職과 土知府, 土知縣 등의 文官職을 두고 그 자손들이 세습하도록 허용했다. 淸 雍正 연간(1723~1735)에 단행된 改土歸流 정책으로 이러한 토관들이 대부분 폐지되었다.

72) 國子監: 국자감의 전신은 國子學으로서 西晉 咸寧 4년(278)에 처음으로 설치되었는데, 國子祭酒와 博士 각 1명과 助教 15명을 두어 生徒를 가르치도록 하였다. 國子學은 五品 이상의 貴族 子弟만 입학할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그리 활성화되지 못하여 西晉 말기 이후에는 興廢가 반복되었다. 北齊 시기에는 國子寺로 개칭되었다. 隋朝 開皇 초에 國子學으로 다시 고쳤다. 大業 3년(607)에 처음으로 國子監으로 개칭하였다. 祭酒 아래에 主簿와 錄事를 각각 1명씩 두어 國子學, 太學, 四門學, 書學, 算學 등의 各官學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各官學의 博士, 助教, 生員에는 모두 定額이 있었다. 唐朝 武德 원년(618)에 國子學으로 개편하고 太常寺 관할에 두었으며, 國子學, 太學, 廣文, 四門, 律, 書, 算의 7學을 설치하였다. 貞觀 원년(627)에 다시 國子監으로 이름을 바꾸었지만, 이후에도 國子學과 國子監은 여러 차례 명칭이 서로 바뀌는 등 일정치 않았다. 宋·元 시대를 거쳐 明代에 이르러 國子學은 최고 學府가 되었다. 洪武 15년(1382)에 국자감으로 개칭한 후 南京에 설치했으며, 國學이라고도 불렀다. 永樂 원년(1403)에는 北京에도 국자감을 설치했으며, 永樂 18년(1420) 북경으로 천도 후, 결국 兩京 두 곳에 국자감을 설치

지부 복목(卜穆)이 상소문을 올려 점익주(霑益州)<sup>74</sup>가 여러 차례 자신의 땅을 침범했다고 아뢰자, [황제가] 목춘(沐春)<sup>75</sup>에게 그를 효유하라고 명령했다.<sup>76</sup> [홍무] 28년(1395)에 호부에서 아뢰기를, “오살·오몽·망부·동천에서 매년 전삼(氈衫)을 조세로 받는 것이 정해진 수량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미 조서를 내려 징수를 면제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담당 관원들이 그대로 견고 있으니 마땅히 거듭해서 [면제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라고 하니, [황제가] 이를 허락했다.<sup>77</sup> [홍무] 29년(1396)에, 오몽 군민부 지부 실철(實哲)이 말과 전삼(氈衫)을 공물로 바쳤다.<sup>78</sup> 이로부터 여러 토지부들은 3년에 한 번씩 공물을 바치는 것이 상례(常例)가 되었으며, 혹 [황제가] 은혜를 베풀어 하사하는 물품이 있으면 곧 말과 방물을 바쳐서 은혜에 감사를 표시했다.

宣德七年，兵部侍郎王驥言，烏蒙·烏撒土官祿昭·尼祿等，爭地仇殺，宜遣官按問。八年遣行人章聰·侯璉齋敕往諭，仍敕巡按與三司官往平之。設烏蒙儒學教授·訓導各一員。以通判黃甫越言，元時本府向有學校，今文廟雖存，師儒未建。乞除教官，選俊秀子弟入學讀書，以廣文治，從之。

운용하였다. 학생은 府, 州, 縣學의 生員 가운데 뽑았는데, 捐納을 통해 입학한 사람들은 例監生이라 불렀다. 淸代에도 명대의 예에 따라 順治 원년(1644)에 국자감을 설치하고 禮部 소속으로 두었지만, 이후 국자감이 독자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73) 『太祖實錄』 卷203 洪武 23년 7월 戊申條에 雲南 烏撒軍民府 土官知府 阿能 이 아우인 忽山과 羅羅生 두 사람을 국자감으로 보내 독서하기를 청하였고 『太祖實錄』 卷204 洪武 23년 9월 辛卯條에 雲南 烏蒙·芒部的 두 軍民府 土官들이 아들들을 국자감에 보내 독서하기를 청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74) 霑益州: 지금의 雲南省 曲靖市 霑益縣 지역으로, 예로부터 ‘入滇鎖鑰’·‘入滇門戶’로 불렸다. 元나라 초에 摩彌萬戶府를 두었는데, 至元 13년(1276)에 霑益州로 고쳤다.

75) 沐春: 生卒年 未詳. 沐英의 長子로서 36세에 病死했다. 17세에 아버지를 따라 西番 공략에 참여했고, 후에는 雲南과 江西 평정에 참여했다. 여러 차례 공을 세워 後軍都督府僉事에 제수되었다. 아버지 沐英이 사망한 후에 그 작위를 세습하고 雲南에 주둔했다. 7년 동안 雲南에 있으면서 屯田을 크게 정비하고 30여만 畝를 개간하였으며 鐵池河의 수로를 뚫어 수만 畝의 경지에 관개하였고 5천여 戶의 백성들을 復業시켰다(『明史』 卷126 「沐春傳」).

76) 관련 사항은 『太祖實錄』 卷234 洪武 27년 9월 丁巳條에 기록되어 있다.

77) 관련 사항은 『太祖實錄』 卷241 洪武 28년 9월 乙卯條에 기록되어 있다.

78) 관련 사항은 『太祖實錄』 卷246 洪武 29년 8월 丙午條에 기록되어 있다.

선덕(宣德)<sup>79)</sup> 7년(1432)에 병부시랑 왕기(王驥)<sup>80)</sup>가 아뢰기를, 오몽·오살의 토관 녹소(祿昭)와 니록(尼祿) 등이 땅을 차지하려 다투다 원수가 되어 서로 죽이니, 마땅히 관원을 보내 조사하고 심문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sup>81)</sup> [선덕] 8년(1433)에, 행인(行人)<sup>82)</sup> 장충(章聰)과 후련(侯璉)에게 칙서를 가지고 가게 해서 효유하고 또 순안(巡按)<sup>83)</sup>과 삼사(三司)<sup>84)</sup>의

79) 宣德: 명 왕조 5대 황제인 宣宗 朱瞻基의 年號이다.

80) 王驥(1377~1460): 字는 尙德이며, 北直隸 保定府 東鹿縣 사람이다. 永樂 4년(1406)에 進士로 兵科給事中에 제수되어 山西에 巡按했다. 곧 山西按察使司의 副使로 승임하였으며, 洪熙 원년(1425)에 順天府尹을 거쳐 宣德 초에 兵部右侍郎에 발탁되었다. 이후 오래지 않아 兵部尙書 서리가 되고, 宣德 9년(1434)에 兵部尙書에 올랐다. 正統 元年(1436)에 몽골의 침입이 격화되면서 북변방어를 위한 계책을 수립할 때 署兵部尙書로서 직임을 게을리했다는 혐의로 일시 투옥되었다가 석방되었다. 몽골이 甘州, 涼州 일대를 침범하고 명의 장수들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자 正統 2년(1437)에 王驥는 便宜行事하는 권한을 부여받고 甘州, 涼州 일대의 북변방어를 지휘하였는데, 군대의 기강을 바로잡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 이 공로로 병부상서에 임명되었으나 연로하여 곧 사직하였고, 이로부터 3년 후에 세상을 떠났다. 諡號는 忠毅이다.

81) 관련 사항은 『宣宗實錄』 卷97 宣德 7년 12월 辛丑條에 기록되어 있다. 이때 王驥는 南京의 行在兵部右侍郎이었는데 烏蒙과 烏撒에서 三司의 분쟁 조정에서 복종하지 않으므로 능력이 있고 수완이 좋은 관원 두 사람을 골라 보내 巡按御史와 三司의 各委官과 회동시키고 그 땅으로 가서 禍福으로써 曉諭하여 서로 침탈한 땅을 돌려주게 하되 만일 복종하지 않으면 具奏處置하자고 상주한 것이다. 이듬해에 章聰과 侯璉, 巡按과 三司의 관원들이 파견된 것은 王驥의 상주에 따른 것이다.

82) 行人: 조공 관련 외교 업무를 담당하던 관직명으로, 行人司行人的 약칭이다. 周代에는 秋官에 속해 大行人과 小行人 2官이 있었고, 멀리서 天子를 알현하고자 온 賓客의 접대를 맡았다. 漢代에는 大鴻臚의 屬官으로 行人令이 있었지만 府內 郎官들에 대한 관리를 담당했다. 『明史』 「職官志」에 따르면, 明代 行人司에 장관인 司正(正七品)과 부관인 左右司副(從七品)를 보좌하는 行人 37명(正八品)을 두어 捧節과 出使 등의 임무를 맡겼다. 하지만 洪武 13년(1380)에 처음으로 行人司가 설치될 때 行人은 正九品이었으나, 洪武 27년(1394)에 品秩을 승격시키고 孝廉科 출신의 인재를 등용하였다. 建文帝는 行人司를 없애고 鴻臚寺에 예속시켰으나 永樂帝가 다시 복귀시켰다. 행인은 행인사에 소속되었는데 행인사는 조칙반포, 종실 책봉, 번왕 위무, 인재 초빙, 賞賜, 위문, 재난구제, 군대, 제사 등의 일에 관여하였다(全淳東, 2007: 114~115).

83) 巡按: 唐代 天寶 5년(746)에 관원을 파견하여 “巡按天下風俗, 黜陟官吏”했다는 데서 巡按이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나온다. 明代 永樂 元年(1403) 이후에 정식으로 御史들의 巡按制度를 확립하고 13道監察御史 110명을 선발하였으며, 그들 가운데서 다시 巡按御史를 뽑아 파견했다. 13道監察御史 가운데서 巡按御史를 골라서 파견하는 절차는 무척 엄격하였다. 巡按御史 1명을 선발하기 위해 먼저 都察院에서 2명의 후보자를 골라서 황제에게 천거하면 황제가 그들을引見한 후에 1명을 골랐다. 13道監察御史는 평소에는 中央의 都察院에서 관리했지만 그 임무를 수행할 때는 都察院의 통제를 받지 않고 황제에게 직접 책임을 졌다. 이들은 매년 8월에 出巡하여 各道를 巡視하고 吏治를 살폈다. 巡按御史의 品級은 비록

관원에게 칙서를 내리고 [이들에게] 가서 바로잡도록 했다.<sup>85)</sup> 오몽의 유학(儒學)<sup>86)</sup>에 교수<sup>87)</sup>와 훈도<sup>88)</sup>를 각 1명씩 설치했다. [이는] 통판(通判)<sup>89)</sup> 황보월이 아뢰기를, 원나라 때에는 오몽부에 학교가 있었는데 지금은 문묘(文廟)는 비록 존재하나 유학의 선생은 아직 설치하지 않았다. 교관을 제수하고 준수한 자제들을 선발해 입학시켜 독서하게 하여 문치를 널리 펼치자고 하였고, [황제가] 이를 허락했기 때문이다.<sup>90)</sup>

正統七年裁烏撒軍民府通判·推官·知事·檢校 各一員。十一年裁烏蒙·東川知事·檢校各一員，并革烏撒·烏蒙遞運所。景泰元年敕諭烏撒·烏蒙諸府土官普茂等，以貴州諸苗叛亂，恐滋蔓延近，宜戒嚴防守，毋聽賊衆誘惑，倘來逼犯，便當剿殺。時烏撒進

났으나(監察御史는 正七品) 天자의 巡狩를 대신하는 임무를 맡았으므로 各省 및 府, 州, 縣의 行政長官들이 모두 그의 감찰대상이 되었다. 大事는 皇帝의 裁決을 奏請했고, 小事는 즉시 처리하였으므로 권한이 막중했다. 淸初에도 巡按御史를 두었으나 順治 17년(1660)에 폐지했다.

84) 三司: 明代 各省에 都司(都指揮司), 布政司(承宣布政使司), 按察司(提刑按察使司)를 설치하고 각각 軍事, 民政, 司法을 나누어 주관하게 하였는데 이 세 기관을 합쳐서 三司라고 불렀다. 都指揮使司는 地區의 軍事 總括機構였다. 長官으로 都指揮使 1명(正二品), 都指揮同知 2명(從二品), 都指揮簽事 4명(正三品)이 있었고, 속관으로서 經歷司 經歷(正六品), 都事(正七品), 斷事司 斷事(正六品), 副斷事(正七品), 吏目 각 1명, 司獄司 司獄(從九品), 倉庫와 草場의 大使, 副使 각 1명이 있었다. 行都指揮使司의 設官은 都指揮使司와 같았다. 都指揮司의 지위는 布, 按 兩司의 상위에 있었다.

85) 관련 사항은 『宣宗實錄』 卷99 宣德 8년 2월 戊戌條에 기록되어 있다.

86) 儒學: 明代에 각 府·州·縣의 官府에 설치한 학교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烏蒙에 둔 府學을 가리킨다.

87) 教授: 宋代부터 중앙과 지방의 학교에 설치된 敎職의 일종이며, 元代 各路의 府·州儒學 및 明·淸 시대의 府學에는 모두 教授가 설치되었다.

88) 訓導: 明·淸 시대 府·州·縣學의 下級敎職이다. 명대에는 府學에는 教授 1명과 訓導 4명, 州學에는 學正 1명과 훈도 3명, 縣學에는 敎諭 1명과 훈도 2명이 설치되었고 教授, 學正, 敎諭가 소속 학교의 생원들을 교육하고 훈도가 이를 보좌하였다. 淸代의 경우 府學에는 教授와 훈도, 州學에는 學正과 훈도, 縣學에는 敎諭와 훈도가 각각 한 사람씩 배치되었다. 역할은 명대와 같았다.

89) 通判: 通判州事 혹은 知事通判의 약칭이다. 지방관의 권한이 비대해지고 횡포가 심하여 그들에 대한 감찰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宋 太祖가 府·州에 창설한 직책이다. 兵民, 錢穀, 戶口, 賦役, 獄訟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通判이 연대 서명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했다. 明·淸 시대의 各府에는 通判을 설치하여 糧運, 水利, 屯田, 牧馬, 江防, 海防 등의 일을 分掌하게 했다. 淸代에는 各州에 州判이 설치되어 糧運, 水利, 海防, 管河 등의 사무를 分掌했다.

90) 관련 사항은 『宣宗實錄』 卷100 宣德 8년 3월 戊午條에 기록되어 있다.

萬壽表逾期，部議宜究，詔以遠人宥之。嗣後，朝貢過期及表箋不至者，朝廷率以土官多從寬貸，應賞者給其半。天順元年，鎮守四川中官陳清等奏，芒部所轄白江蠻賊千餘備作亂，攻圍筠連縣治，敕御史項愷會鎮巡官捕之。

정통(正統)<sup>91)</sup> 7년(1442)에, 오살 군민부의 통관·추관(推官)<sup>92)</sup>·지사(知事)<sup>93)</sup>·검교(檢校)<sup>94)</sup> 각 1명씩을 없앴다.<sup>95)</sup> [정통] 11년(1446)에, 오몽과 동천의 지사와 검교 각 1명씩을 없앴고, 또 오살과 오몽의 체운소(遞運所)<sup>96)</sup>를 폐지했다.<sup>97)</sup> 경태(景泰)<sup>98)</sup> 원년(1450)에 오

91) 正統: 명 왕조 6대 황제인 英宗 朱祁鎮의 年號이다.

92) 推官: 唐代에 최초로 설치된 관직으로, 節度使, 觀察使, 團練使, 防禦使 등의 幕府에 설치된 속관으로 지위는 判官 아래였으며, 刑獄을 담당하였다. 宋代에도 府와 三司, 各部에 推官을 설치하여 各案에 관련된 公事를 주관하게 했다. 開封府에는 左·右 兩廳을 설치하고 每廳에 推官 1명을 두었다. 元代에는 各路의 總管府에 推官을 두어 刑獄을 담당시켰다. 明代에는 各府에 推官을 설치하여 刑名을 담당하게 했다. 淸初에도 이를 답습하였으나 康熙 6년(1667)에 推官을 폐지했다. 光緒 33년(1907)에 大理院에 다시 推官을 설치하고 推事라고 개칭했다.

93) 知事: 明·淸 시대의 廉坊司, 通政司, 按察司, 鹽運司 및 各府에 설치된 屬官이다.

94) 檢校: 南北朝 시대에는 다른 직임을 맡은 官員이 과견되어 어떤 일을 처리할 때, 檢校秘書처럼 檢校라는 명칭을 관직 앞에 붙이는 사례가 있었으나 正式官銜은 아니었다. 唐 前期에도 檢校는 正式官銜은 아니었으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代理官職에 상당했다. 예컨대 魏徵이 『九成宮醴泉銘』을 찬술하면서 자신의 직함을 檢校侍中으로 적은 것이 그러하다. 또 『資治通鑑』 「唐紀十五」에 “以 豐州都督李績(李世績)爲特進, 檢校洛州刺史, 洛陽宮留守”라는 사례도 있다. 그러다가 唐 中後期에 檢校는 실제적인 직권보다는 상급자의 총애를 받은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의미가 변화되었다. 安史의 亂 이후에 檢校 관직이 성행하고 사용범위가 확대되어 節度使의 幕府 參謀조차도 모두 檢校라는 명칭을 붙인 사례가 그러하다. 宋代에는 太師, 太尉나 國子祭酒 등도 檢校라는 명칭을 덧붙였다. 元豐 연간(1078~1085)의 개혁 이후에는 文官의 경우 檢교관은 檢校三公과 檢校三師가 남았고, 武官의 경우 節度使로서 오래 근무한 자에게 檢校를 덧붙였다. 元代에는 中書省과 各行中書省에 檢校라는 속관을 두고 公事文牘의 검토 임무를 부여했다. 明初에 中書省과 行中書省의 屬官에도 檢校를 설치하였으나 곧 중서성이 폐지되었으므로 六部, 都察院, 承宣布政使司, 提刑按察使司 및 各府의 屬官으로 檢校를 두었다. 淸代에는 江蘇省의 各府에만 檢校를 두어 문서의 출입을 조사, 대조하게 했다. 元·明·淸 三代의 檢校는 모두 직급이 낮은 屬官으로 唐代와 宋代의 檢校官과는 달랐다.

95) 『英宗實錄』 卷90 正統 7년 3월 丙子條. 이때 관원들의 수를 줄이는 동시에 司獄司도 폐지했다.

96) 遞運所: 明代에 설치된 驛傳의 한 종류로, 北京을 중심으로 7大 路程이 전국을 뻗어 있었고 이 路程에 따라서 馬驛·水驛·遞運所·急遞所의 4종의 驛傳이 설치되어 있었다.

97) 관련 사항은 『英宗實錄』 卷147 正統 11년 11월 戊辰條에 기록되어 있다. 당시 烏撒과 烏蒙의 遞運所뿐만

살·오몽 각부 토관 보무(普茂) 등에게 칙서를 내려 효유하기를, 귀주의 여러 묘족(苗族)들이 반란을 일으켜 인근지역으로 번질까 염려스러우니, 마땅히 엄히 경계하고 지켜서 도적들의 유혹에 귀가 솔깃하지 않도록 하고, 혹시 [도적들이] 와서 핍박하고 침범하면 곧 마땅히 죽이도록 하라고 했다.<sup>99)</sup> 이때 오살에서 올린 만수절<sup>100)</sup>의 표문<sup>101)</sup>이 기한을 넘겼으므로 [소관] 부서에서 마땅히 [그 까닭을] 추궁해야 한다고 논의하였으나, [황제는] 조서를 내려 [변방의] 먼 곳에 사는 자들이므로 용서하라고 했다.<sup>102)</sup> 이후로부터 기한을 넘겨서 조공하거나 표전(表

아니라 永寧宣撫司 및 貴州宣慰司의 遞運所도 함께 폐지되었다.

98) 景泰: 명 왕조 7대 황제인 景宗 朱祁鈺의 年號이다.

99) 관련 사항은 『英宗實錄』 卷188 景泰 원년 윤정월 戊午條에 기록되어 있다.

100) 萬壽節: 明·清 시대 황제의 생일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황제의 생일에 대해서는 허다한 명칭이 있었다. 唐代에는 千秋節, 天龍節, 天平地成節, 慶成節, 嘉會節이라 했다. 宋代에는 長春節, 乾明節, 壽寧節, 承天節, 乾元節, 壽聖節, 同天節, 興龍節, 天寧節, 乾龍節 등으로 칭했다. 遼代에는 千齡節, 金代에는 天壽節이라 했으며, 元代에는 聖節이라 했다. 대개 長壽를 기원하거나 황제가 하늘이나 龍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용어를 사용했다. 萬壽節의 語源은 萬壽無疆이다. 萬壽節 당일에 皇帝는 궁궐에서 王公百官들에게서 朝賀와 禮物를 받았다. 황제 역시 百官들에게 등급에 따라 상을 내렸다. 萬壽節에는 가축의 屠殺을 금지하였으며, 전후 여러 날 동안은 刑名을 처결하지 않았다. 首都의 匠人들은 彩畫나 布匹 등으로 간선도로를 장식하고 아름답게 꾸몄으며 도처에서 升平을 기념하는 歌舞행사도 벌어졌다. 各地의 文武 官員들은 香案을 설치하고 首都를 향하여 大禮를 행했다. 宋·元 이후 明·清 시대에 이르기까지 황제의 생일은 元旦, 冬至와 더불어 전통 중국 三大節의 하나였다.

101) 表文: 漢代에 상급기관에 올리던 일종의 公文에서 기원한 것으로, 신하가 君主에게 政事에 관해 진술하거나 감정을 표현한 글이다. 東漢 이후에는 陳述과 감정표현에 국한하지 않았으며, 三國·兩晉 시대에는 진술하는 성격의 上行文을 모두 表라고 칭했다. 그 내용도 광범위해져서 論諫, 勸請, 陳乞, 進獻, 推薦, 慶賀, 慰安, 訟理, 彈劾 등을 포함하였다. 唐·宋 이후에는 表가 가진 進言議事하던 작용은 점차 다른 종류의 公문으로 대체되었다. 대신에 陳謝(謝官 및 謝賜), 慶賀, 進獻하는 일에만 사용되었다. 明代에는 朝廷에서 거행하는 慶典, 즉 萬壽節, 元旦, 冬至 등에는 內外臣僚들이 모두 예에 따라 進賀表나 箋을 올렸다. 表는 皇帝와 皇太后에게 箋은 皇后에게 올렸다. 表의 격식은 일반적으로 서두에는 ‘臣某言’ 末尾에는 ‘臣某誠惶誠恐 頓首’, ‘死罪死罪’ 라고 썼으며, 최후에는 ‘某官臣上’이라고 썼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表의 程式도 부단히 변화하여 清代에 表는 완전히 통치자의 공덕을 기리거나 太平을 粉飾하는 禮儀文書로 변화했다.

102) 관련 사항은 『英宗實錄』 卷219 景泰 3년 8월 辛巳條에 기록되어 있다. 이때 烏撒에서 올린 만수절 표문뿐만 아니라 내지의 漢人 官僚들, 예컨대 直隸 六安衛 指揮僉事 張經, 宿州衛 指揮僉事 金中, 廣西 柳州衛 百戶 吳旻 등이 올린 표문도 기한에 늦었으므로 예부상서가 이들을 治罪하도록 상주했다. 황제는 烏撒府 把事安舊는 夷人이므로 용서하되 나머지 漢人 官僚들은 法司에 넘겨서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箋)이 이르지 않는 경우에, 조정에서는 대개 토관들에게는 관대하게 용서하되 마땅히 내려야 할 상은 절반만 주었다. 천순(天順)<sup>103)</sup> 원년(1457)에, 사천을 진수하는 중관(中官)<sup>104)</sup> 진청(陳淸) 등이 망부에서 관할하는 백강(白江)의 만적(蠻賊) 천여 명이 난을 일으켜 균련현(筠連縣)의 치소(治所)를 공격하고 포위했다고 상주하자, [황제가] 어사 항소(項愼)<sup>105)</sup>에게 칙서를 내려 진순관(鎮巡官)<sup>106)</sup>과 회동하여 그들을 체포하라고 했다.<sup>107)</sup>

成化十二年，烏撒知府隴舊等奏，同知剛正撫字有方，蠻民信服，今九年秩滿，乞再任三年，以慰群望。從之。弘治十四年，烏撒所轄可渡河巡檢司言：「自閏七月二十七日，大雷雨不止，至二十九日，水漲山崩地裂，山鳴如牛吼，地陷湧出清泉數十派，沖壞廬舍橋梁及壓死人口牲畜無算。又本府阿都地方，八月亦暴風雨，田土淹沒二百餘處，死者三百餘人。」

성화(成化)<sup>108)</sup> 12년(1476)에 오살 지부 농구(隴舊) 등이 상주하기를, 동지<sup>109)</sup> 강정(剛正)

103) 天順: 명 왕조 8대 황제인 英宗 朱祁鎮의 두 번째 연호이다. 영종은 명 왕조 6대 황제였지만 ‘土木堡의 變’으로 몽골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生還하여, 天順 원년(1457)에 이른바 ‘奪門의 變’이라는 政變을 통해 景泰帝를 이어 8대 황제로 재차 즉위하였고, 이때 天順이라는 연호를 새롭게 제정하여 사용하였다. 洪武帝 이래 1世 1元制가 확립되어 명 왕조의 황제는 각기 하나만의 연호를 제정해 사용했지만, 이와 같이 英宗은 황제에 두 차례나 즉위했기 때문에 明·淸 시대 황제 가운데 유일하게 ‘正統’과 ‘天順’ 두 개의 연호를 사용했다.

104) 中官: 內職의 官, 京官 등의 뜻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환관을 일컬으며 閹人, 寺人이라고도 한다. 중국에서는 周代부터 淸末까지 환관이 있었는데, 『明史』 卷74 「職官志」 3 宦官條에 따르면, 명대의 환관기관으로는 宦官十二監이 있었고, 이들 기관에서 政事에 관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특히, 司禮監은 그 중심에 있었고, 각 기관에는 太監(正四品), 小監(從四品), 監丞(正五品), 典簿(正六品), 從六品인 長隨, 奉御 등의 職官이 있었다.

105) 項愼: 生卒年 未詳. 浙江 奉化 사람으로, 明 景泰 2년(1451)에 進士에 급제하여 御史를 역임하였다.

106) 鎮巡官: 각 지역에 주둔하여 지키고 다스리는 관원, 즉 각 省의 巡撫, 布政使, 都事 등을 일컫는다.

107) 관련 사항은 『英宗實錄』 卷282 天順 원년 9월 戊寅條에 기록되어 있다.

108) 成化: 명 왕조 9대 황제인 憲宗 朱見深의 연호이다.

109) 同知: 明·淸 시대 知府의 副職으로 正五品이었다, 每府에 한두 명이 설치되었다. 同知는 地方의 鹽, 糧, 捕盜, 江防, 海疆, 河工, 水利 및 淸理軍籍, 撫綏民夷 등의 사무를 分掌하였다. 그 밖에 知州의 副職은 州同知라고 칭했는데 從六品으로 定員은 없었으며, 本州의 여러 사무를 分掌했다. 康熙 후반기

의 위무하는 바가 효과가 있어서 만족 백성들이 믿고 따르는데, 올해 9년 임기가 만료되니 다시 3년 동안 그 직에 머물게 하여 무리들이 바라는 바를 [받아들여] 위무해주라고 했다. [황제가] 이를 허락했다.<sup>110)</sup> 홍치(弘治)<sup>111)</sup> 14년(1501)에 오살에서 관할하는 가도하(可渡河)<sup>112)</sup>의 순검사(巡檢司)<sup>113)</sup>에서 아뢰기를, “윤 7월 27일부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큰 비가

에는 외부로 파견 나가서 주재하며 어떤 특정한 한 가지 사무를 分掌하는 同知가 나타났다. 그리하여 同知는 점차로 해당 지역의 정무를 주관하는 실질적인 관원으로서 변화하였다. 그가 주재하던 지역을 廳(=散廳)이라 했다. 散廳의 등급은 州縣과 비슷했으며, 同知는 점차 副職이 아니라 州縣官으로 받아들여졌다.

110) 관련 사항은 『憲宗實錄』 卷159 成化 12년 11월 庚申條에 기록되어 있다.

111) 弘治: 명 왕조 10대 황제인 孝宗 朱祐樞의 연호이다.

112) 可渡河: 北盤江의 지류로서 雲南省 동북부와 貴州省 서북쪽 변두리를 통과하며 흐른다. 근원은 雲南省 宣威市에 있는데 北流하여 花魚洞 부근으로 흘러 雲南과 貴州 兩省의 경계를 따라서 東流하다가 다시 굽어져 남쪽으로 흘러서 水城縣 都格布依族, 苗族, 彝族鄉를 거쳐서 北盤江으로 흘러들어간다. 총 길이 154.6km, 流域面積은 3,076km<sup>2</sup>이다.

113) 巡檢司: 元·明·清代에 縣級 衙門 아래에 설치한 基層組織이다. 원대에 통상적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을 관할하기 위해 설치한 非常設組織이었다. 行政裁量權이 없었으며 주요한 기능은 軍事에 관한 것이었다. 明朝는 元代를 답습하여 설치하였는데 行政權力을 보좌하는데 불과했다. 清代에는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지만 縣의 수량은 늘어나지 않았으므로 縣보다 등급이 아래인 巡檢司의 수량과 기능이 날로 증대하였으며 通判 등의 官職을 설치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明代의 순검사는 基層社會의 통제를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독특한 기능을 수행했다. 첫째는 里甲制, 里老人制와 병행하여 인구가 희소한 지역을 장악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明代의 里甲制와 里老人制는 기층사회를 장악을 위해 설치한 것이지만 외지로 나가거나 노상에서 유동하는 인구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그런데 순검사는 유동인구를 통제할 수 있었으며, 특히 인구가 희박하여 里甲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통제하는데 유용하였다. 순검사의 작용에 관해서는 洪熙 元年(1425) 四川 順慶府 蓬州의 老人 度智明이 언급한 다음의 내용이 참고가 된다. 本州는 人民이 희소하고 동으로는 營山縣, 渠縣과 접하고, 남으로는 廣安州에 닿아 있다. 洪武 연간에 本州에 巡檢司를 설치했다가 후에 철폐하였다. 여러 번 강한 도적들에게 劫掠을 당해 주민들이 흩어져 도적을 막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에 다시 순검사를 설치해주도록 요청했고 巡檢이 배치되어 부근의 州縣에서 弓兵을 징발하여 체포에 나서니 도적이 그치고 주민들이 편안해졌다(『宣宗實錄』 卷10). 둘째는 衛所의 군사적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까지 군사적 역량이 미칠 수 있도록 위소제도의 한계를 보완했다. 명조의 군사제도인 衛所는 모든 지역의 향촌사회에 설치될 수는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순검사는 衛所制度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군사력이 미치도록 보완해주었던 것이다. 그 밖에 明代에는 廣西, 雲南, 貴州 등 行省에 설치된 다수의 土巡檢司가 있었다. 土巡檢司도 치안기구로서 도적의 체포, 奸細의 수색, 소금 밀매업자나 도주범, 도망병 등을 단속한다는 점에서 漢人 거주지역의 순검사와 기능이 유사하다. 다만 土巡檢의 지위를 세습한다는 점에서는 확연하게 달랐다.

그치지 않고 내려 29일에 물이 넘치고 산이 무너지며 땅이 갈라지고 산이 소처럼 울고, 땅이 꺼져 맑은 샘물이 수십 군데 솟아났으며 집과 다리를 무너뜨리고 사람과 가축들을 깔아 죽인 것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또 본 부(府)의 아도(阿都) 지방에는 8월에도 폭풍우가 몰아쳐 논밭 2백여 곳이 물에 잠겼으며, 죽은 자가 3백여 명입니다”라고 하였다.<sup>114)</sup>

正德十五年討斬芒部僰蠻阿又磾等。初，芒部土舍隴壽，與庶弟隴政及兄妻支祿爭襲仇殺。所部僰蠻阿又磾等乘機倡亂流劫。事聞，命鎮守中官會撫按官捕治。至是，貴州參政傳習·都指揮許詔，督永寧宣撫司女土官奢爵等，討擒阿又磾等四十三人，斬一百十九級，事乃定。

정덕(正德)<sup>115)</sup> 15년(1520)에, 망부의 북만(僰蠻)<sup>116)</sup> 아우상(阿又磾) 등을 토벌하여 목을 베었다. 당초에, 망부의 토사(土舍)<sup>117)</sup> 농수(隴壽)가 서모(庶母)에게서 난 아우 농정(隴政) 및 형의 처인 지록(支祿)과 서로 세습을 다투어 원한을 품고 [그들을] 죽였다. [이때] 그에 소속된 북만 아우상 등이 그 틈을 타서 반란을 일으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겁탈했다.

114) 관련 사항은 『孝宗實錄』 卷178 弘治 14년 8월 癸丑條에 기록되어 있다.

115) 正德: 명 왕조 11대 황제인 武宗 朱厚照의 연호이다.

116) 僰: 지금의 四川省 남쪽과 雲南省 동부지역 일대에 살았던 소수민족으로서, 서남지역 소수민족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집단이었다. 僰人이라는 명칭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문헌은 『呂氏春秋』이다. 춘추전국 시대 초기부터 周 왕조는 그들과 대치했다. 秦나라 이전 僰侯國이 지금의 四川省 宜賓 지역에 있었고, 秦나라가 五尺道를 개통하고 나서 僰人을 붙잡아 노예로 매매하였는데 이를 僰僮이라 하였다. 漢은 武帝 시기에 들어와 西南夷와 통하고 이 지역에 僰道를 설치했다. 당시 滇(지금의 雲南)과 邛都(지금의 四川 西昌 일대) 지방에 僰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기록에는 이들을 滇僰과 邛僰이라고 칭하였는데, 모두 머리를 빗어 상투를 틀어올렸다. 新 天鳳 원년(14)에는 滇池에 거주하던 僰인들의 우두머리인 若豆와 孟遷이 반란을 일으켜 王莽의 통치에 저항하였다. 漢末 이후에는 僰이라는 명칭이 역사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다. 魏·晉 시대에는 叟라는 명칭이 출현하고 南北朝 및 隋代에는 爨이라는 명칭이 출현하는데, 모두 僰에 대응하는 호칭이다. 僰, 叟, 爨은 모두 각각 시대는 다르지만 중국 서남지방의 氏族, 羌族 가운데 비교적 漢化가 진행된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였다. 그러므로 역사 기록에 氏僰이라거나 氏叟라거나 爨氏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宋代의 大理國은 僰人(白人)이 건립한 나라였다. 元·明 시대에는 僰人 혹은 白人으로 칭했는데, 이들은 懸棺葬이라는 독특한 풍습을 갖고 있었다.

117) 土舍: 土司의 屬官이다. 그의 權力은 土司의 속관인 일반 大頭人과 같으나 그 지위는 大頭人보다 높다. 土舍는 土司의 親屬으로 土司의 職을 이을 자가 없을 경우에 그 직위를 계승할 수 있었다.

이 일이 [황제에게] 보고되자, [황제는] 진수중관(鎭守中官)에게 무안관과 회동해서 체포하여  
징치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이르러 귀주의 참정<sup>118)</sup> 부습(傅習)과 도지휘 허소(許詔)가 영녕  
선무사(永寧宣撫司)<sup>119)</sup>의 여토관인 사작(奢爵) 등을 독솔(督率)하여, 아우상 등 43명을 토벌  
하여 사로잡고 119명의 목을 베자 사태가 평정되었다.<sup>120)</sup>

嘉靖元年命芒部護印土舍隴壽襲知府，免赴京。故事，土官九品以上，皆保送至京乃襲。時壽·政等爭襲，不敢離任。朝廷以嫡故立壽，恐壽赴京而政等乘隙爲亂，故有是命。然政與支祿倚烏撒土舍安寧等兵力，仇殺如故。壩底參將何卿請於巡撫許廷光，發土兵二萬五千人，命貴州參將楊仁等將之，受何卿節制，相機進剿。政·祿佯聽撫，乞緩師，而令賊黨阿黑等掠周泥站·七星關，復遣阿核等糾集諸苗，剽掠畢節諸處，殺傷官軍，毀官民房屋甚衆。兵部言賊勢猖獗，宜速征。於是可卿等進剿，斬首二百餘級，俘二十餘人，降其衆數百，政敗奔烏撒，卿檄烏撒土舍安寧·土婦奢勿擒之。安寧佯許諾，僅以阿核等屍獻，竟不出政，兵久不解。都御史湯沐以聞，詔切責諸將及守巡官罪，而革何卿冠帶，令剿賊自贖。

가정(嘉靖)<sup>121)</sup> 원년(1522)에, [황제가] 망부의 관인을 담당하던 토사(土舍) 농수(隴壽)에

118) 參政: 宋代에는 最高 政務長官의 하나인 參知政事를 일컫는 말로서 平章事, 樞密使, 樞密副使와 함께 宰執으로 칭해졌다. 元代에는 中書省의 平章政事, 左·右丞 아래에 參政을 두었다. 明代에는 各省의 布政使 아래에 左右參政을 설치하고 各道를 나누어 관할하게 하였다. 淸 入關 이전에는 六部와 理藩院에 承政과 參政을 두었다. 順治 元年(1644)에는 이를 각각 尙書와 侍郎으로 고쳤다. 이로 보아 參政의 지위는 侍郎과 유사했음을 알 수 있다. 淸初에는 各省의 布政使 아래에도 參政, 參議를 설치하였는데, 乾隆 18년(1753) 이후 폐지했다.

119) 宣撫司: 官署 명칭으로, 金代 章宗 泰和 6년(1206)에 陝西路宣撫司를 최초로 설치하고 陝西右監軍, 右都監兵馬 등의 公事를 節制하게 했다. 泰和 8년(1208)에는 陝西宣撫司를 安撫司로 고쳤으며, 山東 東西, 大名, 河北 東西, 河東 南北, 遼東, 咸平, 隆安, 上京, 肇州, 北京 등 선후로 모두 10곳의 安撫司를 설치했다. 元代에는 변방의 소수민족 지구에 宣撫司를 설치하여 地方行政機構로 활용했는데, 達魯花赤, 宣撫使, 同知, 副使 등의 관직을 두었다. 明·淸 시대에도 소수민족 거주지에 宣撫司를 설치했는데, 모두 土司들의 세습 관직이었다.

120) 관련 사항은 『武宗實錄』 卷188 正德 15년 7월 丁酉條에 기록되어 있다.

121) 嘉靖: 명 왕조 12대 황제인 世宗 朱厚熜의 연호이다.

게 지부의 직을 세습하도록 명하고, 경사(京師)<sup>122)</sup>에 오는 일을 면제해주었다. 선례에 따르면, 토관(土官)<sup>123)</sup>으로 9품 이상은 모두 경사로 와서 그 직임을 세습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때에는 농수(隴壽)와 농정(隴政) 등이 세습하기를 다투고 있었으므로 감히 자리를 비우고 떠날 수가 없었다. 조정에서는 농수가 적자인 까닭에 그를 [지부로] 세웠는데, 농수가 경사로 오면 농정 등이 그 틈을 타서 변란을 일으킬까 염려하였으므로 이렇게 명령한 것이다.<sup>124)</sup> 그러나 농정과 지록은 오살의 토사(土舍) 안녕(安寧) 등이 거느리는 군사를 의지하여 여전히 원수가 되어 죽었다. 패저(壩底)<sup>125)</sup>의 참장(參將)<sup>126)</sup> 하경(何卿)<sup>127)</sup>이 순무(巡撫)<sup>128)</sup> 허정

122) 京師: 여기서의 京師는 北京이다. 명조는 처음에는 南京을 수도로 정하였으나 永樂 元年(1403)에 북경을 順天府라 하고, 永樂 19년(1421)에 이곳으로 遷都하였으며, 이후로 중국의 수도로 이어져오고 있다.

123) 土官: 明은 元의 토관제도를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元代에는 서방과 남방의 苗·獠·羌·番 등의 이민족 추장에게 관직을 수여하여 그 부족을 다스리게 했는데, 이를 土司 또는 토관이라고 했다. 명조는 陝西 등 북변지역에는 衛所의 관직인 武職을, 서남지역에는 州·縣 등을 설치하여 文職을 제수하였다. 洪武 7년(1374)에 西南 諸蠻夷가 朝貢하자 元代의 직책에 의거하여 관직을 제수하였는데, 宣慰司 11·招討司 1·宣撫司 10·安撫司 19·長官司 173곳이었다. 府·州·縣의 正官과 佐武官은 土官 혹은 중앙에서 파견한 流官으로 임명하였는데, 이들은 疆土를 지키고, 명조에 貢物과 賦稅와 徭役을 제공하였다.

124) 관련 사항은 『世宗實錄』 卷20 嘉靖 원년 11월 甲申條에 기록되어 있다.

125) 壩底: 四川省 綿陽市 北川縣 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으로는 安縣과 경계를 접하고 서로는 茂縣과 접하고 있다. 明 嘉靖 연간(1522~1566)에 壩底堡를 설치하였는데, 羌族과 藏族의 거주지이다.

126) 參將: 明대 중엽 북변에 처음으로 설치한 武官으로, 정원은 없었고 總兵, 副總兵의 아래에 위치하여 군사를 통솔하고 군무를 처리했다. 그 밖에 총병의 지휘 하에 軍糧, 布疋, 軍器, 火藥 등의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일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淸朝에 들어서도 正三品 綠營武官의 하나로서, 總兵 혹은 副總兵 아래 都司와 游擊의 위에 위치했다. 淸朝는 한인들의 군대를 綠營으로 불렀는데, 各省에 주둔시켰다. 지방의 최고위급 軍事長官은 總督으로 하나에서 두셋의 省을 통솔하였다. 1개 省의 최고 군사장관은 提督 혹은 提督을 겸하는 巡撫였다. 省 아래에는 鎮을 설치하였는데, 鎮의 長官은 總兵이었다. 鎮의 아래에는 協을 설치했는데 協의 長官은 副將이었다. 協의 아래에는 營을 설치했고 營의 長官으로는 營이 설치된 지역의 전략적 가치에 따라서 參將, 游擊, 都司, 守備를 두었다. 營의 아래에는 汛을 설치했는데 汛도 설치된 지역의 중요도에 따라서 그 長官은 각각 千總, 把總, 外委千總, 外委把總이 배치되었다.

127) 何卿: 生卒年 未詳. 明代 成都衛 사람이다. 正德 연간(1506~1521)에 世職으로 指揮篆事가 되었고 능력을 인정받아 四川 筠連縣 守備가 되었다. 嘉靖 연간(1522~1566)에 署都指揮篆事로 승진하여 左參將에 충임되어 松潘에 주둔하였고, 후에 署都督同知로 승진했다. 松潘에 20년간량 주둔하면서 사천을 방어하는 데에 공을 세웠다. 嘉靖 33년(1554)에 倭寇가 동남연해를 침범하자 황제가 그에게 군대를 이끌고 蘇州, 松江 일대를 방어하게 했다. 이듬해에 副總兵으로 승진하여 浙江 및 蘇松 일대의 海防을 총지휘

광(許廷光)에게 청하기를, 토병 2만 5천 명을 징발하여 귀주 참장 양인(楊仁)에게 [이를] 거느리게 하고, 자신의 지시를 받으면서 서로 기회를 엿보아 진격해 토벌하자고 하였다. 농정과 지록은 거짓으로 안무를 받아들이는 척하며 군대의 파견을 늦추어주기를 청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무리인 아흑(阿黑) 등에게 명령하여 주니참(周泥站)과 칠성관(七星關) 등을 노략질하게 하고, 다시 아핵(阿核) 등을 보내 여러 묘족을 규합하고 필절(畢節)<sup>129)</sup> 등 여러 곳을 노략질하였으며, 관군을 살상하고 관민들의 가옥을 부순 것이 무척 많았다. 병부에서 아퇴기를, 적들의 세력이 창궐하니 마땅히 신속하게 정벌해야 한다고 하였다.<sup>130)</sup> 이에 하경 등이 나아가 토벌하였는데, 200여 명의 목을 베고 20여 명을 사로잡았으며 그 무리 수백 명이 투항했다. 농정은 패하여 오살로 달아났는데, 하경이 오살의 토사(土舍) 안녕과 토부(土婦) 사물(奢勿)에게 격문을 보내 그를 사로잡게 하였다. 안녕은 거짓으로 받아들이는

했다. 그가 陸戰에 대해서는 능력을 발휘했으나 海防에는 어두워 이렇다 할 실적을 세우지 못하자 巡按御史의 탄핵을 받고 파직되었다.

128) 巡撫: 明·淸 시대의 지방장관으로 總督과 함께 ‘督撫’라고 불렸다. 명 초기에는 중앙에서 지방에 파견한 임시직이었으나 宣德 연간(1426~1434)부터 상설화되어 省 또는 그 일부를 관할하였으며, 明末에는 20여 개나 되었다. 원래는 文官으로 주로 民政을 전담하였으나 이후로 軍事職까지 겸직하고, 都御史를 겸하기도 하여 省의 布政使, 按察使, 都指揮使를 지휘하는 지방장관으로서 실권을 가지게 되었다.

129) 畢節: 貴州 高原지대에 위치하며 烏江과 珠江의 발원지이다. 동부와 남부는 貴州의 遵義, 貴陽, 安順 등지와 경계를 접하고 서부와 북부는 雲南省, 四川省과 인접해 있다. 명·청 시대 畢節 일대의 행정구역 변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洪武 5년(1372)에 貴州宣慰使와 土官이 內附하자 명조에서 貴州宣慰司를 설치하였다. 洪武 15년(1382)에 烏撒衛, 水西衛를 설치하고 烏撒土府를 두었다. 洪武 17년(1384)에 畢節衛를 설치하고, 또 烏撒衛에 소속된 七星關 守禦千戶所를 두었다. 洪武 22년(1389)에 赤水衛, 層台衛를 설치했으며, 또 永寧宣撫司를 설치했다. 洪武 23년(1390)에 普市千戶所를 설치하고 水西를 나누어 威清衛를 설치했다. 洪武 27년(1394)에 層台衛를 폐지하고 赤水前千戶所를 설치하고 赤水衛에 소속시켰다. 永樂 11년(1413)에 貴州宣慰司를 貴州布政使司에 소속시켰다. 이듬해에 烏撒衛를 貴州都司에 소속시켰다. 隆慶 6년(1572)에 烏撒軍民府를 설치하고 崇禎 9년(1635)에 大方, 水西, 比那의 3城을 쌓고 12州를 설치했으나 곧 폐지하고서 이전처럼 水西宣慰司를 설치했다. 淸 康熙 26년(1687)에 畢節衛를 없애고 畢節縣을 설치했으며, 赤水衛를 없애고 畢節縣에 소속시켰다. 그리고 永寧衛와 普市千戶所를 합하여 永寧縣에 소속시켰다. 黔西, 大定, 平遠 3州 및 畢節, 永寧 2縣을 모두 威寧府에 소속시켰다. 雍正 5년(1727)에 永寧縣을 四川으로 소속을 변경했다. 雍正 7년(1729)에 大定州를 승격시켜 大定府로 삼고 威寧府를 강등시켜 威寧州로 삼았다. 黔西, 平遠, 威寧의 3州 및 畢節縣을 大定府에 소속시켰다. 그리고 威寧州后所를 雲南宣威司로 소속을 변경하였으며, 可渡河橋로 雲貴兩省 간의 경계를 삼았다.

130) 관련 사항은 『世宗實錄』 卷24 嘉靖 2년 3월 己巳條에 기록되어 있다.

체하며, 다만 아핵 등의 시신만을 바쳤을 뿐 끝내 농정은 내놓지 않았고 병사들도 오랫동안 해산하지 않았다. 도어사(都御史)<sup>131)</sup> 탕목(湯沐)이 이런 정황을 보고하자, [황제가] 조서를 내려 여러 장수와 수순관(守巡官)들의 죄를 심하게 책망하였으며, 하경의 관직을 삭탈하고 적을 토벌하여 스스로 속죄하도록 명령했다.<sup>132)</sup>

四年，政誘殺壽，奪其印。巡撫王軌·巡按劉黻各上其事。黻言從蠻情，立支祿便。軌以隴政·支祿怙終稔惡，戕朝廷命吏，罪不可赦。乃命鎮巡官諭安寧，縛政·祿及諸助惡者。時政已爲官軍擒於水西，追獲芒部印信，前後斬首六百七十四級，生擒一百六十七人，招撫白烏石等四十九寨，以捷聞。貴州巡按劉廷蘆言：「烏撒所獻阿核等屍，及水西所縛隴政，真偽未可信，恐首惡尚在，不無後慮，請核實。」五年，兵部奏：「芒部隴氏，釁起蕭牆，騷動兩省，王師大舉，始克蕩平。今其本屬親支已盡，無人承襲，請改爲鎮雄府，設流官知府統之。分屬夷良·毋響·落角利之地，爲懷德·歸化·威信·安靜四長官司，使隴氏疏屬阿濟·白壽·祖保·阿萬四人統之。如程番府例，令三年一入朝，貢馬十二匹，而以通判程洸爲試知府。」

[가정] 4년(1525)에, 농정이 농수를 유인하여 죽이고 [지부의] 인신(印信)을 빼앗았다. 순무 왕월(王軌)과 순안(巡按) 유불(劉黻)이 각각 이 일에 관해 [상주문을] 올렸다. 유불이 아뢰기를, 만족들의 마음을 따르자면 지록을 세우는 것이 편하다고 하였다. 왕월은, 농정과 지록은 [사태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끝나리라 믿고서 악을 행하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고 조정에서 임명한 관원들을 죽였으니, 그 죄상은 용서할 수가 없다고 아뢰었다. 이에 [황제가]

131) 都御史: 관료의 감찰과 탄핵을 직무로 하는 都察院의 長官이다. 明代 都察院의 長官으로 左右都御史(正二品)가 설치되었고 그 아래에 副都御史, 簽都御史를 두었다. 清代의 都御史는 從一品이었다. 1723년부터 總督에게는 兵部尙書의 職銜을 더하고 관례적으로 都察院右都御史 職銜도 겸하게 했다. 尙書 職銜을 더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일률적으로 兵部右侍郎兼都察院右副都御史 職銜을 더했다.

132) 관련 사항은 『世宗實錄』 卷43 嘉靖 3년 9월 丁卯條에 기록되어 있다. 이번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다고 해서 都御史 湯沐은 여러 명의 관료를 탄핵했다. 우선 하경은 적을 죽이고 사로잡은 공은 세웠으나 적의 우두머리를 사로잡지 못했다고 탄핵했다. 또 여러 守巡官들은 모두 적을 경솔하게 믿었다가 속았으며 계책을 세우지 못했다고 탄핵했다. 이에 황제는 何卿의 관직을 삭탈하고 守巡 毛思義 등은 모두 戴罪剿賊하여 스스로 죄를 씻도록 하였다.

진순관(鎭巡官)에게 명령하여 안녕(安寧)에게 농정과 지록 및 악행을 도운 자들을 포박하라고 지시했다. 이때 농정은 이미 수서(水西)에서 관군에게 사로잡혔으며, [관군은] 망부 [지부의] 인신을 추적하여 손에 넣고, 선후로 674명의 목을 베었으며 167명을 생포하고 백오석(白鳥石) 등 49寨(寨)를 초무하고서 승전 소식을 알렸다.<sup>133)</sup> 귀주 순안 유정보(劉廷鑑)가 아뢰기를, “오살에서 바친 아핵 등의 시신과 수서에서 포박한 농정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고, 악인들의 수괴가 아직 살아 있어서 훗날 염려되는 바가 있을지 우려되오니, 청하옵건대 사실을 분명하게 조사하여 밝히기를 바랍니다”고 하였다.<sup>134)</sup> [가정] 5년(1526)에 병부에서 상주하기를, “망부의 농씨(隴氏)는 한집안끼리 변란을 일으키고 두 성(省)을 소란스럽게 만들어, 관군이 대거 출동하여 비로소 평정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본래 소속된 친족과 지파는 모두 끊어져 세습할 사람이 없으니, 진웅부(鎭雄府)로 고쳐서 유관(流官)<sup>135)</sup>의 지부를 설치하여 다스리기를 청합니다. 이량(夷良)·무향(毋響)·낙각리(落角利) 땅을 나누어 [진웅부에] 소속시키고, 회덕(懷德)·귀화(歸化)·위신(威信)·안정(安靜)의 네 장관사(長官司)<sup>136)</sup>를 두고, 농씨의 먼 친족인 아제(阿濟)·백수(白壽)·조보(祖保)·아만(阿萬) 네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십시오. 정번부(程番府)의 사례처럼 3년에 1번씩 입조하여 말 12필을 공물로 바치게 하고, 통판 정광(程洸)을 수습 지부(知府)로 삼으십시오”라고 하였다.<sup>137)</sup>

六年，芒部賊沙保等謀復隴氏，擁隴壽子勝糾衆攻陷鎭雄城，執程洸，奪其印，殺傷數百人，洸奔畢節。事聞，兵科給事中鄭自璧等言：「鎭雄初設流官，蠻情未服，而有司失

133) 관련 사항은 『世宗實錄』 卷53 嘉靖 4년 7월 乙未條에 기록되어 있다.

134) 관련 사항은 『世宗實錄』 卷56 嘉靖 4년 10월 辛卯條에 기록되어 있다.

135) 流官: 明·淸 시대 四川, 雲南, 廣西 등 省의 소수민족이 集居하는 지구에 설치된 地方官으로, 정해진 임기가 있고 그것이 만료되면 인사평정을 받게 된다. 관직을 세습하는 土官과는 다른 존재이다.

136) 長官司: 元代에 서남 소수민족 지구에 처음으로 설치한 지방행정기구이다. 達魯花赤, 長官, 副長官 등을 설치했는데 대부분 土人으로 충당했다. 明·淸 시대에도 설치했으나 관직은 土官이 세습하였다. 湖廣, 四川, 雲南, 廣西, 貴州 등의 省에 설치했다.

137) 관련 사항은 『世宗實錄』 卷63 嘉靖 5년 4월 己未條에 기록되어 있다. 다만 이때 重慶府 通判 程洸만 수습지부에 임용된 것은 아니고 何卿 역시 提督修城으로 발탁되었다. 두 사람은 모두 識略過人하다는 이유로 발탁되었다. 이로써 芒部の 권력다툼과 소란을 효과적으로 수습하지 못했다고 삭탈관직되었던 何卿은 1년 7, 8개월여 만에 武官으로 복귀했다.

先事之防，不亟收遣裔隴勝，而令沙保得擁孺子，致煽禍一方。宜速遣總兵何卿并力剿寇。」於是兵部覆言：「隴勝非眞隴壽子，故議設流官，有司撫循失策，遂生叛亂。沙保罪不容誅，當剿。何卿方守松潘，勢難相援，宜亟趣都御史王廷相之任，并敕總兵牛桓調兵速進。」時沙保出鎮雄府印乞降，然尚持兩端，欲立土官如故。四川撫按以保狡悍不可馴，檄瀘州守備丁勇擊之。又遣使勞賜芒部撫夷卻良佐，使計擒沙保。保怒，復叛。

[가정] 6년(1527)에, 망부의 적(賊) 사보(沙保) 등이 농(隴)씨를 복위시키고자 모의하고 농수의 아들 농승(隴勝)을 옹위하고 무리를 모아 진웅성(鎭雄城)을 공격하여 함락시켰으며, 정광(程洸)을 사로잡아 그 인(印)을 빼앗고 수백 명을 살상했는데, 정광은 필절(畢節)로 도망갔다.<sup>138)</sup> 사건이 보고되자 병과급사중<sup>139)</sup> 정자벽(鄭自璧) 등이 아뢰기를, “진웅[부]에는 처음

138) 관련 사항은 『世宗實錄』 卷77 嘉靖 6년 6월 辛未條에 기록되어 있다. 土司傳에는 沙保 등이 鎭雄城의 주민 수백 명을 살상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實錄 原文에는 數十百人을 殺傷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139) 給事中: 秦代에 처음으로 설치된 관직이다. 明代에는 관료들이 올리는 章奏의 시비를 가리고 六部 諸司를 감찰하고 百官을 탄핵하면서 御史와 상호 보완작용을 했다. 이 밖에 鄉試에서는 考試官으로, 會試에서는 同考官으로, 殿試에서는 受卷官으로 활동했다. 宗室이나 諸藩을 冊封하거나 혹은 외국에 나가서 황제의 上諭를 반포할 때 正副使에 충당되었고 冤訟을 처리하기도 했다. 품계는 낮으나 권한은 막강하였다. 洪武 6년(1373)에 給事中(正七品) 12명을 두었는데 처음으로 吏·戶·禮·兵·刑·工 六科로 나누어 각각 分科의 일을 담당하게 했다. 洪武 9년(1376)에는 정원을 10명으로 정했고, 洪武 10년(1377)에는 承敕監에 소속시켰으며, 2년 뒤에는 通政司로 소속을 변경했다. 후에 점차 정원이 늘어나서 81명이 되었다. 洪武 24년(1391)에는 六科에 각각 都給事中(正八品) 1명과 左右給事中(從八品) 각 1명 그리고 給事中 40명(正九品)을 설치했다. 이들은 吏科에 4명, 戶科에 8명, 禮科에 6명, 兵科에 10명, 刑科에 8명, 工科에 4명이 배치되었다. 建文 연간(1399~1402)에는 都給事中을 正七品, 給事中을 從七品으로 품계를 올리고 左右給事中은 폐지하였다. 永樂 연간(1403~1425)에는 다시 左右給事中을 설치하고 從七品으로 했으며, 六科官署를 午門 밖 直房에 설치했다. 그 후로各科의 인원에 수시로 증감이 있었다. 淸初에도 明의 제도를 계승하여 역시 給事中을 두었는데 고정된 정원은 없었다. 順治 18년(1661년)에 都給事中, 左右給事中에 滿漢 각 1명씩 두었다. 滿人은 正四品, 漢人은 正七品이었다. 康熙 연간(1661~1722)에는 都給事中을 掌印給事中으로 고치고 滿漢 각 1명씩 두었는데, 모두 正七品이었다. 아울러 滿漢 각 1명씩의 給事中을 두었는데 모두 正七品이었다. 雍正 초에는 皇權을 강화하면서 六科를 都察院에 편입시켰는데 監察御史와 合稱하여 科道라고 칭했다. 諫靜, 題本에 대한 抄錄, 章奏의 審核, 六部·諸寺·府·監에 대한 감찰임무는 수행했지만 황제의 詔令에 대한 검토는 유명무실해졌다. 雍正 7년(1729)에 正五品으로 품계가 올랐다. 이후 光緒 32년(1906)에 官制를 개혁할 때, 六科는 폐지했으나 給事中 20명은 그대로 두고 都察院에 소속시키고 이전 六科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으로 유관(流官)이 설치되어 만족들의 마음이 복속되지 않았으나 담당 관원이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기회를] 잃고 [농씨의] 남겨진 후예인 농승을 재빨리 거두지 못해, 사보가 [농수의] 어린 아들을 옹립하고 한 지방을 선동하여 재난을 일으켰습니다. 마땅히 신속하게 총병 하경을 파견하여 힘을 합쳐 도적 무리들을 토벌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병부에서 심의하여 아뢰기를, “농승은 농수의 진짜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논의하여 유관을 설치하였는데, 담당 관원이 어루만져 따르게 하는 데 실패하여 마침내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사보의 죄는 용납할 수 없으며 목을 베어야 하니, 마땅히 토벌해야 합니다. 하경은 마침 송반(松潘)<sup>140)</sup>을 지키고 있으니, 형세로 보면 서로 응원하기가 어려우므로 마땅히 도어사 왕정상(王廷相)<sup>141)</sup>에게 빨리 부임하도록 독촉하시고, 총병 우환(牛桓)에게 칙서를 내려 병사를 내어 속히 진격하라고 하셔야 합니다”라고 하였다.<sup>142)</sup> 이때 사보는 진응부 [지부의] 인(印)을 내놓

장악하도록 했다.

140) 松潘: 四川省 阿壩藏族自治州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다. 동으로는 平武縣과 남으로는 茂縣과 접한다. 동남으로는 北川縣과 인접하고 서 및 서남으로는 紅原縣, 黑水縣과 접하며, 북으로는 九寨溝縣, 若爾蓋縣과 접한다. 松潘縣은 현재 藏族, 羌族, 回族, 漢族이 주로 거주하고 있고 그 밖에 苗族, 彝族, 蒙古族, 土家族, 傈僳族, 滿族, 瑤族, 侗族, 納西族, 布依族, 白族, 壯族, 傣族 등도 거주하고 있다. 松潘은 고대로 軍事의 重鎮이자 중국 内地와 西羌, 吐蕃과의 茶馬互市가 이뤄지는 교역의 장소로서 ‘高原古城’이라 불렸다. 전316년에 秦이 蜀을 멸망시킨 후에, 지금의 川主寺鎮 일대에 湍氏縣을 건립하였다. 이것이 松潘地區에 설치된 최초의 縣이었다. 唐 高祖 武德 元年(618)에 松州를 설치했다. 明 洪武 12년(1379)에 平羌將軍 丁玉이 威, 茂 土官들이 일으킨 반란을 평정하고 松州에 주둔하고서 太祖에게 건의하여 松州, 潘州 두 衛를 설치하게 했다. 얼마 후 두 衛를 병합하여 松潘衛라 하였는데, 松潘이라는 명칭은 이로부터 비롯되었다. 清代에는 松潘廳과 松潘直隸廳을 설치했다. 淸 咸豐 年間(1851~1861)에 賦稅가 지나치게 무거워 藏, 羌族이 대규모 반란을 일으켜 수천 명의 淸軍을 죽이고 松潘城을 점령했다.

141) 王廷相(1474~1544): 字는 子衡이며 號는 浚川이다. 潞州(오늘날의 山西省 長治市이다) 출신으로 명대의 저명한 문학가이자 철학가이며 관료였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특히 文才가 뛰어나서 弘治 8년(1495)에 스물한 살로 향시에 합격하여 舉人이 되었고 홍치 15년(1502)에는 스물아홉의 나이로 殿試에 합격하여 進士가 되었다. 한림원 庶吉士가 되었으며 후에 兵科給事中을 역임하였다. 宦官 劉瑾의 비위를 거슬러 핍박을 받았다. 都御史兼四川巡撫를 역임하고 승진하여 兵部左·右侍郎을 역임하고 최후에는 南京 兵部尙書가 되었다.

142) 관련 사항은 『世宗實錄』 卷77 嘉靖 6년 6월 辛未條에 기록되어 있다. 이때 병과급사중 鄭自璧 등은 반란세력에 대한 토벌을 건의했을 뿐만 아니라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관원들도 탄핵했다. 즉 鎮雄府知府 程洸, 守備 鄧良, 守禦指揮 李翰, 分巡分守 僉事 張雲鵬, 參議 姚汝臯, 都御史 鄭毅, 鎮守太監 蕭通 등은 각각 輕重을 헤아려 처벌하도록 탄핵했다. 兵部에서 이를 심의하여 과실이 있는

고 항복하기를 빌었으나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두 갈래 생각을 품고서 이전처럼 토관(土官)을 세우고자 하였다. 사천 무안관은 사보가 교활하고 사나워 길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노주(瀘州)<sup>143)</sup>의 수비(守備)<sup>144)</sup> 정용(丁勇)에게 격문<sup>145)</sup>을 보내 사보를 공격하라고 했다. 또 사자(使者)를 보내 망부 무이(撫夷)<sup>146)</sup> 극양좌(郤良佐)의 노고를 위로하고 상을 내리면서 계교를 써서 사보를 사로잡게 했다. 사보가 노하여 다시 반란을 일으켰다.<sup>147)</sup>

七年，川・貴諸軍會剿，敗沙保等，擒斬三百餘級，招撫蠻羅舅婦以千計。捷聞，設鎮雄流官如舊。而芒部・烏撒・毋響苗蠻・隴革等復起，攻劫畢節屯堡，殺掠士民，紛紛見告。兵部尚書李承勳以伍文定專主用兵爲失計，疏及之。而御史楊彝復言芒部改土易流非長策，又時值荒饉，小民救死不贍，何能趣戰。時帝亦軫念災傷，令罷芒部兵，俟有

관료들은 사태가 수습되는대로 처벌하기로 하고 황제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받았다.

143) 瀘州: 지금의 四川省의 동남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長江과 沱江이 서로 만나는 白酒金 삼각주의 핵심지역이다. 長江의 중요한 항구로 현재 39개 민족이 거주하고 있다.

144) 守備: 明代의 武官으로 직제상으로는 游擊 아래의 직책이다. 明初 南京에 1명을 설치하고 公, 侯, 伯으로 充任했다. 協同守備 1명도 두고 侯, 伯, 都督으로 充任시켜 南京의 防守事務와 南京 지구의 각 衛所 관리를 담당시켰다. 清代에는 正五品으로 綠營兵을 통솔하였으며 직제상 都司 아래의 직책이었다. 漕運總督이 관할하는 各衛에도 守備가 설치되어 運軍을 거느리고 漕糧을 수송하기도 했다. 四川, 雲南 등지의 土司들 가운데는 土守備가 설치되었다.

145) 檄文: 고대 문장의 한 형식으로 병사들의 소집, 성토, 국가의公告 등을 알렸던 글이다.

146) 명대의 소수민족들을 다스리는 관원들의 관직에 撫夷라는 글자를 덧붙이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馬文升이 肅州撫夷指揮 楊翥를 京師에 불러들여 하미를 부흥시키고자 여러 가지 대책을 협의한 내용 등이 『明史紀事本末』 卷40 「興復哈密」 弘治 8년條 및 『殊域周咨錄』 卷13 土魯番, 弘治 7년條에 기재되어 있다. 또 『世宗實錄』 卷349 嘉靖 28년 6월 戊申條에 廣西桂林分巡道副使兼理撫夷라는 기록이 있다. 撫夷官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世宗實錄』 卷47 嘉靖 4년 정월 甲申條에는 ‘甘州撫夷官’이라는 관직이 나온다.

147) 관련 사항은 『世宗實錄』 卷80 嘉靖 6년 9월 戊寅條에 기록되어 있다. 이때 貴州巡撫 袁宗儒는 沙保가 비록 禍를 품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慰撫하여 가버니 城堡를 침범하지 못했는데 四川의 官員들이 貴州의 官員들과 협력하지 않고 멋대로 요행을 바라고 군사를 움직여 적을 소란스럽게 만들었는데, 두 省의 군사들이 협력하여 나라의 위엄을 떨치도록 해야 한다고 상주했다. 兵部에서 심의하여 사천과 귀주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서로 빠르게 달려갈 수 없어서 일을 그르쳤다면 두 省의 巡撫官들이 마땅히 힘을 합쳐 지방을 안정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황제에게 건의하였다. 황제는 두 省의 巡撫가 함께 剿撫에 필요한 계책을 마련하여 협력하라고 명령했다.

秋再議征討。於是四川巡撫唐鳳儀言：「烏蒙·烏撒·東川諸土官，故與芒部爲唇齒。自芒部改流，諸部內懷不安，以是反者數起。今懷德長官阿濟等雖自詭擒賊，其心固望隴勝得一職，以存隴後。臣請如宣德中復安南故事，俯順輿情，則不假兵而禍源自塞。」川·貴巡按戴金·陳講等奏如鳳儀言。金又以首惡如毋響·祖保等，宜剿誅以折其驕氣，始下撫處之令，許生獻沙保等，待阿濟以不死，然後復隴勝故職，或降爲知州。其長官或因或革，或分隸，庶操縱得宜，恩威并著。章下部覆，乃革鎮雄流官知府，而以隴勝爲通判，署鎮雄府事。令三年後果能率職奉貢，准復知府舊銜。時嘉靖九年四月也。

[가정] 7년(1528)에, 사천과 귀주의 군대가 함께 토벌하여 사보 등을 물리치고 300여 명을 사로잡거나 목을 베었으며, 만라(蠻羅)의 남아 1,000여 명을 초무하였다. 승전 소식이 전해지자 이전처럼 진응부에 유관(流官)을 설치했다. 그러나 망부·오살·무향의 묘만(苗蠻)인 농혁(隴革) 등이 다시 들고일어나 필질의 둔보(屯堡)를 공격하여 약탈하고 병사와 백성을 죽이고 노략질하자, 그 소식이 어지럽게 [조정으로] 전해졌다. 병부상서 이승훈(李承勳)<sup>148)</sup>은 오문정(伍文定)이 홀로 용병을 주도한 것이 실책이었다고 상소했다.<sup>149)</sup> 그러나 어사 양이(楊彝)는 다시 아뢰기를, 망부에서 토관을 유관으로 바꾼 것은 좋은 방책이 아니며, 또 마침 흉년으로 기근이 들어 백성들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지도 못하는데 어찌 전쟁하러 달려가겠는가 하고 아뢰었다. 이때 황제 역시 재이로 발생한 상해(傷害)를 근심하였으므로, 망부를 공격하던 군대를 물리고 가을을 기다렸다가 다시 정벌을 논의하라고 명령했다.<sup>150)</sup> 이에 사천 순무 당봉의(唐鳳儀)가 아뢰기를, “오몽·오살·동천의 여러 토관들은 예부터 망부와 입술과 이처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망부의 토관을 없애고 유관을 파견한 후로 각 부족은

148) 李承勳(1473~1531): 湖北 嘉魚縣 사람이다. 弘治 연간(1488~1505)의 進士로, 知縣을 거쳐 刑部主事, 江西省 南昌知府를 역임했다. 正德 6년(1511)에 군사를 이끌고 江西省 贛州의 농민반란을 진압했으며, 이후 浙江按察使로 발탁되었고 陝西, 河南의 左右布政使를 역임했다. 그 후에는 右副都御史 巡撫遼東으로 요동 지역의 流民을 招集하여 屯田을 개간하고, 鐵嶺과 撫順 등지에 城을 쌓고 변경의 방어를 강화했다. 이후 刑部尙書를 거쳐 다시 兵部尙書兼左都御史로서 군사업무를 지휘했다.

149) 관련 사항은 『世宗實錄』 卷92 嘉靖 7년 9월 甲午條에 기록되어 있다.

150) 관련 사항은 『世宗實錄』 卷93 嘉靖 7년 10월 庚子條에 기록되어 있다. 어사 楊彝는 명조 정부의 방침과는 달리 改土歸流가 以夷治夷만큼 長策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목살당했다.

내심으로 불안하여 반란을 일으킨 자들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이제 회덕(懷德)의 장관인 아제(阿濟) 등이 비록 자신[의 마음]을 감추면서 적을 사로잡겠다고 하나 속으로는 농승이 관직을 하나 얻어서 그 후예들에게 물려주기를 무척 바라고 있습니다. 선덕(宣德) 연간(1426~1435)에 안남을 회복시켰던 고사(故事)<sup>151)</sup>처럼 백성의 바람에 따르면 군대를 동원하지 않아도 화(禍)의 근원이 저절로 막힐 것입니다”라고 하였다.<sup>152)</sup> 사천과 귀주의 순안 대금(戴金)과 진강(陳講) 등도 당봉의의 말과 다름없이 상주했다. 대금은 또 아뢰기를, 무항이나 조보와 같은 악의 우두머리들은 마땅히 토벌하고 죽여서 교만한 기운을 꺾고, [그 후에] 비로소 위무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사보를 산 채로 [조정에] 바치도록 허락하고 아제를 대우하여 죽이지 않으며, 그런 연후에 농승을 옛 직책으로 회복시키거나 혹 강등시켜 지주(知州)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sup>153)</sup> [또] 장관은 혹은 그대로 두거나 혹은 없애거나 혹은 나누어 예속시켜야 통제하는데 마땅함이 있고 은혜와 위엄이 함께 드러날 것이라고 하였다. 상주문을 해당 부서

151) 宣德 연간(1426~1435)에 安南을 회복시킨 고사: 베트남의 쩐[陳]왕조(1225~1400)는 14세기에 접어들어 왕실의 내분, 장원의 확대, 불교계의 부패, 참파의 침입과 같은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흔들리기 시작했다. 민 똥[明宗] 이후의 군주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를 틈타 1400년 외척 호 꾸이 리[胡季犛]는 쩐 왕실의 황제들을 폐위시키고 자신이 제위에 올라 나라 이름을 다이 응우[大虞]로 바꾸었다. 호 꾸이 리는 1400년 12월에 아들 호 한 트영[胡漢蒼]에게 제위를 물려준 후에 명에 사신을 파견하여 쩐 씨의 후사가 끊겨 외손인 호 한 트영이 왕위를 계승했다고 통보하고 책봉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았다. 그런데 1404년 쩐 왕조의 신하였던 자가 명 조정에서 胡氏 父子의 찬탈 사실을 전했다. 이에 永樂帝는 호씨 부자의 죄목으로 왕을 시해하고 나라를 빼앗았으며, 명의 正朔을 받들지 않고 황제를 참칭했다는 등 20여 가지를 열거하면서 1406년에 안남을 침공하였다. 1407년 명군은 호씨 부자를 사로잡아 남경으로 압송하고 安南이라는 명칭을 交趾로 바꾸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명 제국의 일부로 통치하면서 동화정책을 실시했다. 명의 지배에 대한 베트남인들의 저항이 줄기차게 일어나면서 명군은 곤경에 빠지고 1418년 타인 호아에서 군사를 일으킨 레 리[黎利]는 명군을 물리치고 베트남을 독립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宣德 연간(1426~1435)에 들어와 명은 2만의 군대를 증파하여 베트남을 압박하면서 레 리가 쩐 왕실의 후손을 찾아내어 그를 왕위에 앉히면 철군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레 리는 쩐 까오[陳嗣]라는 인물을 찾아내어 왕위에 앉혔다. 본문에서 언급한 선덕 연간에 安南을 회복한 고사는 이를 의미한다. 하지만 그 회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명과 베트남 측은 이후 몇 차례 무력으로 충돌하였고 전세가 불리해지자 명군은 1427년 12월 철군에 나섰다. 1428년 봄 레 리는 동 건[東京]에서 즉위하여 나라 이름을 大越이라 하고 새로운 레 왕조를 건설했다. 쩐 까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도망치려다 붙잡혀 처형당했다(유인선, 2002: 154~179).

152) 관련 사항은 『世宗實錄』 卷96 嘉靖 7년 12월 癸未條에 기록되어 있다.

153) 관련 사항은 『世宗實錄』 卷96 嘉靖 7년 12월 癸未條에 기록되어 있다.

에 내려주어 심의하도록 했는데, 이에 진응부의 유관 지부를 없애고 농승을 통판으로 삼아 진응부의 일을 대리하도록 했다. 3년 후 과연 직무에 충실하고 공물을 바치면 지부의 원래 직함을 회복시키도록 했다. 이때가 가정 9년(1530) 4월이었다.<sup>154)</sup>

三十九年命勘東川阿堂之亂。初，東川土知府祿慶死，子位幼，妻安氏攝府事。有營長阿得革頗擅權，謀奪其官。因先求烝安氏不得，乃縱火焚府治，走武定州，爲土官所殺。得革子堂奔水西，賄結烏撒土官安泰，入東川，囚安氏，奪其印。貴州宣慰安萬鎰故與祿氏姻連，乃起兵攻阿堂所居寨，破之。堂妻阿聚攜幼子奔霑益州土官安九鼎。萬鎰脅九鼎，取阿聚及幼子殺之。堂以是怨九鼎，時相攻擊。堂兵侵羅雄州境，九鼎及祿位與羅雄土官者浚等，各上書訟堂罪。詔下雲·貴·四川撫按官會勘。堂聽勘於車洪江，具服罪，願獻所劫府印并霑益·羅雄人口牲畜及侵地，乞貸死。

[가정] 39년(1560)에 [황제가] 동천 아당(阿堂)의 반란을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당초에 동천의 토지부 녹경(祿慶)이 죽자, 그 아들 녹위(祿位)가 어렸으므로 [녹경의] 처 안씨가 지부의 일을 대리해서 관장했다. 영장(營長)<sup>155)</sup> 아득혁(阿得革)이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다가 그 관직을 빼앗으려 음모를 꾸몄다. 그래서 먼저 안씨와 간통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동천부 지부의 아문에 불을 질러 태우고 무정주로 달아났다가 토관에게 죽임을 당했다. 아득혁의 아들 아당(阿堂)이 수서(水西)로 도망하여 오살 토관 안태(安泰)에게 뇌물을 주고 결탁하고는, 동천으로 들어가서 안씨를 가두고 그녀의 관인을 빼앗았다. 귀주 선위(宣慰)<sup>156)</sup> 안만전(安萬鎰)<sup>157)</sup>은 원래 녹씨와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이었으므로 군사를 일으켜

154) 관련 사항은 『世宗實錄』 卷112 嘉靖 9년 4월 乙丑條에 기록되어 있다.

155) 營長: 지방 무장 세력의 우두머리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後漢書』 卷41 列傳31 「第五倫傳」에 “倫이 營長으로서 처음 郡의 장관인 鮮于褒에게 나아가자 褒가 그를 보고 뛰어나다고 여겨 吏로 삼았다”라는 기록이 있다. 또 『資治通鑑』 卷40 漢紀32 「光武帝建武元年」에 “劉盆子が 長樂宮에 거하였는데 三輔 郡縣의 營長들이 使者를 보내 공물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다. 胡三省의 注에 따르면 “이때 三輔에는 豪杰들이 도처에 무리를 지어 주둔하고 있었는데 각각의 무리에 營長이 있었다”고 하였다.

156) 宣慰司: 省과 州 중간에 있는 군사적인 감찰기구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는 軍民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으며, 그 최고책임자는 宣慰使이다. 宣慰司는 元代에 전국적으로 설치되었지만 明·清 시대에는 소수 민족 지역에만 설립되어 이전에 비해 숫자가 줄어들었다. 宣慰司에는 宣慰使 3명(從二品), 宣慰司同知

아당이 거주하는 채(寨)를 공격하여 깨뜨렸다. 아당의 처 아취(阿聚)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점익주(霑益州)<sup>158</sup>의 토관 안구정(安九鼎)에게로 도망갔다. 안만전은 안구정을 위협하여 아취와 그 어린 아들을 넘겨받아 죽였다. 아당은 이 일로 안구정을 원망하였고 때때로 서로 공격하였다. 아당의 군사가 나웅주(羅雄州)<sup>159</sup>의 지경을 침범하자 안구정과 녹위는 나웅주 토관 자준(者浚) 등과 함께 각각 문서를 올려 아당의 죄를 고발했다. [황제가] 조서를 내려 운남·귀주·사천의 무안관이 회동하여 조사하도록 했다. 아당은 차홍강(車洪江)<sup>160</sup>에서 조사에 응하고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였으며, 빼앗았던 [동천부 지]부의 관인과 아울러 점익주·나웅주의 백성과 가축 및 침탈한 토지를 바치며, 죽음은 면해달라고 빌었다.<sup>161</sup>

1명(從三品), 副使 1명(正四品), 經歷과 都事 등의 관원을 두었다.

157) 安萬鎰: 生卒年 未詳. 貴州 水西(지금의 大方 일대) 사람으로, 貴州宣慰使 安萬鍾, 安萬鎰의 동생이다. 그의 형 安萬鍾이 貴州宣慰使를 세습한 뒤로 布政司 參政도 겸하게 되었는데, 술 마시기를 좋아하고 술에 취하면 타인을 구타하곤 했고, 사냥 중에 활로 사람을 맞히는 놀이를 하다가 결국 刺殺되었다. 이후 안만일이 직위를 승계하였지만 곧 병사하였는데, 그의 아들 安仁이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결국 그 동생 安萬鎰이 대신 승계하여 嘉靖 7년(1528)에 선위사가 되었다. 安萬鎰은 전에 都勻에서 王阿向을 평정한 공이 있었지만 선위사가 되어서도 다시 王聰 등의 반란을 평정하였다. 安萬鎰은 조카 安仁이 성인으로 성장하자 宣慰使 직위를 그에게 넘겨주었지만 곧 安仁 또한 사망했고, 安仁의 아들 安國亨도 아직 나이가 어려 계속해서 安萬鎰이 선위사의 직위를 담당하면서 參政을 더했고 昭勇將軍에 봉해졌다. 安萬鎰은 私財를 들어서 大方城 서쪽의 가파른 險路를 정비하였는데, 行人들이 이에 감격하여 安萬鎰의 장수를 축원하였고 이 길을 ‘千歲衢’라 불렀으며, 길가의 암석 위에 ‘千歲衢碑’라는 石碑를 세웠다. 水西의 宣慰使 가운데 安萬鎰이 가장 뛰어났다고 일컬었는데, 嘉靖 41년(1562)에 安國亨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은퇴하였다.

158) 霑益州: 지금의 雲南省 曲靖市 霑益縣 지역으로, 예로부터 ‘入滇鎖鑰’·‘入滇門戶’로 불렸다. 漢代에는 牂牁郡이었고, 三國시대 蜀漢 때에는 興古郡에 속했다. 晉 永嘉 5년(311)에는 牂牁郡을 나누어 西平郡을 설치했고, 唐 貞觀 연간(626~649)에는 盤州라 했다. 元初에는 摩彌萬戶府를 설치하였다가 至元 13년(1276) 이후 霑益州라 했다.

159) 羅雄州: 宋代에는 羅雄府였으나 元 至元 13년(1276)에 羅雄州로 고치고, 雲南行中書省 曲靖路에 소속시켰다. 明 萬曆 15년(1587)에는 羅雄州를 羅平州로 고치고 曲靖軍民萬戶府에 소속시켰다.

160) 車洪江: 朱欄河라고도 한다. 雲南의 嵩明縣 동남쪽에 위치한 嘉利澤에서 흘러나온다. 그 물길이 북으로 흘러 尋甸縣의 동쪽에서 白麟河와 합해지는데, 그 강을 車洪江이라 한다. 이 강줄기는 또 동북으로 흘러 宣威縣과 會澤縣 사이를 지나 廣西의 경내로 들어간다. 그 후에 다시 雲南으로 흘러 들어가 巧家縣의 북쪽에서 金沙江에 합류한다.

161) 이상 嘉靖 39년(1560)의 모든 일은 『世宗實錄』 卷484 嘉靖 39년 5월 甲戌條에 기록되어 있다.

時位及弟僕已前歿，官府因訊祿氏所當襲者，堂以己幼子詭名祿哲以報。據府印如故，復與九鼎治兵相攻。九鼎訴之雲南巡撫遊居敬，謂堂怙亂，請致討，且自詭當率所部爲前鋒，必擒堂以獻。居敬信之，遂上疏言堂念惡不悛，請專意進剿，爲地方除害。帝允部議，行川·貴撫按會勘具奏。居敬遽調土漢兵五萬餘進剿。雲南承平久，一旦兵動，費用不貲，賦斂百出，諸軍衛及有司土官舍等乘之爲奸利，遠近騷動。巡按王大任言：「逆堂奪印謀官，法所必誅。第彼猶借朝廷之印以約土蠻，冒祿氏之宗以圖世職，而四川之差稅辦納以時，雲·貴之隣壤未見侵越，此其非叛明矣。其與九鼎治兵相攻，彼此俱屬有罪。居敬乃信一偏之詭辭，違會勘之明旨，輕動大衆，恐生意外患。且外議籍籍，謂居敬入九鼎重賄，欲爲雪怨，及受各土官賂，攘盜帑積，皆有實跡。請亟罷居敬，暫停征剿爲便。」乃命逮居敬。時堂聞大兵至東川，逃深箐，諸將分兵於新舊諸城，窮搜不獲，地方民夷大遭屠掠。

이때 녹위와 아우 녹선(祿僎)이 이미 죽었으므로 관부에서는 마땅히 뒤를 이을 녹씨에 관해 물었는데, 아당이 자기의 어린 아들을 녹철(祿哲)이라 속여서 보고했다. [아당은] 여전히 지부의 관인을 갖고 있었고 다시 군사를 내어 안구정과 서로 공격했다. 안구정은 운남 순무 유거경(遊居敬)<sup>162)</sup>에게 그를 고소하여 이르기를, 아당은 혼란을 틈타고 있으니 가서 토벌하

162) 遊居敬(1509~1571): 福建 南平縣 사람으로, 嘉靖 11년(1532)에 進士에 급제하여 庶吉士가 되었다. 이후 監察御史가 되어 盧溝橋 일대를 순시하면서 商人들의 탈세를 적발하고 징세하였다. 嘉靖 17년(1538)에는 浙江 按察篆事, 嘉靖 20년(1541)에는 廣東 副使, 嘉靖 37년(1558)에는 山東左布政使에서 右副都御史巡撫雲南으로 승진하였다. 이후 遼寧 沿海 지역에 倭寇가 창궐하자 朝廷에서는 수십만 명의 병사를 징발하여 토벌하려고 했지만 지출이 너무 많아서 國庫로는 軍餉을 조달하기가 부족했다. 이에 그는 地方의 군대를 해산하고 邊境의 무리들을 조직하여 훈련시켜 왜구에 대항하게 했다. 이 소식을 들은 地方의 병사들이 關隘에서 소란을 피웠고 督府조차도 이에 束手無策이었는데, 遊居敬이 스스로 이곳에 이르러 지방의 군대를 설득하여 소란을 진정시켰다. 雲南巡撫로 활동할 당시 雲南을 鎮守하던 宦官 沐朝弼이 조정에서 활개치던 閹黨의 권세를 믿고 民田을 침범하고 횡포를 부렸다. 이때에도 그는 沐朝弼을 법에 따라 처결하여 빼앗은 재물들을 몰수하여 주인들에게 돌려주었다. 이에 沐朝弼은 巡按御史 王大任의 處所로 가서 居敬이 조정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마음대로 군사를 움직였다고 모함했다. 王大任의 탄핵으로, 遊居敬은 체포되어 북경으로 압송당해 곤장을 맞고 碣石衛에 充軍하는 유배를 당했다. 그러나 穆宗 隆慶帝가 즉위하자 그는 사면되어 조정으로 돌아와 다시 기용되었다. 隆慶 3년(1569)에 刑部右侍郎을 역임하였지만 후에 宰相 高拱에게 고초를 겪었으며, 隆慶 5년(1571)

기를 청하였고, 또 자신이 거느리는 부하들을 선봉으로 삼아서 반드시 아당을 사로잡아 바치겠다고 속여서 말하였다. 유거경은 그의 말을 믿고 드디어 상소하여 아뢰기를, 아당은 생각하는 바가 악하여 뉘우치지 않으니 청하건대 오로지 나아가 토벌하여 지방의 해악을 제거하기 바란다고 하였다.<sup>163)</sup> 황제가 해당 부서에서 의논하도록 허락하니, [병부에서는] 사천과 귀주의 무안관들이 회동하여 조사하고 상주문을 올리도록 하였다. 유거경이 토병과 한족 병사 5만여 명을 재빠르게 징발하여 진격해 토벌했다. 운남에는 태평스런 나날이 오래 지속되었으므로 하루아침에 병사들을 움직이니 비용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 갖가지 세금을 걷었는데, 여러 군대의 위[軍衛] 및 관원, 토관이나 토사(土舍)들은 이를 틈타 간악하게 이(利)를 챙겼으므로 먼 곳이나 가까운 곳 할 것 없이 소란스러워졌다. 순안 왕대임이 아뢰기를, “역적 아당이 [관]인을 빼앗아 관직을 모친한 행위는 법에 따라 반드시 목을 베어 [처벌해]야 합니다. 다만 그가 오히려 조정의 인을 빌려서 토만을 규합하고 녹씨 종족이라 사칭하여 세습하는 직책을 도모하고 있으나, 사천에 요역과 세금은 기한 내에 바치고 있고 인접한 운남·귀주 땅을 침범한 것도 없으니, 이는 반란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가 안구정과 함께 군사를 동원하여 서로 공격한 것은 피차가 모두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거경은 한쪽의 거짓말만 믿고서 함께 모여서 조사하라는 폐하의 명령을 어기고 경솔하게 많은 무리를 동원하였으니, 뜻밖의 근심거리를 낳을까 염려됩니다. 또 [조정] 밖에서는 소문이 자자한데 [그것은] 유거경이 안구정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그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려 하고, 또 각 토관에게서 뇌물을 받으며 공간에 쌓인 것을 흠친다는 것인데, 이 모든 [소문이 사실임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청하옵건대 빨리 유거경의 [운남 순무] 직임을 해임하시고 잠시 토벌을 멈추는 것이 타당 합니다”고 하였다.<sup>164)</sup> 이에 [황제가] 유거경을 체포하라고

에 사직하고 낙향하였다. 그는 매우 검소하게 생활했고 청렴했다고 한다. 『五經旁注』, 『可齋文集』, 『丹園集』, 『延郡志』 등의 저술을 남기고 있다.

163) 관련 사항은 『世宗實錄』 卷484 嘉靖 39년 5월 甲戌條에 기록되어 있다.

164) 관련 사항은 『世宗實錄』 卷489 嘉靖 39년 10월 乙未條에 기록되어 있다. 土司傳에서 巡按御史 王大任의 상주문을 직접 인용하고 있으나 실록의 원문과 대조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밑줄 친 부분의 표현이 다르고 실록의 원문이 아예 생략된 곳도 두 군데나 확인된다. 명사 토사전의 직접 인용이 원문을 충실하게 인용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逆堂奪印謀官，于法在所當誅。第彼猶借朝廷之印以約土夷，冒祿氏之宗以圖世職，而西川之差稅辦納以時，雲·貴之隣壤未見侵越，此其非叛明矣。其與九鼎治兵相攻，彼此俱屬有罪。居敬乃信一方之辭，而敢違三省會勸之明旨，輕動大衆，以踏不測用冀不可必成之功”(이 부분은 아예 빠짐), 恐生意外患。且外議籍籍，皆謂居敬入九鼎重賄，欲爲之雪怨，

명령했다. 이때 아당은 대군이 동천에 이르렀다는 소문을 듣고 깊은 대나무숲 속으로 도망가 버려, 여러 장수들이 신성과 구성으로 병사를 나누어 살살이 수색했으나 사로잡지 못하였고, 지방의 만족(蠻族) 백성들은 많이 죽거나 노략질당했다.

四十年，營長者阿易謀於堂之心腹母勒阿濟等，掩殺堂於夏來矣石之地，其子阿哲就擒，哲時年八歲。事雖定，而府印不知所在。於是安萬銓取東川府經歷印，昇祿位妻寧著署之，以照磨印昇羅雄土官者浚，而以寧著女妻者浚子。仍留水西兵三千於東川，爲寧著防衛。水西與東川隣，萬銓本水西土官，故議者謂其有陰據東川之志。巡按王大任以誅阿堂聞，因言：「東川地方殘傷，該府三印悉爲土官部置，請通敕川·貴總督及鎮巡官，按究各土官私擅標署之罪。并訪祿氏支派之宜立，與所以處阿哲者。」部覆報可。

[가정] 40년(1561)에, 영장(營長) 자아역(者阿易)이 아당의 심복 모록아제(母勒阿濟) 등에게 편지를 써서 아당을 알래의석(夏來矣石) 땅에서 암살하고 그 아들 아철(阿哲)을 사로잡았는데, 당시 아철의 나이는 8살이었다. [아당을 죽이는] 일이 비록 마무리되었으나 [동천부 지부]의 직인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다. 이에 안만전이 동천부 경력(經歷)<sup>165</sup>의 직인을 취하여 녹위(祿位)의 처 영저(寧著)에게 주어 대신하게 하고, 조마(照磨)<sup>166</sup>의 직인을 나웅(羅雄) 토관 자준(者浚)에게 주었으며, 영저의 딸을 자준의 아들에게 시집보냈다. 이전처럼 수서(水西)의 병사 3천을 동천[부]에 주둔시켜 영저를 방위하게 했다. 수서와 동천[부]는 인접해

兼受各土官金銀及攘盜帑積，皆有實跡。請亟罷居敬，暫停征剿趣三省諸臣亟如前旨勸上撫剿所宜戡兵時動(이 부분은 아예 빠짐)爲便.”

165) 經歷: 明·淸 시대 都察院·通政使司·布政使司·按察使司·宣慰使司 등의 관청에서 文書를 출납하는 일을 맡은 관직으로, 官品은 正六品이다.

166) 照磨: 官職名으로 照刷磨勘을 줄여서 이르는 말이다. 元代에는 中書省 아래에 照磨(正八品) 1명을 두어 掌管磨勘과 회계감사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그 밖에 朝廷의 六部, 御史臺, 樞密院, 光祿寺, 太府監, 大司農府 및 諸衛 諸親軍에서부터 아래로 行中書省, 肅政廉訪司, 宣慰使司, 安撫司, 都漕運使司, 都轉運使司, 諸總管府 등 대다수의 官署에서도 照磨를 설치하여 해당 관서의 收支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게 했다. 明朝에는 照磨制度를 강화했는데, 各省의 布政使司에 照磨 1명(從八品), 按察使司에 照磨 1명(正九品), 各府에도 照磨 1명(從九品)을 두었다. 淸代에도 都察院에 照磨를 설치하지 않은 것만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명대의 제도를 계승하였다.

있었고 안만전은 원래 수서의 토관이었으므로, 그가 암암리에 동천부를 제어할 뜻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 순안(巡按) 왕대임(王大任)은 아당을 죽였다는 상주문을 조정엔 올리면서 아뢰기를, “동천 지방이 피폐해졌는데 [그 까닭은] 부(府)의 관인 셋을 모두 토관의 관서에 두었기 때문이므로, 청컨대 사천과 귀주의 총독과 진순관에게 두루 칙서를 내리시어 각 토관들이 사사로이 제멋대로 관인을 사용한 죄를 추궁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녹씨의 지파 가운데 마땅히 세워야 할 사람에게 아철의 처리 방법을 의논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해당 부서에서 심의한 후에 좋다고 [황제에게] 보고하였다.<sup>167)</sup>

四十一年鑄給四川東川府印。初，阿堂既誅，索府印不獲，人疑爲安萬鎰所匿，及是屢勘，印實亡失。而祿位近派悉絕，惟同六世祖有幼男阿采。撫按官雷賀·陳瓚請以采襲祿氏職，姑予同知銜，令寧著署掌，後果能撫輯其衆，仍進襲知府。其新印請更名，以防奸僞。有旨不必更，餘如議。先是，烏撒與永寧·烏蒙·霑益·水西諸土官，境土相連，世戚親厚，既而以各私所親，彼此構禍，奏訐紛紜，詳四川『永寧土司傳』中，當事者頗厭苦之。萬曆六年乃令照蠻俗罰牛例處分，務悔禍息爭，以保境安民，然終不能靖也。

[가정] 41년(1562)에, 사천 동천부 [지부]의 관인을 주조해주었다. 당초에 아당이 죽고 나서 [지]부의 관인을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자, 사람들은 안만전이 숨겼을 것이라고 의심하여 여러 차례 조사했으나 관인은 실제로 분실[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런데 녹위의 가까운 지파는 모두 끊어졌고 다만 6대 조부의 후손인 어린 남자아이 아채(阿采)만이 있었다. 무안관 너하(雷賀)와 진찬(陳瓚)이 아채로 녹씨의 직을 잇되 잠시 동지(同知)의 직함을 주고 영저(寧著)로 하여금 직무를 대신 관장하게 하다가, 후일에 [아채가] 과연 그 백성들을 어루만져 화목하게 할 수 있으면 승진시켜 지부의 직을 세습하게 하자고 청하였다. 새로운 관인은

167) 관련 사항은 『世宗實錄』 卷496 嘉靖 40년 5월 乙亥條에 기록되어 있다. 토사전 원문에는 撫按官 雷賀와 陳瓚이 잃어버린 官印의 이름을 바꾸어 주조해 주자고 奏請했다고 되어 있으나 實錄에는 東川府라는 명칭을 다른 것으로 바꾸고 이에 따라 새로운 이름의 知府印을 주조, 발급하여 이미 분실된 가짜가 사용되는 것을 막자고 주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름을 바꾸어 가짜가 [사용되는 것을] 막자고 청하였다. [황제는] 바꿀 필요가 없다고 지(旨)를 내렸고, 나머지는 모두 논의한 대로 시행하라고 했다.<sup>168)</sup> 이에 앞서 오살과 영녕·오몽·점익·수서의 여러 토관들은 그 땅의 경계가 서로 붙어 있어서 대대로 인척으로 지내며 친분이 두터웠으나 오래지 않아 각각 친한 바를 사사로이 하여 피차에 얽혀서 화를 일으키며 [상대의 허물을] 들추어내어 상주하였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사천 『영녕토사전』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 지역을 관할하던] 당사자들은 이런 정황을 무척 싫어하고 괴로워했다. 만력 6년(1578)에, 만족(蠻族)들의 벌우(罰牛) 습속에 따라서 처분하게 하여 화를 [불러온 행동]을 뉘우치고 다툼을 그치게 하여 토지 경계를 보존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려 했으나, 끝내 평안하게 할 수 없었다.<sup>169)</sup>

三十八年詔東川土司并聽雲南節制。時巡按鄧漢疏稱：「蜀之東川逼處武定·尋甸諸郡，只隔一嶺，出沒無時，朝發夕至。其酋長祿壽·祿哲兄弟，安忍無親，日尋干戈。其部落以劫殺爲生，不事耕作。蜀轄遼遠，法紀易疏。滇以非我屬內，號令不行。以是驕蹇成習，目無漢法。今惟改敕滇撫兼制東川。」因條三利以進，詔從之。

[만력] 38년(1610)에, 동천부의 토사에게 조서를 내려 운남의 통제를 받도록 하였다. 이때 순안 등미(鄧漢)가 상주하여 이르기를, “축의 동천[부]는 [운남] 무정부(武定府)<sup>170)</sup>·심전부

168) 관련 사항은 『世宗實錄』 卷500 嘉靖 41년 6월 己未條에 기록되어 있다.

169) 관련 사항은 『神宗實錄』 卷77 萬曆 6년 7월 癸酉條에 기록되어 있다.

170) 武定府: 지금의 雲南 楚雄彝族自治州 武定縣 지역이다. 武定이라는 말은 彝族의 말에서 기원하였다. 『新纂雲南通志』 「土司考」에 따르면, 武는 곧 婺에서 轉音된 것이다. 婺는 羅婺部族을 지칭하는데, 羅婺는 部族의 首領인 法瓦의 먼 조상으로 그 이름을 부족의 이름으로 삼은 것이다. 羅婺라는 부족 이름에 있는 婺가 武로 轉音된 것이다. 彝族들은 산간의 분지인 壩를 甸이라 일컬었는데, 元代에 들어와 甸을 定으로 轉寫하였다. 후대인들이 武定이란 명칭을 사용하면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武定은 戰國時代와 秦나라 때에는 滇國에 속했다. 前漢 元封 2년(전109)에는 益州郡에 속했는데, 蜀漢 建興 3년(225)에는 益州郡을 建寧郡으로 고쳤다. 西晉 泰始 6년(270)에는 寧州建寧郡에 소속했다가 南北朝 시대에는 晉寧郡과 建寧郡에 나누어 소속시켰다. 隋代에는 南寧州 總管府 昆州의 관할 구역이 되었다. 唐初에는 南寧州 總管府에 소속되었으며, 貞觀 6년(632)에 戎州都督府에 소속되었고, 南詔 시대에는 東爨 烏蠻 37部の 羅婺部가 되었다. 元 憲宗 7년(1257)에 羅婺萬戶府가 되었고, 至元 7년(1270)에 北路總管府가 되었으며, 至元 13년(1276)에 武定路가 되었다. 明에 이르러 洪武 15년(1382)

(尋甸府)<sup>171)</sup>와 단지 산봉우리 하나만 떨어져 있어 [동천부 사람들이] 수시로 출몰하며, 아침에 출발하면 저녁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 추장 녹수(祿壽)·녹철(祿哲) 형제는 잔인함에 몰들어 서로를 피붙이로 여기지 않고 날마다 싸움질만 생각합니다. 그 부락민들은 노략질하고 죽이는 일로 생업을 삼으며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측에서 [동천부를] 관할하기에 거리가 너무 멀어 법령과 기율이 쉽게 소홀해집니다. 전(滇)에서는 자신들의 관할 구역이 아니라고 말하니 호령이 행해지지 않습니다. 이에 오만방자함이 습속으로 굳어지고 한인들의 법은 안중에 없습니다. 이제 전의 순무에게 칙서를 바꾸어 내려 동천[부를] 함께 절제하도록 해주십시오 오”라고 하여 세 가지 이로움을 조목조목 진언하자, [황제가] 조서를 내려 이를 허락하였다.<sup>172)</sup>

先是，四川烏撒軍民府，雲南霑益州，雖滇·蜀異轄，宗派一源。明初大軍南下，女土官實卜與夫弟阿哥二人，率衆歸順，授實卜以烏撒土知府，授阿哥以霑益土知州。其後，彼絕此繼，通爲一家。萬曆元年，霑益女土官安素儀無嗣，奏以土知府祿墨次子繼本州，卽安紹慶也。已，祿墨及長子安雲龍與兩孫俱歿，安紹慶奏以次子安效良歸宗，襲

에 武定軍民府가 되었고, 隆慶 4년(1570)에 改土歸流하면서 武定府로 고쳤다. 淸 乾隆 35년(1770)에는 武定直隸州가 되었다. 武定縣은 雲南 고원지대의 북부, 雲貴 고원지대의 서측에 위치해 있고, 楚雄彝族自治州의 속했으며, 동으로는 祿勸에, 남으로는 富民 및 祿豐과 접하고 있고, 서로는 元謀와 접하고 있으며, 북으로는 金沙江을 경계로 하여 四川의 會理와 서로 바라보고 있다. 縣의 동서는 52km, 남북은 94km이며 지형은 산지와 구릉, 골짜기, 河谷平原과 山間盆地가 서로 교차하고 있다. 2003년 말 현재, 총인구는 261,054명으로 漢·彝·傈僳·苗·傣 등 여러 민족이 잡거하고 있다. 武定은 역사적으로 보면 오래전부터 西南彝族部落, 좀 더 구체적으로는 羅婺部의 거주지역이었다. 대체로 7~8세기 무렵에 民族部落이 형성되었고 9세기 초에 이르러 彝族들의 부락이 점차로 강성해져서 諸蠻 30餘部를 병탄하여 모두 羅婺部에 예속시켰다.

171) 尋甸府: 지금의 雲南省 동북부에 위치한 尋甸回族彝族自治州이다. 현재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은 漢·回·彝·苗·傈僳·拉祜·佤·納西族 등 26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소수민족 인구는 1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8%에 달한다. 尋甸은 운남 동북부의 요충지로서 漢 武帝 元封 2년(전109)에는 牧靡로 칭해져 益州郡에 속했다. 明代에 이르러 洪武 15년(1382)에 尋甸軍民府가 설치되었고, 成化 12년(1476)에는 改土歸流가 취해져서 토관에 대체하여 유관이 부임했다. 淸代 雍正 8년(1730)에는 尋甸縣에 迤東兵備道를 설치하였다가 후에 迤東兵備道兼水利道로 고쳤다. 道台는 尋甸縣城에 설치하고 13개 府를 관할하였다.

172) 관련 사항은 『神宗實錄』 卷468 萬曆 38년 3월 丁酉條에 기록되어 있다.

土知府。安雲龍之妻隴氏，卽鎮雄女土官者氏之女也，以雲龍雖故，尚有遺孤，且挾外家兵力，與紹慶爲敵。紹慶則以隴氏所出，明系假子，亦倚霑益兵力，與隴氏爲難。彼此仇殺，流毒一方。士民連名上奏，事行兩省會勘，歷十有四年不結。是年，安雲翔奏稱：「隴氏有子官保，今已長成。效良倚父兵，強圖竊據，殺戮無辜。」因極言效良不可立者數事。

이보다 앞서, 사천 오살군민부와 운남 점익주는 비록 진(滇)과 촉(蜀)으로 관할은 달랐으나 그들의 종파는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다. 명초에 대군이 남하하자 여토관 실복(實卜)과 남편의 아우 아가(阿哥) 두 사람은 무리를 이끌고 귀순했는데, [황제가] 실복에게는 오살 토지부의 직을 제수하고 아가에게는 점익주 토지주의 직을 제수했다. 그 후에 저쪽은 [후사가] 끊어지고 이곳은 이어져 통하여 하나의 집안이 되었다. 만력 원년(1573)에, 점익주의 여토관 안소의(安素儀)가 후사가 없었으므로 토지부 녹묵(祿墨)의 둘째 아들로 하여금 점익주 [토지주의] 직책을 잇게 해달라고 상주하였는데, 그가 곧 안소경(安紹慶)이었다. 곧 녹묵(祿墨) 및 장자 안운룡(安雲龍)과 두 손자가 모두 죽었으므로, 안소경(安紹慶)은 둘째 아들 안효량(安效良)을 원래 집안으로 복귀시켜 토지부의 직책을 물려받게 해달라고 상주문을 올렸다. 안운룡의 처 농(隴)씨는 곧 진운부의 여토관 자씨(者氏)의 딸이었는데, 안운룡이 비록 죽었다 하나 오히려 어린 아들이 남아 있고 또 외가의 병력을 의지하여 안소경과 맞섰다. 안소경은 농씨에게서 나왔으므로 분명히 양자였으나, 점익주의 병력에 의지하면서 농씨와 적이 되었다. 피차에 서로 원수가 되어 죽여 그 해독이 한 지역에 퍼졌다. 사민(士民)들은 연명으로 상주하기를, 두 성에서 회동하여 조사해달라고 하였으나 14년이 지나도록 매듭짓지 못했다. 이해에 안운상이 상주하여 이르기를, “농씨에게 관보(官保)<sup>173)</sup>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제 이미 장성하였습

173) 官保가 안운룡의 진짜 유복자인지에 대해서는 시비가 있었다. 『神宗實錄』 卷307 萬曆 25년 丙子條에 따르면 오살 토지부 安雲龍의 처 隴氏와 安國正은 雲龍의 遺腹子인 官保가 진짜 아들이 아니라며 오살 토지부로 세우면 안 된다고 반대하며 그를 모살하려 했다. 그리고 운룡의 친동생인 紹慶의 아들 效良이 후사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록의 이 기록은 착오이다. 안운룡의 처 농씨가 자신이 낳은 아들 관보를 안운룡의 유복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며 토지부의 직을 계승하지 못하게 하려고 죽이려 할 까닭은 전혀 없다. 그리고 토사전의 원문에도 안운룡의 처 농씨는 어린 아들 즉 관보를 오살의 토지부로 삼도록 주장하며 안소경과 맞서고 있다.

니다. 안효량(安效良)은 아버지의 군대에 의존하여 강제로 흠치고 점거하려 하여 무고한 백성을 살육했습니다”고 했고, 이로 인하여 안효량을 [토지부로] 세울 수 없는 몇몇 이유를 극력 진언했다.<sup>174)</sup>

三十九年，廷臣議行川·貴大吏勘報。貴州撫臣以土官爭職在雲南，而爲害在黔·蜀，必得三省會勘，始可定獄。帝命速勘，乃命隴鶴書承襲鎮雄土知府。鶴書，原名阿卜，自其始祖隴飛沙獻土歸順，授爲世職知府，五傳而爲庶魯卜，別居於果利地，又四傳而爲庶祿姑，別居夷良·七欠頭地，又五傳而隴氏之正支斬矣。水西安堯臣贊於祿，欲奄有之，衆論不平，始有驅安立隴之奏，奉旨察立隴後。女官者氏以阿固應。阿固者，魯卜之六世孫，而易名隴正名者也。於是主立阿固，而先立其父阿章。章尋病死，阿固不爲夷衆所服，往復察勘。者氏及四十八目·十五火頭等共推阿卜。阿卜者，祿姑之五世孫，咸以爲長且賢，而者氏且以印獻，遂定立阿卜，而以阿固充管事，從巡撫喬應星之議也。

만력 39년(1611)에, 조정의 대신들이 논의하여 사천과 귀주의 고위관원들에게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귀주 순무는 토관들이 관직을 다툰 일은 운남에서 벌어졌고 해를 입은 것은 검과 촉이니 반드시 3성(省)[의 관원]이 회동하여 조사해야 비로소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 황제는 속히 조사하라고 명하고, 곧 농학서(隴鶴書)에게 진응부 토지부 직을 승계하라고 명령했다. 농학서의 원래 이름은 아복(阿卜)으로, 그 시조 농비사(隴飛沙)가 토지를 바치며 귀순하여 대대로 세습하는 지부의 직을 계승받고 5대를 전하여 내려온 자가 서노복(庶魯卜)이었는데, [그는] 과리(果利)의 땅에 따로 떨어져 살았다. 또 4대를 전하여 내려온 자가 서록고(庶祿姑)였는데, 이량(夷良)·칠흠두(七欠頭)의 땅에 따로 떨어져 살았

174) 관련 사항은 『神宗實錄』 卷472 萬曆 38년 6월 丁亥條에 기록되어 있다. 실록원문에는 안효량을 세울 수 없다고 진언한 이유가 네 가지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병부에서는 이 진언을 심의하여 세 가지 판단 기준을 근거로 누구를 지부에 세울 것인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 세 가지 근거란 첫째는 농씨의 아들 즉 官保가 진짜인지 가짜인지의 여부, 둘째는 안씨 집안의 종족 간 친소관계를 따지는 것, 셋째는 토사의 민심 향배였는데 만력 38년 말까지 조사결과를 상주하기로 하였다.

다. 또 5대를 전하여 내려와 농(隴)씨의 장자들로 이어지는 종가 지파가 단절되었다. 수서의 안요신(安堯臣)이 농씨에게 데릴사위로 들어가서 그 땅을 슬그머니 차지하려 했으나, 무리들의 여론이 들끓자 비로소 안씨를 쫓아내고 농씨를 세우자는 상주문이 올려졌고, [황제의] 유지를 받들어 농씨의 후예를 찾아서 세웠다. 여관 자(者)씨는 아고(阿固)가 [적임자라고] 응답했다. 아고는 서노복의 6세손으로, 농정명(隴正名)으로 이름을 바꾼 자였다. 이에 아고를 세우기로 하고 먼저 그 아버지 아장(阿章)을 세웠다. 아장은 곧 병으로 죽고 아고는 만이(蠻夷)의 무리에게서 신복(信服)을 받지 못했으므로 [황제는] 여러 번 살피고 조사했다. [입장을 바꾼] 자씨와 48목(目)<sup>175</sup>·15화두(火頭)<sup>176</sup>는 공동으로 아복(阿卜)을 천거했다. 아복은 농고(祿姑)의 5세손으로, 모두 나이도 많고 어질다고 여겼으며 자씨가 또한 관인을 바치니, 드디어 아복(阿卜)으로 결정해서 세웠고 아고는 관사(管事)에 충당하였는데 [이는] 순무 교응성(喬應星)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sup>177)</sup>

四十一年，烏撒土舍安效良初與安雲翔爭立，朝廷以嫡派立效良。雲翔數爲亂，謀逐效良，焚劫烏撒。四川撫按上其事，以效良爲雲龍親侄，雲翔乃其堂弟，親疏判然，效良自當立。雲翔擾害地方，欺罔朝廷，罪原難赦，但爲奸人指使，情可原，姑准復冠帶。從之。

[만력] 41년(1613)에, 오살의 토사(土舍) 안효량(安效良)이 처음에 안운상(安雲翔)과 자리를 다투었는데, 조정에서는 적통(嫡統)이라는 이유로 안효량을 세웠다. 이에 안운상은 자주 소란을 피워 안효량을 쫓아내려고 하였고, 오살을 불태우고 노략질했다. 사천 무안관이 그 일을 보고하기를, 안효량은 안운룡의 친조카이고 안운상은 그의 당제(堂弟)<sup>178)</sup>이니 친소(親疏)관계가 확연하므로, 마땅히 안효량이 세워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안운상은 지방을 어지

175) 目: 首領, 頭目을 일컬음.

176) 火頭: 변방 소수민족의 小頭領을 일컬음. 徐弘祖가 저술한 『徐霞客遊記』의 「滇游日記」 11에, “半里, 有聚落倚坡東向羅列, 是爲蠻邊. 覓火頭不見”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에 대한 注에 “火頭者, 卽中土保長, 里長之類”라고 되어 있다.

177) 관련 사항은 『神宗實錄』 卷482 萬曆 39년 4월 丙戌條에 기록되어 있다.

178) 堂弟: 伯父나 叔父의 아들로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자를 지칭한다.

럽히고 해를 끼쳤으며 조정을 속였으니 그 죄는 원래 용서하기 어려우나, 다만 그는 간사한 자들이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기에] 인정상 용서할 수 있으므로, 잠시 관대(冠帶)를 회복하도록 허락하자고 했다. [이에 황제가] 이를 허락했다.

四十三年，雲南巡按吳應琦言：「東川土官祿壽·祿哲爭襲以來，各縱部衆，越境劫掠。擁衆千餘，剽掠兩府，浹旬之間，村屯并掃，荼毒未有如此之甚者。或撫或剿，毋令養禍日滋。」下所司勘奏。貴州巡按御史楊鶴言：「烏撒土官，自安雲龍物故，安咀與安效良爭官奪印，仇殺者二十年。夷民無統，盜寇蜂起，堡屯焚毀，行賈梗絕者亦二十年。是爭官奪印者蜀之土官，而蹂踐糜爛者黔之赤子。誠改隸於黔，則彈壓既便，干戈可戢。」又言：「烏撒者，滇·蜀之咽喉要地。臣由普安入滇，七日始達烏撒。見效良之父安紹慶據霑益，當曲靖之門戶。效良據烏撒，又扼滇·蜀之咽喉。父子各據一方，且壤地相接，無他郡縣上司以隔絕鈐制之，將來尾大不掉，實可寒心。蓋黔有可制之勢，而無其權；蜀有遙制之名，而無其實。誠以爲隸黔中便。」帝命所司速議。

만력 43년(1615)에 운남 순안 오응기(吳應琦)<sup>179)</sup>가 아뢰기를, “동천(東川)의 토관 녹수·녹철이 관직을 세습하려 다툰 이래, 각각 부족의 무리를 풀어 경계를 넘어가 노략질했습니다. [두 사람은] 무리 천여 명을 거느리고 사납게 양부(兩府)를 노략질하니, 열흘 만에 촌락이 [남은 것 없이] 비로 쓸어버린 듯이 되어 그 해독이 이처럼 심한 것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위무하고 때로는 토벌하여 [일관성 없이 대처하여] 화[근]을 날마다 더욱 심하게 키우지 않게 하십시오”라 하니, [황제가 이를] 해당 부서에서 조사하여 상주하게 하였다.<sup>180)</sup> 귀주 순안어

179) 吳應琦: 生卒年 未詳. 安徽 桐城 사람으로, 萬曆 32년(1604)에 進士에 급제하여 太常寺 博士, 監察御史, 巡按雲南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雲南 巡按으로 있을 때, 운남의 토사 沐氏가 오만방자하고 횡포를 부려 다스리기가 어려웠는데, 그는 沐氏 父子의 다툼을 이용하여 이들을 제압하였다. 또한 그는 學宮을 건설하여 교육을 장려하였으며, 해마다 생산되지 않는 金을 공물로 바침으로 인해 처참한 지경에 처한 주민들의 생활상을 조정에 알려 이를 면제해주도록 요청하였다. 운남에서 이처럼 폐단을 없애고 어려움을 해결해주어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으나 곧 부친상을 당해 고향으로 돌아가 服喪하였다. 복상 기간이 끝나 조정에 복귀하여 浙江 道御史로 임명되었으나 얼마 후에 사직하고 귀향하였다.

180) 관련 사항은 『神宗實錄』 卷531 萬曆 43년 4월 庚寅條에 기록되어 있다. 황제는 四川撫按官에게 사실을

사 양학(楊鶴)<sup>181)</sup>이 아뢰기를, “오살 토관은 안운룡이 사망한 이래, 안저(安咀)와 안효량(安效良)이 관직과 관인을 다투며 서로를 원망하고 죽인 지가 20년이나 되었습니다. 만이(蠻夷)들은 기강이 없어서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나 마을을 불태우고 부쉬 상인들이 발길을 끊은 지가 대략 20년이 되었습니다. 이 관직과 관인을 다투는 자는 촉의 토관들인데, 짓밟히고 피폐하게 된 자들은 귀주의 백성들입니다. 만일 검으로 소속을 바꾼다면 탄압하기가 쉬워져서 무기를 들고 싸우는 일이 그칠 것입니다”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오살은 전(滇)과 촉(蜀)의 목구멍에 해당하는 요충지입니다. 신이 보안(普安)<sup>182)</sup>에서 전으로 들어올 때, 7일이 지나서 비로소 오살에 도착했습니다. 살펴보니 안효량의 아버지 안소경이 점익(霽益)을 점거하고 있는데, [점익은] 곡정의 문호(門戶)에 해당합니다. 안효량은 오살을 점거하면서 또 전과 촉의 목구멍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부자가 각각 한 지방을 점거하고 있고 또 땅은 서로 접해 있는데 다른 군현의 상급 관원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단속하고 제어할 수 없어, 장차 [상부에서] 이들을 마음대로 지휘할 수 없게 될 것이니 실로 낙심하게 됩니다. 대개 검(黔)에서는 제압할 수 있는 형세이나 그런 권한이 없고, 촉에서는 먼 곳을 제어한다는 명목은 있으나 그 실질은 없습니다. 진실로 검에 예측시키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고 하니 황제가 해당 부서에서 신속하게 논의하도록 명령했다.<sup>183)</sup>

조사하여 상주하도록 명령했다.

181) 楊鶴(?~1635): 湖南 武陵 사람으로, 萬曆 32년(1604)에 進士에 급제하여 관도에 올라 兵部右侍郎, 總督陝西三邊軍務를 역임하였다. 그는 明末에 兵部尙書로 농민반란군의 진압을 지휘한 楊嗣昌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楊鶴은 崇禎 초에 陝西에서 闖王 高迎祥을 중심으로 한 농민군이 반란을 일으키자 도적이 발생한 까닭은 흉년이 들어 굶주림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라 하면서 招撫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노력으로 인한 招撫政策으로 陝西 각지의 반란군은 조정에 투항하였다. 그러나 투항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양식과 돈이 턱없이 모자라 투항자 중에서 다시 반란에 참여하는 자가 속출하였다. 이에 明 조정에서는 농민반란군을 무력으로 진압해야 한다는 강경파가 득세하여 그를 공격하였다. 결국 楊鶴은 체포되고 洪承疇가 그를 대신해 반란군 진압을 지휘하였다.

182) 普安: 지금의 貴州省 西南部 烏蒙山區에 위치한 普安縣이다. 동으로는 晴隆縣, 남으로는 興仁縣, 서로는 盤縣에 접하고 있으며, 북으로는 水城縣과 六枝特區에 접해 있다. 明代에 普安衛를 설치하였고, 清代에 普安縣을 설치하였다. 普安이라는 이름은 ‘普天之下, 芸芸衆生, 平安生息’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의 이 지역 인구는 30만 명 정도이며, 주민으로는 漢, 苗, 布依, 回, 彝, 黎, 白族 등 29개 민족이 거주하고 있다. 普安의 북부는 역대로 雲南으로 진입하는 요충지였으며, 이 때문에 洪武 16년(1383)에 明의 군대는 이곳에 뚫린 驛道를 통하여 운남으로 진격하였다.

183) 관련 사항은 『神宗實錄』 卷556 萬曆 45년 4월 己亥條에 기록되어 있다.

泰昌元年，雲南撫按沈儼燦等言：「蜀之東川，業奉朝命兼制，然事權全不相關。祿千鍾·祿阿伽縱賊披猖，爲患不已。是東川雖隸蜀，而相去甚遠，雖不隸滇，而禍實震隣。宜特敕蜀撫按，凡遇襲替，務合兩省會勘。蜀察其世次，滇亦按無侵犯，方許起送，亦羈縻綏靜之要術也。」詔下所司。

태창(泰昌)<sup>184</sup> 원년(1621)에 운남의 무안관 심경개(沈儼燦)<sup>185</sup> 등이 아뢰기를, “촉의 동천은 이미 조정의 명령을 받들어 [촉과 검] 양측에서 절제를 받고 있으나, 일을 처리하는 권한은 [양측이]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녹천종(祿千鍾)·녹아가(祿阿伽)가 적들을 풀어 날뛰게 하므로 근심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동천이 비록 촉에 예속되어 있으나 거리가 무척 멀고, 비록 전에 예속되어 있지 않으나 재난은 실로 인접한 땅을 진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특별히 촉의 무안관들에게 칙서를 내려 무릇 [토관을] 세습하거나 교체하는 일을 만나면 힘써 두 성(省)[의 무안관]이 회동하여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 촉에서 세대의 순서를 조사하고 전에서도 침범한 적이 없는지 조사해서, [그런 적이 없으면] 비로소 [세습하거나 새로 세워진 자가] 조근(朝覲)하러 가도록 허락하는 것이 굴레를 씌워 편안하고 고요하게 만드는 중요한 방법입니다”고 하였다. [황제가]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라고 조서를 내렸다.

184) 泰昌: 명 왕조 15대 황제인 光宗 朱常洛의 연호이다.

185) 沈儼燦(1554~1631): 字는 叔永이며, 歸安 사람이다. 萬曆 17년(1589)에 進士에 급제하여 河南 左布政使, 光祿卿을 거쳐 萬曆 47년(1619)에 右副都御史雲南巡撫로 발탁되었다. 萬曆 말에 神宗이 조서를 내려 운남에서 매년 黃金 2천 냡을 공물로 더 바치도록 명령했는데, 그는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 마침 萬曆帝가 崩御하고 泰昌帝(光宗)가 즉위해서 그의 상소가 가납되었다. 이후 雲龍州 土舍 段進志가 永昌, 大理 등지를 침략하고 약탈하자 그는 군대를 이끌고나가 이들을 토벌하고 段進志를 사로잡았다. 烏撒에서 安邦彥이 반란을 일으키자 여러 土司들이 동참하였는데, 安效良은 霑益을 함락시키고 李賢은 平夷를 함락시켰으며, 祿千鍾은 尋甸, 嵩明을 침범하고, 張世臣은 武定을 공격하였으며, 邦彥의 누이동생 設科는 曲靖을 노략질하고는 방향을 돌려 陸涼을 침범하였다. 이에 沈儼燦은 參將인 雲南人 袁善에게 守備 金爲貴와 土官 沙源 등을 이끌고 嵩明을 구원하도록 하여 반란군을 대파하였으며, 尋甸을 침범한 반란군을 다시 크게 패퇴시켰다. 이후 沈儼燦은 南京 兵部右侍郎으로 이임하고 다시 南京 工部尙書에 제수되었는데 환관 魏忠賢의 일파인 石三畏에게 탄핵당해 벼슬에서 물러났다. 崇禎 초년에 復官되었으나 곧 세상을 떠났다(『明史』 卷249 「沈儼燦傳」).

時諸土司皆桀驁難制，烏撒·東川·烏蒙·鎮雄諸府地界，復相錯於川·滇·黔·楚之間，統轄旣分，事權不一，往往軼出爲諸邊害。故封疆大吏紛紛陳情，冀安邊隅，而中樞之臣動諉勘報，彌年經月，卒無成畫，以致疆事日壞。播州初平，永寧又叛，水西煽起，東川·烏蒙·鎮雄皆觀望騎牆，心懷疑二。於是安效良以烏撒首附逆於邦彥，并力攻陸廣，復合霑益賊圍羅平，陷霑益，爲雲南巡撫閔洪學所敗。洪學以兵力不繼，好語招之，令擒賊自贖，效良亦佯爲恭順。又見黔師出陸廣，滇師出霑益，水·烏之勢已成騎虎，遂合永寧·水西諸部三十六營，直抵霑益，對壘城下五日。副總兵袁善·宣撫使沙源等督將士力戰，出奇兵破之，效良敗死。妻安氏無子，妾設白生其爵·其祿。二婦素不相能，安氏居鹽倉，設白母子居抱渡。安氏遂代效良爲土官，然亦未絕其爵，其爵亦以安氏爲安位姐，不敢抗。

이때 여러 토사(土司)들은 모두 흉포하여 제압하기가 어려웠고, 오살·동천·오몽·진웅 각부의 경계는 천(川)·전(滇)·검(黔)·초(楚) 사이를 들쭉날쭉해서 [행정상] 통할하는 곳은 이미 [각각] 나누어 정해졌으나 일을 처리하는 권한은 하나로 통합되지 않아서, 왕왕 경계를 넘어서 여러 부의 번두리에 걸쳐 해가 발생했다. 그러므로 [순무와 같은] 봉강대리(封疆大吏)들은 부지런히 정황을 보고하여 변방의 구석진 곳이 편안하기를 바랐지만, 중앙의 대신들은 조사하여 보고하라고만 하여 해가 가고 달이 가도 마침내 온전한 계획이 없으니, 변강의 업무가 날로 무너졌다. 파주(播州)가 가까스로 평정되면 영녕(永寧)이 또 반란을 일으키고, 수서(水西)가 선동하여 소란을 일으켜도 동천·오몽·진웅은 모두 관망하고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서 속으로 두 마음을 품었다. 이에 안효량(安效良)은 오살의 우두머리로서 방언(邦彥)에게 붙어 반란을 일으켜 힘을 합해 육광(陸廣)을 공격했으며, 다음에는 점익(霑益)의 적들과 함께 나평(羅平)<sup>186</sup>을 포위하고 점익을 함락시켰다가 운남 순무 민홍학(閔洪學)<sup>187</sup>에게 패

186) 羅平: 雲南省 동부에 위치한 羅平縣이다. 曲靖市에 속해 있으며, 동으로는 黃泥河에 沿해 있고 貴州省 興義市와 접하며, 남으로는 廣西 西林縣과, 서남으로는 師宗縣, 서에서 북으로는 陸良, 麒麟, 富源 등의 세 縣과 경계를 접하고 있다. 縣의 78%가 산간지대이며 省會인 昆明과는 240km, 曲靖市와는 113km 떨어져 있다. 前漢時代에는 夜郎에 속했다가 牂牁郡에 소속되었고, 隋代에는 南寧州에 소속되었다. 唐初에는 南寧州總官府에 소속되었으며, 貞觀 연간(626~649)에는 郎州에 소속되었다. 天寶 연간(741~756)에는 羅雄部가 설치되어 南詔 石城郡에 소속되었다. 宋代에는 東爨烏蠻 37部の 하나로 서

배했다. 민홍학은 군대의 힘이 지속되지 못해 [안효량을] 좋은 말로 타이르고, 그로 하여금 적들을 사로잡아 죄를 씻게 하였는데 안효량도 또한 거짓으로 공순한 체하였다. [그는] 또 귀주의 군대가 육광에서 나오고 운남의 군대가 점익에서 나와 수서와 오살의 형세가 호랑이를 탄 것처럼 중도에 멈추기 어려운 것을 보고, 드디어 영녕(永寧)·수서의 여러 부족 36영(營)과 합하여 곧바로 점익으로 가서 성 아래에서 닳새를 대치했다. 부총병 원선(袁善)과 선위사 사원(沙源) 등이 장사들의 전투를 독려하고 돌격대를 내어 깨뜨리니, 안효량은 패하여 죽었다. 처 안씨(安氏)는 자식이 없고, 첩 설백(設白)은 안기작(安其爵)·안기록(安其祿)을 낳았다. 두 부인은 평소에 화목하지 못해 안씨는 염창(鹽倉)에서, 설백 모자는 포도(抱渡)에서 살았다. 안씨는 드디어 안효량을 대신하여 토관이 되었으나 안기작과 (연락을) 끊지 못했고, 안기작 역시 안씨가 안위(安位)의 누나였으므로 감히 항거하지 못하였다.

崇禎元年，四川巡撫差官李友芝齎冠帶獎賞其爵母子，令管烏撒。安氏惡分，始絕其爵。其爵夜襲安氏鹽倉，不克，與設白·其祿逃東川界，爲東川所拒，而抱渡又失。李友芝爲請於制府，發滇兵三千援其爵，滇撫不應。安氏懼，謀迎霑益土官安邊爲婚，授之烏撒以拒其爵。安邊亦欲偶安氏以拒其祿，以催糧爲名至建昌。安氏遂迎邊至鹽倉成婚。一時皇皇謂水西必糾霑·烏入犯。雲南巡撫謝存仁以聞，存仁因移鎮曲靖以觀變。安邊·安氏請復烏撒衛以自贖。

승정(崇禎)<sup>188)</sup> 원년(1628)에, 사천 순무가 관원 이우지(李友芝)를 보내 관대를 가지고가서

大理國 石城郡에 소속되었다. 元 至元 13년(1276)에는 羅雄州가 설치되고 曲靖路에 소속되었다. 明 萬曆 15년(1587)에는 羅平州로 이름을 바꾸고, 曲靖軍民府에 소속되었으며, 清代에는 변동이 없었다. 현재 이 지역 인구는 52만 명가량이며, 그 가운데 소수민족은 5만 명가량이다. 소수민족으로는 彝族, 白族, 傣族, 壯族, 苗族, 回族, 僳僳族, 拉祜族, 佤族, 納西族, 瑤族 등이 있다.

187) 閔洪學: 生卒年 미상. 浙江 烏程 사람으로, 萬曆 26년(1598)에 進士가 되었다. 天啓 2년(1622)에서 6년(1626)까지 雲南 巡撫를 역임하면서 운남 소수민족의 반란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웠다. 또한 동전을 주조하고 학교를 건설하며 이재민을 구휼하는 등 경제와 사회 각 방면에서 운남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였다. 雲南 巡撫로 재직할 당시 『撫滇奏草』 12卷을 저술하였는데, 운남 지방사에 관한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다. 崇禎 3년(1630)에 吏部尙書 王永光이 罷官되자 吏部尙書로 발탁되었다.

188) 崇禎: 명 마지막 황제인 思宗 朱由檢의 연호이다.

안기작 모자에게 표창하여 상으로 내리고, 오살을 관할하도록 했다. [이에] 안씨가 [자신의 관할이] 나뉘는 것을 싫어하여 비로소 안기작과 절연했다. 안기작은 밤에 안씨가 사는 염창을 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여 설백 및 안기록과 함께 동천의 경계지역으로 도망갔는데, 동천에서 저항을 받았고 또 포도도 잃어버렸다. 이우지는 [그를] 위해 순무에게 청하여 전(滇)의 병사 3천을 출병하여 안기작을 도와주도록 했으나, 전(滇)의 순무는 응하지 않았다. 안씨는 두려워하여 점익의 토관 안변(安邊)을 맞이하여 혼인하기로 계획하고, 그에게 오살을 맡겨 안기작에게 대항하기로 하였다. 안변 역시 안씨와 짝을 이루고 안기록에 저항하고자 세랑납부를 독촉한다는 명목으로 건창(建昌)에 이르렀다. 안씨는 드디어 안변을 맞이하여 염창에 이르러 혼인하였다. 일시에 [민심이] 흥흥하고 불안해져 수서(水西)는 반드시 점익과 오살을 규합하여 들어와 범할 것이라 하였다. 운남 순무 사존인(謝存仁)은 이를 [황제에게] 보고하였으며, 곡정(曲靖)으로 진을 옮겨서 변란을 관망하였다. 안변과 안씨는 오살위를 회복하여 스스로 속죄하기를 청하였다.

二年，總督朱燦元調集漢土兵，列營霑益，趣滇撫會兵進烏撒境。安邊·安氏逃避偏橋。大兵入鹽倉，拔難民一千餘人。師還，安邊·安氏復還鹽倉，遣人至軍前，請俟烏城克復，束身歸命，意實緩師。乃復發兵逐安邊·安氏，以鹽倉授其爵。兵至望城坡，遇賊哨騎百餘，麾兵奮擊，賊盡奔箐中，遂復烏撒城。安邊駐三十里外，擁兵求見，諭令束身歸誠。邊夜遁，遂棄鹽倉，入九龍國。烏撒陷賊八年，至是始復。乃召其爵來鹽倉，令約束九頭目以守，且令圖獻安邊·安氏。其爵以鹽倉殘毀，乞移烏撒城，從之。時其爵署烏撒知府，其祿署霑益知州，雖懦稚頗忠順，其母亦頗有主持，能得衆。

[승정] 2년(1629)에, 총독 주섭원(朱燦元)<sup>189)</sup>이 한족 병사와 토병들을 징발하여 모아 점익

189) 朱燦元(1566~1633): 원래의 이름은 懋賞이며, 字는 懋和, 號는 恒岳, 別號는 石芝였다. 山陰(지금의 浙江 紹興)의 白洋村 출신이다. 萬曆 13년(1585)에 舉人이 된 후 紹興知府 蕭良干的 초빙을 받고 諸子書를 2년간 전수하였다. 萬曆 20년(1592)에 進士로 급제하여 大理評事に 제수되었다. 당시 山西 豪紳 劉申 등이 鄉里에서 횡행하여 죽은 자가 즐비하였다. 이 일이 드러났지만 10년 동안 판결이 나지 않았다. 그는 이 사건을 수리해서 權貴의 청을 물리치고 즉각 판결하여 300여 명을 구원하였다. 후에 蘇州知府로 부임하여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등의 치적을 올렸다. 萬曆 29년(1601)에 鑛稅使 孫隆

에 군영을 설치하고 전(滇)의 순무를 재촉하여 군대를 회동하고 오살의 경내로 진격했다. [이에] 안변과 안씨는 편교(偏橋)<sup>190</sup>로 도피하였다. 대군이 염창으로 들어가 난민 1천여 명을 구원하였다. 군대가 돌아오자 안변과 안씨는 다시 염창으로 돌아와 [총독] 군문으로 사람을 보내, 오성(烏城)을 점령하고 수복한 후에 몸을 묶어 투항하기를 기다려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그 뜻은 군대의 진격을 늦추는 데 있었다. 이에 다시 군사를 내어 안변과 안씨를 쫓아내고 염창을 안기작에게 주었다. 군대가 망성과(望城坡)에 이르러 적의 기마 초병 백여 기를 만나자 병사를 지휘하여 힘써 공격하니, 적들은 모두 대나무숲 속으로 도망가고 드디어 오살성을 회복하였다. 안변이 30리 바깥에 머물면서 군대를 거느리고 보기를 청하자, 유지를 내려 몸을 묶고 투항하도록 명령했다. 안변은 밤에 도주하여 마침내 염창을 버리고 구룡돈(九龍囤)<sup>191</sup>으로 들어갔다. 오살은 적에게 함락된 지 8년이 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수복되었다. 이에 안기작을 불러 염창으로 오게 하여 9명의 두목들을 이끌고 지키도록 했으며 또 안변과

이 蘇州에서 무리하게 徵稅를 감행하여 葛成을 우두머리로 하는 1만여 명의 織工이 民變을 일으켰다. 이때 그는 이미 川南道로 승진하여 행장을 챙겨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 大吏들이 다급한 나머지 그에게 폭동 진압을 요청했는데, 그는 “官兵은 外寇를 방어해야 한다”는 이유로 관군 동원을 통한 폭동 진압을 거부하고 恩義로써 해산을 권하였다. 결국 葛成이 자수하면서 民變은 일단락되었다. 萬曆 35년(1607)에는 부모가 연로하다는 이유로 사직하고 귀향하여 10년 동안 봉양하였다. 萬曆 44년(1616)에 陝西按察使로 기용되었고, 萬曆 46년(1618)에는 四川 右布政使로 부임하였다. 天啓 원년(1621)에 永寧土司 奢崇明이 반란을 일으켜 41개 州縣을 연속으로 격파한 뒤 水陸으로 成都를 포위하였는데, 이때 그는 ‘賊動我止, 賊止我動’ 전술로 반란군을 유인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이 공로로 兵部侍郎과 四川, 湖廣, 陝西 등지의 軍務를 總督하게 되었다. 奢崇明이 그 후에 貴州 水西土司 安邦彥과 연합하여 다시 거병하여 貴州를 침범하였고, 貴州巡撫가 이 싸움에서 패배하자 조정에서는 다시 朱燦元에게 출정토록 하였다. 이후 兵部尙書로 승진하여 貴州, 四川, 湖廣, 雲南, 廣東 등 5省의 軍務를 總督하였다. 崇禎 2년(1629) 8월에 水西로 진격하여 奢崇明과 安邦彥을 죽이고 서남의 반란을 평정했으며, 이 공로로 少保로 승진하여 少傅兼太子太傅가 더해졌고, 후에 少師, 左柱國이 추가되었다. 崇禎 11년(1633)에 殉職하였는데, 처음에는 襄毅라는 諡號를 받았으나 후에 忠定으로 바뀌었다. 저술로 『督蜀疏草』 12권, 『朱襄毅疏草』 12권, 『朱少師奏疏』 8권이 있다.

190) 偏橋: 지금의 貴州省 施秉縣 동쪽에 위치하며, 雲南에서 貴陽을 거쳐 河南으로 통하는 要道이다. 元至元 연간(1264~1294)에 偏橋·德勝·施秉·前江等处 蠻夷軍民長官司를 설치하였다. 明 洪武 5년(1372)에 偏橋 일대에 偏橋長官司를 설치하고, 前江 일대에는 施秉蠻夷長官司를 설치하였다. 洪武 23년(1390)에 偏橋衛를 설치하였고, 正統 8년(1443)에는 施秉蠻夷長官司를 施秉縣으로 바꾸었다. 天啓 元年(1621)에는 縣을 폐지하였으나 崇禎 4년(1631)에 다시 施秉縣을 설치하였다. 淸 康熙 26년(1687)에는 偏橋衛를 철폐하여 施秉縣에 편입하고 縣의 治所를 이전의 偏橋衛城으로 옮겼다.

191) 九龍囤: 지금의 貴州省 習水縣 土城鎮 九龍囤村으로, 明代에 설치된 軍事屯堡이다.

안씨를 [사로잡아] 바치기를 도모하라고 명하였다. 안기작은 염창이 부서지고 무너졌으므로 오살성으로 읍기기를 청하니, [총독은] 허락하였다. 이때 안기작은 오살 지부 서리(署理), 안기록은 점익주 지주 서리로서 비록 나약하고 어렸으나 무척 충성스럽고 잘 복종하였으며, 그 어미도 역시 일을 매우 잘 주관하여 무리[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다.

安邊屢乞降於總督朱變元，且藉水西安位代申，以邊實紹慶嫡孫，宜襲知州，請罪其爵·其祿。變元曲爲調護，欲予以職銜，分烏撒安置之。雲南撫按堅執不可，以安邊令其黨勒兵於野馬川，復以千金誘其爵頭目，日爲并吞霑·烏計。萬一其爵被襲，則烏撒失，而前功盡棄。烏撒失，霑益危，而全滇動搖，非但震隣，實乃切膚。竟不行。安邊乃乞師於安位，納之霑益，而逐其祿，時安氏在也。旣而安氏死，安位與之貳，其祿乃假手羅彩令者布發難，邊適死。不移日，其祿率兵至，詭言爲其叔報仇，士民歸者如流，於是其祿復有霑益。而廟堂之上方急流寇，不復能問云。

안변은 누차 총독 주섭원에게 항복하기를 청하되, 수서(水西)의 안위(安位)에게 의지하여 자신의 입장을 대신 표명하였는데, [그 내용은] 안변 자신은 실로 안소경의 적손이므로 마땅히 지주의 직을 세습해야 하며, 안기작과 안기록에게 죄를 주도록 청하는 것이었다. 주섭원은 부당하게도 [그를] 보호하며 직함을 주고 오살을 나누어 그를 안치시키려 하였다. 운남 무안관이 단호하게 불가하다고 하자 [총독은] 안변에게 그 무리를 이끌고 야마천(野馬川)<sup>192)</sup>에 주둔하게 하였는데, [안변은] 다시 천금(千金)으로 안기작의 두목을 유인하여 날마다 점익과 오살을 삼킬 계교를 궁리했다. 만일 안기작이 피습당하면 곧 오살을 잃게 되어 지금까지 세운 공이 모두 쓸모없게 되는 [지경]이었다. 오살을 잃으면 점익이 위험해져 전(滇) 지방이 모두 동요하게 될 것이므로, [그런 사태는] 단지 인접한 지역만 진동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갓을 베어내는 듯이 아픈 일이었다. 결국 행해지지 않았다. 안변은 이에 안위에게 군대를 청하고 이들을 점익에서 맞이하여 안기록을 쫓아내었는데, 이때 안씨가 [거기에] 있었다. 안씨는 곧 죽었는데 안위가 안변과 화목하지 못하자 안기록이 나채령자포(羅彩令者布)를 돕는다는 구실로 거사하니, 안변이 곧 죽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안기록이 군대를

192) 野馬川: 지금의 雲南省 紅河州 建水縣 李浩寨鄉 野馬川村이다.

거느리고 와서 숙부의 원수를 갚았다고 속이니, 사민(士民)들이 물이 흐르듯 돌아와 이에 안기록은 다시 점익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마침 [섬서의 고영상·이자성·장헌충과 같은] 유구[들을 토벌하기]에 바빠서 다시는 문책할 수 없다고 한다.

## 馬湖

### 마호

馬湖，漢牂牁郡內地也，有龍馬湖，因名焉。唐爲羈縻州四，總名馬湖部。洪武四年冬，馬湖路總管安濟，遣其子仁來歸附，詔改馬湖路爲馬湖府。領長官司四：曰泥溪，曰平夷，曰蠻夷，曰沐川。以安濟爲知府，世襲。六年，安濟以病告，乞以子安仁代職，詔從之。自是，三年一入貢。七年，馬湖知府瑯德遣其弟阿穆上表貢馬，廷臣言：「洪武四年，大兵下蜀，瑯德叔安濟遣子入朝，朝廷授以世襲知府，恩至渥矣。今瑯德既襲其職，不自來朝而遣其弟，非奉上之道。」帝却其所貢馬。十二年，瑯德貢香楠木，詔賜衣鈔。十六年，瑯德來朝，獻馬十八匹，賜衣一襲·米二十石·鈔三十錠。

마호(馬湖)는 한나라 장가군(牂牁郡)<sup>193)</sup>의 경내였는데 용마호(龍馬湖)가 있어서 마호라는 지명이 붙여졌다. 당나라는 기미주(羈縻州) 넷을 두었는데, 충청해서 마호부(馬湖部)라 불렀다. 홍무 4년(1371) 겨울에 마호로(馬湖路) 총관 안제(安濟)가 그의 아들 안인(安仁)을 보내 귀부해오니, 조서를 내려 마호로를 마호부(馬湖府)로 고치도록 했다.<sup>194)</sup> 장관사(長官

193) 牂牁郡: 漢 武帝 元鼎 6년(전111)에 설치하고, 吳霸를 牂牁太守로 삼았다. 牂牁郡은 지금의 귀주 일대를 중심으로 운남과 광서 일부에 걸쳐 있었는데 且蘭, 氐, 平夷, 毋斂, 談指, 出丹, 夜郎, 同并, 漏江, 宛溫, 漏臥, 句町, 進乘, 西隨 등지를 관할하였고, 郡의 治所는 且蘭에 두었다. 漢 成帝 河平 2년(전27)에 牂牁太守 陳立이 夜郎王을 죽이고 夜郎國을 멸망시켰다. 漢 平帝 元始 4년(4)에 牂牁郡을 同亭郡으로 고쳤다. 漢 桓帝 시기(147~167)에 牂牁郡 毋斂 사람인 尹珍이 중원의 학문을 배우고 돌아와 지금의 綏陽 일대에서 講學하면서 儒學이 점차 확산되었다. 晉 懷帝 永嘉 5년(311)에 牂牁郡을 平夷, 夜郎 두 개의 郡으로 나누었다. 그 지리적 범위는 지금의 貴州省 대부분, 雲南省 曲靖府의 동남부, 文山州 및 紅河州의 일부분과 廣西 서부의 右江 상류 일대에 걸쳐 있었다.

194) 관련 사항은 『太祖實錄』 卷70 洪武 4년 2월 壬辰條에 기록되어 있다. 이때 明朝는 安濟에게 옷 두 벌과 馬湖府 土知府의 벼슬을 내리고 세습하도록 허락했다.

司) 냇을 거느렸는데 니계(泥溪), 평이(平夷), 만이(蠻夷), 목천(沐川)이라 한다. 안제를 [마호부] 지부로 삼고 세습하게 했다. 홍무 6년(1373)에, 안제가 병이 들었다며 아들 안인이 지부의 직을 대신하기를 청하자, 조서를 내려 허락했다.<sup>195)</sup> 이로부터 3년에 한 번씩 들어와 공물을 바쳤다. [홍무] 7년(1374)에, 마호의 지부 민덕(璫德)이 그 아우 아목(阿穆)을 보내 표문을 올리고 말을 공물로 바치자, 조정의 대신이 아뢰기를, “홍무 4년(1371)에 대군이 축을 공략하자 민덕의 숙부 안제가 그 아들을 보내 입조하였으므로, 조정에서 세습 지부의 직을 내려주어 그 은혜가 지극히 두터웠습니다. 이제 민덕이 [마호 지부의] 직을 세습하고서 자신이 조근(朝覲)하지 않고 그 아우를 보냈으니 황상을 받드는 도리가 아닙니다”라고 하니 황제는 그가 바친 말을 물리쳤다.<sup>196)</sup> [홍무] 12년(1379)에 민덕이 향남목(香楠木)<sup>197)</sup>을 공물로 바치자, [황제가] 조서를 내려 비단옷을 하사하게 했다. [홍무] 16년(1383)에 민덕이 내조하여 말 18필을 바치자 [황제가] 옷 한 벌, 쌀 20석, 보초(寶鈔) 30정을 하사했다.<sup>198)</sup>

永樂十二年，泥溪·平夷·蠻夷·沐川四長官司遣人貢方物，賜鈔幣。宣德八年，平夷長官司司奏，比者火延公廩，凡朝廷頒降榜文·倉庫稅糧錢帛及案牘皆救免，乞宥罪，并獻馬二匹。帝曰：「遠蠻能恭謹畏法如此。」置不問。正統二年，泥溪土官醫學正科田璣

195) 관련 사항은 『太祖實錄』 卷83 洪武 6년 7월 庚申條에 기록되어 있다.

196) 관련 사항은 『太祖實錄』 卷90 洪武 7년 6월 庚子條에 기록되어 있다.

197) 香楠木: 楠木의 일종이다. 楠木의 종류는 무척 많으나 비교적 잘 알려진 종류는 세 가지이다. 그 첫째가 香楠木인데, 나무의 색깔이 옅은 자주색을 띠고 무늬가 무척 아름답다. 나무에서 清香이 풍기므로 香楠木이라 불린다. 둘째는 金絲楠인데, 나무에 金絲와 같은 모양의 무늬가 있으므로 이렇게 불렸다. 楠木 가운데 가장 고급에 속하며 얻기도 가장 어렵다. 세 번째는 水楠木인데, 목질이 비교적 물러서 家具를 만드는 데 많이 쓰인다. 楠木은 대체로 목재의 색이 우아하고 변형이 잘 되지 않으며 재질이 단단하고 잘 썩지 않아 가공하기도 비교적 쉬워 造船이나 棺材로도 많이 쓰였고, 특히 궁궐의 건축 재료로 많이 사용되었다. 명대의 주요 산지는 四川, 湖廣, 貴州 일대였다. 清代 사람인 王佐는 『新增格古要論』 「異木·香楠木」에서 “四川, 湖廣에서 생산되며 색이 노랑고 향기가 나서 이렇게 불린다”고 하였다. 또 清代 사람인 薛福成은 『庸盦筆記』 「述異·己丑八年祈年殿災」에서 “대개 [祈年殿의] 기둥과 용마루는 모두 香楠木으로 만들었다”고 하였다. 특히 명대의 楠木 벌채 상황에 대해서는 金弘吉, 2000: 428~433 참조.

198) 관련 사항은 『太祖實錄』 卷153 洪武 16년 3월 乙巳條에 기록되어 있다.

盜官藏絲鈔，援永·宣時例，邊夷有犯，聽以馬贖，許之。三年，免馬湖府舉人王有學棄吏。先是，有學會試，過期不至，例充吏。有學原籍長官司，因遣通事貢馬，乞宥罪，仍肄習太學，許之。

영락(永樂)<sup>199)</sup> 12년(1414)에, 니계·평이·만이·목천 네 장관사에서 사람을 보내 토산물을 공물로 바치자, 초폐(鈔幣)를 하사했다. 선덕 8년(1433)에 평이장관사에서 상주하기를, 근래 불이 나서 [화재가] 관아에 미쳤으나 무릇 조정에서 반포하여 내려준 방문(榜文)이나 창고의 세량(稅糧), 동전, 비단과 공문서는 모두 불길에서 건져내었으니 죄를 용서해주기를 청하고 아울러 말 2필을 바쳤다. 황제가 이르기를, “먼 곳의 만족(蠻族)도 이처럼 공손하게 삼가하고 법을 두려울 줄 아는구나”하고 불문에 부쳤다. 정통 2년(1437)에, 니계 토관의 의학정과(醫學正科)<sup>200)</sup>인 전기(田璣)가 관에서 저장하던 비단과 보초를 훔쳤는데, 변경 만이(蠻夷)들이 죄를 범하면 말로 속죄했던 영락·선덕 연간의 전례에 따라서 [말로 속죄하는 것을] 허락했다. 정통 3년(1438)에 마호부의 거인(舉人)<sup>201)</sup> 왕유학(王有學)이 서리(胥吏)<sup>202)</sup>로 근무하는 것

199) 永樂: 명 왕조 3대 황제인 成祖 朱棣의 연호.

200) 醫學正科: 醫學은 府, 州, 縣에 소속된 하급 衙門으로 醫員을 선발하여 충임시켰는데 官은 두었으나 祿은 지급하지 않았다. 府에는 正科 한 사람을 두었는데 順天府나 應天府도 마찬가지였다. 州에는 典科 한 사람을 두었고 縣에는 訓科 한 사람을 두었다(戴逸, 1993: 358).

201) 舉人: 명·청 시대의 지배층인 紳士層의 구성원으로 명·청 시대 과거제도 상의 鄉試 합격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과거제도와 관련하여 舉人이라는 말 자체는 宋·元 시대에도 있었으나 당시에는 進士 학위 취득시험에 1회 응시자격을 부여받는 데 불과한 신분이었다. 하지만 명대에 들어와서는 舉人의 지위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첫째, 舉人은 일생 동안 자격을 가지면서 그 자격 자체만으로도 관직에 나갈 수 있었다. 正統 연간(1436~1449)을 고비로 거인이 관직으로 나가는 길이 점차 경시되었으나 명대 전 기간을 통해 중하급 관료들을 배출하는 두 번째 통로였다. 舉人이 주로 나간 관직은 府州縣官과 敎官이었다. 둘째는, 종신토록 會試에 응시할 수 있었다. 셋째는, 國子監에 입학할 수 있게 되면서 관직에 진출하지 않을 때는 監生과 같은 자격과 특권을 보장받게 되었다. 이리하여 명초부터 거인은 宋·元 시대와는 달리 특권을 향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전통적인 사대부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송대의 太學生이나 監生은 科舉에 합격하거나 추천으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명·청 시대의 未入仕 舉人·監生·生員의 지위와는 달리 제도적으로 보장된 존재가 아니었다. 송대의 지배층이라 할 수 있는 사대부 계층은 광범위하고 막연한 개념으로 실제로는 관료계층을 의미하였다. 그런데 명초부터는 유교적 교양을 매개로 하여 학교제도와 과거제도를 통하여 출현한 거인과 생원, 감생 등의 학위소지자가 제도적으로 특권적 지위를 보장받고 관직 경력자층에 합세하게 되었다(吳金成, 1986: 35~36 참조).

을 면제해주었다. 이에 앞서 왕유학은 회시(會試)<sup>203)</sup>에 응시했으나 기한 안에 도착하지 못했

202) 胥吏: ‘胥’는 일종의 基層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평민 가운데서 재주와 지혜가 있는 자를 선발하였다. ‘吏’는 원래 天子를 대신하여 臣民을 관리하고 政務를 처리하는 사람, 즉 官을 지칭하는 용어였다. 漢代 이후에 吏는 점차로 小吏와 差役을 지칭하는 말로 변화하면서 官府에서 일하는 官員이라는 의미가 퇴색하게 되어 官과는 구별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한편 胥와 吏는 모두 官府를 대신하여 여러 가지 종류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과 差役을 지칭하는 용어였으므로, 後世에 사람들은 胥와 吏를 並稱하여 胥吏라고 부르게 되었다. 대부분의 胥吏들은 정식의 敎育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업무에 필요한 識字와 計算 능력을 습득하였다. 일부 부류들은 이미 서리로서 활동하던 친척이나 이웃들에게서 이런 능력을 전수받기도 하고 부자기간에 전수하는 경우도 있었다. 胥吏들의 직무 내용은 대부분의 史料에서 상당히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瞿同祖에 따르면, 청대 縣級 胥吏들의 주요한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重要文件의 草稿를 작성하는 일. 둘째, 문서를 베끼는 일. 셋째, 지방관이 상급자에게 보내는 보고서 준비. 넷째, 공문서를 정리하여 비방록을 만드는 일. 다섯째, 죄인체포·증인소환·세금 체납자 소환에 필요한 공문을 작성하여 아역에게 발부하는 일. 여섯째, 각종 문서를 정리하고 보관하는 일(Chu, 1962 : 41~42. 한승현, 2007: 133~137). 서리들은 이런 업무를 이·호·예·병·형·공이라는 六房에 배속되어서 처리했다. 서리들은 과거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회피제의 적용을 받는 지방관과는 달리 현지에서 충원되었다. 그러므로 현지사정에 밝아서 현지인들의 이해관계를 행정에 불법적으로 반영시킬 소지도 다분하였다. 신사층의 경우 자신의 심복들을 서리에 배치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서리들의 근무기간은 공식적으로는 5년이었지만 기간이 만료되어도 이름을 바꾸어서 근무를 계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방관은 정해진 임기가 만료되면 전근하였지만 서리들은 계속 남아서 근무함으로써 지방관의 행정을 보좌하는 역할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부정을 저지를 소지도 그만큼 많았다. 서리들도 5년의 근무기간을 채우면 말단관료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서 總督이나 巡撫가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하위직에 임용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자리가 미관말직여서 수입도 적고 또 대기발령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로는 서리직을 계속 수행하려고 했다.

203) 會試: 鄉試가 실시된 이듬해인 丑, 辰, 未, 戌 年의 3월에 북경의 貢院에서 전국의 舉人 가운데 舉人覆試에 합격한 자들을 모아서 치르는 과거이다. 會試는 鄉試와 마찬가지로 3회 연속으로 치르는데 제1회(頭場)는 3월 9일이다. 하루 전날 입실을 마친 거인들은 시험 당일 四書에서 출제된 3문제, 시 짓기 1문제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여 다음날 제출하고 퇴장한다. 제2회(二場)는 12일이 시험일인데, 역시 하루 전에 입실한 舉人들은 당일에 五經에 관해 다섯 문제가 출제된다. 역시 하루 종일 답안을 작성하여 이튿날인 13일에 제출하고 퇴장한다. 제3회(三場)는 15일이 시험일인데, 거인들은 하루 전에 입실하고 당일에 策論 다섯 문제를 받아 하루 종일 답안을 작성하여 이튿날인 16일에 제출하고 퇴장한다. 예부상서가 시험 책임관이며 답안지 채점관은 考官이라 하는데 正考官 1명, 副考官 3명, 同考官 18명을 황제가 임명한다. 考官은 3월 6일에, 임명되는 즉시 공원으로 들어가 외부와 연락을 끊고 시험이 끝날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합격자는 대체로 지역별 쿼터가 정해져 있었으며 한번의 會試에 대략 2~3백 명의 합격자가 배출되었다. 고관들이 사전에 채점하여 올린 답안지에 최종적인 순위와 합격자 수를 결정하는 일은 황제가 담당했다. 會試에서 1등으로 합격한 자는 會元, 2등은 亞魁라고

으므로 예에 따라 서리에 충당시켰다. 왕유학(王有學)의 원직은 장관사였는데 통사(通事)<sup>204)</sup>를 보내 말을 바치고 죄의 용서와 예전처럼 태학에서 학업을 이수할 수 있기를 빌자, [황제가] 이를 허락하였다.

弘治八年，土知府安鰲有罪，伏誅。鰲性殘忍虐民，計口賦錢，歲入銀萬計。土民有婦女，多淫之。用妖僧百足魘魅殺人。又令人殺平夷長官王大慶，大慶聞而逃，乃殺其弟。爲橫二十年。巡按御史張鸞請治之，得實，伏誅，遂改馬湖府爲流官知府。

홍치 8년(1495)에, 토지부 안오가 죄를 지어 처형당했다. 안오는 성정이 잔인하여 백성을 학대하고 사람 수대로 세금을 걷었는데, 매년 세입이 은으로 만[냥(兩)]을 헤아렸다. 토민의 부녀자가 있으면 대부분 간음했다. 요사스런 승려 백족을 부려서 귀신에게 기도한다며 사람을 죽였다. 또 사람을 시켜 평이의 장관王大慶을 죽이라고 했는데 대경이 소문을 듣고 도망가자 그의 동생을 죽였다. 횡행하며 불법을 자행한 지 20년이 되었다. 순안어사 장란(張鸞)이 그를 정치하도록 요청하였는데, 증거가 있었으므로 죽이고 드디어 마호부를 바꾸어 유관 지부[가 다스리는 곳]로 삼았다.<sup>205)</sup>

- 불렀다. 회시 합격자들은 진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실시되는 殿試에 응시할 자격을 얻은 뿐이었으며 貢士라고 불렸다. 합격자들은 자신의 답안지를 인쇄하여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배포 하는데 이를 會試 墨卷이라 하였다. 清代에 이르러 乾隆 53년(1788) 이후에는 會試에 두 번째 시험인 會試覆試를 추가하였다. 그 이유는 수험자가 殿試에 합격할 충분한 학력이 있는지 알아보고, 시험장인 궁궐의 분위기를 미리 익혀 실수하지 않게 하며, 殿試에 대리인을 내세우지 못하게 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회시복시는 대체로 4월 16일에 자금성 保和殿에서 치러졌다. 시험문제는 四書 1문제, 시 짓기 1문제로 답안 작성은 당일에 끝났다. 성적은 4월 18일 무렵에 발표되는데 1, 2, 3 등급은 바로 殿試에 응시할 수 있으나 4등급 이하의 성적의 정도 혹은 답안 작성 규칙을 어긴 정도에 따라 殿試 응시자격이 1회에서 3회까지 정지되었다(미야자키 이치사다, 1989: 129~141 참조).
- 204) 通事: 원래 외국과의 외교를 담당하는 관리였으나 五代 당시 거란이 통역 관리를 양성할 목적으로 통사를 설치한 이후, 주로 譯官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元代에는 怯里馬赤으로 불렸으며, 明初에는 通政使司를 설치하여 이에 속하게 했으나 이후 太常寺四夷館에 속하도록 했다.
- 205) 安鰲의 죄상에 대한 관련 사항은 『孝宗實錄』 卷103 弘治 8년 8월 戊寅條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마호부에 유관지부를 설치하고 同知 한 사람을 증설한 것은 『孝宗實錄』 卷104 弘治 8년 9월 乙未條에 기록되어 있다. 토사전에는 安鰲가 요사스런 승려 百足を 부려서 귀신에게 기도한다며 사람을 죽였다

## 建昌衛

### 건창위

建昌衛，本邳都地。漢武帝置越巂郡。隨·唐皆爲巂州。至德初，沒於吐蕃。貞元中收復。懿宗時，爲蒙詔所據，改建昌府，以烏·白二蠻實之。元至元間，置建昌路，又立羅羅斯宣慰司以統之。

건창위는 원래 공도의 땅이었다. 한나라 무제(武帝, 전156~전87; 재위 전141~전87)<sup>206</sup>는 월수군(越巂郡)을 설치했다. 수·당 시대에는 모두 월주였다. [남조 진(陳)] 지덕(至德)<sup>207</sup> 연간(583~586) 초에는 토번<sup>208</sup>에 병탄되었다. [당] 정원(貞元)<sup>209</sup> 연간(785~805)에 수복되

고 되어 있으나 실록 원문에는 요승 百足이 귀신을 부리는 술법을 행한다는 소문을 듣고 安鰲가 그를 불려서 산 사람을 죽여 놓고 술법대로 주술을 부려보도록 했으나 효험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명조가 사천에서 토사들이 학정을 저질렀다고 체포해서 죽이는 경우는 드물었다. 安鰲의 경우는 위낙 많은 사람들을 제멋대로 죽이고 포학을 저질러 이곳의 유력자들도 성명을 바꾸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 버리는 일조차 발생하였다. 도찰원에서 안오의 죄상을 살펴보니 능지에 해당하는 것이 8건, 참수형에 해당하는 것이 12건, 교수형에 해당하는 것이 3건으로 결국 安鰲는 능지처사 되었다. 그리고 그의 虐政을 도운 유력자들 가운데 다섯 명은 참수형, 두 명은 교수형에 처해졌고 네 명은 收贖했다. 安鰲의 虐政과 대다수 유력자들의 타지방 도피, 그리고 안오 및 그를 보좌한 유력자들의 처형으로 馬湖府의 내부적 역량이 약화된 틈을 타서 명조는 流官 知府를 파견하고 직접 지배를 관철시켰다.

206) 武帝: 前漢 제7대 황제인 劉徹의 諡號이다. 7세 때에 황태자로 봉해져 16살에 등극했다. 재임 시에 제후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董仲舒의 건의를 받아들여 儒學을 官學으로 채택했다. 또한 桑弘羊의 건의에 따라 소금과 철을 전매했으며, 무엇보다 衛青과 郭去病 등의 장군을 파견해 흉노를 무찌른 황제로 이름이 높다. 그의 흉노 정책 덕분에 오늘날 널리 알려진 비단길이 개척되었다. 그는 한나라를 명실상부한 강국으로 만들었지만, 흉노와의 전쟁 등으로 국가 재정이 많이 소모되었으며, 말년에는 토지 검병과 같은 여러 사회모순이 나타났다.

207) 至德: 南朝 陳의 後主 陳叔寶의 연호.

208) 吐蕃: 현재 중국 西藏藏族自治州로, 정식 명칭은 ‘피첸포: 위대한 피’(bod chen po; 大蕃)이며, 토번의 유래에 대해서는 W. Rockhill, 山口瑞鳳 등 여러 학자의 연구가 있었으나 아직 정설이 마련되지는 못했다. 이 문제에 관해 佐藤長, 1978: 163~165에서는 토번이라는 말이 어떻게 唐에 전달되었을까 하는 의문을 던지고 있다. 토번이 점차 세력을 동서로 확장하기 시작하는 시기 唐의 서쪽에는 토욕혼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 이전에는 오늘날 蘭州와 西寧 방면에 西秦, 南涼 등 선비계 정권이 자리하고 있었으니 몽골계 언어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비계 민족을 통해 토번이라는 말이 전달되었을

었다. [당] 의종(懿宗)(833~873; 재위 859~873) 때에는 몽조(蒙詔)<sup>210)</sup>에게 점거되어 건창부로 고치고, 오(烏)·백(白)의 두 만족(蠻族)으로 채웠다. 원나라 지원(至元) 연간(1264~1294)에 건창로(建昌路)를 설치하고, 또 나라사선위사(羅羅斯宣慰司)를 세워 통괄하게 했다.

洪武五年，羅羅斯宣慰安定來朝，而建昌尚未歸附，十四年遣內臣齋敕諭之，乃降。十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몽골어에서는 티베트를 투벳(Töbed)이라고 하는데, 상호 연관성에 대해서 추적해볼 여지가 있다. 토번의 구성원 蕃人에 대한 기원을 논할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자칭 궤(bod)라고 부르는 티베트 민족 공동체가 대체적으로 토번의 蕃人에서 시작되었다는 전제 아래, 궤(bod)의 구성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하는 점에서 민족의 기원을 논해야 할 것이고, 둘째는 토번 왕실의 구성원이 어떤 기원을 갖는가 하는 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먼저 전자의 경우는, 중국 학자들을 중심으로 西戎의 일부였던 羌(Qiang)을 기원으로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고대 중국에서 羌은 야크를 가축화했던 중국 서부의 유목민을 광범하게 이르는 말로, 羌의 내부 계통 또한 다양해서, 예를 들어 토번을 형성한 羌 이외에도 黨項羌이 훗날 青海에서 夏州로 이주하여 세운 나라가 西夏이며, 元代 이래 四川 岷江 상류에 분포하던 羌族 계통은 대개 한족과 융화되었고, 그 일부가 남아 현재의 四川省 金川, 茂縣 등지에 羌族自治州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이 羌族이 고대 토번과 직접 연결된다고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티베트 학자들은 현재 사천성에 거주하고 있는 강족과 토번을 구성했던 羌을 동일시 할 수 없으며, 또한 중국 사서에 등장하는 고대의 羌 집단이 토번의 주요 구성원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T. Kapstein, 2006: 29에서는 역사적으로 토번 시대를 비롯해 티베트인 궤의 형성 과정에서 주된 민족 이동이 동부에서 서부로 진행되었음을 인정하면서, 현재 내몽고 서부에서 감숙, 청해로 이어지는 몽골고원에서의 인구 유입이 토번 시대 이전부터 오랜 동안 진행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티베트 서부 신강과 라다크, 파키스탄과 티베트 남부 네팔, 인도 북부로부터 계속된 인구 이동에 대해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두 번째, 토번 왕실의 기원에 대해서는 ‘인도 기원설’, ‘鮮卑 기원설’ 등이 있으나, 전자는 종교적인 원인에서, 또 후자는 중원과 연결시키려는 의도에서 중국 사서에 등장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정설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티베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야르룽 계곡을 중심으로 푸겔(pu rgyal) 즉, 푸 왕조의 나치젠뽀(nya khri btsan po)를 중시조로 하는 정치 집단이 토번 왕실을 구성하게 되었다고 이해하고 있다. 둔황에서 출토된 티베트본 연대기를 비롯하여 한문 자료로는 『舊唐書』 「吐蕃傳」, 『新唐書』 「吐蕃傳」 등이 있다.

209) 貞元: 唐 德宗 李适의 연호.

210) 蒙詔: 당나라 초기 운남 洱海 지역에서 나타난 6개 부락연맹 중 하나인 蒙舍詔를 가리킨다. 6詔는 蒙巋詔·越析詔·施浪詔·遼賧詔·浪穹詔·蒙舍詔로 그중에서 蒙舍詔는 가장 남쪽에 위치하여 南詔라고 불렸다. 649년에 티베트·미얀마계 부족인 烏의 細奴羅가 蒙舍詔를 일으켜 大蒙國을 세웠고, 唐과 독자적으로 修交하였다.

五年置建昌衛指揮使司。元平章月魯帖木兒等自雲南建昌來貢馬一百八十四匹，并上元所授符印。詔賜月魯帖木兒綺衣·金帶·靴襪，家人綿布一百六十疋·鈔二千四百四十錠。以月魯帖木兒爲建昌衛指揮使，月給三品俸贍其家。十六年，建昌土官安配及土酋阿派先後來朝，貢馬及方物，皆賜織金文綺·衣帽·靴襪。十八年，月魯帖木兒舉家來朝，請遣子入學，厚賜遣之。二十一年，建昌府故土官安思正妻師克等來朝，貢馬九十九匹。詔授師克知府，賜冠帶·襲衣·文綺·鈔錠，因命師克討東川·芒部及赤水河叛蠻。二十三年，安配遣子僧保等四十二人入監讀書。二十五年，致仕指揮安配貢馬，詔賜配及其把事五十三人幣紗有差。

홍무 5년(1372)에 나라사 선위 안정(安定)이 내조하였으나<sup>211)</sup> 건창은 아직 귀순하지 않았으므로 [홍무] 14년(1379)에, 내신(內臣)을 보내 칙서를 가지고가게 하여 이들을 효유하니 항복했다.<sup>212)</sup> [홍무] 15년(1380)에 건창위지휘사사를 설치하였다.<sup>213)</sup> 원나라의 평장(平章)<sup>214)</sup>인 월노첩목아(月魯帖木兒) 등이 운남 건창에서 와서 말 180필을 공물로 바치고, 또 원에서 받은 부인(符印)<sup>215)</sup>도 헌상했다. [황제가] 조서를 내려 월노첩목아에게는 기의(綺

211) 安定이 명에 입조한 사실은 『太祖實錄』 卷73 洪武 5년 3월 壬申條에 기록되어 있다. 이때 명조는 비단 여섯 필, 비단옷과 배옷 각각 한 벌을 安定에게 주고 通事들에게도 차등을 두어 지급하였다.

212) 관련 사항은 『太祖實錄』 卷140 洪武 14년 12월 辛未條에 기록되어 있다. 이때 명조에서 건창에만 내신을 사신으로 파견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朱元璋은 征南將軍 傅友德 등에게 명하여 서남지방을 공략하게 하였는데 그에 앞서 오몽·오살·동천·망부·건창의 여러 부족 추장들에게 사신을 파견하여 투항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213) 건창위를 설치한 사실은 『太祖實錄』 卷141 洪武 15년 정월 丁亥條에 기록되어 있다. 이때에도 건창에만 衛指揮使司가 설치된 것이 아니라 명조에 투항한 서남 일대의 雲南左·右·前·後·普定·黃平·建昌·東川·烏撒·普安·水西·烏蒙·芒部·尾洒 등 열네 곳에 衛指揮使司가 설치되었다.

214) 平章: 관직명으로, 원래의 의미는 논의하여 처리한다는 것이다. 唐代에는 尙書·中書·門下省의 長官을 재상으로 삼았는데, 일상적으로 설치된 것은 아니어서 다른 관원을 선임하여 同中書門下平章事라는 명칭을 더해주었고 同平章事라고 간단하게 불렀다. 宋代에는 이를 계승해서 나이가 많고 명망이 높은 중신들이 담당하였고 재상보다도 위상이 높았으며, 그 명칭은 同平章軍國事였다. 金과 元代에는 平章政事가 있었는데, 丞相 바로 아래의 직책이었다. 元代의 行中書省에 平章政事를 두었고, 平章이라고 간단하게 칭하였다.

215) 符印: 符節·印信 등 증빙문서를 總稱하며, 符信이라고도 하는데, 木片이나 竹片에 글을 쓰고 證印을 찍은 후에 두 쪽으로 나누어 각기 보관하였다가 후일에 서로 맞추어 증거로 삼았다.

衣)<sup>216)</sup>·금대(金帶)<sup>217)</sup>·화말(靴襪)<sup>218)</sup>을, 그의 집안사람들에게는 면포 160필과 보초(寶鈔) 2,440정(錠)을 하사하였다. 월노첩목아를 건창위 지휘사로 삼고, 매달 그 집에 3품관에 해당하는 봉록을 주어 집안을 부양하게 했다. [홍무] 16년(1381)에, 건창 토관 안배(安配) 및 토추장 아파가 선후로 내조하여 말과 토산물을 바쳤는데, 모두에게 직금문기(織金文綺)<sup>219)</sup>·의모(衣帽)·화말(靴襪)을 하사했다.<sup>220)</sup> [홍무] 18년(1383)에, 월노첩목아가 온 집안사람들을 데려와 내조하고 아들을 보내 학교에 입학시키기를 청하였는데, 상을 후하게 내리고서 이들을 돌려보냈다.<sup>221)</sup> [홍무] 21년(1386)에, 건창부의 사망한 토관 안사정(安思正)의 처사극(師克) 등이 내조하여 말 99필을 공물로 바쳤다. [황제가] 조서를 내려 사극에게 지부를 제수하고, 관대·습의(襲衣)<sup>222)</sup>·문기(文綺)<sup>223)</sup>·초정(鈔錠)을 하사하게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사극에게 동천·망부 및 적수하에서 반란을 일으킨 만족을 토벌하라고 명령했다. [홍무] 23년(1388)에, 안배(安配)가 아들 증보 등 42명을 보내 국자감에 입학하여 독서하게 했다.<sup>224)</sup> [홍무] 25년(1390)에, 치사<sup>225)</sup> 지휘 안배가 말을 공물로 바치자 [황제가] 조서를 내려 안배 및 그의 관사(管事) 53명에게 보초와 비단을 차등을 두어 하사했다.

216) 綺衣: 무늬가 있는 비단으로 만든 옷.

217) 金帶: 명대에는 품계나 지위에 따라 허리띠의 종류에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면, 朝會 시 복장은 公服을 착용하였으며, 腰帶로 一品은 紫玉帶, 二品은 紫犀帶, 三品·四品은 紫金帶, 五品은 紫角帶, 六品·七品은 緋角帶, 八品·九品은 綠角帶를 착용했다(『明集禮』卷39「冠服」참조).

218) 靴襪: 버선을 말한다.

219) 織金文綺: 금실로 무늬를 넣은 비단을 말한다.

220) 建昌 土官 安配가 내조하여 공물을 바친 사실은 『太祖實錄』卷152 洪武 16년 2월 丙申條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建昌 土酋 阿派가 安配보다 며칠 앞서서 내조하고 공물을 바친 사실은 『太祖實錄』卷152 洪武 16년 2월 壬午條에 기록되어 있다.

221) 『太祖實錄』卷170 洪武 18년 정월 丙子條에 月魯帖木兒가 온 가족을 데리고 입조하여 그 자식을 국자감에 입학시켜주기를 청하고 가족들은 경사에 머물러 살기를 원하였는데 주원장이 이들을 돌려보낸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222) 襲衣: 황제가 신하에게 내리는 服裝을 일컫는다. 고대에 예의를 행할 때, 楊衣 위에 입는 상의.

223) 文綺: 화려한 무늬가 있는 비단.

224) 관련 사항은 『太祖實錄』卷201 洪武 23년 4월 壬辰條에 기록되어 있다.

225) 致仕: 관리가 일정한 연령, 대개는 70세에 달하여 퇴직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상당한 예우가 행해졌다. 宣德 10년(1435)에 조서를 내려 문무관원들이 나이 70세가 되지 않더라도 질병으로 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致仕를 인정해주었다(박원호 외, 2008: 27 참조).

已而月魯帖木兒反，合德昌·會川·迷易·柏興·邛部并西番土軍萬餘人，殺官軍男婦二百餘口，掠屯牛，燒營屋，劫軍糧，率衆攻城。指揮使安的以所部兵出戰，敗之，斬八十餘級，擒其黨十餘人。賊退屯阿宜河，轉攻蘇州。指揮僉事魯毅率精騎出西門擊之，賊衆大集，毅且戰且却，復入城拒守。賊圍城，毅乘間遣壯士王早突入賊營，斫賊，賊驚遁。於是置建昌·蘇州二軍民指揮使司及會川軍民千戶所，調京衛及陝西兵萬五千餘人往戍之。仍諭將士互相應援，設伏出奇，并諭擒首獻者賞千金。復諭總兵官涼國公藍玉，以月魯帖木兒詭詐，不可信其降，致緩師養禍。

오래지 않아 월노첩목아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덕창(德昌)<sup>226</sup>·회천(會川)<sup>227</sup>·미역(迷易)·백흥(柏興)·공부(邛部) 및 서번(西番)<sup>228</sup>의 토군(土軍) 만여 명을 규합하여 관군과 남녀 200여 명을 죽이고 둔전을 경작하는 소를 노략질하고 병영을 불태웠으며, 군량을 빼앗고 무리를 이끌고 성을 공격하였다. 지휘사 안적(安的)이 휘하의 병사를 거느리고 싸움에 나가 그들을 물리치고 80여 명을 참수하고 무리 10여 명을 사로잡았다. 적들은 아의하(阿宜河)로 물러가 주둔하다가 방향을 돌려 소주[위](蘇州衛)를 공격하였다. 지휘첨사 노의(魯毅)가 정예 기병을 이끌고 서문을 나가 공격하였으나 적의 무리가 많이 모여 있었으므로, 노의는 싸우다 물러났다 하다가 다시 성으로 들어와 방어하였다. 적이 성을 포위하자 노의는 틈을 타서 장사 왕한(王旱)을 보내 적진으로 갑자기 들어가 적을 베게 하니 적이 놀라 달아났다. 이에 건창·소주의 두 군민지휘사사 및 회천군민천호소(會川軍民千戶所)를 설치하고, 경성(京城)을 지키던 위(衛)의 군사와 섬서 병사 1만 5천여 명을 징발하여 지키게 하였다. [그리고] 예전처럼 유지를 내려 장사들이 서로 응원하며 매복했다가 기습하도록 했으며, 아울러

226) 德昌: 지금의 四川省 서남 涼山 彝族自治州 중남부에 위치한 縣이다. 四川省에서 僭僭族의 인구가 가장 많은 縣이다. 漢·晉 시대의 德昌은 남방 실크로드의 노선 상에 위치한 오래된 驛站이었다. 洪武 25년(1392)에 德昌千戶所를 설치하여 建昌衛軍民指揮使司에 소속시켰다.

227) 會川: 지금의 四川省 會理縣 서쪽이다. 唐나라 때 이곳에 會川縣을 설치했는데, 天寶 말에 南詔의 소유로 되었다. 南詔는 이곳에 都督府를 설치했고, 大理國은 府를, 元朝는 路를, 明朝는 衛를 설치했으며, 清代에 이르러서는 이를 폐지했다.

228) 西番: 明代부터 中華民國 시기까지 甘肅·四川·雲南 지역의 소수민족들이나 캄(Kham) 지역의 티베트인들을 가리키는 호칭이다.

적의 우두머리를 사로잡는 사람에게는 천금을 상으로 준다고 유시했다. 또 총병관 양국공(涼國公) 남옥(藍玉)에게 유지를 내려 월노첩목아는 [잘] 속이므로 그가 항복하리라 믿고 공격을 늦추어 화를 키우지 말라고 했다.<sup>229)</sup>

四川都指揮使瞿能率各衛兵至雙狼寨，擒偽千戶段太平等，賊衆大潰，月魯帖木兒敗遁。能督兵追捕，攻托落寨，拔之。轉戰而前，進至打沖河三里所，與月魯帖木兒遇，大戰，又敗之。俘其衆五百餘人，溺死者千餘，獲牛馬無算。官軍入德昌，能遂調指揮同知徐凱分兵入普濟州搜捕。復駕橋於打沖河，遣指揮李華引兵追托落寨餘孽，進至水西，斬月魯帖木兒把事七人，其截路寨土蠻長沙·納的皆中矢死。能還攻天星·臥漂諸寨，皆克之，先後俘殺千八百餘人。月魯帖木兒遁入柏興州。

사천도지휘사 구능(瞿能)<sup>230)</sup>이 각 위(衛)의 군사를 거느리고 쌍랑채(雙狼寨)에 이르러 가짜 천호 단태평(段太平) 등을 사로잡으니, 적의 무리가 크게 무너지고 월노첩목아는 패하여 달아났다. 구능이 병사들을 독려하여 추격해서 탁락채(托落寨)를 공격하고 함락시켰다. 이곳 저곳에서 싸우며 전진하다가 타충하(打沖河)<sup>231)</sup>에서 삼리 [가량 떨어진] [타충하]소(打沖河

229) 관련 사항은 『太祖實錄』 卷22 洪武 25년 10월 戊午條에 기록되어 있다.

230) 瞿能(?~1400): 安徽 合肥 사람이다. 부친인 瞿通은 洪武 연간(1368~1398)에 벼슬이 都督府 僉事(正2品, 전각 각지의 衛所를 통령하였음)에 이르렀는데, 瞿通이 죽자 아들 瞿能이 蔭叙로 都督府 僉事の 관위를 얻었다. 瞿能은 후에 四川都指使司의 都指揮使가 되어 藍玉과 더불어 大渡河를 건너 西番 부락을 토벌하는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다. 이후 副總兵으로 임명되어 建昌에서 반란을 일으킨 月魯帖木兒를 토벌하였는데, 雙狼寨에서 적군을 크게 무찔렀다. 燕王 朱棣가 ‘靖難의 變’을 일으키자 李景隆을 따라서 北上하여 朱棣를 토벌하는 데 참여했다. 北平을 공격할 때, 그는 아들과 함께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彰義門으로 진군하여 적군을 궤멸하고 승리를 목전에 두었는데, 李景隆이 그의 공로를 질투하여 후방에서 대군이 오는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였다. 이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잃어버렸다. 이 틈을 타 燕王의 군대는 신속하게 병력을 보충하여 반격하자 瞿能父子는 패배하고 李景隆 휘하의 全軍이 몰살당했다. 후에 다시 瞿能은 李景隆을 따라서 大軍을 이끌고 白沟河에서 燕王軍과 싸웠다. 이 전투에서 瞿能父子는 燕王軍 수백 명을 참살하였으나 결국은 燕王軍에 죽임을 당했다.

231) 打沖河: 四川省 鹽源縣의 동북에 있는 작은 강으로, 雅礱江으로 흘러들어간다. 그러므로 雅礱江의 하류를 打沖河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蠻族들은 打沖河를 黑惠江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雅礱江은 사천

所)<sup>232</sup>에 이르러 월노첩목아와 맞닥뜨려 크게 싸워 또 물리쳤다. 그 무리 500여 명을 사로잡았고 물에 빠져 죽은 자들도 1,000여 명이었으며, 소와 말을 노획한 것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었다. 관군이 덕창(德昌)에 들어가자 구능은 드디어 지휘동지 서개(徐凱)를 가려 뽑아 군대를 나눠주고 보제주(普濟州)<sup>233</sup>로 들어가 [적을] 수색하여 체포하게 했다. [구능은] 다시 타충하의 가교(駕橋)에서 지휘 이화(李華)를 보내 군사를 이끌고 탁락채의 잔당을 추격하게 했으며, 수서로 진격하여 월노첩목아의 관사(管事) 7명을 참살했고, 절로채(截路寨)의 토만(土蠻)인 장사(長沙)·납적(納的)이 모두 화살을 맞고 죽었다. 구능은 [군대를] 돌려 천성(天星)·와표(臥漂) 등 각 채(寨)를 공격하여 모두 함락시켰는데, 선후로 1,800여 명을 사로잡거나 죽였다. 월로첩목아는 백응주(柏興州)<sup>234</sup>로 도망쳐 들어갔다.

帝遣諭藍玉曰：「月魯帖木兒信其逆黨達達·楊把事等，或遣之先降，或親來覘我，不可不密爲防。其柏興州賈哈喇境內麼些等部，更須留意。」賈哈喇者，麼些洞土酋也。初，王師克建昌，授以指揮之職，自是從月魯帖木兒叛。玉率兵至柏興州，遣百戶毛海以計誘致月魯帖木兒并其子胖伯，遂降其衆，送月魯帖木兒京師，伏誅。玉因奏：「四川地曠山險，控扼西番。松·茂·碉·黎當吐番出入之地，馬湖·建昌·嘉定俱爲要道，皆

성 서부의 강으로서金沙江의 지류이다. 青海省 巴顏喀拉山의 南麓에서 발원하여 동남으로 흘러서 사천성 서북부로 흘러들어가는데, 石渠縣 부근에서 四川으로 흘러들어가는 곳에서부터 雅礱江으로 칭한다. 大雪山 서쪽의 新龍縣과 雅江縣至 등지를 통과하여 雲南의 가장자리인 渡口市에서 金沙江으로 흘러들어간다. 雅礱江은 옛날에 若水, 瀘水로 불렸으며, 또 金沙江과 흡사하여 小金沙江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232) 打冲河所: 四川省 鹽源縣 동북방 160리 지점에 위치했다. 明 洪武 연간(1368~1398)에 설치되었다. 唐代에는 沙罷城에, 元代에는 建昌路 瀘州에 소속되어 있었다.

233) 普濟州: 지금의 四川省 米易縣 서북방에 위치하였다. 元 至元 15년(1278)에 처음으로 설치하여 定昌路에 소속시켰다가 至元 23년(1286)에 德昌路에 소속시켰다. 明 洪武 15년(1382)에 德昌府에 소속시켰다가 永樂 2년(1404)에 普濟長官司로 고쳤다.

234) 柏興州: 지금의 四川省 鹽源縣 및 鹽邊縣 일대이다. 元 至元 연간(1264~1294)에 柏興府를 설치하고 治所를 潤鹽縣(지금의 鹽源縣)에 두었다. 明 洪武 15년(1382)에 柏興府를 설치했다가 洪武 24년(1391)에는 柏興府를 柏興州로 강등시키고, 潤鹽縣을 柏興州에 편입시켰다. 그 후에 곧 柏興千戶所로 고쳤다가 다시 鹽井衛로 고쳤다.

황제가 남옥에게 사자를 보내 효유하여 이르기를, “월노첩목아는 반역의 무리인 달달(達達)과 양파사(楊把事) 등을 믿으니, 혹 이들을 먼저 항복시키거나 혹 몸소 아군을 엿보러 올 것이므로 엄밀하게 방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백흥주(柏興州) 가합라(賈哈喇) 경내의 마사(麼些)<sup>235)</sup> 등 부족은 반드시 더욱 조심하라”고 하였다. 가합라는 마사동(麼些洞)의 토추(土酋)였다. 당초에 관군이 건창을 함락하고 [그에게] 지휘의 관직을 제수하였는데 이때부터 월노첩목아를 따라 반란에 가담했다. 남옥이 병사를 이끌고 백흥주에 이르러 백호(百戶) 모해(毛海)를 보내 계책을 써서 월노첩목아와 그 아들 반백(胖伯)을 유인하여, 드디어 그 무리를 항복시키고 월노첩목아를 경사(京師)로 압송하니 [황제가 그를] 처형했다. 이에 남옥이 상주하기를, “사천은 땅이 넓고 산이 험하여 서번(西番)을 눌러 지키고 있습니다. 송(松)·무(茂)·조(碉)·여(黎) [지방은] 토번(吐番)이 출입하는 곳에 해당하며 마호·건창·가정(嘉定) [지방은] 모두 중요한 길목이므로 모두 다 마땅히 둔병과 위(衛)를 늘려야 합니다”라고 하니, [황제는] 허락하고 남옥에게 회군하도록 명하였다.<sup>236)</sup>

235) 麼些: 納西族의 다른 이름이다. 중국 남방의 소수민족 중 하나로 고대 羌族의 한 갈래이다. 모계 중심의 부족으로 일처다부제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納西族이라는 이름은 1954년부터 사용되었다. 元代와 明代에 雲南의 麗江 지역에 沐氏 土司세력이 일어날 때, 이들 納西族도 활발하게 활동하여 지금의 사천성 지역까지 영역을 확대하였다. 이들은 현재 중국 雲南省 麗江市 古城區·玉龍 納西族 自治縣·維西·香格里拉·寧蒗縣과 四川省 鹽源縣·木里縣, 西藏 自治區 芒康縣 鹽井鎮 등에 거주하고 있다. 언어는 티베트·미얀마語族에 속하며, 인접한 彝語에 가깝다. 농업이 생업이지만 산지에서는 양 등의 목축도 중요시하고 있다. 종교는 주로 샤머니즘으로서 주술사가 의식을 집행한다. 독특한 상형문자와 많은 경전이 있다.

236) 관련 사항은 『太祖實錄』 卷22 洪武 25년 11월 甲午條에 기록되어 있다. 이때 남옥은 두 건의 상주문을 올렸는데 하나는 사천의 지경이 넓고 산이 험준하여 西番을 누르는 형세인데도 해마다 蠻夷들이 날뛰는 까닭은 軍衛가 적어서 방어가 허술하여 그러니 군위를 증치하자는 내용으로 본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받아들여져서 사천의 요충지에 衛와 屯兵이 증설되었다. 다른 하나의 상주문은 사천의 군사가 적으므로 民丁을 병사로 삼아서 入貢하지 않는 長河西·朶甘·百夷를 토벌하자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명 태조 주원장은 해마다 군량이나 세금을 납부하느라 지친 백성들 가운데서 건장한 자를 병사로 삼으면 백성들이 어떻게 견뎌내겠느냐면서 거절하였다.

二十七年，麼些洞蠻寇打沖河西守堡，都督徐凱擊敗之。二十九年，威龍土知州普習叛。普習，月魯帖木兒妻兄也。官軍捕之，普習中流矢死。三十一年，徐凱等平卜木瓦寨，執賈哈喇，送京師，誅之。寨地峻險，三面陡絕，下臨大江，江流悍急，不可行舟，惟一道僅可通人行。官軍至，輒自上投石，不得進。凱乃斷其汲道困之，寇窮促，凱督將士抵其寨，力攻破之，遂就擒。因改建昌路爲建昌衛，置軍民指揮使司。安氏世襲指揮使，不給印，置其居於城東郭外里許。所屬有四十八馬站，大頭土番·斂人子·白夷·麼些·倮鹿·保羅·韃靼·回紇諸種散居山谷間。北至大渡，南及金沙江，東抵烏蒙，西訖鹽井，延袤千餘里。以昌州·普濟·威龍三州長官隸之，有把事四人，世轄其衆，皆節制於四川行都指揮使司。西南土官，安氏殆爲稱首。

[홍무] 27년(1392)에, 마사동의 만족(蠻族)이 타충하(打沖河)의 서수보(西守堡)를 공격하자, 도독 서개(徐凱)가 이들을 공격하여 물리쳤다. [홍무] 29년(1394)에는 위룡(威龍)의 토지주 보습(普習)이 반란을 일으켰다. 보습은 월노첩목아의 처형(妻兄)이었다. 관군이 그를 사로잡았으나 [보습은] 난데없이 날아온 화살에 맞아 죽었다. [홍무] 31년(1396)에, 서개 등이 복목와채(卜木瓦寨)를 평정하고 가합라를 사로잡아 경사로 압송하여 처형했다. [복목와]채의 지세는 험준하여 삼면이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고 그 아래로는 큰 강이 흘렀는데, 물살이 무척 세차서 배를 띄울 수가 없었고 오직 외길로만 사람이 다닐 수 있었다. 관군이 이르자 갑자기 위에서 돌을 던져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 서개는 이에 물 길러 다니는 길을 끊어 곤경에 빠뜨렸고, 도적들이 곤핍해지자 장사들을 독려하여 채에 다다라 힘써 공격하여 깨뜨리고서 마침내 사로잡았다.<sup>237)</sup> 이리하여 건창로(建昌路)를 건창위(建昌衛)로 고치고 군민지휘사를 설치하였다. 안씨(安氏)가 지휘사를 세습하였으나, 관인을 주지 않고서 외성 동쪽 바깥 1리쯤 되는 곳에 거처를 두게 했다. [그에] 소속된 48개의 마참(馬站)<sup>238)</sup>과 대두토번(大頭土番)·북인자(斂人子)·백이(白夷)·마사(麼些)·각녹(倮鹿)·보라(保羅)·달단(韃靼)·회홀(回紇) 등 여러 종족(種族)들이 산골짜기에 흩어져 거주했다. 북으로는 대도(大渡)

237) 관련 사항은 『太祖實錄』 卷256 洪武 31년 2월 甲辰條에 기록되어 있다.

238) 馬站: 교통수단으로 말을 제공했던 驛站의 일종이다. 驛站은 陸站 위주였으며 水站, 海站이 이를 보완하였다. 陸站은 제공하는 교통수단의 종류 따라서 馬站, 牛站, 車站 등으로 나뉘었다.

에 이르고 남으로는 금사강(金沙江)<sup>239</sup>에 미치며, 동으로는 오몽(烏蒙)에 다다르며 서로는 염정(鹽井)에 이르렀는데, 사방이 천여 리이다. 창주(昌州)·보제(普濟)·위룡(威龍)의 세 주(州)의 장관이 [이에] 예속되어 있고 관사(管事) 네 명이 대대로 그 무리를 관할하는데, 모두 사천행도지휘사사의 절제를 받았다. 서남의 토관 중에는 대체로 안씨가 첫째라 일컬어졌다.

配六世孫安忠無後，妻鳳氏管指揮使事。鳳氏死，族人安登繼襲，復無子，妻瞿氏管事，以族人世隆嗣。世隆復無子，繼妻祿氏管事。祿死，以族侄安崇業嗣。崇業與祿氏不相能，因養那固爲假子，其奴祿祈從吏構難，歲仇殺。鎮巡官讞之，殺那固而戍祿祈，事遂平。

안배(安配)의 6세손 안충(安忠)은 후사가 없어서 [안충 사후에] 처 봉씨(鳳氏)가 지휘사의 일을 관장했다. 봉씨가 죽자 친족인 안등계(安登繼)가 뒤를 이었으나 또 자식이 없어 처 구씨(瞿氏)가 그 일을 관장하면서 친족인 세룡(世隆)을 후사로 삼았다. 세룡도 또 자식이 없어서 후처 녹(祿)씨가 그 일을 관장했다. 녹씨 사후에 족질(族侄)인 안숭업(安崇業)이 뒤를 이었다. 안숭업과 녹씨는 서로 화목하지 못해서 나고(那固)를 양자로 삼았는데, 그녀의 노복 녹기(祿祈)가 이간질하자 해마다 다투고 원망하며 죽었다. 진순관이 죄를 논하여 나고를 죽이고 녹기는 [변방의] 수자리로 보내자, 드디어 사태가 수습되었다.

安氏所轄四驛，曰祿馬·阿用·白水·瀘沽，各百里有差。其涼山拖郎·桐槽·熱水諸番，則以強弱爲向背。所領昌州等三長官司，皆在衛東·西·南三百里內。洪武十八年，

239) 金沙江: 長江의 상류인 金沙江은 青海의 唐古拉산맥의 格拉丹冬雪山의 북쪽 산기슭에서 시작되는데 西藏과 四川의 경계를 흐르는 하천이다. 江達縣과 사천의 石渠縣의 交界地에서 昌都지역의 변경지역으로 흘러들어가서 江達·貢覺·芒康縣 등을 경유하여 雲南으로 들어간다. 그 후에는 운남의 麗江에서 동쪽으로 흘러 長江의 상류가 된다. 『禹貢』에서는 黑水라고 칭했고, 『山海經』에서는 繩水라고 칭했다. 삼국시기에는 瀘水라고 칭했다. 제갈량이 南蠻을 공략할 때 건넌 瀘水가 곧 金沙江이다. 그 밖에 麗水, 馬湖江, 神川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다. 원래는 강 연안에서 沙金이 많이 생산되었으나 宋代에 강 속에서 대량의 淘金이 생산되어 金沙江이라고 칭하게 되었다.

土官盧尼姑·吉撒加·白氏等歸附，皆令世襲爲知州。月魯帖木兒之亂，諸州皆廢革。永樂元年復置，悉改爲長官司，仍隸建昌。其千戶所之隸於衛者有三：曰禮州，曰打沖河，曰德昌。禮州，漢蘇示縣；打沖河，唐沙野城；德昌，元定昌路也。

안씨가 관할하는 네 역은 녹마(祿馬)·아용(阿用)·백수(白水)·노고(瀘沽)라 하는데, 그 간격이 백 리씩이었다. 양산(涼山)의 타랑(拖郎)·동조(桐槽)·열수(熱水) 등 여러 번족(番族)은 [명조가] 강하면 복종하고 약하면 배반하였다. [그가] 관할하고 이끄는 창주(昌州) 등 세 장관사는 모두 위(衛)의 동·서·남쪽 삼백 리 안에 있었다. 홍무 18년(1379)에, 토관 노니고(盧尼姑)·길살가(吉撒加)·백저(白氏) 등이 귀순하였으므로, 모두 세습시켜 지주(知州)로 삼도록 했다. 월노첩목아의 반란으로 인해 여러 주들이 모두 폐지되었다. 영락 원년(1403)에 다시 설치하여 모두 장관사로 고쳤는데, 예전처럼 건창에 예속시켰다. 위(衛)에 예속된 천호소는 셋이 있는데 예주(禮州), 타충하(打沖河), 덕창(德昌)이라 한다. 예주는 한나라 때의 소시현(蘇示縣)이고, 타충하(打沖河)는 당나라 때의 사야성(沙野城)이며, 덕창(德昌)은 원나라 때의 정창로(定昌路)이다.

## 寧番衛

### 영번위

寧番衛，元時立於邛都之野，曰蘇州。洪武間，土官怕兀它從月魯帖木兒爲亂，廢州置衛。環而居者，皆西番種，故曰寧番。有冕山·鎮西·禮州中三千戶所。

영번위는 원나라 때에 공도의 들판에 세웠는데, 소주(蘇州)라고 불렀다. 홍무 연간(1368~1398)에 토관 파울타(怕兀它)가 월노첩목아를 따라서 반란을 일으켰으므로, 주(州)를 폐하고 위(衛)를 설치했다.<sup>240)</sup> [영번위를] 둘러싸고 거주하는 자들은 모두 서번(西番) 종족

240) 명조는 처음에 土官 怕兀它를 四川 蘇州衛의 指揮使司의 知州를 삼고 夷民들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홍무 21년(1382) 10월에 이르러 羽林右衛 指揮簽事 陳起에게 군사를 이끌고 蘇州로 가서 築城하고

이므로, 영번(寧番)이라 칭했다. 면산(冕山)·진서(鎭西)·예주중(禮州中) 세 개의 천호소가 있다.

## 越巂衛

### 월수위

越巂衛，漢邛都及闌二縣地。有奴諾城，卽蜀漢時諸葛亮征蠻所築以憩軍者也。元置邛部安撫招討司，已，改邛部州。

월수위는 한나라의 공도현 및 난현의 땅이었다. 노낙성(奴諾城)<sup>241</sup>은 촉한<sup>242</sup> 시대에 제갈량이 만족(蠻族)을 정벌할 때 쌓아 군사를 휴식시키던 곳이다. 원나라는 공부안무초토사를 설치하였으나 곧 공부주(邛部州)로 고쳤다.

洪武中，嶺眞伯以招討使來歸，因改爲邛部軍民州。洪武二十五年置越巂軍民指揮使司於邛部州，命指揮僉事李質領謫戍軍士守之。二十六年置越巂衛。永樂元年改邛部爲長官司，隸越巂衛。

홍무 연간(1368~1398)에 영진백(嶺眞伯)이 초토사로서 귀순하였으므로 공부군민주로 고쳤다. 홍무 25년(1386)에, 월수군민지휘사사를 공부주에 설치하고, 지휘첨사 이질(李質)에게 명하여 유배를 당해 수자리를 서는 군사를 거느리고 지키게 하였다. 홍무 26년(1387)에 월수

주둔하도록 명령했다. 관련 사항은 『太祖實錄』 卷194 洪武 21년 10월 庚午條에 기록되어 있다.

241) 奴諾城: 지금의 涼山彝族自治州에 위치한 城으로, 蜀漢의 諸葛亮이 쌓았다고 해서 일명 諸葛城이라고도 한다.

242) 蜀漢: 삼국시대 때 前漢 景帝의 후손 玄德 劉備가 蜀(지금의 四川省) 지역에 세운 나라이다. 漢 皇室의 후예가 세운 마지막 한나라이기에 季漢이라고도 불린다. 220년에 漢나라의 실권을 잡고 있던 魏王 曹조가 獻帝를 내쫓고 帝位를 찬탈하자, 당시 益州와 漢中을 점거하고 있던 劉備가 漢 황실의 후예라는 정통성을 내세워 이듬해에 황제임을 선언하고, 國號를 漢이라 하였다

위를 설치하였다. 영락 원년(1403)에 공부(郕部)를 장관사로 고치고 월수위에 예속시켰다.

萬曆中，土官嶺柏死，孽子應升負印去，柏妾沙氏爭之不得。土目阿堆等擁沙氏，焚利濟站廬舍，擁兵臨城。總兵劉顯率兵往撫之，沙氏悔禍，殺阿堆等自贖，顯遂以印授之。後沙氏淫於族人阿祭，印復爲升所奪。祭死，其子嶺鳳起嗾他番刺殺應升。鎮守官因平蠻之師，誘鳳起繫之，收其印，而誅從鳳起爲亂者百餘人。印無所歸，緘於庫。部衆無統，肆行爲盜。普雄部衆姑咱等乘勢蜂起，郵傳不通，遠近震恐。十五年，鎮巡官會師討之，斬馘千數，鳳起病死，其衆爭歸附，因置平夷·歸化二堡以居之。有鎮西千戶所。

만력 연간(1573~1619)에, 토관 영백(嶺柏)이 죽자 열자(孽子) 응승(應升)이 [관]인을 가지고 가버려, 영백의 첩 사(沙)씨가 [인을 얻으려] 다투었으나 얻지 못했다. 토목(土目)<sup>243)</sup> 아퇴(阿堆) 등이 사씨를 옹유(擁育)하여 이제참(利濟站)의 건물을 불태우고 병사를 거느리고 성에 다다랐다. 총병 유현(劉顯)<sup>244)</sup>이 병사를 거느리고 가서 위무하자 사씨가 죄를 뉘우쳤으며,

243) 土目: 土司制度 하에서 土司에 예속된 일종의 官衙이다. 封土와 軍隊 등을 옹유하여 文武를 兼理하는 비교적 높은 지위이며 세습하는데, 그들의 권력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르다.

244) 劉顯(1515~1581): 원래의 姓은 龔이며, 字는 惟明이다. 江西 南昌 사람으로 집안이 가난하여 四川으로 이주하고 冒籍하여 武生員이 되었다. 嘉靖 34년(1555)에 사천에서 苗族들의 반란이 일어나자 巡撫 張梈가 이들을 토벌하였는데 劉顯도 종군하여 50여 명을 맨손으로 때려잡고 우두머리 3명을 사로잡아 명성이 자자해졌다. 副千戶의 관직에 있다가 후에 浙江都司의 參將을 역임하면서 倭寇를 크게 물리쳐서 副總兵으로 승진하였으며, 劉家莊 일대에서 왜구를 크게 소탕하였다. 嘉靖 41년(1562)에 總兵이 되어 廣東을 鎮守하면서 군사를 이끌고 福建으로 가서 왜구를 소탕하는 작전에 참여하였는데 戚繼光, 俞大猷 등과 협력하여 함께 왜구를 물리쳤다. 후에 狼山總兵에 임명되어 長江의 남북 兩岸을 통제하면서 왜구가 침범하는 것을 방어하였다. 萬曆 연간(1573~1619)에는 四川의 都掌蠻 토벌에 참전하였다. 都掌蠻은 四川 敘州府와 瀘州府 일대의 高, 珙, 筠連, 長寧, 江安, 納溪 등 여섯 개 縣에 걸쳐 분포하였는데 成化 초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程信에게 평정되었다. 正德 연간(1506~1521)에는 普法이 다시 반란을 일으켰다가 馬甌에게 토벌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九絲山에 근거를 두고 원군을 계속 노략질하였다. 그 산은 넓고 사방이 험준하여 군사를 동원하기가 어려웠는데, 사천 순무가 이를 토벌하기로 작정하고 상주를 올려 재가를 받은 뒤에 劉顯에게 군사 업무를 위촉하였다. 萬曆 원년(1573) 3월에 명조는 敘州에 대군을 모으고 이들을 공략하여 4,600여 명을 베거나 사로잡았다. 이때의 전공으로 劉顯은 都督同知로 승진하였다. 이후에도 사천 番人들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 참여하여 그들의 牒를 점령하고 우두머리들을 참수하고 番民들을 위무하여 변경을 안정시켰다. 萬曆 9년(1581)에 사망하였다. 그의

아되 등을 죽여 스스로 속죄하니 유현이 드디어 [관]인을 [그에게] 주었다. 후에 사씨가 친족 아제(阿祭)와 음란하게 지내자 [관]인은 다시 응승에게 빼앗겼다. 아제가 죽자 그 아들 영봉기(嶺鳳起)가 다른 번인(番人)을 사주하여 응승을 찢어 죽이게 하였다. 진수관이 만족(蠻族)을 평정하는 군대로써 영봉기를 유인하여 사로잡아서 그 [관]인을 회수하고, 영봉기를 따라 난을 일으킨 자 백여 명을 죽였다. [관]인을 돌려보낼 곳이 없어서 곳간에 넣고 봉하였다. 부의 무리들은 통솔하는 자가 없어 제멋대로 행동하다 도적이 되었다. 보웅(普雄)<sup>245</sup> [에 거주하던] 무리와 고찰(姑咱)<sup>246</sup> [에 살던 무리] 등이 틈을 타서 봉기하자, 우전(郵傳)이 통하지 않고 원근이 떨어져 두려워했다. 만력 15년(1587)에 진수관이 군대를 모아 토벌하고 천여 명을 베었으며 영봉기가 병으로 죽자 그 무리가 다투어 귀순하므로 평이(平夷)·귀화(歸化) 두 보(堡)를 설치하여 거주하게 하였고 진서(鎭西) 천호소를 두었다.

## 鹽井衛

### 염정위

鹽井衛，古定笮縣也。元初爲落蘭部。至元中，於黑·白鹽井置閭鹽縣，於縣置柏興府。洪武中，改爲柏興千戶所，旋改鹽井衛，又於二井置鹽課司。永樂五年設馬刺長官司，其村落多白夷居之。長官世阿氏，洪武時歸附，授世職。地接雲南北勝州，稱庶富，人亦擾馴。

염정위<sup>247</sup>)는 옛날의 정착현(定笮縣)이다. 원나라 초에는 낙란부(落蘭部)로 되었다. 지원

아들 劉綎 역시 명조의 武將으로서 임진왜란에 참전하기도 하고, 1619년 후금과의 사르후 전투에 참전하기도 했다(한명기, 1999: 46, 262 참조).

245) 普雄: 普雄鎮은 지금의 四川 涼山彝族自治州 越西縣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다.

246) 姑咱鎮: 姑咱鎮은 지금의 四川省 甘孜藏族自治州 康定縣 東部, 大渡河 서안에 위치하고 있다. 姑咱鎮은 옛 羌族의 땅으로 漢代에는 沈黎郡에 속했으며, 隋代에는 嘉良에 속했고 唐代에는 縣의 동북부는 中川, 會野 등 羈縻州의 일부로서 雅州에 소속되었으며, 서부는 吐蕃의 땅이 되었다. 元代에는 長河西 魚通寧遠宣慰司가 설치되었고, 明代에는 元의 제도를 이어받았다가 崇禎 12년(1639)에 固始汗이 木雅 營官을 설치하였다. 淸 康熙 42년(1701)에 淸軍이 木雅營官인 昌側集烈의 반란을 평정한 후에, 다시 明正長河西 魚通寧遠宣慰司(簡稱하여 明正土司라 함)를 설치하였다.

연간(1264~1294)에 흑염정과 백염정에 윤염현(閔鹽縣)을 설치하고, 현에 백흥부(柏興府)[의  
治所]를 두었다. 홍무 연간(1368~1398)에 백흥천호소(柏興千戶所)로 고쳤다가 곧 염정위로  
고치고, <sup>248)</sup> 또 [흑·백]두 [염]정에 염과사(鹽課司)<sup>249)</sup>를 설치했다. 영락 5년(1407)에 마랄장  
관사(馬刺長官司)를 설치했는데 그 촌락에는 대부분 백이가 거주했다. 그 장관은 대대로 아씨  
(阿氏)였는데, 홍무 연간(1368~1398)에 귀순하자 대대로 관직을 제수했다. 땅은 운남의 북승주  
(北勝州)<sup>250)</sup>와 접하여 인구가 많고 물산이 풍부하며 사람도 또한 고분고분하다고 칭해진다.

打沖河守禦中左千戶所，其土千戶刺兀，於洪武二十五年征賈哈喇順來歸。其子馬刺非  
復賈馬赴京，授本所副千戶。永樂十一年升正，以別於四所。地與麗江·永寧二府隣，  
麗江土官木氏侵削其地幾半。

타충하수어중좌천호소(打沖河守禦中左千戶所)의 토천호 날울(刺兀)은 홍무 25년(1392)  
에 가합라(賈哈喇)를 토벌하였을 때 귀순하였다.<sup>251)</sup> 그의 아들 마랄비(馬刺非)<sup>252)</sup>가 다시

247) 鹽井衛: 洪武 26년(1393)에 설치했는데, 治所는 지금의 四川省 鹽源縣 東衛城이며, 四川都司에 예속시  
켰다. 이듬해에 바꾸어 四川行都司에 예속시켰으며, 지금의 四川省 鹽源·鹽邊 등의 縣을 관할했다.  
淸 雍正 6년(1728)에 鹽源縣으로 바꾸었다.

248) 홍무 25년 8월에 염정위라는 지명이 실록에 최초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염정위가 설치된 때는 그  
이전으로 추정된다. 『太祖實錄』 卷220 洪武 25년 8월 戊寅條를 참조하라.

249) 鹽課司: 鹽務와 鹽稅의 징수를 담당한 지방기구이다. 竈地, 灘池에 대한 징세와 海鹽稅 징수에 치중했  
고, 징수대상은 鹽課司가 소재한 곳의 鹽場이었다. 그 밖에 징수한 鹽稅를 運鹽司로 운반하는 업무도  
담당했다. 淸朝가 멸망한 후에 이 기구는 폐지되었다.

250) 北勝州: 元나라 때에는 北勝府였고 麗江路에 속했는데, 洪武 15년(1382)에 布政司에 예속시켰으며  
州로 강등시켜 鶴慶府에 예속시켰다. 이후 洪武 29년(1396)에 瀾滄衛로 예속시켰다가 正統 7년(1442)  
에 布政司에 直屬시켰다(『明史』 卷46 「地理志」 雲南條). 지금의 雲南省 麗江市 永勝縣 북부와 永平縣  
그리고 四川省 攀枝花市 小部 일대의 지역이다.

251) 『太祖實錄』 卷250 洪武 30년 3월 甲申條에는 四川 柏興州 三尖寨 土官 千戶인 刺兀이 그 아들 八的高를  
보내 말을 바쳤다고 기록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刺兀의 신상과 귀순 동기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였다.  
실록에 따르면 刺兀은 卜木瓦寨의 우두머리로서 月魯帖木兒의 반란에 동참한 賈哈刺의 아우였다.  
처음에 賈哈刺이 月魯帖木兒와 함께 반란을 일으키려 하자 刺兀은 이에 따르지 않고 三尖寨로 물러가  
지키다가 鹽井衛에 찾아와 명조에 귀순하였다. 이에 月魯帖木兒는 그의 형 賈哈刺을 사로잡아 산속으  
로 도주하였다. 그리고 刺兀이 자신을 따르지 않은 것에 분노하여 무리를 이끌고 吉水柱寨를 공격하여

경사(京師)로 와서 말을 공물로 바쳤으므로, 본 소의 부천호(副千戶)를 제수하였다. 영락 11년(1413)에 정천호(正千戶)로 승진시켜, 네 소(四所)와 구분하였다. 그 땅은 여강부(麗江府)<sup>253</sup>·영녕부(永寧府)<sup>254</sup>와 접해 있는데, 여강의 토관 목씨(木氏)<sup>255</sup>가 그 땅의 절반 가까이를 침략하여 빼앗았다.

刺兀의 사위와 딸을 죽이자 생명에 위협을 느낀 刺兀이 아들을 보내 공물을 바쳤다.

252) 馬刺非: 『土官底簿』 卷上 永寧府知府條에는 刺馬非로 기재되어 있다.

253) 麗江府: 洪武 15년(1382)에 麗江路를 麗江府로 고쳤다가 洪武 31년(1398)에 軍民府로 바꾸었다. 通安州·寶山州·巨津州·蘭州를 관할하였다. 清代에 麗江軍民府로 하였는데, 雍正 원년(1723)에 雍正제가 改土歸流를 단행하기 전까지 木氏 土司가 세습하며 이 지역을 통치했다.

254) 永寧府: 元나라 때는 永寧州로, 麗江路에 속했다. 洪武 15년(1382)에 北勝府로 바꾸어 예속시켰다가 洪武 17년(1384)에 鶴慶府에 예속시켰으며, 洪武 29년(1396)에 瀾滄軍民衛에 속하게 했다. 이후 永樂 4년(1406)에 永寧府로 승격시켜 布政司에 속하게 했다. 지금의 雲南省 麗江市 寧蒗彝族自治縣 지역이다.

255) 木氏: 麗江의 木氏 土司(納西族)로, 麗江의 토지와 삼림 그리고 河澤의 소유자이자 정치상의 통치자였다. 木氏 土司들은 雲南에서 漢文化를 가장 일찍이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서남지역 土司들 가운데 특히 “知詩書, 好禮守義”로 명성이 높았다. 이들은 元代에 麗江 土知府의 직책을 세습한 이래 明代를 거쳐 淸 雍正 연간(1723~1735)에 改土歸流를 단행할 때까지 22대 470년 동안 土知府의 직을 유지하였다. 전설에 따르면 木氏 일족의 조상의 뿌리는 唐代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지만 문헌자료에 따르면 宋代부터서야 木氏 조상들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다. 『木氏宦譜』에 따르면, 木氏의 조상은 西域蒙古人으로 기록된 祿麥인데, 그는 宋 徽宗 때에 麗江에 도착하여 아들 阿琮을 낳았다. 宋 理宗 寶佑 원년(1253)에 쿠빌라이가 이끄는 蒙古 군대가 大理를 정복하러 오자 阿琮의 아들 阿良이 무리를 이끌고 몽골군에 투항하여 茶罕章宣慰司의 總管으로 임명되었다. 阿良은 몽골군에 종군하여 전공을 세워 副元帥 벼슬을 받았고, 이를 아들 阿胡에게 전하였다. 阿胡는 阿烈에게 阿烈은 阿甲에게 전하였다. 阿甲은 元 順帝로부터 宣撫司副使의 벼슬을 받고 아들 阿得에게 전하였다. 明 洪武 15년(1382)에 太祖 朱元璋이 傅友德, 藍玉, 沐英 등의 장수를 보내 운남을 정복하게 하였는데, 明軍이 大理를 공략하자 阿得은 무리를 이끌고 투항하였고, 明 太祖는 이곳에 麗江府를 설치하고 阿得을 知府로 삼았다. 洪武 16년(1383)에 阿得이 入朝하여 말을 공물로 바치자 木姓을 하사하였다. 『土官底簿』의 기록에 따르면 木(阿)得은 洪武 17년(1384)에 副千夫長 겸 千戶의 벼슬을 받았다. 洪武 18년(1385)에는 巨津의 土酋長 阿奴聰이 반란을 일으켜 石門關을 노략질하자 木得은 이들을 물리쳤으며, 또 明의 장수 沐英을 따라 종군하여 景東, 定邊 등지를 공격하여 공을 세웠다. 洪武 24년(1391)에 사망하자 그 아들 木初가 麗江 土知府의 벼슬을 세습하였다. 淸 雍正 원년(1723)에 개토귀류를 단행하여 流官知府를 임명하였지만 이 관직도 木氏 토사 가문에서 세습하였는데, 이런 정황은 清代는 물론 民國 시대까지 지속되었다(龔蔭, 1992: 574~575).

## 會川衛

### 회천위

會川衛，越舊之會無縣也。唐上元中，移邛都縣於會川鎮，以川原并會故名。宋屬大理，爲會川府。元置會川路，治武安州，隸羅羅斯宣慰司。

회천위는 월수의 회무현(會無縣)이다. 당나라 상원(上元)<sup>256)</sup> 연간(674~676)에 공도현을 회천진으로 옮겼는데, [그곳이] 강물이 합쳐지는 곳인 까닭에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송대에는 대리(大理)에 속했고 회천부라 하였다. 원나라는 회천로를 설치하고 무안주에 치소를 두었으며, 나라사선위사(羅羅斯宣慰司)에 예속시켰다.

洪武十七年，會川土同知馬誠來朝，復立會川府，領武安·永昌·麻龍等州。二十六年革會川府。初，月魯帖木兒反，土知府王春陷會川，毀民居府治，至是遂墮其城。尋改爲會川衛軍民指揮使司，領迷易千戶所。土官賢姓，其先雲南景東焚種也，徙其屬來田種。洪武十六歸附，以隨征東川·芒部勞，授世襲副千戶。居所治城外，所轄焚蠻僅八百戶。

홍무 17년(1384)에, 회천 토동지 마성(馬誠)이 내조하자 다시 회천부를 세우고, 무안(武安)·영창(永昌)·마룡(麻龍) 등의 주(州)를 거느리게 하였다.<sup>257)</sup> [홍무] 26년(1393)에 회천부를 폐지하였다.<sup>258)</sup> 당초에 월노첩목아가 반란을 일으키자 토지부 왕춘(王春)이 회천을 함

256) 上元: 唐 高宗 李治의 연호이다.

257) 『太祖實錄』 卷163 洪武 17년 7월 丁酉條에는 會川府 土官同知 馮成이 永昌府判 朱成을 보내고 烏蒙軍民府 知府 實哲은 把事 亦馬를 보내 내조하고 말을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土司傳의 馬誠은 馮成을 잘못 쓴 것으로 판단된다.

258) 『太祖實錄』 卷143 洪武 15년 3월 己未條에 따르면 당시 雲南 공략을 마무리한 명조는 운남성의 지방 행정단위를 확정하였다. 이때 會川府는 雲南省 52개 府 가운데 하나로서 武安·黎溪·永昌의 세 州를 거느렸다. 『太祖實錄』 卷149 洪武 15년 10월 壬辰條에 따르면 이때 雲南省 建昌府 소속의 建安·永寧·瀘·禮·里·潤·邛部·蘇州 등의 여덟 州가 四川布政使司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德昌府 소속의

락시키고 백성들의 거처와 부(府)의 치소(治所)를 부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마침내 회천성이 무너졌다.<sup>259)</sup> 곧 회천위군민지휘사사(會川衛軍民指揮使司)로 고치고 미역천호소(迷易千戶所)를 거느리게 하였다.<sup>260)</sup> 토관의 성(姓)은 현(賢)으로, 그 선조는 운남 경동(景東)<sup>261)</sup>의 북종(僂種)인데, 그에 속해 있는 부족들을 옮겨와서 경작하였다. 홍무 16년(1383)에 귀순하여 동천과 망부를 토벌하는데 참전한 노고로 부천호의 관직을 세습하도록 했다. 거소는 성 밖에 두었고, 관할하는 북만(僂蠻)은 겨우 800호였다.

## 茂州衛

### 무주위

茂州，古冉駝國地。漢武帝置汶山郡，宣帝爲北部都尉。隋爲蜀州，尋改會州。唐貞觀改茂州。宋·元仍舊，治汶山縣。

무주는 옛날 염방국(冉駝國)의 땅이다. 한나라 무제가 문산군(汶山郡)을 설치했고, 선제(宣帝)<sup>262)</sup>가 북부도위(北部都尉)라 하였다. 수나라는 촉주(蜀州)라고 했다가 곧 회주(會州)로

昌德·威·籠·普濟州 등 네 州와 會川府 소속의 武安·黎溪·永昌縣 등 세 縣도 모두 四川布政使司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會川千戶所는 四川都指揮使司 관할의 建昌衛에 예속되었다.

259) 관련 사항은 『太祖實錄』 卷227 洪武 26년 4월 丙子條에 기록되어 있다.

260) 『太祖實錄』 卷222 洪武 25년 11월 庚寅條에 따르면 이날 會川軍民千戶所를 會川衛軍民指揮使司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太祖實錄』 卷223 洪武 25년 윤12월 乙未條에 따르면 會川衛에 迷易守禦千戶所를 설치하였다.

261) 景東: 지금의 雲南省 景東彝族自治縣이다. 景東은 傣語에서 轉音한 것으로 壩子城이라는 의미인데, 秦나라 이전에는 西南夷의 땅에 속했다. 漢代에서 魏·晉 시대에는 益州郡과 永昌郡에 속했고, 北周에서 隋代에는 濮州部에 속했다. 南詔 시대에는 開南節度使를 설치하여 지금의 普洱市 일대를 관할하였는데, 그 治所를 開南城 즉 지금의 景東縣에 두었다. 大理國 後期에 節度使를 폐지하였으며, 元 至元 12년(1275)에는 開南州를 설치하여 威楚路에 소속시켰다. 至順 2년(1331)에 景東軍民府를 설치하여 開南(지금의 景東縣), 威遠(지금의 景谷縣), 干遠(지금의 鎮沅縣) 3州를 관할하도록 하고서 雲南行省에 소속시켰다. 明 洪武 15년(1382)에 府를 州로 강등하여 楚雄府에 예속시켰다가 洪武 17년(1384)에 다시 府로 승격시켰다. 淸 乾隆 35년(1770)에는 景東直隸廳을 설치하고 迤西道에 소속시켰다.

262) 宣帝: 前漢의 황제 劉病已이다. 字는 次卿이고 諡號는 孝宣皇帝이다. 漢 武帝의 曾孫이자 戾太子 劉據의

고쳤다. 당나라 정관(貞觀)<sup>263</sup> 연간(627~649)에 무주(茂州)로 고쳤다. 송·원대에는 예전처럼 무주를 두고 문산현에 치소를 두었다.

洪武六年，茂州權知州楊者七及隴木頭·靜州·嶽希蓬諸土官來朝貢。十一年置茂州衛指揮使司。時四川都司遣兵修灌縣橋梁至陶關，汶川土酋孟道貴疑之，集部落阻陶關道。都司遣指揮胡淵·童勝等統兵分二道擊之，一由石泉，一由灌口。由灌口者進次陶關，蠻衆伏兩山間，投石崖下，兵不能進。適汶川土官來降，得其間道。乃選勇士捲旗甲，乘夜潛出兩山後，遲明從山頂張旗幟，發火砲，蠻驚潰。師進雁門關，道險，蠻復據之。乃駐平野，得小舟渡，至龍止鐵冶寨，擊破之。其由石泉者次泥池，蠻悉衆拒。千戶薛文突陣射却之，士卒奮擊，大敗其衆。兩軍遂會於茂州，楊者七迎降，以者七仍領其州。乃詔立茂州衛，留指揮楚華將兵三千守之。十五年，者七陰結生番，約日伏兵陷城。有小校密告於官，遂發兵捕斬者七。生番不之覺，如期入寇，官軍掩擊敗之，於是盡徙羌民於城外。

홍무 6년(1373)에, 무주의 임시 지주(知州)인 양자칠(楊者七)과 농목두(隴木頭)·정주(靜州)·악희봉(嶽希蓬) 등지의 여러 토관들이 내조하여 공물을 바쳤다.<sup>264</sup> [홍무] 11년(1378)에 무주위지휘사사를 설치하였다. 당시 사천도사가 군사를 보내 관현(灌縣)<sup>265</sup>의 교량을 보

손자이다. 할아버지 戾太子가 전91년에 난을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자결하였으므로 劉病己는 태어나서부터 민간에서 자랐다. 昭帝가 사망하고 즉위한 昌邑王 劉賀가 실권자 霍光에게 폐위되자 전 74년 9월 10일(陰曆 元平 원년 7월 庚申日)에 17세의 나이로 上官太后에 의해 陽武侯에 봉해졌다가 한 時辰 후에 다시 황제로 즉위하였다. 전 64년(元康 2년)에 劉詢으로 개명하였다. 처음에는 곽광이 攝政하였으나 전68년 곽광이 병사하자 곽씨 일족을 제거하고 親政하였다. 대내적으로는 지방행정제도를 정비하고 常平倉을 설치하여 빈민 구제에 힘썼다. 대외적으로는 烏孫과 손잡고 흉노를 격파하였다. 鄭吉을 西域都護로 파견하여 西域 36國을 복속시켰으며 전51년에는 南匈奴도 漢에 복속했다. 전49년에 사망했다. 武帝와 더불어 漢을 강성하게 한 황제로 평가받는다.

263) 貞觀: 627년에서 649년까지 사용한 唐 太宗 李世民的 연호.

264) 관련 사항은 『太祖實錄』 卷89 洪武 7년 5월 壬午條에 기록되어 있다. 이때 이들만 내조한 것은 아니고 茂州의 汶山·汶川 및 寒水巡檢司 그리고 威州 등지의 土官들도 함께 내조하여 말을 공물로 바쳤다.

265) 灌縣: 지금의 四川省 成都市에서 서북쪽으로 4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都江堰市이다. 원래의 지명은 灌縣이었으나 유네스코가 지정한 世界文化遺産이자 유명한 수리시설인 都江堰 때문에 1988년에 都江堰

수하여 도관(陶關)에 이르렀는데, 문천(汶川)의 토추장 맹도귀(孟道貴)가 이를 의심하여 부락을 모아 도관으로 가는 길을 막았다. 도사가 지휘 호연(胡淵)·동승(童勝) 등을 보내 군사를 이끌고 두 갈래로 나누어 공격하게 하였는데, 하나는 석천(石泉)에서 하나는 관구(灌口)에서 [출발]하였다. 관구에서 출발한 군대는 나아가 도관에서 주둔했는데, 만족(蠻族) 무리들이 두 산 사이에 매복했다가 벼랑 아래로 돌을 던져서 병사들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였다. 마침 문천의 토관이 투항해 왔으므로 샛길을 알게 되었다. 이에 용사들을 뽑아 깃발로 갑옷을 두르게 하고, 밤을 틈타 두 산의 뒤로 몰래 나가 날이 썰 무렵에 산꼭대기에 기치를 늘어놓고 화포를 쏘니, 만족들이 놀라 [진영이] 무너져 도망갔다. 병사들이 안문관(雁門關)으로 진군했는데, 길이 험하고 만족들이 다시 이를 점거하고 있었다. 이에 평야에 주둔하다가 작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서 용지(龍止)의 철야채(鐵冶寨)에 이르러 그들을 격파했다. 석천에서 나간 [군대는] 니지(泥池)에 주둔했는데 만족들이 무리를 모두 모아 저항하였다. 천호 설문(薛文)이 진으로 돌격해 들어가 화살을 쏘서 물리치고 사졸들도 용감하게 싸워 그 무리를 크게 물리쳤다. 두 군대가 드디어 무주에서 만났고 양자칠(楊者七)이 나와 항복하자 이전처럼 양자칠에게 무주를 이끌도록 하였다. 이에 [황제가] 조서를 내려 무주위를 세우고 지휘 초화(楚華)에게 병사 삼천을 거느리고 머물러 지키도록 하였다.<sup>266)</sup> [홍무] 15년(1382)에, 양자칠이 몰래 생번(生番)들과 결탁하여 날짜를 약속하고 복병을 두어 성을 함락시키려 하였다. 어느 소교(小校)<sup>267)</sup>가 관에 밀고하니, 드디어 군사를 내어 양자칠을 붙잡아 베었다. 생번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서 약속한 날짜에 공격했는데 관군이 갑자기 공격하여 그들을 물리쳤으며 이에 강(羌)족 백성을 모두 성 밖으로 이주시켰다.<sup>268)</sup>

正德二年，太監羅籛奏，茂州所轄卜南村·曲山等寨，乞爲白人，願納糧差。其俗以白

堰市로 이름이 바뀌었다. 秦의 蜀郡 太守 李冰이 都江堰을 완공하여 성도 평원 일대에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였다고 전해진다.

266) 관련 사항은 『太祖實錄』 卷117 洪武 11년 2월 辛未條에 기록되어 있다.

267) 小校: 下級 武官을 일컫는 말이다.

268) 관련 사항은 『太祖實錄』 卷146 洪武 15년 6월 癸未條에 기록되어 있다. 實錄에는 小校가 官이 아니라 衛에 密告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때의 衛란 홍무 11년(1378)에 설치되어 3천의 병력이 주둔하던 茂州衛를 지칭한다.

爲善，以黑爲惡。禮部覆，番人向化，宜令入貢給賞。從之。十四年，巡撫馬昊調松潘兵，攻小東路番寨，而茂州核桃溝上·下關番蠻懼，遂糾白石·羅打鼓諸寨生番，攻圍城堡，遊擊張傑敗績。十五年，巡撫盛應期奏，綽頭番犯松州，總兵張傑克之，復犯雄溪屯，指揮杜欽敗之，煙崇等寨皆降。萬曆十九年，威·茂諸番作亂，攻破新橋，乘勢圍普安等堡。四川巡撫李尚忠檄諸路兵追剿過河，普安諸堡得以保全。

정덕 2년(1507)에 태감(太監)<sup>269)</sup> 나약(羅籬)이 상주하기를, 무주에서 관할하는 복남촌(卜

269) 太監: 宦官을 가리킨다. 전통시대 중국에서 거세되어 생식능력이 상실된 남자도 여자도 아닌 中性으로서 황제나 군주 및 그 가족들을 위해 봉사하던 관원을 지칭한다. 하지만 전진시대나 전한시대에는 환관이 모두 거세된 자들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었으며, 후한시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환관들은 모두 거세되었다. 그 계기는 외부와 격절된 황궁에 황태후나 태후, 황후, 비빈, 궁녀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출입하는 男侍들과 성적으로 접촉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환관은 寺人·閹(奄)人·閹官·宦者·中官·內官·內臣·內侍·內監 등으로 칭해지기도 했다. 환관은 중국뿐만 아니라 고대 이집트, 그리스, 로마, 터키 등 유럽과 이슬람 세계 및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도 존재했다. 하지만 가장 장기적이고 대규모로 환관을 유지한 나라는 중국이었다. 唐 高宗 시절에 殿中省을 中御府로 고치면서 宦官을 太監과 少監으로 充任 시켰는데 이후에 비교적 지위가 높은 宦官을 太監으로 칭하는 관행이 생기게 되었다. 明代에 이르러 宦官들의 권세가 날로 강화되어 이때부터는 모든 宦官들을 太監으로 존칭하게 되었고, 태감은 환관의 대명사가 되었다. 환관이 득세했던 원인으로는 환관 자신들이 황제에게 아부하는 사실도 빼놓을 수 없지만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요인은 황제의 입장에서 볼 때, 환관은 권력을 찬탈하여 새로운 황제의 자리에 오를 수 없는 존재였다는 점이다. 관원들의 경우 황제와 잠재적인 권력의 경쟁자였지만 거세된 환관은 신체적 결합으로 인해 황제의 경쟁자가 될 수 없었다. 따라서 황제들은 환관들이 자신의 수족 노릇을 수행하는 한 불법이나 비리를 눈감아주었다. 황제 독재권력이 강화된 明代에는 막강한 권세를 휘두르던 환관이라도 황제가 총애를 거두는 즉시 제거할 수 있었으므로 황제는 관료들보다는 훨씬 편하게 환관을 심복으로 부렸다. 명 중기 이후에 황제들이 東廠, 西廠과 같이 환관으로 조직한 特務機構를 만들어 운용한 사례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하지만 환관들의 전횡이 도를 넘으면 왕조의 멸망을 초래하기도 했는데 후한, 당, 명조가 그러한 사례에 속한다. 그렇다고 해도 환관들의 고유한 업무 자체는 방대한 규모의 궁궐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였다는 점은 인식할 필요가 있다. 明代 宮廷에는 司禮·內官·御用·司設·御馬 등 12監과 惜薪·鐘鼓·寶鈔·混堂 등 4司, 兵仗·銀作 등 8局 총칭해서 24衙門이 있었는데, 각각의 아문이 수행한 기능들 예컨대 器物을 마련한다든가, 말을 돌본다거나, 땀나물을 구한다든가 하는 따위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황제가 政事를 돌보고 황족들이 궁궐에서 생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南村)·곡산(曲山) 등의 채에서 백인이 되기를 빌면서 세량과 차역을 납부하기 원한다고 했다. 그들의 습속은 흰 것을 선한 것으로, 검은 것은 악한 것으로 여겼다. 예부<sup>270)</sup>에서 심의하여 답하기를, 번인들이 교화를 바라니 마땅히 입조하여 공물을 바치게 하고 상을 내려야 한다고 하였다. [황제가] 이를 허락했다.<sup>271)</sup> [정덕] 14년(1519)에, [사천] 순무 마호(馬昊)<sup>272)</sup>가 송반의 군대를 징발하여 소동로(小東路)의 번채(番寨)를 공격하니, 무주 핵도구(核桃溝) 상하관(上·下關)의 번만(番蠻)들이 두려워하여 마침내 백석(白石)·나타고(羅打鼓) 등 여러 채의 생번들을 모아 정보를 포위하고 공격하였는데, 유격(遊擊)<sup>273)</sup> 장걸(張傑)이 패했다.<sup>274)</sup> [정

270) 禮部: 北魏 때 처음 마련된 관청으로서, 隋代 이후 중앙정부 6부의 하나가 되었으며 尙書 1명을 두었다.

그 밑으로 禮部, 祠部, 膳府, 主客의 네 개 관청이 있었으며, 처음에는 侍郎이 관장하다가 大業 3년(607)에 시랑을 상서의 보좌역으로 바꾸었다. 五禮와 과거를 주관했다. 隋代부터 宋代까지는 尙書省에 속해 있었으며, 元代에는 中書省 관할이었고, 명·청 시대에 이르러 독립기관이 되어 황제로부터 직접 명을 받게 되었다. 明 洪武 13년(1380)에 중서성을 폐지하고 部로 승격하였으며, 尙書 1명과 左右 侍郎 각 1명 및 四司郎中, 員外郎, 主事 등의 관원을 두었다. 청대 역시 명대의 제도를 답습하여 天聰 5년(1631)에 처음 예부를 설치하고 버일러(Beile)로 하여금 총괄케 했으며, 그 밑에 承政, 參政, 啓心郎 등의 관리를 두었다. 崇德 3년(1638)에 承政이 총책임자로 되었다가, 順治 원년(1644)에 다시 승정을 尙書로, 參政을 侍郎으로 각각 변경하였다. 順治 5년(1648)에 상서에 滿洲人과 漢人 각각 1명을 두도록 정했으며, 다시 順治 15년(1658)에는 侍郎 역시 만주인과 한인을 각각 1명씩 두도록 하였다.

271) 관련 사항은 『武宗實錄』 卷30 正德 2년 9월 丙午條에 기록되어 있다. 南村·曲山 등 寨에서 弘治 4년(1491)에 반란을 일으켜 징세와 요역을 납부하지 않은 지 17년이 경과하였는데 이때에 와서 明朝에 귀순한 것이다.

272) 馬昊(1465~1534): 本名은 鄒昊이고, 字는 宗大이며, 陝西都指揮使司 寧夏衛(지금의 寧夏回族自治區 銀川市) 사람이다. 弘治 12년(1498)에 進士에 급제하여 正德(1506~1521) 초에 山東僉事가 되었다. 그 후 사건에 연루되어 유배당해 眞定府 推官으로 강등되었다가 다시 開州 通判으로 강등되었는데, 眞定府의 백성들이 유입시켜주기를 청원함으로써 유배에서 풀려났다. 그 후에 四川僉事로 승진하여 군대를 훈련시키고 巡撫 林俊을 따라 도적들을 평정하여 四川副使로 승진하였다. 여러 차례 전공을 세워 사천 순무로 승진하였다. 正德 12년(1517)에는 指揮 曹昱 등을 통솔하여 烏蒙, 芒部 등의 番民들의 반란을 평정하여 右都御史로 승진하였다. 正德 14년(1519)에 蕃民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키고 그 세력이 확대되자, 南京給事中 孫懋와 巡按御史 盧雍, 黎龍 등이 先後로 馬昊를 탄핵하였다. 그러자 武宗은 관원을 파견하여 그를 체포하도록 했는데, 河南에 이르렀을 때에 병이 심해져서 집에서 요양하기를 청한다고 상소하여 허락받았다. 그러나 世宗이 즉위한 이후에 다시 체포되어 관직을 삭탈당한 후에 귀향했다. 이때 楊一清, 胡世寧 등이 모두 그를 등용하도록 천거하였으나 桂萼이 반대하여 낙향 중에 사망했다(『明史』 卷187 「馬昊傳」 참조).

273) 遊擊: 遊擊將軍을 말하며, 三大營(京營을 구성하는 五軍營, 神機營, 神樞營)에 소속된 각 小營(원칙적으로 2~3천 명으로 조직)의 統御官을 遊擊將軍이라 하는데, 각 지방을 鎮守하고 있는 總兵官 아래에도

덕] 15년(1520)년에 순무 성응기(盛應期)<sup>275)</sup>가 상주하기를, 작두번(綽頭番)이 송주(松州)를

遊擊將軍을 두었다.

274) 관련 사항은 『武宗實錄』 卷175 正德 14년 6월 甲子條에 기록되어 있다. 明軍은 이때의 패전으로 40여 명이 전사하였다. 전사자에는 遊擊 張傑을 비롯하여 指揮 龐昇, 千戶 何英, 百戶 李高가 포함되었다. 이에 巡按御史 黎龍은 四川巡撫 馬昊 등을 失機한 죄로 탄핵하였다. 황제는 馬昊 등에게 죄를 내렸으나 곧 사면하였다.

275) 盛應期(1474~1535): 字는 思征이고, 號는 值庵이며, 南直隸 蘇州府 吳江縣(지금의 江蘇省 소속) 사람으로, 盛寅의 四代孫이다. 弘治 6년(1493)에 進士에 급제하여 都水主事에 제수되어 山東省 濟寧의 운하 갑문을 관리하는 직책을 담당하였다. 이때 太監 李廣의 家人이 私鹽을 밀거래하러 濟寧에 이르렀다가 盛應期를 두려워하여 소금을 물에 빠뜨리고 갔다. 이 일로 환관들과의 사이가 틀어져 工部侍郎으로 승진하였으나 宦官들의 모함으로 투옥되었다가 雲南의 驛丞으로 유배당했다. 이후 곧 祿豐知縣으로 옮겼다가 正德 초년에 雲南僉事가 되었다. 雲南 武定의 土知府 鳳應이 사망하자 그의 처가 知府의 일을 장악하였는데, 아들 朝鳴이 주위를 노략질하였다. 이에 盛應期가 홀로 그 地境에 들어갔는데, 母子가 그를 두려워하여 노략질을 멈추고 돌아갔다. 그는 鳳氏의 변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品秩을 낮추고 流官을 설치해야 한다고 조정에 상주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그는 御史 張璞, 副使 晁必登과 함께 鎮守太監 梁裕가 발호하는 것을 제지했는데, 이에 앙심을 품은 梁裕가 세 사람을 탄핵하여 이들은 모두가 투옥되고 張璞은 고문당해 죽었다. 이때 마침 乾清宮에 불이 나서 황제가 죄인들을 사면하면서 盛應期는 復職되었고 陝西右布政使로 승진하였다. 그 후 右副都御史兼 四川巡撫로 발탁되어 天全六番招討使 高文林의 반란을 평정하였다. 이 무렵 또 泉江 焚蠻 普法惡이 반란을 일으켰고 富順의 奸民 謝文禮, 文義가 합세했는데, 普法惡이 죽자 그는 指揮 何卿 등으로 하여금 謝文禮, 文義를 토벌하도록 하여 소란을 진압했다. 이후 그는 嘉靖 2년(1523)에는 江西 巡撫가 되었는데, 당시 江西에서는 宸濠의 반란이 진압되었지만 아직 그 후유증에서 미처 회복되지 못하였으므로 그는 수십만 緡錢의 雜調 징수를 면제해주고 南京으로 보내는 米 47만 石과 銀 20만 냥을 강서에 存留시켜 굶주린 백성들에게 먹여야 한다고 상소하였다. 그리고 휘하의 府에 명령하여 흉년에 대비해 곡식 100여만 石을 비축하게 하였다. 이후 곧 그는 兵部右侍郎兼總督兩廣軍務의 벼슬을 제수받아 廣東에 이르러 撫寧侯 朱麒과 함께 參將 李璋 등을 督率하여 思恩 土目 劉召를 토벌하였다. 조정에서 岑猛을 크게 토벌하자 의론이 일어났는데, 그는 ‘方略七事’를 조목조목 언급하면서 兩廣의 병사들은 쇠약하여 전투에 동원할 수 없다고 상주하였다. 이에 撫寧侯 朱麒가 분개했으며, 御史 許中이 盛應期가 포학하다며 탄핵하였고 朱麒도 이에 응하여 流言을 퍼뜨렸다. 또 御史 鄭洛書가 다시 盛應期가 權貴들과 결탁하고 뇌물을 받았다고 탄핵하였다. 당시 그는 工部侍郎으로 자리를 옮긴 뒤였는데, 질병을 이유로 사직하고 귀향하였다. 嘉靖 6년(1527)에 黃河의 물이 크게 넘쳐 漕運하는 水路로 흘러들어와 沛北 廟道口일대 수십 리가 진흙으로 막혀 조운선의 왕래가 단절되었으나 侍郎 章拯은 이를 복구하지 못하였다. 尙書 胡世寧, 詹事 霍韜, 僉事 江良材가 昭陽湖 동쪽에 별도의 漕運水路를 개통하는 것이 장구한 계책이라고 상주하였다. 盛應期는 右都御史가 되어 인부 6만 5천, 공사비 銀 20만 냥에 6월이면 능히 운하를 소통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침 가뭄이 겹치자 많은 사람들이 운하를 새로 개통하는 것이 좋은 대책이 아니라고 말했다. 황제는 이에 공사를 중단시키고 제때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다는

침범하므로 총병 장걸이 그들을 무찔러 이겼고 다시 웅계둔(雄溪屯)을 침범하므로 지휘 두흙(杜欽)이 그들을 물리치자, 연숭(煙崇) 등의 채(寨)들이 모두 항복하였다고 했다.<sup>276)</sup> 만력 19년(1591)에, 위(威)·무(茂)의 여러 번인들이 난을 일으켜 신교(新橋)를 공격하여 깨뜨리고 그 기세를 타고 보안보(普安堡) 등의 보를 포위하였다. 사천 순무 이상충(李尙忠)이 여러 갈래의 병사들에게 격문을 보내 추격하여 토벌하고 강을 건너라고 하니, 보안 등 여러 보가 보전될 수 있었다.<sup>277)</sup>

茂州地方數千里，自唐武德改郡會州，領羈縻州九，前後皆蠻族，向無城郭。宋熙寧中，范百常知茂州，民請築城，而蠻人來爭。百常與之拒，且戰且築，城乃得立。自宋迄元，皆爲羌人所據，不置州縣者幾二百年。洪武十一年平蜀，置疊溪右千戶所，隸茂州衛。而置威茂道，開府茂州，分遊擊以駐疊溪，規防始立。然東路生羌，白草最強，又與松潘黃毛韃相通，出沒爲寇，相沿不絕云。其通西域要路，爲桃坪，卽古桃關也，有繩橋渡江。守桃坪者，爲隴木司。

무주의 영역은 사방 수천 리에 이르며 당나라 무덕(武德)<sup>278)</sup> 연간(618~626)에 회주(會州)

혐의로 盛應期를 삭탈관직했다(『明史』 卷223 「盛應期傳」 참조).

276) 관련 사항은 『武宗實錄』 卷188 正德 15년 7월 丁酉條에 기록되어 있다. 실록에는 綽頭番을 綽領番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 張傑은 총병이 아니라 부총병으로 기록되어 있다. 實錄이나 土司傳에는 이들의 침입을 松州 副使 胡澧副와 總兵[실록에서는 副總兵] 張傑이 물리쳤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實錄에는 遊擊이던 張傑이 正德 14년의 전투에서 전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반면 토사전에는 正德 14년에 張傑이 패전했다고만 기록되어 있다. 일년 후인 正德 15년에 總兵[실록에서는 副總兵] 張傑이 綽領番의 침입을 격퇴하였다고 기록한 점은 實錄과 土司傳이 일치한다. 정덕 14년과 15년에 등장하는 張傑이 同名異人이 아니라면 正德 14년 遊擊 張傑이 전사했다고 한 實錄의 기록은 오류인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만일 正德 15년의 실록 기록이 이미 전사한 張傑을 착오로 언급했다면 전사할 당시의 관직인 遊擊으로 張傑을 칭했을 것이지만 오히려 遊擊보다 上級인 副總兵으로 그를 칭하고 있기 때문이다.

277) 관련 사항은 『神宗實錄』 卷232 萬曆 19년 2월 戊辰條에 기록되어 있다. 李尙忠은 실록에는 李尙思로 기록되어 있다. 신종 실록에는 일관되게 四川撫按官 李尙思(『神宗實錄』 卷234 萬曆 19년 윤3월 辛未條), 四川巡撫 李尙思(『神宗實錄』 卷236 萬曆 19년 5월 辛巳條) 등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토사전의 李尙忠은 李尙思의 誤記로 판단된다.

로 고치고 기미주(羈縻州) 아홉을 거느렸는데, 앞뒤에는 모두 만족(蠻族)이 있었으며 이전부터 성곽은 없었다. 송나라 희녕(熙寧)<sup>279)</sup> 연간(1068~1077)에 범백상(范百常)이 무주 지주가 되었는데 백성들이 성을 쌓기를 청했으나 만인(蠻人)들이 와서 [이 성을 놓고] 다투었다. 범백상이 그들에게 항거하면서 한편으로는 싸우고 한편으로는 쌓아서 마침내 성[벽]이 세워졌다. 송에서 원까지는 모두 강인(羌人)들에게 점거되었고, 주와 현을 설치하지 않은 지가 거의 이백년이었다. 홍무 11년(1378)에 축을 평정하고 첩계우천호소(疊溪右千戶所)를 설치하고 무주위(茂州衛)에 예속시켰다. 위무도(威茂道)를 설치하고 무주에 관아를 세우고 유격을 첩계로 파견하여 주재시키니, 방어 조직이 비로소 갖추어졌다. 그러나 동로의 생강(生羌)은 백초(白草)가 가장 강하였는데, 또 송반의 황모달(黃毛韃)과 서로 결탁하여 출몰하고 노략질하는 것이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 서역으로 통하는 중요한 길목은 도평(桃坪)<sup>280)</sup> 즉, 옛날의 도관(桃關)인데, 노끈으로 엮은 다리가 강을 가로지르고 있다. 도평을 지키는 것은 농목사(隴木司)이다.

茂州長官司三：曰隴木，曰靜州，曰疊溪。隴木長官司，其長官即隴木里人也。洪武時歸附，授承直郎，世襲長官，歲貢馬二匹。所屬玉亭·神溪十二寨，俱爲編氓，有保長統之。

무주의 장관사는 셋인데 농목(隴木), 정주(靜州), 첩계(疊溪)라 한다.<sup>281)</sup> 농목장관사, 그 장관은 곧 농목리 사람이다.<sup>282)</sup> 홍무 연간(1368~1398)에 귀부하여 승직랑(承直郎)을 제수받

278) 武德: 唐 高祖 李淵의 연호이다.

279) 熙寧: 北宋 神宗 趙頊의 연호이다.

280) 桃坪: 지금의 四川省 阿壩藏族自治州에 속해 있는 理縣의 縣治에서 동쪽 약 40km 지점에 위치한 桃坪鄉이다. 현재 인구 약 3천 명 가운데 羌族의 비율이 99%에 달하는 羌族聚居鄉이다. 해발 1,450~2,800m에 달하는 고산 협곡지구에 위치하고 있다. 鄉内に 桃坪 羌寨가 역사유적으로 남아 있다.

281) 實錄에는 洪武 7년(1374) 5월 四川에 散毛沿邊宣慰使司, 堂厓長官司, 汶山縣·汶川縣, 隴木頭·靜州·岳希蓬 長官司, 3店巡檢司를 설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土司傳에서처럼 隴木長官司가 아니라 隴木頭長官司로 기록되어 있다. 實錄에서는 일관되게 隴木頭로 칭하고 있다. 또 土司傳에서는 嶽希蓬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實錄에서는 岳希蓬으로 써어 있다. 관련 사항은 『太祖實錄』 卷89 洪武 7년 5월 癸巳條에 기록되어 있다.

고, 장관을 세습했으며 해마다 말 2필을 공물로 바쳤다. 소속된 옥정(玉亭)·신계(神溪) 등 12채는 모두 이주해온 백성들로 편성되었고 보장을 두어 통솔하게 했다.

靜州長官司，其地卽唐之悉唐縣，其長官亦靜州里人也。襲官貢馬，與隴木同。正德間，與嶽希蓬·節孝爲亂，攻茂城，斷水道七日。節孝弟車勻潛引水以濟我軍。事平，使車勻襲職，轄法虎·核桃溝八寨，俱編戶爲氓，亦有保長統之。

정주장관사, 그 지역은 곧 당나라의 신탕현(悉唐縣)으로, 그 장관 역시 정주의 향리 사람이다.<sup>283)</sup> 관직을 세습하고 말을 공물로 바치는 것은 농목과 같다. 정덕 연간(1506~1521)에, 악희봉(嶽希蓬)[장관사]·절효(節孝)와 함께 반란을 일으켜, 무성을 공격하고 7일 동안 물길을 끊었다. 절효의 동생 차표(車勻)가 몰래 물을 끌어와 아군을 구제했다. 사태가 평정되자 차표로 하여금 그 직책을 잇게 하고 법호(法虎)·핵도구(核桃溝) 등 8채를 관할하도록 했는데 모두 이주해온 백성들로 호구가 편성되었으며 역시 보장을 두어 통솔하게 했다.

疊溪千戶所，永樂四年置。領長官司二：曰疊溪，在治北一里；曰鬱卽，在治西十五里。

첩계천호소는 영락 4년(1406)에 설치했다. 장관사 둘을 통솔했는데 [그중 하나는] 첩계(疊溪)라고 하며 치소(治所)에서 북쪽 1리에 있었고 [다른 하나는] 울즉(鬱卽)이라 하는데 치소에서 서쪽 15리에 있었다.

疊溪郁氏，洪武十五年歸附，給印世襲，凡三年貢馬四匹。長官所轄河東熟番八寨，皆

282) 『太祖實錄』卷231 洪武 27년 정월 己巳條에 따르면 洪武 27년(1394) 당시 隴木長官司의 長官은 車落이다.

283) 『太祖實錄』卷231 洪武 27년 정월 己巳條에 따르면 洪武 27년(1394) 당시 靜州長官司의 長官은 非車子車送이다.

大姓, 及馬路·小關七族. 其土舍轄河西小姓六寨. 地土廣遠. 饒畜產, 稞麥路積. 人皆  
臬黠, 名雖熟番, 與生番等.

첩계 옥씨(郁氏)는 홍무 15년(1382)에 귀부하였는데, 관인을 주고 세습하도록 했으며 3년  
에 [한 번] 말 4필을 공물로 바치게 했다. 장관이 관할하는 하동 숙번(熟番)의 8寨(寨)는  
모두 대성(大姓)인데 마로(馬路)·소관(小關)의 7족에 이른다. 그 토사(土舍)는 하서(河西)  
의 소성(小姓) 6寨(寨)를 관할한다. 토지가 넓고 멀며 축산이 풍부하고, [수확한] 보리가 길가  
에 쌓여 있다. 사람들은 모두 사납고 교활하여, 명목은 숙번(熟番)이라 하나 [실제로는] 생번  
(生番)과 같다.

鬱卽長官噉保, 萬曆十八年與黑水·松坪稱兵, 攻新橋, 明年伏誅. 漢關墩附近諸小姓,  
舊屬鬱卽, 至是改屬疊溪. 初, 都督方政平曆日諸寨, 設長寧安撫司, 隸松潘. 至正統  
元年, 總兵蔣貴言其遼闊, 亦改隸於疊溪守禦千戶.

울족의 장관 담보(噉保)는 만력 18년(1590)에 흑수(黑水)·송평(松坪)과 함께 군사를 일으  
켜 신교(新橋)를 공격했다가 이듬해에 처형당했다. 한관둔(漢關墩) 부근의 여러 소성(小姓)  
들은 이전에는 울족에 속했으나 이때 고쳐서 첩계에 속하게 했다. 당초에 도독 방정(方政)<sup>284</sup>  
이 역일(曆日)의 여러 채(寨)를 평정하고 장녕안무사<sup>285</sup>를 설치하여 송반에 소속시켰다. 정

284) 方政(?~1439): 安徽 全椒人이다. 처음에 濟寧衛 千戶를 세습, 계승하였고 燕王을 따라 靖難軍에 참여하  
여 南下하여 공을 세워 여러 차례 승진하여 都指揮僉事에 이르렀다. 영락(1403~1424) 연간에 張輔를  
따라서 월남을 공격하는 데 참여하여 공을 세우고 都指揮使로 승진하였다. 仁宗 때에 黎利를 평정하였  
다. 정통 3년(1438)에 右都督이 되었다. 이해 6월에 운남으로 가서 沐晟 등과 함께 麓川 思任發의  
반란을 평정하는 데 참전하였다. 正統 4년(1439) 正月 初三日에 방정은 군사를 이끌고 思任發의 군대  
와 싸웠는데 코끼리 부대를 만나자 돌진하여 전사했다. 威遠伯을 추증하고 忠毅라는 시호를 내렸으며  
사당 이름을 永昌祠라고 했다.

285) 安撫司: 元代에 四川과 湖廣 등 소수민족지구에 처음으로 설치한 官署이다. 각 司에 다루가치 1명(설치  
되지 않은 곳도 있었음), 安撫使 1명을 두었고, 그 밑으로 同知, 副使, 僉事, 經歷, 知事 등의 관직이  
있었으며, 그 외에 또 照磨, 鎮撫 등도 추가로 두었다. 明·清 시대에도 安撫使司를 이어 두어 安撫使

통 원년(1436)에 이르러 총병 장귀(蔣貴)<sup>286</sup>가 그 멀고 넓음을 말하고서 다시 고쳐서 첩계의 수어천호(守禦千戶)에 소속시켰다.

## 松潘衛

### 송반위

松潘, 古氏羌地. 西漢置護羌校尉於此. 唐初置松州都督, 廣德初, 陷於吐蕃. 宋時, 吐蕃將潘羅支領之, 名潘州. 元置吐蕃宣慰司.

송반은 옛날 저(氏)족과 강족의 땅이다. 서한은 호강교위(護羌校尉)<sup>287</sup>를 이곳에 설치했다. 당나라 초에 송주(松州) 도독을 설치하였고, 광덕(廣德)<sup>288</sup> 연간(763~764) 초에는 토번

등의 관직을 설치하였다.

286) 蔣貴(1415~1484): 字는 文富이며, 安徽 歙縣 蔣家塢 사람이다. 江都(지금의 江蘇省 楊州)에 살다가 元末에 그 아버지가 朱元璋의 起兵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가 사망하자, 蔣貴도 朱棣를 따라 전장을 누비며 여러 차례 戰功을 세워 都指揮僉事로 승진하여 彭城衛의 軍務를 담당하였다. 宣德 2년(1427)에 右參將에 임명되어 總兵 陳懷를 따라 四川 松潘의 반란을 평정하는 데 참전했다. 그는 嚮導를 모집하여 험준한 길을 통해 진격하고 하루에 수십 번을 싸웠으며, 그 공으로 都指揮同知로 승진하고 密雲을 鎮守하였다. 宣德 7년(1432)에 다시 參將에 임명되어 陳懷를 도와 松潘을 鎮守하였다. 이듬해에 都督僉事로 승진하고 副總兵에 충당되었다. 宣德 9년(1434)에 番人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키자, 蔣貴는 4천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任昌의 大寨들을 점령하였으며, 그 승전으로 곧 都督同知로 승진하였고, 總兵官이자 平蠻將軍으로서 松潘을 鎮守하였다. 正統 초에 京師로 소환되어 右都督 平虜將軍으로 임명되어 甘肅, 賀蘭山 등지의 반란을 평정하고 定西伯에 봉해졌으며, 正統 4년(1439)에 甘肅을 鎮守하였다. 正統 6년(1441)에 總兵官이자 平蠻將軍으로 雲南 麓川의 반란을 평정하고, 이듬해에 京師로 소환되어 定西侯에 봉해졌다. 正統 8년(1443)에 다시 平蠻將軍으로서 長子 雄과 兵部尙書 王驥와 더불어 思機發을 공격하여 그 寨를 점령하였다. 蔣雄은 적이 패주하자 군사 30여 명을 이끌고 추격하다가 오히려 포위를 당해 자결했으며, 懷遠將軍으로 追贈되었다. 蔣貴는 사망한 후에 涇國公을 追贈받고, 武勇이라는 諡號를 부여받았다(『明史』 卷155 「蔣貴傳」 참조).

287) 護羌校尉: 漢 武帝 元鼎 6년(전111)에 西羌이 匈奴와 연합하여 抱罕(지금의 甘肅 臨夏 동북지역)을 공격하자 李息, 徐自에게 명령하여 군사를 이끌고 가서 西羌을 무찌르라고 지시했다. 이때 처음으로 護羌校尉를 설치하여 西羌의 軍務를 처리하게 하였다. 後漢 시대에도 계속해서 설치했는데, 晉 惠帝 시대에는 涼州刺史로 改稱하였다.

(吐蕃)에 함락되었다. 송나라 때에는 토번의 장수 반라지(潘羅支)<sup>289)</sup>가 이를 관령하면서 반주(潘州)라고 불렀다. 원에서는 토번(吐蕃)선위사를 설치했다.

洪武十二年，命平羌將軍御史大夫丁玉定其地，敕之曰：「松潘僻在萬山，接西戎之境，朕豈欲窮兵遠討，但羌戎屢寇邊，征之不獲已也。今捷至，知松州已克，徐將資糧於容州，進取潘州。若盡三州之地，則疊州不須窮兵，自當來服。須擇士勇者守納都·疊溪路，其驛道無阻遏者，不可守也。來降諸戎長，必遣入朝，朕親撫諭之。」遂并潘州於松州，置松州衛指揮使司。丁玉遣寧州衛指揮高顯城其地。十三年，帝以松州衛遠在山谷，屯種不給，饋餉爲難，命罷之。未幾，指揮耿忠經略其地，奏言松州爲番蜀要害地，不可罷，命復置。

홍무 12년(1379)에, 평강장군(平羌將軍) 어사대부<sup>290)</sup> 정옥(丁玉)<sup>291)</sup>에게 그 땅을 평정하

288) 廣德: 唐 代宗 李豫의 연호이다.

289) 潘羅支: 生卒年 미상. 吐蕃 六谷部 大首領의 이름이다. 唐末五代 초에 河西 走廊 서부의 吐蕃 부락이 대부분 涼州城 밖의 六谷으로 이주하였으므로 六谷蕃部라는 명칭이 처음 생겼다. 北宋 초에 涼州 吐蕃의 무리들은 모두 六谷蕃部 大首領 潘羅支의 통솔을 받으면서 宋에 歸附하였다. 北宋 眞宗 咸平 4년(1001)에 潘羅支는 鹽州防禦使 兼 靈州西面都巡檢使로 승진하여 西夏王 李繼遷을 토벌하고자 부하 李萬山을 파견하여 송의 도움을 구했으나 얻지 못하자 뜻을 이루지 못했다. 咸平 6년(1003)에 騎兵 6만을 집결시켜 송의 군대와 연합하여 靈州를 수복하겠다고 하자, 宋에서는 潘羅支를 朔方軍節度 兼 靈州西面都巡檢使로 삼았다. 이해에 西夏王 李繼遷이 대군을 이끌고 涼州를 공격하여 함락시켰는데, 潘羅支는 거짓으로 李繼遷에게 투항하고서 몰래 六谷의 여러 부족을 모아서 반격하여 西夏의 군대를 물리치고 李繼遷도 죽었다. 景德 元年(1004)에 李德明이 西夏王으로 즉위하자, 潘羅支는 휘하의 부족과 위구르의 精兵을 모아 宋軍과 협력하여 賀蘭山에 이르러 서하군대를 공격하였으나 李德明의 반간계에 걸려 죽임을 당했다. 사후 그는 宋에서 武威郡王에 追贈되었다. 潘羅支가 죽은 후에 六谷의 部衆들은 그의 아우 厮鐸督을 大首領으로 추대하였다. 西夏가 1028년에 涼州府를 공격하자 吐蕃 六谷部는 해체되었다.

290) 御史大夫: 관직 명칭이다. 秦代에 처음으로 설치되었는데, 百官을 감찰하며 皇帝를 대신하여 백관들의 上奏를 접수하고 국가의 주요한 圖冊과 典籍을 관리하였다. 또 詔命을 기초하는 임무도 맡았다. 前漢 시대에도 설치되어 丞相, 太尉와 더불어三公이라고 칭해졌다. 그 직무는 후대의 尙書令과 비슷하였다. 成帝 綏和 원년(전8)에는 古制를 모방하여三公을 설치하고 大夫를 大司空으로 고쳤다. 後漢 시대에는 다시 司空으로 고쳤다. 晉 이후에는 御史大夫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唐代에는 다시

라고 명하고 칙서를 내려 이르기를, “송반은 첩첩 산중에 치우쳐 있고 서융(西戎)의 땅과 인접해 있으니, 짐이 어찌 군사를 끝까지 움직여 먼 곳을 토벌하고자 함이겠는가! 다만 [서융(戎)[에 속하는] 강(羌)족이 여러 차례 변방을 침범하므로 토벌을 멈추지 않은 것이다. 이제 승전보가 전해져 송주를 이미 점령한 것을 알았으니 천천히 용주(容州)<sup>292</sup>에 [군]량을 보내어 반주로 진격하여 점령하도록 하라. 만약 세 주의 땅을 모두 점령하면 첩주(疊州)<sup>293</sup>는 끝까지 군사를 움직이지 않더라도 마땅히 스스로 와서 귀순할 것이다. 반드시 용감한 병사를 골라서 납도(納都)·첩계(疊溪)<sup>294</sup>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되 험준한 곳이 없는 역도(驛道)는 지킬

설치하여 監察과 執法 업무를 전담하게 했으며, 明 洪武 연간(1368~1398)에 御史臺를 都察院으로 고치면서 御史大夫의 직책도 폐지하였다.

291) 丁玉: 生卒年 미상. 初名은 國珍으로, 河中 사람이다. 韓林兒를 섬겨 御史가 되었는데 일을 처리하는데 재주가 있다는 평판을 들었다. 呂珍이 安豐을 점령하자 丁玉은 귀순하였고, 이후 彭蠡를 따라 종군하다가 九江知府로 임명되었다. 明軍이 建康으로 回軍하고 彭澤山의 주민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丁玉은 鄉兵을 모아 그들을 평정하였다. 주원장이 그의 武略을 기뻐하여 指揮를 겸하도록 명령하고 玉이라는 이름을 하사하였다. 이후 傅友德을 따라 종군하며 衡州를 점령하고 指揮同知로서 그 땅을 鎮守하였다. 洪武 원년(1368)에는, 都指揮使로 승진하고 곧 廣西省 參政을 겸임하며 廣西에 주둔하였다. 洪武 10년(1377)에는 右御史大夫가 되었는데, 四川 威州, 茂州 지방의 土酋 董貼里가 반란을 일으키자 조정에서는 丁玉에게 平羌將軍의 칭호를 주고 토벌하게 했다. 그가 威州에 이르자 貼里가 항복하므로, 威州千戶所를 설치하도록 건의하였고, 洪武 12년(1379)에는 松州를 평정하고 지휘 高顯 등을 보내 성을 쌓게 하였으며, 衛를 설치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太祖가 松州는 山이 많고 경지가 적어 농사를 지어도 군사를 먹일 수가 없으므로 그곳을 지키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이때 丁玉이 아뢰기를 松州는 西羌의 요충지이므로 衛를 철폐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이 무렵 四川에서 彭普貴가 반란을 일으켜 14개 州縣을 노략질하고 불태웠지만 指揮 普亮이 이를 평정하지 못하자 丁玉에게 명령하여 군대를 이끌고가서 토벌하게 하였다. 토벌에 성공한 그에게 태조는 공을 치하하고 左御史大夫의 관직을 부여했다. 이후에 大都督府의 左都督에 제수되었지만 洪武 13년(1380)에 胡惟庸 모반사건에 연루되어 죽임을 당했다(『明史』 卷134 「丁玉傳」 참조).

292) 容州: 唐 貞觀 8년(634)에 銅州를 고쳐 容州라 하고, 치소를 北流縣(지금의 廣西省 北流市)에 두었다. 그 地境 안에 容山이 있었으므로 容州라고 칭했다. 元 至元 연간(1264~1294)에 容州路로 고쳤으며, 明 洪武 10년(1377)에는 容縣으로 강등시켰다.

293) 疊州: 지금의 甘肅省 迭部縣이다. 北周 武帝 建德 6년(577)에 서쪽 변방 吐谷渾에 疊州를 설치하였는데, 山이 중첩한다는 뜻이다. 疊州의 치소는 지금의 甘南藏族自治州에서 관할하는 迭部縣城의 동쪽에 있었다. 大業 원년(605)에 州를 폐지하고, 縣으로 강등시켜 洮州에 예속시켰다. 唐 武德 2년((619)에 다시 疊州를 회복시키고, 州의 치소를 원래 疊州의 서쪽 29리에 있던 合川故城, 즉 지금의 迭部縣城에 두었다. 天寶 원년(742)에 合川郡으로 고쳤고, 乾元 원년(758)에 다시 疊州로 고쳤다.

294) 疊溪: 지금의 四川省 茂縣 일대이다. 川西 平原에서 松潘 草地와 青海, 甘肅 등지로 통하는 교통의

수가 없다. 투항한 용족의 여러 우두머리들은 반드시 [경사로] 보내 조근(朝覲)하게 하라. 짐이 친히 위무하며 효유하겠노라”고 하였다.<sup>295)</sup> 마침내 반주(潘州)를 송주(松州)에 합병시키고 송주위지휘사사를 설치하였다. 정옥(丁玉)은 영주위 지휘 고현(高顯)을 보내 그 땅에 성을 쌓도록 하였다.<sup>296)</sup> [홍무] 13년(1380)에 황제가 송주위(松州衛)는 멀리 첩첩 산중에 있고 둔전해도 자급자족할 수 없고 군량을 대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하여 이것을 없애라고 명령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휘 경충(耿忠)이 그 땅을 경략하면서 상주하여 아뢰기를, 송주는 번인(番人)이 사는 촉(蜀)의 요해처라 없앨 수 없다고 하니, [황제가] 다시 설치하라고 명령했다.<sup>297)</sup>

요지로서 오랫동안 대규모의 군대가 주둔하며 방어하던 곳이다. 『茂州志』에 따르면, 漢 元鼎 6년(전 111)에 이곳에 蠶陵縣을 설치하였고, 唐初에는 冀州를 설치하였다. 明代에는 疊溪千戶所를 설치하였고, 清代에는 疊溪衛로 고쳤다. 民國 시대에는 茂縣에 소속되었다.

295) 御史大夫였던 丁玉이 처음으로 平羌將軍으로 임명받고 四川의 威州·茂州 일대에서 반란을 일으킨 무리를 이끌고 투항하였다. 황제는 조칙을 내려 威州千戶所를 설치하여 지키도록 명령하였다(『太祖實錄』 卷116 洪武 10년 11월 戊辰條). 본문에서 인용한 주원장의 칙서 원문은 『太祖實錄』 卷123 洪武 12년 3월 辛未條에 기록되어 있다.

296) 松州衛指揮使司를 설치하고 松州城을 쌓은 사실은 『太祖實錄』 卷124 洪武 12년 4월 丙寅條에 기록되어 있다.

297) 松州衛의 존폐를 둘러싼 논의는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 차례가 아니라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앞의 두 논의 과정에서는 松州衛의 전략적 가치를 미처 인식하지 못한 주원장이 松州衛의 폐지를 명령하자 사전에 주둔하던 武將들이 存置之 필요성을 역설해서 주원장이 자신의 의사를 굽혔다. 세 번째 논의에서는 조정의 한 臣僚가 松州衛의 철폐를 주청하자 앞서 두 번에 걸친 논의 끝에 松州衛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주원장이 西蕃을 통제하는 要衛이라며 이를 거절했다. 첫 번째 논의는 洪武 12년(1379) 6월에 주원장이 平羌將軍 御史大夫 丁玉에게 “朕이 듣기에 松州는 山多田少하여 耕種해도 군사를 먹일 수 없을까 염려스럽다. 만일 人民들이 군량을 조달하여 군사를 먹이면 이는 백성을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라. 이는 有用之民으로 無用之地를 지키는 것이니 良策이 아니다. 保寧 등지의 요해처에 衛를 세우는 일에 대해 그대와 부하 諸將들은 논의하여 상주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丁玉은 松州는 西羌의 여러 蠻族을 통제하는 要地로서 軍衛를 철폐할 수 없다고 상주했고 주원장은 그의 말대로 松州衛를 존치하였다(『太祖實錄』 卷125 洪武 12년 6월 丁卯條). 두 번째 논의는 이듬해인 洪武 13년(1380) 8월에 행해졌다. 이때 주원장은 지난번과 같은 이유를 들어서 다시 松州衛의 폐지를 명령하자 指揮 耿忠이 松州가 番蜀의 要害處라며 존치를 주청하였고 주원장은 이에 따랐다(『太祖實錄』 卷133 洪武 13년 8월 戊寅條). 세 번째 논의는 洪武 18년(1385) 2월에 행해졌다. 이때는 行人 許穆이 松州衛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松州의 토지가 척박하여 둔전하여 병사 3천 명의 군량을 자급자족할 수 없어서 소금과 양식을 외부에서 운반하고 있으나 棧道가 험하고 멀어서 군사들

十四年置松潘等處安撫司，以龍州知州薛文勝爲安撫使，秩從五品。又置十三族長官司，秩正七品：曰勒都，曰阿昔洞，曰北定，曰牟力結，曰貉匪，曰祈命，曰山洞，曰麥匪，曰者多，曰占藏先結，曰包藏先結，曰班班，曰白馬路。其後復隸松潘者，長官司四，曰阿思，曰思囊兒，曰阿用，曰潘幹寨；安撫司四，曰八郎，曰阿角寨，曰麻兒匪，曰芒兒者。後又以思囊日安撫司附焉。諸長官司每三年入貢，賞賜如例。十五年，占藏先結等土酋來朝，貢馬一百三匹，詔賜綺鈔有差。十六年，秋忠言：「臣所轄松潘等處安撫司屬各長官司，宜以其戶口之數，量其民力，歲令納馬置驛，而籍其民充驛夫，供徭役。」從之。旣而松潘羌民作亂，官兵討平之。甃松州及疊溪城。

[홍무] 14년(1381)에, 송반등처안무사를 설치하고 용주(龍州) 지주(知州) 설문승(薛文勝)을 안무사로 삼았는데, 품질(品秩)은 종5품이었다. 또 13족장관사를 설치하였고 품질은 정7품이었는데, [13족이란] 늑도(勒都), 아석동(阿昔洞)<sup>298</sup>, 북정(北定)<sup>299</sup>, 모력결(牟力結)<sup>300</sup>, 격잡(貉匪)<sup>301</sup>, 기명(祈命)<sup>302</sup>, 산동(山洞), 맥잡(麥匪)<sup>303</sup>, 자다(者多), 점장선결(占藏先結)<sup>304</sup>, 포장선결(包藏先結), 반반(班班), 백마로(白馬路)<sup>305</sup>를 일컫는다.<sup>306</sup> 그 후에 다시 송반에 네 개의 장관사가 소속되었는데 [그것은] 아사(阿思), 사낭아(思囊兒), 아용(阿用), 반알채(潘幹寨)라 하고, 네 개의 안무사도 [송반에 소속되었는데] 팔랑(八郎), 아각채(阿角

이 무척 괴로워하고 있다. 그러므로 衛를 茂州로 옮기고 그 부근의 땅에서 屯田하면 군량을 운반하는 수고도 없어지고 羌人도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상주문을 읽은 주원장은 松州衛는 일찍이 내가 철파하고자 하였으나 西番을 통제하는 要地이므로 그럴 수가 없었다. 군사들의 식량은 인근 주현에서 수송하여 보급하도록 명령하였다며 松州衛를 존치하도록 명령했다(『太祖實錄』 卷171 洪武 18년 2월 庚申條).

298) 阿昔洞: 지금의 若爾蓋縣의 阿西鄉이다.

299) 北定: 지금의 松潘縣의 동남방에 있는 北定이다.

300) 牟力結: 지금의 松潘縣의 牟尼鄉이다.

301) 貉匪: 지금의 舟曲縣 서북방에 있는 立即簇이다.

302) 祈命: 지금의 松潘縣 북방에 위치한 祈命이다.

303) 麥匪: 지금의 黑水縣의 麥扎鄉이다.

304) 占藏先結: 지금의 迭部縣 동남방에 위치한 卓藏이다.

305) 白馬路: 지금의 九寨溝縣 남방이다.

306) 관련 사항은 『太祖實錄』 卷135 洪武 14년 정월 乙未條에 기록되어 있다.

寨), 마아잡(麻兒匝), 망아자(芒兒者)라 한다. 후에 또 사냥일(思曩日)안무사<sup>307)</sup>를 부속시켰다. 여러 장관사들은 삼년에 한 번씩 공물을 바쳤으며, 상을 하사하는 것은 [정해진] 예에 따랐다. [홍무] 15년(1382)에, 점장선결(占藏先結) 등지의 토인(土人) 추장이 내조하여 말 103필을 공물로 바치자, 조서를 내려 비단과 보초를 차등을 두어 하사하도록 하였다. [홍무] 16년(1383)에 추충(秋忠)이 아뢰기를, “신이 관할하는 송반등처안무사 소속의 각 장관사는 마땅히 그 호구 수로써 백성들의 재력을 가늠하여 해마다 말을 바치고 역전을 설치하게 하며, 그 백성을 호적대장에 등록하고 역부로 충당시켜 요역을 제공하게 해야 합니다”고 하니 [황제가] 이를 허락했다.<sup>308)</sup> 얼마 지나지 않아 송반의 강민(羌民)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관병이 토벌하여 평정하였다.<sup>309)</sup> 송주와 첩계에 성을 쌓았다.<sup>310)</sup>

十七年，松潘八積族老虎等寨蠻亂。官兵擊破之，獲馬一百二十，犏牛三百，犛牛九十。景川侯曹震請擇良馬貢京師，餘給軍，其犏牛·犛牛非中國所畜，令易糧餉犒軍，從之。十八年，松州羌反。成都衛指揮成信等率兵攻其牟力等寨，破之。兵還，又遇賊三千人於道，復擊敗之，追至乞刺河乃還。

홍무 17년(1384)에 송반의 팔적족(八積族), 노호(老虎) 등 채(寨)의 만족(蠻族)이 반란을 일으켰다. 관군이 이를 격파하고 말 120필과 편우(犏牛)<sup>311)</sup> 300마리, 검은 소 90마리를 노획하였다. 경천후 조진(曹震)이 좋은 말은 골라서 경사(京師)에 공물로 바치고, 나머지 [말]은 군대에 주고 그 편우와 검은 소는 중국에서 기르지 않으므로 군량으로 바꾸어 군사들을 위로하고 먹이게 해달라고 청하자, 이를 허락했다.<sup>312)</sup> [홍무] 18년(1385)에 송주의 강(羌)족이

307) 思曩日安撫司: 오늘날 平武縣의 서북 지방이다.

308) 관련 사항은 『太祖實錄』 卷153 洪武 16년 4월 丁丑條에 기록되어 있다. 土司傳에는 秋忠이 이런 내용을 상주했다고 되어 있으나 실록에는 松州衛 指揮僉事 耿忠이 아뢴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耿忠은 洪武 13년(1380) 8월에 주원장이 松州衛의 폐지를 명령하자 松州가 番蜀의 要害處라며 존속시키도록 상주했던 바로 그 인물이다.

309) 관련 사항은 『太祖實錄』 卷157 洪武 16년 10월 丙子條에 기록되어 있다.

310) 관련 사항은 『太祖實錄』 卷157 洪武 16년 10월 戊寅條에 기록되어 있다.

311) 犏牛: 황소와 야크의 잡종이다.

312) 관련 사항은 『太祖實錄』 卷169 洪武 17년 12월 庚申條에 기록되어 있다. 실록의 원문에는 犛牛五百九

반란을 일으켰다. 성도위 지휘 성신(成信) 등이 병사를 이끌고 모력(牟力) 등 채(寨)를 공격하여, 이를 격파했다. 병사들이 돌아오는데 또 길에서 적 3,000명을 만나 다시 공격하여 이들을 패퇴시켰으며, 걸자하(乞刺河)까지 추격하고 돌아왔다.<sup>313)</sup>

二十年改松州衛爲松潘等處軍民指揮使司，改松潘安撫司爲龍州。二十一年，朶貢生番則路·南向等引草地生番千餘人寇潘州阿昔洞長官司，殺傷人口。指揮周助率馬步軍同松潘衛軍討之，番寇率衆迎戰，千戶劉德破之，斬首三十四級，獲馬三十餘匹。賊潰，渡河四十餘里，復收敗卒屯聚。指揮周能追擊之，斬首一百三十餘級，獲馬六十餘匹，溺死甚衆，群番遠遁。二十六年，西番思曩日等族來歸，進馬百三十匹，命給金銅信符并賜文綺襲衣。

[홍무] 20년(1387)에, 송주위를 송반등처군민지휘사사로 고치고<sup>314)</sup> 송반안무사를 용주로 고쳤다.<sup>315)</sup> [홍무] 21년(1388)에, 타공(朶貢)의 생번(生番)인 척로(則路)·남향(南向) 등이 초지(草地)의 생번 1,000여 명을 인도해와서 반주의 아석동(阿昔洞)장관사를 침범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했다. 지휘 주조(周助)가 마병과 보병을 이끌고 송반위의 군사와 함께 토벌하니 번구(番寇)들도 무리를 이끌고 나와 싸웠는데, 천호 유덕(劉德)이 이들을 격파하고서 34명의 목을 베고 말 30여 필을 노획했다. 적은 무너졌으나 강을 건너 40여 리를 가서 다시 패잔병들을 모아 무리를 이루어 주둔했다. 지휘 주능(周能)이 추격하여 130여 명의 목을 베고 말 60여 필을 노획하였으며, 물에 빠져 죽은 자가 무척 많자 생번의 무리는 멀리 도망가서 숨었다.<sup>316)</sup> [홍무] 26년(1393)에, 서방의 번인(番人) 사낭일(思曩日) 등의 족속이 귀부해와서 말 130필을 바치자, 금동(金銅)으로 만든 신부(信符)<sup>317)</sup>를 주고 아울러 문기(文

十을 노획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서 토사전에서 犛牛九十을 얻었다고 기록한 것과는 글자와 수량에서 차이가 있다. 犛와 犛는 글자 모양은 다르나 둘 다 야크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리고 노획한 소들을 현지에서 양식과 바꾼 까닭은 犛牛와 犛牛가 중국에서 기르기에 적합하지 않은 품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313) 관련 사항은 『太祖實錄』 卷171 洪武 18년 2월 辛酉條에 기록되어 있다.

314) 관련 사항은 『太祖實錄』 卷180 洪武 20년 정월 甲子條에 기록되어 있다.

315) 관련 사항은 『太祖實錄』 卷180 洪武 20년 정월 乙丑條에 기록되어 있다.

316) 관련 사항은 『太祖實錄』 卷189 洪武 21년 3월 壬寅條에 기록되어 있다.

綺)와 습의(襲衣)를 하사하도록 명했다.

宣德二年，麻兒匝順化，喇嘛著八讓卜來歸。置麻兒匝安撫司，以喇嘛著八讓卜爲安撫。麻兒匝在阿樂地，去松潘七百餘里。初，著八讓卜時侵掠邊民及遮八郎安撫司朝貢路。松潘衛指揮吳瑋遣人招之，因遣其侄完卜來貢獻，言其地廣民衆，過於八郎，請置宣撫司以轄之。帝命置安撫，遣敕諭之。

선덕 2년(1427)에, 마아잡(麻兒匝)이 귀순하였고 라마(喇嘛)<sup>318)</sup> 저팔양복(著八讓卜)이 귀부해왔다. [이에] 마아잡안무사<sup>319)</sup>를 설치하고, 라마 저팔양복을 안무사로 삼았다. 마아잡은 아락(阿樂) 땅에 있는데 송반에서 700여 리 떨어져 있다. 당초에 저팔양복이 때때로 변경의 주민들을 침략하고 팔랑안무사의 조공로를 막았다. 송반위 지휘 오위(吳瑋)가 사람을 보내

317) 金銅信符: 金牌信符라고 한다. 이것은 西番과의 茶馬무역에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하여 명 조정에서 銅으로 만든 일종의 감합으로, 西番의 각 추장에게 발급해주었다. 금패의 위쪽은 陽文, 아래쪽은 陰文으로 되어 있어 식별이 가능하도록 했다. 상하의 두 信符를 합쳐 대조하여 그 진위를 가렸다. 『(萬曆)明會典』卷108「禮部」朝貢西戎條에 따르면, 당시 금패신부는 陽文信符와 陰文信符 외에 1호부터 100호까지 자호가 붙은 批文勘合과 勘合底簿가 있었는데, 음문신부 및 감합은 土官에게, 감합저부는 포정사에게, 양문신부 및 감합은 內府에게 보관하도록 했다고 한다. 3년마다 한 번씩 관원을 파견하여 서로 맞추었다. 그 信牌에는 篆書로 윗면에는 ‘皇帝聖旨’, 왼쪽에는 ‘合當茶發’, 오른쪽에는 ‘不信者斬’이라고 적혀 있었다. 모두 41개인데, 洮州의 火把藏·思曷日 등의 종족은 패가 4개로 말 3,050필을 바쳤고, 河州의 必里衛의 西番 29족은 패가 21개로, 말 7,705필을 바쳤다. 또한 西寧의 曲先·阿丹·罕東·安定 등 4衛의 巴哇·申中·申藏 등 종족은 패가 16개로, 말 3,050필을 바쳤다(박원호, 2008: 290~292).

318) 喇嘛: 티베트어의 bla-ma를 음역한 것으로 刺麻라고도 표기한다. bla는 上의 의미이고, ma는 人이라는 뜻이므로 직역하면 ‘윗사람’이다. 원래 출가한 승려를 지칭하는 말이었으나 일반적으로 ‘스승’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신앙자의 중간자적 매개자적인 존재로서 尊崇되었는데, 이 라마를 통해서 佛·法·僧과 결합될 수 있다고 한다.

319) 麻兒匝安撫司: 지금의 青海 지방에 살던 羌族들의 땅에 설치된 安撫司였다. 青海는 원래 西戎의 땅이었는데, 漢初에는 羌族의 땅이었고 일부는 金城郡의 관할에 속했다. 王莽의 新나라 때에 西海郡을 설치하였으며, 後涼 시대에는 樂都郡을 설치했다. 隋代에는 西海郡·河源郡을 설치하였고, 唐代에는 吐蕃이 흥기하여 青海 남부와 서부는 吐蕃에 속하게 되었다. 宋代에는 西寧에 西寧州를 설치하였으며, 元代에는 青海에 宣慰使司를, 明代에는 西寧衛와 麻兒匝安撫司를 설치하였다. 清代에는 西寧府를 설치하고 西寧辦事大臣으로 하여금 그 지역을 관할하게 하였다.

초무하자, 이에 그 조카 완복(完卜)을 보내와서 공물을 바치고서 그 땅이 팔랑에 비해 더 넓고 사람도 더 많다고 말하고 선무사를 설치하여 관할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황제가 안무[사]를 설치하고 칙서를 보내 이들을 효유하라고 명하였다.<sup>320)</sup>

四川巡按等奏松潘衛所轄阿用等寨蠻寇，擁衆萬餘，傷敗官軍，請討之。帝意邊將必有激之者。旣四川都司奏至，言并非番寇。實由千戶錢宏因調發松潘官軍往征交趾，衆憚行，宏詭言番寇至，當追捕，冀免調。又領軍突入麥匪諸族，逼取牛馬，致番人忿怨。復以大軍將致討懾之，番衆驚潰，約黑水生番爲亂。帝命逮宏等，而責諸司怠玩邊務，亟捕諸傷官軍者。遣都指揮僉事蔣貴往，同松潘衛指揮吳瑋招撫番寇，令調附近諸衛軍二萬人以行。時賊圍松潘·疊溪·茂州，斷索橋，官軍與戰皆敗，出掠綿竹諸縣，官署民居皆被焚毀，鎮撫侯璉死之。蜀王護衛官校七千人來援，命都督陳懷與指揮蔣貴等合師亟討之，而梟宏於松潘以徇，并竄諸將之貪淫玩寇者。三年，陳懷等率諸軍屢敗賊於圪答壩·葉棠關，奪永鎮等橋，復疊溪，撫定祁命等十族，又招降渴卓等二十餘寨，松潘平。

사천 순안 등이 상주하기를, 송반위에서 관할하는 아용(阿用) 등 채(寨)의 만구(蠻寇)들이 무리 만여 명을 옹유하여 관군에게 부상을 입히고 패퇴시키니 이들을 토벌하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황제는 변경을 지키는 장수 중에 반드시 [만족(蠻族)을] 격[분]하게 만든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sup>321)</sup> 얼마 지나지 않아 사천 도사의 상주문이 이르렀는데, 결코 번(番)인들이 침략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사태는] 천호 전평(錢宏)이 송반의 관군을

320) 관련 사항은 『孝宗實錄』 卷26 宣德 2년 3월 庚寅條에 기록되어 있다. 저팔양복이 마야잡의 인구나 지경이 팔랑에 비해 더 많고 넓다며 명조에 宣撫司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한 까닭은 宣撫司에는 종4품의 宣撫使가 설치되지만 安撫司에는 그보다 품계가 낮은 종5품의 安撫使가 설치되기 때문이었다. 토관의 武職 가운데 가장 품계가 높은 宣慰使는 종3품이었다(余貽澤 等, 1968: 7).

321) 관련 사항은 『孝宗實錄』 卷27 宣德 2년 4월 甲申條에 기록되어 있다. 황제가 이렇게 짐작한 이유는 蠻인들이 아무 까닭 없이 갑자기 1만 명이나 모여서 저항할 리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실록원 문에는 병술조의 기록에 蠻인들의 관군 살해 사실을 기록한 말미에 이날 달이 太白을 범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太白은 明朝이고 달은 蠻族인데 이들의 공격이 달이 太白을 범하는 천문현상으로 반영되었다고 주술적으로 해석하고 기록해놓은 것으로 짐작된다.

징발하여 교지(交趾)<sup>322)</sup>로 토벌하러 가려 한 데서 말미암았는데, [관군] 무리들이 가기를 꺼려하자 [이에] 전굉이 번구(番寇)가 이르러 마땅히 추격하고 체포해야 징발을 면하는 것을 바랄 수 있다고 거짓말한 것이었다. [전굉은] 또 군대를 이끌고 맥잡(麥匝) 여러 족속에게 갑자기 들이닥쳐, 핍박하여 소와 말을 빼앗아 번인(番人)들의 분노와 원한을 샀다. 다시 대군으로 장차 토벌하겠다고 협박하니, 번인 무리들이 놀라 흩어졌다가 흑수의 생변을 규합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황제가 전굉 등을 체포하게 하고 변경의 사무를 소홀히 한 여러 관원들을 질책하였으며, 관군을 상하게 한 자들을 빨리 체포하라고 명령했다.<sup>323)</sup> 도지휘첨사 장귀(蔣貴)를 보내어 송반위 지휘 오위(吳瑋)와 함께 번구(番寇)를 초무하게 하되, 인근 여러 위(衛)의 군사 2만을 징발하여 가게 했다.<sup>324)</sup> 이때 적들은 송반·첨계·무주를 포위하고 동아줄로 만든 다리를 끊었는데 관군은 여러 번 싸웠으나 모두 패배하였고,<sup>325)</sup> [적이] 면죽(綿竹)<sup>326)</sup>의 여러 현으로 나와 노략질하여 관서와 백성의 거처가 모두 불타고 부서졌으며, 진무 후련(侯璉)이 죽음을 당했다.<sup>327)</sup> 촉왕(蜀王)<sup>328)</sup>이 호위하는 군사 7천여 명을 보내와 구원했으며<sup>329)</sup>

322) 交趾: 옛 南交의 땅으로 周代에는 越裳氏의 땅이었고, 秦始皇 초에 百粵과 병합하여 桂林·南海·象郡을 두었다. 前漢 武帝 元鼎 6년(전111)에 南越을 멸망시키고 설치한 9郡 중의 하나로, 후에 交州로 개칭하였다. 元帝 때에는 交趾刺史가 七郡을 다스렸는데, 그중 交趾·日南·九眞이 지금의 안남 땅이다. 교지는 지금의 통킹만 지역, 구진은 통킹만 남쪽 해안지대로 淸化·乂安·河靜省 등 지역이고, 일남은 구진의 남쪽인 廣平·廣治·承天省 등 지역을 가리킨다.

323) 관련 사항은 『孝宗實錄』 卷28 宣德 2년 5월 丙申條에 기록되어 있다.

324) 관련 사항은 『孝宗實錄』 卷28 宣德 2년 5월 丙午條에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5월에 2만이라는 많은 군사를 이끌고 招撫하러 나선 까닭은 4월에 番人 5만여 명이 모여서 松潘衛城을 포위 공격하고 上下四關과 屯堡들을 불태웠으며 威·茂·疊溪의 여러 衛所를 약탈하고 병사를 죽이면서 거세게 저항했기 때문이었다.

325) 관련 사항은 『孝宗實錄』 卷29 宣德 2년 7월 己酉條에 기록되어 있다.

326) 綿竹: 지금의 四川省 綿竹市이다. 역사기록에 따르면, 綿竹은 옛날 蜀山氏의 땅이었고 西周時代에는 蠶叢國의 附庸邑이었다. 秦代에는 蜀郡에 소속되었고 前漢 高祖 6년(전201)에는 縣을 설치하였는데, 그 지역이 綿水의 兩岸에 걸쳐 있고 대나무가 많았으므로 綿竹이라 칭하였다. 지금의 綿竹과 德陽 지방을 관할하였다. 綿竹은 三國·兩晉 시대에 陽泉, 晉熙, 孝水 등으로 개명하였으나, 隋나라 大業 2년(606)에 綿竹으로 다시 바뀌었으며, 이후로는 계속해서 綿竹으로 불렸다.

327) 관련 사항은 『孝宗實錄』 卷32 宣德 2년 10월 丙子條에 기록되어 있다.

328) 蜀王: 중국 역대 왕조 가운데는 각 지방에 王을 封하여 통치를 공고히 하려 한 왕조가 많았다. 明 太祖 朱元璋 역시도 明朝를 세운 후에 이런 방법을 채택하였다. 처음 각지에 藩王을 봉한 것은 洪武 3년(1370)이었다. 이때 太祖는 皇子들을 秦王, 晉王, 燕王, 吳王, 楚王, 齊王, 潭王, 趙王, 魯王 등에

[황제는] 도독 진희(陳懷)<sup>330</sup>와 지휘 장귀(蔣貴) 등에게 군사를 합해서 신속하게 토벌하도록 하고, 송반에서 [전]궐을 효수하여 [사람들에게] 보이고 아울러 재물을 탐하며 간음하고 우롱한 여러 장수들도 쫓아내도록 했다.<sup>331</sup> 선덕 3년(1428)에 진희 등이 여러 군대를 이끌고 을답패(屹答壩)<sup>332</sup>·엽상관(葉棠關) 등지에서 여러 차례 적을 물리치고 영진교(永鎭橋) 등을 빼앗고 첩계를 수복하였으며, 기명(祁命) 등 10개의 번족(番族)을 초무하여 진정시키고, 또 갈탁(渴卓) 등 20여 채(寨)를 초무하여 항복시키자, 송반이 평정되었다.<sup>333</sup>

봉했는데, 왕의 칭호는 그들이 봉해진 지명에서 유래했다. 洪武 11년(1378)에 또 몇 명의 皇子들을 蜀王, 湘王, 豫王, 漢王, 衛王에 봉하였다. 蜀王에 봉해진 朱椿은 朱元璋의 제11子로서 洪武 23년(1390)에 비로소 成都에 就藩하여 蜀王府를 세웠다. 明代의 親王들은 모두 세습하였는데, 본문에서 언급한 宣德 2년(1427) 무렵의 蜀王은 1424~1431년 사이에 재위한 제2대 蜀王(蜀靖王) 朱友堉이다.

329) 관련 사항은 『孝宗實錄』 卷30 宣德 2년 8월 壬午條에 기록되어 있다.

330) 陳懷(?~1449): 南直隸 廬州府 合肥縣(지금의 安徽省 合肥市) 사람으로, 明朝의 장군이다. 陳懷는 아버지의 직책을 세습하여 眞定 副千戶가 되었는데, 永樂 초에 여러 차례 공을 세워 都指揮僉事가 되었다. 그 후에 安南 정벌에 참전하여 都指揮使로 승진하였다. 후에 都督 費瓚을 따라 涼州의 반란을 평정하였다. 仁宗이 즉위해서는 都督同知로 승진했고, 宣德 원년(1426)에 梁銘을 대신하여 總兵官으로서 寧夏를 鎮守하였다. 이때 明軍은 交趾를 공격하였으나 여러 차례 패배를 당했는데, 황제가 조서를 내려 松潘의 군대를 징발하여 응원하러 하였으나 將士들이 꺼려했다. 이에 千戶 錢宏이 거짓으로 番人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며, 麥匪의 여러 부족을 노략질하자 番人들이 드디어 반란을 일으켰는데, 陳懷가 疊溪를 수복하고 20여 寨를 항복시켰다. 이 공로로 左都督으로 승진하여 四川에 주둔하였다. 言官들은 陳懷가 교만하여 불법을 자행하고 뇌물을 받고 죄인을 비호하며 屯田을 침탈하고 부하 장수들을 능욕한다고 탄핵하였으나 황제는 불문에 부쳤다. 그런데 宣德 6년(1431)에 松潘의 番人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陳懷가 교만하여 城池가 함락당하였다고 巡按御史 및 按察使가 탄핵했는데, 이때에는 宣德帝가 노하여 그를 소환하고 都察院의 監獄에 투옥시켰다. 그러나 斬刑은 면제하고 파직시켰는데, 이후 正統 2년(1437)에 官職을 회복하고 大同을 鎮守하였고, 正統 9년(1444)에는 兀良哈를 토벌하는 데 공을 세워 平鄉伯에 봉해졌다. 正統 14년(1449)에 英宗의 親征에 수행하여 ‘土木堡의 變’이 발생했을 때 전사했다. 사후 忠毅公이라는 諡號가 내려졌다.

331) 관련 사항은 『孝宗實錄』 卷37 宣德 3년 2월 戊寅條에 기록되어 있다.

332) 屹答壩: 지금의 四川省 平武縣 潤達鄉이다. 明·清 시대에는 白馬 番人들의 거주지였다. 白馬語로는 이곳의 지명을 格達이라 불렀는데, 『明史』에서는 屹答壩라고 칭했고, 『龍安府志』에서는 革塔壩라고 칭했다. 明代에는 이곳에 乾坤堡, 格達堡, 仙女堡, 鐵龍堡, 梯子驛을 설치했으며, 清代에는 土長官司衙署를 설치했다.

333) 관련 사항은 『孝宗實錄』 卷44 宣德 3년 7월 己卯條에 기록되어 있다.

八年，八部安撫司及思囊兒十四族朝貢之使陞辭，令齋敕還諭其土官，俾約束所轄蠻民，安分循理，毋作過以取罪戾。九年，敕指揮僉事方政·蔣貴等撫剿松潘。政等至，榜諭禍福，威·茂諸衛俱聽命，惟松潘·疊溪所轄任昌·巴豬·黑虎等寨梗化。政令指揮趙得·宮聚等以次進兵，平龍溪等三十七寨，班師還。命蔣貴佩平蠻將軍印，鎮守松潘。十年，貴奏，比因番人不靖，松潘·疊溪諸處倉糧，銷殆盡，別無儲積。帝命戶部於四川歲運之數，量益二分給之。

선덕 8년(1433)에, 팔부안무사와 사낭아 14개 번족의 조공 사절이 황제께 작별을 고하자 칙서를 가지고 돌아가 토관들을 효유하게 하고, 관할하는 만민(蠻民)들을 단속하여 분수를 지키고 도리를 따르며 잘못을 범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했다. [선덕] 9년(1434)에, 지휘첨사 방정(方政)·장귀(蔣貴) 등에게 칙서를 내려 송반을 토벌하고 위무하라고 했다. 방정 등이 이르러 방을 붙여 화복을 효유하니, 위(威)·무(茂) 여러 위(衛)들이 모두 명을 따랐으나 오직 송반·첨계에서 관할하는 임창(任昌)·파저(巴豬)·흑호(黑虎) 등의 채(寨)는 저항하였다. 방정이 지휘 조득(趙得)·궁취(宮聚) 등에게 차례로 진군하게 하여 용계(龍溪) 등 37채를 평정하고 회군했다. 장귀에게 평만장군(平蠻將軍)의 인을 패용하고 송반을 진수하도록 했다. [선덕] 10년(1435)에 장귀가 상주하기를, 근래 번인(番人)들이 잠잠하게 있지 않으니 송반·첨계 등지 창고의 군량이 거의 소모되어 없어졌으나, 달리 쌓아놓은 곡식이 없다고 하였다. 황제가 호부에 명하여, 사천의 세운(歲運) 수량에서 2할을 더하여 이들에게 공급하게 했다.

正統三年，岩州長官司讓達作亂，侵雜道諸邊，雜道長官安白訴於朝。帝命四川三司往諭之，皆歸服。四年，松潘指揮趙得奏：「祁命族番寇商巴作亂，官軍捕擒之。其弟小商巴復聚浦江·新塘等關，據險劫掠，乞發大軍剿除。」帝命李安充總兵官，王翱參贊軍務，調成都左衛官軍及松潘土兵，合二萬人征之。已，翱知商巴爲都指揮趙諒所陷，乃按誅諒而釋商巴等，事遂已。

정통 3년(1438)에, 암주(岩州)장관사<sup>334</sup> 양달(讓達)이 반란을 일으켜 잡도(雜道)의 여러

변경을 침범하자, 잡도장관 안백(安白)이 조정에 호소했다. 황제가 사천의 삼사(三司)에게 명하여 가서 효유하게 하니 모두 귀순하였다.<sup>335)</sup> [정통] 4년(1439)에 송반의 지휘 조득(趙得)이 상주하기를, “기명족(祁命族)의 번구(番寇) 상파(商巴)<sup>336)</sup>가 반란을 일으켰으므로 관군이 사로잡았습니다. 그 아우 소상파(小商巴)가 다시 포강(浦江)<sup>337)</sup>·신당(新塘)<sup>338)</sup> 등의 관(關)에서 무리를 모아 험준한 지세에 의지하여 노략질하고 있으니, 대군을 보내 소탕해주시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이안(李安)<sup>339)</sup>을 총병관에, 왕고(王翱)<sup>340)</sup>를 참찬군무에 충당

334) 宕州長官司: 지금의 四川省 瀘定縣 북쪽 嵐安鄉이다. 현재 嵐安鄉의 주민 3천여 명 가운데 7할은 藏族에 속하는데 羌人의 후예이다. 이들의 조상은 원래 邛·雅 일대에 거주했는데, 蜀漢 시대에 漢族과 羌族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諸葛亮은 군대를 보내 진압하고 羌人들에게 遊牧生活를 청산하고 농경에 종사하라고 권유했다. 羌人들에게 高山지대에서 河谷의 평원지대로 이주하여 농경에 종사하면서 생활하도록 권장했던 것이다. 이를 계기로 羌人들의 일부는 河谷의 평원지대로 이주하여 농사와 배짜기를 배웠다. 하지만 일부의 羌人들은 원래의 유목생활을 고집하면서 邛·雅 일대에서 天全으로 이주하고 다시 瀘定縣 嵐安鄉 일대로 이주하였다. 唐代에는 嵐安에 龍岩羈縻州를 설치하였고 五代十國과 宋代에는 宕州로 이름을 고쳤다. 明代에는 天全奴洛土司의 관할 하에 들어갔으며, 宕州長官司를 설치하였다. 明代에 嵐安은 가장 번성하여 경지 1만여 畝를 개간하였다. 明朝는 嵐安에 官府, 즉 府第와 衙門 그리고 刑場 등을 건설하였는데, 그 遺址가 아직도 남아 있다. 또 明朝에서는 嵐安에 茶馬司를 설치하여 茶馬貿易을 실시하였는데, 그 遺址 역시 아직도 존재한다. 清代에 이르러 雅安·天全에서 瀘定·康定을 거쳐서 西藏에 도달하는 도로가 개통되어 雅安·天全에서 嵐安을 거쳐서 瓦斯溝에 이르고 大渡河를 건너서 西藏에 도달하는 古道를 대신하게 되었다. 이처럼 교역로가 남쪽으로 옮겨가면서 嵐安은 점차 쇠락하게 되었다. 宋·明 시대 이래 嵐安은 항상 宕州로 칭해졌고, 후에 邛州로 이름을 바꾸었다. 嵐安이라는 지명은 1947년에 붙여졌다.

335) 관련 사항은 『英宗實錄』 卷48 正統 3년 11월 辛丑條에 기록되어 있다.

336) 商巴: 인명이 아니라 명초 松潘에 설립된 13 長官司 중의 하나인 祁命族長官司 내에 설치된 國師라는 불교의 직책을 지칭한다. 따라서 상파라 칭해지더라도 구체적인 인물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商巴國師 혹은 國師商巴라고 연칭되는 것이 관례이며 오늘날 松潘 漳腊에 있던 商巴寺를 관할하였다(鄒立波, 2012: 12).

337) 浦江關: 명대에는 浦江關軍民千戶所가 설치되어 있었다.

338) 新塘關: 지금의 四川省 阿壩藏族自治州 내에 있는 松潘縣 岷江鄉 新塘關村이다.

339) 李安: 生卒年 미상. 南直隸 鳳陽府 懷遠縣(지금의 安徽省 懷遠縣) 사람이다. 부친인 安平伯 李遠이 ‘정난의 역’ 때에 공을 세워 本府都督同知가 되고 安平伯의 작위를 얻었는데, 永樂 7년(1409)에 右參將으로 몽골 정벌에 참여하다 전쟁 중에 죽자 李安이 그 爵位를 계승하였다. 洪熙 원년(1425)에 交趾參將을 맡았지만, 작전의 실패로 귀국 후 하옥되고 世券은 박탈당했다. 英宗 즉위 이후 都督僉事로 기용되어 都督同知를 거쳐 總兵이 되어 松潘을 鎮守하였다. 正統 6년(1441)에는 定西伯 蔣貴의 副將이 되어 麓川을 토벌하였다. 蔣貴가 李安에게 潞江에 주둔하면서 軍餉 보호를 명했지만, 李安은 이를 부끄러워

시키고 성도 좌위의 관군 및 송반의 토병 2만 명을 징발하여 토벌하도록 했다.<sup>341)</sup> 얼마 후에, 왕고는 상파가 도지휘 조량(趙諒)에게 모함당한 것을 알고서, 이에 [경위를] 조사하여 조량을 죽이고 상파 등을 석방하니, 드디어 사태가 마무리되었다.<sup>342)</sup>

하며 스스로 군대를 거느리고 정벌에 나섰지만 참패를 당했다. 이에 李安이 하옥되어 獨石으로 귀양을 가서 결국 후에 사망했다.

340) 王翱(1384~1467): 字는 九臯이며, 直隸 鹽山縣(지금의 河北省 滄州市 鹽山縣) 사람이다. 永樂 13년(1415)에 成祖는 北京에서 처음으로 會試를 거행했다. 당시는 북경으로의 천도를 준비하고 있던 때여서 영락제는 의욕적으로 북방의 인재들을 등용하고자 했다. 이때 王翱는 북방인이면서도 會試와 殿試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두각을 나타내었는데, 영락제는 크게 기뻐하여 음식을 하사하고 통상적으로 제수하던 翰林院 庶吉士 대신에 大理寺 左寺正의 벼슬을 그에게 제수했다. 宣德 원년(1426)에 楊士奇의 推薦으로 監察御史로 발탁되었고, 宣德 5년(1430)에는 巡按四川의 벼슬을 제수받았다. 英宗이 즉위해서는 右僉都御史로 발탁되어 都督 武興과 함께 江西를 鎮守하며 탐관오리들에 대한懲治에 힘을 기울여 관원과 백성들로부터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正統 2년(1437)에는 조정으로 소환되어 京官으로 활약했으나 正統 4년(1439)에는 處州와 松潘의 民變을 진압했다. 正統 6년(1441)에는 陳鑑을 대신해서 陝西로 나가서 진수하였는데, 이때 軍民들 중에 빌린 곡식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채무를 탕감해주었다. 正統 7년(1442) 겨울에는 提督遼東軍務로 발탁되었고, 이듬해에는 右副都御史로 승진하였다. 正統 12년(1447)에는 總兵 曹義 등과 함께 만리장성을 넘어 兀良哈를 공격하여 100여 명을 참수한 공으로 右都御史로 승진하였다. 正統 14년(1449)에는 여러 장수들과 함께 廣平山에서 적을 물리쳐 左都御史로 승진했다. 脫脫不花가 廣寧을 침범하자 明軍은 패하여 흩어졌지만 王翱는 城을 死守하였다. 敵軍이 물러간 후, 王翱는 책임을 추궁당해 반년간 俸祿의 지급정지 처분을 받았다. 景泰 3년(1452)에는 京官으로 소환되어 太子太保의 직함을 받았지만 瑤族 등이 반란을 일으키자 조정에서는 그를 監督軍務로 파견하였다. 이로써 兩廣總督이 되었지만 이듬해에 다시 소환되어 吏部尙書에 임용되었다. 成化 3년(1467)에 향년 84세로 사망했으며, 忠肅公이라는 諡號를 받았다(『明史』 卷177 「王翱傳」 참조).

341) 관련 사항은 『英宗實錄』 卷62 正統 4년 12월 丁丑條에 기록되어 있다.

342) 관련 사항은 『英宗實錄』 卷66 正統 5년 4월 丙戌條에 기록되어 있다. 실록에 따르면 松潘 祁命族의 商巴는 명조에게서 淨戒弘慈國師의 직책을 제수받은 승려였는데 商巴와 松潘 鎮守 都指揮同知 趙諒과의 사이에 불화가 생겼다. 趙諒이 그를 유인하여 사로잡고 병사를 부려서 그의 寺院(商巴寺)을 포위하고 재물과 가축을 노략질하였다. 그리고 鎮守都指揮 趙得과 함께 商巴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誣告하는 상주를 올렸다. 이에 격분한 그의 아우 小商巴가 무리를 이끌고 關堡를 공격하여 함락시킨 것이다. 황제는 都督 李安과 僉都御史 王翱를 보내 반란을 평정하게 하였는데 巡按御史가 자초지종을 보고하는 내용의 상소를 올리자 황제는 다시 王翱에게 실상을 조사하도록 명령하였다. 사건의 실상이 밝혀지자 황제가 商巴의 國師 지위를 회복시켰고 趙諒은 목 베고 趙得은 廣西로 유배를 보내 充軍시켜 사태를 수습하였다. 明朝에서 番人들에게 國師의 지위를 부여한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예컨대 永樂 6년(1408)에, 투르판의 番僧 清來가 徒弟인 法泉 등을 이끌고 朝貢하자 영락제는 그에게 番俗을 教化하고

九年，松潘指揮僉事王杲奏：「比者，黑虎等寨番蠻攻圍椒園·松溪等關堡，殺傷官民。欲行擒剿，恐各寨驚疑，應諭能擒賊者重賞之。」報可。十年，黑虎寨賊首多兒太伏誅。初，多兒太掠茂州境，爲官軍所獲，誠而釋之。未幾，復糾諸寨入掠。帝命序班祁全往諭諸寨，擒多兒太至京，梟其首。十一年以寇深爲僉都御史，提督松潘兵備。時松潘皆已向化，惟至地骨鹿族二十寨不服，命督高廣·王杲等剿之。設思曩日安撫司，以阿思觀爲之使，隸松潘衛。先是，阿思觀父端葛，洪武中歸順，給金牌撫番，至阿思觀又能招撫，故有是命。

[정통] 9년(1444)에 송반 지휘첨사 왕고(王杲)가 상주하기를, “근래 흑호(黑虎) 등 채(寨)의 번만(番蠻)이 숙원(椒園)·송계(松溪) 등의 관보(關堡)를 포위하고 공격하여 관민을 죽이거나 상하게 했습니다. 토벌하여 사로잡고자 하나 각 채에서 놀라고 의심할까 두려우니 마땅히 적을 사로잡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린다고 효유해주시시오”라고 하니 [황제가] 허락하였다.<sup>343)</sup> [정통] 10년(1445)에, 흑호채<sup>344)</sup>의 적 우두머리 다아태(多兒太)가 처형당했다. 당초에 다아태는 무주(茂州)<sup>345)</sup>의 경내를 노략질하여 관군에 사로잡혔으나 훈계하고 풀어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여러 채를 규합하여 들어와 노략질하였다. 황제가 서반(序班)<sup>346)</sup> 기전

開導하라며 灌頂慈悲圓智普通國師의 직책을 제수하고, 徒弟 7명을 모두 투르판의 僧綱司官으로 삼은 적이 있었다(『太宗實錄』 卷79 永樂 6년 5월 辛酉條 참조).

343) 관련 사항은 『英宗實錄』 卷112 正統 9년 정월 戊辰條에 기록되어 있다.

344) 黑虎寨: 지금의 四川省 茂縣 서북쪽 첩첩 산중에 위치한 羌族 마을이었다. 이곳 주민들은 이미 漢代부터 자그마한 부락을 이루고 산에 의지하여 돌을 쌓아 올린 집에 거주하며 수렵으로 생계를 꾸렸으며, 唐代 이후에는 유목과 농업을 병행하였다. 외부의 적들이 빈번하게 침입해왔으므로 寨는 절벽 위에 건축되었다. 특히 唐代 中期에 吐蕃이 빈번하게 침범해왔다. 明代에 이르러서는 주변 부족들과의 분쟁이 날로 심해져 碉樓(돌로 쌓아올린 망대)가 숲속의 나무처럼 즐비하게 세워졌다. 明代에 寨中の 羌民들이 영웅으로 추송하는 지도자 多兒太가 나타났는데, 당시에 그는 黑虎寨의 羌人들을 이끌면서 외적들의 침입에 저항했으므로 후세인들에게서 黑虎將軍으로 불려졌고, 寨의 이름도 이에 따라 黑猫寨에서 黑虎寨로 불리게 되었다.

345) 茂州: 지금의 四川省 北川, 汶川 및 茂汶羌族自治縣 일대에 해당한다. 唐 貞觀 8년(634)에 南會州를 고쳐서 茂州를 설치하였다. 治所는 汶山(지금의 茂汶)에 두었다. 明初에는 汶山縣을 폐지하여 茂州에 편입시켰고, 淸 雍正 연간(1723~1735)에는 直隸州로 승격되었다.

346) 序班: 明代 朝廷儀禮의 侍班, 齊班, 糾儀와 傳贊 등의 일을 맡은 從九品職이다. 鴻臚寺의 屬官으로

(祁全)에게 여러 채를 다니며 효유하도록 명하였는데, [번인들이] 다아태를 사로잡아 경사로 압송하자 [목을 베어] 효수하였다.<sup>347)</sup> [정통] 11년(1446)에 구심(寇深)을 첨도어사로 삼고 송반의 군사업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이때 송반은 이미 모두 조정에 귀순하였으나 오직 왜지 골록족(歪地骨鹿族) 20채만은 복종하지 아니하므로, [구심에게] 명령하여 고광(高廣)·왕고(王果) 등을 통솔하여 토벌하게 하였다.<sup>348)</sup> 사낭일안무사(思囊日安撫司)를 설치하고 아사관(阿思觀)을 안무사로 삼아 송반위에 예속시켰다. 이에 앞서 아사관의 아버지 단갈(端葛)이 홍무연간(1368~1398)에 귀순하자 금패(金牌)를 주고 번인(番人)을 위무하게 하였는데, 아사관에 이르러 또 능히 초무하였으므로 이렇게 명령한 것이다.<sup>349)</sup>

景泰三年，鎮守松潘刑部左侍郎羅綺等奏：「雪兒卜寨賊首卓時芳等，煙崇寨賊首阿兒結等，累年糾合於安化關劫掠。臣會師抵其巢穴，斬首不計其數，生擒卓時芳·阿兒結等，梟斬於市。」七年，提督松潘羅綺復奏：「松潘土番王永習性兒獠，嘗殺其土官高茂林男婦五百餘口，及故土官董敏子伯浩等二十餘人。今又糾合番蠻，攻劫地方。臣與指揮周貴等統領官軍，直抵桑坪，已將永等誅滅，邊境肅清。」降敕褒賞。天順五年，番衆入龍安·石泉等處，擾糧道。六年敕松潘總兵許貴曰：「敍州蠻賊出沒爲患，比松潘尤甚，其馳往會剿。」貴聞命，會兵敍州，追討昔乖件·莫洞·都夜三寨，分兵兩哨，克硬寨四十餘，斬首一千一百餘級。

司儀, 司賓 兩府署에 각기 50명을 두었으나, 嘉靖 36년(1557)에 8명을 없앴다가 萬曆 11년(1583)에 다시 6명을 設하였다(『明史』 卷74 「職官志」 3 鴻臚寺條). 그런가 하면 翰林院 소속의 四夷館에도 序班을 두어 조공국에서 올린 表文을 번역하고, 번역을 학습하는 학생을 양성하였으며, 會同館에도 通事序班을 두어 통역의 일을 맡도록 했다. 특히, 명대에 회동관의 통사서반에는 본국 언어를 잘하는 본국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조선의 통사서반의 경우 거의가 조선 출신의 東寧衛人이었다(鄭惠仲, 2010: 54~55).

347) 관련 사항은 『英宗實錄』 卷127 正統 10년 3월 戊子條에 기록되어 있다. 이때 명조는 사천에서 京師로 내조하려는 番人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압송되어 온 多兒太의 목을 베었다. 그리고 多兒太의 목은 그가 겁락하던 곳으로 돌려보내 효수하였다.

348) 관련 사항은 『英宗實錄』 卷142 正統 11년 6월 丙辰條에 기록되어 있다.

349) 관련 사항은 『英宗實錄』 卷143 正統 11년 7월 庚午條에 기록되어 있다.

경태 3년(1452)에 송반을 진수하는 형부좌시랑 나기(羅綺) 등이 상주하기를, “설아복채(雪兒卜寨)의 적 우두머리 탁시방(卓時芳) 등과 연승채(煙崇寨)의 적 우두머리 아아결(阿兒結) 등이 여러 해 동안 [무리를] 모아 안화관(安化關)에서 노략질하였습니다. 신은 군사를 모아 그들의 소굴에 이르러 무수하게 목을 베고 탁시방·아아결 등을 생포하여 저자에서 목을 베어 효수하였습니다”고 하였다.<sup>350)</sup> 경태 7년(1456)에 제독 송반 나기가 다시 상주하기를, “송반 토번(土番) 왕영(王永)의 습성이 난폭하여 일찍이 그 토관 고무림(高茂林)의 남녀 500여 명과 이미 사망한 토관 동민(董敏)의 아들 백호(伯浩) 등 20여 명을 죽였습니다. 이제 또 번만(番蠻)을 규합하여 지방을 공격하고 노략질하였습니다. 신이 지휘 주귀(周貴) 등과 관군을 통솔하고 곧장 승평(桑坪)에 이르러 [왕]영 등을 죽이자 변경이 정돈되었습니다”고 하니, [황제가] 칙서를 내려 포상하였다.<sup>351)</sup> 천순 5년(1461)에, 번인(番人) 무리들이 용안(龍安)<sup>352)</sup>·석천(石泉)<sup>353)</sup> 등지에 들어와 양식을 수송하는 길을 소란스럽게 하였다. [천순] 6년(1462)에 송반 총병 허귀(許貴)<sup>354)</sup>에게 칙서를 내려 이르기를, “서주(敘州)의 만적(蠻賊)이

350) 관련 사항은 『英宗實錄』 卷218 景泰 3년 7월 己酉條에 기록되어 있다. 土司傳에는 雪兒卜寨의 우두머리가 卓時芳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록에는 卓勞라고 적어 있다.

351) 관련 사항은 『英宗實錄』 卷270 景泰 7년 9월 癸酉條에 기록되어 있다. 土司傳에는 松潘의 土番 王永이 土官 高茂林의 남녀 500을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실록에는 土官의 이름이 高茂라고 적어 있다.

352) 龍安: 四川省 북부에 위치한 곳이다. 嘉靖 45년(1566)에 土官을 없애고 流官을 설치하면서 龍州宣撫司를 龍安府로 고쳐서 四川布政使司에 소속시켰다. 萬曆 18년(1590)에 그 안에 寧武縣을 설치하고, 이듬해에 平武縣으로 개명했다. 淸 順治 6년(1649)에 명대의 제도를 계승하여 龍安府(府治는 平武縣)을 설치하고, 平武(지금의 四川省 平武縣)·江油(지금의 四川省 江油市)·石泉(지금의 四川省 北川羌族自治縣)·彰明(지금의 四川省 江油市 彰明鎮) 네 현을 관할케 했다.

353) 石泉: 지금의 四川省 北川羌族自治縣이다. 北川에 거주하던 옛 羌族은 주로 양을 기르던 유목민족이었다. 周代에는 冉駹部落의 영역에 속하고 冉駹은 蜀國에 속했다. 前漢 武帝 元鼎 6년(전111)에 冉駹部落에 汶山郡을 설치하고 廣柔縣 등 다섯 개 현을 관할하게 했다. 廣柔縣이 곧 石泉縣이었다. 前漢 宣帝 地節 3년(전67)에 汶山郡을 폐지하고 관할하던 현은 모두 蜀郡에 예속시켰다. 後漢 安帝 延光 3년(124)에 다시 汶山郡을 설치하고 廣柔縣 등을 관할하게 했다. 그러다가 南朝 劉宋 시대에 汶山郡治를 都安縣(지금의 灌縣城)으로 옮기고 廣柔縣은 폐지하였다. 北周 天和 원년(566)에 北部郡에 北川縣을 설치했는데, 이것이 北川에 縣이 설치된 최초의 사례이다. 그리고 唐 太宗 貞觀 8년(634)에 南會州를 茂州라고 이름을 바꾸고, 소속된 北川縣을 石泉縣과 北川縣으로 둘로 나누었다. 唐 太宗 永徽 2년(651)에는 北川縣이 폐지되어 石泉縣에 병합되었는데, 이런 상황은 명·청 시대까지 지속되었다.

354) 許貴: 生卒年 미상. 字는 用和이며, 南直隸 江都(지금의 江蘇省 楊州市) 사람으로, 永新伯 許成의 아들이다. 그는 羽林左衛指揮使를 세습하였는데, 安鄉伯 張安이 將才가 있다고 許貴를 천거하여 시험해보

출몰하여 근심거리가 되는 것이 송반에 비해 더욱 심하니 급히 달려가서 회합하여 토벌하라”고 하였다.<sup>355)</sup> 허귀가 명령을 좇아 서주에서 군대를 모아 석괴건(昔乖件)·막동(莫洞)·도야(都夜) 세 채(寨)를 추격하여 토벌하였으며, 군사를 두 갈래로 나누어 완강하게 저항하는 채 40여 곳을 함락시키고 1,100여 명의 목을 베었다.<sup>356)</sup>

成化二年，鎮守太監閻禮奏：「松·茂·疊溪所轄白草壩等寨，番羌聚衆五百人，越龍州境剽掠。白草番者，唐吐蕃贊普遺種，上下凡十八寨。部曲素強，恃其險阻，往往剽奪爲患。」四年，禮復奏：「白草諸番擁衆寇安縣·石泉諸處，因各軍俱調征山都掌蠻，致指揮王璟備御不謹。」命副總兵盧能剿之。能遣指揮閻斌巡邊至廟子溝，番賊三百突至，殺傷相當。斌以失機逮治。九年，巡撫夏瑱奏：「黑虎寨賊首夜合等攻關堡，左參將宰用·兵備副使沈琮督兵馳詣松溪堡敗之，斬獲夜合等三十六級。」松潘指揮僉事堯彥奏：「臣與兵備沈琮分剿白馬路水土·茹兒等番寨，大克之。」

성화 2년(1466)에 진수태감 염례(閻禮)가 상주하기를, “송(松)·무(茂)·첩계에서 관할하는 백초패(白草壩) 등의 채에서 번인 강족(羌族)이 무리 500명을 모아 용주(龍州)의 경계를 넘어가 난폭하게 노략질하였습니다. 백초번(白草番)은 당나라 시대에 [존속했던] 토번 찬보

니, 말타기와 활쏘기뿐만 아니라 對策에도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다. 후에 署都指揮同知로 발탁되었고, 武進伯 朱冕의 천거로 山西行都司로 승임하여 大同 諸衛의 兵馬들을 감독하고 조련하였다. 正統 14년(1449)에 大同을 鎮守하였는데, 에센이 침범하자 石亨을 따라 陽和 일대에서 크게 싸웠으나 패배하였다. ‘土木堡의 變’ 이후에도 몽골의 북변 침공은 계속되었고 大同은 요충지였으므로 몽골의 공세가 집중되었는데, 許貴는 여러 차례 장졸들을 단속하여 격전을 치르면서 몽골의 침입을 격퇴하였다. 이 공로로 후에 都指揮使로 승진하였으며, 景泰 원년(1450)에 右參將으로 威遠 등지에서 승리하여 都督同知가 되었다. 당시 分守太監이던 韋力이 淫虐을 행하였으나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는데 許貴는 그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 景泰 3년(1452)에 병으로 인해 京師로 돌아왔으며, 英宗이 復辟한 후에 左軍都督府를 통솔하였다. 天順 5년(1461)에 서쪽 변경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朝廷에서 松潘에 副總兵을 설치하기로 논의하고 許貴를 鎮守하게 했다. 松潘에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恰逢山 일대에서 변란이 일어나자, 이를 평정하라고 명을 받은 許貴는 40여 寨를 연파하며 승전했으나 결국 병에 걸려 松潘에 미처 도착하지 못하고 사망했다(『明史』 卷174 「許貴傳」 참조).

355) 관련 사항은 『英宗實錄』 卷338 天順 6년 3월 辛亥條에 기록되어 있다.

356) 관련 사항은 『英宗實錄』 卷345 天順 6년 10월 壬戌條에 기록되어 있다.

(贊普)<sup>357)</sup>의 남은 종자로서 아래위에 모두 18채가 있습니다. 그 무리는 본디 강한데, 그 지세의 험준함을 믿고 왕왕 사납게 약탈하니 근심거리입니다”고 하였다.<sup>358)</sup> [성화] 4년(1468)에 염례가 다시 상주하기를, “백초의 여러 번인(番人)들이 무리를 모아 안현(安縣)·석천(石泉) 등지를 노략질하였으므로 각 군에서 모두 [군사를] 징발하여 산도장(山都掌) 만족(蠻族)을 토벌하였으나, 지휘 왕경(王璟)은 준비하고 방어하는 일에 부지런하지 않았습니다”고 하니, [황제가] 부총병 노능(盧能)에게 토벌하도록 하였다.<sup>359)</sup> 노능은 지휘 염빈(閼斌)을 보내 변경을 순찰하여 묘자구(廟子溝)에 이르게 했는데, 번적(番賊) 300명이 갑자기 나타나 죽거나 부상당한 자가 상당했다. 염빈은 [번적을 소탕할] 기회를 놓쳤으므로 체포되어 그 죄를 추궁당했다.<sup>360)</sup> [성화] 9년(1473)에 순무 하훈(夏埴)<sup>361)</sup>이 상주하기를, “흑호채의 적 우두머리

357) 贊普: 吐蕃의 王號이다. 贊은 雄強하다는 의미이고, 普는 男子라는 의미이다. 토번의 松贊干布가 唐朝의 官制를 모방하여 만든 것으로 최고 통치자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贊普 아래에는 大相, 副相 각 1명을 두어 전국의 정사를 총괄하게 했다. 이들 아래에 또 都護 1명을 두어 屬部의 관리와 군사행동 등의 사무를 주관하게 하였다. 또 內大相·內副相·內下相 각 1명을 두어 王朝 내부의 사무를 맡아보게 했다. 司法事務를 관장하던 관원은 刑部尙書·整事大相·副整事·小整事 각 1명씩이었다. 이들 관직은 모두 업무를 담당한 관원이 사망하면 그 아들이 계승하고 아들이 없으면 근친이 승계하는 세습제로 운영되었다. 관직을 맡은 사람은 통상적으로 그 이름 앞에 論·尙 따위의 글자를 덧붙였다. 論은 王室과 직접적인 親屬관계에 있는 대신을, 尙은 王室과 通婚한 大貴族 출신의 관원을 의미하였다. 贊普 및 그 아래 세 부분으로 구성된 통치기구를 티베트어로 尙論掣逋突瞿라고 하는데, 이는 王室과 貴族이 장악한 吐蕃의 전체 정권이라는 의미이다. 贊普와 群臣은 매년 한 차례의 小盟을 거행하고 3년에 한 차례의 大盟을 거행했다. 吐蕃 왕실은 이런盟을 통해 신하들에게 무조건적인 충성을 요구하였다. 吐蕃이 분열된 후에 吐蕃 各部의 酋長도 贊普라고 칭했다.

358) 관련 사항은 『憲宗實錄』 卷30 成化 6년 5월 戊戌條에 기록되어 있다.

359) 관련 사항은 『憲宗實錄』 卷51 成化 4년 2월 戊申條에 기록되어 있다.

360) 관련 사항은 『憲宗實錄』 卷60 成化 4년 11월 己卯條에 기록되어 있다.

361) 夏埴(1426~1482): 字는 宗成이고, 號는 介軒이며, 浙江 天台縣 사람이다. 景泰 2년(1451)에 殿試에 합격하고 進士가 되었다. 監察御史로서 廣西 일대를 순시했을 때, 탐관오리들을 제거하고 힘없는 자들이 억울하게 판결을 받은 재판을 바로잡아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다. 天順 원년(1457)에 江西의 軍務를 정돈하는 중에 당시 이곳의 鎮守太監 葉達이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도 江西 巡撫는 그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지만, 그는 葉達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려 그의 직책을 삭탈당하게 했다. 이후 그는 廣東按察使가 되었고, 成化 8년(1472)에는 右副都御史 兼 四川巡撫가 되었는데, 이 무렵 松潘의 參將이 수비하는 군사들의 수를 늘려달라고 하자 그는 장수됨은 병사의 수에 달려 있지 않다면서 4,800명의 精兵을 골라 파견하였다. 그는 조정의 허락을 얻어서 장수들에게 책임을 분명하게 묻되, 그들의 권한을 늘려주어 적의 침입을 신속하게 막게 하였고, 그 재능에 따라 임무를 맡겼으며 백성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었고

야합(夜合) 등이 관보(關堡)를 공격하였으므로 좌참장 재용(宰用)·병비부사<sup>362)</sup> 심종(沈琮)이 병사를 이끌고 재빨리 송계보(松溪堡)에 이르러 이들을 패퇴시키고, 야합 등 36명의 목을 베었습니다”고 하였다.<sup>363)</sup> 송반지휘첨사 요육(堯賾)이 상주하기를, “신과 병비 심종이 백마로(白馬路)의 수토(水土)·여아(茹兒) 등 번인(番人)들의 채(寨)를 나누어 토벌하여 크게 이겼습니다”고 하였다.<sup>364)</sup>

弘治二年，松潘番寇殺傷平夷堡官軍，命逮指揮以下各官治之。三年免思曩日安撫等十六族明年朝覲，以守臣言其地方災傷也。七年，松潘空心寨番賊犯邊，都指揮僉事李鎬敗之。十三年，番賊入犯松潘壩州坡抵關，勢益獗。命逮指揮湯綱等，而敕巡撫張瓚調漢·土官兵五萬，由東南二路分剿，破白羊嶺·鵝飲溪等三十一寨，斬四百餘級。商巴等二十六族皆納款。十四年復攻黃頭·青水諸寨，前後殺獲男婦七百餘人，赍其礮房九百，墜崖死者不可勝計，諸番稍靖。

홍치 2년(1489)에, 송반의 번구(番寇)들이 평이보(平夷堡)의 관군을 살상하자 [황제가] 지휘 이하의 각 관원을 체포하여 처벌하라고 명령했다.<sup>365)</sup> [홍치] 3년(1490)에, 사냥일 안무 등 16족속의 이듬해 조근을 면제해주었는데, [그 까닭은] 그곳에 주둔하여 지키는 신하들이 그 지방에 재해가 들었다고 아뢰었기 때문이었다.<sup>366)</sup> [홍치] 7년(1494)에, 송반 공심채(空心寨)의 번적(番賊)들이 변경을 침범하자 도지휘첨사 이호(李鎬)가 패퇴시켰다.<sup>367)</sup> [홍치] 13

재정출납을 투명하게 하였는데, 이로 인해 明朝의 서쪽 변방이 평안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成化 13년(1477)에는 權貴와 馬찰이 생기자 사퇴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극력 청했으며, 귀향한 후에 두문불출하고 『介庵稿』를 저술하였다(『明史』 卷159 「夏埴傳」 참조).

362) 兵備副使: 兵備副使는 分守參將에 대응하는 文官職 將領을 말하는데, 兵備道의 官을 일컬으며 대개 按察司副使가 겸직을 하였다. 參將은 總兵官의 命을 받는 데 비해 병비부사는 督撫의 命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였다. 弘治 연간(1488~1505)에 九江兵備가 설치되면서 이 직책이 시작되었는데, 이후 嘉靖 연간(1522~1566)에 倭寇의 출몰이 많아져 동남연해안 각 省에도 병비부사가 설치되었다.

363) 관련 사항은 『憲宗實錄』 卷112 成化 9년 정월 癸丑條에 기록되어 있다.

364) 관련 사항은 『憲宗實錄』 卷121 成化 9년 10월 丁丑條에 기록되어 있다. 이때 堯賾은 番人들의 礮寨를 불태우고 소와 말 백여 마리를 몰아내 쫓아버렸으며 番人 316명을 참수했다고 보고했다.

365) 관련 사항은 『孝宗實錄』 卷31 弘治 2년 10월 壬寅條에 기록되어 있다.

366) 관련 사항은 『孝宗實錄』 卷36 弘治 3년 3월 丙辰條에 기록되어 있다.

년(1500)에, 번적(番賊)들이 송반 패주(壩州)의 파저관(坡抵關)을 침범하고 들어왔으며, 그 세력이 더욱 창궐하였다. [황제가] 지휘 탕강(湯綱) 등을 체포하도록 명하고<sup>367)</sup> 순무 장찬(張瓚)에게 칙서를 내려 한인 병사와 토관의 병사 5만을 징발하여 동남 두 갈래로 나누어 토벌하도록 했는데 백양령(白羊嶺)·아음계(鵝飲溪) 등 31채(寨)를 격파하고 400여 명의 목을 베었다. 상파(商巴) 등 26족속이 모두 귀순하였다. [홍치] 14년(1501)에, 다시 황두(黃頭)·청수(靑水) 등 여러 채를 공격하여 선후로 남녀 700여 명을 죽이거나 포로로 잡고, 조방(碉房)<sup>369)</sup>

367) 관련 사항은 『孝宗實錄』 卷88 弘治 7년 5월 己亥條에 기록되어 있다.

368) 관련 사항은 『孝宗實錄』 卷165 弘治 13년 8월 甲申條에 기록되어 있다. 실록에는 坡抵關이 아니라 坡底關으로 指揮 湯綱이 아니라 指揮 楊綱으로 기록되어 있다.

369) 碉房: 중국 서남부의 靑藏高原 및 내몽골 일부지역에서 보이는 住居 건축양식이다. 『後漢書』의 기록에 보면, 漢 元鼎 6년(111)에 이미 碉房이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돌맹이를 겹쳐 쌓거나 혹은 흙을 다져서 3~4층의 집을 지은 것이다. 외관을 보면 마치 碉堡와 흡사하므로 碉房이라고 칭한다. 碉房이라는 명칭은 적어도 乾隆 연간(1736~1795)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碉房의 벽 아랫부분은 두껍고 윗부분은 얇으므로 외형상으로는 아래가 크고 위가 작다. 건물 모양은 네모지고 지붕은 평평하며 창은 많지 않다. 靑藏高原의 기복이 심한 山勢에 적응하기 위해서이다. 대부분의 碉房은 돌로 쌓지만 어떤 碉房은 흙과 나무를 사용하여 짓는 경우도 있는데, 외형상으로는 돌로 쌓은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만 흙으로 지은 碉房은 돌로 쌓은 碉房에 비해 두께가 1/3가량 얇으며 내구성도 떨어진다. 그렇지만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한 것은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碉房은 대부분 다층건물에 속하는데, 1층은 가축들의 우리나 저장실로 사용한다. 2층은 사람의 주거공간으로 접객 공간, 침실과 주방이 배치되어 있고 집가나 식료품의 저장시설도 있으며, 아래층과 위층을 오르내리는 사다리도 배치되어 있다. 3층은 佛經이나 佛像을 모신 經堂이나 佛堂으로 사용된다. 현재 라싸 등지에서 보이는 3층 혹은 그 이상의 높은 碉房은 대부분 옛날 西藏의 貴族들이 쌓은 것이다. 물론 단층짜리 碉房도 있다. 碉房은 바람과 추위를 막을 뿐만 아니라 도둑과 外敵의 침입을 막아주기도 한다. 碉房도 천막처럼 집안의 가족 수나 주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크기에 차이가 난다. 티베트(西藏)에서는 집의 면적을 柱라는 단위로 계산하는데, 1柱는 가로 세로 각 2m, 즉 4m<sup>2</sup>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어떤 碉房은 십수 柱에 달하지만 어떤 碉房은 2~3柱에 불과하다. 碉房의 한 층당 높이는 2.2m에서 2.4m 사이이다. 이상은 碉房의 대표 격이라 할 수 있는 西藏 藏族들의 碉房에 대한 설명이지만 각지에 분포한 다양한 碉房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예컨대 四川省의 阿壩 및 甘孜에 분포한 藏族 碉房은 목재로 만든 내부 설비가 더 많다. 四川 茂汶 지구에 거주하는 羌族들도 역시 碉房을 건축하여 거주했다. 이들의 碉房은 외벽이 편편한 돌조각으로 켜켜이 쌓아올려져 있는데, 碉房이 촘촘하게 늘어섰을 뿐만 아니라 높이가 극히 높은 碉堡도 함께 건설되어 있어서 防禦施設로서의 성격이 극히 강하다. 雲南省 紅河州 일대에 거주하는 哈尼族의 거처는 土掌房이라고 칭해지는데, 흙 담과 평평한 지붕이 있으며 벽에는 창이 없는 2층 건물이다. 土掌房의 이런 형태는 藏族的 碉房 양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900여 채를 헐었으며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은 자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었는데 [이로 인해] 여러 번족(番族)이 점차 안정되었다.

正德元年，巡撫劉洪奏：「祈命族八長官司所攝番衆多至三十寨，少亦二十餘寨，環布松潘兩河。其土官已故，子孫自應承襲。今宜察勘，有原降印信者，方許襲。」報可。十六年，松潘衛熟番八大禳等作亂，同知杜欽平之。

정덕 원년(1506)에 순무 유홍(劉洪)이 상주하기를, “기명족(祈命族) 등 8장관사<sup>370)</sup>에서 거느리는 번인(番人) 무리는 많으면 30채(寨) 적어도 20여 채인데, 송반의 두 강을 둘러싸고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토관이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응당 그 자손이 뒤를 이어야 합니다. 지금 마땅히 조사해서 [조정에서] 내려준 원래의 인신(印信)을 갖고 있는 자들은 바로 세습을 허락해야 합니다”라고 하니, [황제가] 허락하였다.<sup>371)</sup> [정덕] 16년(1521)에, 송반위의 숙번(熟番) 팔대양(八大禳) 등이 반란을 일으키자 동지 두흠(杜欽)이 평정하였다.<sup>372)</sup>

嘉靖五年命都督僉事何卿鎮守松潘。時黑虎五寨及烏都·鵠鵠諸番叛，卿次第平之，降者日至。卿有威望，在鎮十七年，松潘以寧。二十三年以北警召卿入衛，繼之者李爵·高岡鳳，未幾皆爲巡撫劾罷。二十六年復命卿往鎮。時白草番亂，卿會巡撫張時徹討擒渠惡數人，俘斬九百七十餘級，克營寨四十七，毀碉房四千八百，獲馬牛器械儲積無算。終嘉靖世，松潘鎮號得人，邊境安堵焉。

가정 5년(1526)에, [황제가] 도독첨사 하경(何卿)에게 송반을 진수하도록 명령했다.<sup>373)</sup>

370) 土司傳에는 祈命族八長官司라고 되어 있어 마치 祈命族에 여덟 개의 長官司가 설치된 것처럼 오해할 여지가 있도록 씌어 있으나 실록 원문에는 祈命族等八長官司 라고 기재되어 있어 祈命族長官司를 포함한 여덟 개 長官司라는 의미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 『武宗實錄』 卷13 正德 원년 5월 辛卯條에 기록되어 있다.

371) 관련 사항은 『武宗實錄』 卷13 正德 원년 5월 辛卯條에 기록되어 있다.

372) 관련 사항은 『世宗實錄』 卷3 正德 16년 6월 壬午條에 기록되어 있다.

이때 흑호(黑虎)의 5寨(寨)와 오도(烏都)·발합(鶻鴿)의 여러 번인(番人)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하경이 차례로 이들을 평정하니 항복하는 자가 날마다 이어졌다.<sup>374)</sup> 하경은 위엄과 덕망이 있어서 주둔하는 17년 동안, 송반은 그로 인해 평안하였다. [가정] 23년(1544)에, 북변에 위급한 일이 생겨서 하경을 [조정에] 불러들여 시위(侍衛)케 하였는데 그의 후임자 이작(李爵)·고강봉(高岡鳳)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순무에게 탄핵을 당해 파직되었다. [가정] 26년(1547)에, 다시 [황제가] 하경에게 [송반으로] 가서 진수하도록 명령했다. 이때 백초(白草)의 번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하경은 순무 장시철(張時徹)<sup>375)</sup>과 회동하여 계교를 써서 그 우두머리 몇 명을 토벌하여 사로잡고 970여 명을 사로잡아 목 베었으며, 영채(營寨) 47곳을 함락하고 조방(碉房) 4,800채를 허물고 말, 소, 무기, 쌓아 놓은 곡식을 무수히 노획하였다.<sup>376)</sup>

373) 관련 사항은 『世宗實錄』 卷61 嘉靖 5년 2월 丙寅條에 기록되어 있다.

374) 黑虎 5寨를 평정한 사실은 『世宗實錄』 卷150 嘉靖 12년 5월 丙辰條에, 烏都和 鶻鴿를 평정한 사실은 『世宗實錄』 卷157 嘉靖 12년 12월 辛巳條에 기록되어 있다.

375) 張時徹(1504~1577): 字는 維靜, 號는 東沙이며, 浙江 鄞縣 사람이다. 正德 15년(1520)에 鄉試에 합격하여 舉人이 되었고, 嘉靖 2년(1523)에는 殿試에 합격하여 進士가 되었다. 江西學政, 臨淸 兵備副使, 福建右參政, 雲南按察使, 山東右布政使를 거쳐 四川 巡撫로 임명되어 嘉靖 26년(1547)에 松潘 일대 番人들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워 兵部侍郎으로 승진하였으나 곧 해직당해 落鄉했다. 두 해가 지난 후에 다시 江西 巡撫로 발탁되었고 북변에 전운이 감돌자 다시 兵部侍郎에 임명되었다. 嘉靖 33년(1554)에 왜구가 동남지방을 침범하자 南京兵部尙書로 발탁되었다. 이듬해 7월에 왜구가 南京을 침범하자 성문을 닫고 사흘 동안 守城하였다가 御史에게 탄핵당하고 嚴世蕃에게도 배척당했다. 사직하고 낙향해서 저술과 농사에 힘썼다. 范欽(鄞縣 사람으로, 天一閣의 창건자이며, 兵部右侍郎을 역임), 屠大山(鄞縣 사람으로, 南京兵部侍郎, 應天巡撫 등을 역임)과 함께 東海 三司馬라고 칭해졌다.

376) 張時徹와 何卿이 白草番의 반란을 대대적으로 진압한 사실은 『世宗實錄』 卷322 嘉靖 26년 4월 乙巳條에 기록되어 있다. 사천순무 張時徹은 백초번의 반란을 진압한 후에 이들에 대한 善後事宜를 건의하였는데 이 내용은 병부의 심의를 거친 후에 황제의 윤허를 얻어 시행되었다. 선후책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小河에 있는 參將의 鎮營과 龍州에 있는 遊擊의 鎮營을 맞바꾸어 방어 체계의 효율성을 높인다. 둘째, 병력이 없어서 유명무실한 安綿道關堡에 정예병 천 명을 주둔시킨다. 셋째, 松茂兩路의 협력 방어 체계를 구축한다. 넷째, 石泉 등지에서 夷情에 밝고 믿을 만한 두세 사람을 골라서 通事로 발탁하여 冠帶月糧을 주고 조정의 恩威를 번인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긴다. 다섯째, 투항한 十八寨의 우두머리를 세워 통솔시켜 해마다 공물을 바치게 하고 소금과 배를 구입하는 것도 허락한다. 여섯째, 龍州의 西雙溪, 大魚關, 壕渠溝 세 곳은 番人들의 거주지로 통하는 중요한 길목이니 城堡를 증축하여 防守를 강화한다. 일곱째, 安綿路는 적과 마주치는 요충인데도 군사가 없으므로 成都等衛所에서 安綿을 방어한다. 여덟째, 귀순한 熟番을 鄉勇으로 모집하여 隄水, 曲山, 小壩, 綿壩에 천여 명을 주둔시키고 나머지는 石泉의 要地를 지키게 한다. 아홉째, 民快를 州縣에서 징발하면 도망자

가정 [황제]의 치세가 끝날 때까지 송반은 진수와 호령에 적임자를 얻었으므로 변경이 편안해졌다.

初，龍州薛文勝於洪武六年來降，命仍知龍州。既置松潘安撫司，命文勝爲安撫使。既置松州衛，仍以松潘爲龍州。宣德七年升龍州爲宣撫司，以土知州薛忠義爲宣撫使。龍州者，漢陰平道也。宋景定間，臨邛進士薛嚴來守是州，捍衛有功，得世襲。自文勝歸附，其部長李仁廣·王祥皆輸糧餉有功，亦得世襲。及宣德中，以征松潘功，升州爲宣撫使，仁廣爲副使，祥爲僉事，各統兵五百世守白馬·白草·木瓜番地。

당초에, 용주(龍州)의 설문승(薛文勝)이 홍무 6년(1373)에 귀순하였으므로 [황제가 그를] 그대로 용주 지주(知州)로 임명했다. 송반안무사를 설치하고서 설문승을 안무사로 삼도록 명하였다. 송주위(松州衛)를 설치하고서 예전처럼 송반을 용주로 하였다. 선덕 7년(1432)에, 용주를 선무사(宣撫司)로 승격시키고 토지주 설충의(薛忠義)를 선무사로 삼았다. 용주는 한 나라 때의 음평도(陰平道)였다. 송나라 경정(景定)<sup>377)</sup> 연간(1260~1264)에는 임공(臨邛)<sup>378)</sup>의 진사 설엄(薛嚴)이 이곳으로 와서 용주를 지키고, 방어에 공을 세웠으므로 세습하는 직을 얻었다. 설문승이 귀순한 이후로는 그의 부장(部長) 이인광(李仁廣)·왕상(王祥)도 모두 군량을 수송하는 데 공을 세워 역시 세습직을 얻었다. 선덕 연간(1426~1435)에는, 송반을 토벌한 공으로 주(州)를 선무사로 승격시키고 이인광을 부사(副使)로, 왕상을 첨사로 삼아 각각 5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대대로 백마(白馬)·백초(白草)·목과(木瓜)의 변인(番人) 땅을 지키게 하였다.

가 많으므로 土著의 壯丁을 모집하여 충당시킨다. 열 번째, 龍州宣撫司 土官 薛兆乾, 李蕃, 王枋은 대대로 나라의 은혜를 입었으므로 武備를 갖추어 지방을 안정시키고 靜州三長官司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순무의 지휘 하에 군사를 파견한다. 이상의 내용은 『世宗實錄』 卷324 嘉靖 26년 6월 庚子條에 기록되어 있다.

377) 景定: 南宋 理宗 趙昀의 연호이다.

378) 臨邛: 秦나라 때 처음 설치되었고, 治所는 지금의 四川省 邛崃에 두었다. 5胡16國의 하나인 成漢 시대 이후 폐지되었으나 西魏 廢帝 2년(553)에 다시 설치되었다. 唐·宋 시대에는 邛州의 治所가 여기에 설치되었다. 元 至元 21년(1284)에 邛州에 병합되었다. 소금과 철의 산지로 유명하였다.

至嘉靖四十四年，宣撫薛兆乾與副使李蕃相仇讐，兆乾率衆圍執蕃父子，毆殺之。撫按檄兵備僉事趙教勘其事。兆乾懼，與母陳氏及諸左右糾白草番衆數千人，分據各關隘拒命，絕松潘餉道。脅僉事王華，不從，屠其家。居民被焚掠者無算。是年春，與官軍戰，不利，求救於上下十八族番蠻，皆不應。兆乾率其家屬奔至石壩，官軍追及之，就擒。四十五年，兆乾伏誅，籍其家，母及其黨二十二人皆以同謀論斬，餘黨悉平。遂改龍州宣撫司爲龍安府，設立流官如馬湖，而割保寧之江油·成都之石泉二縣分隸之。

가정 44년(1565)에 이르러 선무[사] 설조건(薛兆乾)과 부사 이번(李蕃)이 원수가 되어 서로 잘못을 들추어내다가 설조건이 무리를 이끌고 이번 부자를 포위하여 사로잡아 때려죽였다. 무안(撫按)이 격문을 보내 병비첨사 조교(趙教)에게 그 사실을 조사하라고 명령하였다. 설조건이 두려워하여 어미 진씨(陳氏) 및 여러 좌우[의 친한 사람들]과 함께 백초(白草) 번인(番人) 무리 수천 명을 규합하여, 각 관애(關隘)를 나누어 점거하고 명령에 항거하며 송반의 군량 보급로를 끊었다. 첨사 왕화(王華)를 협박하였으나 따르지 않자 그 집안사람들을 모두 죽였다. 주민 중에 불살라지고 노략질당한 자가 무수하였다. 이해 봄에, 관군과 싸워 이기지 못하자 상하십팔족(上下十八族) 번만(番蠻)에게 구원을 요청하였으나 모두 응하지 않았다. 설조건이 집안사람들을 이끌고 도망하여 석패(石壩)에 이르렀는데, 관군이 추격하여 곧 사로잡았다. 가정 45년(1566)에, 설조건은 처형당하고 그 재산을 몰수당했으며, 그의 어미와 무리 22명이 모두 함께 모의한 죄로 참수형에 처해지자, 잔당이 모두 평정되었다. 마침내 용주선무사를 용안부(龍安府)로 고치고 마호부(馬湖府)와 같이 유관(流官)을 설치하였으며, 보녕(保寧)의 강유(江油)·성도(成都)의 석천(石泉) 2현을 떼어내어 이에 예속시켰다.

萬曆八年，雪山國師喇嘛等四十八寨，勾北邊部落爲寇，圍漳腊，守備張良賢破之。犯鎮虜，百戶杜世仁力戰，城得全，世仁死焉。又犯制台，良賢復擊之，追至思答弄，連戰大破之，火落赤之侄小王子死焉。十九年，巡按李化龍言：「松潘爲四川屏蔽，疊·茂爲松潘咽喉。番戎作梗，松潘力不能支，宜移四川總兵於松潘以備防禦。」是時疊·茂諸番衆糾結爲亂，鎮巡官率兵剿之，俘馘八百餘級，番寇亦斬其部長黑卜·白什等，

獻功贖罪。而松坪諸惡屯據大雪山頂，諸將卒搜討，亦有斬獲。以捷聞，遂設平武縣於龍安府。

만력 8년(1580)에, 설산(雪山)의 국사 라마 등 48채가 북변의 부락과 결탁하여 노략질하고 장석(漳腊)<sup>379</sup>을 포위하자 수비 장량현(張良賢)이 이들을 격파했다. [그들이] 진로(鎭虜)를 침범하자 백호(百戶) 두세인(杜世仁)이 힘껏 싸워 성이 온전할 수 있었으나 두세인은 전사했다. 또 제대(制台)를 침범하자 장량현이 다시 공격하고 추격하여 사답룡(思答弄)에 이르렀으며, 잇달아 싸울 때마다 크게 격파했는데 화락적(火落赤)의 조카 소왕자(小王子)가 전사했다. 만력 19년(1591)에 순안 이화룡(李化龍)<sup>380</sup>이 아뢰기를, “송반은 사천을 가리는 병풍이며 첩계(疊溪)·무주(茂州)는 송반의 목구멍입니다. 번인(番人)과 용인(戎人)들이 침범하여 소란을 피워 송반의 힘으로는 지탱할 수가 없으므로, 마땅히 사천의 총병을 송반으로 옮겨서 방비하도록 해야 합니다”고 하였다. 이때 첩계·무주의 여러 번인 무리들이 규합하여 반란을 일으키자 진순관(鎭巡官)이 병사를 이끌고 토벌하여 800여 명을 사로잡거나 베었으며, 반구(番寇)들도 또한 자신들의 부장(部長) 흑복(黑卜)·백십(白什) 등을 베고 공을 세워 속죄했다. 그러나 송평(松坪)의 악한 자들은 대설산(大雪山)<sup>381</sup> 꼭대기를 점거하여 주둔했는데, 여러 장수와 졸병들이 찾아내 토벌하였으며, 또한 베거나 사로잡았다. 승전 소식이 보고되자

379) 漳腊: 지금의 四川省 松潘縣 북쪽 20km 지점에 위치해 있다. 明初에는 潘州에 소속되었는데, 군대가 주둔하며 지키는 軍營이었다. 嘉靖 연간(1522~1566)에 城堡를 쌓고 關隘를 두어 군대를 통솔토록 했다. 清朝는 漳腊營으로 고쳐 遊擊을 주재시켰다.

380) 李化龍(1554~1611): 字는 于田, 號는 霖竇으로 北直隸 大名府 長垣縣 사람이다. 萬曆 2년(1574)에 進士가 되어 약관 20세에 嵩縣知縣으로 부임하였다. 南京工部主事로 승진한 뒤 右通政使를 거쳐 右僉都御史로 발탁되었다. 萬曆 22년(1594)에 遼東巡撫가 되어 크게 軍政을 정돈하고 여러 차례 몽골의 침입을 저지하였다. 다시 總督湖廣川桂軍務가 되어 楊應龍의 반란을 진압하였다. 후에 兵部尙書로 승진하여 少保가 추가되었고, 다시 工部右侍郎總理河工을 맡았다. 柱國이 더해져 少傅兼太子太保가 되었으나 임기 중에 病死하였다. 諡號는 襄毅였고, 少師로 追贈을 받았다가 다시 太師가 더해졌다.

381) 大雪山: 四川省 甘孜藏族自治州 내에 위치하며 大渡河와 雅魯江의 분수령으로 四川省 서부의 중요한 지리적 구획선이다. 大雪山의 서부는 藏族 거주지역이며 동부는 漢族과 藏族의 雜居지역이다. 남북으로 길이가 약 400km에 달하며 5,000m 이상의 높은 산이 많다. 大雪山의 서쪽 비탈은 대부분 완만한 고원이거나 산간분지로서 기후가 차가워 주민들은 대개 목축에 종사하고 있다. 동쪽 비탈은 높은 산과 협곡이 펼쳐진 험준한 지역으로 곳에 따라 농업, 임업, 목축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혼재하고 있다.

드디어 용안부에 평무현(平武縣)을 설치하였다.

松潘以孤城介絕域，寄一線饋運路於龍州，制守爲難。洪武時欲棄者數，以形勝扼險，不可罷，乃內修屯務，外輯羌戎，因俗拊循，擇人爲理，番衆相安者垂四十餘年。及宣德初，調兵啓釁，致動干戈，自是置鎮建牙，宿重兵以資彈壓，亦時服時叛。自漳臘以北卽爲大荒，斯籌邊者之所亟圖也。

송반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 끼어 있는 외로운 성으로, 용주에 한 가닥 군량 보급로를 의지하고 있어서 제어하고 지키기 어려웠다. [그래서] 홍무 연간(1368~1398)에 포기하고자 한 것이 여러 번이었으나, 그 형세가 주변을 누르는 험준한 요충지여서 버릴 수 없었으므로 안으로는 둔전을 일구고 밖으로는 강용(羌戎)과 화목하여 습속에 따라서 위무하고 적임자를 골라 다스리게 하니, 번인(番人) 무리들이 서로 편안한 지가 40여 년에 이르렀다. 선덕 초에 이르러 군대를 징발함으로써 분쟁이 시작되고 전쟁을 하게 되어, 이때부터 진을 설치하여 깃발을 세우고 많은 병사를 두어 탄압하였는데 때로는 복종하고 때로는 반역하였다. 장랍(漳臘)에서 그 이북은 큰 황무지인데 [이곳은] 변경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급하게 도모해야 할 곳이다.

### 天全六番招討司

천전육번초토사

天全，古氐羌地。五代孟蜀時，置碉門·黎·雅·長河西·魚通·寧遠六軍安撫司。宋因之，隸雅州。元置六安撫司，屬土番等處宣慰司，後改六番招討，又分置天全招討司。明初并爲天全六番招討司，隸四川都司。

천전(天全)<sup>382</sup>은 옛날 저족(氐族) 강족(羌族)의 땅이다. 오대(五代) 맹촉(孟蜀)<sup>383</sup> 때에

382) 天全六番: 天全土司라고도 하는데, 天全六番招討司가 정식 명칭이다. 天全縣은 지금의 四川省 雅安市

조문(碣門)·여(黎)·아(雅)·장하서(長河西)·어통(魚通)·영원(寧遠) 등 6군안무사(六軍安撫司)를 설치하였다. 송나라는 이를 계승하여 아주(雅州)<sup>384)</sup>에 예속시켰다. 원나라는 6안무

에 해당하는데, 天全六番은 天全, 漢源, 瀘定縣 沈村, 冷磧, 擦道, 宕州 등지의 6개 티베트계 부락을 뜻한다. 원래 嘉絨十八土司 중에 天全六番招討司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淸 雍正 연간(1723~1735)에 폐지되었다. 唐代 이래 중원과 교류가 있었으며 高土司가 始陽을 중심으로, 楊土司는 碣門을 중심으로 통치하였다. 元代에는 碣門黎雅等處安撫司를 두었다가 후에 六番招討司로 개칭하였다. 明 洪武 연간(1368~1398)에도 이를 따랐다. 淸 雍正 6년(1728)에 改土歸流에 따라 이 지역에 天全州를 설치하고, 高土司와 楊土司의 후예들을 江西省 南昌府 일대로 이주시켰다.

- 383) 孟蜀: 즉 後蜀(934~965)을 일컫는다. 5대10國 시기의 국가 중 하나로서 孟知祥(874~934)이 成都에서 건국하였기에 孟蜀이라고도 부른다. 전성기 때의 강역은 지금의 四川省 대부분, 甘肅省 동남부, 陝西省 남부, 湖北省 서부에 미쳤다. 965년 2대 皇帝인 孟昶(919~965) 시절에 北宋에 멸망당했다. 처음 皇帝 孟知祥은 字는 保胤이고, 邢台縣 사람으로, 원래 後唐 太祖인 李克用의 侄婿였다. 後唐 莊宗 李存勖은 孟知祥을 太原尹으로 임명하였는데, 同光 3년(925)에 前蜀을 멸망시키는 전쟁에 참전한 孟知祥이 큰 공을 세웠으므로 後唐에서 그를 西川節度使로 임명하였다. 이듬해 정월에 孟知祥이 成都로 부임하여 吏治를 정돈하고 가혹한 세금을 감면해주자 점차 境內가 안정되었다. 長興 3년(932)에 孟知祥이 東川節度使 董璋을 죽이고 東川 땅을 수중에 넣었다. 長興 4년(933년) 2월에는 蜀王으로 봉해졌고, 934년 1월에는 後唐의 내란을 틈타 成都에서 皇帝로 즉위하고 國號를 大蜀이라 했으며, 年號를 明德이라고 했다. 역사에서는 이를 後蜀이라 한다. 孟知祥은 帝位에 즉위한 지 일곱 달 만에 사망하였는데, 廟號를 高祖라 하였다. 그의 아들인 孟昶가 帝位를 계승하고 明德이라는 年號를 그대로 사용하다가 明德 5년(938)에 廣政으로 고쳤다. 契丹이 後晉을 멸망시켰을 때, 秦州(지금의 甘肅 秦安縣 북쪽), 成州(지금의 甘肅省 成縣), 階州(지금의 甘肅省 武都縣 동쪽)가 後蜀에 歸附하였다. 後蜀에서는 또 鳳州(지금의 陝西省 鳳縣 동쪽)를 공격하여 수중에 넣어 前蜀의 영역을 모두 회복하였다. 廣政 18년(955)에는 秦州, 成州, 階州, 鳳州가 後周에 점령되었다. 北宋 乾德 3년(965)에 宋에서 군사를 내어 蜀을 공격하자 後主 孟昶가 항복함으로써 後蜀은 멸망했고, 孟昶도 그해에 죽었다. 蜀의 땅은 풍요롭고 사방으로 산맥과 고원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孟知祥和 孟昶의 통치시기에 사회와 경제가 크게 발전하였다. 後主 孟昶는 芙蓉花를 좋아하여 成都 곳곳에 芙蓉을 심도록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成都는 芙蓉城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고 있다. 孟知祥의 墓는 成都 북쪽 교외 磨盤山 남쪽 기슭에 있는 和陵이다. 그의 묘는 남방에서는 드물게 북방 초원의 건축 양식을 따라서 만들어졌다. 墓道와 寶城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으며, 靑石을 쌓아 올려 축조했다. 墓道는 길이 12.5m이며 靑磚을 쌓아서 步梯를 만들었다. 墓門은 牌樓式의 석조건축인데 靑龍과 白虎를 부조해놓았다. 墓室 안쪽 양 벽에는 채색으로 남녀 宮人들을 그려놓았다. 묘실의穹窿은 원추형이고 묘실의 중앙은 主室인데, 그 위에는 커다란 돌로 만든 棺床이 놓여 있다. 棺床 사면에는 모두 용무늬와 力士를 새겨놓았는데, 이것은 五代時期의 뛰어난 조각품이다(『新五代史』 卷64 「後蜀世家」 4 및 『舊五代史』 卷136 「僭偽列傳」 3 참조).
- 384) 雅州: 지금의 四川省 雅安이다. 雅安은 長江 상류, 四川 분지의 서쪽 변두리에 위치하며, 동쪽으로는 成都와 접하고 서쪽으로는 甘孜와 접하며, 남쪽으로는 涼山과 북쪽으로는 阿壩와 접하고 있다. 川西의

사를 설치하고 토번등처선위사(土番等處宣慰司)에 예속시켰으며, 그 후에는 6번초토(六番招討)로 고치고, 또 천전초토사(天全招討司)를 분리하여 설치하였다. 명나라 초에는 이들을 합쳐서 천전6번초토사(天全六番招討司)로 삼아 사천도사에 예속시켰다.

洪武六年，天全六番招討使高英遣子敬嚴等來朝，貢方物。帝賜以文綺龍衣。以英爲正招討，楊藏卜爲副招討，秩從五品，每三歲入貢，賜予甚厚。二十一年，楊藏卜來朝，言茶戶向與西番貿易，歲收其課。近在官收買，額遂虧，乞從民便，許之。先是，高敬嚴襲招討使，偕楊藏卜奏請簡土民爲兵，以守邊境，詔許之。敬嚴等遂招選土民，教以戰陣，得馬步卒千餘人。至是藏卜來朝，奏其事，詔更天全六番招討司爲武職，令戍守邊界，控制西番。三十一年，帝諭左都督徐增壽曰：「曩因碉門拒長河西口，道路險隘，以致往來跋涉艱難，市馬數少。今聞有路自碉門出枯木任場徑抵長河西口，通雜道長官司，道路平坦，往來徑直，可卽檄所司開拓，以便往來。」

홍무 6년(1373)에, 천전6번초토사 고영(高英)이 아들 경엄(敬嚴) 등을 보내 내조하고 토산물을 바쳤다. 황제가 용무늬가 수놓인 비단 옷을 하사하였다. 고영을 정초토(正招討)로, 양장복(楊藏卜)을 부초토(副招討)로 삼았는데 품질은 종5품이었고, 3년에 한 번씩 진공하도록 했는데 하사하는 것이 무척 많았다. [홍무] 21년(1388)에 양장복이 내조하여 아뢰기를, [이전에는] 차를 재배하는 가구가 서쪽의 변인(番人)과 교역하였고 [관에서는] 해마다 세금을 걷었으나 근래에는 관에서 [차를] 사들이는데 그 액수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백성들에게 편하도록 처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하니, [황제가] 이를 허락하였다. 이에 앞서 고경엄이 초토사를 세습하고 양장복과 함께 상주하여 청하기를, 토민을 가려서 병사로 삼아 변경을 지키도록 하자고 하니, [황제가] 조서를 내려 이를 허락하였다. 고경엄 등이 드디어 토민을 모아 가려 뽑아서

咽喉이자 西藏의 門戶라고 칭해진다. 先秦時代에 이미 중앙정부의 관할 하에 들어갔고 前·後漢 시대의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 있다. 隋 仁壽 4년(604)에 州를 설치하였는데, 경내에 雅安山이 있었으므로 雅州라 칭했으며, 治所는 嚴道(지금의 雅安)에 두었다. 唐代에는 지금의 四川省 雅安, 名山, 榮經, 天全, 蘆山, 小金 일대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였다. 淸 雍正 7년(1729)에는 雅州를 雅州府로 승격시켰다. 이때부터 雅州府 관할 구역에는 雅安, 名山, 榮經, 蘆山, 淸溪 5縣과 天全州는 물론 打箭爐廳과 穆坪宣慰司를 포함하게 되었다.

싸우는 진법(陣法)을 가르쳐 마병과 보병 1,000여 명을 얻었다. 이에 이르러 양장복이 내조하여 그 일을 상주하니, [황제가] 조서를 내려 천전6번초토사를 무직(武職)으로 바꾸고 변경을 지키게 하여 서번(西番)을 제어하도록 하였다. 홍무 31년(1398)에 황제가 좌도독 서증수(徐增壽)<sup>385)</sup>에게 유지(諭旨)를 내려 이르기를, “이전에 조문(碣門)이 장하서(長河西)의 입구를 막으므로, 도로가 험하고 좁아 왕래하며 걸어나가기 어려워 말을 사고파는 것도 적었다. 이제 들으니 조문에서 고목임장을 나가 장하서 입구에 곧장 다다르며, 잡도장관사로 통하는 길이 있는데 평탄하고 왕래하기에 빠르며 곧게 뻗어 있다고 하니, 관련 관청에 격문을 보내 열고 확장시켜 왕래하기에 편하게 하라”고 하였다.

永樂二年，高敬讓來朝，并賀立皇太子，且遣其子虎入國子學，賜虎衣食等物。十年，敬讓遣子虎貢馬。初，虎入國學讀書，以丁母憂去，至是服闋還監，皇太子命禮部賜予如例。

영락 2년(1404)에 고경양(高敬讓)이 내조하여 황태자 책봉을 축하하였으며, 또 그 아들 고호(高虎)를 보내 국자감에 입학시키니, 고호에게 옷과 이불 등의 물품을 하사하였다. [영락] 10년(1412)에, 고경양이 그 아들 고호를 보내 말을 공물로 바쳤다. 일찍이 고호가 국자감에 입학하여 독서할 때 그 어미가 죽는 우환(丁母憂)<sup>386)</sup>을 당하여 돌아갔다가 이때에 이르러

385) 徐增壽(?~1402): 魏國公 徐達의 아들이자 徐輝祖의 아우이며, 永樂帝 朱棣의 妻男이다. 徐增壽는 蔭敘로 벼슬이 左都督에 이르렀다. 建文帝가 燕王 朱棣가 반란을 일으킬 것을 염려하며 일찍이 여러 차례 徐增壽에게 물었는데, 그는 “燕王과 先帝는 同氣로서 富貴가 이미 극에 달했는데, 어찌 반란을 일으키겠습니까?”라고 대답했다. 후에 燕王이 반란을 일으키자, 그는 여러 차례 남경의 허실을 살펴 燕王 측에 밀고하였는데, 燕王軍이 長江을 건너자 建文帝는 그를 추궁하고 죽였다. 燕王 朱棣가 즉위해서 그는 武陽侯로 追封되고 忠愍이라는 諡號가 내려졌다. 후에 定國公으로 進封되었다(『明史』卷125「徐增壽傳」 참조).

386) 丁憂: 朝廷 官員들의 부모가 사망했을 때, 어떤 관직에 있든지 喪事를 알게 된 그날로 즉시 祖籍으로 돌아가 27개월을 服喪하는 제도였다. 그 기간 동안 喪服을 입는 자는 부모의 무덤 곁에서 27개월 동안 먹고 지내고 잠자야 했으며, 술을 마시거나 씻거나 剃髮하거나 옷을 갈아입을 수가 없고 모든 오락활동을 중지해야 했다. 원래는 부모 혹은 조부모 등의 직계 尊長들의 喪事를 당한 일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후에는 官員들의 居喪을 지칭하는 말로 바뀌었다.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가 강제로 丁憂를 당한 자에게 계속 관직에 머물러 공무를 집행하도록 명령함으로써 服喪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奪情이

복상(服喪) 기한이 끝나 국자감으로 돌아오자, 황태자가 예부에 명하여 예제에 따라 하사하도록 하였다.

宣德五年，六番招討司奏：「舊額歲辦烏茶五萬斤，二年一次，運付碯門茶馬司易馬。今戶部令再辦芽茶二千二百斤，山深地瘠，艱於采辦，乞減其數。」帝令免烏茶只辦芽茶。十年命高鳳署天全六番招討司事。先是，敬讓以罪下獄死。至是，其子鳳乞襲父職。帝念其祖有撫綏功，命暫理招討事。正統四年命鳳襲。

선덕 5년(1430)에 6번초토사에서 상주하기를, “원래 정해진 액수는 해마다 오차(烏茶) 5만근을 만들어 2년에 한번 조문(碯門)의 차마사<sup>387)</sup>에 운반하여 말과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라 한다. 古代에 丁과 憂의 의미는 지금의 그것과는 달랐다. 『爾雅·釋詁』에는 ‘丁, 當也’라고 풀이하여 ‘만나다, 당하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尙書·說命上』에는 ‘憂, 居喪也’라고 풀이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대에 丁憂라는 말은 喪을 당하다, 喪을 만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丁憂의 기원은 漢代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漢末에는 丁憂를 당해 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일반적으로 행해졌다. 다만 당시의 丁憂에는 부모의 三年喪(실제로는 27개월)을 치르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자매가 사망하여 복상하는 것까지도 포함되었다. 唐代에 이르러서 이런 풍조가 점차 식었다. 宋代에는 太常禮院에서 이 일을 관장하여 官員으로서 父母喪을 당한 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보고하고 관직에서 물러나게 하였고 복상기간이 끝나면 복직을 허락했다. 만일 부모상을 당했는데도 이를 숨기고 관직에 계속 머물다 발각되면 처벌받았다. 명대에는 법률로서 부모상을 당했을 때만 관직을 떠나도록 규정하고 복상이 끝나면 복직하게 했다.

387) 茶馬司: 중국 내지의 차와 주변 민족의 말을 교환하던 일을 담당하던 宋·明·清 시대의 官署이다. 宋代에는 都大提舉茶馬司가 설치되어 川茶와 서북 소수민족의 馬匹과 교환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明代에는 洮(지금의 甘肅 臨潭)·秦(지금의 甘肅 天水)·河(지금의 甘肅 臨夏)·雅(四川 雅安) 등의 州에, 清代에는 陝西·甘肅에 모두 茶馬司를 설치하고 大使와 副使 등의 관직을 두었다. 淸初에는 陝서·감숙 두 省에 御史를 설치하고 말과 차를 교환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는데, 이를 茶馬御史라고 통칭하였다. 茶를 말과 바꾸는 것은 중국의 역대 왕조가 장기간에 걸쳐 행한 정책이었다. 서남(四川·雲南)의 茶 산지와 변경의 소수민족 거주지와 통하는 교통의 요지에 關卡을 설치하고 茶馬法을 제정하여 차로써 말을 바꾸는 직무를 전담하게 하였다. 변경의 소수민족들 입장에서는 馬匹을 가지고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필수품을 교환한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北宋 熙寧 연간(1068~1077)에 經略安撫使 王韶가 甘肅 臨洮 일대에서 대량의 戰馬가 필요하자 조정에서는 四川의 四路에 提舉茶馬司를 설립하고 차를 말과 교환하는 일을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했다. 또 陝서, 감숙, 사천 일대 여러 곳에 賣場과 買馬場을 설치하였다. 주변의 소수민족은 단지 官府와만 말과 차를 바꾸는 교역을 허락받았고 사사로

호부에서 명하기를 다시 아차(芽茶) 2,200근을 만들라고 하지만 산이 깊고 토질이 척박하여 채관하기가 어려우므로 그 수를 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하니 황제가 오차는 만들[어 말과 바꾸]지 말고 아차만 만들[어 말과 바꾸]라고 하였다. [선덕] 10년(1435)에 고봉(高鳳)에게 천전6번초토사의 일을 대리하도록 명하였다. 이에 앞서 고경양이 죄로 인해 옥에 갇혔다가 죽었다. 이때에 이르러 그 아들 고봉이 아버지의 직책을 세습하기를 청한 것이다. 황제는 그의 할아버지가 위무한 공적이 있음을 참작하여 잠정적으로 초토의 일을 대신하도록 명했다. 정통 4년(1399)에 고봉이 세습하도록 했다.

正德十五年，招討高文林父子稱兵亂，副招討楊世仁亦助惡。命四川撫按官討之。初，文林等與蘆山縣民爭田構釁，知縣處置失宜，致叛亂。逾年，討斬文林，擒其子繼恩，擇其宗人承襲。

정덕 15년(1520)에, 초토 고문림(高文林) 부자가 병사를 모아 반란을 일으키자 부초토 양세인(楊世仁)도 역시 악[행]을 도왔다. [황제]가 사천 무안관에게 이를 토벌하도록 명하였다. 당초에 고문림 등이 노산현 주민들과 토지를 다투면서 분쟁이 일었는데, 지현의 조치가 타당하지 못해 난이 일어나게 되었다. 해를 넘겨서 고문림을 토벌하여 베고 그 아들 계은(繼恩)을 사로잡고서, 친족을 골라서 그 자리를 이었다.

初，天全招討司治礪門城，元之礪門安撫司也，在雅州境。明初，宣慰余思聰·王德貴

이 매매하는 것은 금지당했다. 또 중국의 상인들도 소수민족들의 거주지로 들어가서 직접 차를 파는 것이 금지 당했다. 밀매하다가 발각되면 사형을 당하거나 3천 리 밖으로 充軍당하는 처벌을 받았다. 茶馬司의 관원으로서 밀매를 단속하지 못한 관원들도 治罪를 당했다. 이처럼 내지의 상인과 변경의 소수민족이 직접 접촉하여 거래하는 것을 차단한 목적은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 측 왕조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데 있었다. 즉, 역대 중국 왕조는 ‘以茶治邊’의 의도를 갖고 茶馬貿易을 추진한 것이다. 元朝에서는 몽골 말들을 자급자족하였으므로 차와 말을 교역할 필요가 없었으나 말을 자급자족하기가 어려웠던 明朝 清朝에는 모두 四川에 茶馬司를 설립하여 전문적으로 茶馬交易에 임하였다. 清朝 康熙 4년(1665)에 雲南 서부에 北勝州茶馬市를 증설하였다가 康熙 44년(1705)에는 곧 폐지하였다.

歸附，始降司爲州，設雅州千戶所，而設碉門百戶，近天全六番之界。又置茶課司以平互市。蓋其地爲南詔咽喉，三十六番朝貢出入之路。

당초에 천전초토사는 조문성(碉門城)을 다스렸는데, [조문성은] 원나라 때의 조문안무사였고 아주(雅州) 경내에 있었다. 명나라 초에 선위 여사충(余思聰)·왕덕귀(王德貴)가 귀순하자 처음으로 사(司)를 강등하여 주(州)로 삼았으며, 아주 천호소를 설치하고 또 조문 백호(百戶)를 두었는데 천전6번의 지경과 가까웠다. 또 차과사(茶課司)<sup>388)</sup>를 설치하여 공평하게 서로 매매하였다. 대개 그 땅은 남조(南詔)<sup>389)</sup>의 목구멍으로, 36번(番)이 조공할 때 드나드는 길이었다.

388) 茶課司: 茶 산지에 설치되어, 茶稅와 茶課 징수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元代에는 각지에 설치된 樵茶轉運司·樵茶提舉司 등의 기구에서 茶稅 징수를 담당했다. 明代에 들어와 처음으로 茶課司를 설치하고 茶稅와 茶課 징수를 전담했다. 洪武 4년(1371)에 戶部에서 陝西 漢中, 金州, 石泉, 漢陰, 平利, 西鄉 등지의 茶園 45頃과 茶 86만여 株, 四川의 巴茶를 재배하는 茶戶 315戶와 茶 238만여 株를 등록시키고, 官에서 10株당 1株, 주인이 없는 茶園은 군사들로 하여금 재배하고 채취하게 하여 10株 중 8株의 茶葉을 취하여 말과 바꾸자고 황제에게 상주하여 윤허를 받았다. 이에 각 茶產地에 茶課司가 설치되고 稅額이 결정되었다. 차 생산자는 茶戶라고 불렀는데, 호적상으로는 일반 民戶와 같이 府·州·縣官의 관할 하에 속해 있었다. 생산한 차의 일부는 歲課로써 조정에 바쳤지만, 나머지 茶에 대해서는 정부의 통제 하에서 상인에게 불하되어 판매되었다. 宋代 이후의 통상법에서는 引由制라는 것이 시행되었는데, 이것은 정부가 차의 판매 허가증인 茶引과 茶由를 차를 생산하는 지역에 발급하여 상인들에게 그 대가로 茶課를 납부토록 하여 차의 판매권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茶課라는 것은, 통상법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상인의 引由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 것이었으나 禁茶法이 시행되던 陝西·四川의 차 생산 지역에서는 차 생산자에게 매긴 官의 수매 할당액을 의미하는 것이었다(『明史』 卷80 「食貨志」 食貨4, 茶法 참조).

389) 南詔: 7세기 무렵 雲南 지방에서 티베트·미얀마어 계통의 민족이 세운 나라로 738년에 6詔를 통일하면서 唐을 위협할 정도로 강력한 왕국으로 성장하였지만, 902년 鄭買嗣의 반란으로 멸망하였다(649~902). 6詔는 蒙嶺·越析·施浪·遠賧·浪穹·蒙舍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詔는 部 혹은 長의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6詔 중에서 蒙舍詔는 가장 남쪽에 위치하여 南詔라고 불렸다. 649년에 티베트·미얀마계 부족인 烏의 細奴羅가 蒙舍詔를 일으켜 大蒙國을 세웠고, 唐과 독자적으로 修交하였다. 南詔는 大蒙國을 세운 細奴羅로부터 250여 년 동안 지속되었다. 南詔는 다양한 부족들이 연합해서 이루어진 국가로서 각 부족의 독립성이 강해 왕권이 제한되었다. 烏蠻이라고 불리는 티베트·미얀마어 계통의 종족이 지배층을 이루고 있었으며 白蠻이라고 불리는 종족을 융합해 나라를 구성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烏蠻은 지금의 彝族과, 白蠻은 白族이나 타이족 등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전국을 10賧, 6節度, 2都督區로 나누어 통치했으며, 8세기 이후에는 불교가 전래되어 지배층을 중심으로 불교

三十六番者，皆西南諸部落，洪武初，先後至京，授職賜印。立都指揮使二：曰烏斯藏，曰朵甘。爲宣慰司者三：曰朵甘，曰董卜韓胡，曰長河西魚通寧遠。爲招討司者六，爲萬戶府者四，爲千戶所者十七，是爲三十六種。或三年，或五年一朝貢，其道皆由雅州入，詳『西番傳』。

36번(番)은 모두 서남의 여러 부락으로, 홍무 초년에 선후로 경사(京師)에 이르러 관직을 제수받고 인을 하사받았다. 도지휘사 둘을 세웠는데 오사장(烏斯藏)<sup>390</sup>，타감(朵甘)<sup>391</sup>이라

문화가 화려하게 발달하였다.

390) 烏斯藏: 烏斯藏行都指揮使司를 일컫는다. 洪武 6년(1373)에 朵甘行都指揮使司와 함께 설치되었다. 明代에는 티베트를 烏斯藏이라고 칭했는데, 시대에 따라 吐蕃·西蕃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티베트의 지리적 범주는 좁은 개념의 티베트와 넓은 개념의 티베트로 나눌 수 있는데, 좁은 범위의 티베트는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 내의 티베트 자치구, 혹은 서장 자치구를 말하는 것이고, 넓은 범위의 티베트는 티베트 자치구 외에도 청해성 전역, 사천과 운남성의 서쪽 지역, 지금은 인도에 포함된 라다크(Ladakh) 지역 일대까지 포함하는 범위이다. 티베트의 지리적 환경을 보자면, 주변과 완벽히 격리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티베트 지역 자체가 기본적으로 3~4,000m의 고원지대이고 서쪽과 남쪽은 파미르고원과 히말라야산맥이 감싸안으면서 인도 지역과의 교통을 차단하고 있고, 북쪽은 崑崙산맥뿐만 아니라 타클라마칸사막과 天山산맥이 겹겹이 막아서서 초원지대와 교통을 막고 있다. 그나마 외부와의 교통이 유리한 지역은 청해성 지역과 사천·운남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티베트인의 거주지역은 위(Dbushan), 쟁(Tshang), 압도(A-mdo), 캄(Khams), 아리(Ngari) 등으로 구분되는데 위·쟁은 지금의 西藏 藏族自治區의 남부 야루장뽕(Yar klung gtsang po)강 유역의 남북을 이루는 티베트의 중심지역이다. 오사장은 이 위와 쟁을 이르는 말인데, 현재는 'dbus'가 '위'로 발음되지만 적어도 14세기 이전에는 '우스'로 발음되어 한문으로 전사할 때에도 '烏斯'로 기록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위는 야루장뽕강의 北岸 라사(Lasa) 일대를 이르는 말이며, 쟁은 南岸 시가체(Xigazê) 일대를 이르는 말이다. 오사장이라는 명칭은 원대 기록에 등장하기 시작하여 명대까지만 사용되다가, 청대에 들어가면 衛藏으로 표기가 바뀐다.

391) 朵甘: 朵甘行都指揮使司를 일컫는다. 洪武 2년(1369)에 태조가 陝西를 평정하고 관원을 보내 조서를 가지고 가서 초무하도록 했다. 또 員外郎 許允德을 보내 그 추장을 효유하였으며, 원나라의 옛 관원을 천거하여 경사에 보내도록 했다. 攝帝師 喃加巴藏卜 및 옛 國公 南哥思丹八亦監藏 등이 洪武 6년(1373) 봄에 입조하여 천거한 60명의 명단을 올렸다. 황제가 기뻐하며 朵甘行都指揮使司와 烏斯藏行都指揮使司를 설치했다. 朵甘은 도캄(mdo khams)의 음역이다. 도는 압도(a mdo)의 줄임말로, 지금의 청해성 일대를 의미하며 캄은 사천성 서부에 위치한 阿壩藏族自治州 등 티베트 동남부지역을 일컫는다. 따라서 도캄은 티베트고원의 동부지역에 남북으로 넓게 형성된 티베트계 민족의 거주지역을 일컫는다. 阿壩는 악와(ngawa)의 음차이며, 민국시대에 이 지역은 西康省으로 편제되기도

한다. 선위사는 셋이었는데 타감, 동북한호(董卜韓胡)<sup>392)</sup>, 장하서어통영원(長河西魚通寧遠)<sup>393)</sup>이라 한다. 초토사는 여섯, 만호부(萬戶府)가 넷, 천호소(千戶所)가 열일곱으로 36개 종족(種族)이다. 3년 혹은 5년에 한 번씩 조공하였고, 길은 모두 아주를 통과하였는데 [그 정황은] 『서번전』에 자세하다.

## 黎州安撫司

### 여주안무사

黎州，漢沈黎郡地。『史記』稱越巂以東北，君長以十數，笮都最大。自唐蒙通夜郎，邛·笮之君請爲內臣，因置笮都縣，復曰旄牛縣。元鼎中，以爲沈黎郡。唐割雅·巂二

했다.

- 392) 董卜韓胡: 董卜韓胡宣慰使司를 뜻한다. 董卜韓胡宣慰司는 四川 威州의 서쪽에 있으며 남쪽으로 天全六番과 접하고 있다. 永樂 9년(1411)에 추장 南葛이 사신을 보내 表를 받들고 입조하여, 방물을 바치고 答隆蒙·碉門의 두 招討가 접경 지역을 침입하여 노략질하고 도로를 막았으므로 토벌해줄 것을 청했다. 永樂帝는 출병을 원치 않아 칙서를 내려 위로하고 효유했으며, 매년 1貢을 하도록 하고 金印·冠帶를 사여하였다. 그리고 董卜韓胡宣慰使司를 설치하고 南葛을 宣慰使에 임명하였다.
- 393) 長河西魚通寧遠宣慰司: 長河西宣慰司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洪武 연간(1368~1398)에 打煎爐, 長河西 土官, 元나라 右丞 刺瓦蒙이 理問(行中書省의 官員) 高惟善을 보내 來朝하고 토산물을 바치자, 연회를 베풀어 상을 내리고 돌려보냈다. 洪武 16년(1383)에 刺瓦蒙이 다시 高惟善과 조카인 萬戶 若刺을 보내 공물을 바쳤다. 이에 明 太祖는 長河西等處軍民安撫司를 설치하도록 명하고 刺瓦蒙을 安撫使로 삼았으며, 文綺 48匹과 寶鈔 200錠을 하사했다. 洪武 30년(1397)에 長河西等處軍民安撫司를 長河西魚通寧遠宣慰司로 고쳤다. 長河西魚通寧遠宣慰司는 장강의 상류인 阿朮江의 긴 협곡 지역, 康定과 理塘縣 사이에 설치되었다. 長河西魚通寧遠宣慰使는 겐룽(rgyal rong, 嘉絨) 18개 土司 가운데 하나로, 흔히 이를 줄여서 明正土司라고 한다. 이는 특히, 四川省 甘孜藏族自治州에서 가장 중요한 4개 토사 중 하나였다. 甘孜州의 康定·瀘定·道孚·雅江·九龍·丹巴 등 지역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 아래에 土千戶 1명, 土百戶 48명을 두었는데, 그중 17명의 土百戶는 丹巴縣에 해당되었다. 참고로 겐룽(rgyal rong, 嘉絨) 18개 土司는 四川省 서부를 근거로 발전한 티베트계 土司집단으로 대략 清代부터 18개 토사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18개 토사는 다음과 같다. ①長河西·魚通·寧遠宣慰使, ②穆坪董卜韓胡宣慰司, ③巴底宣慰司, ④巴旺宣慰司, ⑤梭磨宣慰司, ⑥瓦寺宣慰司, ⑦綽斯甲宣慰司, ⑧革什札安撫司, ⑨促侵安撫司, ⑩贊拉安撫司, ⑪松崗安撫司, ⑫雜谷安撫使, ⑬沃日安撫使, ⑭魚通安撫使, ⑮冷邊長官司, ⑯沈邊長官司, ⑰黨坝長官司, ⑱卓克基長官司.

州置黎州。天寶初，改爲洪源郡，尋改漢源。宋屬成都路。元屬土番等處宣慰司。

여주(黎州)는 한나라 침려군(沈黎郡)의 땅이었다. 『사기(史記)』에, 월수(越巂)<sup>394</sup>의 동북에 위치하고 군장이 십여 명이며, 작도(笮都)<sup>395</sup>가 가장 크다고 하였다. 당몽이 야랑(夜郎)<sup>396</sup>을 통과한 이래 공(邛)·작(笮)의 군장이 신하가 되기를 청하였으므로 작도현을 설치하였고, 다시 모우현(旄牛縣)이라 하였다. 원정(元鼎)<sup>397</sup> 연간(전116~전111)에 침려군(沈黎

394) 越巂: 사천과 운남의 접경지대로 嶓水의 이름에서 기원한다. 漢 武帝 元鼎 6년(전111)에 越巂郡이 처음 두어졌고, 治所는 邛都縣(지금의 四川省 西昌市 동남)에 두었으나 뒤에 益州에 속했다. 魏·晉南北朝 시대 梁나라 때에 嶓州로 고쳤다. 隋·唐 시대에 이르러 越巂郡으로 회복했으나 곧 南詔에 속했다. 宋代에 와서 建昌府를 두었고, 元代에는 建昌, 麗江, 德昌, 會川, 姚安路 등을 포괄하였으며 雲南行省에 속했다. 明·清代를 거치면서 운남과 사천으로 분할되어 四川省 寧遠府와 雲南省 永北直隸廳, 麗江府가 두어졌다. 명대의 행정구역에서 越巂는 구체적으로 越巂軍民衛라고 하였다. 洪武 25년(1392)에 越巂軍民衛를 邛都州의 서남에 두고 四川都司에 속하게 하였으며, 2년 후인 1394년에 四川行都司에 속하게 했다. 越巂軍民衛 아래에 鎮西後千戶所(越巂衛 북쪽), 邛部長官司를 두었다.

395) 笮都: 이 지역에 대해서 司馬遷은 “自嶓以東北, 君長以什數, 徙笮都最大”라고 언급했다. 그 정확한 위치를 사마천이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嶓의 동북지역이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대체로 四川과 西藏의 경계 지역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다만 ‘徙’라는 명칭으로 미루어보아 고대 漢語에서 그 발음이 같았던 ‘斯榆’ 일대를 가리킨다는 주장이 존재하며, 일부 학자들은 ‘徙’라는 단어가 ‘嶓’의 다른 글자라고도 주장하고 있다(Yves Hervouet, 1964: 119). 한편 ‘笮’ 지역의 위치는 ‘徙’ 지역보다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전285~전275년 사이에 張若이란 인물이 笮 지역을 점령했는데, 이곳은 李冰이 四川省에 수리시설을 건설한 지역에 해당한다. 한편 『後漢書』 卷86 「南蠻西南夷列傳」에 따르면, 漢 武帝 당시 笮都郡을 설치했는데, 다시 元鼎 6년(전111)에 沈黎郡으로 되었으며, 天漢 4년(전97)에 四川省 서부 일대를 합병해서 都尉를 두었다는 설명이 나온다.

396) 夜郎: 戰國시기에 시작해서 前漢 成帝 河平 연간(전28~전25)까지 대략 300년간 존속했던 옛 나라 명칭이다. 위치는 현재 貴州省 서부와 북부, 그리고 雲南省 동북부 및 四川省 남부 일대에 있었다. 夷族·濮族·羌族 등을 모두 夜郎이라 통칭했으며, 현재 彝族·布依族·仡佬族 등은 이 夜郎國에서 연원했다. 司馬遷의 『史記』 卷116 「西南夷列傳」에 등장하는 “西南夷君長以什數, 夜郎最大”라는 문장으로 보아 중국 서남지역 일대에서 꽤 강력한 세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劉邦이 項羽와 내전을 치를 당시, 야랑 지역의 왕인 竹王 多同이 涿水(北盤江)에서 반란을 일으켰으며, 이 반란으로 秦나라가 이 일대에 설치한 행정조직이 와해되었다(Yves Hervouet, 1964: 79). 이 지역이 다시 중국의 행정조직에 편입된 시기는 武帝 建元 6년(전135) 武帝가 唐蒙을 파견해서 多同을 招撫하고 郡縣을 설치한 이후였다.

397) 元鼎: 漢 武帝 劉徹의 연호이다.

郡)이라 했다. 당나라는 아(雅)·월(徼) 두 주를 떼어내어 여주를 설치하였다. 천보(天寶)<sup>398)</sup> 연간(742~756) 초에 홍원군(洪源郡)으로 고쳤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원(漢源)으로 고쳤다. 송나라는 성도로(成都路)에 예속시켰다. 원나라는 토번등처선위사(土番等處宣慰司)에 예속시켰다.

洪武八年省漢源縣，置黎州長官司，以苟德爲長官。德，雲南人，馬姓。祖仕元，世襲邛部州六番招討使。明氏據蜀，德兄安復爲黎州招討使。明氏亡，蠻民潰散，德奉母還居邛部。至是，四川布政司招之，德遂來朝貢馬，請置長官司。詔以德爲黎州長官，賜印及衣服綺帛。十一年升爲黎州安撫司，卽以德爲使。十四年，德遣使貢馬。詔賜德鈔五十四錠·文綺七疋。自是，三年一入貢。弘治十四年命黎州安撫隸四川都司。

홍무 8년(1375)에, 한원현을 철폐하고 여주장관사를 설치하여, 작덕(苟德)을 장관으로 삼았다. 작덕은 운남인으로, 성(姓)은 마(馬)였다. 선조가 원나라에서 벼슬을 살아 공부주(邛部州) 육번초토사(六番招討使)를 세습하였다. 명씨(明氏)<sup>399)</sup>가 축을 점거하자 작덕의 형 작안

398) 天寶: 唐 玄宗 李隆基의 연호이다.

399) 明氏: 明玉珍(1331~1366)을 일컫는다. 元末 隨縣(지금의 湖北省 隨州) 사람이다. 농민출신이었는데 至正 11년(1351)에 西系 紅巾軍인 徐壽輝·彭瑩玉 등이 호북성 일대를 점령하고 天完政權을 수립하자 명옥진은 고향에서 鄉兵 천여 명을 모아 結寨自保하고 그 우두머리로 추대되었다. 至正 12년(1352)에 그는 무리를 이끌고 서수휘에게로 가서 統軍元帥의 직책을 받고 倪文俊의 통솔을 받으면서 호북성 沔陽 일대에 주둔했다. 이때 예문준은 명옥진에게 사천과 호북을 연결하는 三峽 일대에서 군량을 확보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그는 至正 15년(1355) 봄과 至正 17년(1357) 봄에 戰船을 이끌고 四川으로 가서 군량을 확보했다. 이때 사천의 지주무장 세력인 楊漢이 명옥진에게 와서 重慶에 주둔하는 元軍의 세력이 미약하니 攻取하라고 조언했다. 이에 그는 至正 17년(1357) 가을에 戰船을 동원하여 호북에서 사천으로 진군하자 重慶에 주둔했던 元軍은 도주했다. 군대를 단속하여 重慶 지배층의 지지를 얻은 그는 이곳을 자신의 거점으로 삼았다. 1360년 봄에 西系 홍건군 내부에서 심각한 內訌이 발생하여 陳友諒이 서수휘를 죽이고 漢帝를 자칭하고 명옥진에게 사천에서 군대를 철수시켜 자신이 建康(南京)의 朱元璋을 공격하는 것을 돕도록 요구했다. 이후 명옥진은 진우량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그가 황제를 칭한다면 나도 어찌 황제가 될 수 없겠는가”라면서 隴蜀王으로 자칭하다가 1363년에 大夏政權을 수립하고 天統이라는 年號를 개원했다. 하지만 그는 天統 4년(1366)에 病死했고, 廟號는 太祖이다. 명옥진은 시종일관 홍건군의 입장을 견지하였으며, 역사상 사천에 터전을 두었던 농민반란 지도자

(苟安)이 다시 여주초토사가 되었다. 명씨가 망하고 만민(蠻民)들이 흩어지자 작덕은 어미를 모시고 공부(邱部)로 돌아와 살았다. 이때에 이르러 사천포정사에서 초무하자 작덕이 드디어 내조하여 말을 공물로 바치면서 장관사를 설치해주기를 청하였다. [황제가] 조서를 내려 작덕을 여주장관으로 삼고 관인과 의복, 기백<sup>400</sup>)을 하사하였다. [홍무] 11년(1378)에는 여주안무사로 승격시키고 작덕을 안무사로 삼았다. [홍무] 14년(1381)에 작덕이 사신을 보내 말을 공물로 바쳤다. [황제가] 조서를 내려 작덕에게 보초 54정(錠)·문기(文綺) 7필을 하사하게 했다. 이때부터 3년에 한 번 입조하여 공물을 바쳤다. 홍치 14년(1501)에 여주안무[사]를 사천도사에 예속시키라고 명하였다.

萬曆十九年，安撫馬祥無後，妻瞿氏掌司事，取瞿姓子撫之，將有他志。祥侄土舍居松坪者，遂興兵攻城，奪印，番衆乘機剽掠。時參將吳文傑方有征東之役，移師剿平之。二十四年降黎州安撫司爲千戶所，立所治於司南三十里大田山壩。分上七枝編戶，屬大渡河千戶所，下七枝仍屬松坪馬氏約束。松坪在司之東南，自炒米城直接峨眉，高山峻阪三百餘里，皆安撫族人居之。

만력 19년(1591)에, 안무[사] 마상(馬祥)이 후사가 없자 처 구씨(瞿氏)가 [안무]사의 일을 관장하고, 구[씨]성의 [양]자를 들여 기르면서 다른 뜻을 품었다. 마상의 조카이자 토사(土舍)로서 송평(松坪)에 거주하던 자가 드디어 군사를 일으켜 성을 공격하고 [관]인을 빼앗자,

가운데 걸출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1982년 3월 重慶市博物館에서 重慶市 江北區 上橫街 重慶織布廠 施工工事場에서 6백여 년 동안 매몰되어 있었던 明玉珍의 墓(睿陵)을 발굴하였다. 이때 玄宮之碑를 비롯한 진귀한 유물들이 많이 출토되어 大夏政權의 실체를 연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玄宮之碑에는 明玉珍의 生年과 埋葬시기, 大夏政權 수립 시기와 지역, 정확한 재위 기간 등에 관해 기록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碑文 가운데는 明玉珍이 稱王·稱帝하기 이전에 역임했던 관직은 물론 대하정권의 官制에 대한 기록도 담겨 있어서 문헌 기록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있다. 明玉珍이 병사하자 그 아들 明昇이 즉위하여 제위에 올라, 開熙 연호를 사용하다가 明軍이 사천으로 진격하자 洪武 4년(1471)에 주원장에게 항복함으로써 大夏 정권은 9년 만에 자취를 감추었다. 明昇은 1372년(고려 공민왕 21)에 어머니 彭氏와 고려에 귀화했는데, 공민왕은 그에게 松都에 살게 하면서 연안현·백천현에서 생산되는 物産을 주어 생활하게 하였다. 明昇은 한국 明氏의 조상이 되었다(全淳東, 2007: 191~218). 400) 綺帛: 무늬를 넣어 짠 비단을 가리킨다.

번인(番人) 무리들이 이 틈을 타서 사납게 노략질하였다. 이때 참장 오문걸(吳文傑)이 마침 정동지역(征東之役)에 참전하려 했는데, 군사를 옮겨 이들을 토벌하고 평정하였다. [만력] 24년(1596)에 여주안무사를 강등시켜 천호소로 삼고, 그 치소(治所)를 안무사 남쪽 30리 대전산패(大田山壩)에 두었다. 위쪽 7개 지파를 나누어 호로 편성하고 대도하(大渡河) 천호소에 소속시키고, 아래쪽 7개 지파는 그대로 송평의 마씨가 단속하게 했다. 송평은 [안무]사의 동남에 있는데 초미성(炒米城)에서 바로 아미(峨眉)와 접했으며, 높은 산과 험준한 비탈이 3백여 리에 걸쳐 뻗어 있는데 모두 안무의 친족들이 거주하였다.

黎·雅諸蠻，宋時屢爲邊患。明興，以諸蠻皆天全六番諸部，散居於二州之境，遂於黎州設安撫，於天全六番設招討，以示羈縻。而雅州所屬，與招討所轄之蠻民，境土相連，時有爭訟。徼外大·小木瓜種分三枝，膩乃卜最強，世居西河。初屬馬湖土官安氏鈐轄，自馬湖改流，諸瓜叛入邛部，歸嶺氏。其地自西河至涼山·雪山諸處，周圍蟠據。嘉靖末，諸瓜畜牧蕃盛，時窺邊，邛部長官嶺柏不能制，嘉·峨·犍爲諸邊皆爲侵擾。鎮巡官督邛部兵捕之，瓜兵益熾，乃議大征，分建昌·越嶲·馬湖三路兵進討。瓜部始惶駭請降，願歲貢馬方物，乃定。其地四千八百四十餘畝，徵糧四百四十餘石，輸峨眉縣。

여(黎)·아(雅)의 여러 만족(蠻族)들은 송대에 여러 차례 변경의 우환거리가 되었다. 명(明)이 일어날 무렵에 여러 만족들은 모두 천전6번의 여러 부에 [속하여] 여·아 2주의 경내에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드디어 [명에서] 여주에 안무사를 설치하고 천전6번에는 초토사를 설치하여 기미(羈縻)[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아주에 소속된 [만민]은 초토사가 관할하는 만민(蠻民)과 토지가 서로 닿아 있었으므로 때때로 다투고 소송하였다. 새외(塞外)의 대목과종(大木瓜種)·소목과종(小木瓜種)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내복(膩乃卜)이 가장 강해 대대로 서하(西河)에 거주했다. 처음에는 마호 토관 안씨(安氏)에 소속되어 통제받았으나, 마호 토관이 유관(流官)으로 바뀐 후에는 여러 과종(瓜種)들이 반란을 일으켜 공부(邛部)로 들어가 영씨(嶺氏)에 귀순하였다. 그 땅은 서하(西河)에서 양산(涼山)·설산(雪山)의 여러 곳까지 이르는데, [과종들은] 사방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근거로 삼았다. 가정 말년에 여러 과종들은 목축하며 번성하여 때때로 변경을 엿보았는데, 공부(邛部)의 장관 영백(嶺柏)이

제어할 수가 없었으므로 가(嘉)·아(峨)·견위(犍爲)의 여러 변경이 모두 침략을 당해 어지러워졌다. 진순관(鎭巡官)이 공부(郾部)의 병사를 이끌고 그들을 사로잡았으나 과종들의 병사는 더욱 강성해졌으므로, 곧 대규모 토벌을 논의하게 되어 건창(建昌)·월수(越巂)·마호(馬湖) 세 갈래로 병사를 나누어 진격하여 토벌하였다. 과(瓜)부족은 비로소 두려워하고 놀라 항복하기를 청하고 해마다 말과 토산물을 바치기 원하므로, 곧 [반란이] 평정되었다. 그 경작지는 4,840여 무(畝)이고 세량으로 징수하는 것은 440여 석인데, 아미현(峨眉縣)으로 운반하여 납부하였다.

明初與安撫司同置者，有大渡河守禦千戶所。唐時，河平廣可通漕，戍將一不守，則黎·雅·邛·嘉·成都皆動搖。宋建隆三年，王全斌平蜀，以圖來上。議者欲因兵威復越巂，藝祖以玉斧畫圖曰：「外此，吾不有也。」自是之後，河中流忽陷下五六十丈，水至此，洶湧如空中落，船筏不通，名爲噎口，殆天設險以限內外云。

명나라 초에 안무사와 함께 설치된 것으로 대도하(大渡河) 수어천호소(守禦千戶所)<sup>401)</sup>가 있다. 당나라 때에는 대도하가 평탄하고 넓어서 배가 다닐 수 있었으므로, 수비하는 장수가 한번이라도 지키지 못하면 곧 여(黎)·아(雅)·공(邛)·가(嘉)·성도(成都) 등지가 모두 동요하였다. 송나라 건륭(建隆)<sup>402)</sup> 3년(962)에 왕전빈(王全斌)<sup>403)</sup>이 축을 평정하고 지도를 바쳤

401) 守禦千戶所: 簡稱하여 守禦所라고 한다. 明의 軍制의 하나로 洪武 23년(1390)에 전국에 衛所制度가 설립되었다. 각 省의 都指揮使司의 관할 하에 몇 개의 衛가 설치되고, 그 밑에 일정한 千戶所와 百戶所가 설치되었는데, 이들 천호소 가운데 어느 한곳에 단독으로 주둔하여 직접 都指揮使司가 관할하는 千戶所를 守禦千戶所라 부른다.

402) 建隆: 960년에서 963년까지 宋 太祖 趙匡胤이 사용한 北宋 최초의 연호이다.

403) 王全斌(908~976): 五代에서 北宋 초에 이르는 기간에 활약한 武將이다. 并州 太原(지금의 山西省 太原市) 사람이다. 後唐 때에 郭從謙이 兵變을 일으켜 宮城을 공격하자 後唐 莊宗의 近臣과 宿將들이 모두 도주하였으나 王全斌을 비롯한 10여 명은 결사적으로 저항하였다. 混戰 중에 莊宗은 화살에 맞아 사망하고 明宗이 즉위해서 王全斌을 禁軍列校로 임명하였다. 後晉 초에 그는 전공을 세워 護聖指揮使로 승진하고, 後周에서는 右廂都指揮使, 行營馬步都校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으며, 後周의 世宗을 따라 淮南 평정에 참여하기도 했다. 宋初 建隆 원년(960)에 李筠起가 군사를 일으켜 宋에 저항하자 王全斌은 慕容延釗와 함께 군대를 이끌고나가서 이들을 평정하는 데 큰 공을 세워 安國軍節度使로 승진하였다. 建隆 4년(963)에는 洺州防禦使 郭進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北漢을 공격하여 수천 명을

다.<sup>404)</sup> 논의하던 자들이 병사들의 위세를 의지하여 다시 월수(越雋)를 회복하려 하자 예조(藝祖)<sup>405)</sup>가 옥도끼로 지도에 금을 그으면서 이르기를, “이 바깥은 내가 가지지 않는다”고 하였

포로로 잡고 樂平을 점령하였다. 乾德 2년(964) 겨울에 宋太祖는 그를 西川行營前軍部署로 삼아 그에게 禁軍 步騎 2만과 諸州兵 1만을 주어 鳳州路로부터 後蜀을 공격하도록 명령했다. 그는 興州(지금의 陝西 略陽)을 공격하여 後蜀軍 7천을 물리치고 軍糧 40여만斛을 얻었으며, 또 진격하여 20여寨를 잇달아 점령했다. 後蜀軍은 棧道를 불태우고 葭萌으로 퇴각하였다. 王全斌은 棧道를 보수하고 군사를 나누어 진격하여 後蜀軍을 크게 무찌르고 利州(지금의 四川省 廣元)를 점령하고 軍糧 80만斛을 손에 넣었다. 이듬해에 後蜀軍이 사천 북부의 門戶인 劍門(지금의 四川 劍閣 동북)으로 물러가 험준한 지세에 의지하여 수비하자 그는 劍門의 전면과 측면을 공략하여 점령하고 後蜀軍 만여 명을 죽였다. 그의 군대가 魏城(四川省 綿陽 동북)에 이르자 後蜀主 孟昶는 乾德 3년(965) 정월에 投降했다. 宋軍은 46州, 240縣, 534,029戶를 얻었다. 王全斌은 趙宋 王朝의 통일 과정에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王全斌은 成都에 진입한 후에 밤낮으로 잔치를 베풀고 군사를 풀어 재물을 약탈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다. 그의 部將 王繼濤는 後蜀主 孟昶를 汴京으로 압송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이를 틈타 宮人들을 겁탈하고 金帛을 빼앗았으며 軍士들은 商人들의 재물을 빼앗았다. 당시 宋朝는 蜀을 신속하게 안정시키기 위하여 王全斌에게 後蜀의 投降軍을 京城으로 압송하되 한 사람당 錢 十千文을 주거나 두 달 치의 식량을 주도록 했으나 王全斌은 멋대로 그 수를 감했다. 이에 격분한 후촉의 투항군들은 兵變을 일으켜 이전의 後蜀 將帥 全師雄을 우두머리로 추대하고 興國軍이라 칭하고서 10만여 명을 모았다. 王全斌은 부하 劉光緒에게 騎兵 700을 주어 招撫하게 하였는데, 劉光緒는 도리어 全師雄의 일족을 모두 죽였다. 全師雄은 군사를 이끌고 彭州를 공격하여 都監 李德榮을 죽이자 成都 주변의 10개 縣에서 군사를 일으켜 호응하였다. 全師雄은 興蜀大王으로 자칭하고 군사를 나누어 灌口, 新繁, 青城 등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하고 宋軍과 싸워 연전연승하자 成都, 鄧, 蜀, 眉, 雅, 東川, 果, 遂, 渝, 合, 資, 簡, 昌, 普, 戎, 榮, 陵 등 17州가 그에 동참하였다. 당시 成都 城 안에는 2만여 명의 後蜀 投降兵이 있었는데, 王全斌은 그들이 내용하여 반란을 일으킬까 염려하여 모두 죽였다. 이에 各地의 兵變은 더욱 격렬해져 2년이 지난 후에야 宋은 가까스로 後蜀을 장악할 수 있었다. 乾德 5년(967)에 王全斌은, 後蜀을 점령했을 때의 범한 과오 때문에 처벌당했다. 하지만 宋太祖는 그의 戰功을 참작하여 贓物을 반환시키고 崇義軍節度使觀察留後로 강등시켜 隨州에 安置하는 정도로 처벌을 끝냈다. 開寶 9년(976)에 宋이 南唐을 멸망시키고 江南을 통일하자 宋太祖는 王全斌을 불러서 “朕이 江左를 아직 평정하지 못했을 때는 南征하는 여러 장수들이 기을을 지키지 않을까 염려하였으므로 卿을 여러 해 동안 억류하여 朕을 위한 법의 권위를 세웠소. 이제 이미 金陵(지금의 南京)을 점령했으니 卿에게 節鉞을 돌려주는 바이요”라면서 武寧軍節度の 관직을 제수하고 많은 銀錢과 비단을 하사하였다. 그해 6월에 王全斌은 69세로 사망하였다.

404) 後蜀이 망한 때는 建隆 3년(962)이 아니라 乾德 3년(965)이었다.

405) 藝祖: 歷朝의 開國皇帝를 일컫는 말이다. 여기서는 宋太祖 趙匡胤(927~976)을 의미한다. 趙匡胤은 涿州(지금의 河北省) 사람이다. 武人 家庭에서 태어나 948년에 後漢 樞密使 郭威의 幕下에 투신하여 여러 차례 戰功을 세웠다. 951년에 郭威가 稱帝하고 後周를 건국하고서 趙匡胤을 禁軍 軍官으로 발탁

다. 이때 이후로 강물 가운데가 갑자기 5·60장(丈)이나 꺼지고 물이 여기에 이르러 용솟음치는 것이 마치 공중에서 떨어지는 것 같고 배와 뗏목이 다닐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일구(噎口)라 불렀으니, 대개 하늘이 험지를 설치하여 안과 밖의 경계를 나눈 것이라고 하였다.

했다. 後周 世宗 때에는 殿前都點檢으로 승임했다. 趙匡胤은 960년에 鎮州와 定州에서 契丹이 北漢과 연합하여 대거 南侵한다는 거짓 보고를 올리게 하고, 이를 막는다는 구실로 군사를 이끌고 출정하여 兵變을 일으켰다. 결국 정변에 성공하여 稱帝하고 宋을 건국하여 開封에 도읍을 정하였다. 이후 천하를 통일하였는데, 재위하는 동안 中央集權을 강화하고 文人政治를 제창하여 宋에 文治主義 기풍을 진작 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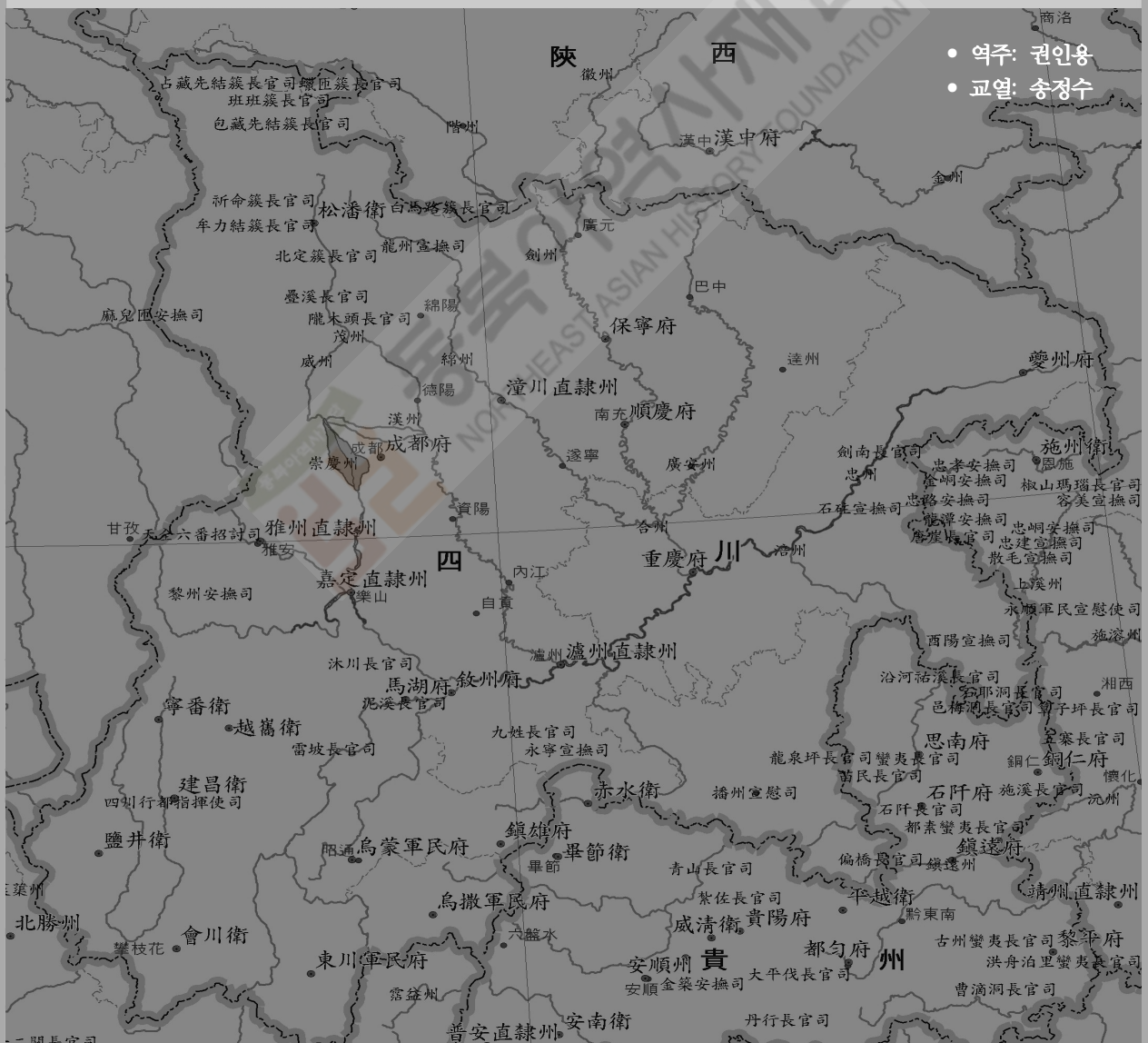
## | 참고문헌 |

- 국사편찬위원회, 『中國正史朝鮮傳譯注』, 서울: 신서원, 2004
- 동북아역사재단 편, 『譯註 中國正史 外國傳(1~15)』,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9~2012
- 朴元燾 등 역, 『명사 식화지 역주』, 서울: 소명출판, 2008
- 谷應泰, 『明史紀事本末』, 臺灣: 商務印書館, 1956
- 馬刺非, 『土官底簿』, 臺北: 文淵閣四庫全書本, 1983
- 徐弘祖, 『徐霞客游記』,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2
- 薛福成, 『庸盦筆記』, 南京: 江蘇人民出版社, 1983
- 申時行 等 修, 『明會典』(萬曆朝重修本), 北京: 中華書局, 1989
- 王佐, 『新增格古要論』(上·下), 北京: 中國書店, 1987
- 程大位, 『算法統宗』, 上海: 江東書局印行, 1912
- 『明實錄』, 臺北: 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 校引本, 1965~1966
- 二十五史, 北京: 中華書局, 1959~1977
- 『中國茶葉歷史資料選輯』, 北京: 農業出版社, 1981
- 『資治通鑑』, 北京: 中華書局, 1978
- 吳金成, 『中國近世社會經濟史研究－明代紳士層의 形成과 社會經濟的 役割』, 서울: 一潮閣, 1986
- 유인선, 『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 서울: 이산출판사, 2002
- 이준갑, 『중국사천사회연구 1644~1911: 개발과 지역질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서울: 역사비평사, 1999
- 윤태하 저, 박원호 역, 『주원장전』, 서울: 지식산업사, 2003
- 미야자키 이치사다 지음, 이근명 옮김, 『중국의 시험지옥－과거』, 서울: 청년사, 1989
- 龔蔭, 『中國土司制度』, 昆明: 雲南民族出版社, 1992
- 余貽澤 等, 『明代土司制度』, 臺北: 學生書局, 1968
- 陳世松 主編, 『四川通史』 第五冊, 成都: 四川大學出版社, 1993
- 佐藤長, 『チベット歴史地理研究』, 東京: 岩波書店, 1978
- Ch'u T'ung-tsu, *Local Government in China under the Ch'ing*,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2

- Harrell, S., ed., *Cultural Encounters on China's Ethnic Frontiers*, Seattle & London, 1995
- Harrell, S., ed., *Perspectives on the Yi of Southwest China*, Berkeley, Los Angeles &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1
- Harrell, S., *Ways of Being Ethnic in Southwest China*, Seattle & Lond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1
- Nicola Di Cosmo and Don J. Wyatt, ed., *Political Frontiers, Ethnic Boundaries, and Human Geographies in Chinese History*, London & New York, 2003
- Quincy, K., *Hmong, History of a People*, Cheney: Eastern Washington University Press, 1988
- Schein, L., *Minority Rules, The Miao and the Feminine in China's Cultural Politics*, Durham &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00
- Scott, J. C., *The Art of Not Being Governed: An Anarchist History of Upland Southeast Asia*, Yale University Press, 2010
- Wiens, H. J., *Han Chinese Expansion in South China*, New Haven, 1954
- 金弘吉, 「明代の 목재 採辦과 삼림-四川의 皇木조달을 중심으로」, 『(江陵大學校)人文學報』 29, 2000
- 全淳東, 「明玉珍의 大夏政權과 그 性格」, 『中國史研究』 46, 2007
- 全淳東, 「明初 宦官의 外交活動 實態와 그 性格」, 『中國史研究』 77, 2012
- 鄭惠仲, 「明·清 중국과 조선사행의 지적교류」, 『東洋史學研究』 111輯, 2010
- 한승현, 「지방행정」, 『명·청시대 사회경제사』, 서울: 이산출판사, 2007
- 屈川, 「川南“都掌蠻”反明斗争考述」, 『民族研究』, 1984-4
- 鄒立波, 「明代前期川西北“族姓”, 邊政與宗教關係」, 『西南民族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2012-5
- 譚其驤 主編, 『中國歷史地圖集』(7冊), 香港: 三聯書店有限公司, 1992
- 戴逸 總主編, 鄭秦 主編, 『二十六史大辭典』 典章制度卷,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1993
- 史爲樂 主編, 『中國歷史地名大辭典』,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5
- 徐連達 主編, 『中國歷代官制詞典』, 合肥: 安徽教育出版社, 1991
- 臧勵酥 等 編, 『中國古今地名大辭典』, 臺北: 商務印書館, 1931
- 東京大東洋史辭典編纂會, 『新編東洋史辭典』, 東京: 創元社, 1980
- 下中邦彦 編, 『アジア歴史事典』, 東京: 平凡社, 1962



## 명사(明史) 권312 사천토사(四川土司) 2





# 「파주선위사·영녕선무사·유양선무사·석주선무사전(播州宣慰司·永寧宣撫司·酉陽宣撫司·石砮宣撫司傳)」 해제

『명사』 권312 「토사전」 사천토사2는 파주선위사(播州宣慰司)와 영녕(永寧), 유양(酉陽) 및 석주(石柱)의 세 선무사(宣撫司)를 다루고 있다. 이상의 네 곳은 모두 명대 사천성(四川省)의 동남지역에 해당하는데, 대체적으로 파주선위사가 중앙에 놓여 있고, 영녕선무사가 그 서쪽에, 유양선무사가 그 동북쪽에, 석주선무사는 유양선무사 바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다만 이 가운데 파주선위사 관할 지역은 청(淸) 옹정(雍正) 5년(1727)에 사천성에서 귀주성(貴州省)으로 편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사천토사2는,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귀주성 북부와 사천성 동남부 일대에 설치된 토사가 그 대상이 된다.

이들 지역은 묘족(苗族) 등 여러 ‘만족(蠻族)’이 주로 터전을 잡고 생활하던 곳 가운데 하나였다. 명 중양정부는 명초에 이미 이곳에 토사를 두어 사실상의 자치를 허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토사는 각 지역의 대소와 환경의 차이를 감안하여 차등 있게 설치하였는데, 그 등급이 가장 높은 것이 선위사이고, 그 다음이 선무사이며, 그 밑으로 초토사(招討司), 안무사(安撫司), 장관사(長官司) 등이 두어졌다. 그런데 위 네 곳 가운데 파주에는 선위사, 영녕과 유양 및 석주에는 각각 선무사라는 토사가 설치되었음이 주목된다. 따라서 기본적인 체제의 차이라는 점을 착안해볼 때, 사천토사를 취급하는 본전에서 중점적으로 그리고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서술하고 있는 곳이, 비록 청대 이후 귀주성으로 귀속되었더라도, 유일하게 선위사가 설치된 파주 지역임은 일견으로도 자연스럽다.

그런데 파주는 실제 명조의 역사에서도 다른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영향을 끼친 곳이었다. 그 단적인 사례가 이곳에서 발발한 ‘양응룡(楊應龍)의 반란’이다. 이 ‘반란’

이 이른바 만력삼대정(萬曆三大征) 가운데 하나임은 주지하는 바이다. 즉, 장거정(張居正) 개혁의 성과로 모처럼 재건된 국가재정이 16세기 후반의 막바지에 다시 적자로 전락된 위기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보바이의 반란’과 ‘임진왜란(壬辰倭亂)’의 뒤를 이어 파주의 토관(土官) 양응룡의 반란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던 것도 바로 이때였다. 명조가 이 반란 등을 진압하는데 국력을 소모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것이 결국 왕조의 운명을 재촉하는 결과를 초래했음은 유명한 일이다. 본전에서 양응룡의 반란을 가장 큰 비중을 두어 서술하고 있음은 그런 점에서 당연하기도 하다.

한편 파주는 중국 현대사의 전개에서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곳이기도 하다. 일찍이 만력(萬曆) 29년(1601)에 명 중앙정부는 개토귀류(改土歸流)를 적용하여 파주 선위사를 준의부(遵義府)로 개칭하였다. 파주는 준의(遵義)의 옛 이름이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준의회의(遵義會議)’가 열린 곳이 파주였다. ‘대장정(大長征)’ 중이었던 1935년 1월 15일 바로 이곳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상무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가 열렸다. 이 준의회의에서 모택동(毛澤東)이 당시 당 중앙의 군사전략을 비판하면서 당의 지도권을 획득하는 계기로 삼았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결국 준의는 20세기 중국혁명사의 국면이 전환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곳이기도 하였다.

본권에서 파주선위사에 대한 서술은 전체 분량의 약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대강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파주라는 지명은 당(唐) 정관(貞觀) 13년(639)부터 만력 28년(1600)까지 모두 961년 동안 사용되었다. 명대에는 선위사(宣慰使)를 세습한 양씨(楊氏)가 사실상 장악하였다. 양씨의 시천조(始遷祖)는 양단(楊端)인데, 당 건부(建符) 3년(876) 파주로 이주했다. 원(元) 세조(世祖) 쿠빌라이는 그 후손 양방헌(楊邦憲)에게 선위사를 제수하였다. 촉(蜀)이 평정된 홍무(洪武) 4년(1371)에는 명 조정에 귀부(歸附)하였다. 이후 만력 연간까지 조공사절을 파견하였다. 초기에는 선위사가 직접 부경(赴京)하였으나 후에는 점차 안무사 등의 속관을 대신 파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는 중앙 정부에 대한 원심력이 갈수록 커지는 것을 의미했다.

특히 15세기 후반의 성화(成化) 연간에 내분이 발발하면서 파주선위사와 명조의 관계가 점차 긴장국면에 돌입하였다. 즉, 양휘(楊輝)의 적장자 양애(楊愛)와 그 서형(庶兄) 양우(楊友) 사이에 벌어진 분쟁에 명조는 군사적 개입을 강행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선위사는 양애가 승계하게 되었다. 한편 양우는 그 휘하의 안녕선무사(安寧宣撫司)를 맡았는데, 후에 개리안무

사(凱里安撫司)로 바뀌어 귀주로 귀속되었다. 파주선위사는 양애의 후손인 양빈(楊斌), 양상(楊相), 양렬(楊烈) 등으로 이어졌는데, 모두 적자와 서자의 상호 분쟁이 반복되었고, 그 분쟁 과정과 귀결에 명조가 개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양측의 파국은 만력 원년(1573)에 양렬의 아들 양응룡이 선위사 직을 승계하면서 시작되었다. 물론 14년(1586)에는 양응룡이 양질의 대형 목재를 공물로 바치고 도지휘사(都指揮使)의 직함을 받기도 했지만, 우호적인 관계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18년(1590)에 귀주순무와 순안이 연속으로 양응룡의 죄를 상주하였고, 19년(1591)에 양응룡은 반란을 일으켰다. 양응룡은 이듬해(1592)에 중경(重慶)에서 치죄되어 참수 대신 2만금의 속죄를 청하였는데, 마침 임진왜란이 일어나 군사 동원을 자청하여 결국 석방되었다. 출정 길에 올랐지만 중도에 어명으로 중지되었다. 21년(1593)에 명조는 항명하는 양응룡을 응징하기 위하여 공격에 나섰지만, 반격을 받아 패배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27년(1599) 총독 이화룡(李化龍)과 순무 곽자장(郭子章)은 조선(朝鮮)에서 막 돌아온 유정(劉綎), 마귀(麻貴), 진린(陳璘), 동일원(董一元) 등을 동원하여 총공세를 펼쳤다. 결국 다음 해(1600) 6월 4일에 양응룡이 자살함으로써 29대 800여 년 동안의 양씨(楊氏) 패권시대가 종언을 고하였다. 본권에서는 이 양응룡의 반란에 대하여 그 발단부터 진압에 이르는 전 과정이 세밀하면서도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다. 특히 그 반란의 구체적인 양상과 진압에 대한 서술의 정도는 오히려 『명실록(明實錄)』의 수준을 뛰어넘을 정도이다.

본권에서 두 번째로 다루고 있는 곳은 영녕선무사이다. 영녕은 사천에서 운남(雲南)과 귀주(貴州)로 이어지는 요충지였다. 이곳은 원대에 이미 선무사가 설치되었는데, 홍무 4년(1371)에 축이 평정되면서 명정(明廷)에 귀부하여 위(衛)가 두어졌다. 6년(1373)에 서쪽의筠連州 일대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한 뒤 명 조정은 이곳을 서주(敘州)로 편입시켰다. 7년(1374)에는 영녕의 군민안무사(軍民安撫司)를 선무사로 승격시켜 이듬해(1375)에 녹조(祿照)를 선무사(宣撫使)로 임명하였다. 녹조의 아들 아섭(阿攝)이 죽은 뒤인 선덕(宣德) 연간부터 그 처인 사소(奢蘇)가 직위를 계승하였는데, 이후 사씨(奢氏)가 토사를 장악하였다. 성화(成化) 원년(1465)에 도장(都掌)의 만족(蠻族)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명의 군사적 개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오살(烏撒), 오몽(烏蒙), 수서(水西), 점익(霑益), 진웅(鎮雄) 등이 개토귀류(改土歸流)되었다. 천계(天啓) 원년(1621)에는 사숭명(奢崇明)이 모반을 꾀하여 요동(遼東) 원조 군대 파견을 자청한 뒤 출정 도중에 반란을 일으켰다. 사숭명은 중경을

점거하고 성도(成都)를 포위하는 등 한때 기세를 올렸지만, 반격을 받았다. 특히 석주(石砮)의 토사 여관(女官) 진량옥(秦良玉) 등의 활약으로 전세가 역전되어 명은 중경을 수복하였다. 숭정(崇禎) 연간에는 사승명이 피살되면서 수십 년간에 걸친 반란이 종식되었다.

세 번째로 서술되고 있는 곳은 유양선무사이다. 유양 지역은 중경, 호북(湖北), 호남(湖南), 귀주 등 4개 성시(省市)의 접경지대에 위치한다. 원대(元代)부터 염씨(冉氏)가 토사를 세습하였다. 원대와 명옥진(明玉珍) 정권에서 선위사가 두어졌던 이곳은 명 홍무 5년(1372)에 주(州)가 설치되었다가 8년(1375)에 선무사로 바뀌었다. 이후 천계 원년(1621)에 이르러 비로소 선위사로 승격되었다. 따라서 명대에는 기본적으로 선무사 체제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만력 46년(1618)에는 유양의 군대 4,000명을 징발하였는데, 이들은 요양(遼陽)과 심양(瀋陽)에서 전공을 세웠고, 혼하(渾河)의 패전에서 희생자가 속출하였다. 이러한 전공과 희생이 이후 선위사로 승격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천계 2년(1622)에는 영녕선무사의 사승명 반란 진압에 구원병을 보내기도 하는 등 이후에도 유양 토사는 명 조정의 군사작전에 적극적인 협력 자세를 취하는 등의 내용이 본권에 주로 소개되고 있다.

마지막은 석주선무사이다. 석주는 원대에 선무사, 명옥진 정권에서 안무사였다. 홍무 7년(1374)에 마극용(馬克用)이 방물을 바치자, 다음 해(1375)에 선무사로 바뀌었다. 이후 천계 원년(1621)에 선위사로 승격되었다. 따라서 앞의 유양선무사와 마찬가지로 석주는 명대에 기본적으로 선무사 체제였다. 석주선무사는 마씨(馬氏)가 승계하였는데, 만력 22년(1594)에 여성 토관 담씨(覃氏)가 선무사를 맡았다. 마침 파주에서 양응룡의 반란이 일어나자 그 인친(姻親)이었던 담씨가 차자인 마천사(馬千駟)와 함께 반란에 가담하였다. 반면에 장자인 마천승(馬千乘)은 유양선무사와 함께 양응룡 토벌에 나섰다. 천승 사후에는 그의 처 진량옥이 계승하여 양응룡 반란을 진압하는 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고, 그 공로 덕택에 석주는 선위사로 승격되었다. 한편 진량옥은 중국 역사상 여성으로서 유일하게 정사(正史)의 장상(將相) 열전에 입전(立傳)된 인물이기 때문에 보다 상세한 이해를 위해서는 본 토사전 외에 해당 개인 열전을 필히 참고해야 함은 당연하다.

# 「파주선위사·영녕선무사·유양선무사·석주선무사전(播州宣慰司·永寧宣撫司·酉陽宣撫司·石砮宣撫司傳)」 역주

## 播州宣慰司

### 파주선위사

遵義府卽播州。秦爲夜郎且蘭地。漢屬牂牁。唐貞觀中，改播州。乾符初，南詔陷播，太原楊端應募復其城，爲播人所懷服，歷五代，子孫世有其地。宋大觀中，楊文貴納土，置遵義軍。元世祖授楊邦憲宣慰使，賜其子漢英名賽因不花，封播國公。

준의부(遵義府)<sup>1)</sup>가 곧 파주(播州)<sup>2)</sup>이다. 진(秦)나라 때에는 야랑(夜郎)<sup>3)</sup>의 차란(且蘭)<sup>4)</sup>

1) 遵義府: 萬曆 29년(1601)에 改土歸流하여 遵義府를 설치하고 四川省에 귀속시켰다. 淸 雍正 5년(1727)에 遵義府를 四川省에서 貴州省으로 바꾸어 귀속시켰다. 府治는 지금의 貴州省 遵義市이다.

2) 播州: 唐 貞觀 9년(635)에 隋朝의 牂牁郡 북부지역에 郎州를 두어 恭水·高山·貢山·柯盈·邪施·釋燕 등의 6縣을 관할토록 한 바 있다. 13년(639)에는 郎州의 6縣 지역에 播州를 설치했는데, 이때부터 播州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였다. 播州는 明 萬曆 28년(1600)에 이르기까지 961년 동안 존속하였다. 한편 唐 貞觀 14년(640)에 播州의 恭本縣을 羅蒙으로 바꾸고, 16년(642)에 羅蒙을 遵義縣으로 바꾸었는데, 이것이 역사상 遵義라는 이름이 처음 시작된 유래가 된다. 唐代 遵義縣의 縣治 소재지는 오늘날 綏陽縣 경내에 위치한다. 天寶 원년(742)에 播州를 播川郡으로 바꾸었다. 唐朝는 西南邊疆의 소수민족지구에 널리 羈縻州를 설치하여, 비록 州縣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刺史와 縣令은 모두 부락의 주장이나 군대의 수령으로 충당하니, 唐 朝廷에 대하여 이반과 복종이 반복되어 일정치 않았고, 그 내부의 행정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3) 夜郎: 戰國 시대에 시작해서 西漢 成帝 河平 연간(전28~전25)까지 대략 300년간 존속했던 옛 나라의

지역이었다. 한(漢)나라 때에는 장가(牂牁)<sup>5)</sup>에 속했다. 당(唐)나라 정관(貞觀) 연간(627~649)<sup>6)</sup>에 파주로 고쳤다. 건부(乾符) 초<sup>7)</sup>에 남조(南詔)<sup>8)</sup>가 파주를 함락시켰는데, 태원(太原)<sup>9)</sup>의 양단(楊端)<sup>10)</sup>이 [당(唐) 희종(僖宗)의] 초모(招募)에 응하여 그 성(城)을 수복하

명칭이다. 위치는 지금의 貴州省 서부와 북부, 그리고 雲南省 동북부 및 四川 남부 일대에 있었다. 夷族·濮族·羌族 등을 모두 야랑이라 통칭했으며, 현재 彝族·布依族·仡佬族 등은 이 야랑국에서 연원했다. 司馬遷의 『史記』 卷116 「西南夷列傳」에 등장하는 “西南夷君長以什數, 夜郎最大”라는 문장으로 보아 서남지역 일대에서 꽤 강력한 세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劉邦이 項羽와 내전을 치를 당시, 야랑 지역의 왕인 竹王 多同이 涿水(北盤江)에서 반란을 일으켰으며, 이 반란으로 秦나라가 이 일대에 설치한 행정조직이 와해되었다(Yves Hervouet, 1964: 79 참조). 이 지역이 다시 중국 행정조직에 편입된 시기는 武帝 建元 6년(전135) 무제가 唐蒙을 파견해서 다동을 招撫하고 郡縣을 설치한 이후였다. 한편 夜郎古國은 기원전 122년 西漢의 使者가 滇國에 파견되었는데, 滇王이 그 사신에게 “漢과 우리나라 가운데 어디가 더 大國인가?”라고 물었다는 데서 유래된 ‘夜郎自大’의 고사로도 유명하다.

- 4) 且蘭: 전국시대부터 漢初까지 존속한 옛 나라를 가리킨다. 오늘날 貴州의 都勻·福泉·黃平·貴定 등 市縣 일대에 해당한다. 西漢 元鼎 6년(전111)에 南越을 정벌하고 且蘭의 군주를 죽인 뒤 牂牁郡을 두었다.
- 5) 牂牁: 漢 武帝 元鼎 6년(전111)에 牂牁郡을 처음으로 설치하였다. 위치는 오늘날 貴州省의 대부분 및 廣西와 雲南의 일부 지역에 해당하는데, 郡治는 且蘭(대략 오늘날 貴州의 福泉縣 일대)에 두었다.
- 6) 貞觀 13년(639)의 일이다. 이에 대해서는 주 2) 참조.
- 7) 建符 3년(876)에 해당한다. 한편 建符는 唐 僖宗의 첫 번째 연호로서 874년에서 879년까지 사용하였다.
- 8) 南詔: 7세기 무렵 雲南 지방에서 티베트·미얀마어 계통의 민족이 세운 나라로서 738년에 6詔를 통일하면서 唐을 위협할 정도로 강력한 왕국으로 성장하였지만, 902년 鄭買嗣의 반란으로 멸망하였다(649~902). 6詔는 蒙巂·越析·施浪·遠賧·浪穹·蒙舍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詔는 部 혹은 長의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6詔 중에서 蒙舍詔는 가장 남쪽에 위치하여 南詔라고 불렸다. 649년 티베트·미얀마계 부족인 烏의 細奴羅가 蒙舍詔를 일으켜 大蒙國을 세웠고, 唐과 독자적으로 수교하였다. 南詔는 大蒙國을 세운 細奴羅로부터 250여 년 동안 지속되었다. 南詔는 다양한 부족들이 연합해서 이루어진 국가로서 각 부족의 독립성이 강해 왕권이 제한되었다. 烏蠻이라고 불리는 티베트·미얀마어 계통의 종족이 지배층을 이루고 있었으며 白蠻이라고 불리는 종족을 융합해 나라를 구성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烏蠻은 오늘날의 彝族과, 白蠻은 白族이나 타이족 등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전국을 10賧, 6節度, 2都督區로 나누어 통치했으며, 8세기 이후에는 불교가 전래되어 지배층을 중심으로 불교문화가 화려하게 발달하였다.
- 9) 太原: 山西省의 省都로서 汾河가 흐르고 삼면으로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自古로 ‘錦繡太原城’이라 불렸다. 별칭은 并州, 古稱은 晉陽 혹은 龍城이라 한다.
- 10) 楊端: 그의 선조는 太原 출신이다. 당시 紹興의 지방관이 되어 현지에서 명망이 있는 大姓이 되었는데, 후에 長安에 기거하다가 建符 3년(876)에 군대를 거느리고 播州에 들어가 南詔를 정벌하였다. 이로부터 楊端은 播州로 들어간 楊氏의 始遷祖가 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遵義縣 경내의 楊氏 종족 대부분은 스스로를 그의 후예로 자임하고 있다. 한편 楊端은 朱全忠이 唐朝를 멸망시키고 後梁을 세웠다는 소식을

니, 파주 사람들에게 그리움과 경복(敬服)의 대상이 되어, 오대(五代)<sup>11)</sup>를 거처도록 그 자손이 대대로 그 땅을 용유(擁有)하였다.<sup>12)</sup> 송(宋)나라 대관(大觀)<sup>13)</sup> 연간(1107~1110)에 양문귀(楊文貴)<sup>14)</sup>가 그 땅을 바치자 준의군(遵義軍)<sup>15)</sup>을 설치하였다. 원(元)나라 세조(世祖, 1215~1294; 재위 1260~1294)<sup>16)</sup>가 양방헌(楊邦憲)<sup>17)</sup>에게 선위사(宣慰使)<sup>18)</sup>를 제수<sup>19)</sup>하였

들은 뒤,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病死하였다고 한다. 宋 開禧 연간(1205~1207)에 南宋 조정에서 太師로追封되었다.

- 11) 五代: 五代十國 시대의 약칭이다. 唐朝의 멸망 이후 中原 지역에는 연속적으로 後梁·後唐·後晉·後漢·後周의 5개 왕조와 西蜀·江南·嶺南 및 河東 등지에서 할거하는 10여 개 정권이 출현하였는데, 이를 五代十國이라 부른다. 따라서 五代는 唐과 宋 사이에 존속했던 특수한 역사시기이자 대분열의 시기였다.
- 12) 楊端이 播州를 공략한 뒤, 唐 僖宗이 楊端에게 파주의 땅을 세습토록 했는데, 실제로는 그 후손에게 파주에서 屯兵, 開發, 鎮守하는 책임을 부여한 것일 뿐이다. 이를 관직을 세습토록 한 것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後周 顯德 2년(959) 播州刺史는 馬全義였다. 즉 파주의 지방장관을 楊端의 자손이 맡은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 13) 大觀: 北宋 徽宗의 세 번째 연호이다.
- 14) 楊文貴: 北宋 播州 출신으로 토착의 수령이었다. 大觀 2년(1108)에 숙부 楊光榮과 함께 다투어 땅을 바치고 宋朝에 來附하니, 송 조정에서는 그 땅에 遵義軍과 遵義縣을 설치하였다.
- 15) 遵義軍: 北宋 大觀 2년(1108)에 처음 설치했는데, 宣和 연간(1119~1125)에 폐지하여 峽로 삼았다가 開禧 연간(1205~1207)에 다시 軍으로 회복시켰지만, 嘉定 연간(1208~1224)에 다시 폐지하였다.
- 16) 世祖: 몽골 제국의 제5대 칸이자 元朝의 始祖인 쿠빌라이(忽必烈)의 廟號이다. 칭기스칸의 손자이자 툄루이의 넷째 아들이기도 하다. 1251년에 형 몽케가 제4대 칸의 자리에 오르자, 그는 漠南의 漢地의 사무를 총괄하는 大總督에 임명되었다. 이 시기에 그는 漢族 幕僚와 儒士, 예를 들면 劉秉忠·許衡·姚樞 등을 대거 요직에 기용하였다. 1253년에는 고비사막 남쪽의 金蓮川을 근거지로 삼고 오늘날 雲南 지역에 상당하는 大理國을 멸망시켰으며, 티베트와 베트남까지 공격하였다. 1256년 南宋이 몽골의 使者를 억류시키고 있으니, 이를 응징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 몽케가 南宋에 대한 선전포고를 단행하였다. 하지만 1258년 가을에 大軍을 이끌고 四川 북부를 공격하던 몽케가 1259년에 병영에서 병사하고 말았다. 1260년 쿠빌라이는 國都 카라코룸을 지키고 있던 막내 동생 아릭 부케보다 먼저 중국의 開平府(=上都)에서 대칸(大汗)의 자리에 올랐다. 그 뒤로 양자가 싸우기를 4년, 마침내 아릭 부케를 굴복시킨 쿠빌라이는 도읍을 大都(오늘날의 北京)로 옮기고, 1271년에는 국호를 大元이라 칭하였다. 이후 1276년 臨安(지금의 杭州)을 함락시켜 南宋을 멸망시키고, 1279년에는 南宋 잔여 세력의 마지막 저항을 진압함으로써 이민족 정권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국 전역을 지배하에 두었다. 至元 31년(1294) 쿠빌라이는 재위 35년, 향년 80세로 생애를 마감하였다.
- 17) 楊邦憲(?~1283): 字는 仲武이며, 播州 사람이다. 播州 沿邊의 安撫使 楊文의 아들인데, 宋 度宗 咸淳 원년(1265)에 楊文이 사망하자, 楊邦憲이 파주의 權柄을 계승하였다. 元 至元 12년(1275)에 元 世祖가 사신을 보내어 楊邦憲에게 內附하도록 하자 이에 응하였다. 이에 至元 15년(1278)에 入朝하니, 예전의 관직을 승계하도록 했고, 아울러 龍虎衛上將軍, 侍衛親軍都指揮使 및 紹慶·珍州·南平等處沿邊宣撫使,

고, 그 아들 양한영(楊漢英)<sup>20)</sup>에게 새인불화(賽因不花)라는 이름을 하사하고,<sup>21)</sup> [사후(死後)에] 파국공(播國公)으로 봉하였다.<sup>22)</sup>

洪武四年平蜀，遣使諭之。五年，播州宣慰使楊鏗・同知羅琛・總管何嬰・蠻夷總管鄭瑚等，相率來歸，貢方物，納元所授金牌・銀印・銅章。詔賜鏗衣幣，仍置播州宣慰使

播州管内安撫使를 拜受하였으며, 至元 18년(1281)에 宣慰司로 승진시켰다. 至元 20년(1283)에 사망하였다.

18) 宣慰使: 唐 憲宗이 淄青節度使 李師道를 평정한 뒤 淄青 12州에 宣慰使를 두었지만 常制는 아니었다. 元朝가 宣慰使司를 설치하였는데, 宣慰使都元帥府 혹은 宣慰使兼管軍萬戶府라 칭하였고, 軍民의 사무를 관장하며 道를 나누어 郡縣을 관할하였다. 郡縣의 요청을 대신 行省에 전달하고, 行省의 政令을 郡縣에 전달함으로써 行省과 郡縣 사이의 承傳機關이 되었다. 沿邊 지구에 軍旅大事가 발생하면 都元帥府 혹은 元帥府를 겸하거나 管軍萬戶府를 겸하였다. 明代에 소수민족 지구에서는 土官을 기용하였으나, 元代에는 대개 流官으로 임명하였다. 宣慰使司에 宣慰使는 모두 3명이었는데, 官秩은 從二品이었다. 한편 明代에는 宣慰使가 1명으로서 官秩은 從三品이었다. 이상에 대해서는 黃開華, 1968: 34~35 참조.

19) 至元 18년(1281)의 일이다. 이에 대해서는 주 17) 참조.

20) 楊漢英(1276~1318): 字는 熙載이다. 元代 播州 楊氏 제17대 土司이다. 관할 지역은 오늘날 貴州 遵義 일대이다. 부친 楊邦憲이 元朝에 귀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病死하였는데, 당시(1283) 楊漢英의 나이는 5세였기 때문에 비록 播州安撫使를 계승했지만 모친인 田氏가 대신 權柄을 관장하였다. 至元 23년(1287) 9세의 楊漢英은 모친과 함께 大都에 이르러 世祖 쿠빌라이를 알현하였다. 쿠빌라이는 그의 충명함에 기뻐하면서 ‘國器’라 칭찬하며 부친의 官爵을 하사하도록 명하였다. 이에 龍虎衛上將軍으로 봉하고 金虎符를 주었으며, 播州軍民安撫使 및 紹慶・珍州・南平等處沿邊宣慰使로 임명하고, 아울러 賽因不花라는 이름을 하사하고, 金銀・絲綢・寶馬・弓箭 등을 주어 돌아가도록 하였다. 이듬해(1288) 모친이 族中の 仇人에게 살해되자, 楊漢英은 大都에 이르러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쿠빌라이는 범인을 체포하여 참수토록 하였다. 11세의 楊漢英은 이에 親政을 시작하였다. 至元 27년(1291)에 쿠빌라이가 行省郡縣制를 실시함에 播州의 인근 土司들이 반발하였지만 楊漢英만은 元朝에 순응하였다. 쿠빌라이는 크게 기뻐하며 播州管軍萬戶를 加封하였다. 이듬해(1292) 大都에 이르러 元朝에 귀순한 이래 播州의 事宜를 上奏하자 쿠빌라이는 이를 가상히 여겨 播州安撫使를 宣撫使로 승격시키면서 楊漢英을 播州軍民宣撫使로 발탁하였다. 仁宗 延祐 5년(1318)에 楊漢英은 思州宣慰使 田茂忠과 연합하여 蠻部의 반란을 진압하던 중 軍中에서 병사하였는데, 당시 나이가 겨우 42세였다. 생전의 공적을 감안하여 元 조정에서는 播國公으로 追封하였다.

21) 至元 23년(1287)의 일이다. 이에 대해서는 주 20) 참조.

22) 이에 대해서는 주 20) 참조.

司, 鏗·琛皆仍舊職. 領安撫司二, 曰草塘, 曰黃平; 長官司六, 曰眞州, 曰播州, 曰餘慶, 曰白泥, 曰容山, 曰重安. 以嬰等爲長官. 七年, 中書省奏: 「播州土地旣入版圖, 當收其貢賦, 歲納糧二千五百石爲軍儲.」 帝以其率先來歸, 田稅隨所入, 不必以額. 已, 復置播州黃平宣撫司. 播州江渡蠻黃安作亂, 貴州衛指揮張岱討平之. 八年, 鏗遣其弟錡來貢, 賜衣幣. 自是, 每三歲一入貢. 十四年遣使齎諭鏗: 「比聞爾聽浮言, 生疑貳. 今大軍南征, 多用戰騎, 宜率兵二萬·馬三千爲先鋒, 庶表爾誠.」 十五年城播州沙溪, 以官兵一千人·土兵二千人戍之. 改播州宣慰司隸貴州, 改黃平衛爲千戶所. 十七年, 鏗子震卒於京, 命有司歸其喪. 二十年征鏗入朝, 貢馬十匹. 帝諭以守土保身之道, 賜鈔五百錠. 二十一年, 播州宣慰使司并所屬宣撫司官, 各遣其子來朝, 請入太學, 帝敕國子監官善訓導之.

홍무(洪武)<sup>23)</sup> 4년(1371)에 촉(蜀)을 평정하고 사자(使者)를 보내어 효유(曉諭)하였다. [홍무] 5년(1372)에, 파주 선위사 양견(楊鏗)<sup>24)</sup>·동지(同知)<sup>25)</sup> 나침(羅琛)·총관(總管) 하영(何嬰)·만이총관(蠻夷總管) 정호(鄭瑚) 등이 서로 연이어 와서 귀순하며 방물(方物)<sup>26)</sup>을 바쳤고, 원나라에서 수여한 금패(金牌)<sup>27)</sup>·은인(銀印)<sup>28)</sup>·동장(銅章)<sup>29)</sup>을 반납하였다. [이에] 조

23) 洪武: 明朝를 창업한 太祖 朱元璋의 年號이다. 한편 明 太祖 이래로 1世 1元, 즉 한 황제가 하나의 연호만을 제정하여 사용하는 제도가 확립되어 관례화하였다. 明·淸 시대 중국의 황제는 하나의 연호만을 제정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던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明朝의 英宗만이 正統(1336~1449)과 天順(1457~1464)이라는 두 개의 연호를 사용한 바 있다.

24) 楊鏗: 洪武 5년(1372)에 明朝에 귀순한 뒤, 예전대로 파주선위사를 담당하였다. 洪武 14년(1381)에 명을 받아 播州의 보병 2만 명과 기병 3천 명을 거느리고 明朝의 南征將軍 傅友德을 도와 雲南을 공략했고, 이듬해(1382)에 播州城을 쌓아 官兵 1천 명과 土兵 2천 명으로 지키도록 하였다. 후에 楊氏 자제들을 入京시켜 國子監에서 修學하도록 하였다.

25) 同知: 관직명으로 知府의 副職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正五品이었다. 각 府에 둔 同知의 정원은 없었고, 지방의 鹽·식량·도둑체포·河工·軍籍 정리·水利를 담당하였고, 또한 내지와 변경의 백성들을 按撫하는 일도 맡았다. 知州의 副職인 경우에는 從六品이었고 역시 정원은 없었으며, 州同知라고 불렀다.

26) 方物: 지방 특산물을 말한다.

27) 金牌: 元朝聖旨金牌를 가리킨다. 元代 이전의 唐, 宋, 遼, 金朝 모두 金屬의 聖旨牌를 사용했는데, 주로 使臣 혹은 巡視官員 등에게 그 신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금속 聖旨牌의 원재료와 형상의 차이는 소지자의 신분과 지위의 상이를 반영한다. 황금으로 만든 聖旨牌는 황제가 내리는 최고위급에

서(詔書)<sup>30)</sup>를 내려 양견에게 의복과 비단을 하사하고, 예전대로 파주선위사사(播州宣慰使司)를 두어 양견과 나침은 모두 옛 관직을 그대로 맡도록 하였다.<sup>31)</sup> 관할하는 안무사(安撫司)<sup>32)</sup>는 둘이었는데, [각각] 초당(草塘)과 황평(黃平)이라 했고, [관할하는] 장관사(長官司)<sup>33)</sup>는 여섯이었는데, [각각] 진주(眞州), 파주(播州), 여경(餘慶), 백니(白泥), 용산(容山), 중안(重安)이라 했다. 하영 등을 장관(長官)으로 삼았다. [홍무] 7년(1374)에, 중서성(中書

속한다. 元朝의 聖旨牌는 八思巴文으로 문자를 새기는데, 八思巴文은 당시의 官方文字이다. 金牌의 외형은 대부분 長形과 圓形이었다. 元朝聖旨金牌는 1961년에 처음 발견되었는데, 감정에 따르면 이 金牌는 황금 재질로서 長方形이고 무게는 348g이며 길이는 25.7cm에 너비는 8.1cm이고 두께는 0.1cm이며 금의 함유 비율은 58.44%, 은의 함유 비율은 41.56%였다. 金牌 상부에는 원형의 구멍이 있었다. 金牌 양면에는 5행으로 八思巴文이 새겨져 있는데, 그 뜻은 “하늘의 힘에 의거한 황제의 名號는 신성하다. 누구든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죄를 물어 죽음에 이른다”는 것이다.

28) 銀印: 銀으로 만든 官印을 가리킨다.

29) 銅章: 銅으로 만든 官印을 가리킨다.

30) 詔書: 황제가 관리와 천하의 백성들에게 내리는 문서를 말한다. 周代에는 君臣 모두가 ‘조서’라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秦이 천하를 통일한 후, 진시황이 자신을 이른바 “三皇의 덕을 겸비하고, 공은 五帝보다 드높다(德兼三皇, 功高五帝)”라는 견지에서 자신을 황제로 칭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詔’라 부르게 되었다. 唐·宋 시기에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元代에 다시 사용하게 되었으며, 明代에는 조서를 이용하여 중대한 명령을 반포하거나 신하들을 훈계했다.

31) 『太祖實錄』 卷71 洪武 5년 정월 乙丑條 참조.

32) 安撫司: 隋代에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즉, 隋 文帝 開皇 9년(589)에 韋洸을 파견하여 嶺外를 安撫토록 했고, 또 仁壽 4년(604)에 楊素를 河北道安撫大使로 삼은 적이 있다. 唐代에는 諸州에 水旱이 들자 巡察·安撫·存撫 등의 관리를 파견하였고, 후에는 節度使가 이를 겸하도록 하였다. 宋代에는 諸路에 安撫司 혹은 經略安撫司를 두어 按撫使는 朝臣으로 임명하였는데, 一路의 兵民之事를 관장토록 했다. 元代에는 四川과 湖廣 등 邊遠의 소수민족지구에 두었는데, 宣慰使와 宣撫使의 지휘를 받도록 하였다. 각 司에 다루가치 1명(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었음), 安撫使 1명을 두었고, 그 밑으로 同知·副使·僉事·經歷·知事 등의 관직이 있었으며, 그 외에 또 照磨·鎮撫 등도 추가로 두었다. 明·清 시대에도 安撫使司를 이어 두어 安撫使 등의 관직을 설치하였다. 安撫使는 元代에는 流官과 土官 모두 담당하였는데, 明代에 이르러 土官으로만 임명하였다. 元代의 安撫使는 다루가치와 함께 官秩이 正三品이었으나, 明代에는 從三品이었다(黃開華, 1968: 34~39 참조).

33) 長官司: 元代에 개시된 지방관아이다. 다만 그 성격은 상이한 바가 있다. 즉 內蒙古, 河北, 河南, 陝西, 甘肅 등지에 설치된 長官司는 오로지 匠戶만을 통할하는 데 비하여 西南의 소수민족지구에 설치한 蠻夷長官司는 蠻夷를 관할토록 하였다. 후자에는 다루가치·長官·副長官 등을 두었는데, 대부분 土官으로 임명하였다. 明代에 이르러 전자는 폐지하고 후자만을 존속시켜 대개 土官이 세습하는 비교적 低級의 정식 지방정권으로 기능하였다. 湖廣·四川·雲南·廣西·貴州 등에 설치하였다(黃開華, 1968: 34~35 참조).

省)<sup>34)</sup>에서 상주(上奏)하기를, “과주의 토지가 이미 판도(版圖)에 들어와, 마땅히 부세(賦稅)를 징수해야 하니, 해마다 세량(稅糧)으로 2,500석(石)을 내도록 하여 [이를] 군용(軍用)으로 충당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홍무제는 그들이 술선해서 귀순해왔다는 이유로 토지세는 [그들이] 납부하는 대로 [그대로 인정]해서 정액(定額)에 맞출 필요는 없도록 [배려]하였다.<sup>35)</sup> 얼마 후 다시 파주황평선무사(播州黃平宣撫司)를 두었다.<sup>36)</sup> 과주 강도(江渡)의 만족(蠻族) 황안(黃安)이 반란을 일으키자 귀주위(貴州衛)<sup>37)</sup> 지휘(指揮)<sup>38)</sup> 장대(張岱)가 토벌하여 평정하였다.<sup>39)</sup> [홍무] 8년(1375)에, 양견이 그의 동생 양기(楊錡)를 파견하여 내조(來朝)하여 방물을 바치니, [홍무제가] 의물(衣物)을 하사하였다.<sup>40)</sup> 이로부터 3년마다 한 차례씩 입공(入貢)하였다. [홍무] 14년(1381)에 [홍무제는] 사자(使者)를 보내어 칙서(勅書)를 가지고 가서 양견을 효유하여 이르기, “근자에 너희가 유언비어를 듣고 의심이 생겨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지금 대군(大軍)이 남정(南征)을 하는 데 전마(戰馬)가 많이 필요하니, 마땅히 병사 2만 명과 전마 3천 필을 대령하여 선봉을 맡아 너희의 충성을 드러내기 바란다”고 하였다.<sup>41)</sup> [홍무] 15년(1382)에 파주의 사계(沙溪)에 성을 쌓고서 관병

34) 中書省: 明 초기 중앙정부 중추기구의 하나이다. 明朝는 건국 직후 元의 정치제도를 답습하여 軍事를 담당하는 都督府와 糾察을 담당하는 御史臺 외에 政事를 총괄하는 中書省을 두었다. 중서성의 장관으로는 左·右相國을 두었는데, 相國이라는 명칭은 洪武 元年(1368)에 丞相으로 바꾸었다. 洪武 13년(1380)에 左丞相 胡惟庸의 모반사건 이후 中書省을 없애고 그 휘하의 6部를 독립시켜 황제에 직속시켰으며, 영원히 그 부활을 금지하였다(『續文獻通考』 卷51 「職官考」).

35) 『太祖實錄』 卷88 洪武 7년 3월 甲戌條 참조.

36) 『太祖實錄』 卷94 洪武 7년 11월 丁亥條 참조.

37) 衛: 명대 군대 편제 단위인 衛所의 衛에 해당한다. 다만 여기에서 언급한 衛는 명군 자체의 조직이라기보다는 변경 지역에 근접한 지역에 설치했던 羈縻衛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래 명대 위소제도는 각 府에 所를 설치하고 몇 개의 府를 묶어 하나의 衛로 편제하였다. 衛에는 指揮使를 두고 휘하에 5,600명의 병사를 거느리게 했으며 衛 아래에 千戶所, 百戶所를 각기 두며, 매 백호소는 112명의 병사를 두어 1,120명이 하나의 천호소를 구성했다. 본문에 등장한 衛는 羈縻衛로서 명조가 직접 통치하지는 않지만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요 수령에게 명목상이나 명조의 관직을 수여함으로써 조공과 교통로 역참의 확보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互市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줌으로써 명조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조치하였다.

38) 指揮: 指揮僉事の 약칭으로 從三品 관직이다.

39) 『太祖實錄』 卷95 洪武 7년 12월 壬子條 참조.

40) 『太祖實錄』 卷100 洪武 8년 5월 丙寅條 참조. 이 實錄 기사에 따르면, 이때 바친 方物은 말[馬]이었고, 이에 대하여 홍무제가 양견과 양기에게 각각 차등을 두어 衣物을 하사하였다고 한다.

(官兵) 1천 명, 토병(土兵)<sup>42)</sup> 2천 명으로 지키도록 하였다.<sup>43)</sup> 파주선위사(播州宣慰司)를 귀주에 바꾸어 예속시키고,<sup>44)</sup> 황평위(黃平衛)를 천호소(千戶所)로 바꾸었다.<sup>45)</sup> [홍무] 17년(1384)에, 양건의 아들 양진(楊震)이 경사(京師)에서 사망하자 담당 관원에게 명하여 가향(家鄉)으로 돌려보내 상례(喪禮)를 치르도록 하였다.<sup>46)</sup> [홍무] 20년(1387)에 [홍무제가] 양건을 불러 입조(入朝)토록 하니, [양건은] 말 14필을 바쳤다. 홍무제는 강역(疆域)을 지키고 자신을 보호하는 도리로써 효유하고 초(鈔)<sup>47)</sup> 500정(錠)<sup>48)</sup>을 하사하였다.<sup>49)</sup> [홍무] 21년(1388)에, 파주선위사사 및 소속의 선무사(宣撫司)<sup>50)</sup> 관원이 각기 그들의 자식을 보내 내조하여 태학

41) 『太祖實錄』 卷139 洪武 14년 9월 壬午條 참조.

42) 土兵: 宋代에 西北 邊境 및 廣南 兩路에 설치한 地方性 兵種으로 土軍이라고도 한다. 元豐 3년(1080)에 福建路 提點刑獄 閻丘孝直의 奏議를 받아들여 처음 설치하였다. 다만 본문의 土兵은 변경지대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병사를 의미한다.

43) 『太祖實錄』 卷141 洪武 15년 정월 乙酉條 참조.

44) 『太祖實錄』 卷142 洪武 15년 2월 乙酉條 참조. 즉, 播州宣慰使司를 貴州都指揮使司에 예속시켰다.

45) 『太祖實錄』 卷143 洪武 15년 윤2월 己卯條 참조. 즉, 黃平衛指揮使司를 黃平千戶所로 바꾸었다.

46) 『太祖實錄』 卷162 洪武 17년 5월 甲戌條 참조.

47) 鈔: 寶鈔, 즉 明代의 법정 통용지폐인 大明通行寶鈔를 가리킨다. 明朝는 洪武 7년(1374)에 寶鈔提舉司를 설치하고, 이듬해(1375)에 大明寶鈔를 만들어 민간에 통행시켰다. 桑穰, 즉 뽕나무 가지 껍질로 만든 섬유를 사용하여 만들었는데, 모양은 네모였고, 높이는 1척, 폭은 6촌이었으며, 바탕은 청색이고, 바깥은 용의 문양과 꽃무늬였다. 횡으로 그 額面에 ‘大明通行寶鈔’라 쓰고, 그 안의 상변 양쪽에 篆文으로 ‘大明寶鈔天下通行’이라 썼다. 가운데에는 동전꾸러미를 그려 넣었는데, 10串을 1貫으로 삼았다. 등급은 모두 여섯으로 1貫, 500文, 400文, 300文, 200文, 100文이었다. 처음에는 中書省으로 하여금 주조를 전담케 했으나, 中書省이 철폐가 된 뒤에는 戶部에서 만들도록 하였다. 보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朴元燾 등 역, 2008: 314~319 참조.

48) 錠: 화폐를 헤아리는 단위로, 鈔 5貫에 해당하는 단위이다. 참고로 명대에는 鈔 1貫은 錢 1,000文, 銀 1兩에 준하고, 4貫을 황금 1兩에 준하도록 정하였다(『明史』 卷81 「食貨」 5 錢鈔條 참조).

49) 『太祖實錄』 卷186 洪武 20년 10월 壬子條 참조.

50) 宣撫司: 唐代에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즉 元和 연간(806~820)에 戶部侍郎 楊於陵을 淄·青等州宣撫使로 임명한 적이 있다. 宋代에는 대부분 將相重臣으로 宣撫使를 임명하였는데, 예를 들어 范仲淹, 富弼, 文彥博, 岳飛 등이 기용된 바 있다. 金朝 章宗 泰和 6년(1206)에 陝西路宣撫使를 두어 陝西右監軍, 右都監兵馬公事를 節制하도록 하였는데, 宣撫使 및 副使를 두었다. 泰和 8년(1208)에 陝西宣撫司를 按撫司로 바꾸었다. 山東 東西, 大名, 河北 南北, 遼東, 陝西, 咸平, 隆安, 上京, 肇州, 北京 등 모두 10곳에 설치하였다. 元朝는 邊疆의 소수민족지구에 宣撫司를 두어 지방행정기구로 삼았다. 다루가치, 宣撫使, 同知, 副使 등의 관직을 두었다. 明代에 들어와 비로소 정식으로 宣撫司의 장으로 宣撫使를 임명하였는데, 土官의 세습 武職으로 성격이 고정되었다(黃開華, 1968: 34~35 참조).

(太學)<sup>51)</sup>에 들어가기를 청하니, 홍무제는 국자감(國子監)<sup>52)</sup>의 관원에게 칙서를 내려 그들을 잘 훈도(訓導)하도록 하였다.<sup>53)</sup>

永樂四年免播州荒田租，設重安長官司，隸播州宣慰司，以張佛保爲長官，以佛保嘗招輯重安蠻民響化故也。七年，宣慰使楊昇招諭草塘·黃平·重安所轄當科·葛雍等十二寨蠻人來歸。

영락(永樂)<sup>54)</sup> 4년(1406)에, 파주의 황전(荒田)<sup>55)</sup>에 대한 조세(租稅)를 면제시켜주고, 중안장관사(重安長官司)<sup>56)</sup>를 두어 파주선위사에 예속시켜 장불보(張佛保)를 장관으로 삼았는데, 그 이유는 장불보가 일찍이 중안의 만족을 초집(招輯)하여 귀순시킨 연고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영락] 7년(1409)에, 선위사(宣慰使) 양승(楊昇)이 초당·황평·중안에서 관할하는

51) 太學: 明代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國學, 즉 國子監을 말한다.

52) 國子監: 국자감의 전신은 國子學으로서 西晉 咸寧 4년(278)에 처음으로 설치되었는데, 國子祭酒와 博士 각 1명과 助教 15명을 두어 生徒를 가르치도록 하였다. 國子學은 五品 이상의 貴族 자제만 입학할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그리 활성화되지 못하여 西晉 말기 이후에는 興廢가 반복되었다. 北齊 시기에는 國子寺로 개칭되었다. 隋朝 開皇 초에 國子學으로 다시 고쳤다. 大業 3년(607)에 처음으로 國子監으로 개칭하였다. 祭酒 아래에 主簿와 錄事를 각각 1명씩 두어 國子學, 太學, 四門學, 書學, 算學 등의 각 官學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각 官學의 博士, 助教, 生員에는 모두 定額이 있었다. 唐朝 武德 원년(618)에 國子學으로 개편하고 太常寺 관할에 두었으며, 國子學, 太學, 廣文, 四門, 律, 書, 算의 7學을 설치하였다. 貞觀 원년(627)에 다시 國子監으로 이름을 바꾸었지만, 이후에도 國子學과 國子監은 여러 차례 명칭이 서로 바뀌는 등 일정치 않았다. 宋·元 시대를 거쳐 明代에 이르러 國子學은 최고 學府가 되었다. 洪武 15년(1382)에 국자감으로 개칭한 후 南京에 설치했으며, 國學이라고도 불렸다. 永樂 원년(1403)에는 北京에도 국자감을 설치했으며, 永樂 18년(1420) 북경으로 천도 후, 결국 兩京 두 곳에 국자감을 설치 운용하였다. 학생은 府·州·縣學의 生員 가운데 뽑았는데, 捐納을 통해 입학한 사람들은 例監生이라 불렸다. 清代에도 명대의 예에 따라 順治 원년(1644)에 국자감을 설치하고 禮部 소속으로 두었지만, 이후 국자감이 독자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53) 『太祖實錄』 卷202 洪武 23년 5월 己酉條 참조. 원문에서는 洪武 21년이라고 하였지만, 實錄의 기사에 따르면 洪武 23년(1390)년으로 정정해야 할 것이다.

54) 永樂: 明朝 제3대 황제인 成祖 朱棣의 年號이다.

55) 荒田: 현재 官府에 등기되어 있지 않지만 경작 가능한 땅을 가리킨다.

56) 重安長官司: 治所는 지금의 貴州省 黃平縣 서남의 重安江이다. 播州宣慰司 소속인데 萬曆 28년(1600)에 폐지되었다.

당과(當科)·갈웅(葛雍) 등 12개 채(寨)의 만인(蠻人)을 초유(招諭)하여 귀순토록 하였다.

宣德三年，昇賀萬壽節後期，禮部議予半賞。帝以道遠，勿奪其賜。七年，草塘所屬穀  
傲等四十一寨蠻作亂，總兵陳懷剿撫之，旋定。

선덕(宣德)<sup>57)</sup> 3년(1428)에, 양승이 만수절(萬壽節)<sup>58)</sup>을 축하하는 데 기한(期限)에 [맞추지 못하고] 늦게 이르자, 예부(禮部)에서 논의하여 [그에게] 상으로 절반만 주도록 하였다. [그러나] 선덕제는 [그들이 오는] 길이 멀다는 이유로 하사품을 줄이지 말도록 하였다. [선덕] 7년(1432)에, 초당 소속의 곡산(穀散) 등 41개 채의 만족이 반란을 일으키자 총병(總兵)<sup>59)</sup> 진회(陳懷)<sup>60)</sup>가 이들을 토벌하여 위무(慰撫)하자, 얼마 후 평정되었다.<sup>61)</sup>

正統十四年，宣慰使楊綱老疾，以其子輝代。景泰三年，輝奏：「湖·貴所轄臻·剖·五

57) 宣德: 明朝 제5대 황제인 宣宗 朱瞻基의 年號이다.

58) 萬壽節: 황제의 생일을 가리킨다.

59) 總兵: 總兵官 즉 鎮守總兵을 일컫는다. 총병관은 전쟁 등 유사시에, 公·侯·伯 등 勳臣이나 都督 등의 관리 가운데 充任을 하고, 일이 끝나면 본래의 직무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러나 점차 변경에 일이 많아지자 현지에 계속 머물면서 鎮守를 담당하면서 사실상 鎮의 최고 무관직으로 고정되어갔다. 황제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기 때문에 그 권한은 매우 컸으며, 品級과 定員은 없었다. 명 중기 이후에는 설치된 곳이 날로 늘어나 점차 流官으로 充任되었고, 총독과 순무의 지휘를 받았다.

60) 陳懷(?~1449): 南直隸 合肥(지금의 安徽省 合肥市) 사람이다. 부친의 직위인 眞定副千戶를 승계하였다. 永樂 초에 都指揮僉事로 승진하였다. 후에 安南 평정에 참여하여 都指揮使가 되었고, 그 후 다시 涼州에서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웠다. 洪熙帝 즉위 후에 都督同知로 승진하였다. 宣德 원년(1426)에 梁銘을 대신하여 總兵官이 되어 寧夏에 주둔하였다. 후에 千戶 錢宏의 반란을 평정하여 左都督이 되었고, 후에 四川留守로 현지의 반란을 진압하였다. 다만 巡按御史와 按察使가 그의 교만과 사치 및 僭濫이 城池의 함락을 초래했음을 上奏하니, 宣德帝는 그를 소환하여 都察院에 내려 조사케 하였고, 결국 사형은 모면하는 대신 관직은 박탈당하였다. 正統 2년(1437)에 鎮守大同에 복직되었고, 正統 9년(1444)에 兀良哈 정벌에 공을 세워 平鄉伯에 봉해졌다. 正統 14년(1449)에 正統帝의 親征에 따라갔다가 土木堡의 變 와중에서 戰死하였다. 후에 侯로 追贈되었고, 忠毅라는 諡號를 받았다.

61) 『宣宗實錄』 卷87 宣德 7년 2월 壬寅條 참조.

全等苗賊，糾合草塘·江渡諸苗黃龍·韋保等，殺掠人民，屢撫復叛，乞調兵征剿，以靖民患。」帝命總督王來·總兵梁瑤等，會同四川巡撫剿之。七年，調輝兵征銅鼓·五開叛苗，賜敕頒賞。

정통(正統)<sup>62)</sup> 14년(1449)에, 선위사 양강(楊綱)이 연로해서 병이 들자 그 아들 양휘(楊輝)에게 [그 선위사 직위를] 대신토록 하였다.<sup>63)</sup> 경태(景泰)<sup>64)</sup> 3년(1452)에 양휘가 아뢰기를, “호광(湖廣)<sup>65)</sup>과 귀주<sup>66)</sup>에서 관할하는 진(臻)·부(剖)·오분(五仝) 등의 묘적(苗賊)이 초당·강도에 있는 여러 묘족(苗族)<sup>67)</sup>의 황룡(黃龍)·위보(韋保) 등을 규합하여 백성들을 살해하고 약탈하여, 누차 위무했지만 다시 반란을 일으키니, 청컨대 군대를 동원하여 토벌함으로써 백성들의 근심을 깨끗이 제거하기를 바랍니다”라 하였다. 경태제는 총독(總督)<sup>68)</sup> 왕래(王

62) 正統: 明朝 제6대이자 제8대 황제인 英宗 朱祁鎮의 첫 번째 年號이다. 참고적으로 그의 두 번째 연호는 天順이다. 英宗은 明·淸 시대에 유일하게 두 개의 연호를 사용한 황제였다.

63) 『英宗實錄』 卷177 正統 14년 4월 壬子條 참조.

64) 景泰: 明朝 제7대 황제 景泰帝 朱祁鈺의 연호이다.

65) 湖廣: 湖廣等處行中書省, 즉 湖廣行省을 가리킨다. 원나라 당시 민간에서는 簡稱하여 鄂州行省·潭州行省이라고도 했다. 元 世祖 至元 11년(1274)에 荊湖等路行中書省을 설치했는데, 鄂州의 명칭을 취해 달리 鄂州行省이라 칭하기도 했다. 至元 12년(1275)에 荊湖行省의 治所를 江陵路에 두었으나 곧 鄂州路로 옮기고, 至元 13년(1276)에 다시 潭州路로 옮겼다. 至元 14년(1277)에 江陵에 荊湖北道宣慰司를 설치하였고 潭州路에 湖廣行省을 설치했다.

66) 貴州: 『尚書』 「禹貢」의 荊·梁 二州의 徼外 지역이다. 元代에는 湖廣·四川·雲南 三行中書省의 지역으로, 洪武 15년(1382)에 貴州都指揮使司를 두고, 貴州宣慰司를 治所로 삼았다. 永樂 11년(1413)에 貴州等處承宣布政使司를 두었고, 府 8·州 1·縣 1·宣慰司 1·長官司 39곳을 관할하였다.

67) 苗族: 중국 소수민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족의 하나로서, 湖北, 湖南, 四川, 雲南, 貴州, 廣西 壯族自治區에 대부분 분포하고 있으며, 廣東省에도 일부 묘족이 살고 있지만 貴州省에 전체 묘족의 약 50%가 거주하고 있다. 그 거주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동일한 묘족 내에서도 언어가 달라 대략 5개의 방언을 지니고 있다(다바타 히사오 등, 2006: 232~233). 이들의 흔적은 이미 甲骨文에도 등장하지만 『史記』 卷1 「五帝本紀」 1에 따르면, 堯帝 당시 江淮와 荊州 일대의 三苗가 여러 차례 난을 일으켰다는 기록으로 보아 적어도 殷·周 시대 이전에 長江 일대에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묘족들 가운데, 吳, 龍, 石, 麻, 寥 五姓이 이른바 眞苗라 알려져 있으며, 相, 施, 彭, 張, 洪氏는 외족이 그들과 편입되어 오랜 세월이 지난 후, 그들과 동화된 존재였다(鄂西土家族苗族自治州民族事務委員會編, 1986: 60).

68) 總督: 明·淸 시대 지방의 최고 軍政大員으로 總制라고도 칭한다. 正統 6년(1441) 정월 明 朝廷은 麓川(지금의 雲南 隴川 서남)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兵部尙書 王驥에게 總督軍務의 직함을 주어 진압토록

來)<sup>69)</sup>와 총병(總兵) 양보(梁瑄)<sup>70)</sup> 등에게 명하여 사천(四川)<sup>71)</sup> 순무(巡撫)<sup>72)</sup>와 회동하여

하였는데, 이것이 總督의 유래가 된다. 총독은 專務總督과 地方總督의 두 종류로 나뉜다. 專務總督은 總督糧儲, 總督河道, 總督漕運 등이 있는데, 각각 관할하는 專務를 주된 임무로 삼고 提督軍務를 補助로 하였다. 明初에는 항상 尙書, 侍郎, 都御史 등을 파견하여 지방에 가서 軍民을 按撫토록 하거나 軍事를 主管토록 했는데, 일이 끝나면 復命토록 하였다. 이를 巡撫 혹은 鎮守라 불렀다. 후에 鎮守侍郎과 巡按御史가 서로 統屬관계가 없고 公文의 왕래가 불편하여 이에 都御史巡撫兼提督軍務 등의 이름으로 정하였다. 관할하는 바가 무거운 경우는 總督을 더하였다. 地方總督은 대부분 邊境의 방어나 반란진압을 위하여 설치했는데, 관할하는 地區의 軍務를 위주로 하였다. 正統 말에서 景泰 초에 이르기까지 각 지방에 總督이 다수 파견되었다. 다만 이들 총독은 임시직으로서 일이 끝나면 곧 철회되었다. 成化 5년(1469)에 兩廣 지방에 다시 總督을 설치한 뒤로부터 그 직위가 처음으로 고정되어 定制에 가깝게 되었다.

69) 王來(?~1470): 그의 字는 原之이고, 絕江 慈溪 사람이다. 宣德 2년(1427)에 會試 乙榜으로 登第하여 新建의 教諭로 拜受되었다. 宣德 6년(1431)에 御史로 발탁되어 蘇州, 松江, 常州, 鎮江 등 4府를 巡按하였다. 英宗 즉위 후에 楊士奇의 추천으로 山西左參政으로 발탁되었는데, 청렴하고도 노련하게 정무를 집행하였다. 당시 山西巡撫로 임명된 侍郎 于謙이 王來의 재능을 칭찬하면서 조정의 近臣을 말을 만하라고 여겼다고 한다. 正統 13년(1448)에 河南左布政使로 승진했고, 이듬해(1449)에 左副都御史가 되어 河南, 湖廣, 襄陽 등府를 巡撫하였다. 오이라트의 에센이 침입하여 京師 부근까지 압박해오자 王來는 勤王兵을 이끌고 黃河를 건넜는데, 에센이 철수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에야 철군했다고 한다. 景泰 원년(1450)에 貴州의 苗族이 반란을 일으키자, 王來는 右都御史의 직함으로 總督湖廣貴州軍務가 되어 반란을 평정하였다. 景泰 3년(1452) 10월에는 大理寺卿을 겸임하였다. 이듬해(1453)에 南京工部尙書가 되었다. 英宗의 復辟 이후 조정의 모든 尙書가 파면될 때, 王來도 落鄉하였다. 成化 6년(1470)에 사망하였다.

70) 梁瑄: 河南 汝寧府 汝陽縣(지금의 河南省 汝南縣) 사람이다. 梁銘의 아들로써 保定伯이었다. 正統 말년에 副總兵이 되어 福建 鄧茂七의 반란을 토벌하고 餘賊을 추격하여 九龍山에서 斬殺하였으나, 回軍 후에 반란이 다시 일어나 事官으로 강등되었다. 京師 保衛戰 과정에서 공을 세워 爵位를 회복하였다. 景泰 원년(1450)에 平蠻將軍으로 拜受되어 王驥를 대신하여 貴州의 苗族 반란을 진압하였으며, 그 공으로 侯爵과 500석의 祿을 받았다. 天順 원년(1457)에 陝西를 鎮守하면서 涼州에서 침입한 몽골군을 격퇴시켰으며, 돌아와서 左軍都督府事를 관장하였으나 成化 초에 타계하였다. 蠡國公으로 追贈되고 襄靖이란 諡號를 받았다.

71) 四川: 『尙書』 「禹貢」의 梁·荊二州의 지역이다. 元代에는 四川等處行中書省과 羅羅蒙慶等處宣慰司를 두었는데, 雲南行中書省에 속하였다. 洪武 4년(1371)에 明昇을 평정하고, 다음 달에 四川等處行中書省을 설치하였다. 招討司 1·宣慰司 2·安撫司 5·長官司 22곳 및 諸衛所를 관할하였다. 洪武 9년(1376)에 行中書省을 承宣布政使司로 고쳤고, 府 13·直隸州 6·宣撫司 1·安撫司 1·屬州 15·縣 111·長官司 16곳을 관할하였다.

72) 巡撫: 明·清 시대 지방의 최고 軍政大員 가운데 하나로서 撫臺라고도 칭한다. 각지의 軍政과 民政을 巡視하는 大臣이다. 北周와 唐初에 관료를 각지에 파견하여 巡撫토록 한 일이 있었는데, 모두 임시직이었고, 아직 官名은 아니었다. 明代에 巡撫의 이름은 洪武 24년(1391)에 처음으로 보인다. 즉 洪武帝는

그들을 토벌토록 하였다.<sup>73)</sup> [경태] 7년(1456)에, 양휘의 군대를 보내어 동고(銅鼓)·오개(五開)에서 반란을 일으킨 묘족을 토벌하도록 하였으며, 칙서를 내리고 상을 나누어주었다.<sup>74)</sup>

成化十年以播州賊齋果等屢歲爲患，敕責川·貴鎮巡官。正統末，苗蠻聚衆寇邊，土官同知羅宏奏，輝有疾，乞以其子愛代。帝命愛襲職，仍敕愛即率兵從總兵官剿賊。先是，輝奏所屬天壩干地五十三寨及重安所轄灣溪等寨，屢被苗蠻占據，乞令湖·貴會兵征之。命如輝言。部議以愛年幼，請仍起輝暫理軍事。又以輝難獨任，宜敕都御史張瓚親至播州督理，勵輝等振揚威武，以備征調，其機宜悉聽瓚裁處。

성화(成化)<sup>75)</sup> 10년(1474)에, 과주의 구적(寇賊) 재과(齋果) 등이 여러 해 동안 화환(禍患)이 되었기 때문에 [성화제는] 사천과 귀주의 진순관(鎮巡官)<sup>76)</sup>에게 칙서를 내려 질책하였다.<sup>77)</sup> 정통 말년에 묘족 만인(蠻人)들이 무리를 모아 변경 지역을 노략질하자, 토관(土官)<sup>78)</sup>

皇太子 朱標를 陝西로 보내어 순무토록 한 바 있다. 永樂 19년(1421)에는 蹇義 등 26명을 각 省으로 나누어 보내 순무토록 하였다. 宣德 5년(1430)에는 于謙과 周忱 등 6명을 南·北直隸 等處로 나누어 순무토록 했는데, 이로부터 각 省에 순무를 두는 것이 제도로 정착되었다. 순무가 처음 두어졌을 때에는 稅糧督理, 河道總理, 流民撫治, 邊關整飭 등을 주로 맡았는데, 후에는 점차 軍事에 편중되어 갔다. 明代에 순무는 대부분 進士 출신이 맡았다. 당초에 內地巡撫는 吏部가 戶部와 회동하여 推舉했고, 邊地巡撫는 吏部가 兵部와 회동하여 推舉하였는데, 嘉靖 14년(1535)에 처음으로 內地와 邊地를 불문하고 九卿이 廷推하였다. 明代에 순무는 비록 지방의 정식 軍政長官은 아니었지만, 地方을 순무하며 三司 즉 布政司, 按察司, 都指揮司를 節制하여 실제로는 지방의 軍政大權을 장악하였다.

73) 『英宗實錄』 卷213 景泰 3년 2월 戊子條 참조. 한편 본문에서 王來의 직함이 總督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實錄의 기사에 따르면, 貴州總督總兵官等右都御史였고, 四川巡撫는 직함만 기재되어 있는데 해당 인물은 李匡이었다.

74) 『英宗實錄』 卷267 景泰 7년 6월 癸丑條 참조.

75) 成化: 明朝의 제9대 황제 憲宗 朱見深의 年號이다.

76) 鎮巡官: 각 省의 巡撫, 布政使, 都事 등을 鎮巡官이라 일컫는다. 본문의 경우에는 貴州鎮守總兵官 등과 四川鎮守巡撫 등을 가리킨다(『宣宗實錄』 卷132 成化 10년 8월 戊子條 참조).

77) 『憲宗實錄』 卷132 成化 10년 8월 戊子條 참조.

78) 土官: 정해진 임기가 있어서 滿期가 되면 다른 관직을 맡게 되는 流官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대개 어떤 지역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누리며 세습이 가능한 官員이나 통치자에게 하사하는 관직을 가리킨다. 宋代에 처음으로 소수민족을 통치하는 관직 혹은 관원에 대한 호칭으로 사용되었다. 明代에는 元代의

동지(同知) 나굉(羅宏)이 상주(上奏)하여, 양휘가 병환이 들었으니 그 아들 양애(楊愛)로써 그를 대신토록 할 것을 청하였다. 황제는 양애에게 명하여 관직을 잇도록 하고, 거듭하여 양애에게 칙서를 내려 곧 군대를 데리고 총병관을 따라 구적을 토벌토록 하였다.<sup>79)</sup> 이보다 앞서 양휘가 상주하여, 소속의 요패간(天壩干) 지구의 53개 채 및 중안(重安)이 관할하는 만계(灣溪) 등의 채가 누차 묘족 만인에게 점거되었으니, 호광과 귀주에서 군대를 모아 그들을 토벌하기를 청하였다. [황제는] 양휘가 말한 바대로 하도록 명하였다. 병부에서는 의논하여 양애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예전대로 양휘를 기용하여 잠시 군사를 관리토록 청하였다. 또한 양휘가 홀로 이 일을 맡기 어려우니 마땅히 도어사(都御史)<sup>80)</sup> 장찬(張瓚)<sup>81)</sup>으로 하여금 직접 파주에 이르러 감독·관리하도록 하고, 양휘 등을 면려(勉勵)해서 무위(武威)를 떨쳐 [군대를] 동원하여 토벌하는 데 대비케 하되, 그 현장에서의 모든 결정은 응당 장찬의 재결과 처리에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sup>82)</sup>

토관제도를 이어받아 이를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특히 서북과 서남의 각 소수민족지구에 土司를 설치하여 해당 소수민족의 지도자로 임명하였다. 등급에 따라 宣慰使, 宣撫使, 安撫司 등의 武職 및 土知府, 土知縣 등의 文職으로 나누었는데, 자손으로 세습토록 하였다. 대개 陝西 등 북변지역에는 衛所의 관직인 武職을, 서남지역에는 州·縣 등을 설치하여 文職을 제수하였다. 洪武 7년(1374)에 서남의 諸蠻夷가 朝貢을 하자 元代의 직책에 의거하여 관직을 제수하였는데, 宣慰司 11·招討司 1·宣撫司 10·安撫司 19·長官司 173곳이었다. 府·州·縣의 正官과 佐貳官은 土官 혹은 중앙에서 파견한 流官으로 임명하였다. 이들은 疆土를 지키고, 명조에 貢物과 賦稅와 徭役 등을 제공하였다.

79) 『憲宗實錄』 卷142 成化 11년 6월 壬午條 참조. 實錄의 기사에 따르면, 土官同知 羅宏이 전례에 따라 양휘의 아들 양애에게 播州宣慰使 직을 계승시킬 것을 청하자, 兵部에서 夷人의 요청을 들어주자는 의견을 상신하여 이를 成化帝가 승인한다.

80) 都御史: 명대 감찰기구인 都察院의 長官을 말한다. 洪武 15년(1382)에 明朝는 감찰기구를 정비하면서 도찰원을 설치했다. 都御史는 正二品이었으며, 副都御史는 正三品이었다. 그들은 감찰, 큰 사건에 대한 심리, 관리의 근무 평가 등을 담당했다. 명초기 도어사는 모두 도찰원에만 머물러 있었지만 永樂~宣德 연간에 總督과 巡撫가 설치된 이후로 督撫들이 都御史를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 南京에도 도찰원을 두어 좌·우도어사를 설치했으며, 청대에 이르러서는 從一品인 左都御史가 도찰원 長官을, 正二品인 左副都御史가 副長官을 맡았다.

81) 張瓚(1473~1542): 北直隸 河間府 滄州 사람이다. 弘治 18년(1505)의 進士로 吏科給事中에 제수되었다. 이후 승진을 거듭하여 兵部侍郎兼副都御史總制宣府大同等處軍務가 되었다. 嘉靖 14년(1533) 大同의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들을 진압시킨 공로로 兵部尚書로 승진하였다. 누차 官階가 증가되어 少保兼太子太保에 이르렀다. 그는 탐욕스럽고 용렬하였을 뿐 아니라 宦官과 결탁하였는데, 비록 여러 차례 言官에게 탄핵을 받았지만, 끝내 嘉靖帝의 총애를 잃지 않았다. 嘉靖 21년(1542) 10월 29일 사망한 뒤 太保로 追贈되었고, 恭襄이란 諡號를 받았다.

十二年，瓚督諸軍及輝攻敗灣溪·天壩干地諸苗，凡破山寨十六，斬首四百九十六級，撫男婦九千八百餘口。事下兵部，以苗就撫者多，宜量爲處分。瓚議設安寧宣撫司，并懷遠·宣化二長官司，建靖南·龍場二堡，命輝董其役。輝調兵民五千餘，立治所，委所屬黃平諸長官，分甃城垣。將竣，輝因奏：「各寨苗蠻，近頗知懼，但大軍還后，難保無虞。播州向設操守土兵一千五百人，今撥守懷遠·靖南·天漂·龍場各二百人，宣化百人，安寧六百人，其家屬宜徙之同居，爲固守計。其工之未畢者，宜命臣子愛董之，而聽臣致仕如故。」詔從之。時灣溪旣立安寧宣撫，爛土諸蠻惡其逼，遂引齋果等攻陷天漂·靖南城堡，圍安寧。愛新襲，力弗能支，求援於川·貴二鎮。兵部奏起輝再統兵剿之，又敕川·貴兵爲助。十五年，貴州巡撫陳儼奏：「苗賊齋果轉橫，乞調川·湖等官軍五萬五千，剋期會貴州，聽儼節制。」兵部言：「賊作於四川，而貴州守臣自欲節制諸軍，恐有邀功之人主之。且興師五萬，以半年計，須軍儲十三萬五千石，山路險峻，論運之夫須二十七萬衆，況天將暑，瘴癘可虞。」帝然其奏。

[성화] 12년(1476)에, 장찬이 각 군(軍) 및 양휘를 거느리고 만계(灣溪)와 요패간 지구의 여러 묘족을 공격하여 패퇴시켜, 모두 산채(山寨) 16개를 깨뜨리고, 496수급(首級)을 베었으며, 남녀 9,800여 명<sup>83)</sup>을 위무(慰撫)하였다. 이 일을 병부<sup>84)</sup>에 내려 처리케 하니, [병부에서는] 묘족이 위무에 호응한 자가 많은 만큼 마땅히 헤아려 처분해야 한다고 하였다.<sup>85)</sup> 장찬이 안녕선무사(安寧宣撫司) 및 회원(懷遠)·선화(宣化)의 두 장관사(長官司)를 설치하고, 정남(靖南)·용장(龍場)의 두 보(堡)를 만들기를 건의하니, 양휘에게 명하여 그 일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양휘는 병민(兵民)<sup>86)</sup> 5천여 명을 동원하여 치소(治所)를 만들고, 소속의 황평(黃平) 등 여러 장관(長官)에게 맡겨 벽돌을 나누어 담장을 쌓도록 하였다. 장차 완공되려 할 때

82) 『憲宗實錄』 卷151 成化 12년 3월 癸丑條 참조. 實錄의 기사에 따르면, 당시 張瓚의 정식 관직은 四川巡撫 右副都御史였다.

83) 정확한 수는 9,837명이다. 이에 대해서는 『憲宗實錄』 卷162 成化 13년 2월 戊戌條 참조.

84) 당시 兵部尙書는 項忠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憲宗實錄』 卷162 成化 13년 2월 戊戌條 참조.

85) 『憲宗實錄』 卷162 成化 13년 2월 戊戌條 참조.

86) 본문에서 말하는 ‘兵民’은 軍兵과 家丁土兵을 가리킨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輝調度軍兵，益以家丁土兵人等五千餘衆……”(『憲宗實錄』 卷180 成化 14년 7월 壬申條)

양휘가 곧 아뢰기를, “각 채의 묘족 만인이 근자에 자못 두려움을 알게 되었지만, 다만 대군<sup>87)</sup>이 돌아간 뒤에 무사함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파주에서는 이전에 평소의 품행이 양호한 토병 1,500명을 두었는데, 지금 [그들을] 나누어 보내 회원(懷遠)·정남(靖南)·요표(天漂)·용장(龍場)에 각기 200명씩, 선화(宣化)에 100명, 안녕(安寧)에 600명을 두어 지키게 하고, 그 가족(家屬)들은 마땅히 이주시켜 함께 살도록 하는 것이 견고하게 수비하는 계책이 됩니다. 아직 완성치 못한 공정은 마땅히 신의 아들 양애에게 명하여 이를 책임지도록 하고, 신은 예전대로 치사(致仕)<sup>88)</sup>하도록 허용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성화제는] 조서를 내려 이를 인준하였다.<sup>89)</sup> 당시 만계에서 이미 안녕선무사를 세우니, 난토(爛土)의 여러 만족(蠻族)은 그들이 꺾박하여 들어옴을 증오하여, 드디어 재과 등을 이끌고 요표와 정남의 성보(城堡)를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안녕을 포위하였다. 양애가 새로이 [관직을] 승계하였지만 역량이 버텨내지를 못하고 사천과 귀주 두 진(鎭)에 구원을 청하였다. 병부에서는 상주하여 양휘를 기용하여 다시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들을 토벌하도록 하고, 다시 사천과 귀주의 군대에게 칙서를 내려 원조해주도록 하였다.<sup>90)</sup> [성화] 15년(1479)에 귀주 순무 진엄(陳儼)이 아뢰기를, “묘족의 구적(寇賊) 재과가 다시 전횡하니, 사천과 호광 등<sup>91)</sup>의 관군 55,000명을 동원하여 기한을 정해 귀주에서 회합토록 하고, 저의 지휘를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라 하였다. 병부<sup>92)</sup>에서 아뢰기를, “구적이 사천에서 일어났는데, 귀주의 수신(守臣)<sup>93)</sup>이 스스로 각군을 지휘코자 하면, 공을 [세우기만을] 바라는 사람이 이를 주도할까 걱정이 됩니다. 또한 군대 5만 명을 동원하면 반년으로 계산해도 반드시 군대의 비용으로 13만 5,000석(石)이 들고, 산로(山路)는 험준하니 운송하는 인부는 27만 명이 필요한데, 하물며 계절이 장차 성하(盛夏)에 접어드니 역질(疫疾)을 걱정해야 합니다”라 하였다. 성화제는 그의 상주를 옳다고 여겼다.<sup>94)</sup>

87) 본문에서 말하는 大軍은 明朝의 軍兵 즉 官兵을 가리킨다.

88) 致仕: 관원의 정상적인 퇴직을 가리킨다. 致事, 致政, 休致 등으로도 불린다. 周代에 기원하는 이 致仕는 漢代 이후 제도화되었다.

89) 『憲宗實錄』 卷180 成化 14년 7월 壬申條 참조.

90) 『憲宗實錄』 卷194 成化 15년 9월 辛酉條 참조.

91) 四川과 湖廣 외에 廣西의 부근 官兵을 가리킨다(『憲宗實錄』 卷197 成化 15년 11월 庚子條 참조).

92) 兵部尙書 余子俊을 가리킨다(『憲宗實錄』 卷197 成化 15년 11월 庚子條 참조).

93) 巡撫 陳儼을 가리킨다.

94) 『憲宗實錄』 卷197 成化 15년 11월 庚子條 참조. 결국 成化帝는 兵部尙書 余子俊의 의견대로 貴州巡撫

二十二年，愛兄宣撫楊友訐奏愛，帝命刑部侍郎何喬新往勘。二十三年，喬新奏：「輝在日，溺其庶子友，欲令承襲，長官張淵阿順之。安撫宋韜謂楊氏家法，立嗣以嫡，愛宜立。輝不得已立愛，又欲割地以授友，謀於淵，因以天壩千乃本州懷遠故地，爲生苗所據，請兵取之。容山長官韓瑄以土民安輯日久，不宜征。淵與輝計執瑄，杖殺之。前巡撫張瓚受輝賂，以其地設安寧宣撫司，冒以友任宣撫。輝立券，以所有金玉·服用·莊田召諸子均分之。輝沒，淵乃與友潛謀刺愛，淵弟深亦與謀，不果，友遂奏愛居處器用僭擬朝廷，又通唐府，密書往來，私習兵法·天文，謀不軌，事皆誣。」帝命斬淵·深。以愛信讒薄兄，友因公擅殺，且謀嫡，盜官錢，皆有罪。愛贖復任，友遷保寧羈管，仍敕喬新從宜處治。

[성화] 22년(1486)에, 양애의 형 선무(宣撫) 양우(楊友)가 양애의 잘못을 폭로하여 상주하니, 성화제는 형부시랑<sup>95)</sup> 하교신(何喬新)<sup>96)</sup>에게 명하여 [현지에] 가서 조사하도록 하였다.<sup>97)</sup>  
 [성화] 23년(1487)에 하교신<sup>98)</sup>이 아뢰기를, “양휘가 살아 있을 때, 그의 서자(庶子) 양우를 익애(溺愛)하여 [그에게] 관직을 잇게 하고자 하였는데, 장관 장연(張淵)이 아부하여 그를

陳儼이 경솔하게 처신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陳儼 지휘 하의 군사작전을 불허하였다.

95) 당시 何喬新의 관직은 刑部左侍郎이었다(『憲宗實錄』 卷282 成化 22년 9월 乙丑條 참조).

96) 何喬新(1427~1502): 字는 廷秀, 號는 椒丘 혹은 天苗이다. 江西 廣昌 江鎮 사람으로 何文淵의 셋째 아들이다. 明代 중기의 저명한 문학가이자 시인이다. 景泰 5년(1454)에 進士가 되었다. 당시 殿試에서 ‘民本’ 사상에 대하여 闡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景泰帝가 칭찬했다고 한다. 禮部主事を 거쳐 成化 4년(1468)에 福建按察副使가 되었고, 후에 河南按察使, 湖廣右布政使를 역임했다. 成化 16년(1480)에는 右副都御史가 되어 11월에 山西巡撫로 부임하였다. 成化 20년(1484)에는 刑部右侍郎이 되어 山西에서 賑災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成化 23년(1487) 8월에 孝宗 弘治帝가 繼位하면서 南京으로 좌천되었다. 弘治 원년(1488) 정월에 吏部尙書 王恕의 추천으로 刑部尙書가 되었지만, 御史 鄒魯의 誣陷을 받아 결국 辭職하고 낙향하였으며, 弘治 15년(1502)에 사망했다. 正德 11년(1516) 太子太保로 追贈되었고, 이듬해(1517)에 文肅이란 諡號를 받았다. 何喬新은 어려서부터 독서에 힘써 학식이 고금을 관통하고 박식하여 文史哲에 모두 정통했으며, 藏書는 3만여 권에 달했는데 모두 직접 校勘을 행했다. 辭職 이후에는 두문불출하며 저술에 힘썼는데, 『椒丘文集』 44集, 『周禮集注』 7卷, 『策府群玉』 3卷 등이 전한다.

97) 『憲宗實錄』 卷282 成化 22년 9월 乙丑條 참조. 한편 實錄의 기사에 따르면, 楊友가 ‘폭로’한 동생 楊愛의 잘못이란 사치와 淫暴 등이었음이 何喬新의 조사를 통하여 밝혀졌다.

98) 당시 何喬新은 錦衣衛指揮 劉綱가 함께 조사를 마친 뒤 공동으로 上奏한 것이었다(『憲宗實錄』 卷288 成化 23년 3월 癸丑條 참조).

따랐습니다. [그런데] 안무(安撫) 송도(宋韜)는, 양씨(楊氏)의 가법(家法)은 적장자를 후사로 세우는 것이니 양애가 응당 계승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양휘는 부득이 양애를 후사로 세웠지만, 다시 땅을 나누어 양우에게 주고자 장연에게 상의하니, 이 기회를 이용하여 요패간은 곧 본주(本州) 회원(懷遠)의 옛 땅인데 귀순하지 않은 묘적에게 점거되어 있다는 이유로, 군대를 요청하여 이를 탈취하자고 하였습니다. 용산(容山) 장관 한선(韓瑄)은 토민(土民)의 안정이 오래되었으니 토벌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장연은 양휘와 함께 계책을 써서 한선을 체포하여 몽둥이로 그를 타살하였습니다. 전임 순무 장찬은 양휘에게 뇌물을 받고, 그곳에 안녕선무사를 두어 양우를 선무(宣撫)로 임명하는 것을 강행하였습니다. 양휘는 계약문서를 작성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금옥(金玉)·기구(器具)<sup>99)</sup>·장전(莊田)을 여러 아들을 불러 균등하게 나누어주었습니다. 양휘가 죽자 장연은 곧 양우와 함께 몰래 양애를 자살(刺殺)하려는 음모를 꾸몄고, 장연의 동생 장심(張深) 또한 이 음모에 참여하였지만,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양우는 마침내 양애의 거처와 기구(器具)가 본분을 뛰어넘어 조정(朝廷)에 비길 정도였다고 아뢰었으며,<sup>100)</sup> 또 당부(唐府)<sup>101)</sup>와 통하여 밀서를 왕래하였고, 몰래 병법과 천문을 익혔으며, 반란을 도모하였다고 하였지만, 이 일은 모두 무고였습니다”라 하였다. 성화제는 장연과 장심을 참수하도록 명하였다.<sup>102)</sup> 양애는 참언을 믿고 형을 박대하였고, 양우는 공무를 빗대어 멋대로 살인하였으며, 또한 적장자를 살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관아의 돈을 훔쳤으니, 모두 죄가 있었다. 양애는 속전(贖錢)을 내고 직위를 회복하였고, 양우는 보녕(保寧)으로 내쫓아 구류시켜 통제하였으며, 계속해서 하교신에게 칙서를 내려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였다.<sup>103)</sup>

99) 그 외에 錦綺와 服飾도 포함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憲宗實錄』 卷288 成化 23년 3월 癸丑條 참조.

100) 『憲宗實錄』 卷288 成化 23년 3월 癸丑條에 따르면, 庶兄 楊友가 날조하여 고발하기를, 楊愛의 房屋, 服飾, 器用이 僭濫되게 조정에 비길 정도였다고 한다.

101) 唐府: 明朝의 官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102) 『憲宗實錄』 卷288 成化 23년 3월 癸丑條에 따르면, 成化帝는 張淵이 妖言을 날조하여 人命을 해치려는 모의를 했고, 張深은 婦女를 奸占하고 親王을 무고하는 상주를 했다는 이유로 斬刑에 처하라는 詔書를 내렸다.

103) 이상의 내용은 『憲宗實錄』 卷288 成化 23년 3월 癸丑條 참조. 한편 都指揮 楊綱, 參政 謝士元, 副使 翟庭蕙는 현지조사에 不謹했다는 이유로 각각 贖杖還職시켰다.

弘治元年增設重安守禦千戶所，命播州歲調土兵一千助戍守。七年，以平苗功，賜敕勞愛。十四年，調播州兵五千征貴州賊婦米魯等。

홍치(弘治)<sup>104)</sup> 원년(1488)에, 중안에 수어천호소(守禦千戶所)<sup>105)</sup>를 증설하였는데, 파주에 명하여 1년에 토병 1,000명을 동원하여 수비를 돕도록 하였다.<sup>106)</sup> [홍치] 7년(1494)에 묘적을 평정한 데 공이 있다는 이유로 칙서를 내려 양애를 위로하였다.<sup>107)</sup> [홍치] 14년(1501)에 파주의 토병 5,000명을 동원하여 귀주의 여적(女賊) 미노(米魯)<sup>108)</sup> 등을 토벌하도록 하였다.<sup>109)</sup>

正德二年升播州宣慰使楊斌爲四川按察使，仍理宣慰事。舊制，土官有功，賜衣帶，或旌賞部衆，無列銜方面者。斌狡橫，不受兩司節制，諷安撫羅忠等上其平普安等戰功，重賂劉瑾，得之。逾年，巡按御史俞縉言不宜授，乃裁之，仍原職。

104) 弘治: 明朝의 제10대 황제 孝宗 朱祐樞의 年號이다.

105) 守禦千戶所: 簡稱하여 守禦所라고 한다. 明의 軍制의 하나로 洪武 23년(1390)에 전국에 衛所制度가 설립되었다. 각 省의 都指揮使司의 管轄 하에 몇 개의 衛가 설치되고, 그 밑에 일정한 千戶所와 百戶所가 설치되었는데, 이들 천호소 가운데 어느 한곳에 단독으로 주둔하여 직접 都指揮使司가 管轄하는 千戶所를 守禦千戶所라 부른다.

106) 즉, 貴州 重安에 守禦千戶所를 증설하였는데, 四川 播州 宣慰司에 명하여 해마다 土兵 1,000명을 동원하여 수비를 돕도록 하였다(『孝宗實錄』 卷11 弘治 원년 2월 甲寅條 참조).

107) 貴州 鎮巡等官이 上奏하기를, “近者에 苗賊을 평정하는 데 土官宣慰 彭世麒와 楊愛 등이 모두 공로가 있지만 加秩이 어려우니, 청컨대 각기 勅書를 내려 獎諭하시기 바랍니다”라 하니, 弘治帝가 이 請을 받아들였다(『孝宗實錄』 卷91 弘治 7년 8월 庚申條 참조).

108) 米魯: 貴州 普安州 苗族의 土司 判官인 隆暢의 妻로, 절세의 미녀로 알려졌다. 沾益州의 土知州 安民의 딸인 그녀는 결국 隆暢과의 불화로 친정으로 돌아와 현지의 또 다른 土司인 阿保와 私通하였다. 이때 隆暢은 이미 年老하여 米魯와의 사이의 자식이 아닌 그의 아들 隆禮에게 土司 직위를 넘겨주고, 隆禮를 米魯에게 보내어 돌아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도리어 隆禮는 米魯와 通姦하고 阿保와 결탁하였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隆暢은 크게 노하여 阿保를 공격하여 근거지를 불태우는 한편 숨어 있던 아들 隆禮를 죽였다. 이에 米魯는 阿保와 연합하여 반격을 가해 隆暢을 죽이고서 더 나아가 明 조정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109) “貴州鎮巡等官調軍往剿賊婦米魯……調播州土兵五千，西陽及湖廣兩江口長官司土兵各三千與貴州宣慰使司土兵二萬討之……”『孝宗實錄』 卷176 弘治 14년 7월 癸亥條 참조.

정덕(正德)<sup>110)</sup> 2년(1507)에, 파주선위사 양빈(楊斌)을 승진시켜 사천안찰사(四川按察使)로 삼고, 예전대로 선위(宣慰)의 사무를 관리토록 하였다. 구제(舊制)에 토관(土官)이 공을 세우면 의대(衣帶)를 하사하거나 혹은 그 부하들에게 상을 주어 표창하였지만, 지방의 군정 요직에 대한 직무는 맡기지 않았다. [그런데] 양빈은 교활하여 양사(兩司)<sup>111)</sup>의 지휘를 받지 않았고, 안무(安撫) 나충(羅忠)<sup>112)</sup> 등에게 넉지시 유도하여 그가 보안(普安) 등지를 평정<sup>113)</sup>하는 데 전공을 세웠음을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유근(劉瑾)<sup>114)</sup>에게 뇌물을 많이 주어 승진을 달성한 것이었다.<sup>115)</sup> 몇 년이 지나 순안어사(巡按御史)<sup>116)</sup> 유치(俞樞)가 [관직의] 제수가 옳지 않다고 말하니, 이에 그의 관직을 박탈하고 원래의 직위로 복직시켰다.<sup>117)</sup>

110) 正德: 明朝 제11대 황제 武宗 朱厚照의 年號이다.

111) 兩司: 承宣布政使司와 提刑按察使司의 合稱이다. 兩司는 한 省의 최고 官署로서 布政使司가 民政을 관할하고 按察使司는 刑名을 관할한다. 兩司의 최고 장관은 각각 布政使와 按察使이다.

112) 羅忠: 安撫 羅忠은 播州의 土官이었다(『武宗實錄』 卷145 正德 12년 정월 辛巳條 참조).

113) 普安 蠻賊의 반란을 평정한 일을 가리킨다(『武宗實錄』 卷29 正德 2년 8월 丁酉條 참조).

114) 劉瑾(?~1510): 陝西省 興平縣 사람으로 魏忠賢, 王振과 더불어 명대 惡宦官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힌다. 원래 姓은 談氏였으나 그를 천거한 태감의 姓을 따서 劉氏로 改姓하였다. 成化 연간(1465~1487)에 입궁하여 太監이 되었고, 正德 연간(1506~1521)에 武宗의 총애를 받아 司禮監을 관장하였다. 당시 武宗을 같이 모셨던 馬永成·高鳳·羅祥·魏彬·丘聚·谷大用·張永 등과 함께 이른바 ‘八虎’라 불렸는데, 이들 가운데 유근이 가장 교활하고 잔인하였다. 그는 각종 전횡을 일삼다가 모반죄로 태감 張永에게 고발당하여 1510년에 磔刑에 처해졌다(『明史』 卷304 「劉瑾傳」 참조).

115) 『武宗實錄』 卷29 正德 2년 8월 丁酉條 참조.

116) 巡按御史: 監察御史의 일종이다. 원래 監察御史는 隋代에 창설되었는데, 법규를 위반한 관리에 대하여 탄핵을 가할 뿐 아니라 황제가 부여한 권력을 통하여 행정관원을 직접 심판할 수 있었으며 아울러 府州縣道 등의 衙門에 대하여 실질적인 감독을 행할 수 있었다. 唐代에 御史臺는 三院으로 나뉘는데, 그 가운데 監察御史는 察院에 속하였다. 明代에는 都察院 隸屬의 13道 監察御史가 두어졌는데, 모두 110인으로 구성되며 官品은 정7품이었다. 그 가운데 浙江·江西·河南·山東은 각각 10인이었고, 福建·廣東·廣西·四川·貴州는 각각 7인이었으며, 陝西·湖廣·山西는 각각 8인이었고, 雲南은 11인이었다. 永樂 연간에 監察御史를 각지에 보내 巡視토록 했는데, 이들을 巡按御史, 약칭으로 巡按이라 불렀다. 雅稱은 ‘代天巡狩’였다. 巡按御史는 北直隸 2인, 南直隸 3인, 宣大 1인, 遼東 1인, 甘肅 1인, 13省 각각 1인이었다. 巡按御史는 각 省의 大臣과 府州縣 장관의 각 방면에 대하여 감찰하고, 특히 탄핵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大事는 황제에게 上奏하고 小事는 현장에서 裁決하였다. 이처럼 순안어사의 관품은 낮았지만 그 직권과 책임은 매우 중대하였다. 특히 중앙집권을 유지하고 吏治의 감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117) 四川 成都後衛 指揮使 陸震과 播州 宣慰使 楊斌이 평소 劉瑾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陸震은 署都指揮僉事, 楊斌은 按察使로 除授되었는데, 巡按御史 俞樞의 탄핵으로 인하여 원래의 직위로 돌아간 것이다.

初, 友旣編置保寧, 愛益恣, 厚斂以賄中貴, 征取友向所居凱里地者獨苛. 同知楊才居安寧, 乘之, 賸剝尤甚, 諸苗憤怨. 凱里民爲友奏復官, 弗得, 乃潛入保寧, 以友還, 糾衆作亂, 攻播州, 焚愛居第及公私廨宇略盡, 遂殺才, 多所殘戮. 愛屢奏於朝, 帝命鎮巡官調兵征之. 會友死, 遂緩師. 已而鎮巡官言: 「友子弘能悔過自新, 且善撫馭, 蠻衆願聽其約束. 其前爲友所焚殺者, 俱已隨土俗折償, 且還所侵奪於官. 乞授弘冠帶爲土舍, 協同播州經歷司撫輯諸蠻. 其家衆置保寧者仍歸之, 隸播州管轄. 并諭斌與弘協和, 不得再造釁端.」 報可. 未幾, 播州安撫宋淮奏: 「貴州凱口爛土苗婚於凱里草塘諸寨, 陰相構結, 誘出苗爲亂. 乞賜斌敕, 令每年巡視邊境, 會湖廣鎮巡官撫處.」 部議, 土官向無領敕出巡者. 諭斌宜撫綏土衆, 輯睦親族, 以副朝廷優待之意. 因授致仕宣慰愛爲昭毅將軍, 給誥命, 賜麒麟服. 時斌又爲其父請進階及服色, 禮科駁之, 以服色等威所系, 不可假. 兵部以愛舊有剿賊功, 皆許之. 斌復爲其子相請入學, 并得賜冠帶.

당초에, 양우가 보녕(保寧)에 편치(編置)된 이후 양애는 더욱 방자해졌고, 무겁게 세금을 거두어 중귀(中貴)<sup>118)</sup>에게 뇌물을 바쳤는데, 양우가 이전에 거주하던 개리(凱里) 지구에 대한 세금 징수가 유독 가혹하였다. 동지(同知) 양재(楊才)가 안녕(安寧)에 거주하였는데, 이 기회를 이용하여 착취가 특히 심하여 여러 묘족이 분개하고 원한을 품게 되었다. 개리의 백성은 양우를 위하여 관직을 회복해줄 것을 상주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하여, 이에 몰래 보녕으로 들어가 양우를 모시고 돌아오니, [양우는] 무리를 모아 반란을 일으켜 파주를 공격하여 양애가 거주하는 주택과 공사(公私)의 관서(官署)와 가옥을 거의 불태워버리고, 결국 양재를 죽였는데, 잔혹하게 살해된 사람이 많았다. 양애가 여러 차례 조정에 상주하니, 정덕제는 진순관(鎮巡官)<sup>119)</sup>에게 명하여 군대를 동원하여 그들을 토벌하도록 하였다. 마침 양우가 죽자 결국 군사행동을 늦추었다. 얼마 후 진순관이 아뢰기를, “양우의 아들 양홍(楊弘)이 능히

한편 원문에서 ‘몇 년’은 正德 2년에 按察使가 되어 正德 6년에 박탈되었으니 정확하게 말하면 4년이다. 이상은 『武宗實錄』 卷71 正德 6년 정월 甲戌條 참조.

118) 中貴: 中官, 즉 환관을 가리킨다. 고대에는 대개 황제가 총애하는 近臣이라는 뜻이었다. 본문의 中貴는 劉瑾이다. 즉 楊愛가 劉瑾에게 뇌물을 주어 按察使의 官銜을 얻은 일을 가리킨다. 이에 대해서는 『武宗實錄』 卷125 正德 10년 5월 庚子條 참조.

119) 四川鎮巡 등의 관원을 가리킨다(『武宗實錄』 卷125 正德 10년 5월 庚子條 참조).

과오를 뉘우치고 스스로 쇄신하였고, 또한 [부하를] 잘 위무하고 통제하니, 만족의 무리들도 그의 관리와 단속을 따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전에 양우에게 소살(燒殺)된 자들에게는 모두 이미 현지의 습속에 따라 환산해서 배상하였고, 또한 침탈당한 재물은 관부에게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청컨대, 양홍에게 관모(官帽)와 요대(腰帶)를 주어 토사(土舍)<sup>120)</sup>로 삼고, 파주의 경력사(經歷司)<sup>121)</sup>와 협동하여 여러 만족을 위무하고 화목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가인(家人)으로서 보녕에 안치(安置)된 자들은 예전대로 돌아오도록 하여 파주의 관할에 예속시키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양빈에게 효유하여 양홍과 화목하게 지내고, 다시는 쟁단(爭端)을 만들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라 하였다. [정덕제는] 답보(答報)를 내려 옳다고 하였다.<sup>122)</sup> 얼마 지나지 않아 파주(播州)의 안무(安撫) 송회(宋淮)<sup>123)</sup>가 아뢰기를, “귀주의 개구(凱口) 난토(爛土)의 묘족이 개리(凱里) 초당(草塘)의 여러 채와 통혼하며 몰래 서로 연결하여 산구(山區) 묘족의 반란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양빈에게 칙서를 내려 매년 변경을 순시토록 하고, 호광의 진순관과 회동하여 위무하고 처리토록 하시기 바랍니다”라 하였다. 조정<sup>124)</sup>에서 논의하기를, 토관(土官)은 예전부터 칙서를 받고 변경을 나가 순시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이에 진순관에게 명하여] 양빈에게 효유하여 마땅히 토착의 무리들을 위무하고, 친족은 화목하게 하여 조정이 우대하는 뜻에 부합하도록 하였다.<sup>125)</sup> 이로 인하여 치사(致仕)한 선위(宣慰) 양애에게 소의장군(昭毅將軍)<sup>126)</sup>을 제수하고 고명(誥命)<sup>127)</sup>을 지급하며 기린

120) 土舍: 土司의 屬官을 가리킨다. 그의 權力은 土司의 속관인 일반 大頭人과 같으나 그 지위는 大頭人보다 높았다. 土舍는 土司의 親屬으로 土司의 職을 이을 자가 없을 경우에 그 직위를 계승할 수 있었다.

121) 經歷司: 중앙과 지방기관의 屬官으로 金元代에 처음 창설되어 案牘과 기타 日常事務를 관장한다. 明代에는 衛所에 설치했는데, 職能은 광범위하지만 종7품으로서 職級은 낮은 文職이었다. 세습의 武官과는 달리 經歷은 文職의 流官으로서 吏部에서 選授하였다. 그 직권으로는 機務의 緩急, 錢穀의 出納, 戎器의 除治 및 일체의 문서 왕래가 모두 해당되었다. 軍衛 가운데 유일한 文職官員이었기 때문에 經歷은 武官의 幕僚 혹은 首領官으로 불렸다. 다만 職責은 중대한테 品級은 낮은 반면 屬員도 적다는 제도 설계상의 근본적 결함으로 인하여 그 직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었다. 明 中期부터 明 政府는 經歷제도의 개선에 착수했지만, 祖制에 속박되어 철저한 개혁을 행할 수 없었다. 겨우 관원의 배치 조정 및 經歷司 職能의 置換 등의 방식으로 積弊를 해소하고자 하여 일정한 효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근원적인 문제점은 明朝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해소되지 않았다.

122) 『武宗實錄』 卷125 正德 10년 5월 庚子條 참조.

123) 宋淮: 播州의 土官 安撫였다. 이에 대해서는 『武宗實錄』 卷126 正德 10년 6월 戊午條 참조.

124) 兵部를 가리킨다. 이에 대해서는 『武宗實錄』 卷126 正德 10년 6월 戊午條 참조.

125) 『武宗實錄』 卷126 正德 10년 6월 戊午條 참조.

의복을 하사하였다. 당시 양빈이 다시 그 부친을 위하여 관계(官階)<sup>128)</sup>와 복식(服飾)<sup>129)</sup>의 승급을 청하니, 예과(禮科)에서 이를 논박(論駁)하여 복식의 등급은 위엄과 연계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허가(虛假)<sup>130)</sup>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sup>131)</sup> 병부에서는 양애가 예전에 구적(寇賊)을 소탕하는 데 공이 있었다는 이유로 모두 그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양빈은 다시 그 아들 양상(楊相)을 위하여 태학에 들어가기를 청하였고, 아울러 관모와 요대를 하사받았다.<sup>132)</sup>

十二年，播州安撫羅忠·宋淮等奏：「斌有父喪，欲援文臣例守制，但邊防爲重，乞仍令掌印理事。」初，楊弘旣歸凱里，與重安土舍馮綸等有怨。弘卒，綸等誘苗蠻攻之，更相仇殺，侵軼貴州境。巡撫鄒文盛言狀，且請移文四川，會官撫處，逾歲不報。文盛乃遣

126) 昭毅將軍: 元·明·清 3朝에서 설치한 武官職名이다. 昭는 光明, 즉 事理에 밝다는 뜻이고, 毅는 과감하고 결단력이 있으며 意志가 견고해서 동요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明代에는 正三品の 武官에게 처음에는 昭勇將軍을 除授하고, 昭毅將軍으로 올렸다가 昭武將軍을 덧붙여주었다. 대부분 邊疆의 守將 및 地方軍政의 일인자에게 수여하였다.

127) 誥命: 誥勅이라고도 한다. 황제가 관원을 임명하거나 追贈하는 데 사용하는 문서이다. 明代에 公·侯·伯을 追封할 경우에는 모두 1등급을 승진시켰고, 三品 이상으로 정치의 업적이 대단히 뛰어나거나 死諫·死節·陣亡者는 모두 贈官하였다. 現任에 있는 자가 처음으로 散階를 제수받거나, 京官으로 一考(즉, 3년간의 평가)가 끝난 자 및 外官으로 一考가 끝난 자 중에서 성적이 으뜸인 자에게는 모두 본인에게 誥敕을 지급하였다. 7품 이상인 자는 모두 그 선조를 推恩할 수 있었으며, 五品 이상은 誥命을, 六品 이하는 敕命을 내려 제수하였다. 살아 있는 자에게 제수하는 것을 封이라 하고, 죽은 자에게 제수하는 것을 贈이라 하였다. 誥命과 勅命은 모두 일반문서와는 달리 당시 매우 귀중했던 絲織物 위에 기록하였다. 明代의 誥命과 勅命은 工部 소속의 神帛制勅局 즉 후에 南京織染局이라 칭하는 곳에서 織造하였다. 참고로 清代에는 江寧織造에서 만들었다. 한편 誥命과 勅命은 卷軸 형식으로 만들고, 蒼色, 靑色, 黃色, 炙色, 黑色의 다섯 색깔로 나누어지며, 官品등급의 고저에 따라 그 圖案과 軸頭도 엄격하게 구별되었다. 明代의 규정으로는 親王과 群王의 책봉에는 親王의 생모는 夫人으로 봉하여 誥命을 주는데 圖案은 鳳錦이라 하였다. 鎮國將軍 및 夫人은 玉軸을, 輔國將軍 및 夫人은 犀牛角軸을 받는 등 각각 등급에 따른 규정이 있었다.

128) 官階: 관원의 品等を 가리키는데, 正一品부터 從九品까지 모두 九品十八級이 있다.

129) 服飾: 官階에 따른 冠服과 裝飾을 가리킨다.

130) 虛假: 실제와 부합되지 않는 것을 빌려준다는 뜻이다.

131) 『武宗實錄』卷126 正德 10년 6월 庚午條에 따르면, 禮科에서 논박하자 禮部에서 上奏하여 服色 등은 위엄과 연계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虛假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올렸다.

132) 『武宗實錄』卷126 正德 10년 6월 庚午條 참조.

參議蔡潮入播州，督致仕楊斌撫平之。因言：「宜復安寧宣撫，俾弘子弟襲之。斌未衰，宜仍起任事，以制諸蠻寨。潮有撫蠻勞，宜量擢。」兵部議：「安寧已革不可復，斌子既代，亦不可起。土官應襲與否，屬四川，非黔所得專。盛所請難行，而功不可誣。」十六年賜斌蟒衣玉帶。

[정덕] 12년(1517)에 파주 안무 나충(羅忠)과 송회(宋淮) 등이 상주하여 아뢰기를, “양빈은 부친의 상사(喪事)가 있어 문신(文臣)의 예를 원용하여 수제(守制)<sup>133)</sup>하고자 하나, 다만 변경의 방어가 중요하니, 청컨대 예전대로 그로 하여금 인장(印章)을 관장하며 정무를 처리토록 하시기 바랍니다”라 하였다.<sup>134)</sup> 당초에, 양홍이 개리로 돌아온 뒤에 중안의 토사(土舍) 풍륜(馮綸) 등과 원한이 있었다. 양홍이 죽자 풍륜 등은 묘족의 만인을 꺾어 공격토록 하고, 다시 서로 원수가 되어 잔인하게 살육하였으며, 귀주의 경내(境內)를 습격하였다. 순무<sup>135)</sup> 추문성(鄒文盛)<sup>136)</sup>이 상황을 설명하고 또한 사천으로 공문을 보내 관원과 회동하여 함께 위무하고 처리하기를 청하였으나, 1년이 넘도록 답보가 없었다. 추문성이 이에 참의(參議)<sup>137)</sup> 채조(蔡潮)<sup>138)</sup>를 파견하여 파주로 들어와 치사(致仕)한 양빈을 독촉하여 그들을 위무하고 평정하도

133) 守制: 부모 혹은 조부모가 타계한 후 아들이나 長孫이 집에서 服喪하는 27개월 동안 任官, 科擧 응시, 혼례 등을 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134) 『武宗實錄』卷145 正德 12년 정월 辛巳條 참조. 다만 實錄의 기사는 원문에 없는 내용이 들어 있다. 즉 播州 土官 安撫 羅忠과 宋淮는 宣慰使 楊斌이 부친상을 당하여 文臣의 例에 따라 守制하고자 하지만, 楊斌이 평소에 蠻夷의 민심을 얻고 있으니 守制하지 않도록 해서 변방의 근심을 막기 바란다는 上奏文을 올렸고, 이에 대하여 正德帝가 楊斌에게 詔書를 내려 예전대로 印章을 관장하며 정무를 처리토록 하고, 勅書를 내려 그를 장려했다고 한다.

135) 貴州巡撫 都御史를 가리킨다. 이에 대해서는 『武宗實錄』卷188 正德 15년 7월 丁酉條 참조.

136) 鄒文盛(1458~1536): 字는 時鳴, 號는 黃山으로 公安 사람이다. 弘治 6년(1493)에 進士가 되었다. 吏科 給事中으로 除授되어 兩廣의 兵儲를 조사하고 奸人과 각종 폐해를 제거하였다. 『鎮邊六策』을 지어 올렸는데, 이에 대하여 尙書 劉大夏가 크게 칭찬하여 결국 邊吏로 임명되었으나, 당시 전횡을 일삼던 환관 劉瑾의 미움을 받고 保定知府로 임명되었다. 劉瑾이 誅殺된 이후 山東布政使司左參政, 福建右布政使 등을 역임하였다. 임직 기간 내에 節儉을 숭상수범했고, 權貴와는 어울리지 않았다.

137) 參議: 布政使 밑에 左右參議를 두어 各道의 糧儲, 屯田, 淸軍, 驛傳, 水利 등의 일을 分守토록 하였다. 일정한 定員은 없었다.

138) 蔡潮(1467~1549): 字는 巨源, 號는 霞山으로 臨海 城關 사람이다. 弘治 18년(1505)에 進士가 되어 翰林院庶吉士에 除授되었다가 兵科給事中으로 옮겼다. 正德 연간(1506~1521)에 湖廣提督學政, 貴州

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아뢰기를, “마땅히 안녕선무(安寧宣撫)<sup>139)</sup>를 회복시켜 양흥의 자제(子弟)로 하여금 이를 계승토록 해야 합니다. 양빈이 아직 노쇠하지 않았으니, 응당 예전대로 기용하여 직무를 맡겨 여러 만족의 채를 통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채조는 만족을 위무한 공로가 있으니, 마땅히 헤아려 발탁해야 합니다”라 하였다. 병부(兵部)<sup>140)</sup>에서 논의하여 말하기를, “안녕<sup>141)</sup>은 이미 혁제(革除)되어 회복할 수 없고, 양빈의 아들은 이미 직무를 대리하였으니 또한 [양빈을 복직시켜] 기용할 수 없습니다. 토관의 계승 여부는 사천에 맡겨야지 검(黔)<sup>142)</sup>이 독자적으로 결단할 바가 아닙니다. 추문성이 청한 사항은 시행하기 어렵지만 공적은 말살할 수 없습니다”라 하였다.<sup>143)</sup> [정덕] 16년(1521)에 [정덕제는] 양빈에게 망의(蟒衣)<sup>144)</sup>와 옥대(玉帶)를 하사하였다.<sup>145)</sup>

嘉靖元年賜播州儒學『四書集注』，從宣慰楊相奏也。弘既死，其弟張求襲職不得，時盜邊，劫白泥司印信，復與相構兵。守臣乞改凱里屬貴州，以張爲土知州解釋之。兵部議：「張習父兄之惡，幸免於辜；敢肆然執印信以要挾，當命川·貴守臣按其前後爭產殺人諸罪，置於理。若張悔過輸情，還所獲印，尚可量授一官，聽調殺賊以自效。倘或怙終，

右參議 등을 역임하였다. 嘉靖 원년(1522)에 福建右參政이 되어 軍糧督運과 倭寇 소탕에 공을 세워 泉州와 漳州에서는 그를 위하여 功績碑를 세웠다고 한다. 嘉靖 6년(1527)에 河南右布政使로 승진하였는데, 임기 내에 大道를 건설하고 백성들에게는 길가에 느릅나무와 버드나무를 널리 심도록 했다. 임기 만료 이후 낙향한 뒤에는 家鄉에 남다른 관심을 쏟아 치수사업과 교량 건설 등에 자못 공을 세웠다. 嘉靖 28년(1549) 여름에 타계하였다.

139) 安寧宣撫司를 가리킨다. 이에 대해서는 『武宗實錄』 卷188 正德 15년 7월 丁酉條 참조.

140) 兵部尙書 王琮을 가리킨다. 이에 대해서는 『武宗實錄』 卷188 正德 15년 7월 丁酉條 참조.

141) 安寧宣撫司를 가리킨다. 이에 대해서는 『武宗實錄』 卷188 正德 15년 7월 丁酉條 참조.

142) 黔: 貴州省의 別稱이다. 貴州는 『尙書』 「禹貢」의 荊·梁 二州의 徼外 지역이다. 元代에는 湖廣·四川·雲南 三行中書省의 지역으로, 洪武 15년(1382)에 貴州都指揮使司를 두고, 貴州宣慰司를 治所로 삼았다. 永樂 11년(1413)에 貴州等處承宣布政使司를 두었고, 府 8·州 1·縣 1·宣慰司 1·長官司 39곳을 관할하였다. 본문의 黔은 문맥상 貴州巡撫 鄒文盛을 가리킨다.

143) 『武宗實錄』 卷188 正德 15년 7월 丁酉條 참조.

144) 蟒衣: 官員의 禮服을 가리킨다. 예복 위에 이무기 모양의 수를 놓기 때문에 蟒衣라고 부르는데, 蟒袍, 花衣, 蟒服이라고도 칭한다. 封誥를 받은 婦女도 입을 수 있었다.

145) 『武宗實錄』 卷197 正德 16년 3월 甲寅條 참조.

必誅以爲玩法戒。」旣，遂許張襲宣撫，而改安寧爲凱里，隸貴州。

가정(嘉靖)<sup>146)</sup> 원년(1522)에, [가정제는] 과주 유학(儒學)<sup>147)</sup>에 『사서집주(四書集注)』<sup>148)</sup>를 하사하였는데, [이는] 선위(宣慰) 양상(楊相)의 상주에 따른 것이다.<sup>149)</sup> 양홍이 죽은 뒤 그의 아우 양장(楊張)이 관직의 승계를 청하였으나 [이를] 얻지 못하자, 때때로 변방을 약탈하고 백니사(白泥司)의 인신(印信)을 빼앗았으며, 다시 양상과 교전(交戰)하였다. 수신(守臣)이 개리(凱里)를 귀주에 바꾸어 예속시키고, 양장을 토지주(土知州)로 삼아 양장의 화란(禍亂)을 풀 것을 청하였다. 병부에서 건의하기를, “양장은 부형(父兄)의 사악함에 익숙하지만, 요행히 형벌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감히 방자하게도 인신을 가지고서 조정을 협박하고 있으니, 마땅히 사천과 귀주의 수신에게 명하여 그의 앞뒤에 걸친 재산 쟁탈과 살인 등 여러 죄를 살피 치죄토록 해야 합니다. 만약 양장이 잘못을 뉘우치고 진정(眞情)을 드러내어 획득한 인신을 돌려보낸다면, [이를] 감안하여 하나의 관직을 제수하여, [그가] 병사를 동원해서 구적(寇賊)을 죽임으로써 스스로의 노력을 드러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혹 믿는 바가 있어 끝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면, 반드시 주살(誅殺)하여 법령을 능멸한 경계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라 하였다.<sup>150)</sup> 얼마 후 드디어 양장에게 선무(宣撫)를 승계하도록 허용하고,

146) 嘉靖: 명조 제12대 황제인 世宗 朱厚熜의 年號이다.

147) 儒學: 明代에 각 府·州·縣의 官府에 설치한 학교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播州에 둔 州學을 가리킨다.

148) 『四書集注』: 朱熹의 대표적 저작이자 儒家理學의 명저이다. 朱熹는 南宋의 저명한 사상가 겸 교육가로서 宋明理學 가운데 ‘理學’의 集大成者이다. 그는 二程(程顥와 程頤)의 사상을 계승·발전시켜 完整的理學 체계를 수립하여 후세에 程朱理學으로 칭해지고 있다. 『四書集注』는 朱熹의 일생에서 최고의力作이자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친 저작이다. 『四書集注』는 『四書章句集注』라고도 하는데, 宋代 이후 科擧에서 사실상의 교과서였다. 그 안에는 大學章句, 中庸章句, 論語集注, 孟子集注의 4부분이 포괄된다. 朱熹는 『禮記』 속의 大學과 中庸을 論語, 孟子와 함께 ‘四書’로 병렬시켰다. 大學은 통상적으로 曾參의 저작, 中庸은 子思의 저작으로 각각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四書는 孔子로부터 曾參과 子思를 거쳐 孟子에게 전해지는 儒學의 道統을 대표한다. 朱熹는 孟子 이후에 이 道統의 끊김을 계승한 자가 二程이라고 여겼다. 이에 그는 이 『四書集注』의 注釋에서 二程을 비롯한 理學家의 사상에 대한 계승과 진일보 발취를 이루어내었다. 朱熹는 四書가 五經보다 간명해서 初學者에게 적합하다는 점에서 儒學의 高堂에 오르는 사다리로 간주하였다. 朱熹는 이 『四書集注』에서 저명한 ‘存天理, 滅人欲’ 등의 중요 사상을 闡述하였다.

149) 『世宗實錄』 卷13 嘉靖 원년 4월 乙未條 참조.

안녕(安寧)을 개리로 바꾸어 귀주에 예속시켰다.

初，楊相之祖父皆以嫡庶相爭，梯禍數世。至是，相復寵庶子煦。嫡子烈母張，悍甚，與烈盜兵逐相，相走，客死水西。烈求父屍，宣慰安萬銓因要挾水烟·天旺故地，而後予屍，烈陽許之。及相喪還，烈靳地不予，遂與水西構難，又殺其長官王黻。時嘉靖二十三年也。

당초에, 양상의 조부와 부친은 모두 적자(嫡子)와 서자(庶子)의 상호 분쟁으로 인하여 화환(禍患)이 몇 세대에 걸쳐 일어났다. 이때에 이르러 양상이 다시 서자 양후(楊煦)를 총애하였다. 적자 양렬(楊烈)의 모친 장씨(張氏)는 매우 사나워 양렬과 함께 무기를 훔쳐 양상을 내쫓았다. 양상이 도주하여 수서(水西)<sup>151)</sup>에서 객사(客死)하였다. 양렬이 부친의 시신을 요구하자 선위 안만전(安萬銓)<sup>152)</sup>이 이를 이용하여 수연(水烟)과 천왕(天旺)의 옛 땅을 얻은 후에

150) 『世宗實錄』 卷82 嘉靖 6년 11월 庚寅條 참조.

151) 水西: 貴州 彝族의 土官이 관할한 지역이다. 처음에는 四川 소속이었으나, 永樂 11년(1413)에 貴州로 예속되었다. 水西 彝族의 遠祖는 古代 서북의 氏·羌族의 한 지파였는데 지금의 貴州 경내로 轉入하였다. 蜀漢 시기에 그 수령 火濟(혹은 濟火라고도 하는데, 彝族의 명칭은 妥阿則)가 諸葛亮의 南征에 공을 세워 ‘羅甸國王’으로 봉해졌다. 이후 역대의 中原 왕조와 연계를 保持하여, 唐·宋 시기에는 ‘羅施鬼國’ 혹은 ‘羅氏鬼國’으로 칭해졌다. 관할 지역은 지금의 貴州 烏江 상류의 鴨池河를 경계로 水東, 水西로 나뉘는데, 治所는 지금의 大方縣城으로, 드디어 水西라는 이름이 생겼다. 元代에는 水西를 亦西不薛總管府로 고쳐 水西 首領 阿察를 總管으로 삼으면서 처음으로 土司制度를 수립하였다. 그 후로 宣撫使 직위를 세습하여 黔의 서북에서 黔中 일대의 최고 土官이 되었다.

152) 安萬銓: 貴州 水西(지금의 大方 일대) 사람이다. 貴州宣慰使 安萬鍾, 安萬鑑의 동생이다. 안만종이 貴州宣慰使를 세습한 뒤로 布政司參政을 더하였다. 그는 술 마시기를 좋아하였는데, 술에 취하면 타인을 구타하곤 했고, 사냥 중에 활로 사람을 맞추는 것을 놀이로 삼다가 결국 刺殺되었다. 후에 안만일이 직위를 승계하였지만 얼마 후에 병사하였다. 그의 아들 安仁이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결국 그 동생 安萬銓이 대신 승계하여 嘉靖 7년(1528)에 취임하였다. 安萬銓은 전에 都勻에서 王阿向을 평정한 공이 있었고, 직위 승계 이후에 다시 王聰 등의 반란을 평정하였다. 安萬銓은 安仁이 성인으로 성장하자 宣慰使 직위를 그에게 넘겨주었지만, 얼마 되지 않아 安仁 또한 사망했고, 安仁의 아들 安國亨도 아직 나이가 어려 계속해서 安萬銓이 직위를 담당하면서 參政을 더했고 昭勇將軍으로 봉해졌다. 安萬銓은 개인의 자금을 들여서 大方城 서쪽의 구불구불하고 가파른 險路를 정비하여 행인들이 이에 감격하면서 安萬銓의 장수를 축원하였는데, 이 길을 ‘千歲衢’라 불렀고, 길가의 암석 위에 石碑를 만들어

야 시신을 넘겨주겠다고 하며 버티니, 양렬은 이를 받아들이는 척하였다. 양상의 시신이 돌아 오자 양렬은 토지를 아까워하여 주지 않으니, 드디어 수서와 원수가 되었고, 다시 그 장관 왕불(王黻)을 죽였다.<sup>153)</sup> 때는 가정 23년(1544)이었다.

烈旣代襲，遂與黻黨李保治兵相攻，垂十年，總督馮嶽調總兵石邦憲討平之。眞州苗盧阿項者亦久稱亂，邦憲以兵七千擊敗之。有言賊求援於播者，邦憲曰：「吾方調水西兵，聲揚烈助逆罪，烈暇救人乎。」已，擒阿項父子，斬獲四百餘人。初，嘉靖初，議分凱里屬貴州，旣，又以播地多在貴州境，并改屬思石兵備。及眞州盜平，地方安靖，播人以爲非便。川·貴守臣異議不決，命總督會勘。總督奏，仍以播歸四川，而貴州思石兵備仍兼制播·酉·平·邑諸土司事，報可。

양렬이 부친의 직위를 승계한 뒤, 드디어 왕불의 일당 이보(李保)와 군대를 양성하여 서로 공격한 것이 10년에 달했는데, 총독<sup>154)</sup> 풍악(馮嶽)<sup>155)</sup>이 총병 석방헌(石邦憲)<sup>156)</sup>을 보내어 토벌하여 그들의 분쟁을 종식시켰다.<sup>157)</sup> 진주(眞州)의 묘족 노아항(盧阿項)이란 자도 또한 오랫동안 거병하여 반란을 일으켰는데, 석방헌은 병사 7,000명으로 공격하여 그를 패퇴시켰다. 어떤 자가 구적(寇賊)이 파주에 구원을 요구할 것이라 말하자, 석방헌이 말하기를, “내가

이를 ‘千歲衢碑’라 불렀다. 水西에 宣慰使가 온 이래로 安萬鎰이 가장 뛰어났다는 말이 있었다. 安萬鎰은 嘉靖 41년(1562)에 安國亨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은퇴하였다.

153) 『世宗實錄』 卷424 嘉靖 34년 7월 己酉條 참조.

154) 川貴總督 侍郎을 가리킨다. 이에 대해서는 『世宗實錄』 卷424 嘉靖 34년 7월 己酉條 참조.

155) 馮嶽(1495~1581): 字는 望之, 號는 貞新으로 浙江 慈溪縣 사람이다. 嘉靖 5년(1526)에 進士가 되어 工部主事, 員外郎, 江西按察使, 湖廣巡撫를 역임했고, 兵部侍郎總督湖廣川貴軍務를 담당하였다. 후에 南京刑部尙書에 이르렀다. 萬曆 9년(1581)에 향년 87세로 세상을 떠났다. 저서로 『恤刑稿』 등이 전한다.

156) 石邦憲(?~1568): 字는 希尹, 號는 南塘으로 貴州 淸平衛(지금의 凱里市) 사람이다. 嘉靖 7년(1528)에 世職을 세습하여 指揮使가 된 이래로 공을 쌓아 銅仁參將이 되었고, 끝내는 貴州總兵官이 되어 17년 동안 크고 작은 수십 백 차례의 전투를 수행했고, 앞뒤로 세 차례에 걸쳐 秩俸이 더해지는 등 공적이 현저하였다. 隆慶 2년(1568)에 현직을 수행하던 중 순직하였는데, 左都督으로 追贈되었다. 銅仁에 石公祠가 세워졌는데, 바로 石邦憲을 제사지냈다. 史書에서 칭하기를, “石邦憲은 何卿, 沈希儀와 이름을 나란히 한다”고 하였다. 현재 萬山鎮에 그가 세운 큰 石橋 하나가 남아 있다.

157) 『世宗實錄』 卷424 嘉靖 34년 7월 己酉條 참조.

지금 막 수서의 군대를 보내어 양렬이 반역을 도운 죄를 성토하였는데, 양렬이 타인을 구원할 겨를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얼마 후 노아항 부자(父子)를 사로잡고 400여 명을 참수하거나 포획하였다. 당초 가정 초년에 상의하여 개리를 분할하여 귀주에 예속시켰는데, 얼마 후 다시 파주의 땅이 대부분 귀주 경내에 있다는 이유로 아울러 고쳐서 사석(思石) 병비(兵備)로 귀속시켰다. 진주의 도적이 평정되어 지방이 평안해지자 파주의 백성들은 불편하다고 여겼다. 사천과 귀주의 수신이 이견으로 결정하지 못하자 [가정제는] 총독<sup>158)</sup>에게 명령하여 회동하여 조사하도록 하였다. 총독이 상주하여 예전대로 파주를 사천에 귀속시키고 귀주의 사석 병비는 예전대로 파주·유양(酉陽)·평무(平武)·읍(邑) 등 각 토사의 사무를 겸하여 통제하도록 하기를 청하니, [가정제는] 비답을 내려 허락하였다.<sup>159)</sup>

隆慶五年，烈死，子應龍請襲，命予職。萬曆元年給應龍宣慰使敕書。八年賜故宣慰楊烈祭葬，從應龍請也。十四年，應龍獻大木七十，材美，賜飛魚服，又復引其祖斌賜蟒例。部議，以斌有軍功，且出特恩，未可爲比。帝命以都指揮使銜授應龍。

융경(隆慶)<sup>160)</sup> 5년(1571)에 양렬이 죽고 아들 양응룡(楊應龍)<sup>161)</sup>이 승계를 요청하자, [응

158) 總督 羅崇奎를 가리킨다. 이에 대해서는 『世宗實錄』 卷513 嘉靖 41년 9월 丙午條 참조.

159) 『世宗實錄』 卷513 嘉靖 41년 9월 丙午條 참조.

160) 隆慶: 명조 제13대 황제인 穆宗 朱載堉의 年號이다.

161) 楊應龍(1551~1600): 播州의 제29대 세습 土司이다. 土司 楊烈의 아들이다. 隆慶 6년(1572)에 播州宣慰使를 승계받았고, 驍騎將軍으로 加封되었다. 萬曆 20년(1592) 말 王繼光이 四川巡撫가 되었는데, 이듬해(1593) 정월에 楊應龍을 체포하여 조사할 것을 청하였다. 이때는 마야흐로 일본이 조선을 침략 중이었는데, 楊應龍이 병사를 거느리고 조선을 구원할 것을 자원하자 조정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양응룡이 행군하던 도중 일본군이 조선에서 물러나 양응룡은 播州로 되돌아왔다. 萬曆 21년(1593)에 王繼光이 계속하여 양응룡으로 하여금 重慶에 와서 조사를 받고 贖金을 내도록 압박하였으나, 양응룡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왕계광은 總兵 劉承嗣, 參將 郭成 등과 함께 공동작전을 구사하여 진격해서 婁山關(지금의 遵義 북부지역)에 이르렀다. 都司 王之翰이 병사를 거느리고 공격했으나, 양응룡 군에게 패하였다. 萬曆 24년(1596)에 양응룡이 반란을 일으켜 戰火가 四川, 貴州, 湖廣 등 3省에 미쳤다. 貴州巡撫 江東之가 공격을 가하였으나 오히려 全軍이 覆沒되고 말았다. 萬曆 27년(1599)에 萬曆帝는 江東之의 관직을 박탈하고, 郭子章을 右副都御史兼貴州巡撫로 삼아 貴州지역의 軍政을 총괄토록 하였다. 桴자장은 부임 후 糧草를 저장하고 黔軍을 조직하며 주변의 각 土司를 안정시

경제는] 관직을 수여하도록 명하였다. 만력(萬曆)<sup>162)</sup> 원년(1573)에 양응룡에게 선위사의 칙서를 주었다.<sup>163)</sup> [만력] 8년(1580)에 고(故) 선위 양렬의 제사와 안장(安葬)을 하사하였는데, 양응룡의 청을 받아들인 것이었다.<sup>164)</sup> [만력] 14년(1586)에 양응룡이 큰 목재 70그루를 헌상하였는데, 목재의 재질이 뛰어나 [만력제는] 비어복(飛魚服)<sup>165)</sup>을 하사하였고, 다시 그의 조부 양빈에게 망포(蟒袍)<sup>166)</sup>를 하사한 선례를 끌어들[여 그에게 추가로 주려 하]였다. 부(部)에서 의논하기를, 양빈은 군공이 있고 또 황제의 특별한 은전에서 나온 것이므로 아직 이에 견줄 수 없다고 [하며 이에 반대]하였다. 만력제는 도지휘사(都指揮使)<sup>167)</sup>의 관함을 양응룡에게 수여하도록 명하였다.

十八年，貴州巡撫葉夢熊疏論應龍凶惡諸事，巡按陳效歷數應龍二十四大罪。時方防禦松潘，調播州土兵協守，四川巡按李化龍疏請暫免勘問，俾應龍戴罪圖功。由是，川·貴撫按疏辨，在蜀者謂應龍無可勘之罪，在黔者謂蜀有私暱應龍之心。於是給事中張希皋等，以事屬重大，兩省利害，豈漫不相關者，乞從公會勘，無執成心。十九年，夢熊主議，播州所轄五司改土爲流，悉屬重慶，與化龍意復相左。化龍遂引嫌求斥。蓋應龍本雄猜，阻兵嗜殺，所轄五司七姓悉叛離。嬖妾田屠妻張氏，并及其母。妻叔張時照與所部何恩·宋世臣等上變，告應龍反。夢熊請發兵剿之，蜀中士大夫悉謂蜀三面隣播，屬裔以什伯數，皆其彈壓，且兵驍勇，數征調有功，剪除未爲長策。以故，蜀撫按并主撫。

키고 楊氏土司를 고립시킨 뒤 湖廣川貴總督 李化龍과 회동하여 이듬해(1600) 반란을 평정하였다. 양응룡은 자살하였다. 이로써 29대 800여 년의 楊氏土司는 종언을 고하였다.

162) 萬曆: 명조 제14대 황제인 神宗 朱翊鈞의 年號이다.

163) 『神宗實錄』 卷8 隆慶 6년 12월 丙子條 참조.

164) 『神宗實錄』 卷101 萬曆 8년 6월 乙巳條 참조.

165) 飛魚服: 飛魚 무늬가 수놓아져 있는 高官의 官服을 가리킨다. 飛魚는 신화 속의 하늘을 날 수 있는 물고기이다. 龍의 형상을 수놓지 않은 복식은 모두 飛魚服 계통이라 할 수 있는데, 『明史』 卷67 「輿服」 3에 따르면, 嘉靖 16년(1537) 이후 대신들이 함부로 蟒衣, 飛魚, 斗牛 등이 새긴 복식의 착용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후 6부 대신과 出征하는 將軍 등에게 飛魚服을 하사했다.

166) 蟒袍: 관원의 禮服이다. 옷 위에 이무기 모양이 수놓아져 있기 때문에 蟒袍라고 불렀다. 花衣, 蟒服이라고도 칭한다.

167) 都指揮使: 都指揮使司의 장관을 가리킨다. 明代에는 각지에 衛所를 두고 都司, 즉 都指揮使司를 상설의 통솔기구로 삼았다. 그 장관인 都指揮使는 조정의 五軍都督府에 예속되었다.

朝議命勘，應龍願赴蜀，不赴黔。

[만력] 18년(1590)에, 귀주 순무 섭몽웅(葉夢熊)<sup>168)</sup>이 상소(上疏)하여 양응룡의 각종 흉악한 일들을 고하였고,<sup>169)</sup> 순안(巡按) 진효(陳效)는 양응룡의 24개<sup>170)</sup> 대죄(大罪)를 하나하나 거론하였다. 당시 바야흐로 송반(松潘)을 방어하느라 파주의 토병을 징발하여 수비에 협조토록 하였는데,<sup>171)</sup> 사천 순안 이화룡(李化龍)<sup>172)</sup>은 상소하여 잠시 현지조사를 면해주어 양응룡으로 하여금 죄를 짊어지고 공을 세우도록 하자고 요청하였다. 이로부터 사천과 귀주의 무안(撫按)<sup>173)</sup>이 상소하여 쟁론하였는데, 촉(蜀)<sup>174)</sup>의 무안은 양응룡이 현지조사를 할 만한 죄가

168) 葉夢熊(1531~1597): 字는 男兆, 號는 龍塘 후에 龍潭으로 바꾸었다. 別號는 華運이다. 惠州府 城萬石坊(지금의 惠城區) 사람이다. 嘉靖 44년(1565)에 進士가 되어, 이후 贛州知府, 安慶知府, 浙江副使, 永平道兵備, 山東布政使, 貴州·陝西·甘肅巡撫 등을 역임하였다. 이후 戰功으로 左都御史로 발탁되어 兵部左侍郎을 겸하였다. 太子少保, 太子太保의 職銜을 받았고, 兵部尙書로 승진했다가 南京工部尙書를 맡았는데, 明代 惠州의 저명한 세 尙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萬曆 20년(1592)에 寧夏에서 몽골의 降將 보바이가 巡撫를 죽이면서 반란을 일으키고 아울러 몽골과 연합하여 起兵하여 河西의 47개 堡를 함락시켰다. 葉夢熊은 兵部尙書 魏學曾을 도와 반란 진압에 나섰다. 하지만 반란 진압이 지지부진하자 魏學曾이 革職되고, 葉夢熊이 대신 진압 부대를 지휘하여 몇 개월 뒤에 城池를 공략하는데 성공했고, 보바이는 자살하였다. 한편 葉夢熊은 文官으로 入仕하여 廉能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다만 후반생은 武功으로 『明史』에 이름이 올라 민족영웅으로 칭송을 받았다. 사후에 葉夢熊의 墓는 당시부터 惠州에서 가장 유명한 古跡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葉夢熊은 文才와 武略이 모두 정통했는데, 저서도 자못 풍성하여 『華雲集』, 『太保集』, 『四庫提要』 등이 전한다.

169) 葉夢熊은 그 외에도 川東道副使 朱運昌이 私情으로 고의로 楊應龍을 풀어주고 공동 현지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朱運昌을 탄핵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神宗實錄』 卷230 萬曆 18년 12월 癸未條 참조.

170) 『神宗實錄』 卷230 萬曆 18년 12월 癸未條의 기사에는 12개 대죄라고 기재되어 있다.

171) 四川撫臣 李尙思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神宗實錄』 卷230 萬曆 18년 12월 癸未條 참조.

172) 李化龍(1554~1611): 字는 于田, 號는 霖竇으로 北直隸 大名府 長垣縣 사람이다. 萬曆 2년(1574)에 進士가 되어 약관 20세에 嵩縣知縣으로 부임하였다. 南京工部主事로 승진한 뒤 右通政使를 거쳐 右僉都御史로 발탁되었다. 萬曆 22년(1594)에 遼東巡撫가 되어 크게 軍政을 정돈하고 여러 차례 몽골의 침입을 저지하였다. 다시 總督湖廣川桂軍務가 되어 楊應龍의 반란을 진압하였다. 후에 兵部尙書로 승진하여 少保가 추가되었고, 다시 工部右侍郎總理河工을 맡았다. 柱國이 더해져 少傅兼太子太保가 되었으나 임기 중에 病死하였다. 諡號는 襄毅였고, 少師로 追贈을 받았다가 다시 太師가 더해졌다.

173) 撫按: 巡撫와 巡按御史의 合稱이다.

174) 蜀: 四川省의 별칭이다. 중국 서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川’이라고도 하며 48만km<sup>2</sup>의 면적에

없다고 말했고, 검(黔)의 무안은 축이 양응룡과 친해지려는 사심이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급사중(給事中)<sup>175)</sup> 장희고(張希皋) 등이 사정이 중대하니 양 성(省)의 이해(利害)가 어찌 조금도 서로 관계가 없겠냐며, 공공의 원칙에 따라 회동하여 현지조사를 해서 편견을 갖지 않기를 청하였다.<sup>176)</sup> [만력] 19년(1591)에, 섬몽웅이 논의를 주지(主持)하여 파주에서 관할하는 5개의 사(司)를 개토귀류(改土歸流)<sup>177)</sup>해서 모두 중경(重慶)<sup>178)</sup>에 예속시키도록 하였

2010년 현재 인구가 약 8000만에 이르는 거대 지방 행정 구역 가운데 하나이다. 25,000년 전부터三星堆 문명 등의 출현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일찍부터 고대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며, 秦이 蜀 지역을 점령하고 난 후 蜀郡과 漢郡의 두 행정 구역을 이곳에 설치했다. 삼국시대 劉備가 蜀漢(221~263)을 건설한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唐代 安史의 亂을 피해 玄宗이 피신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明末 농민반란군 지도자인 張獻忠이 이곳에 大西 정권(1644~1646)을 세운 이후 明末·清初 교체기에는 전란이 많이 발생했다. 이후 清初에는 湖廣(湖北과 湖南) 사람들이 사천을 메우고 있다는 의미의 ‘湖廣填四川’이라는 속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이주민들이 몰려들어 적극적인 개발의 무대가 된 곳이었다. 漢代 내내 益州 지역으로 불렸으며, 宋 咸平 4년(1001)에 四川路가 되면서 사천이란 명칭이 처음 등장한다.

175) 給事中: 六科의 각 科마다 給事中 약간 명을 두었다. 官品은 從七品이었다. 그 직무는 侍從, 規諫, 補闕, 拾遺와 六部 및 각 官府를 稽察하는 등의 일이었다(『明史』卷74「職官志」3〈吏戶禮兵刑工六科〉참조).

176) 『神宗實錄』卷230 萬曆 18년 12월 癸未條 참조.

177) 改土歸流: 土司를 流官으로 바꾸는 것을 가리킨다. 즉, 소수민족의 수령을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관료로 교체하는 것을 뜻한다.

178) 重慶: 山城, 渝都, 霧都, 橋都라고도 칭하는데, 약칭은 渝 혹은 巴이다. 중국의 내륙 서남부, 長江 상류, 四川盆地 동남부에 위치하는데, 동으로는 湖北省과 湖南省에 임하고, 남으로는 貴州省과 접하며, 서북으로는 四川省, 동북부로는 陝西省과 서로 이어진다. 夏商시기에 三峽地區는 전국의 주요 巖鹽 산출지였던 관계로 早期의 巴國文明이 탄생했다. 先秦시기에는 제후국이었던 巴國이 수도로 삼았다. 기원전 689년 이후 巴國은 楚國과 끊임없는 전쟁 국면에 돌입하였다. 기원전 316년 張儀가 巴國을 멸망시킨 이후 江州城을 쌓았는데, 이것이 重慶에 성을 쌓은 시초이다. 후에 秦이 천하를 36郡으로 나누었는데, 巴郡도 그중의 하나였다. 漢代에는 巴郡을 江州라 칭했고, 益州刺史가 관할하였다. 魏·晉南北朝시기에 巴郡은 荊州, 益州, 巴州, 楚州의 관할 구역이 되었다. 隋 文帝 開皇 원년(581)에 楚州를 渝州로 개칭하였는데, 이것이 重慶의 약칭 渝의 내력이 된다. 北宋 崇寧 원년(1102) 趙諗의 모반 사건이 일어나자 徽宗은 ‘渝’가 ‘變’의 의미라는 이유로 渝州를 恭州로 바꾸었다. 淳熙 16년(1189) 光宗은 恭州를 重慶府로 승격시켰다. 이로부터 重慶이란 이름이 생겼다. 南宋 景定 2년, 蒙古 中統 2년(1261) 몽골군이 成都를 함락시키자 宋軍은 重慶으로 후퇴하였는데, 彭大雅가 重慶知府가 되어 방어의 필요에서 중경성을 수축하였는데 과거의 江州城에 비하여 2배로 확장되었다. 南宋 景炎 3년, 元 至元 15년(1278)에 몽골군이 중경을 함락시켰는데, 몽골군의 入城時에 宋軍은 격렬한 저항을 하여 결국 重慶은 몽골군에게 屠殺의 피해를 입었다. 元·明·清 3대에 걸쳐 重慶府라는 칭호는 연속되었는데, 元代에는 四川行

는데, 이화룡의 뜻과는 다시 서로 부합하지 않았다. 이화룡은 드디어 혐의를 피하려고 물리칠 것을 요구하였다.<sup>179)</sup> 대개 양응룡은 본래 뜻은 컸지만 의심이 많았고, 군대에 의지하여 살인을 좋아하였는데, 관할하는 5개 사(司)와 7개 성(姓)이 모두 이반(離叛)하였다. 폐첩(嬖妾)<sup>180)</sup> 전(田)이 처 장씨(張氏)를 도륙하고, 아울러 그녀의 모친에까지 미치었다. 처의 숙부 장시조(張時照)는 그의 부하 하은(何恩)·송세신(宋世臣) 등과 함께 변고를 보고하며 양응룡의 반란을 알렸다. 섭봉옹은 병사를 내어 그를 토벌할 것을 청하였는데, 측 내의 사대부들은 모두 말하기를, 측은 삼면으로 파주와 인접하고 있고 부족의 후대는 열배 백배로 계산되어도 모두 그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또 군대는 용맹하며 여러 차례 징발되어 공을 세웠으니, 제거하는 것은 아직 양책(良策)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고로 측은 무안은 모두 위무(慰撫)를 주장하였다. 조정에서 의논하여 현지조사를 명하였는데, 양응룡은 측에 가기를 원했지만 겁에는 가려 하지 않았다.<sup>181)</sup>

二十年，應龍詣重慶對簿，坐法當斬，請以二萬金贖。御史張鶴鳴方駁問，會倭大入朝鮮，徵天下兵，應龍因奏辨，且願將五千兵征倭自贖，詔釋之。兵已啓行，尋報罷。巡撫王繼光至，嚴提勘結，應龍抗不出。張時照等復詣奏闕下，繼光用兵之議遂決。二十一年，繼光至重慶，與總兵劉承嗣等分兵三道進婁山關，屯白石口。應龍佯約降，而統苗兵據關衝擊。承嗣兵敗，殺傷大半。會繼光論罷，即撤兵，委棄輜重略盡。黔師協剿，亦無功。時四川新撫譚希忠與貴州鎮·撫再議剿，御史薛繼茂主撫。應龍上書自白，遣其黨攜金入京行間，執原奏何恩詣綦江縣。

[만력] 20년(1592)에 양응룡이 중경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치죄되어 참수에 해당되었으나 2만 금(金)으로 속죄를 청하였다. 어사(御史) 장학명(張鶴鳴)<sup>182)</sup>이 바야흐로 [그 요청을]

中書省，明代에는 四川布政使司，清代에는 四川總督이 관할하였다.

179) 『神宗實錄』 卷235 萬曆 19년 4월 戊戌條 참조.

180) 嬖妾: 愛妾과 같은 의미의 용어이다.

181) 『明史紀事本末』 卷64 「平楊應龍」.

182) 張鶴鳴(1551~1635): 字는 元平이고, 號는 風臯이며, 潁州(지금의 安徽 阜陽) 사람이다. 26세에 舉人이 되고, 萬曆 14년(1586)에 進士가 되어 山東 歷城縣 知縣으로 부임했다가 貴州巡撫, 兵部右侍郎으로

물리치고 심문을 하였는데, 마침 왜(倭)가 크게 조선(朝鮮)을 침입<sup>183)</sup>하여 천하의 병사를 징집하였기에, 양응룡은 이를 이용하여 상주하여 변론하고 또 5,000의 병사를 거느리고 왜를 정토(征討)하여 스스로 속죄하기를 청하니, [만력제는] 조서를 내려 그를 석방시키도록 하였다. 군대가 이미 출정하였으나 얼마 후 그만두도록 담보를 내렸다. 순무 왕계광(王繼光)<sup>184)</sup>이 이르러 엄히 그의 신병을 확보하여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양응룡은 이에 저항하여 나오지 않았다.<sup>185)</sup> 장시조 등이 다시 궐하(闕下)<sup>186)</sup>에 나아가 상주하니, 왕계광의 군대 동원 의견 [채택]이 드디어 결정되었다. [만력] 21년(1593)에, 왕계광이 중경에 이르러 총병 유승사(劉承嗣) 등과 군대를 셋으로 나누어 누산관(婁山關)<sup>187)</sup>으로 들어가 백석구(白石口)에 주둔하였다. 양응룡은 거짓으로 투항을 약정(約定)한 뒤 묘족 군대를 거느리고 관(關)에 의거하여 공격하

승진하였다. 天啓 원년(1621)에는 兵部尙書로 승진하였다. 당시 遼東에서 熊廷弼과 巡撫 王化貞이 不和하여 邊疆의 정세가 크게 어그러졌는데, 그는 熊廷弼를 물리치고 王化貞을 專任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건의가 상정되었지만 王化貞이 이미 廣寧을 버리고 달아나버렸다. 그는 결국 탄핵을 받아, 병을 핑계로 귀향해야 했다. 당시 魏忠賢이 전횡을 하고 있었는데, 張鶴鳴을 기용하여 南京工部尙書와 兵部尙書로 기용했으며, 貴州, 四川, 雲南, 湖廣, 廣西 등지의 軍務를 總督하였다. 그러나 崇禎 원년(1628)에 다시 탄핵을 받고 낙향하였다. 후에 李自成 농민군이 潁州城을 공격하자 그와 둘째 동생 張鶴騰, 셋째 동생 張鶴齡 등이 鄉兵을 모아 성을 지켰지만, 끝내 함락되어 모두 피살되었는데, 당시 나이가 84세였다. 崇禎帝는 그의 충절을 생각하여 제사를 지내고 旌表토록 했으며, 天棚集에 ‘忠義英烈’의 牌坊을 세우고 그 위에 ‘張鶴鳴張鶴騰爲國殉難’이란 글자를 새겨넣도록 하였다.

183) 壬辰倭亂을 가리킨다.

184) 王繼光(1557~1625): 字는 子善, 號는 泉阜이다. 萬曆 5년(1577)에 進士로 登第하였다. 萬曆 10년(1582)에 首輔 張居正이 병으로 위독해지자 장거정은 潘晟을 후임자로 추천하였다. 潘晟이 禮部尙書兼武英殿大學士 자격으로 入召되었으나 아직 부임하기 전에 給事中 王繼光은 御史 王國 등과 함께 그를 탄핵하였다. 6월 20일 장거정이 病死하자 潘晟은 부임도 하지 못하고 파직되었다. 萬曆 11년(1583) 2월에 戶科給事中 王繼光이 兵部尙書 吳兌를 탄핵하였다. 萬曆 18년(1590)에는 左都御史 吳時來와 副都御史 詹仰庇를 탄핵하였다. 다만 王繼光도 끝내는 자신이 탄핵을 당하게 되었다. 萬曆 21년(1593) 정월에 都御史 王繼光이 四川巡撫로 파견되었는데, 그는 楊應龍을 직접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楊應龍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王繼光은 參將 郭成 등을 보내 楊應龍을 토벌토록 했으나, 婁山關에서 戰敗하여 全軍이 覆沒하였다. 이에 禮科給事中 徐成楚가 王繼光을 탄핵하였던 것이다.

185) 『神宗實錄』 卷264 萬曆 21년 9월 丙寅條 참조.

186) 闕下: 宮廷을 가리킨다.

187) 婁山關: 太平關이라고도 칭하는 貴州 북부의 제일의 要塞이자 兵家の 必爭之地로 유명하다. 평소 “한 사람이 關門을 지키고 있으면 만 명이 당해내지를 못한다”는 말이 있었다. 遵義와 桐梓 두 縣의 경계에 위치하는데, 貴州와 四川 사이의 교통로 상의 중요한 關口이기도 하다.

였다. 유승사는 전투에 져서 태반이 살상을 당하였다. 마침 왕계광이 싸움 중지를 논하여 곧 철병하였는데, 치중(輜重)<sup>188)</sup>이 거의 다 버려졌다. 검(黔)의 군대가 협력하여 소탕에 나섰지만 또한 성공하지 못하였다. 당시 사천의 새로운 순무 담희충(譚希忠)과 귀주의 진(鎭)·무(撫)는 다시 소탕을 건의하였고, 어사 설계무(薛繼茂)는 위무를 주장하였다. 양응룡은 상서(上書)하여 스스로의 결백을 표명하고, 자신의 일당을 보내어 금을 가지고 경사에 가서 이간책을 실행하여, 원래 상주하여 고발한 하은(何恩)을 붙잡아 기강현(綦江縣)에 이르렀다.<sup>189)</sup>

二十二年，以兵部侍郎刑玠總督貴州。二十三年，玠至蜀，察永寧·西陽皆應龍姻婭，而黃平·白泥久爲仇讐，宜剪其枝黨。乃檄應龍，謂當待以不死。會水西宣慰安疆臣請父國亨恤典，兵部尚書石星手札示疆臣，趣應龍就吏得賞，疆臣奉札至播招應龍。時七姓恐應龍出得除罪，而四方亡命竄匿其間，又幸龍反，因以爲利，驛傳文移，輒從中阻。玠檄重慶知府王士琦詣綦江，趣應龍安穩聽勘。應龍使弟兆龍至安穩，治郵舍，儲糒，叩頭郊迎，致餽牽如禮，言：「應龍縛渠魁，待罪松坎。所不敢至安穩者，恐墮安穩仇民不測禍也，幸請至松坎受事。」士琦曰，「松坎亦曩奏勘地。」卽單騎往。應龍果面縛道旁，泣請死罪，願執罪人，獻罰金，得自比安國亨。國亨者，曩亦被計懼罪不出界，故應龍引之。士琦爲請於玠，許之，應龍乃縛獻黃元等十二人。案驗，抵應龍斬，論贖，輸四萬金助采木，仍革職，以子朝棟代。次子可棟羈府追贖，黃元等斬重慶市，總督以聞。時倭氛未靖，兵部欲緩應龍，事東方，朝廷亦以應龍向有積勞，可其奏。於松坎設同知治焉，以士琦爲川東兵備副使彈治之。

[만력] 22년(1594)에 병부시랑 형개(刑玠)<sup>190)</sup>를 귀주의 총독으로 삼았다. [만력] 23년

188) 輜重: 隨行하는 군인들이 운반하는 軍用의 무기와 軍糧을 가리킨다.

189) 『明史紀事本末』 卷64 「平楊應龍」.

190) 刑玠(1540~1612): 字는 搢伯으로 山東 益都 사람이다. 隆慶 5년(1571)에 進士에 급제하여 密運知縣에 제수되었다가 御史로 발탁되었다. 萬曆 22년(1594)에 南京兵部右侍郎總督川貴軍務 자격으로 楊應龍의 반란을 토벌하였다. 이듬해(1595)에 양응룡의 투항으로 군대를 파하고 귀환하여 右都御史가 더해졌다. 萬曆 25년(1597)에 總督薊·遼·保定軍務 자격으로 朝鮮에 파견되었다. 經略 楊鎬와 함께 일본군을 蔚山에서 공격했지만 大敗를 당하고 말았다. 이듬해(1598) 일본군이 철수한 뒤 刑玠는 捷報를

(1595)에 형개가 측에 이르러 조사해보니, 영녕(永寧)과 유양(西陽)은 모두 양응룡의 인친(姻親)이고, 황평(黃平)과 백니(白泥)는 오랫동안 원수였기 때문에 마땅히 그의 한 패거리를 제거해야 하였다. 이에 양응룡에게 격문을 보내어 마땅히 관용을 베풀어 죽이지 않을 것임을 일렀다. 마침 수서 선위 안강신(安疆臣)<sup>191)</sup>이 부친 안국형(安國亨)<sup>192)</sup>에게 홀전(恤典)<sup>193)</sup>을 내리기를 청하자, 병부상서 석성(石星)<sup>194)</sup>은 친히 서신을 작성하여 안강신에게 보이고 양응룡에게 심리(審理)를 거쳐 사면을 받도록 재촉하도록 하니, 안강신은 서신을 가지고 파주에

올렸고 功으로 世蔭을 부여받았다.

191) 安疆臣(?~1608): 貴州 水西(지금의 大方 일대) 사람이다. 彝族의 土司로서 貴州宣慰使 安國亨의 아들이다. 萬曆 26년(1598)에 宣慰使 직을 세습하였다. 당시 楊應龍의 반란이 일어나자 安疆臣은 적극적으로 토벌에 참여하여 길을 빌려주었을 뿐 아니라 직접 參戰하였다. 반란 평정 이후 明 朝廷에서 각종 恩典을 받았다. 이로부터 水西土司의 세력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萬曆 36년(1608)에 安疆臣이 사망하자 安堯臣이 계승하였으나, 萬曆 41년(1613)에 安堯臣도 사망하여 安位가 승계했지만, 나이가 어려 실권은 安邦彥의 수중에 떨어지게 되었다.

192) 安國亨(?~1597): 貴州 水西(지금의 貴州 大方 일대) 사람이다. 彝族土司인 그는 耆香夫人의 후예이다. 嘉靖 41년(1562) 叔祖 安萬鎰의 직위를 승계하여 貴州宣慰使를 맡았다. 그는 萬安鎰의 장자 萬安信을 補佐로 삼았다. 다만 安國亨의 품성 문제를 萬安信이 간하다가, 隆慶 4년(1570)에 安國亨이 도리어 萬安信을 살해하였다. 이에 그 동생 比那(지금의 織金) 두목 萬安智와 그 姐夫인 永寧宣慰使 安效忠이 安國亨의 모반을 알려 서로 약정해서 출병하여 水西를 공격하였다. 이로부터 安氏 부족 상호간의 공방전이 약 10년에 걸쳐 전개되었다. 후에 신임 貴州巡撫 阮文忠과 御史 鄭國士가 대군을 동원하여 토벌하니, 安國亨이 투항하여 伏罪함으로써 분쟁이 종결되었다. 安國亨은 冠帶가 박탈되었으나, 萬曆 9년(1581)에 復官되었다. 이후에 그는 농업생산 발전에 주력하고 백성을 조직해서 개간에 힘썼으며, 빈궁한 자에게 耕牛와 農具를 빌려주었다. 아울러 반란진압에 조력하고 境內의 안정에 진력하였다. 그는 詩를 잘 짓고, 書藝에 능했는데, 특히 楷書에 뛰어났다. 修文과 大方 등지에 摩巖과 碑刻에 그의 작품이 다수 남아 있다. 萬曆 25년(1597)에 사망하자 安疆臣이 그의 직위를 승계하였다.

193) 恤典: 朝廷에서 타계한 官吏에게 나누어주는 輟朝示哀, 賜祭, 配饗, 追封, 贈諡, 樹碑, 立坊, 建祠, 恤賞, 恤蔭 등의 典例를 가리킨다.

194) 石星(1538~1599): 河北省 大名府 東明 사람으로, 字는 拱宸이고 號는 東泉이다. 嘉靖 38년(1559)에 進士가 되어 吏科給事中에 발탁되었다. 隆慶 초에 글을 올려 內臣들이 방자하고 원칙이 없음을 지적했다가 廷杖을 맞고 쫓겨나 평민이 되었다. 萬曆 초에 다시 기용되어 萬曆 15년(1587)에 兵部尙書, 萬曆 18년(1590)에는 戶部尙書가 되었다. 특히 조선에서의 請援에 적극적인 출정방책을 세워 派兵토록 하였고, 1592년 9월에 영하의 반란이 평정되자 10월에 스스로 出征하고자 했으나 허락받지 못했다. 이에 寧夏의 반란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李如松을 조선에 파견하였다. 이후 일본과의 강화교섭 과정에서 策士인 沈惟敬에게 농락되어 강화가 실패하자, 그 책임을 물어 萬曆 25년(1597) 3월에 관직을 삭탈당하고 하옥되었으며, 이듬해인 1598년에 獄에서 죽었다.

이르러 양응룡을 초무하였다. 당시 7개 대족(大族)이 양응룡이 출경(出境)하여 면죄(免罪)되고 사방이 그 사이에 망명하여 숨어들어갈까 두려워했으며, 또 양응룡이 반항하여 이를 기회로 이익을 얻고자 하여, 역전(驛傳)으로 공문이 전달될 때 번번이 도중에 방해하였다. 형개는 중경 지부(知府) 왕사기(王士琦)<sup>195)</sup>에게 격문을 보내어 기강(綦江)에 가서 양응룡이 안은(安穩)에 이르러 조사를 반도록 재촉하도록 하였다. 양응룡은 아우 양조룡(楊兆龍)을 시켜 안은에 이르러 우사(郵舍)를 정돈하고 건량(乾糧)을 비축한 뒤 고두(叩頭)하여 교외에서 영접하여, 의례(儀禮)대로 산 짐승을 보내고, 말하기를, “양응룡이 괴수(魁首)를 결박하여 송감(松坎)에서 치죄당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히 안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안은의 원수들이 설정한 헤아릴 수 없는 화(禍)에 빠질까 두려워서이니, 청컨대 송감에 이르러 직무를 접수할 수 있다면 다행이겠습니다”라 하였다. 왕사기가 말하기를, “송감 또한 예전에 심문을 상주한 곳이다”라 하고, 곧 홀로 말을 타고 [그곳으로] 갔다. 양응룡은 과연 길가에서 결박된 상태로 울면서 사죄(死罪)를 청하였고, 죄인을 붙잡고 벌금을 바쳐 스스로 안국형(安國亭)에 비길 수 있기를 원하였다. 안국형이란 자는 예전에 또한 고발을 당하여 죄가 두려워 [자신의] 경계를 나가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양응룡이 끌어들이는 것이다. 왕사기가 그를 위하여 형개에게 청하여 이를 허락하자, 양응룡이 이에 황원(黃元) 등 12명을 결박하여 바쳤다. 심문조사를 하여 양응룡은 참수에 해당되었으나 속죄(贖罪)로 판결해서 4만금을 내어 목재 채벌을 돕도록 하되, 관직은 벗겨 그 아들 양조동(楊朝棟)으로 대신토록 하였다. 차자(次子) 양가동(楊可棟)은 관부(官府)에 구류(拘留)시켜 추속(追贖)토록 했으며, 황원 등은 중경의 저자에서 참수하였는데, 총독이 [이상의 내용을] 보고하였다. 당시 왜(倭)의 기운이 아직 잠잠해지지 않아 병부에서는 양응룡에 대한 처리를 늦추고 동방(東方)<sup>196)</sup>에 전념하고자 했고, 조정 또한 양응

195) 王士琦(1551~1618): 字는 圭叔이고, 湖는 豐興이며, 絶江 台州 臨海 사람이다. 萬曆 11년(1583)에 進士로, 南京工部主事를 거쳐 兵部郎中에 임명되었다. 萬曆 18년(1590)에 福州知府, 萬曆 23년(1595)에 重慶知府가 되었다. 당시 播州에서 楊應龍이 모반하자 王士琦는 單騎로 나아가 招撫하였으며, 이후 四川按察副使가 되었다. 萬曆 26년(1598)에는 山東參政이 되어 總兵 劉綎과 함께 經略 刑玠를 따라 朝鮮에 출병하여 일본군과 맞섰다. 栗林 전투에서 적의 수급 수백을 참하고 勝戰하였으며, 이 공으로 河南左布政使로 승진하였다. 이후 山西右布政이 되어 冀北을 순시하고, 다시 山西左布政이 되어 冀北의 방어를 지휘하였다. 萬曆 44년(1616)에는 右都御史로 승진하여 大同을 巡撫하였다. 그는 오랜 기간 동안 북부 변경을 방어하고 邊疆의 사무를 잘 처리하여 威信이 높았다. 萬曆 46년(1618)에 江南 巡撫가 되었으나 부임 전 누적된 과로로 인하여 山西에서 타계하였다.

196) 東方: 여기서는 조선에서의 일본과의 싸움을 가리킨다.

룡이 전에 공로가 있었다는 이유로 병부의 상주를 옳다고 여겼다. 송감에 동지(同知)를 설치하여 다스리도록 하고, 왕사기를 천둥(川東) 병비부사(兵備副使)로 삼아 통제하여 다스리도록 하였다.<sup>197)</sup>

應龍獲寬，益怙終不悛。尋可棟死於重慶，益痛恨。促喪歸不得，復檄完贖，大言曰：「吾子活，銀卽至矣。」擁兵驅千餘僧招魂去。分遣土目，置關據險。厚撫諸苗，名其健者爲硬手；州人稍殷厚者，沒入其貲以養苗。苗人咸願爲出死力。

양응룡이 관용을 받았지만 더욱 믿는 바가 있어 끝내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 얼마 후에 양가동이 중경에서 죽자 더욱 [조정을] 몹시 원망하였다. 귀향하여 장례를 치르도록 재촉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다시 격문을 보내어 속전(贖錢)을 완납하도록 하니, 큰 소리로 말하기를, “내 아들이 살아난다면 은은 즉각 보낼 것이다”라 하였다. 군대를 대동하여 천여 명의 승려를 몰아서 초혼(招魂)하도록 하였다. 토착의 두목을 나누어 보내 관(關)을 설치하여 험요(險要)에 기대었다. 여러 묘족을 두터이 위무(慰撫)하였는데, 그 건장한 자들을 경수(硬手)라 칭하였다. 주(州)의 사람들 가운데 조금 부유한 자들은 그 재산을 몰수하여 묘족을 공양(供養)하였다. 묘족 사람들은 모두 그를 위하여 사력(死力)을 다하기를 원하였다.<sup>198)</sup>

二十四年，應龍殘餘慶，掠大阡·都壩，焚劫草塘·餘慶二司及興隆·都勻各衛。又遣其黨圍黃平，戮重安長官家，勢復大熾。二十五年流劫江津及南川，臨合江，索其仇袁子升，絕城下，磔之。時兵備王士琦調征倭，應龍益統苗兵，大掠貴州洪頭·高坪·新村諸屯。已，又侵湖廣四十八屯，阻塞驛站。訶原奏仇民宋世臣·羅承恩等挈家匿偏橋衛，襲破之。大索城中，戮其父母，淫其妻女，備極慘酷。

[만력] 24년(1596)에, 양응룡이 여경(餘慶)을 잔살(殘殺)하고 대천(大阡)·도패(都壩)를 노략질하였으며, 초당과 여경의 2개 사(司) 및 흥룡(興隆)·도균(都勻) 등 각 위(衛)를 불태우

197) 『明史紀事本末』 卷64 「平楊應龍」.

198) 『明史紀事本末』 卷64 「平楊應龍」.

고 약탈하였다. 또 그 일당을 보내어 황평(黃平)을 포위하고 중안(重安) 장관의 가인(家人)들을 살육하여 세력이 다시 크게 성하였다. [만력] 25년(1597)에는 도처로 나아가서 강진(江津) 및 남천(南川)을 약탈하고, 합강(合江)에 도달하여 그의 원수 원자승(袁子升)을 묶어 성 아래에 매어달아 능지처사(陵遲處死)하였다. 당시 병비(兵備) 왕사기(王士琦)가 왜(倭)를 정토(征討)하러 가니, 양응룡은 더욱 묘족의 군대를 거느리고 귀주의 홍두(洪頭)·고평(高坪)·신촌(新村) 등 여러 둔보(屯堡)를 크게 약탈하였다. 얼마 후 다시 호광의 48개 둔보를 공격하여 역참을 방해하였다. [그는] 원래 상주한 원수 송세신(宋世臣)·나승은(羅承恩) 등이 가족(家屬)을 거느리고 편교위(偏橋衛)에 숨어 있음을 정찰하고서 [이들을] 습격하여 격파하였다. 대대적으로 성(城) 안을 수색하여 그들의 부모를 살해하고 그들의 아내와 딸을 능욕하니 참혹함이 극에 달하였다.<sup>199)</sup>

二十七年，貴州巡撫江東之令都司楊國柱部卒三千剿應龍，奪三百落。賊佯北，誘師殲焉，國柱等盡死。東之罷，以郭子章代，而起李化龍節制川·湖·貴州諸軍事，調東征諸將劉綎·麻貴·陳璘·董一元南征。時應龍乘大兵未集，勒兵犯綦江。城中新募兵不滿三千，賊兵八萬奄至，游擊張良賢巷戰死，綦江陷。應龍盡殺城中人，投屍蔽江，水爲赤。益結九股生苗及黑脚苗等爲助，屯官壩，聲窺蜀。已，遂焚東坡·爛橋，楚·黔路梗。

[만력] 27년(1599)에, 귀주 순무 강동지(江東之)<sup>200)</sup>는 도사(都司) 양국주(楊國柱)<sup>201)</sup>에게

199) 『明史紀事本末』 卷64 「平楊應龍」.

200) 江東之(?~1599): 字는 長信으로, 徽州 歙縣 사람이다. 萬曆 5년(1577)에 進士에 급제하여 御史로 발탁되었는데, 馮保와 徐爵을 탄핵하여 萬曆帝에게 주목을 받았다. 후에 壽宮을 諫하다가 霍州로 좌천되었으나 병이 나 면제되었다. 다시 기용되어 知鄧州가 되었으며, 후에 右僉都御史로 승진하여 貴州 巡撫에 임명되어 高砦의 苗族 반란을 진압하였고, 100여 首級을 참하였다. 다시 楊應龍을 토벌하다가 패전하여 일반 백성으로 강등되었는데,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

201) 楊國柱(?~1642): 明朝의 軍事人物로서 관직은 宣府總兵에까지 이르렀다. 崇禎 14년(1642) 淸軍이 錦州를 침공하여 松錦의 전투가 폭발하였다. 7월 26일 洪承疇가 寧遠에서 誓師하고 8명의 總兵과 13만 명을 거느리고 출격하여 28일에 錦州城 남쪽의 乳峰山 일대에 이르렀다. 29일 楊國柱에게 명하여 부대를 이끌고 나아가 西石門을 공격토록 하였으나, 楊國柱는 淸軍의 매복에 걸리고 말았다. 淸軍은

명하여 사병(士兵) 3,000명을 지휘하여 양응룡을 토벌하여 삼백락(三百落)을 빼앗도록 하였다. [그런데] 도적이 패배를 가장하여 군대를 유인한 뒤 섬멸시켰는데, 양국주 등이 모두 전사하였다. 강동지는 파면되고 곽자장(郭子章)<sup>202</sup>으로 대리케 하였으며, 이화룡(李化龍)을 기용하여 사천·호광·귀주 각지의 군무(軍務)를 지휘토록 하였고, 동정(東征)의 여러 장령인 유정(劉綎)<sup>203</sup>·마귀(麻貴)<sup>204</sup>·진린(陳璘)<sup>205</sup>·동일원(董一元)<sup>206</sup> 등을 동원하여 남정(南

高官과 厚祿으로 회유하여 항복을 권했지만, 楊國柱는 이를 거부하여 결사항전을 하니, 결국 화살을 맞고 사망하였다.

202) 郭子章(1543~1618): 字는 相奎, 號는 靑螺, 自號는 玳衣生이다. 江西 泰和縣의 書香門第 출신이다.

203) 劉綎(1560~1619): 本名은 龔綎, 字는 子綬, 號는 省棼로서 江西 南昌 출신이다. 明末의 저명한 將領인데, 사람들은 ‘劉大刀’라고 불렀다. 嘉靖 연간(1522~1566) 大將軍 都督 龔顯의 아들이다. 그의 부친인 龔顯이 어려서 四川을 전전할 때 劉岷이라는 사람에게서 은혜를 입었는데, 그를 부친과 같이 여겨 姓을 劉로 바꾸었다. 萬曆 10년(1582)에 緬甸이 雲南 일대를 공격하자 萬曆 11년(1583)에 그는 遊擊將軍으로서 수비를 담당했고 후에 副總兵이 되었다. 이후 일본이 朝鮮을 침략하였을 때, 그는 조정의 명을 받아 萬曆 21년(1593)에 四川兵 5,000명을 이끌고 참전하였으며, 얼마 후 四川總兵이 되어 楊應龍의 반란을 討平했다. 그 후로 左都督에 올라 後金의 공격을 막다가 1619년에 사르후[薩爾滸] 전투에서 戰死했다.

204) 麻貴: 生卒年 미상. 字는 西泉이며, 回族으로서 大同 右衛(지금의 山西 朔州 右玉縣) 사람이다. 그 부친 麻祿은 일찍이 嘉靖 연간(1522~1566)에 大同參將을 역임하였다. 舍人으로서 從軍하여 공을 세워 都指揮僉事로 승진한 뒤 宣府遊擊將軍으로 充任되었다. 隆慶 연간에 大同 新平堡 參將을 담당하였다. 몽골 타타르부가 변경을 침입하여 山陰, 懷仁, 應州 등이 모두 차례로 함락되었지만, 大同 右衛만이 麻貴 형제의 활약으로 保全될 수 있었다. 그 공으로 麻貴는 萬曆 初年에 大同副總兵으로 임명되었다. 萬曆 10년(1582)에는 都督僉事로 寧夏의 總兵이 되었고, 얼마 후에는 다시 大同總兵이 되었다. 萬曆 20년(1592) 寧夏의 보바이가 반란을 일으켰다. 麻貴는 보바이 반란을 진압하는 데 결정적 공을 세워 延綏鎮 總兵으로 봉해졌다. 萬曆 25년(1597)에 일본이 朝鮮에서 제2차 침공을 가하자 麻貴는 備倭總兵官으로 임명되어 朝鮮으로 출정하였다. 麻貴는 副將 解生을 보내 朝鮮의 都體察使 李元翼과 함께 稷山에서 倭軍을 격퇴시켰다. 이듬해(1598)에는 劉綎, 陳璘, 董一元과 함께 水陸 4路로 나누어 반격을 가하였다. 麻貴는 東路軍을 거느리고 일본의 加藤清正이 지휘하는 제2군을 공격하였다. 바로 이때 豊臣秀吉의 사망 소식이 전해져 倭軍이 도주하였다. 戰後에 조정에서 麻貴의 전공을 감안하여 右都督으로 승진시켰다. 萬曆 38년(1610)에는 遼東鎮守가 되어 재차 몽골군을 격퇴시켰지만, 후에 병으로 퇴직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였다. 한편 麻貴의 형 麻錦과 조카 麻承勳도 당시 유명한 將領이었다. 까닭에 당시 사람들은 麻家와 마찬가지로 武將 世家인 李如松·李如栢 등과 並稱하여 ‘東李西麻’라고 하였다.

205) 陳璘(1543~1607): 字는 朝爵, 號는 龍崖로, 廣東 翁源縣 龍田鋪(지금의 周陂 龍田村) 사람이다. 신체가 壯健하고 힘이 남달랐으며 검술을 연마하고 韜略을 익혔다. 嘉靖 41년(1562) 潮州, 連江 등지에서 수만 명이 반란을 일으켜 廣東지역이 큰 혼란에 빠지자 總督이 兵法에 밝은 자를 萬戶로 封爵하겠다는

征)토록 하였다. 당시 양응룡은 대군이 아직 모이지 않은 때를 틈타 군대를 통솔하여 기강(基江)을 침범하였다. 성중에 새로 초모(招募)한 병사는 3천 명에 미치지 못했는데, 적군 8만 명이 갑자기 이르자 유격(游擊) 장량현(張良賢)은 항전(巷戰)에서 전사하고 기강은 함락되었다. 양응룡은 성중의 인민을 모두 죽이고 시체는 던져 강을 덮어버리니 강물은 붉은색으로 변하였다. [그는] 한걸음 더 나아가 구고(九股)의 귀순하지 않는 묘족 및 흑각묘(黑脚苗) 등과 협조관계를 맺고 관패(官壩)에 주둔하며 촉(蜀)을 엿볼 것이라고 큰소리쳤다. 얼마 후 마침내 동파(東坡)와 난교(爛橋)를 불태우니, 초(楚)<sup>207</sup>와 검(黔)으로의 길이 막혔다.<sup>208)</sup>

숨을 내렸다. 이때 陳璘이 軍門에 獻策하니, 총독이 크게 칭찬하고는 署把總의 軍銜을 주어 군대를 거느리고 출정하여 반란을 진압하도록 하였다. 嘉靖 말년에 指揮僉事로 승진하였는데, 英德의 반란을 진압한 공으로 廣東守備로 진급하였다. 萬曆 초년에도 몇 차례 농민반란을 진압한 공으로 署都指揮僉事, 僉書廣東都司, 高州參將 등으로 승진하였다. 廣東總督 凌雲翼이 羅旁을 정벌할 때 陳璘이 참전하여 크게 전공을 세워 副總兵 겸 署東安參將이 되었다. 萬曆 25년(1597) 조선에서 이른바 丁酉再亂이 일어나자 陳璘은 조정의 명을 받고 廣東兵 5,000명을 거느리고 조선으로 出征하였다. 이듬해 2월 御倭總兵官으로 승진하여 水軍을 提督하였다. 陳璘은 水軍 13,000명과 戰船 500여 척을 지휘하여 조선의 충청, 전라, 경상도 등의 海口로 진군하였다. 얼마 후 일본의 豊臣秀吉이 사망하여 倭軍의 사기가 동요되었다. 陳璘은 鄧子龍과 조선의 명장 李舜臣과 함께 挾擊하였다. 비록 鄧子龍과 李舜臣이 희생되었지만, 이 전투에서 倭船은 큰 타격을 입었다. 倭軍과의 전투가 끝난 후에 논공행상을 할 때 陳璘이 첫 번째였고, 그 다음이 劉綎, 그 다음이 麻貴였다. 陳璘은 都督同知로 승진하고, 指揮僉事는 세습되었다. 萬曆 28년(1600)에 湖廣總兵官이 되어 播州的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출정하였으나, 탄핵을 받고 貴州로 돌아왔다. 萬曆 34년(1606)에 다시 명을 받고 병사 1만 명을 거느리고 水良의 苗族 반란을 평정하여 苗族 13,000명을 항복시킨 뒤 廣東으로 돌아와 總兵官이 되었다. 左都督이 추가되어 指揮使는 세습되었다. 이듬해(1607) 任地에서 병사하였다. 그해 9월에 朝廷에서 太子太保로 追贈하였다. 한편 조선에서는 陳璘의 공을 기념하기 위하여 陳璘이 倭軍을 멸한 皇朝에 '陳璘別廟'를 세웠고, 城內에는 '太保祖祠'와 '太保祠'를 세웠다고 한다.

- 206) 董一元: 生卒年 미상. 宣府 前衛(지금의 張家口 宣化) 사람이다. 董一元은 將門의 후예로서 그 부친 董暘은 嘉靖 연간에 宣府의 游擊將軍이었다. 당시 몽골의 알탄칸이 침입하였는데, 董暘이 戰死하였다. 董一元의 형 董一奎도 용맹으로 이름을 날렸다. 嘉靖 연간에 董一元이 薊鎮의 游擊將軍이 되었다. 당시 土蠻, 黑石灰 등 部の 1만여 騎兵이 침범하여 總兵官 胡鎮이 이에 저항했는데, 董一元의 전공이 최고였다. 이 공로로 石門寨 參將으로 승진하였다. 隆慶 초년에는 副總兵으로 승진하여 古北口를 방어하였다. 萬曆 11년(1583)에 都督僉事의 軍銜으로 昌平總兵官이 되었고, 얼마 후에 宣府로 移駐하였다. 萬曆 15년(1587)에는 薊州, 寧夏, 延綏 등지로 移駐하였는데, 조정에서는 그를 都督同知 겸 中府僉事로 봉하였다. 萬曆 22년(1594)에 遼東總兵官이 되었다. 당시 몽골군이 침공하였는데, 董一元이 큰 전공을 세웠다. 萬曆帝는 크게 기뻐하고 董一元을 左都督으로 봉하고 太子太保의 官銜을 추가하였으며 指揮使를 세습토록 하였다.

二十八年，應龍五道并出，破龍泉司。時總督李化龍已移駐重慶，徵兵大集，遂以二月十二日誓師，分八路進。每路約三萬人，官兵三之，土司七之，旗鼓甲仗森列，苗大驚。總兵劉綎破其前鋒，楊朝棟僅以身免，賊膽落。遂連克桑木·烏江·河渡三關，奪天都·三百落諸國。賊連敗，乃乘隙突犯烏江，詐稱水西隴澄會哨，誘永順兵，斷橋，淹死將卒無算。尋綎破九盤，入婁山關。關爲賊前門，萬峰插天，中通一線。綎從間道攀藤毀柵入，陷焉。四月朔，師屯白石，應龍率諸苗決死戰。綎親勒騎冲中堅，分兩翼夾擊，敗之。追奔至養馬城，連破龍爪·海雲險國，壓海龍國，賊所倚天險，謂飛鳥騰猿不能逾者。時偏沅師已破青蛇國，安疆臣亦奪落濠關，至大水田，焚桃溪莊。賊見勢急，父子相抱哭，上國死守，每路投降文緩師。總兵吳廣入崖門關，營水牛塘，與賊力戰三日，却之。賊詭令婦人於國上拜表痛哭云：「田氏且降。」復許爲應龍仰藥死報廣，廣輕信按兵。已，覘賊詐，益厲兵攻，燒二關，奪賊樵汲路。八路師大集海龍國，遂築長圍，更番迭攻。賊知必死。會化龍聞父喪，詔以縗墨視師。化龍念賊前國險不能越，令馬孔英率勅兵并力攻其後。天苦雨，將士馳泥淖中苦戰。六月四日，天忽霽，綎先士卒，克土城。應龍益迫，散金募死士拒戰，無應者。起，提刀巡壘，見四面火光燭天，大兵已登國，破土城入。應龍倉皇同愛妾二閨室縊，且自焚。吳廣獲其子朝棟，急覓應龍屍，出焰中。賊平。

[만력] 28년(1600)에 양응룡이 5개의 길로 함께 출격하여 용천사(龍泉司)를 깨트렸다. 당시 총독 이화룡(李化龍)이 이미 중경으로 옮겨 머무르면서 징집한 군대가 대규모로 집결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2월 12일에 서사(誓師)<sup>209)</sup>하고 8로(路)로 나누어 진군하였다. 각 로(路)에

207) 楚: 湖北省 일대를 가리키는데 鄂이라고도 한다.洞庭湖 이북에 위치하므로 湖北이라 칭하는데, 古稱은 荊楚이다. 춘추전국시대에 남방의 諸國이 楚國으로 점차 통일되었다. 西漢 시기에 湖北의 대부분은 荊州刺史의 관할이었다. 삼국시대에 이 荊州는 魏·蜀·吳 삼국의 쟁탈의 要地였다. 隋 開皇 9년(589)에 江夏郡을 荊州로 개칭했는데, 湖北의 略稱 鄂은 여기에서 유래한다. 宋代에 湖北의 중부에 荊湖北路를 설치하였는데, 湖北이란 이름은 여기에서 시작한다. 元代에 湖北 境內에서 長江 이남은 湖廣行省에 예속시키고, 長江 이북은 河南行省에 예속시켰다. 明初에 湖北을 湖廣行省에 예속시켰는데, 후에 전국을 13개 布政使司로 나눌 때 지금의 湖北 전 지역을 湖廣布政使司에 귀속시켰다. 한편 淸 康熙 3년(1664)에 洞庭湖를 경계로 이남을 湖南布政使司, 이북을 湖北布政使司로 나누었다. 湖北省의 省會는 武昌이다.

208) 『明史紀事本末』卷64 「平楊應龍」.

약 3만 명이 있었는데, 관군이 10분의 3이고 토사군이 10분의 7이었으며, 군기(軍旗), 군고(軍鼓), 병기(兵器)가 삼엄하게 나열되어 묘족이 크게 놀랐다. 총병 유정(劉挺)이 그 선봉을 격파하니, 양조동(楊朝棟)은 겨우 자신만 도망하여 구적들은 담이 떨어질 지경이었다. 드디어 연달아 상목(桑木)·오강(烏江)·하도(河渡)의 세 관구(關口)를 빼앗고, 천도(天都)·삼백락(三百落) 등 여러 돈보(囤堡)를 탈취하였다. 구적들이 연달아 패하자 이에 틈을 타서 돌연히 오강(烏江)을 침범하여, 수서(水西)와 농징(隴澄)의 군대가 회합한다고 사칭하여 영순(永順)의 군대를 유인해서 교량을 끊으니, 빠져 죽은 장졸이 셀 수 없을 정도였다. 얼마 후에 유정이 구반(九盤)을 격파하고 누산관(婁山關)으로 진입하였다. 누산관은 구적의 앞문이 되어, 많은 봉우리가 하늘로 치솟았고, 가운데로 단 하나의 작은 길만 통하였다. 유정은 셋길로 등나무를 붙잡고 올라가서 목책(木柵)을 부수고 들어가서 함락시켰다. 4월 초하루 군대가 백석(白石)에 주둔하였는데, 양응룡이 여러 묘족을 통솔하여 결전(決戰)을 벌였다. 유정은 친히 기병을 통솔하여 상대의 주력을 향하여 돌진하여 양 날개로 나누어 협격해서 패퇴시켰다. 추격하여 양마성(養馬城)에 이르러 연달아 용조(龍爪)·해운(海雲) 등 험준한 돈보를 격파하고, 해룡돈(海龍囤)을 압박하였는데, 구적이 의지하는 천험(天險)은 나는 새와 뛰어오르는 원숭이도 넘을 수 없다고 하였다. 당시 편(偏)과 원(沅)의 군대가 이미 청사돈(靑蛇囤)을 격파하니, 안강신도 낙몽관(落濛關)을 탈취하여 대수전(大水田)에 이르러 도계장(桃溪莊)을 불살랐다. 구적은 형세가 긴박함을 보고 부자가 서로 껴안고 통곡한 뒤 돈보에 올라 사수(死守)하였는데, 각 로(路)에서는 항복의 문서를 투하하여 군대를 늦추었다. 총병 오광(吳廣)이 애문관(崖門關)으로 들어와 수우당(水牛塘)에 영(營)을 두어 구적과 사흘 동안 혈전을 벌여 이를 물리쳤다. 구적은 거짓으로 부녀자들로 하여금 돈보 위에서 신(神)에게 기도문을 올리고 통곡하라고 하며 말하기를, “전씨(田氏)가 장차 투항하려 합니다”라 하였다. 다시 거짓으로 양응룡이 음독자살을 했다고 하고 오광에게 보고하니, 오광은 가벼이 이를 믿고 진공을 멈추었다. 얼마 후 구적의 속임수를 간파하고 더욱 군대를 다그쳐 진공하여, 2개의 관애(關隘)<sup>210)</sup>를 불사르고 구적이 땀감을 구하고 물을 길는 길을 탈취하였다. 8로(路)의 군대가 대규모로 해룡돈에 집결하여 드디어 긴 보루를 쌓고 윤번으로 번갈아 나아가 공격하였다. 구적은 반드시 죽게 되었음

209) 誓師: 군대의出征 전 혹은 작전시에 지휘관이 將領과 병사들에게 전투의 의의를 밝힘으로써 전투의지를 북돋는 행위를 가리킨다.

210) 關隘: 險要의 關口를 가리킨다.

을 알게 되었다. 마침 이화룡이 부친의 타계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만력제는] 조(詔)를 내려 검은 색의 상복을 입고 군대를 통솔토록 하였다. 이화룡은 구적 전면의 돈보는 험준하여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마공영(馬孔英)으로 하여금 강병(强兵)을 거느리고 협력하여 그 배후를 공격하도록 하였다. 하늘에서 오랫동안 비가 내리자 장수와 병사들은 진흙탕 속으로 달려가 악전고투를 하였다. 6월 4일 날이 갑자기 비가 그치니, 유정은 사졸들의 선봉에 서서 토성을 빼앗았다. 양응룡은 더욱 절박해져서 금(金)을 뿌려 죽음을 각오한 자들을 모집하여 응전하려 하였으나, 이에 응하는 자가 없었다. [그는] 몸을 일으켜 칼을 들고 영루(營壘)를 순시하였는데, 사면으로 불빛이 하늘을 비추더니 대군이 이미 돈보에 올라가 토성(土城)을 깨트리고 성안으로 들어왔다. 양응룡은 급히 애첩 둘과 함께 방문을 닫고 목을 매었고, 계다가 또 스스로의 몸에 불을 붙였다. 오광은 그의 아들 양조동을 붙잡고, 급히 양응룡의 시신을 찾아 화염 속에서 빼내었다. 구적[의 반란]은 평정되었다.<sup>211)</sup>

計出師至滅賊，百十有四日，八路共斬級二萬餘，生獲朝棟等百餘人。化龍露布以聞，獻俘闕下，剝應龍屍，磔朝棟·兆龍等於市。播州自唐入楊氏，傳二十九世，八百餘年，至應龍而亡。

계산해보면 출병에서 구적의 소탕에 이르기까지 104일 동안 8개 로에서 모두 2만여 수급을 베었고, 양조동 등 100여 명을 생포하였다. 이화룡은 승전의 문서를 써서 아뢰고, 궐하(闕下)에서 포로를 바쳤으며, 양응룡의 시신을 작도(斫刀)로 잘게 나누고, 양조동과 양조룡 등은 기시(棄市)에 처하였다.<sup>212)</sup> 과주는 당조(唐朝)에서 양씨(楊氏)를 받아들인 뒤로부터 29대를 전하여 800여 년 동안 이어졌는데, 양응룡에 이르러 멸망하였다.

三十一年，播州餘逆吳洪·盧文秀等叛，總兵李應祥等討平之。分播地爲二，屬蜀者曰遵義府，屬黔者爲平越府。

211) 『明史紀事本末』 卷64 「平楊應龍」.

212) 『明史紀事本末』 卷64 「平楊應龍」.

[만력] 31년(1603)에, 파주의 잔여 역당 오홍(吳洪)·노문수(盧文秀) 등이 반란을 일으키자 총병 이응상(李應祥)<sup>213)</sup> 등이 토벌하여 그들을 평정하였다.<sup>214)</sup> 파주의 땅을 둘로 나누어, 측에 속하는 땅은 준의부(遵義府)라 하고, 검에 속하는 땅은 평성부(平城府)라 하였다.<sup>215)</sup>

## 永寧宣撫司

### 영녕선무사

永寧, 唐蘭州地. 宋爲瀘州江安·合江二縣境. 元置永寧路, 領筠連州及騰川縣, 後改爲永寧宣撫司.

영녕(永寧)<sup>216)</sup>은 당(唐)나라의 난주(蘭州) 땅이다. 송(宋)나라 때에는 여주(瀘州)<sup>217)</sup>의 강안(江安)·합강(合江) 두 현(縣)의 경계였다. 원(元)나라는 영녕로(永寧路)를 설치하여 균연주(筠連州)<sup>218)</sup> 및 등천현(騰川縣)을 관할했는데, 후에 영녕선무사(永寧宣撫司)로 바꾸었다.

213) 李應祥(1547~1617): 九溪衛指揮同知·懷遠將軍 李昆崗의 손자로서 지금의 臨澧縣 경내에서 출생하였다. 武生으로 군대에 투신하여 항상 戰功을 세워 廣西 思恩參將에 除授되었다. 萬曆 8년(1580)에 巡撫 張任을 수행하여 廣西 右江의 壯族 소수민족의 반란을 진압하여 松潘副總兵으로 승진하였다. 또 韋王明을 격파한 공로로 武軍營에 들어가 副將이 되었다. 萬曆 13년(1585)에는 四川總兵으로 부임하였다. 이듬해(1586)에는 巡撫 徐元泰와 함께 播州 등지에 주둔군을 집결시켜 松潘 등지의 소수민족 반란을 진압하였다. 후에 馬湖 등지에서 다시 반란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워 都督同知로 승진하였다. 이로부터 그의 명성이 널리 퍼졌다. 이때 御史 傅霈가 그의 군대를 시찰하다가 軍餉을 횡령한 것을 적발하니, 李應祥이 뇌물을 供與하였으나 傅霈가 이를 거절하고 朝廷에 奏本을 올려 결국 革職되었다. 萬曆 18년(1590)부터 楊應龍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萬曆 28년(1600)에는 總督 李化龍이 다시 李應祥을 기용하여 貴州總兵으로 삼아 播州로 진격하였다. 6월에 婁山關이 돌파되고 海龍囤土城을 빼앗아 楊應龍은 결국 자살하였다. 반란 평정 이후 李應祥은 銅仁을 鎮守하고 이듬해(1601)에는 四川을 鎮守하였다. 死後에 左都督을 追贈받고 千戶는 세습되었다.

214) 『神宗實錄』 卷382 萬曆 31년 3월 丁卯條 참조.

215) 『明史紀事本末』 卷64 「平楊應龍」.

216) 永寧: 지금의 四川省 敘永, 古蘭 등 縣에 상당한다. 天啓 3년(1623)에 敘州府로 편입되었다.

217) 瀘州: 西漢에서 南齊까지 瀘州의 옛 이름은 江陽이었다. 隋代에 瀘州를 瀘川郡으로 바꾸었다. 그 소속으로 瀘川, 富世, 江安, 合江, 綿水縣 등이 있었다. 唐代에 다시 瀘川郡을 瀘州로 바꾸었다. 宋末에 瀘州를 江安州로 바꾸었고, 元代에 다시 瀘州로 고쳐 重慶路로 예속시켰다.

洪武四年平蜀，永寧內附，置永寧衛。六年，筠連州滕大寨蠻編張等叛，詐稱雲南兵，據湖南長寧諸州縣，命成都衛指揮袁洪討之。洪引兵至敘州慶符縣，攻破清平關，擒僞千戶李文質等。編張遁走，復以兵犯江安諸縣。洪追及之，又敗其衆，焚其九寨，獲編張子僞鎮撫張壽。編張遁匿溪洞，餘黨散入雲南。帝聞之，敕諭洪曰：「南蠻叛服不常，不足罪。旣獲其俘，宜編爲軍。且駐境上，必以兵震之，使警天威，無遺後患。」未幾，張復聚衆據滕大寨，洪移兵討敗之。追至小芒部，張遁去，遂取得花寨，擒阿普等。自是，張不敢復出，其寨悉平。遂降筠連州爲縣，屬敘州，以九姓長官司隸永寧安撫司。

홍무(洪武) 4년(1371)에 촉을 평정하니, 영녕이 귀부(歸附)하여 [조정에서는] 영녕위(永寧衛)를 설치하였다. [홍무] 6년(1373)에, 균연주 등대채(滕大寨)의 만족(蠻族) 편장(編張) 등이 반란을 일으키고, 운남(雲南)<sup>219)</sup>의 군대라고 사칭하며 호남(湖南)<sup>220)</sup> 장녕(長寧) 등 여러

218)筠連州: 四川 盆地에서 雲貴 高原으로 넘어가는 경계 지대에 위치한다. 秦始皇의 六國 통일 이후 처음으로 중앙왕조에 귀속되었다. 元代 至元 15년(1278)에筠州와 連州를 합쳐筠連州라 칭했고, 이듬해(1279)에 敘州府에 직속되었다. 至正 20년(1361)에 紅巾軍 將領 明玉珍이 稱帝하며 重慶에서 大夏 정권을 수립할 때에도筠連州의 행정구획은 변함이 없었다. 明 洪武 4년(1371) 大夏 정권이 무너지자筠連州는筠連縣으로 바뀌었다.

219) 雲南: 『尙書』『禹貢』의 梁州 塞外의 지역이다. 元代에 雲南等處行中書省을 설치하였는데, 洪武 15년(1382)에 이를 평정하고 雲南等處承宣布政使司를 설치하여 府 58·州 75·縣 55·蠻部 6곳을 관할하게 하였으며, 후에는 府 19·禦夷府 2·州 40·禦夷州 3·縣 30·宣慰司 8·宣撫司 4·安撫司 5·長官司 33·禦夷長官司 2곳을 관할케 하였다. 그런데 본문에서의 雲南은 雲南省이 아니라 省內에 설치된 雲南府를 일컫는다. 『明史』卷46「地理志」雲南條에 따르면, 雲南府는 원나라 때에는 中慶路였는데 洪武 15년(1382)에 雲南府로 바꾸었고, 4개의 州와 9개의 縣을 管領하였다. 지금의 雲南省 昆明市 남부와 玉溪市 易門縣 지역이다.

220) 湖南: 長江 중류 지역에 위치한 省이다. 대부분 지역이 洞庭湖 남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湖南이라 불렀다. 아울러 경내에는 湘江이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湘’으로 약칭한다. 면적은 약 21만 km<sup>2</sup>이며, 인구는 2010년 현재 약 6,500만 명이다. 춘추전국시대에는 楚나라 영역이었으며, 秦代에 이르러 長沙郡이 설치되었다. 漢 高祖 劉邦이 桂陽郡과 武陵郡을 두어 長沙國이라 칭했다. 唐 肅宗 至德 2년(757)에 荊州防禦使를 설치해서 衡州, 涪州(현재 貴州省), 岳州, 潭州, 郴州, 邵州, 永州, 道州를 관할하도록 했지만 上元 3년(676)에 폐지했다. 이어 唐 代宗 廣德 2년(764)에 湖南觀察使를 두어 衡州, 潭州, 邵州, 永州, 道州를 관할하게 하고 治所는 衡州에 두었다(嘉慶『湖南通志』卷6「建置沿革攷」3). 이 시기 이후 행정구역상 湖南이란 명칭이 등장했다. 北宋 시기에 荊湖南路와 荊湖北路로

주현(州縣)을 점거하니, [홍무제는] 성도위(成都衛) 지휘 원홍(袁洪)에게 명하여 [이를] 토벌 하도록 하였다. 원홍은 군대를 거느리고 서주(敘州) 경부현(慶符縣)에 이르러 청평관(淸平關)을 공격하여 격파하고, ‘가짜’ 천호(千戶) 이문질(李文質) 등을 생포하였다. 편장이 달아나 다시 군대를 동원하여 강안(江安) 등 여러 현을 침범하였다. 원홍이 추격하여 다시 그의 무리들을 패퇴시키고 그의 9개 채를 불살랐으며, 편장의 아들인 ‘가짜’ 진무(鎭撫) 장수(張壽)를 생포하였다. 편장은 달아나 계동(溪洞)에 몸을 숨기고, 그 잔당은 흩어져 운남으로 들어갔다. 홍무제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 원홍에게 칙서를 내려 효유하여 이르기, “남방 만족의 반란과 복종이 항상적이지 않으니 족히 죄를 물을 것이 없다. 이미 그 포로들을 잡았으니, 응당 군대로 편성해야 할 것이다. 장차 변경 상에 주둔시켜 반드시 군대로 그들을 놀라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조정의 위엄에 두려움을 느끼도록 하여 후환을 남기지 않도록 하라”고 하였다.<sup>221)</sup> 얼마 지나지 않아 편장이 다시 무리를 모아 등대채를 점거하니, 원홍이 군대를 이동시켜 그들을 공격하여 패퇴시켰다. 추격하여 소망부(小茫部)에 이르니 편장이 달아나 드디어 득화채(得花寨)를 장악하고 아보(阿普) 등을 생포하였다. 이로부터 편장은 감히 다시 나오지 못하여 그의 채는 모두 평정되었다.<sup>222)</sup> 마침내 균연주(筠連州)를 강등하여 현으로 삼아 서주에 예속시켰고, 구성장관사(九姓長官司)<sup>223)</sup>를 영녕안무사에 예속시켰다.

七年升永寧等處軍民安撫司爲宣撫使司，秩正三品。八年以祿照爲宣撫使。十七年，永寧宣撫使祿照貢馬，詔賜鈔幣冠服，定三年一貢如例。十八年，祿照遣弟阿居來朝，言

나뉘었으며, 元代에는 湖廣等處行中書省으로 되었다가 明代에 湖廣布政使司를 설치했다. 康熙 3년(1664)에 湖廣을 湖廣左右布政使司로 분리했으며, 雍正 원년(1723)에 湖廣右布政使司를 湖南布政使司로 바꾸어 湖南이 정식 省 행정단위가 되었다.

221) 『太祖實錄』 卷78 洪武 6년 정월 辛未條 참조.

222) 『太祖實錄』 卷80 洪武 6년 3월 癸卯條 참조.

223) 九姓長官司: 元代 至和 15년(1278) 소수민족을 招諭하여 지금의 共樂 경내에 九姓 羅氏黨의 蠻夷長官司 千戶所를 설치하여 夷民 羅氏黨 9명을 總把로 삼아 永寧路에 예속시켰다. 明代 洪武 초년에 강남 출신 任福이 傅友德을 따라 蜀에 들어가 평정에 공을 세웠다. 洪武 5년(1372)에 太祖는 任福이 夷情에 밝다는 이유로 九姓司의 正長官職을 수여하였다. 이듬해(1373) 九姓 羅氏黨 蠻夷長官司 千戶를 九姓場長官司로 고쳐 永寧宣撫司에 예속시키고 任福을 長官으로 삼았으며, 土司의 正長官은 任氏가 세습토록 하였다.

比年賦馬皆已輸，惟糧不能如數。緣大軍南征，蠻民驚竄，耕種失時，加以兵後疾疫死亡者多，故輸納不及。命蠲之。二十三年，永寧宣撫言，所轄地水道有一百九十灘，其江門大灘有八十二處，皆石塞其流。詔景川侯曹震往疏鑿之。二十四年，震至瀘州按視，有枝河通永寧，乃鑿石削崖，以通漕運。

[홍무] 7년(1374)에 영녕(永寧) 등지의 군민안무사(軍民安撫司)를 선무사사(宣撫使司)로 승격시켜 관직은 정3품으로 하였다.<sup>224)</sup> [홍무] 8년(1375)에 녹조(祿照)를 선무사(宣撫使)로 임명하였다.<sup>225)</sup> [홍무] 17년(1384)에 영녕 선무사 녹조가 말을 공물로 바치니, [홍무제는] 조서를 내려 보초(寶鈔),<sup>226)</sup> 비단, 관모(官帽), 관복(官服)을 하사하고, 전례와 같이 3년에 한 번 조공하도록 정하였다.<sup>227)</sup> [홍무] 18년(1385)에, 녹조가 아우 아거(阿居)를 보내어 내조(來朝)하여 아뢰기를, 해마다 부과되는 마필을 모두 이미 바쳤지만, 세량(稅糧)만은 정해진 액수대로 납부할 수 없었는데, [이는] 대군의 남정(南征)으로 만족의 백성들이 놀라 피난하여 농사가 제때를 잃은데다 전쟁 이후에 역질(疫疾)로 사망한 자가 많았으므로 이 때문에 납입이 미치지 못했던 것이라고 하였다. [홍무제는] 그 부담을 감면해주도록 명하였다.<sup>228)</sup> [홍무] 23년(1390)에 영녕 선무가 말하기를, 관할하는 지역의 수도(水道)에 190개의 여울이 있고, 그 강물이 들고나는 큰 여울이 82곳 있는데, 모두 암석이 그 흐름을 막고 있다고 하였다. [홍무제는] 경천후(景川侯)<sup>229)</sup> 조진(曹震)<sup>230)</sup>에게 조서를 내려 [현지에] 가서 소개(疏開)하

224) 『太祖實錄』 卷94 洪武 7년 11월 壬午條 참조.

225) 四川 永寧長官司를 永寧宣撫司로 승격시키고, 土酋 祿照를 宣撫使로 삼은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太祖實錄』 卷96 洪武 8년 정월 甲子條 참조.

226) 寶鈔: 大明通行寶鈔를 가리킨다. 이에 대해서는 앞의 鈔에 관한 註釋을 참조.

227) 『太祖實錄』 卷162 洪武 17년 5월 辛丑條 참조.

228) 『太祖實錄』 卷170 洪武 18년 정월 癸酉條 참조.

229) 景川侯: 洪武 12년(1379)에 曹震이 西番 공략에 군공을 세워 景川侯로 봉해져 26년(1393)까지 14년간 지속되었으나, 藍玉의 獄에 연루되어 誅殺되면서 그 爵位도 폐지되었다.

230) 曹震(?~1393): 元末·明初 濠州(지금의 安徽 鳳陽) 사람으로, 元末에 朱元璋을 따라 起兵하여 指揮使까지 승진하였다. 洪武 12년(1379)에 沐英을 따라 西番을 공격하여 景川侯로 봉해졌다. 또 藍玉을 따라 雲南을 평정했고, 얼마 후에 다시 四川의 軍務를 관할했는데, 河道를 준설하고 돌과 벼랑을 깎아 漕運을 통하게 했다. 아울러 陸路를 개척하여 棧道를 만들어 물자유통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러나 후에 藍玉의 黨에 연좌되어 誅罰되었다.

여 물길을 열도록 하였다.<sup>231)</sup> [홍무] 24년(1391)에, 조진이 노주(瀘州)에 이르러 순시(巡視)해보니 지류가 영녕으로 이어져 있었으므로, 이에 돌을 뚫어 벼랑을 깎아내어 조운(漕運)을 통하게 하였다.

二十六年，以祿照子阿聶襲職。先是，祿照坐事逮至京，得直，還卒於途。其子阿聶與弟智皆在太學，遂以庶母奢尾署司事。至是，奢尾入朝，請以阿聶襲，從之。永樂四年，免永寧荒田租。

[홍무] 26년(1393)에 녹조의 아들 아섭(阿聶)에게 그 관직을 승계토록 하였다. 이보다 앞서 녹조가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어 경사에 이르렀으나, 억울함이 씻겨 돌아가다가 도중에 죽었다. 그 아들 아섭과 동생 녹지(祿智)가 모두 태학에 재학 중이어서 마침내 서모(庶母) 사미(奢尾)로 하여금 관아의 일을 대리토록 하였다. 이에 이르러 사미가 입조하여 아섭이 승계할 것을 요청하니, 이를 받아들인 것이었다.<sup>232)</sup> 영락(永樂) 4년(1406)에 영녕의 황전(荒田)에 대한 조세를 면제해주었다.<sup>233)</sup>

宣德八年，故宣撫阿聶妻奢蘇朝貢。九年，宣撫奢蘇奏：「生儒皆土僚，朝廷所授官言語不通，難以訓誨。永寧監生李源資厚學通，乞如雲南鶴慶府例，授爲儒學訓導。」詔從之。景泰二年，減永寧宣撫司稅課局鈔，以苗賊竊發，客商路阻，從布政司請也。

선덕(宣德) 8년(1433)에 고(故) 선무 아섭의 처 사소(奢蘇)가 입조하여 공물을 바쳤다.<sup>234)</sup> [선덕] 9년(1434)에 선무 사소가 상주하여 아뢰기를, “유생(儒生)은 모두 토착의 요족(僚族)이니, 조정에서 제수한 바의 교관(敎官)은 언어가 불통하여 훈도하고 가르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영녕의 감생(監生)<sup>235)</sup> 이원(李源)은 타고난 자질이 진중하고 학식이 있으니, 청컨대 운남

231) 『太祖實錄』 卷204 洪武 23년 9월 戊午條 참조.

232) 『太祖實錄』 卷224 洪武 26년 정월 戊辰條 참조.

233) 『太宗實錄』 卷51 永樂 4년 2월 癸酉條 참조.

234) 『宣宗實錄』 卷98 宣德 8년 정월 庚午條 참조.

학경부(鶴慶府)<sup>236</sup>의 예처럼 유학(儒學)<sup>237</sup>의 훈도(訓導)<sup>238</sup>로 제수해주시기 바랍니다”라 하였다. 조서를 내려 이를 허락하였다.<sup>239</sup> 경태(景泰) 2년(1451)에, 영녕 선무사 세과국(稅課局)<sup>240</sup>의 보초(寶鈔)를 줄였는데, [이는] 묘적(苗賊)이 몰래 발동하여 객상(客商)<sup>241</sup>의 도로가 막혔기 때문이니, 포정사(布政司)<sup>242</sup>의 청을 따른 것이었다.<sup>243</sup>

成化元年，山都掌大壩等寨蠻賊分劫江安等縣，兵部以聞。二年，國子學錄黃明善奏：「四川山都掌蠻屢歲出沒，殺掠良民。景泰元年招之復叛，天順六年撫之又反。近總兵李安令永寧宣撫奢貴赴大壩招撫，亦未效。恐開釁無已，宜及大兵之集，早爲定計，毋釀邊患。」三年，明善復言：「宋時多剛縣蠻爲寇，用白芨子兵破之。白芨子者，卽今之

235) 監生: 國子監 學生의 약칭이다. 明·淸 시대 최고학부인 國子監에는 반드시 貢生이나 蔭生만이 入監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다.

236) 鶴慶府: 鶴慶軍民府를 일컫는다. 元朝 至元 23년(1286)에 鶴慶路를 설치했는데, 明 洪武 15년(1382)에 이를 鶴慶府로 바꾸었으며, 治所를 지금의 雲南省 鶴慶縣에 두었다. 지금의 雲南省 大理白族自治州 북부 및 麗江地區 永勝縣 지역이다. 淸 乾隆 35년(1770)에 鶴慶州로 강등시켰다.

237) 儒學: 明·淸 시대 각 지방관아에 설치한 학교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府의 儒學을 府學, 州의 儒學을 州學, 縣의 儒學을 縣學이라 하였다.

238) 訓導: 文官의 관직인데, 주로 교육방면의 사무를 담당한다. 府學에는 教授 1명 외에 訓導 4명이, 州學에는 學正 1명과 訓導 3명이, 縣學에는 教諭 1명과 訓導 2명이 각각 설치되었다. 訓導는 각 儒學의 生員을 教誨하는 教授, 學正, 教諭 등을 보좌하는 것이 기본적인 업무였다.

239) 『宣宗實錄』 卷115 宣德 9년 12월 甲辰條 참조.

240) 稅課局: 商稅와 雜稅 및 田宅의 매매 稅契를 징수하는 官署이다. 明初에는 京師에 宣課司를, 府州縣에 通課司를 두었는데, 후에 府州의 通課司를 稅課司로, 縣의 通課司를 稅課局으로 바꾸었다.

241) 客商: 各地로 貨物을 운송하여 판매하는 외부 상인에 대한 統稱이다.

242) 布政司: 承宣布政使司의 약칭으로 官署名이다. 『明史』 卷75 「職官」 4의 기록에 따르면 “承宣布政使司. 左右布政使各一人, 左右參政, 左右參議, 無定員 …… 布政使掌一省之政, 朝廷有德澤禁令, 承流宣播, 以下於有司”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포정사는 한 省의 戶口와 田土 등의 조사와 등재를 포함한 제반 民政을 담당했다. 明初에는 元의 行中書省 제도를 그대로 유지했지만, 洪武 9년(1376)에 浙江, 江西, 福建, 北平, 廣西, 四川, 山東, 廣東, 河南, 陝西, 湖廣, 山西 등지에 포정사를 두었으며, 永樂 5년(1407)에 交趾布政司를 두었다가 宣德 3년(1428)에 폐지했다. 永樂 11년(1413)에 貴州布政司를 설치해서 모두 13布政司를 두었다.

243) 原額歲辦은 13,000여貫이었는데, 景泰 元年에 2,880여貫으로 줄여주었다. 본문의 布政司는 四川布政司를 가리킨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英宗實錄』 卷20 景泰 2년 3월 庚子條 참조.

民壯；多剛縣者，卽今之都掌多剛寨也。前代用鄉兵有明效，宜急募民壯，以助官軍。都掌水稻十月熟，宜督兵先時取其田禾，則三月之內蠻必餒矣。軍宜分三路：南從金鵝池攻大壩，中從戎縣攻箐前，北從高縣攻都掌。小寨破，大寨自拔。又大壩南百餘里爲芒部，西南二百里爲烏蒙，令二府土官截其險要。更用火器自下而上，順鳳延熱，寨必可攻。且征調土兵，須處置得宜，招募民壯，須賞罰必信。」詔總兵官參用之。時總督尙書程信亦奏：「都掌地勢險要，必得士兵響道。請敕東川·芒部·烏蒙·烏撒諸府兵，并速調湖廣永順·保靖兵，以備征遣。」又請南京戰馬一千應用。皆報可。四年，信奏：「永寧宣撫奢貴開通運道，擒獲賊首，宜降璽書獎賚。」從之。

성화(成化) 원년(1465)에, 산도장(山都掌) 대패(大壩) 등 채의 만족(蠻族)<sup>244)</sup> 구적(寇賊)이 강안(江安) 등의 현을 나누어 약탈하니, 병부가 이를 보고하였다.<sup>245)</sup> [성화] 2년(1466)에 국자학록(國子學錄)<sup>246)</sup> 황명선(黃明善)이 상주하여 아뢰기를, “사천 산도장 만족 구적이 여러 해에 걸쳐 출몰하여 양민을 살해하고 약탈하고 있습니다. 경태 원년(1450)에 그들을 초무(招撫)<sup>247)</sup>하였으나 다시 반란을 일으켰고, 천순(天順) 6년(1462)에 위무(慰撫)<sup>248)</sup>하였으나 다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근자에 총병 이안(李安)<sup>249)</sup>이 영녕 선무 사귀(奢貴)로 하여금 대패

244) 都掌蠻이라 불리는 明代 四川 지역의 소수민족을 가리킨다. 지금의 宜賓, 珙縣 일대에서 주로 생활했는데, 武風을 숭상했다. 都掌蠻이 盤踞하던 凌霄城은 일찍이 南·宋 시대에 몽골군의 남하를 막기 위하여 산에 기대어 修築한 城堡로서 사방이 모두 절벽이어서 험준함이 비할 곳이 없었다. 都掌蠻은 이곳에 양식을 저장해서 근거지로 삼고 稱王하였다.

245) 『憲宗實錄』 卷15 成化 원년 3월 庚戌條 참조.

246) 國子學錄: 明代의 官階 가운데 從9品官에 해당하는 佐官을 가리킨다.

247) 都御史 李匡이 현지에 가서 招撫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憲宗實錄』 卷32 成化 2년 7월 甲午條 참조.

248) 都督 許貴가 다시 현지에 가서 招撫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憲宗實錄』 卷32 成化 2년 7월 甲午條 참조.

249) 李安: 生卒年 미상. 南直隸 鳳陽府 懷遠縣(지금의 安徽省 懷遠縣) 사람이다. 부친인 安平伯 李遠이 ‘정난의 역’ 때에 공을 세워 本府都督同知가 되고 安平伯의 작위를 얻었는데, 永樂 7년(1409)에 右參將으로 몽골 정벌에 참여하다 전쟁 중에 죽자 李安이 그 爵位를 계승하였다. 洪熙 원년(1425)에 交趾參將을 맡았지만, 작전의 실패로 귀국 후 하옥되고 世券은 박탈당했다. 英宗 즉위 이후 都督僉事로 기용되어 都督同知를 거쳐 總兵이 되어 松潘을 鎮守하였다. 正統 6년(1441)에는 定西伯 蔣貴의 副將이 되어

에 가서 초무토록 하였으나 또한 아직 효과가 없습니다. 분쟁이 끝이 없을까 걱정되니, 마땅히 대군이 결집하는 기회를 타서 조속히 계책을 정하여 변경의 근심이 빚어지기 말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sup>250)</sup> [성화] 3년(1467)에 황명선이 다시 아뢰기를, “송나라 때 다강현(多剛縣)의 만족이 노략질을 하니, 백초자(白苐子)<sup>251)</sup>의 군대를 이용하여 이를 격파하였습니다. 백초자란 오늘날의 민장(民壯)<sup>252)</sup>입니다. 다강현이란 바로 현재의 도장다강寨(都掌多剛寨)입니다. 이전 시대에 향병(鄉兵)을 이용한 것이 분명한 효과가 있었으니, 마땅히 급히 민장을 모집하여 관군(官軍)을 돕도록 해야 합니다. 도장의 수도(水稻)는 10월에 익으니, 마땅히 군대를 이끌고 먼저 현지의 벼를 거둔다면 3개월 내에 만족은 반드시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군대는 마땅히 3로로 나누어, 남로(南路)는 금아지(金鵝池)에서 대패로 진공하고, 중로(中路)는 용현(戎縣)에서 정전(箚前)으로 진공하며, 북로(北路)는 고현(高縣)에서 도장(都掌)으로 진공해야 합니다. 소寨(小寨)가 격파되면 대寨(大寨)는 저절로 함락될 것입니다. 또 대패에서 남으로 100여 리(里)가 망부(芒部)<sup>253)</sup>이고 서남으로 200리가 오몽(烏蒙)<sup>254)</sup>이니, 2부(府)<sup>255)</sup>의 토관(土官)으로 하여금 그 혐오의 지방을 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화기(火器)를 이용하여 아래로부터 위로 바람을 타서 불을 지른다면 채는 반드시 공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토병(土兵)<sup>256)</sup>의 징집과 이동배치는 반드시 적당히 조치해야 하고, 민장의

麓川을 토벌하였다. 蔣貴가 李安에게 潞江에 주둔하면서 軍餉 보호를 명했지만, 李安은 이를 부끄러워하며 스스로 군대를 거느리고 정벌에 나섰지만 참패를 당했다. 이에 李安이 하옥되어 獨石으로 귀양을 가서 결국 후에 사망했다.

250) 『憲宗實錄』 卷32 成化 2년 7월 甲午條 참조.

251) 白苐子: 宋代 민간의 壯丁을 가리킨다.

252) 民壯: 明代 북방 방어와 사회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직한 지방의 武裝을 의미하는데, 士兵, 民類, 會手, 劊手, 機兵 등으로도 불린다. 담당하는 역할에 따라 巡捕民壯, 巡鹽民壯, 鹽捕民壯, 常隨民壯 등으로 나뉘어졌다. 처음에는 招募였지만, 후에는 民戶 가운데 할당하였다.

253) 芒部: 路·府의 이름으로 ‘芒’은 ‘茫’으로도 표기한다. 元의 至元 연간(1264~1294)에 路를 설치하였고 治所는 지금의 鎮雄의 북쪽에 두었으며, 관할 지역은 鎮雄·彝良威信縣이었다. 明初에 府로 바꾸었고, 嘉靖 연간(1521~1566) 초에 鎮雄府로 변경하였다. 정식 명칭은 芒部軍民府이다. 이에 대해서는 『憲宗實錄』 卷44 成化 3년 7월 己巳條 참조.

254) 烏蒙: 정식 명칭은 烏蒙軍民府이다(『憲宗實錄』 卷44 成化 3년 7월 己巳條 참조).

255) 芒部軍民府와 烏蒙軍民府를 가리킨다.

256) 土兵: 成化 초년에 延綏巡撫 都御史 廬祥이 건의하여 창설한 지방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병사를 가리킨다. 즉, 廬祥은 軍營의 병사가 적는데, 延安 慶陽 지역의 邊民이 날래고 용맹스러우며 胡虜와의 전투에도 익숙하다는 이유로 民兵을 뽑아 什伍로 편성하여 土兵으로 삼고 그 戶의 租稅를 면제시켜주었다.

초모(招募)는 반드시 신상필벌(信賞必罰)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총병관(總兵官)에게 조서를 내려 참고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sup>257)</sup> 당시 총독상서(總督尙書)<sup>258)</sup> 정신(程信)<sup>259)</sup> 또한 상주하여 아뢰기를, “도장의 지세가 험준하고 중요하니 반드시 토병으로 향도(嚮導)를 삼아야 합니다. 청컨대 동천(東川)<sup>260)</sup>·망부(芒部)·오몽(烏蒙)·오살(烏撒) 등 여러 부(府)의 토병에게 칙령을 내리고, 아울러 호광의 영순(永順)·보정(保靖)의 토병을 속히 징발하여 출정에 대비케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다시 남경(南京)의 전마(戰馬) 1,000필의 사용을 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모두 답보를 내려 허락하였다.<sup>261)</sup> [성화] 4년(1468)에 정신이 상주하여 아뢰기를, “영녕의 선무 사귀가 운하의 길을 개통시키고 구적의 두목을 생포하였으니, 마땅히 새서(璽書)<sup>262)</sup>를 내려 상을 주어 표창해야 할 것입니다”라 하니, [성화제가] 이를 허락하였다.<sup>263)</sup>

十六年，白羅羅羿子與都掌大壩蠻相攻，禮部侍郎周洪謨言：「臣敍人也，知敍蠻情。」

이를 통해 모두 5,000명을 선발하여 훈련시켰는데, 이것이 土兵의 유래이다.

257) 『憲宗實錄』 卷44 成化 3년 7월 己巳條 참조.

258) 總督尙書: 四川軍務提督 겸 兵部尙書를 가리킨다(『憲宗實錄』 卷44 成化 3년 7월 丙子條 참조).

259) 程信(1416~1473): 字는 彥實, 號는 晴洲釣者였는데, 사람들은 晴洲先生이라 불렀다. 安徽 徽州府 休寧縣 사람이다. 正統 7년(1442)에 進士가 되어 吏科給事中으로 제수되었다. 英宗의 北征에 대하여 상소하여 이를 諫하였다. 景泰帝 초년에 에센이 京師를 침공할 때 程信은 군대를 거느리고 西城을 지켰다. 景泰 2년(1451)에는 山東右參政이 되어 遼東으로 軍餉을 조달하였다. 天順 초년에는 太僕卿, 都察院左都御史를 역임했고, 成化 원년(1465)에는 兵部右·左侍郎을 담당했다. 成化 3년(1467)에 四川과 貴州의 山都掌의 蠻族이 반란을 일으킬 때 兵部尙書로 진급하여 軍務提督으로서 군대를 이끌고 출정하여 여러 寨를 격파하고 수천 명을 생포하였다. 만년에는 家鄉인 休寧으로 물러나 63세에 사망했는데, 太子少保로 추증되고, 襄毅라는 시호를 받았다. 30여 년의 관직 생애에 名臣으로 일컬어졌다.

260) 東川: 현재 雲南省 昆明市가 관할하는 다섯 區所 중 하나이다. 秦代에는 靡莫部族에게 속한 지역이었고, 漢代에는 建元 6년(전135)에 堂狼縣을 설치하였다. 唐代 중반에는 東川郡을 설치하여 현재의 巧家·會澤·東川·祿勸과 四川省의 會東縣·寧南縣 등을 관리하였고, 四川省에 속했으나 清代 雍正 4년(1726)에 改土歸流를 추진한 후 雲南으로 편제되었다.

261) 『憲宗實錄』 卷44 成化 3년 7월 丙子條 참조.

262) 璽書: 秦·漢 시대 이래 황제의 璽印을 찍은 문서의 총칭이다.

263) 『憲宗實錄』 卷56 成化 4년 7월 丁亥條 참조.

戎·珙·筠·高諸縣，在前代皆土官，國朝始代以流，言語性情不相習，用激變。洪·永·宣·正四朝，四命將徂征，隨服隨叛。景泰初，益滋蔓，至今爲梗。臣向嘗言仍立土官治之，爲久遠計。而都御史汪浩傲幸邊功，誣殺所保土官及寨主二百餘人，諸蠻怨入骨髓，轉肆劫掠。及尚書程信統大兵，僅能克之。臣以謂及今順蠻人之情，擇其衆所推服者，許爲大寨主，俾世襲，庶可相安。」又言：「白羅羅者，相傳爲廣西流蠻，有衆數千，無統屬。景泰中，糾戎·珙苗，攻破長寧九縣，今又侵擾都掌。其所居，崖險菁深，旣難剪滅，亦宜立長官司治之。地近芒部，宜卽隸之。羿子者，永寧宣撫所轄。而永寧乃雲·貴要衝，南跨赤水·畢節六七百里，以一柔婦人制數萬強梁之衆，故每肆劫掠。臣以爲宣撫土僚，仍令宣撫奢貴治之。其南境寨蠻近赤水·畢節要路者，宜立二長官司，仍隸永寧宣撫。夫土官有職無俸，無損國儲，有益邊備。」從之。二十五年，永寧宣撫司女土官奢祿獻大木，給誥如例。

[성화] 16년(1480)에 백나라(白羅羅) 예자(羿子)와 도장 대패의 만족이 서로 공격하니, 예부시랑 주홍모(周洪謨)<sup>264</sup>가 아뢰기를, “신은 서지인(敍地人)이어서 서지의 만족의 정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용(戎)·공(珙)·균(筠)·고(高) 등의 여러 현은 이전의 왕조(王朝)<sup>265</sup>에서 모두 토관(土官)이었는데, 국조(國朝)에 비로소 유관(流官)<sup>266</sup>으로 대체하였지만, 언어와

264) 周洪謨(1421~1492): 字는 堯弼이고, 四川 長寧縣 사람이다. 正統 10년(1445) 進士에 급제하였는데, 특히 殿試에서 榜眼으로 합격하였고, 翰林院編修가 되었다. 후에 『寶宇通志』 修撰에 참여하였다. 景泰 원년(1450)에 황제에게 상소하여 經筵에 임할 것을 권했고, 時務十二事를 올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侍讀으로 승진되었다. 『英宗實錄』, 『憲宗實錄』의 修撰에도 참여하였다. 憲宗 成化帝의 繼位 이후 周洪謨는 황제의 면전에서 時務를 直言하였는데, 成化帝는 크게 賞讚하고 아울러 그의 建言을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成化 12년(1476)에 禮部右侍郎으로 승진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左侍郎으로 轉任되었고, 成化 17년(1481)에는 禮部尙書로 승진했으며, 후에는 太子少保를 겸임하였다. 弘治 원년(1488)에 致仕하였는데, 고향인 長寧으로 낙향하지 않고, 叙州府에서 翠屏書院을 창건하였으며, 『叙州府志』 修撰을 주도하였다. 임종 시에 그는 「安中國定四裔十事」란 제목으로 상소하여 弘治帝를 감동시켰다고 한다. 弘治帝는 특별히 관원을 파견하여 제사를 지내주도록 했고, 아울러 文安이라는 諡號를 내렸다.

265) 宋·元 두 王朝를 가리킨다(『憲宗實錄』 卷198 成化 15년 12월 丁卯條 참조).

266) 流官: 明·清 시기 四川, 雲南, 貴州 등에 중앙정부가 임명한 행정관원을 통칭하는 말이다. 그들은 중앙정부에서 파견하며 임기가 있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세습하는 土官과는 다르기

정정이 서로 습관이 달라 이로 인하여 번고가 격발됩니다. 홍희(洪熙)<sup>267)</sup>·영락·선덕·정통(正統)의 네 조대(朝代)에 네 차례 장령에게 명하여 정토(征討)토록 하니, 복종했다가 바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경태(景泰) 초년에 더욱 [세력이] 뻗어나가 지금에 이르러 화가 되었습니다. 신은 전에 일찍이 예전대로 토관을 두어 다스리는 것이 장구의 계책이 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도어사(都御史) 왕호(汪浩)가 변강에서 전공(戰功)을 얻기를 바라고서, [그가] 보호하고 있는 바의 토관 및 채주(寨主) 200여 명<sup>268)</sup>을 무함하여 살해하니, 여러 만족의 원한이 골수에 사무쳐 몇대로 약탈하는 것으로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상서 정신(程信)이 대군을 통솔함에 미치어 겨우 [이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신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만족의 희망에 따라 그 무리들이 추대하여 복종하는 자를 택하여 대체(大寨)의 수령으로 삼도록 허락해서 세습토록 해야 대체로 서로 안정될 것입니다”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백나라는 전하는 바에 따르면 광서(廣西)에서 흘러들어온 만족이라고 하는데, 무리가 수천 명에 이르지만 통할하는 기구가 없습니다. 경태 연간(1450~1456)에 용(戎)·공(珙)의 묘족을 규합하여 장녕(長寧) 등 9개 현을 공격하여 함락시켰고, 지금은 다시 도장을 침범하여 교란하였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벼랑이 험준하고 대나무가 무성하여 이미 절멸시키기 어려우니, 또한 마땅히 장관사(長官司)를 두어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망부에 가까우니 마땅히 [망부에] 예속시켜야 합니다. 예자(羿子)는 영녕 선무가 관할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영녕은 바로 운남과 귀주의 요충지이고, 남으로 적수(赤水)·필절(畢節)의 600~700리에 걸쳐 있으며, 한 명의 연약한 아녀자가 수만 명의 건장하고 용맹한 무리를 제압할 수 있는 까닭에 매년 몇대로 약탈을 하고 있습니다. 신이 생각하기에 토착의 요족(僚族)<sup>269)</sup>을 선무(宣撫)하고 예전대로 선무 사귀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 남쪽 지역 산채의 만족으로 적수와 필절의 요로(要路)에 가까운 자들은 마땅히 두 개의 장관사를 세워 예전대로 영녕 선무에 예속시켜야 합니다. 대저 토관은 관직은 있어도 봉록은 없으니, 나라의 재정에 손해가 없고 변강의 방비에 이익이 있습니다”라 하니, [성화제는] 이를 받아들였다.<sup>270)</sup> [가정]

때문에 流官이라고 칭했다.

267) 洪熙: 明朝 제4대 황제 仁宗 朱高熾의 年號이다. 다만 實錄의 기사에는 洪熙가 洪武로 기재되어 있다 (『憲宗實錄』 卷198 成化 15년 12월 丁卯條 참조).

268) 『憲宗實錄』 卷198 成化 15년 12월 丁卯條의 기사에는 270여 명이라 되어 있다.

269) 僚族: 南蠻의 別種으로 원래는 지금의 陝南에서 川南 일대에 거주하였다. 魏·晉 이후에 지금의 貴州, 雲南, 廣西, 湖南, 廣東 등지의 蠻族을 僚人이라고 汎稱하였다.

25년(1546)<sup>271)</sup>에 영녕 선무사 여성 토관인 사록(奢祿)이 큰 목재(木材)을 헌상하니, 선례대로 고명(誥命)을 내려주었다.<sup>272)</sup>

萬曆元年，四川巡撫曾省吾奏：「都蠻叛逆，發兵征討，土官奢效忠首在調，但與貴州土官安國亨有仇。請并令總兵官劉顯節制，使不得藉口復仇，妄有騷動。」從之。初，烏撒與永寧·烏蒙·水西·霑益諸土官境相連，復以世戚親厚。既而安國亨殺安信，信兄智結永寧宣撫奢效忠報仇，彼此相攻。而安國亨部下吏目與智有親，恐爲國亨所殺，因投安路墨。墨詐稱爲土知府安承祖，赴京代奏。已而國亨亦令其子安民陳訴，與奢效忠俱奉命聽勘於川貴巡撫。議照蠻俗罰牛贖罪，報可。效忠死，妻世統無子，妾世續有幼子崇周。世統以嫡欲奪印，相仇殺。方奏報間，總兵郭成·參將馬呈文利其所有，遽發兵千餘，深入落紅。奢氏九世所積，搜掠一空。世續亦發兵尾其後。效忠弟沙卜出拒戰，且邀水西兵報仇。成兵敗績，乃檄取沙卜於世統，統不應，復殺把總三人，聚苗兵萬餘，欲攻永寧泄怨。巡按劾成等邀利起釁，宜逮；而議予二土婦冠帶，仍分地各管所屬，其宣撫司印俟奢崇周成立，赴襲理事。報可。十四年，奢崇周代職，未幾死。

만력(萬曆) 원년(1573)에 사천 순무 증성오(曾省吾)<sup>273)</sup>가 상주하여 아뢰기를, “도장의 만족이 배반해서 반란을 일으켜 군대를 보내어 토벌하는데, 토관 사효충(奢效忠)이 제일 먼저 징발되었지만, 귀주의 토관 안국형(安國亨)과 원한이 있습니다. 청컨대 총병관 유현(劉

270) 『憲宗實錄』 卷198 成化 15년 12월 丁卯條 참조.

271) 원문에 ‘二十五年’이라고만 표기하여 연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實錄을 찾아보면 嘉靖 25년임을 확인할 수 있다(『世宗實錄』 卷317 嘉靖 25년 11월 丙辰條 참조).

272) 『世宗實錄』 卷317 嘉靖 25년 11월 丙辰條 참조.

273) 曾省吾(1532~?): 字는 三省, 號는 確庵, 만년의 自號는 恪庵이었다. 湖廣 承天府 鍾祥縣 사람이다. 嘉靖 41년(1562)에 進士가 되었다. 隆慶 말년에 右僉都御史로 四川 巡撫가 되어 상당히 노련하게民政을 살피 높은 평가를 받았다. 萬曆 원년(1573)에는 四川 敘州 土司 都掌蠻이 반란을 일으키자 曾省吾는 劉顯을 추천하고서 官兵 14만 명을 동원하여 출정해서 혁혁한 전과를 세웠다. 萬曆 3년(1575)에는 兵部左侍郎으로 승진하였다. 張居正의 死後에 그도 張居正의 죄에 연루되어 탄핵을 받았다. 결국 萬曆 10년(1582) 12월에 致仕하지 않을 수 없었고 萬曆 12년(1584) 10월에 曾省吾는 家産이 籍沒되고 民戶로 강등되었으며, 그 집안은 영원히 敘用되지 않는 조치를 받았다.

顯)<sup>274)</sup>으로 하여금 통제토록 하여, [그가] 복수한다는 것을 구실로 삼아 망령되이 소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라 하니, [만력제는] 이를 허락하였다.<sup>275)</sup> 당초에 오살(烏撒)<sup>276)</sup>이 영녕·오몽(烏蒙)·수서(水西)·점익(霑益)<sup>277)</sup> 등 여러 토관의 경역과 서로 연결하고 또 대대로 인척관계로 친밀하였다. 얼마 후 안국형이 안신(安信)을 살해하니, 안신의 형 안지(安智)가 영녕 선무 사효충(奢效忠)과 연결하여 보복하여 피차가 서로 공격하였다. 그런데 안국형의 부하인 관리의 두목이 안지와 친척관계였는데, 안국형에게 살해될까 두려워했고, 이로 인하여 안로흑(安路墨)에게 투신하였다. 안로흑은 토지부(土知府) 안승조(安承祖)라 사칭하고 경사(京師)에 가서 대신 상주하였다. 얼마 후 안국형 또한 그 아들 안민(安民)으로 하여금 호소토록 하니, 사효충과 함께 모두 명을 받들어 사천과 귀주 순무에게 조사받기를 기다리도록 하였다. 만족의 습속에 따라 별로 소를 내어 속죄토록 하기를 건의하니, 비답을 내려 이를 허락하였다.<sup>278)</sup> 사효충이 죽었는데, 그의 처 세통(世統)에게 아들이 없었지만, 첩

274) 劉顯(1515~1581): 明代の 저명한 ‘抗倭’ 名將으로, 本姓은 龔이고, 字는 惟明이며, 江西 南昌 사람이다. 태어나면서부터 힘이 장사였는데, 집이 너무나 가난하여 한때는 자살을 기도할 정도였다고 한다. 四川으로 이주하여 童子의 선생 노릇을 하다가 冒籍하여 武生이 되었다. 嘉靖 34년(1555)에 宜賓에서 苗族의 반란이 일어나자 巡撫 張臯가 출정하였는데, 劉顯이 從軍하면서 50여 명을 맨손으로 살해하고, 우두머리 3명을 생포하였다. 그 뒤를 이어 전군이 진군하여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 이 싸움으로 劉顯의 이름이 크게 알려져 비록 行伍 출신이었지만 副千戶가 되었다. 후에는 浙江都司參將이 되어 浦口 일대에서 倭寇를 대패시켜 副總兵으로 승진하였다. 다시 劉家庄의 왜구를 섬멸시키는 공을 세웠다. 嘉靖 41년(1562)에 總兵官이 되어 廣東을 鎮守하였으며, 얼마 후에는 군대를 거느리고 福建으로 가서 왜구 토벌을 원조하였는데, 특히 戚繼光, 俞大猷 등과 함께 연속해서 왜구를 격파하였다. 이후 狼山總兵이 되어 大江의 남북을 통제하며 왜구의 침범을 방어하였다. 都督同知, 左軍府都督, 太子太保로 승진하였다. 한편 그의 아들 劉綎도 明代の 저명한 將領이다.

275) 『神宗實錄』 卷13 萬曆 원년 5월 己丑條 참조.

276) 烏撒: 원래는 南蠻의 한 종류로서 至元 10년(1373)에 몽골제국에 처음 편입되어 至元 13년(1376)에 烏撒路가 되었다. 지금의 雲南 鎮雄縣, 貴州 威寧縣, 赫章縣 경내에 상당하는 지역이었다. 明代에는 烏撒衛가 설치되었는데, 곧 지금의 威寧彝族回族苗族自治縣治에 해당한다. 後漢시대 이래로 淸初에 이르기까지 彝族은 水西와 烏撒의 두 彝族地方政權으로 존재하였다. 즉, 烏撒部 彝族 지방정권의 세력 범위는 지금의 威寧과 赫章 일대에 걸쳐서 1,200여 년 동안 존속하였다.

277) 霑益: 雲南省 동부에 위치하는 曲靖市에서 관할하는 縣區 가운데 하나로서 그 중부에 위치한다. 자고로 霑益은 ‘雲南으로 들어가는 열쇠’, ‘雲南으로 들어가는 門戶’, ‘雲南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州’ 등으로도 유명한 전략상의 요지였다. 秦이 五尺道를 수축할 때, 곧 霑益을 경유했다. 諸葛亮이 南中을 평정할 때 주요 戰場이 바로 霑益의 동쪽에 위치한 南盤江 兩岸이었다. 唐朝는 西平州를 두었는데, 治所가 霑益이었다. 宋代에는 大理國에서 이름을 易隴籠으로 바꾸었다. 元代에 이르러 霑益州를 설치하였다.

세속(世續)에게는 어린 아들 사송주(奢崇周)가 있었다. 세통은 정처(正妻)라는 이유로 관인(官印)을 탈취하고자 하여 서로 원수가 되어 살해하였다. 마침 [황제에게 이를] 보고할 때, 총병 곽성(郭成)<sup>279</sup>·참장(參將)<sup>280</sup> 마정문(馬呈文)은 그들이 소유한 것을 취하려고 갑자기 병사 천여 명을 동원하여 깊이 낙홍(落紅)으로 들어갔다. 사씨(奢氏)의 9대에 걸쳐 축적한 것이 약탈로 텅 비게 되었다. 세속도 병사를 내어 관군의 뒤를 쫓았다. 사효충의 아우 사사복(奢沙卜)이 나아가 저항했고, 또한 수서의 군대를 불러 맞이해서 원수를 갚았다. 곽성의 군대가 패전하고 곧 격문을 보내 세통(世統)에게 사사복을 체포하도록 했으나, 세통은 이에 응하지 않고 다시 파총(把總)<sup>281</sup> 3명을 살해하고, 묘족 군대 만여 명을 모아 영녕을 공격하여

278) 『神宗實錄』 卷77 萬曆 6년 7월 癸酉條 참조.

279) 郭成: 生卒年 미상. 四川 敘南衛 사람이다. 世職으로 蘇松參將을 역임했는데, 副總兵으로 승진하였다. 倭寇가 通州를 침범하여 守將 李錫에게 패배하고는 崇明三沙를 약탈하였다. 이때 郭成이 왜구의 배를 격침시키고 130여 금의 수급을 배었다. 隆慶 원년(1567) 겨울에 그는 署理都督僉事로 발탁되었다가 廣東總兵官이 되었다. 이때 四川의 都掌蠻이 반란을 일으키자 隆慶帝는 郭成에게 군대를 옮겨 지키도록 했는데, 얼마 후에 탄핵을 받고는 돌아왔다. 萬曆 원년(1573)에 萬曆帝는 劉顯大에게 평정을 명하였는데, 郭成이 事官으로 임명되어 副將이 되었다. 전에 郭成의 부친이 蠻族에게 살해되었는데, 郭成이 본 전투에서 참수한 首級과 생포한 蠻族을 부친의 墓 앞에 데려다 제사를 지내었다고 한다. 후에 貴州總兵官이 되어 銅仁을 鎮守하였다. 郭成은 담략과 지혜가 출중하여 苗族이 그를 매우 두려워했다고 한다. 한편 본문에서 郭成이 활약할 때에 그의 직위는 四川總兵官이었다. 후에 楊應龍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郭成도 토벌작전에 참여했지만, 별다른 공을 세우지는 못하여, 戴罪한 채 업무를 수행하였다. 얼마 후에 임지에서 순직하였다.

280) 參將: 명대 중엽 북변에 처음으로 설치한 武官으로서 定員은 없었으며, 總兵과 副總兵의 아래에 위치하여 군사를 통솔하고 군무를 처리했다. 그 밖에 總兵의 지휘 하에 軍糧, 布疋, 軍器, 火藥 등의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일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清朝에 들어서도 正三品 綠營武官의 하나로서 總兵 혹은 副總兵 아래 都司와 游擊의 위에 위치했다. 清朝는 漢人의 군대를 綠營으로 재편성하여 각 省에 주둔시켰다. 지방의 최고위급 군사 장관은 總督으로 하나에서 두셋의 省을 통솔하였다. 녹영의 조직은 몇 단계로 나누어진다. 1개 省의 最高 軍事長官은 提督 혹은 提督을 겸하는 巡撫였다. 省 아래에는 鎮을 설치하였는데, 鎮의 長官은 總兵이었다. 鎮의 아래에는 協을 설치했는데 그 長官은 副將이었다. 協의 아래에는 營을 설치했고 營의 長官으로는 營이 설치된 지역의 전략적 가치에 따라서 參將, 游擊, 都司, 守備를 두었다. 營의 아래에는 汛을 설치했는데 汛도 설치된 지역의 중요도에 따라서 그 長官에 각각 千總, 把總, 外委千總, 外委把總이 배치되었다.

281) 把總: 把總 혹은 百總이라고도 하는데, 京師를 지키는 三大營의 統兵官과 各地의 總兵 휘하에 있는 軍官이다. 明初에는 대부분 功臣이나 外戚을 이에 充任하였으나 후에 그 직위가 날로 가벼워져 正七品官으로, 正六品인 千總 다음의 직책이다. 把總은 京城巡捕五營 등 중원 내지뿐 아니라 四川, 雲南, 甘肅, 貴州의 土司官 중에도 土把總이라는 명칭으로 설치되었는데, 본문에서의 把總은 바로 土把總을

원한을 씻으려 하였다. 순안(巡按)<sup>282)</sup>은 광성 등이 사리(私利)를 얻기 위하여 사단을 일으켰으니 응당 체포해야 한다고 탄핵했고, 두 개의 토부(土婦)의 관모(官帽)와 의대(衣帶)를 주고, 예전대로 지역을 나누어 각기 소속을 관리토록 하였으며, 그 선무사(宣撫司)의 인장은 사숭주(奢崇周)가 성장하여 자립하기를 기다렸다가 관직을 승계하여 사무를 담당하도록 건의하니, 비답을 내려 허락하였다.<sup>283)</sup> [만력] 14년(1586)에 사숭주가 직무를 대리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였다.

奢崇明者，效忠親弟盡忠子也。幼孤，依世統撫養一十三年。至是，送之永寧，世續遺之氍毹，許出印給之。事已定，而諸奸閹宗傳等自以昔從世續逐世統，殺沙卜，懼崇明立，必復前恨，遂附水西，立阿利以自固。安疆臣陰陽其間，蠻兵四出，焚劫屯堡，官兵不能禁。總督以聞，朝議命奢崇明暫管宣撫事，冀崇明蠲夙恨，以收人心。而閹宗傳等攻掠永寧·普市·麾尼如故。崇明承襲幾一載，世續印竟不與，且以印私安疆臣妻弟阿利。巡撫遣都司張神武執世續索印，世續言印在鎮雄隴澄處。

사숭명(奢崇明)<sup>284)</sup>은 사효충의 친동생인 사진충의 아들이다.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세통 말한다.

282) 巡按御史 宋仕를 가리킨다(『神宗實錄』卷130 萬曆 10년 11월 丁卯條 참조).

283) 『神宗實錄』卷130 萬曆 10년 11월 丁卯條 참조.

284) 奢崇明(?~1629): 四川 永寧(지금의 叙永) 사람이다. 明代의 彝族 酋長으로 자립하여 서남의 할거정권을 수립하였다. 조상이 역대로 明朝로부터 封贈을 받아 永寧宣撫司職을 세습하였는데, 특히 용감하고 싸움에 능한 彝族과 苗族 병사를 장악하여 그의 아들 奢寅 등과 함께 오래전부터 反明自立的 마음을 품고 있었다. 天啓 원년(1621)에 後金이 遼東에서 蹶起하여 明軍이 계속 패하자 다급해진 明 조정은 奢崇명을 징발하여 兵馬를 이끌고 遼東을 구원하도록 하였다. 奢崇명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사위 樊龍과 부장 張彤을 파견하여 騎兵 2만 명을 데리고 重慶에 이르도록 하였다. 9월 17일 教場에서 演武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마침내 巡撫 徐可求 등 軍政 官員 20여 명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다. 重慶을 점거하고, 合江을 공격했으며, 瀘州를 격파하고 遵義를 함락시켜 ‘大梁國’을 세워 丞相과 五府 등의 관직을 두니, 四川 전 지역이 진동하였다. 10월 18일 奢崇명은 군대를 거느리고 成都를 포위하였는데, 당시 成都의 수비 병사는 겨우 2,000명에 불과했다. 布政使 朱變元은 급히 石砭宣慰司, 龍安府 등지의 官軍을 징발하여 구원토록 했다. 明 조정은 朱變元을 四川 巡撫로 승진시켜 반란을 평정토록 했다. 줄곧 明 조정에 충성을 바치던 저명한 女將인 石砭宣慰使 秦良玉이 동생 秦民屏과 조카 秦翼明 등을 보내 4,000명을 대동하여 南坪關(지금의 四川 南川 서남)에 주둔해서 重慶의 叛軍의 歸路를

에 의지하여 13년 동안 길러졌다. 이에 이르러 영녕으로 보내졌는데, 세속이 그에게 모전(毛氈)<sup>285</sup>과 마필을 주고 관인(官印)을 내어 그에게 주는 것을 허락하였다. 일이 이미 정해지자 간악한 염종전(閔宗傳) 등은 스스로 과거에 세속을 좇아 세통을 축출하고 사사복을 살해했었기 때문에 사승명이 계위(繼位)하게 되면 반드시 이전의 원한을 복수하리라 생각하여 드디어 수서(水西)에 붙어 아리(阿利)를 옹립하여 스스로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다. 안강신(安疆臣)은 그 사이에서 농간을 부렸고, 만족 군대가 사방으로 출격하여 둔보(屯堡)를 불사르고 파괴하니, 관군은 이를 금지할 수 없었다. 총독이 이를 보고하니, 조정에서는 논의하여, 사승명에게 잠시 선무(宣撫)<sup>286</sup>의 일을 관리토록 명하여 사승명이 옛 원한을 버리고 인심을 수습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염종전 등은 여전히 영녕·보시(普市)·마니(磨尼) 등을 공격하여 약탈하였다. 사승명이 관직을 승계한 지 거의 1년이 되었는데, 세속은 인장을 끝내 주지 않았고, 게다가 인장을 안강신의 처의 동생인 아리에게 사적으로 넘겼다. 순무는 도사(都司) 장신무(張神武)<sup>287</sup>를 파견하여 세속을 체포하고 관인을 수색하였는데, 세속은 인장이 진웅(鎭雄)

막는 한편 병사를 나누어 忠州(지금의 四川 忠縣)에 주둔시켰다. 秦良玉은 스스로 정예병 6,000명을 거느리고 長江을 따라 서쪽으로 진격했다. 10월부터 12월 사이에 걸쳐 크고 작은 100여 차례의 전투에서 叛軍 1만여 명을 소멸시키고, 앞뒤로 遵義, 綏陽 등지를 수복하였다. 이에 奢崇明父子는 永寧으로 후퇴하였고, 5월 28일에 明軍이 重慶을 수복하였다. 天啓 3년(1623) 봄에 明軍은 永寧을 공격하여 4월에 함락시켰다. 奢崇明 부자는 패잔병을 거느리고 水西의 龍場으로 후퇴하였고, 거듭되는 明軍의 공세를 이기지 못하고 참패를 당하여 부상을 입고 달아났다. 명 조정은 永寧宣撫司를 폐지하고 道府를 설치하여 다스리도록 하였다. 天啓 6년(1626) 아들 奢寅이 부하에게 피살되었다. 崇禎 2년(1629) 8월에는 奢崇明이 大梁王이라 自號하고 土司 安邦彥이 四裔大長老라 칭하여 양인이 군대를 합쳐 전력을 다하여 永寧을 공격했지만, 朱燮元이 거느리는 明朝의 여러 黔軍에게 포위되어 결국 전군이 覆沒되고, 奢崇明은 安邦彥과 함께 사망하였다.

285) 毛氈: 털로 짠 모직물을 가리킨다.

286) 宣撫: 조정에서 大臣을 특정 지역에 파견하여 황제의 명령을 전달하고 軍民을 안정시키고 위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287) 張神武(?~1621): 江西 新建 사람으로, 本姓은 陳이다. 萬曆 32년(1604)에 武舉 會試에서 제1등으로 합격하여 四川都司僉書로 제수되었다가 후에 四川都司가 되었다. 이때 奢崇明이 永寧宣撫使의 직위를 계승했는데, 그 모친 奢世續에 官印을 내어놓지 않자, 張神武와 永寧參將 周敦吉이 奢世續을 생포하고 그녀의 재물과 자녀를 빼앗아가는 한편 官印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다만 이는 奢世續 手下의 閔宗傳 등을 격분시켜, 閔宗傳은 奢世續을 구출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걸고 永寧과 赤水 등지를 약탈하여 수백 리가 狼藉하게 되었다. 일부 관원은 張神武가 功을 탐하여 멋대로 진공작전을 감행하여 조정에게 골칫거리를 야기했으므로 옹당 斬刑에 처해야 한다고 탄핵했고, 일부 관원은 張神武를 위해 변호하였

농징(隴澄)<sup>288)</sup>의 수중에 있다고 말하였다.<sup>289)</sup>

隴澄者，水西安堯臣也。隴氏垂絕，堯臣入贅，遂冒隴姓，稱隴澄。敍平播州·敍州功，澄與焉，中朝不知其爲堯臣也。堯臣外怙播功，內仗水西，有據鎮雄制永寧心。蜀撫按以堯臣非隴氏種，無授鎮雄意。堯臣以是懷兩端，陰助世續。意世續得授阿利，則已據鎮雄益堅。又朝廷厭兵，宗傳·阿利等方騷，已可臥取隴氏也。而閻宗傳等每焚掠，必稱鎮雄兵，以怖諸部。川南道梅國樓所俘蠻丑者言，鎮雄遣將魯大功督兵五營屯大壩，水西兵已渡馬鈴堡，約攻永寧，普市遂潰，宗傳等以空城棄去。奢崇明又言，堯臣所遣目把彭月政·魯仲賢六大營助逆不退，聲言將抵敍南，攻永寧·滬州。於是總兵侯國弼等，皆歸惡於堯臣。都司張神武等所俘喚者·朗者，皆鎮雄土目，堯臣亦不能解。

농징은 수서의 안요신(安堯臣)이다. 농씨[의 대]가 거의 끊길 지경이었는데, 안요신이 데릴사위가 되어 드디어 농씨 성을 모칭(冒稱)하여 농징이라 불렀다. 파주(播州)와 서주(敍州)를 평정한 공을 차례를 매겨 장려할 때 농징도 그 속에 끼었는데, 조정에서는 그가 안요신임을

다. 그런데 당시는遼東에서 後金과의 전쟁이 급박하여 인재 발탁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이에 天啓帝는 征遼經略 袁應泰의 천거에 따라 張神武와 周敦吉에게 명하여 從軍하여 공을 세우도록 하였다. 張神武는 240여 명을 거느리고 밤낮으로 행진하여 遼陽을 구원하려 하였다. 그러나 廣寧에 도착하자 遼陽은 이미 상실된 뒤였다. 廣寧巡撫 薛國이 張神武에게 남아서 廣寧을 지키도록 했으나, 그는 요양 수복을 고집하여 요양으로의 진군을 강행하였다. 진군 도중에 요양에서 패주하던 10여만 명을 만나 지휘관에게 협력하여 요양 수복을 권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張神武는 자신의 부대를 거느리고 遼河를 건너 遼陽에서 17리 거리에 진을 쳤다. 배급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後金軍과 격렬한 공방전을 펼쳤지만, 중과부적으로 張神武를 포함한 대부분의 將士가 전사하여, 겨우 14명만 부상을 안고 돌아왔다. 張神武의 사후에 監軍御史 方震孺가 張神武의 형상을 그려 轅門에 내걸고 將士들이 출정할 때 먼저 張神武에게 拜禮도록 했다. 天啓帝가 그의 소식을 들은 후 조서를 내려 張神武에게 正二品の 都督僉事를 추증하고 대대로 千戶의 관직을 세습케 함과 아울러 사당을 지어 제사를 지내도록 했으며, 張神武에게는 특별히 ‘烈愍’의 시호를 내려주었다.

288) 隴澄(?~1613): 彝族으로서 原名은 安堯臣이다. 水西(지금의 貴州 畢節) 사람으로 水西彝族土司가 되었다. 萬曆 36년(1608)에 彝族土司 安疆臣이 죽자 아우 安堯臣이 직위를 승계했다. 당시 隴氏 族人이 거의 맥이 끊어져 安堯臣이 데릴사위로 들어가 결국 隴氏로 성을 바꾸어 隴澄이라 칭하였다. 후에는 貴州宣慰使가 되었다. 萬曆 41년(1613)에 사망했다고 하지만, 확실치는 않다.

289) 『神宗實錄』 卷432 萬曆 35년 4월 丁未條 참조.

알지 못하였다. 안요신은 밖으로는 파주를 평정한 공에 기대고 안으로는 수서[의 지지]에 의지하여, 진웅을 점거하여 영녕을 통제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다. 촉(蜀)의 무안(撫按)은 안요신이 농씨의 후예가 아니라는 이유로 진웅을 주려는 뜻이 없었다. 안요신은 이러한 이유로 두 마음을 품고 몰래 세속을 도왔다. 세속이 [관인을] 아리에게 주면 자신이 진웅을 점거하는 것이 더욱 확실해질 것임을 의도한 것이었다. 또 조정이 용병(用兵)을 꺼려하는데, 염종전과 아리 등이 바야흐로 끊임없이 소란을 일으키니, 자기는 누워서 농씨[의 땅]을 취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염종전 등은 매번 불사르고 약탈할 때마다 반드시 진웅의 군대라고 칭하여 여러 부족을 두려움에 떨게 하였다. 천남도(川南道) 매국루(梅國樓)<sup>290)</sup>가 포로로 잡은 만족축자(丑者)가 말하기를, 진웅에서 파견한 장군 노대공(魯大功)이 거느리는 군대 오영(五營)이 대패에 주둔하고, 수서의 군대도 이미 마령보(馬鈴堡)를 건너 서로 약정하여 영녕을 공격하니, 보시(普市)가 결국 무너지고 염종전 등은 공성(空城)을 버리고 달아났다고 하였다. 사승명이 다시 말하기를, 안요신이 파견한 목과(目把)<sup>291)</sup> 팽월정(彭月政)·노중현(魯仲賢) 등 6개 대영(大營)이 역적을 도와 병사를 물리지 않고, 장차 서남(敍南)에 이르러 영녕과 호주(滬州)를 공격할 것이라고 큰 소리 친다고 하였다. 이에 총병 후국필(侯國弼) 등은 모두 죄과(罪過)를 안요신에게 돌렸다. 도사(都司) 장신무(張神武) 등이 생포한 환자(喚者)·낭자(朗者)는 모두 웅진의 토목(土目)<sup>292)</sup>이었는데, 안요신도 구할 수 없었다.<sup>293)</sup>

黔中撫按以西南多事，兵食俱誦，無意取鎮雄。堯臣因以普市·摩尼諸焚掠，皆歸之蜀將。議者遂以貪功起釁，爲蜀將罪。四川巡撫喬璧星言：「堯臣狡謀，欲篡鎮雄，垂涎蘭地有年矣。宗傳之背逆恃鎮雄，猶鎮雄之恃水西也。水西疆臣不助兵，臣已得其狀，宜

290) 梅國樓：生卒年 미상. 字는 公岑, 號는 琮宇으로서 麻城 사람이다. 始祖 榮慶公이 전란을 피하여 安徽 宣城에서 麻城으로 이주하였다. 梅國樓는 梅國楨의 둘째 동생인데, 萬曆 11년(1583)에 進士로 급제하여 庶吉士가 되었고, 給事中을 역임하였다. 萬曆 37년(1609)에는 遵義軍民府 參軍巡檢이 되었다. 梅國楨, 梅之煥과 合稱하여 ‘荊楚三梅’라 일컬어졌다.

291) 目把：西南 소수민족의 작은 首領을 가리킨다.

292) 土目：土司制度 하에서 土司에 예속된 일종의 官銜이다. 封土와 軍隊 등을 擁有하여 文武를 兼理하는 비교적 높은 지위이며 세습직인데, 그들의 권력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르다.

293) 『神宗實錄』 卷432 萬曆 35년 4월 丁未條 참조.

乘逆孽未成，令貴州撫按調兵與臣會剿。倘堯臣稔惡如故，臣即移師擊之，毋使弗摧之虺復爲蛇，弗室之罅復爲河也。」疏上，廷議無敢決用師者。久之，阿利死，印亦出，蜀中欲逐堯臣之論，卒不可解。時播州清疆之議方沸騰，黔·蜀各紛紛。至是，永寧議兵又如聚訟矣。時朝廷已一意休兵。三十五年，命釋奢世續，赦閻宗傳等罪，訪求隴氏子孫爲鎮雄後。并令安疆臣約束堯臣歸本土司，聽遙授職銜，不許冒襲隴職。於是宗傳降，堯臣請避去，黔督遂請撤師。

김중(黔中)<sup>294</sup>의 무안(撫按)은 서남(西南)에서 반란이 다수 발발하여 병기와 군량이 모두 부족하다는 이유로 진을 취하려는 뜻이 없었다. 안요신은 이로 인하여 보시(普市)와 마니(摩尼) 등 각지에서 불사르고 약탈한 것을 모두 촉장(蜀將)에게 [그 책임을] 돌렸다. 의논하는 자들은 마침내 공을 탐하여 쟁단(爭端)을 일으킨 것을 촉장의 죄로 삼았다. 사천 순무 교벽성(喬璧星)<sup>295</sup>이 아뢰기를, “안요신은 교활한 꾀로 진을 빼앗아 난(蘭) 땅을 병탄하려는 생각

294)黔中: 전국시대 楚國에서黔中郡을 설치하였다. 秦·楚 간의 전쟁 후에 秦國이 楚國의黔中郡과 巫郡을 합병하여 새로운黔中郡을 두었는데, 郡治는 원래의 巫郡 소재지인 지금의 湖南 懷化市 이남 40km 거리의黔城이었고, 지금의 湖南 서부와 인접한 四川 및 貴州 구역을 관할하였지만, 沅陵과 常德은 포괄되지 않는다. 前漢 시대에는 武陵郡으로 바꾸었는데, 沅陵과 常德도 포함시켰다. 唐朝는黔州를黔中郡으로 바꾸었는데, 다시江南道를 나누어黔中道를 두었다. 治所는黔州로서 지금의 重慶 彭水인데, 관할하는 지역은 秦代의黔中郡에 비하여 동쪽으로 지금의 湖南 방면의 일부 지역이 줄어들고, 서쪽으로는 지금의 貴州省 대부분이 포함된다. 이로부터黔이 후세에 貴州의 별칭이 되었다.

295) 喬璧星(1550~1616): 字는 文見, 號는 聚垣이다. 원래의 이름은 北星이었는데, 후에 璧星으로 개명하였다. 臨城縣 喬家庄 출신으로 그는 어려서부터 영리하였는데, 嘉靖 45년(1566) 18세 때에 游縣生이 되었고, 2년 후에 廩膳生員 자격을 취득하였다. 萬曆 4년(1576)에 順天府 鄉試에서 제66위로 합격하였다. 萬曆 8년(1580)에는 殿試의三甲으로 進士가 되어 河南 開封府 中牟縣 知縣으로 選任되었는데, 당시 나이가 31세였다. 부임 이후 舊弊를 혁파하고 惠政을 실시하였으며, 隱田 450여 頃을 清理하고 稅糧 6,000여 石을 감면하는 등 善政을 베풀었다. 이임 시에는 縣民이 아쉬워하며 그를 기리는 生祠 20여 곳을 세웠는데, 中州 일대에서는 그를 천하의 淸官 가운데 으뜸이라고 칭송하였다. 政績의 탁월함이 인정되어 萬曆 14년(1586)에는 山東道 監察御史로 승진하였고 이듬해(1587)에江南으로 파견되어 漕運을 催督하였다. 萬曆 16년(1588)에는 應天巡按이 되었는데, 이듬해(1589) 劉汝國이太湖의 宿縣과 松縣 두縣의 경내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이를 진압하고 劉汝國 등을 생포하였다. 萬曆 19년(1591)에는山西巡按이 되어 ‘礦寇’ 張守清을 제거하였다. 萬曆 21년(1593)에는京營 일대를 순시하다가 별자리의 이상 현상에 즈음하여 萬曆帝에게 上書하여 時政의 폐단을 논하였다. 萬曆 24년(1598)에는 다시

을 가진 것이 여러 해 되었습니다. 염종전의 배반이 진웅을 믿고 한 것이 진웅이 수서를 믿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수서의 안강신이 출병해서 돕지 않았는데, 신은 이미 그의 상황을 알고 있으니, 마땅히 그 반역이 성공하지 못한 때를 틈타서 귀주의 무안으로 하여금 군대를 보내어 신과 만나 토벌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안요신이 종전과 같이 나쁜 마음에 의지한다면, 신은 즉각 군대를 동원해서 공격하여, 궤멸되지 않은 작은 뱀이 대사(大蛇)가 되고 메우지 않은 틈이 대하(大河)가 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상소가 올라갔지만 조정에서 논의하는 자 가운데 감히 군대 사용을 결정하는 자가 없었다. 한참 지나 아리가 죽고 관인도 나와 촉중(蜀中)에서 안요신을 몰아내려는 의논이 끝내 해제되지 않았다. 당시 파주에서 변강을 깨끗이 하려는 의논이 바야흐로 비등하였고, 검(黔)과 촉(蜀)의 각지에서 [논의가] 분분하였다. 이에 이르러 영녕에서 전쟁에 대한 의논이 또한 송사가 끊임없는 것과 같았다.<sup>296)</sup> 당시 조정에서는 이미 전쟁 중지에 생각이 일치하였다. [만력] 35년(1607)에, [만력제는] 사세속을 석방하고 염종전 등의 죄를 사면하며, 농씨의 자손을 찾아 진웅의 후예로 삼도록 명하였다. 아울러 안강신으로 하여금 안요신을 단속하여 본래의 토사(土司)로 돌아가도록 하고, 멀리서 [조정에서] 주는 직함을 받도록 하되 농씨의 관직을 몇대로 승계하는 것은 불허하였다. 이에 염종전이 투항하고 안요신은 피하여 떠날 것을 청하니, 검(黔)의 독군(督軍)이 드디어 철군을 청하였다.<sup>297)</sup>

舊制，永寧衛隸黔，土司隸蜀。自水·蘭交攻，軍民激變，奢崇明雖立，而行勘未報。摩尼·普市千戶張大策等復請將永寧宣撫改土爲流。兵部言，無故改流，置崇明何地，命

御史의 신분으로 京畿道を 순시하였고, 萬曆 27년(1599)에는 順天府丞으로서 府印을 관장하였다. 萬曆 28년(1600)에 科場의 編號가 지나치게 엄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아 관직을 사직하고 낙향하였다. 그러나 萬曆 32년(1604)에 원래의 관직이 회복되어 이듬해(1605)에 大理寺 左少卿이 되었다가 12월에 都察院右都御史로 승진하였으며, 萬曆 34년(1606) 정월에 四川 巡撫가 되었다. 水西土司 安堯臣이 鎮雄에서 隴氏 三子를 죽이고 지방관부와 결탁하여 抗命하자 喬璧星은 敘州에 진을 치고 토벌에 나서 일거에 大帥를 붙잡았으나 川·湖總督 郭子章의 시기를 받아 결국에는 罷兵할 수밖에 없었다. 약 8년 만에 四川에서 돌아올 무렵 蜀人들은 그를 칭송하고 生祠를 세웠다. 萬曆 44년(1616)에 사망했는데, 매장할 金錢이 부족할 정도로 청렴했다고 한다.

296) 『神宗實錄』 卷434 萬曆 35년 6월 庚申條 참조.

297) 『神宗實錄』 卷437 萬曆 35년 8월 己丑條 참조.

速完前勘諸案。於是蜀撫擬張大策以失守城池罪，應斬，黔撫擬張神武以擅兵劫掠，罪亦應斬。策斬策，黔人，武，蜀人也。由是兩情皆不平，諸臣自相構訟，復紛結不解。會奢崇明子寅與水西已故土官妻奢社輝爭地，安兵馬十倍奢，而奢之兵精，兩相持。蜀·黔撫按不能制，以狀聞。四十八年，黔撫張鶴鳴以赤水衛白撒所屯地爲永寧占據，宜清還，皆待勘未決。

구제(舊制)에 영녕위(永寧衛)는 검에 예속되고 토사는 축에 예속되었다. 수서(水西)와 난(蘭)이 서로 공격하면서부터 군민(軍民)은 변란이 격화되어 사승명이 비록 관직을 승계했지만 진행한 심사는 아직 보고가 없었다. 마니와 보시의 천호 장대책(張大策) 등이 다시 영녕선무를 개토귀류하자고 청하였다. 병부에서 아뢰기를, “이유 없이 유관(流官)으로 바꾼다면 사승명을 어떤 곳에 놓는단 말입니까? 속히 이전에 심사한 각종 안건을 종결시키도록 명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sup>298)</sup> 이에 축의 순무는 장대책이 성지(城池)를 지키지 못한 죄가 마땅히 참수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검의 순무는 장신무(張神武)가 군대를 멋대로 부려 약탈하였으니 그 죄 또한 마땅히 참수해야 한다고 하였다. 장대책은 검 출신이고, 장신무는 축 출신이었다. 이로부터 두 곳의 정서가 모두 들끓어 여러 신하들이 스스로 서로 소송을 하니 다시 어지러워져 풀리지 않았다. 마침 사승명의 아들 사인(奢寅)이 수서의 이미 죽은 토관의 처사사휘(奢社輝)와 땅을 놓고 분쟁이 일어났는데, 안씨(安氏)의 병마(兵馬)가 사씨(奢氏)의 10배였지만 사씨의 군대는 정예부대여서 쌍방이 서로 대등하게 버텼다. 축과 검의 무안(撫按)이 제어할 수 없었기에 실상을 보고하였다.<sup>299)</sup> [만력] 48년(1620)에, 검의 순무 장학명(張鶴鳴)이 적수위백살소(赤水衛白撒所)의 주둔지가 영녕에게 점거되었으니 응당 깨끗이 상환(償還)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모두 심사를 기다렸지만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다.

天啓元年，崇明請調馬步兵二萬援遼，從之。崇明與子寅久蓄異志，借調兵援遼，遣其婿樊龍·部黨張彤等，領兵至重慶，久駐不發。巡撫徐可求移鎮重慶，趣永寧兵。樊龍

298) 『神宗實錄』 卷494 萬曆 40년 4월 庚辰條 참조.

299) 『神宗實錄』 卷570 萬曆 46년 5월 庚戌條 참조.

等以增行糧爲名乘機反，殺巡撫·道·府·總兵等官二十餘員，遂據重慶。分兵攻合江·納溪，破滬州，陷遵義，興文知縣張振德死之。興文，故九絲蠻地也。進圍成都，僞號大梁，布政使朱變元·周著，按察使林宰分門固守。石砭土司女官秦良玉遣弟民屏·侄翼明等，發兵四千，倍道兼行，潛渡重慶，營南坪關。良玉自統精兵六千，沿江上趨成都。諸援兵亦漸集。時寅攻城急，陰納劉勳等爲內應，事覺伏誅。復造雲梯及早船，晝夜薄城，城中亦以砲石擊毀之。相持百日，會賊將羅乾象遣人輸款，願殺賊自效。是夜，乾象縱火焚營，賊兵亂，崇明父子倉皇奔，錢帛谷米委棄山積，窮民賴以得活。乾象因率其黨胡汝高等來降。時變元已授巡撫，率川卒追崇明，江安·新都·遵義諸郡邑皆復。時二年三月也。樊龍收餘衆數萬，據重慶險塞。變元督良玉等奪二郎關，總兵杜文煥破佛圖關，諸將迫重慶而軍。奢寅遣賊黨周鼎等分道來救，鼎敗走，爲合江民所縛。官軍與平茶·酉陽·石砭三土司合圍重慶，城中乏食。變元遂以計擒樊龍，殺之，張彤亦爲亂兵所殺，生擒龍子友邦及其黨張國用·石永高等三十餘人，遂復重慶。

천계(天啓)<sup>300</sup> 원년(1621)에, 사승명이 기병과 보병 2만을 징발하여 요(遼)를 원조하기를 청하니, 이를 허락하였다. 사승명과 [그의] 아들 사인(奢寅)이 오래전부터 모반하려는 뜻을 품고 있었는데, 군대를 징발하여 요를 원조하는 기회를 빌려 그의 사위 번룡(樊龍)과 일당 장동(張彤) 등을 보내 군대를 거느리고 중경(重慶)에 이르러 오랫동안 머물며 출발하지 않았다. 순무 서가구(徐可求)<sup>301</sup>가 이동하여 중경을 진수(鎮守)하며 영녕의 군대를 재촉하였다. 번룡 등은 군량을 증가시켜줄 것을 구실로 삼아 기회를 틈타 반란을 일으켜 순무·도(道)·부(府)·총병<sup>302</sup> 등의 관원 20여 명을 죽이고, 드디어 중경을 점거하였다. [이후] 군대를 나누어

300) 天啓: 명 왕조 16대 황제인 熹宗 朱由校의 年號이다.

301) 徐可求(?~1621): 明末의 大臣으로 四川巡撫에까지 이르렀는데 奢崇명의 반란 시에 사망하였다. 天啓 원년(1621)에 後金이 요동에서 蹶起하여 明軍이 계속 패하자 다급해진 명 조정은 사방에서 병사를 징발하였다. 四川 永寧宣撫使 奢崇明은 원래 彝族 酋長으로서 길으로는 恭順하면서 오래전부터 배반의 뜻을 품고 있었다. 특히 종래부터 군대 징발 명령에도 따르지 않았는데, 금번에는 도리어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주동적으로 상소하여 구원병을 보낼 것을 청하였다. 조정의 인준 하에 奢崇明은 사위 樊龍과 부장 張彤을 과건하여 騎兵 2만 명을 대동해서 重慶에 이르렀다. 9월 17일 당시 四川巡撫였던 徐可求가 教場에서 點檢하고 있었는데, 樊龍 등이 기회를 틈타 반란을 일으켰다. 결국 徐可求是 樊龍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합강(合江)·납계(納溪)를 공격하고 호주(滬州)를 격파하였으며 준의(遵義)를 함락시켰는데, 흥문(興文) 지현(知縣) 장진덕(張振德)<sup>303)</sup>이 전사하였다. 흥문은 옛 구사만(九絲蠻)의 땅이다. [구적이] 진군하여 성도(成都)를 포위하고, 멋대로 [국호를] 대량(大梁)이라 칭하였는데, 포정사(布政使) 주섭원(朱燮元)<sup>304)</sup>·주저(周著), 안찰사(按察使)<sup>305)</sup> 임재(林宰)<sup>306)</sup>가

302) 巡撫는 徐可求, 道臣은 孫好古와 駱曰升 및 李繼周, 知府는 章文炳, 總兵은 黃守魁와 王守忠을 각각 가리킨다. 그 외에 同知 王世科와 熊嗣先, 推官 王三宅, 知縣 段高選, 參將 萬全과 王登爵 등이 모두 피살되었다(『熹宗實錄』 卷14 天啓 원년 9월 乙卯條 참조).

303) 張振德(?~1621): 字는 季修이며, 江蘇 崑山縣 사람이다. 조부 張情과 증조부 張意가 모두 進士 출신으로 조부는 福建副使, 증조부는 山東副使를 역임했다. 張振德은 選貢生에서 四川 興文知縣으로 제수되었다. 興文縣은 萬曆 초에 처음으로 土牆 數尺을 세웠지만 戶數가 1,000호에 미치지 못했다. 永寧 宣撫 奢崇明이 반란의 뜻이 있어 奸人과 결탁하여 子女를 掠賣하였는데, 張振德은 그 奸人을 체포하여 유배형으로 논죄하고 약탈을 당한 자 300여 명을 불러 반환해주었다. 奢崇明이 2,000의 金으로 회유하였으나, 張振德은 크게 노하고 이를 물리쳤다. 天啓 元年(1621)에 奢崇明이 樊龍을 시켜 巡撫 徐可求 등을 살해하였다. 이때 重慶知府 章文炳, 巴縣知縣 段高選 등이 모두 저항하다가 죽었지만 당시 그는 長寧知縣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를 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興文을 지키는 것이 옳다는 신념하에 入城하였다. 마침 風雨가 크게 일어 土城 일각이 무너져 적군이 入城하게 되었다. 이에 그는 아내와 두 딸을 자결토록 하고, 자신은 家人에게 명하여 불을 지르도록 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일이 알려진 후 조정에서는 祭葬을 하사하고, 光祿卿으로 追贈하였으며, 烈愍이란 謚號가 내려졌다. 有司에게 사당을 짓도록 하여 대대로 錦衣 千戶를 세습토록 하였다.

304) 朱燮元(1566~1633): 原名은 懋賞이며, 字는 懋和, 號는 恒岳, 別號는 石芝였다. 山陰(지금의 浙江 紹興)의 白洋村 출신이다. 萬曆 13년(1585)에 舉人이 된 후 紹興知府 蕭良干的 초빙을 받고 諸子書를 2년간 전수하였다. 萬曆 20년(1592)에 進士로 급제하여 大理評事에 제수되었다. 당시 山西 豪紳 劉申 등이 鄉里에서 橫行하여 죽은 자가 즐비하였다. 이 일이 드러났지만 10년 동안 판결이 나지 않았다. 그는 이 안건을 수리해서 權貴의 청을 물리치고 즉각 판결하여 300여 명을 구원하였다. 후에 蘇州知府로 부임하여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등의 치적을 올렸다. 萬曆 29년(1601)에 鑛稅使 孫隆이 蘇州에서 무리하게 徵稅를 감행하여 葛成을 우두머리로 하는 1만여 명의 織工이 民變을 일으켰다. 이때 그는 이미 川南道로 승진하여 행장을 챙겨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 大吏들이 다급한 나머지 그에게 폭동 진압을 요청했는데, 그는 “官兵은 外寇를 방어해야 한다”는 이유로 관군 동원을 통한 폭동 진압을 거부하고 恩義로써 해산을 권하였다. 결국 葛成이 자수하면서 民變은 일단락되었다. 萬曆 35년(1607)에는 부모가 연로하다는 이유로 사직하고 귀향하여 10년 동안 봉양하였다. 萬曆 44년(1616)에 陝西按察使로 기용되었고, 萬曆 46년(1618)에는 四川右布政使로 부임하였다. 天啓 원년(1621)에 永寧土司 奢崇明이 반란을 일으켜 41개 州縣을 연속으로 격파한 뒤 水陸으로 成都를 포위하였는데, 이때 그는 ‘賊動我止, 賊止我動’ 전술로 반란군을 유인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이 공로로 兵部侍郎과 四川, 湖廣, 陝西 등지의 軍務를 總督하게 되었다. 奢崇明이 그 후에 貴州 水西土司 安邦彥과 연합하여 다시 거병하여 貴州를 침범하였고, 貴州巡撫가 이 싸움에서 패배하자 조정에서는 다시 朱燮元에게 출정토록 하였

문을 나누어 굳게 지켰다.<sup>307)</sup> 석주(石砮) 토사의 여관(女官) 진량옥(秦良玉)<sup>308)</sup>이 아우 민병

다. 이후 兵部尙書로 승진하여 貴州, 四川, 湖廣, 雲南, 廣東 등 5省의 軍務를 總督하였다. 崇禎 2년(1629) 8월에 水西로 진격하여 奢崇明과 安邦彥을 죽이고 서남의 반란을 평정했으며, 이 공로로 少保로 승진하여 少傅兼太子太傅가 더해졌고, 후에 少師, 左柱國이 추가되었다. 崇禎 11년(1633)에 殉職하였는데, 처음에는 襄毅라는 諡號를 받았으나 후에 忠定으로 바뀌었다.

305) 按察使: 明代에 한 省의 司法과 監察을 담당하는 提刑按察使司의 장관을 가리킨다. 明 중기 이후에는 각지에 巡撫를 두었는데, 이후 按察使는 사실상 巡撫의 屬官이 되었다.

306) 林宰: 生卒年 미상. 字는 德衡, 號는 平華이며, 福建 漳浦縣 城新路 사람이다. 그는 어려서 근면하고 학문에 전념하여 萬曆 29년(1601)에 進士에 급제해 南京 常州府 無錫 知縣에 제수되었다. 마침 無錫人 顧憲成이 革職되어 귀향하여 宋代 楊時가 講學하던 東林書院의 재건을 제창하였는데, 그는 자금을 조달하여 講堂 修建을 주도하였으며, 특히 공사가 끝난 뒤에 손수 碑記를 썼다. 그는 人才 선발을 매우 중시했다. 예를 들어, 童子試에서 馬世奇와 華允誠을 각각 제1등으로 선발했는데, 후에 두 사람 모두 一代의 名臣이 되어 당시 사람들이 氷鑑이라 칭하였다. 縣 내에서 訟事가 있으면 법률에 의거하여 명쾌하게 판결하여 屬吏들이 농간을 부릴 수 없었다. 얼마 후에 吏部主事, 吏部郎中을 거쳐 四川按察使로 승진하였다. 天啓 원년(1621)에 四川 永寧宣撫使 奢崇明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당시 按察使에 재임하고 있던 그는 布政使 朱燮元 등과 협력하여 응전하였다. 특히 그는 직접 북을 치면서 將士들을 격려하였고, 또 비밀리에 石砮의 여성 土司 秦良玉을 불러 구원토록 하여 成都의 포위를 풀게 했으며, 이어 樊籠을 사로잡아 죽였다. 후에 朱燮元이 巡撫로, 그는 布政使로 각각 승진했는데, 얼마 후 다시 그는 太僕寺卿으로 승진하여 馬政을 勸核하고 여러 폐단을 혁파하였다. 이어 南京兵部左侍郎으로 승진했지만 곧 부모의 연로함을 이유로 상소하여 귀향을 청했다. 天啓 5년(1625) 魏忠賢의 閹黨이 東林黨人을 죽이고 천하의 書院을 철폐하였는데, 일찍이 그가 東林書院의 碑記를 撰述한 것이 드러나 官職이 박탈되었다. 崇禎 원년(1628)에 본래의 관직으로 復職되었지만 곧 致仕하였는데, 致仕한 뒤에 소박한 의복만을 착용했는데, 어떤 상인이 그를 평민으로 간주해서 무례하게 대했지만 이에 대해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고 한다. 南明 隆武 원년(1645)에 그는 兵部尙書로 기용되었지만 당시 나이가 90에 가까운 노령이어서 부임할 수 없었다. 順治 연간에 사망했는데 향년 94세였다.

307) 『熹宗實錄』 卷14 天啓 원년 9월 乙卯條 참조.

308) 秦良玉(1574~1648): 石砮의 여성 土司로 明末에 탁월한 戰功을 올린 軍事家이며, 抗清名將이다. 字는 貞素로 四川 忠州(지금의 重慶 忠縣)에서 태어났는데, 苗族 출신으로서 강인한 崇武의 기질을 갖추었으며, 후에 石砮國으로 시집을 갔다. 秦良玉은 40여 년 동안 戰場을 누볐는데, 그녀의 족적은 長城 내외, 長江 남북, 雲貴 고원, 四川 분지 등에 미쳤다. 秦良玉은 중국 역사상 유일하게 단독으로 烈女傳이 아니라 正史의 將相列傳에 立傳된 여성이며, 유일하게 戰功으로 侯로 봉해진 女將軍이다. 그녀는 ‘白杆兵’을 거느리고 播州의 반란 진압, 遼東 구원, 奢氏 반란 진압, 勤王, 抗清, 張獻忠 토벌 등의 전투에 참전하였다. 누적된 전공으로 大明 柱國光祿大夫, 太子太保, 太子太傅, 少保, 四川招討使, 中軍都督府 左都督, 鎮東將軍, 四川總兵官, 忠貞侯, 一品誥命夫人 등의 官銜을 받았다. 死後에는 南明 조정에서 忠貞이라는 諡號를 받았다.

(民屏)·조카 익명(翼明) 등을 보내어 병사 4,000명을 내어 여정을 배로 늘려 행군하여 몰래 중경을 건너 남평관(南坪關)<sup>309</sup>에 영(營)을 설치하였다. 진량옥은 정예병 6,000명을 거느리고 장강(長江)을 따라 성도로 거슬러 올라갔다. 여러 구원병도 또한 점차 모여들었다. 당시 사인이 성을 급하게 공격하였는데, 몰래 유훈(劉勳) 등을 받아들여 내응(內應)토록 하였으나 사정이 발각되어 주살(誅殺)을 당했다. 다시 운계(雲梯)<sup>310</sup> 및 한선(旱船)<sup>311</sup>을 만들어 밤낮으로 성에 접근하니, 성중에서도 또한 포석(砲石)으로 이를 공격하여 부수었다. 서로 대치한 지 100일이 되었는데, 마침 적장(賊將) 나건상(羅乾象)이 사람을 보내어 귀순하겠다고 통보하고 구적을 죽여 스스로 공을 세우기를 원하였다. 이날 밤 나건상이 불을 놓아 영을 불태우니 적병이 혼란에 빠져 사승명 부자는 황급히 도망쳤는데, 돈과 비단 및 미곡을 버린 것이 산처럼 쌓여서 곤궁한 백성들은 이에 힘입어 살 수 있었다. 나건상은 이로 인하여 일당 호여고(胡汝高) 등을 거느리고 와서 투항하였다.<sup>312</sup> 당시 주섭원(朱燮元)은 이미 순무로 제수되어 사천의 사병을 거느리고 사승명을 추격하니, 강안(江安)·신도(新都)·준의(遵義) 등의 여러 군읍(郡邑)<sup>313</sup>이 모두 수복되었다. 때는 [천계] 2년(1622) 3월이었다. 반룡은 잔여 사병 수만 명을 거두어 중경의 험준한 요새를 점거하였다. 주섭원이 진량옥 등을 거느리고 이랑관(二郎關)을 빼앗고 총병 두문환(杜文煥)<sup>314</sup>이 불도관(佛圖關)<sup>315</sup>을 격파하니, 여러 장령들은 중경에 접

309) 南坪關: 지금의 重慶 南坪에 위치한다. 南坪이란 명칭은 宋代에 기원하는데, 당시에는 南城坪이라 불렀다. 元軍에 저항하기 위하여 宋朝의 장군 張瑄이 南岸에 성을 쌓아서 南平關을 형성하니 佛圖關과 犄角之勢를 이루었다. 明代 말년에 南坪關이라 불렀다. 天啓 원년(1621) 播州의 土司 奢崇明이 반란을 일으켜 重慶을 점령하고 合州를 공격하자 秦良玉이 南坪關에 주둔하여 귀로를 막았다. 이 조치가 사실상 반란의 종식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였다.

310) 雲梯: 전쟁용 무기로서 성벽을 오르는 用具로 사용하였다. 어떤 雲梯는 그 밑에 바퀴를 달아서 움직일 수 있었으므로, 이를 일러 雲梯車라고 하였다. 雲梯의 발명자는 일반적으로 춘추시대 魯國의 公輸般, 즉 魯班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楚惠王이 公輸般에게 명하여 최초의 雲梯를 만들도록 했던 것이다.

311) 旱船: 나무로 地上에 만든 배 모양의 架子를 가리킨다.

312) 『熹宗實錄』 卷18 天啓 2년 정월 乙丑條 참조.

313) 郡邑: 府縣에 대한 雅稱이다.

314) 杜文煥: 生卒年 미상. 字는 張武이다. 蔭敍로 延綏 游擊將軍을 거쳐 參將, 副總兵 등을 역임하였다. 萬曆 43년(1615)에 都督僉事, 寧夏總兵官으로 발탁되어, 적의 침공에서 延綏를 구원하였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군사작전의 성공으로 延綏를 안정시켰지만, 병이 들어 귀환했다. 天啓 원년(1621)에 다시 延綏로 파견되었는데, 얼마 후 요동을 구원하는 데에 동원되었다. 그는 오르도스를 나와 적의 소굴을 교란시켰지만, 各部의 공분을 사서 오히려 명 조정에 큰 부담을 안겨 解職되었다. 이후 奢崇明이 成都

근하여 군대를 주둔시켰다. 사인(奢寅)이 적당(賊黨) 주정(周鼎) 등을 보내 길을 나누어 구원하러 왔고, 주정이 패하여 돌아났지만 합강(合江)의 백성들에게 결박되었다. 관군이 평차(平茶)·유양(酉陽)·석주(石砮) 등 세 토사와 연합하여 중경을 포위하니, 성 안에 식량이 떨어졌다. 주섭원은 드디어 계략으로 번룡을 생포하여 그를 죽였고, 장동(張彤) 또한 반란군에게 살해당했으며, 번룡의 아들 번우방(樊友邦) 및 그 일당 장국용(張國用)·석영고(石永高) 등 30여 명을 생포해서, 마침내 중경을 수복하였다.

時安邦彥反於貴州，崇明遙倚爲聲援。三年，川師復遵義，進攻永寧，遇奢寅於土地坎，率兵搏戰。大兵奮擊，敗之。寅被創遁，樊虎亦戰死。進克其城，降賊二萬。得進拔紅崖·天台諸固寨，降者日至。崇明勢益蹙，求救於水西，邦彥遣十六營過河援之。羅乾象急破蘭州，焚九鳳樓，覆其巢。崇明踉蹌走，投水西。邦彥與合兵，分犯遵義·永寧。川師敗之於芝麻塘，賊遁入青山。諸將逼渭河，鑿入龍場陣，獲崇明妻安氏及奢崇輝等，斬獲萬計。蘭州平。總督朱燮元請以赤水河爲界，河東龍場屬黔，河西赤水·永寧屬蜀。永寧設道·府，與遵義·建武聲勢聯絡。

당시 안방언(安邦彥)<sup>316)</sup>이 귀주에서 반기를 드니, 사순명이 멀리서 그에 의지하여 성원(聲

를 포위하자 그는 다시 기용되었는데, 그가 현지에 이르렀을 때는 포위가 이미 풀려 다시 重慶으로 진군하였다. 奢崇明이 永寧으로 달아나자 더 이상 쫓지 않았다. 얼마 후 總理로 발탁되어 四川, 貴州, 湖廣의 軍務를 총괄하게 되었으나, 寇賊의 제어가 쉽지 않다는 판단 하에 병을 핑계로 사직하였다. 이후 延綏에서의 패전 책임으로 변방에 수자리로 보내졌다. 天啓 7년(1627)에는 寧夏로 옮겨 주둔했다. 寧遠과 錦州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조정은 杜文煥에게 급히 달려가 구원토록 하였다. 右都督으로 승진하여 關門을 지켰지만, 얼마 후 병이 들어 사직하였다. 이후 崇禎 원년(1628) 重慶에서의 전공으로 指揮僉事가 되었으나 崇禎 4년(1631)에 延川의 難民을 살해하여 戰功을 사청했다는 죄목으로 탄핵을 받아 下獄되었다. 崇禎 15년(1642)에 이르러 總督 楊文岳의 추천으로 옛 관직을 받아 전투에 나섰지만, 아무런 공도 세우지 못하자 다시 병을 핑계로 낙향하였다.

315) 佛圖關: 重慶의 옛 성곽의 서쪽에 위치하는 關門으로서, 自古로 “四塞之險, 甲於天下”라고 일컬어져 온다. 양측이 급경사로 되어 있어 兵家必爭의 千古要塞로 유명하다.

316) 安邦彥(?~1629): 貴州 織金那威(지금의 織金官寨) 사람으로 明末의 저명한 彝族起義의 將領이다. 天啓 2년(1622)에 四川 永寧宣撫使 奢崇明的 반란에 호응하여 스스로 ‘羅甸大王’이라 칭하며 彝族의 反明 반란을 일으켰다. 10만 명의 叛軍을 거느리고 黔中의 首府 貴陽으로 進攻하였다. 貴陽은 10개월 동안

援)이 되었다. [천계] 3년(1623)에, 사천 군대가 준의를 수복하고 영녕으로 진격하여 공격했는데, 토지감(土地坎)에서 사인(奢寅)을 만나 병사를 이끌고 필사적으로 싸웠다. 대군이 분격(奮擊)하여 패퇴시켰다. 사인은 부상을 당하여 달아났고, 번호(樊虎) 또한 전사하였다. 진공하여 그 성을 점령하고 구적 2만 명을 항복시켰다. 다시 진공하여 홍애(紅崖)·천대(天台) 등 여러 양식을 쌓아둔 산채를 점령하니, 항복하는 자가 날마다 이르렀다. 사숭명의 형세는 더욱 움츠러들어 수서(水西)에 구원을 요청하니, 안방언이 16개의 영(營)을 보내 강을 건너 구원하였다. 나건상이 급히 난주(蘭州)를 격파하고 구봉루(九鳳樓)를 불태워 구적의 소굴을 뒤집어버렸다. 사숭명은 황급히 도주하여 수서로 투신하였다. 안방언은 그와 함께 병사를 합쳐 준의와 영녕을 나누어 침범하였다. 사천의 군대가 지마당(芝麻塘)에서 그들을 패퇴시키니 구적은 달아나 청산(靑山)으로 들어갔다. 여러 장령들이 위하(渭河)로 접근하여 분전하여 용장(龍場)의 전진(戰陣)으로 들어가 사숭명의 처 안씨(安氏) 및 사숭휘(奢崇輝) 등을 사로잡았는데, 죽이고 포획한 자가 만(萬)을 헤아렸다. 난주(蘭州)가 평정되었다. 총독 주섭원은 적수하(赤水河)<sup>317)</sup>를 경계로 삼아 하동(河東)의 용장을 검에 예속시키고 하서(河西)의 적수(赤水)와 영녕(永寧)을 축에 예속시킬 것을 청하였다. 영녕에는 도(道)와 부(府)를 설치하여 준의·건무(建武)와 [서로] 성원하여 연락토록 하였다.

未幾，貴州巡撫王三善爲邦彥所襲死，崇明勢復張，將以逾春大舉寇永寧。會奢寅爲其下所殺，而變元亦以父喪去，崇明·邦彥得稽誅。崇明稱大梁王，邦彥號四裔大長老，諸稱元帥者不可勝計，合兵十餘萬，規先犯赤水。崇禎初，起變元總督貴·湖·雲·川·廣諸軍務，大會師。變元定計誘賊深入向永寧，邀之於五峰山桃紅壩，令總兵侯良柱大敗之，崇明·邦彥皆授首。是役也，掃蕩蜀·黔數十年巨慙，前後皆變元功云。

마치 孤島와 같이 밖으로는 援軍도 없고, 안으로는 식량이 부족하여 성내의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는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崇禎 2년(1629) 兵部尙書 朱變元이 겨우 반란을 진압하였는데, 그는 그해 8월에 水西에서 斬殺되었다.

317) 赤水河: 長江 상류의 지류로서 고대에는 安樂水라고 칭했다. 雲南, 貴州, 四川 세 省의 접경지역을 흐른다. 雲南省 鎮雄縣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흘러 四川, 貴州, 雲南 세 省의 交界지역의 梯子巖을 지난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귀주 순무 왕삼선(王三善)<sup>318)</sup>이 안방언에게 습격을 받고 죽으니, 사승명의 세력이 다시 신장되어 장차 봄이 지나 크게 거병하여 영녕을 침범하려 하였다. 마침 사인(奢寅)이 그 부하에게 살해되고 주섭원도 부친상을 이유로 떠나니, 사승명과 안방언에 대한 주벌이 연기될 수 있었다. 사승명은 대량왕(大梁王)이라 칭하고 안방언은 사예대장로(四裔大長老)라고 부르니, 원수(元帥)를 칭하는 자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었고, 병사 10여만 명을 모아 먼저 적수(赤水)를 침범할 것을 꾀하였다. 승정(崇禎) 초년에, 주섭원을 기용하여 귀주·호광·운남·사천·광서 각 지역의 군무(軍務)를 총괄 감독케 하고, 대규모로 군대를 모았다. 주섭원은 계책을 정하여 구적을 유인하여 영녕을 향해 깊이 들어오도록 하고, 오봉산(五峰山)<sup>319)</sup> 도강패(桃紅壩)에서 그들을 맞이하여 총병 후량주(侯良柱)<sup>320)</sup>로 하여금 크게 그들을

318) 王三善(1565~1623): 字는 尤名으로 河南 永城 사람이다. 萬曆 29년(1601)에 進士로 급제하여 荊州 推官으로 제수되었는데, 공정하고 청렴하였으며 판결이 공평하였다. 후에 吏部文選으로 임용되었는데, 인사 조치에 權貴에게 아부하지 않았다. 泰昌 元年(1620) 가을에 太常少卿으로 승진하였고, 天啓 원년(1621) 10월에는 右僉都御史로 승진하였다. 당시 貴州의 소수민족 酋長 安邦彥과 奢崇明이 거병하여 明朝의 통치를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는 巡撫로서 병사를 거느리고 현지에 가서 진압하였다. 그러나 이후 그는 敵을 경시하여 天啓 3년(1623)에 적의 유인작전에 말려들어가 대패를 당했다. 安邦彥과 奢崇明이 다시 군대를 동원하여 貴陽을 공격하였는데, 王三善은 부하를 보내어 토벌하였으며, 그 공으로 兵部侍郎이 되었다. 이때 그는 조정에 반항하는 소수민족은 이미 다 평정되었다고 생각하고는 土司를 두어 다스리려 하였는데, 조정 내에서 郡縣으로 바꾸려는 의논이 일어나 일부 소수민족과 土司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음으로 이들 토사들은 점차 安邦彥에게 기울게 되었다. 天啓 4년(1624) 정월 王三善이 동으로 철군하자 叛軍의 공격을 받아 中軍參將과 副總兵 등이 전사하였다. 明軍은 싸우면서 후퇴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거짓으로 明軍에 투항했던 陳其愚는 王三善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아 항상 兵事에 대하여 논의함으로써 陳其愚는 자연히 明軍의 虛實에 대하여 모르는 바가 없었다. 陳其愚의 계략에 걸려든 王三善은 결국 말에서 떨어져 자살을 기도했으나 미수에 그쳐 생포된 후 살해되었다. 당시 나이 60세였다. 死後에 그는 조정에서 太子太保, 兵部尙書로 追贈되었고, 忠烈이란 諡號를 받았다.

319) 五峰山: 南嶺의 主山으로서 雲南에 위치한다.

320) 侯良柱: 生卒年 미상. 字는 朝石으로 永寧衛 사람이다. 天啓 초에 四川副總兵까지 올랐다. 奢崇明父子의 반란을 평정하여 遵義城을 수복하였다. 天啓 6년(1626) 5월에는 李維新을 대신해서 四川總兵官이 되어 永寧에 주둔하였다. 당시 奢崇明이 패하여 水西로 달아나 安邦彥과 연합하였는데, 貴州의 관군이 여러 번 토벌에 나섰지만 성공하지 못하였다. 崇禎 2년(1629) 總督 朱燮元이 貴州總兵 許成名을 파견하여 赤水衛를 수복하도록 하자, 奢崇明과 安邦彥이 10여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대치하였다. 이때 그는 叛軍의 대비가 부족한 틈을 이용하여 공세를 취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반란 진압 이후 논공행상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아 그는 朱燮元에 대하여 원한을 품게 되었다. 이후 崇禎 7년(1634)

패되시키니, 사승명과 안방언은 모두 피살되었다. 이 전역(戰役)으로 촉과 겐의 수십 년의 대란이 소탕되었는데, 앞뒤로 모두 주섭원의 공로였다고 한다.

## 酉陽宣撫司

### 유양선무사

酉陽，漢武陵郡酉陽縣地，宋爲酉陽州。元屬懷德府。

유양(酉陽)<sup>321)</sup>은 한(漢)나라 때 무릉군(武陵郡) 유양현(酉陽縣)이고, 송(宋)나라 때에는 유양주(酉陽州)였다. 원(元)나라 때에는 회덕부(懷德府)에 예속되었다.

洪武五年，酉陽軍民宣慰司冉如彪遣弟如喜來朝貢。置酉陽州，以如彪爲知州。八年改爲宣撫司，仍以冉如彪爲使。置平茶·邑梅·麻免·石耶四洞長官司，以楊底綱·楊金奉·冉德原·楊隆爲之，每三年一入貢。石耶不能親至京，命附於酉陽。二十七年，平

8월에 그는 비로소 左都督이 되었고, 대대로 錦衣指揮僉事를 세습토록 하였다. 얼마 후에는 다시 四川總兵官이 되었다.

321) 酉陽: 지금의 土家族苗族自治縣으로서 重慶 동남부의 武陵山區에 위치한다. 重慶, 湖北, 湖南, 貴州 4개 省市의 접경지역에 해당되는데, 重慶의 동남방향의 중요 門戶이다. 酉陽縣은 『禹貢』에서 梁州에 속한다. 商·周 시대에는 蠻夷의 땅이었고, 춘추전국시대에는 楚國 소속이었다. 秦代에는 黔中郡에 예속되었는데, 西漢 高祖 5년(전202)에 武陵郡으로 바꾸어 경내에 酉陽縣을 두었다. 王莽은 이를 建平郡으로 바꾸었지만 東漢이 다시 武陵郡으로 복귀시켰다. 獻帝 建安 19년(214)에 劉備와 孫權이 연합하여 荊州를 나누어 다스릴 때 縣의 경계는 여전히 武陵郡에 속했다. 이후 역대로 약간의 변동이 반복되었는데, 宋代 紹興 원년(1131)에 思州의 일부를 나누고 酉陽寨를 합하여 酉陽羈縻州를 두었다. 元代에는 계속 酉陽州를 두고 冉氏 자손이 세습토록 했으며, 四川南道宣慰司懷德府에 예속시켰다. 延祐 원년(1314)에는 酉陽州를 酉陽軍民宣慰司로 바꾸었다. 元末 明玉珍이 四川에서 할거정권을 세웠는데, 유양군민선위사를 酉陽沿邊溪洞軍民宣慰司로 바꾸었다. 明 洪武 5년(1372) 4월에 酉陽州를 다시 설치함과 아울러 酉陽宣慰司都元帥府를 두었고, 洪武 8년(1375)에는 四川布政使司에 예속시켰으며, 天啓 원년(1621)에 酉陽宣撫使를 宣慰司로 승격시켰다.

茶洞署長官楊再勝，謀殺兄子正賢及洞長楊通保等。正賢等覺之，逃至京師，訴其事，且言再勝與景川侯謀反。帝命逮再勝鞫之，再勝辭服，當族誅，正賢亦應緣坐。帝誅再勝，釋正賢，使襲長官。酉陽宣撫冉興邦以襲職來朝，命改隸渝州。

홍무 5년(1372)에 유양군민선위사(酉陽軍民宣慰司) 염여표(冉如彪)가 아우 염여희(冉如喜)를 파견하여 내조하여 공물을 바쳤다. 유양주를 설치하여 염여표를 지주(知州)로 삼았다.<sup>322)</sup> [홍무] 8년(1375)에 선무사(宣撫司)로 바꾸었는데, 예전대로 염여표를 선무사(宣撫使)로 삼았다. 평차(平茶)·읍매(邑梅)·마면(麻免)·석야(石耶) 등 네 개의 동(洞) 장관사(長官司)를 설치하여 양저강(楊底綱)·양금봉(楊金奉)·염덕원(冉德原)·양릉(楊隆)을 장관으로 삼고,<sup>323)</sup> 3년마다 한 번씩 입조하여 공물을 바치도록 하였다. 석야가 친히 스스로 경사에 이를 수 없자 유양에 부속시키도록 명하였다. [홍무] 27년(1394)에 평차동(平茶洞) 서리 장관(長官)인 양재승(楊再勝)이 형의 아들 양정현(楊正賢) 및 동장(洞長) 양통보(楊通保) 등을 죽이려 꾀하였다. 양정현 등이 이를 감지하고 도망쳐 경사에 이르러 그 일을 호소하고, 또한 양재승이 경천후(景川侯)와 함께 모반(謀反)하였다고 말하였다. 홍무제가 양재승을 체포하여 국문(鞫問)하도록 명하니, 양재승이 죄를 인정하였는데 족주(族誅)<sup>324)</sup>에 해당하는지라 양정현 또한 응당 연좌(緣坐)되어야 했다. [그런데] 홍무제는 양재승을 죽이고, 양정현은 석방시켜 장관직을 승계토록 하였다.<sup>325)</sup> 유양 선무사 염홍방(冉興邦)이 관직을 승계하는 일로 내조하니, [유양을] 투주(渝州)<sup>326)</sup>에 바꾸어 예속시키도록 명하였다.

永樂三年，指揮丁能·杜福撫諭亞堅等十一寨生苗一百三十六戶，各遣子入朝，命隸酉陽宣撫司。四年免酉陽荒田租。五年，興邦遣部長龔俊等貢方物，并謝立儒學恩。

322) 『太祖實錄』 卷73 洪武 5년 3월 庚子條 참조.

323) 『太祖實錄』 卷96 洪武 8년 정월 丙子條 참조.

324) 族誅: 사형의 일종으로 誅三族, 誅九族, 誅十族 등의 종류가 있다.

325) 『太祖實錄』 卷233 洪武 27년 5월 丙寅條 참조.

326) 渝州: 隋初에 楚州를 渝州로 바꾸었다. 治所는 巴縣으로 지금의 重慶이다. 후에는 渝가 重慶의 略稱이 되었다.

영락 3년(1405)에, 지휘 정능(丁能)·두복(杜福)이 아견(亞堅) 등 11개 채의 귀순하지 않은 묘족 136호(戶)를 위무하여 효유하였는데 각기 아들을 보내어 입조시키니, [영락제는] 유양 선무사에 예속시키도록 명하였다.<sup>327)</sup> [영락] 4년(1406)에 유양의 황전(荒田)에 대한 토지세를 면제해주었다. [영락] 5년(1407)에, 엄홍방이 부족 장관 공준(龔俊) 등을 보내 방물을 바치고, 아울러 유학(儒學)을 설립해준 은혜에 감사하였다.

景泰七年調宣撫僉事冉廷璋兵，征五開·銅鼓叛苗，賜敕諭賞齎。天順十三年命進宣撫冉雲散官一階，以助討叛苗及擒石全州之功也。

경태 7년(1456)에 선무첨사(宣撫僉事) 엄정장(冉廷璋)의 군대를 징발하여 오개(五開)·동고(銅鼓)의 반란을 일으킨 묘족을 정벌토록 하고, 칙서를 내려 효유하고 상을 하사하였다.<sup>328)</sup> 천순(天順) 13년<sup>329)</sup>에 선무 염운(冉雲)에게 관계(官階) 한 등급을 올려주도록 명하였는데, 반란을 일으킨 묘족을 토벌하고 석전주(石全州)를 생포하는 데 도와준 공로 때문이었다.<sup>330)</sup>

弘治七年，宣撫冉舜臣以征貴州叛苗功，乞陞職。兵部以非例，請進舜臣階明威將軍，賜敕褒之。十二年，舜臣秦宋農寨蠻賊糾脅諸寨洞蠻，殺掠焚劫，乞剿捕。保靖·永順二宣慰亦奏，邑梅副長官楊勝剛父子謀據酉陽，結後倍洞長楊廣震等，號召宋農·後溪諸蠻，聚兵殺掠，請并討。兵部議，酉陽溪洞連絡，易煽動，宜卽撲滅，請行鎮巡官酌機宜。十四年調酉陽兵五千協剿貴州賊婦米魯。

홍치 7년(1494)에, 선무 염순신(冉舜臣)이 귀주의 반란을 일으킨 묘족을 토벌한 공로를

327) 『太宗實錄』 卷46 永樂 3년 9월 癸卯條 참조.

328) 『英宗實錄』 卷85 景泰 7년 6월 癸丑條 참조.

329) 본문의 天順 13년은 成化 13년(1477)의 誤記이다. 우선 天順 13년이란 것 자체가 語不成說이다. 天順은 8년까지만 존속하기 때문이다. 또한 實錄의 기사를 확인하면, 이 내용은 成化 13년의 기사이다. 이에 대해서는 『憲宗實錄』 卷162 成化 13년 2월 乙未條 참조.

330) 『憲宗實錄』 卷162 成化 13년 2월 乙未條 참조.

근거로 승직(陞職)을 청하였다. 병부에서는 전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염순신의 관계(官階)를 명위장군(明威將軍)<sup>331)</sup>으로 올려줄 것을 청하자, [홍치제는] 칙서를 내려 포상해주었다.<sup>332)</sup> [홍치] 12년(1499)에 염순신이 상주하기를, 송농채(宋農寨)의 만적(蠻賊)이 [세(勢)를] 규합하여 여러 채동(寨洞)의 만족을 위협하고 죽이고 약탈하고 불을 질렀으니, 토벌하여 체포해줄 것을 청한다고 하였다.<sup>333)</sup> 보정(保靖)·영순(永順)의 두 선위도 또한 상주하기를, 읍매(邑梅)의 부장관(副長官) 양승강(楊勝剛) 부자가 유양 짐거를 꺾하여 준배(俊倍) 동장(洞長) 양광진(楊廣震) 등과 연결하고, 송농(宋農)·후계(後溪) 등의 여러 만족에게 호소(號召)하여 군대를 모아 살육하고 약탈하니, 함께 토벌해줄 것을 청한다고 하였다. 병부에서 논의하여, 유양의 계동(溪洞)은 연결해 있어 선동되기 쉬우니 마땅히 즉각 박멸하고, 진순관(鎭巡官)에게 공문을 보내어 기의(機宜)를 참작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청한다고 하였다.<sup>334)</sup> [홍치] 14년(1501)에, 유양의 군대 5,000명을 징발하여 귀주의 여적(女賊) 미노(米魯)를 토벌하는 데 돕도록 하였다.

正德三年，酉陽宣撫司護印舍人冉廷璽及邑梅長官司奏，湖廣鎮溪所洞苗聚衆攻劫，請兵剿捕。八年，宣撫冉元獻大木二十，乞免男維翰襲職赴京，從之。二十年，元再獻大木二十，詔量加服色酬賞。

정덕(正德) 3년(1508)<sup>335)</sup>에 유양 선무사의 호인사인(護印舍人) 염정새(冉廷璽) 및 읍매(邑梅) 장관사에서 상주하기를, 호광 진계소동(鎭溪所洞)의 묘족이 무리를 모아 공격하여 약탈하니, 군대를 동원하여 토벌하여 체포할 것을 청한다고 하였다.<sup>336)</sup> [정덕] 8년(1513)에, 선무 염원(冉元)이 대목(大木) 20그루를 헌상하며 아들 염유한(冉維翰)이 관직을 승계하기 위하여 경사에 가는 것을 면해줄 것을 청하니, 이를 허락하였다.<sup>337)</sup> [가정] 20년(1541)<sup>338)</sup>에

331) 明威將軍: 武散官階의 칭호로서 明代에는 30개의 官階 가운데 제19번째로서 正四品官부터 시작한다.

332) 『孝宗實錄』 卷94 弘治 7년 11월 癸卯條 참조.

333) 『孝宗實錄』 卷150 弘治 12년 5월 丙戌條 참조.

334) 『孝宗實錄』 卷152 弘治 12년 7월 丁亥條 참조.

335) 본문의 正德 3년은 4년의 誤記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武宗實錄』 卷51 正德 4년 6월 戊子條 참조.

336) 『武宗實錄』 卷51 正德 4년 6월 戊子條 참조.

염원이 다시 대목 20그루를 헌상하니, 조서를 내려 사정을 참작하여 복식(服飾)을 더하고 상응하는 상을 내리도록 하였다.

萬曆十七年，宣撫冉維屏獻大木二十，價逾三千。工部議，應加從三品服，以爲土官輸誠之勸，從之。四十六年調西陽兵四千，命宣撫冉躍龍將之援遼。四十七年，躍龍遣子天胤及文光等領兵赴遼陽，駐虎皮·黃山等處三載，解奉集之圍。再援瀋陽，以渾河失利，冉見龍戰沒，死者千餘人。撤守遼陽，又以降敵縱火，冉文煥等戰沒，死者七百餘人。兵部尚書張鶴鳴言：「躍龍遣子弟萬里勤王，見龍旣殺身殉國，躍龍又自捐金二千兩，運軍器至山海關，振困招魂，忠義可嘉。臣在貴州時，躍龍亦自捐餉征紅苗，屢建奇功。今又著節於邊，宜加優恤，以風諸邊。」

만력 17년(1589)에 선무 염유병(冉維屏)이 대목 20그루를 헌상했는데, 그 가치가 [은] 3천 [량]을 넘었다. 공부(工部)에서 논의하여, 응당 중3품의 복식을 더하여 토관이 성의를 드러냄을 권면하자고 하니, 이를 받아들였다.<sup>339)</sup> [만력] 46년(1618)에, 유양의 군대 4,000명을 징발하여 선무 염약룡(冉躍龍)에게 그들을 거느리고 가서 요(遼)를 구원하도록 명하였다. [만력] 47년(1619)에, 염약룡이 아들 염천윤(冉天胤) 및 염문광(冉文光) 등을 보내 군대를 거느려 요양(遼陽)<sup>340)</sup>으로 가게 하니, 호피(虎皮)·황산(黃山) 등지에 주둔한 지 3년 만에 봉집(奉

337) 『世宗實錄』 卷215 嘉靖 17년 8월 庚申條에는, “四川西陽宣撫冉玄獻大木二十根准男維翰襲替, 免其赴京, 許之”라고 기재되어 있다. 본문의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 반면에 正德 8년 조에는 해당 내용을 찾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문은 嘉靖 17년(1538)의 기사일 가능성이 크다.

338) 본문에는 ‘二十年’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年號가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칫 이 단락의 처음에 나오는 正德 연간이 지속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실은 嘉靖 20년(1541)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世宗實錄』 卷254 嘉靖 20년 10월 壬午條를 보면, “四川西陽宣撫司宣撫冉玄獻合式大木二十根, 詔量加服色酬賞”이라 기재되어 있다. 사실 世宗 嘉靖帝 직전 황제인 武宗의 正德 연간은 16년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正德 20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339) 『神宗實錄』 卷218 萬曆 17년 12월 己亥條 참조.

340) 遼陽: 襄平, 遼東城 등의 古稱으로도 불리는 遼陽은 遼寧省 중부에 위치하는데, 중국 동북지구의 가장 오래된 도시로서 2,400여 년의 역사를 갖는 문화 古城이다.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후 17세기에 이르기까지 중국 동북지구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자 교통과 군사의 요지였다. 遼陽이란 명칭은 漢代에 기원하는데, 도시의 위치가 小遼河 북쪽에 들어졌기 때문에 遼陽이라 불리게 되었다. 한편 明初에

集)의 포위를 풀었다. [그들은] 다시 심양(瀋陽)<sup>341)</sup>을 구원하였는데, 혼하(渾河)<sup>342)</sup>에서의 패전으로 인하여 염견룡(冉見龍)이 전사하고, 죽은 자가 1,000여 명이었다. 요양으로 철수하였는데, 다시 투항한 적군이 불을 질렀기 때문에 염문환(冉文煥) 등이 전사하고, 죽은 자가 700여 명이었다. 병부상서 장학명(張鶴鳴)이 아뢰기를, “염약룡이 자제를 보내 만 리 밖에서 왕조를 위하여 힘을 다하도록 했고, 염견룡은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희생했으며, 염약룡은 또한 스스로 2,000량의 은전을 내어 무기를 운송해서 산해관(山海關)<sup>343)</sup>에 이르러 곤궁한 자들을 구제하고 망혼(亡魂)을 불러내었으니 충의(忠義)가 가상합니다. 신이 귀주에 있을 때, 염약룡은 또한 스스로 군량을 제공하여 홍묘(紅苗)를 토벌하여 누차 기공(奇功)을 세웠습니다. 지금 다시 변강에서 절의(節義)를 드러내었으니, 마땅히 우대와 무휼(撫恤)을 더해줌으로써 각 변경 사람들을 감화시키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sup>344)</sup>

天啓元年授躍龍宣慰使，并妻舒氏，皆給誥命，仍恤陣亡千七百餘家。二年，奢崇明叛，躍龍率援師合圍重慶。及崇明誅，其土舍冉紹文與有功。四年，躍龍以東西赴調效命，爲弟見龍及諸陣亡者請齋恤。命下所司。

遼東都指揮使司가 이곳에 두어져 동북지구의 軍政을 맡게 되었다.

341) 瀋陽: 盛京이란 古稱으로 불리는 瀋陽은 遼寧省의 省都이자 현재 중국 동북지구의 최대 도시이다. 瀋河(지금의 渾河) 북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瀋陽이란 이름을 얻었다. 춘추전국시대의 燕國에서 方城을 쌓은 뒤로부터 2,600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明代에는 이곳에 瀋陽衛가 설치되었다. 한편 1625년 淸太祖 누르하치가 세운 後金이 이곳으로 遷都한 뒤에 盛京으로 이름을 바꿨다. 1644년 淸軍의 入關 이후 北京에 定都하면서 盛京은 陪都가 되었다.

342) 渾河: 遼河의 지류로서 옛날에는 遼水 혹은 小遼河라고 불렀다. 遼寧省 동부의 河流인데 淸原縣 滾馬嶺에서 발원하여 撫順, 瀋陽 등을 거쳐 海城 古城子 부근에서 太子河로 들어가 남으로 흘러 營口市 부근에서 遼東灣으로 들어간다. 전체 길이는 415km이다.

343) 山海關: 榆關 혹은 渝關 또는 臨閭關이라고도 한다. 대개 明 長城의 東端 起點으로서 특히 ‘天下第一關’이라 일컬어진다. 長城의 가장 서쪽에 위치하는 嘉峪關과 호응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1961년에 山海關은 中華人民共和國 國務院에서 ‘第一批全國重點文物保護單位之一’로 공포하였다. 山海關은 明 洪武 14년(1381) 徐達이 건설하였는데, 북으로 燕山에 달하고 남으로 渤海에 이어지기 때문에 山海關이란 이름을 얻게 되었다. 山海關은 明代에 永平府 소속이었는데, 境內에 盧龍縣, 撫寧縣, 昌黎縣, 永平衛, 山海衛 등이 있다.

344) 『熹宗實錄』 卷12 天啓 원년 7월 庚戌條 참조.

천계 원년(1621)에 염약룡에게 선위사를 제수하고 처 서씨(舒氏)와 함께 모두 고명(誥命)을 주고, 예전대로 전사한 1,700여 가(家)를 무휼(撫恤)하였다.<sup>345)</sup> [천계] 2년(1622)에, 사승명이 반란을 일으키자 염약룡이 구원의 군대를 거느려 회합하여 중경을 포위하였다. 사승명이 사형을 당함에 이르러 그 토사(土舍) 염소문(冉紹文)도 유공자에 끼었다. [천계] 4년(1624)에 염약룡이 동방과 서방으로 달려가 군대를 징발하여 온 힘을 기울여 충성을 다했다는 이유로, 아우 염견룡 및 여러 전사자들을 위하여 상과 무휼을 청하였다. [천계제는] 담당 관부에 [이 일을] 내려 처리하도록 하였다.<sup>346)</sup>

崇禎九年，宣慰使冉天麟疏言：「庶孽天胤假旨謀奪臣爵土，不遂，擅兵戕殺。」下撫按察勘。時蜀方憂盜，大吏自顧不暇，土官事多寢閣云。

승정(崇禎) 9년(1636)에 선위사 염천린(冉天麟)이 상소(上疏)하여 아뢰기를, “서자(庶子) 염천윤(冉天胤)이 어지(御旨)를 날조하여 신의 작위와 봉지를 빼앗으려 모의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자 멋대로 병권을 장악하여 살육을 자행하고 있습니다”라 하였다. [승정제는] 무안(撫按)에게 내려 현지조사를 하도록 하였다. 당시 축에서는 바야흐로 도적의 반란이 걱정거리여서, 대리(大吏)들은 스스로를 돌보느라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토관의 일도 대부분 방치되었다고 한다.

## 石砦宣撫司

### 석주선무사

石砦，以石潼關·砦蒲關而名。後周置施州。唐改青江郡。宋末，置石砦安撫司。元改石砦軍民府，尋仍爲安撫司。

345) 『熹宗實錄』 卷12 天啓 원년 7월 庚戌條 참조.

346) 『熹宗實錄』 卷42 天啓 4년 5월 辛酉條 참조.

석주(石砮)<sup>347</sup>는 석동관(石潼關)과 주포관(砮蒲關)에서 [유래하여] 명명된 것이다. 후주(後周) 때에 시주(施州)<sup>348</sup>를 설치하였다. 당(唐)나라는 청강군(靑江郡)으로 바꾸었다. 송말(宋末)에 석주안무사(石砮安撫司)를 설치하였다. 원(元)나라는 석주군민부(石砮軍民府)로 바꾸었다가 얼마 후에 예전대로 안무사(安撫司)로 하였다.

洪武七年，石砮安撫使馬克用遣其子付德與同知陳世顯入朝，貢方物。八年，改石砮安撫司爲宣撫司，隸重慶府。十六年，石砮溪蠻寇施州，黔江守禦官軍擊破之。十八年，石砮宣撫同知陳世顯遣子興潮等奉表貢方物，賀明年正旦。二十四年賜石砮宣撫同知陳興潮及其子文義白金百兩，以從征散毛洞有功故也。

홍무 7년(1374)에, 석주(石砮) 안무사(安撫使) 마극용(馬克用)이 그 아들 마부덕(馬付德)과 동지(同知) 진세현(陳世顯)을 파견하여 입조해서 방물을 바쳤다.<sup>349</sup> [홍무] 8년(1375)에, 석주의 안무사를 선무사(宣撫司)로 바꾸어 중경부(重慶府)에 예속시켰다.<sup>350</sup> [홍무] 16년(1383)에, 석주 계곡의 만족이 시주(施州)를 노략질하니, 검강(黔江)<sup>351</sup>의 수어(守禦) 관군

347) 石砮: 지금의 石砮土家自治縣(石砮縣이라고도 함)이다. 重慶市 동부와 長江 南岸 및 山峽庫區 腹心에 위치하며, 현의 동쪽에 石砮山이 있다. 이 명칭은 石潼關과 砮蒲關의 두 머리글자에서 유래한다. 石砮는 고대 『禹貢』에서 梁州에 속한다. 西周와 춘추시대에는 巴國의 領地였다. 秦代에는 대부분이 巴郡에 속했다. 隋代에는 臨州 武寧縣에 예속되었다. 唐 武德 2년(619)에 武寧縣을 浦州로 바꾸었는데, 同年에 浦州의 武廳縣 西界地를 나누어 南賓縣(지금의 石砮)을 두어 臨州에 예속시켰다. 南宋 建炎 3년(1129)에 石砮按撫使를 두었다. 元初에 南賓縣에 石砮軍民府를 두었다가 얼마 후에 石砮軍民宣撫司로 승격시켰다. 元末에 明玉珍이 蜀에서 夏國을 세우면서 石砮安撫司로 바꾸었다. 明 洪武 8년(1375)에 石砮宣撫司를 두어 重慶衛에 예속시켰다. 14년(1381)에 南賓縣을 없애고 南賓里로 바꾸었다. 이로부터 石砮宣撫司는 하나의 政區가 되었다. 嘉靖 42년(1563)에 夔州衛 소속으로 바꾸었다. 天啓 원년(1621)에 石砮 여성 宣撫使 秦良玉이 勤王에 공을 세웠다는 이유로 石砮宣慰司로 승격시켰다. 한편 淸 順治 16년(1659)에 石砮宣慰司를 川東道 夔州府에 예속시켰다. 乾隆 22년(1757)에 石砮廳을 두어 改土歸流를 실행하면서 여전히 夔州府에 예속시켰다. 26년(1761)에는 四川省 石砮直隸廳으로 승격시켜 四川省에 直隸시켰다. 이후 여러 차례의 행정구획 변경을 거쳐 1997년 重慶市 예속으로 바꾸었다.

348) 施州: 지금의 雲南 永勝縣 일대에 해당한다. 元代 至元 15년(1278)에는 大理國에 속했고, 至元 17년(1280)에 北勝州로 바꾸었다.

349) 『太祖實錄』 卷95 洪武 7년 12월 丁巳條 참조.

350) 『太祖實錄』 卷96 洪武 8년 정월 庚午條 참조.

이 그들을 격파하였다.<sup>352)</sup> [홍무] 18년(1385)에 석주선무 동지 진세현이 아들 진흥조(陳興潮) 등을 파견하여 표문(表文)<sup>353)</sup>을 받들고 와서 방물을 바치며, 다음 해의 정단(正旦)을 축하하였다.<sup>354)</sup> [홍무] 24년(1391)에 석주선무 동지 진흥조 및 그 아들 진문의(陳文義)에게 백금(白金)<sup>355)</sup> 100량을 하사하였는데, 관군을 따라 산모동(散毛洞)을 토벌하는 데 공이 있었기 때문이었다.<sup>356)</sup>

宣德五年命宣撫馬應仁子鎮爲宣撫。初，應仁有罪應死，貸謫戍。至是，帝念其祖克用嘗效力先朝，命求其子孫之良者用之，故有是命。

선덕(宣德) 5년(1430)에 선무 마응인(馬應仁)의 아들 마진(馬鎮)을 선무사로 삼도록 명하였다. 당초에 마응인이 죄를 지어 응당 사형에 해당되었는데, [그를] 용서하여 귀양을 보내 수자리를 살게 하였다. 이에 이르러 선덕제가 그의 조부 마극용(馬克用)이 일찍이 선조(先朝)에 힘껏 충정을 다한 점을 생각하여, 그 자손 가운데 뛰어난 자를 찾아 임용하도록 명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이 있었던 것이다.<sup>357)</sup>

成化十八年，四川巡撫孫仁奏：「三月內盜三百人入石砦，殺宣撫馬澄及隸卒二十餘人，

351) 黔江: 重慶市の 동남 邊緣의 武陵山 腹地에 위치한다. 商·周 시기에는 巴國의 땅이었고, 秦代에는 巴郡 소속이었으며, 漢初에는 涪陵縣에 속했다. 黔江縣은 東漢 시기에 처음 설치되었다.

352) 『太祖實錄』 卷155 洪武 16년 6월 乙巳條 참조.

353) 表文: 황제에게 바치는 문서를 가리킨다. 洪武 14년(1381)에 進賀表箋禮儀를 정하였는데, 황제의 생일인 天壽聖節과 正旦·冬至에 在外 각 아문은 미리 상주문(표문)을 바치고 賀禮하였다. 天壽聖節인 경우에 在外 5품 이상의 衙門은 단지 表文 1通을 바치고, 正旦·冬至에는 中宮과 皇太子에게 箋文 각 1통을 더 바쳤다. 조선·베트남 등도 명조에 입조할 때 표문을 바쳤다. 명초에 表文 등으로 인해 朝鮮과 明朝 사이에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그 실상에 대해서는 朴元燾, 2002: 6~30 참조.

354) 『太祖實錄』 卷176 洪武 18년 12월 丁巳條 참조.

355) 白金: 銀을 가리킨다.

356) 『太祖實錄』 卷207 洪武 24년 정월 壬子條 참조.

357) 『宣宗實錄』 卷65 宣德 5년 4월 己丑條 참조.

焚掠而去。以石砭地隣鄧都，互爭銀場相訐，有司不爲區治，致相仇殺。」命責有司捕賊。仁奏：「石砭歲辦鉛課五千一百三十斤，正統後停之。隣境軍民假以徵課，乘機竊取，釀成禍階。請除其課，閉其洞，仍移忠州臨江巡檢於鄧都南賓里之姜池，以便防守。」從之。是年，命馬徽爲宣撫。

성화 18년(1482)에 사천 순무 손인(孫仁)이 상주하여 아뢰기를, “3월에 성내(省內)의 도적 300명이 석주로 들어가 선무 마징(馬澄) 및 예졸(隸卒) 20여 명을 죽이고, 불을 지르고 약탈한 뒤 가버렸습니다. 석주는 땅이 풍도(鄧都)<sup>358</sup>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은광을 놓고 다투어 서로 비방하였는데, 담당 관원이 구분하여 죄를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어 죽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라고 하였다. [성화제는] 담당 관원에게 책임을 지워 구적을 체포하도록 하였다.<sup>359</sup> 손인이 상주하여 아뢰기를, “석주는 해마다 연과(鉛課) 5,130근을 바쳤는데, 정통(正統) 이후에 이를 정지시켰습니다. 인근 경계의 군민(軍民)이 부과(賦課) 징수를 대리하였는데, 기회를 이용하여 몰래 빼돌려 화의 원인을 양성하였습니다. 청컨대, 그 부과를 면제하고 그 광동(礦洞)을 폐쇄하며, 거둬서 충주(忠州) 임강(臨江)의 순검(巡檢)<sup>360</sup>을 풍도(鄧都) 남빈리(南賓里)의 강지(姜池)로 옮겨 수비에 편케 하시기 바랍니다”라 하니, [성화제가] 이를 허락하였다.<sup>361</sup> 이해에 마휘(馬徽)에게 명하여 선무사를 맡도록 하였다.

358) 鄧都: 四川 분지 동남의 邊緣의 長江 上流域에 위치한다. 산지를 등지고 강을 바라보는 형상의 古城으로서 춘추시대에는 ‘巴子別都’라고 칭했고, 東漢 和帝 永元 2년(90)에 단독으로 鄧都縣이라 定命하였으니, 지금까지 약 1,900여 년의 역사를 가진다. 고대부터 歷史文化의 名城인 鄧都는 현재 陰曹地府 소재의 ‘鬼城’으로 유명하다.

359) 『憲宗實錄』 卷227 成化 18년 5월 己丑條 참조. 다만 이 實錄의 기사를 보면, 孫仁의 上奏文 가운데 전반부만 孫仁의 말이었다. 즉 “……巡撫四川右副都御史孫仁奏: ‘三月內盜百人入石砭宣撫司, 殺宣撫馬澄及隸卒二十餘人, 焚其廬舍, 掠其財物.’ 事下兵部, 言: ‘石砭地隣鄧都 …….’”이라 되어 있다. 따라서 “석주는 땅이 풍도에 인접” 운운은 병부의 말로 보아야 한다.

360) 巡檢: 元·明·清 시대에 縣級 衙門 밑에 治安秩序를 유지하기 위해 설치된 巡檢司의 관원을 일컫는다.

361) 『憲宗實錄』 卷238 成化 19년 4월 丁巳條 참조.

萬曆二十二年，石砭女土官覃氏行宣撫事。土吏馬邦聘謀奪其印，與其黨馬斗斛·斗霖等，集衆數千，圍覃氏，縱火焚公私廬舍八十餘所，殺掠一空。覃氏上書言：「臣自從征疊·茂，擊賊大雪山，斬首捕寇，皆著有成勞，屢膺上官獎賞。今邦聘無故度劉孤寡，臣豈不能出一旅與之角勝負，誠以非朝命，不敢也。今叛人斯在，請比先年楚金洞舍覃碧謀篡事，願與邦聘同就吏。」二十三年命四川撫，按讞其獄，事未決。會楊應龍反播州，覃與應龍爲姻，而斗斛亦結應龍，兩家觀望，獄遂解。覃氏有智計，性淫，故與應龍通。長子千乘失愛，暱次子千駟，謂應龍可恃，因聘其女爲千駟妻。千駟入播，同應龍反。千乘襲馬氏爵，應調，與酉陽冉御龍同征應龍。應龍敗，千駟伏誅，而千乘爲宣撫如故。千乘卒，妻秦良玉以功封夫人，自有傳。

만력 22년(1594)에, 석주의 여성 토관 담씨(覃氏)가 선무사의 업무를 관장하였다. 토리(土吏) 마방빙(馬邦聘)이 그 관인(官印)을 빼앗으려 모의하여, 그의 일당인 마두곡(馬斗斛)·마두림(馬斗霖) 등과 함께 무리 수천 명을 모아 담씨를 포위하여, 불을 질러 공가(公家)와 사택(私宅) 80여 곳을 태우고, 살해와 약탈을 자행하였다. 담씨가 상서(上書)하여 아뢰기를, “신이 첨(疊)·무(茂)의 토벌작전에 종군한 이래로 대설산(大雪山)<sup>362</sup>에서 구적을 공격하여 목을 베고 포로로 잡았는데 모두 현저하게 공로가 있어 누차 상관의 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마방빙이 이유도 없이 고아와 과부를 살해하니, 신이 어찌 일단의 군대를 내어 그와 승부를 다투지 못하겠습니까만, 진실로 조정의 명령이 아니면 감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반란을 일으킨 자가 건재하니, 청컨대 전년에 초금(楚金)의 동사(洞舍)인 담벽(覃碧)이 찬탈을 도모한 사건에 비겨, 마방빙과 함께 관리의 심문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였다. [만력] 23년(1595)에 사천의 무안(撫按)에게 명하여 그 옥사(獄事)를 심리토록 하였으나, 사안이 아직 판결나지 않았다. 마침 양응룡이 파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담씨와 양응룡은 인친(姻親)이었고, 마두곡 또한 양응룡과 연결되어 있어 양가(兩家)가 관망하였는데, 옥사가 드디어 풀렸다. 담씨는 지모가 있었으나 성정(性情)이 음탕하여, 이 때문에 양응룡과 통간(通姦)하였다. 장자 마천승(馬千乘)<sup>363</sup>이 사랑을 잃자, [담씨는] 차자 마천사(馬千駟)를 가까이하였는

362) 大雪山: 四川省 西邊의 산맥을 가리킨다.

363) 馬千乘(1570~1613): 字는 肖容으로 石砭宣撫使였다. 伏波將軍 馬援의 후손으로 조상의 공로로 인하여

데, 양응룡을 의지할 만하다고 여겨 이로 인해 그의 딸을 맞이하여 마천사의 처로 삼았다. 마천사가 파주로 들어가 양응룡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마천승은 마씨(馬氏)의 작위를 계승하여, [조정의] 징발에 응하여 유양의 염어룡(冉御龍)과 함께 양응룡을 토벌하였다. 양응룡은 패하였고, 마천사는 복주(伏誅)되었으며, 마천승은 예전대로 선무사가 되었다. 마천승이 죽자 [그의] 처 진량옥(秦良玉)이 공로로 부인(夫人)<sup>364</sup>으로 봉해졌는데, 따로 전기(傳記)가 있다.

石砭縣의 土司를 세습하였다. 妻는 저명한 女將軍이자 忠貞侯인 秦良玉이고, 아들은 馬祥麟(驃騎將軍)이며, 손자는 馬萬年이다. 1613년에 內監 邱乘雲의 모함으로 옥중에서 病死하였다.

364) 誥命夫人을 가리킨다. 誥命은 誥書라고도 칭하는데, 황제가 관원에게 封贈하는 전용문서를 가리킨다. 誥란 위에서 아래에 고한다는 의미이다. 1품에서 5품까지의 관원은 誥라 하고, 6품에서 9품까지의 관원은 勅이라 한다. 誥命夫人은 그 남편의 관직에 따른다. 俸祿이 있을 뿐 實權은 없다.

## | 참고문헌 |

- 국사편찬위원회, 『中國正史朝鮮傳譯注』, 서울: 신서원, 2004
- 동북아역사재단 편, 『譯註 中國正史 外國傳(1~15)』,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9~2012
- 박원호 등 역, 『명사식화지 역주』, 서울: 소명출판, 2008
- 谷應泰, 『明史紀事本末』,臺北: 商務印書館, 1956
- 羅日燾, 『咸賓錄』, 北京: 中華書局, 2000
- 申時行 等 修, 『明會典』(萬曆朝重修本), 北京: 中華書局, 1989
- 鄂西土家族苗族自治州民族事務委員會 編, 『鄂西少數民族史料集錄』(내부발행), 1986
- 嚴從簡, 『殊域周咨錄』, 北京: 中華書局, 1993
- 周國林 分史 主編, 『二十四史全譯: 明史』,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2004
- 『明實錄』, 臺北: 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 校引本, 1965~1966
- 『土官底簿』(影印文淵閣四庫全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 吳晗 著, 박원호 譯, 『주원장전』, 서울: 지식산업사, 2003
- 다바타 히사오(田畑久夫) 著, 원정식·이연주 譯, 『중국소수민족입문』, 서울: 현학사, 2006
- 龔陰, 『中國土司制度』, 昆明: 雲南民族出版社, 1992
- 藍武, 『元·明時期廣西土司制度研究』, 暨南大學博士論文, 2005
- 林惠祥, 『中國民族史』 上·下冊, 臺北: 商務印書館, 1998
- 馬大政 主編, 『中國邊疆經略史』,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2000
- 楊紹猷·莫俊卿, 『明代民族史』, 新華書店, 1996
- 余貽澤, 『明代土司制度』, 臺北: 學生書局, 1968
- 吳永章, 『中國土司制度淵源與發展述略』, 四川民族出版社, 1988
- 尤中, 『中國西南邊疆變遷史』, 昆明: 雲南教育出版社, 1987
- 張德信, 『明朝典章制度』,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1999
- 陳名杰, 『明代西南土司制度研究』, 中央民族大學 博士論文, 2002
- 陳世松 主編, 『四川通史』 第五冊, 成都: 四川大學出版社, 1993
- 鄒逸麟, 『中國歷史地理概述』, 廈門: 福建人民出版社, 1999

佐藤長,『チベット歴史地理研究』,東京:岩波書店,1978

Harrell, S., ed., *Cultural Encounters on China's Ethnic Frontiers*, Seattle & London, 1995

Harrell, S., ed., *Perspectives on the Yi of Southwest China*, Berkeley, Los Angeles &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1

Harrell, S., *Ways of Being Ethnic in Southwest China*, Seattle & Lond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1

Nicola Di Cosmo and Don J. Wyatt, ed., *Political Frontiers, Ethnic Boundaries, and Human Geographies in Chinese History*, London & New York, 2003

Quincy, K., *Hmong, History of a People*, Cheney: Eastern Washington University Press, 1988

Schein, L., *Minority Rules, The Miao and the Feminine in China's Cultural Politics*, Durham &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00

Scott, J. C., *The Art of Not Being Governed: An Anarchist History of Upland Southeast Asia*, Yale University Press, 2010

Wiens, H. J., *Han Chinese Expansion in South China*, New Haven, 1954

Yves Hervouet, *Un Poète de cour sous les Han: Sseu-Ma Siang-Jou*,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64

賈霄鋒,「近百年來中國土司制度的史料整理研究」,『貴州文史叢刊』,2004-1

賈霄鋒,「二十多年來土司制度研究綜述」,『中國邊疆史地研究』,2004-4

賈霄鋒·王力,「近百年來中國土司制度的史料整理及研究綜述」,『青海民族研究』,2003-3

龔陰,「20世紀中國土司制度研究的理論與方法」,『思想戰線』,2002-5

龔陰,「略論土司制度的作用與流弊」,『西南民族大學學報(人文社科版)』,1989-2

譚佛佑,「明季平播抗清巾幗英雄秦良玉」,『貴州文史叢刊』,2009-9

雷翔,「明初整齊土司官制過程小考」,『湖北民族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1994-1

楊花,「明代渝東南地區土司制度研究」,重慶師範大學碩士論文,2011

楊花,「明代渝東南地區土司與中央政府的關係初探—以西陽·石砭為例」,『重慶交通大學學報(社會科學版)』,2010-4

冉敬林,「明代酉陽土司制度特点」,『貴州文史叢刊』,1995-4

姚香勒,「李化龍與播州之役」,『平原大學學報』,2004-2

于玲,「土司制度新論」,『中南民族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1997-4

- 衛心,「土司制度」,『青海民族研究』,1993-3
- 劉蒸,「明朝土司制度述論」,蘭州大學碩士論文,2008
- 李卿,「貴州彝族土司沿革考」,『貴州文史叢刊』,1996-4
- 李世愉,「明朝土司制度述略」,『中國邊疆史地研究』,1994-1
- 李良品,「論播州‘末代土司’楊應龍時期的民族關係」,『貴州民族研究』,2010-10
- 張貴淮,「播州楊氏興亡與平播之役」,『貴州文史叢刊』,2001-4
- 張萬東,「明代石砮土兵援朝戰爭辨析」,『黑龍江史志』,2012-4
- 張萬東,「明末石砮土司援遼戰爭史實考」,『綿陽師範學院學報』,2012-6
- 張婷,「明代四川土司述要」,『四川大學』,2005-4
- 陳對,「明代平播戰爭研究」,『西南大學』,2009-4
- 許立坤,「明代土司制度述略—明王朝民族政策研究之一」,『廣西社會主義學院學報』,1998-3
- 許立坤,「淺述明代羈縻衛所制—明王朝民族政策研究之二」,『廣西社會主義學院學報』,1998-4
- 黃開華,「明代土司制度設施與西南開發」,『明代土司制度』,臺北:學生書局,1968
- 岡野昌子,「明代土司制度考」,『待兼山論叢』1,1967
- 岡田宏二,「明代華南地域における土司の設置について」,『東洋研究』170,2008
- 戴逸 主編,『二十六史大辭典』,吉林:吉林文史出版社,1993
- 史爲樂 主編,『中國歷史地名大辭典』,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2005
- 臧勵酥 等 編,『中國古今地名大辭典』,臺北:商務印書館,1931
- 京大東洋史辭典編纂會,『新編東洋史辭典』,東京:創元社,1980
- 下中邦彥 編,『アジア歴史事典』,東京:平凡社,1962







동북아역사 자료총서 35

譯註 中國 正史 外國傳 15

明史 外國傳 譯註・5-土司傳・上

초판 1쇄 인쇄 2013년 11월 30일

초판 1쇄 발행 2013년 12월 10일

엮은이 동북아역사재단

펴낸이 김학준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임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e-mail book@nahf.or.kr

© 동북아역사재단, 2013

ISBN 978-89-6187-314-7 94910

\*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 제어번호: CIP2013025861)

\* 책값은 뒷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